學術調査報告 第416册

2018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

110 ~ 116

2020

한국문화재재단

〈일 러 두 기〉

1. 유구도면의 방위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서로 22.5° 범위 내에 해당되면 남-북향, 22.6~67.5°는 북동-남서/북서-남동향, 67.6~90°는 동-서향으로 기준을 적용하였다.
2. GPS 좌표값은 측지기준계 :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 GRS80, 투영법 : TM, 투영원점 : 동부원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도면의 축소비율은 유구는 크기 및 성격에 따라 1/20~1/80을 적용하였으며, 유물은 토기 및 자기 1/3, 기와 1/4~1/6, 철기 · 석기 1/2 · 장신구 1/1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도면 하단에 축척을 함께 표기하였다.
4. 유구의 입 · 단면도에 표기한 수치는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5. 유물은 같은 기종이 4점 이상인 경우 표로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6. 유물의 기고는 중심선을 계측하였으며, 片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7. 유물 기술 중 태토에 함유된 모래 입자의 굵기에 따라 0.1㎝ 미만을 세사립, 0.1~0.2㎝는 사립, 0.3~0.4㎝는 세석립, 0.5㎝ 이상은 석립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8. 토기(기와)는 소성된 상태에 따라 도질(경질), 연질로 구분하였다. 800℃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회청색, 회색, 흑회색을 띠며, 경도가 강하여 흡수성이 거의 없고 대체로 자연유로 인해 기면에 유리질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도질(경질)로, 산화염에서 구운 토기로 적갈색계통의 색조를 띠는 것을 연질로 구분하였다.
9. 인화문토기의 문양 중 종장연속문의 시문은 "宮川禎一"(1988,「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叢, 歷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事業會)의 문양 시문수법을 참고하여 종방향으로 한번 찍었거나 겹쳐서 찍은 문양은 "A"시문수법, "∧"자 또는 "V"자 형태로 꼭지점의 반대쪽을 벌어지게 찍은 문양은 "B"시문수법, 종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찍은 문양은 "C"시문수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0. 기와는 정치한 상태에서 4등분하여 좌측 상 · 하부, 우측 상 · 하부로 구분하고 잔존 및 결실 부위를 기술하였다.
11. 유구의 토층과 유물의 색조는 "日本農林水産省 農林水産技術會議事務局 監修 · 財團法人 日本色彩研究所 色票監修,『新版 標準土色帖』2007", "Albert H. Munsell,『MUNSELL SOIL COLORCHARTS』, 1994, revised edition"을 참고하였다.
13. 본 문의 일러두기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에만 해당하며, 기타 기관의 일러두기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14. 본 보고서는 123개 유적을 조사완료일에 묶은 분책으로 총 2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책별로 수록 목록을 보고서 마지막에 게재하였다.
15.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2018년도 소규모 발굴조사는 문화재보호기금(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목 차

110. 사천 늑도동 23번지 유적(경상문화재연구원) …… 110-1
111. 장흥 봉림리 121-1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11-1
112. 서울 저동2가 46-27번지 외 1필지 유적(수도문물연구원) …… 112-1
113. 공주 교동 52-2번지 외 2필지 유적(고운문화재연구원) …… 113-1
114. 포항 만석리 82번지 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 114-1
115. 경주 사정동 53-4번지 외 1필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 115-1
116. 부여 왕포리 79-1번지 유적(동방문화재연구원) …… 116-1

Ⅲ. 조사보고

110. 사천 늑도동 23번지 유적

경상문화재연구원

목 차

Ⅰ. 조사개요 …… 110 -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10-10

Ⅲ. 조사내용 …… 110-23
1. 시굴조사 …… 110-23
2. 정밀발굴조사 …… 110-24
〈초기철기시대〉 …… 110-26
1) 수혈 …… 110-26
(1) 1호 수혈 …… 110-26
(2) 2호 수혈 …… 110-29
2) 주혈 …… 110-30
(1) 주혈1~27 …… 110-30
〈근대〉 …… 110-35
1) 민묘 …… 110-35
(1) 1호 민묘 …… 110-35

Ⅳ. 조사성과 …… 110-39

도 면 목 차

도면 1. 지질도(1/50,000, 출처:한국지질연구원) …… 110-13
도면 2.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분포도(1/25,000) …… 110-19
도면 3. 일제강점기 지형도(1/50,000) …… 110-20
도면 4. 지형도(1/5,000) …… 110-21
도면 5. 지적도(1/1,000) …… 110-22
도면 6.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축척부동, 출처: 한국문화재재단) …… 110-23
도면 7. 기준층위도 A-A′(1/40) …… 110-25
도면 8. 기준층위도 B-B′(1/40) …… 110-26
도면 9. 발굴조사 유구배치도(1/200) …… 110-27
도면 10. 1호 수혈 평면도 및 단면도, 토층도(1/30) …… 110-28
도면 11. 1호 수혈 출토유물(1 · 2:1/3) …… 110-28
도면 12. 2호 수혈 평면도 및 단면도, 토층도(1/30) …… 110-29
도면 13. 2호 수혈 출토유물(3 · 4:1/3) …… 110-30
도면 14. 주혈군 평면도(1/60) …… 110-33
도면 15. 주혈군 토층도(1/60) …… 110-34
도면 16. 주혈군 출토유물(5-주혈10, 6-주혈13, 7-주혈16, 5 · 6:1/3, 7:1/2) …… 110-35
도면 17. 1호 민묘 평면도 및 단면도, 토층도(1/30) …… 110-36
도면 18. 제토 중 수습유물(8~13:1/3) …… 110-38

도 판 목 차

도판 1. 발굴조사지역 원경(①:남동-북서) 및 전경(②:남서-북동) …… 110-43
도판 2. 조사대상지 조사 전 전경(①), 초기철기시대 1호 수혈 전경(②:조사 전, ③:조사 후) 및 토층(④), 출토유물(1 · 2), 2호 수혈 전경(⑤:조사 전, ⑥:조사 후) …… 110-44
도판 3. 초기철기시대 2호 수혈 토층(①) 및 유물 출토양상(②), 출토유물(3 · 4), 주혈군 조사 전 전경(③) …… 110-45
도판 4. 초기철기시대 주혈군 조사 후 전경(①), 주혈1 전경(② 및 토층(③), 주혈2~5 전경(④:조사 중, ⑤:조사 후) …… 110-46
도판 5. 초기철기시대 주혈2~5 토층(①:주혈2, ②:주혈3, ③:주혈4, ④:주혈5), 주혈6 전경(⑤) 및 토층(⑥), 주혈7~10 전경(⑦), 주혈7(⑧) …… 110-47
도판 6. 초기철기시대 주혈8(①), 주혈9(②), 주혈10(③), 주혈11 · 12 전경(④) 및 토층(⑤:주혈11, ⑥:주혈12), 주혈13~21 전경(⑦), 주혈13 · 14(⑧) …… 110-48
도판 7. 초기철기시대 주혈13 토층(①), 주혈15 전경(②) 및 토층(③), 주혈16 전경(④) 및 토층(⑤), 주혈17~19 전경(⑥) 및 토층(⑦:주혈17, ⑧:주혈18) …… 110-49
도판 8. 초기철기시대 주혈19 토층(①), 주혈20 · 21 전경(②) 및 토층(③:주혈20, ④:주혈21), 주혈22 전경(⑤) 및 토층(⑥), 주혈23 전경(⑦) 및 토층(⑧) …… 110-50
도판 9. 초기철기시대 주혈24 전경(①) 및 토층(②), 주혈25 전경(③) 및 토층(④), 주혈26 전경(⑤) 및 토층(⑥), 주혈27 전경(⑦) 및 토층(⑧) …… 110-51
도판 10. 주혈군 내 출토유물(5-주혈10, 6-주혈13, 7-주혈16), 근대 민묘 전경(①:조사 전, ②:조사 후) 및 토층(③), 제토 중 수습유물(8) …… 110-52
도판 11. 제토 중 수습유물(9~13), 조사광경(①), 제토작업광경(②), 학술자문회의 광경(③), 안전교육(④) …… 110-53

Ⅰ. 조사개요

1. 조사경위 및 경과

사업시행자 황종길은 사천시 늑도동 23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신축(대지면적 : 723㎡, 연면적 181.65㎡)을 위하여 사천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사천시에서는 사업대상지가 사적 제450호 늑도 유적의 1구역(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한 형상변경허용기준)에 해당하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임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했다. 이번 발굴이 국비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국비지원 시굴조사를 신청하여 문화재청 허가 제2018-0864호를 획득했다.

시굴조사는 택지조성부지(723㎡)에 대해서 2018년 7월 25일~2018년 7월 27일(3일간) 한국문화재재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당시 설정된 6개소의 트렌치 중 1개소(3트렌치)에서 구상유구 1기와 수혈 2기가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발굴전환면적 204.9㎡가 제시되었다. 이후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대행발굴조사를 의뢰받아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맡게 되었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후 한국문화재재단의 소규모 국비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문화재연구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었다.

발굴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1월 26일까지이다. 조사면적은 204.9㎡로 전체면적에 대한 전면발굴을 원칙으로 하였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수혈 2기, 주혈 27기와 근대 민묘 1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무문토기편, 컵형토기, 미완성석기 등 총 13점이 출토되었다.

이상의 조사경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경과

성격	조사 기관	조사기간	조사 면적(㎡)	내용	비고
시굴 조사	한국 문화재 재단	2018. 7. 25. ~ 2018. 7. 27.	723	트렌치 6개소 설치. 3트렌치 구상유구1기와 수혈 2기 확인.	204.9㎡에 대한 발굴조사 필요성 제기.
발굴 조사	경상 문화재 연구원	2018. 11. 12. ~ 2018. 11. 26.	204.9	초기철기시대 수혈 2기, 주혈 27기와 근대민묘 1기 확인.	

【표 2】 학술자문회의 내용 및 유적 처리 결과

회의 일자	2018년 11월 23일
자문 위원	이동희(인제대학교 인문문화융합학부 교수) 이범홍(경상남도문화재 전문위원)

유적 성격	- 늑도 A지구 유적의 남사면에 해당한다. - 초기철기시대의 부정형수혈 2기, 주혈 22개 외에 조선후기 이후로 추정되는 민묘 1기가 확인되었다.
회의 의견	- 늑도 A지구 남사면지역은 지금까지 조사된 적이 없어 북사면지역과 대비된다. - 발굴조사대상지의 면적이 협소해서 이 주위 일대로 발굴지가 확장되면 유적의 성격이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주택신축은 계획대로 시행해도 무방함.
처리 결과	주택신축공사시행

이번 조사의 목적은 사업대상지인 늑도동 23번지 일원에 대해 시굴에서 발굴로 전환된 사업부지에서 발견된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보존여부를 판단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발굴조사 결과,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수혈 2기, 주혈 27개 외에 근대 민묘 1기가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호형무문토기편 및 완형의 컵형토기, 고석 등 총 13점이 출토되었다. 단면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유적의 중심시기는 기원전 2~기원후 1세기경으로 추정된다. 2018년 11월 23일 개최된 학술자문회의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해 기록보존 완료후 계획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조사단 구성

발굴조사에 참여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조사당시 직책임)

조 사 단 장 : 노태섭(경상문화재연구원장)
책임조사원 : 이승일(경상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조 사 원 : 고경희(경상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준 조 사 원 : 김진율(경상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오영진(경상문화재연구원 연구원)

3. 보고서 작성

본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각 부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총 괄 : 노태섭
연 구 기 획 : 이승일
원 고 작 성 : Ⅰ. 조사개요 – 이승일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김진율
Ⅲ. 조사내용 – 이승일(유구), 고경희(유물)
Ⅳ. 조사성과 – 이승일
유 구 도 면 제 도 : 조경옥

유물정리·복원·탁본 : 장옥선, 오호영, 김은자, 김현숙
유 물 실 측 : 오호영, 김은자, 김현숙
유 물 도 면 제 도 : 김은경
유 물 사 진 촬 영 : 김경덕(함춘원)
원 고 편 집 : 이승일, 고경희
도면 · 도판 편집 : 고경희
교 정 · 교 열 : 노태섭, 정기진, 이승일, 조재영, 고경희
행 정 업 무 : 이태봉

발굴조사와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유적의 조사 방향과 해석에 많은 지도와 자문을 해주신 이동희(인제대학교 인문문화융합학부 교수) · 이범홍(경상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그 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현장과 실내에서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자연 · 지리적 환경

사천시는 한반도의 동남단 경상남도의 남서부에 위치한다. 사천시는 한려수도의 중심기항지로서 동쪽은 고성군, 서쪽은 하동군, 남쪽은 한려수도 건너 남해군으로 이어지고, 북쪽은 진주시에 접하고 있다. 수리적으로는 동경 127°54′ ~ 128° 11′, 북위 34° 56′ ~ 35° 09′에 위치하며, 면적은 398.21㎢(2008년)로서 경상남도 면적의 3.8%를 차지하며 경상남도 관할시군 중 15번째이다. 지리적으로 해상교통의 요지이자 서부경남의 관문 항구로 수산물의 집결지이다.[1)]

사천시의 지형은 소백산맥의 여러 갈래 지맥에 둘러싸여 있어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이 되지 못하며, 동남쪽 경계에 길게 형성된 와룡산(臥龍山:해발 799m) · 흥무산(興霧山:해발 455m) · 이명산(理明山:해발 570m) · 봉대산(鳳臺山:해발 409m) · 구룡산(九龍山) · 남산(南山) · 성황당산(城隍堂山:해발 210m) 등이 솟아 있고, 남쪽은 점차 낮아지다가 해안가에 이르러 각산(角山:해발 398m)이 솟음으로서 해안구릉이나, 고립구릉의 형태를 보이며, 그 줄기가 이어져 남쪽으로는 리아스식 해안인 사천만과 개섬, 진도, 월등도 등이 형성되어 있다.[2)]

하천은 덕천 · 사천 · 죽천 · 백천 · 곤양천 등이 있고 그 흐름은 곤양천(昆陽川) · 가화강(加花江) 등이 남동류하며, 사주천(泗州川) · 길호강(吉湖江) 등도 북동부를 지나 사천만으로, 와룡산과 주변 산지에서 발원한 한내천 · 봉현천 · 좌룡천 등의 하천이 남서방향으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하천이 유입되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옥한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농 · 어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기후는 내륙 깊숙이 들어온 사천만의 영향으로 온난 습윤한 난대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기후는 약 14℃ 정도로 1월 평균기온은 1℃ 내외, 8월 평균기온은 25℃ 내외로 연교차가 비교적 작다. 연평균 강수량은 1,400㎜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많다. 식생은 대부분 난대성 식물로서 대나무 · 동백나무 · 탱자나무 · 비자나무 · 팽나무 등이 서식하며, 해양에서는 쥐치 · 멸치 · 갈치 · 전어 · 고등어 등과 백합 · 굴 · 새꼬막 등의 조개류가 많이 서식한다.

사천 일대의 지질은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白堊期)에 이루어진 퇴적 및 화성활동(火成活動)에 의해 이루어진 경상계(慶尙系)지층에 속한다. 경상계지층은 주로 중생대 퇴적층으로서, 이에 속하는 퇴적암류(堆積巖類)와 이들의 관입(貫入) 혹은 분출한 화성암류(火成巖類)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크게 경남서부의 낙동통(洛東統), 경남동부의 신라통(新羅統)과 불국사통(佛國寺統)으로 구분된다.[3)] 사천만을 중심으로 동쪽지역은 하양층군(下陽層群)이, 서쪽지역은 신동층군(新東層群)이 분포하며, 남쪽의 산지는 불국사통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적암층으로는 마동층(馬洞層)이 곤양 덕천강 유역에서부터 곤양 묵곡리 · 환덕리를 거쳐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중생대 낙동계에 속하며, 서포면 자혜

---

1) 경상남도 사천시 홈페이지 참조. http://www.sacheon.go.kr.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과학기술부(한국자원연구소), 1998, 『부산 지질도폭 설명서』.

리 구간에서는 식물수건화석층인 공룡화석으로 보이는 암층이 있다. 충적층은 사천읍의 서남부와 북부의 덕천강 유역에 넓게 분포하며, 미고결(未固結) 상태 역사(礫砂), 니토 등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지층을 보인다.[4]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늑도는 섬의 크기가 길이 970m, 너비 720m, 면적 46만㎡이고 섬의 남쪽에는 큰섬산(해발 90m)에, 북쪽에는 작은섬산으로 불리우는 산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다. 두 산봉우리 사이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마을과 전지로 이루어지며 동쪽과 서쪽에 사빈이 있어 정박지로 이용되며, 남서 · 남동 · 북서쪽은 급경사면을 이룬다. 주변에는 창선도 · 학섬 · 초양도 · 신도 · 마도 · 딱섬이 있으며 주변의 바다는 조류 속도가 1.8~2.7m/sec 정도이다. 남쪽에 창선도와 큰섬산이 위치하기에 정박지는 태풍에도 안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5] 늑도는 남으로 남해 창선도, 북으로 사천만과 삼천포 일대, 동으로 사량도와 고성만, 서로는 노량 인근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 삼천포와 창선도 사이의 대방수로는 유속이 매우 빠르며 늑도는 주변 섬에 비해 식수가 풍부한 편이기도 하다. 한편, 통영-여수간 연안항로를 이동하는 배가 남해도 외곽의 먼길을 돌아가지 않고 이동하려면 배방수도를 반드시 통과해야하며 현재는 발동선이지만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기에 대방수도의 중간에 위치한 늑도가 기항지이며 국제시장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고 · 역사적 배경

1) 고고학적 배경

사천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인간 활동의 흔적이 확인되는데, 가장 이른 시기인 구석기시대의 유적부터 확인된다. 사천 이금동 구석기유적(泗川 梨琴洞 舊石器遺蹟)[6]에서 5점의 석핵과 30여점의 격지가 수습되어 구석기시대 유적의 조사가 전무한 남해안 지역의 표지적인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는 곤양면 중항리 유적, 서포면 구평리 유적,[7] 동서동 늑도 유적[8]이 있다. 구평리 유적은 신석기시대 후기에 조성된 취락과 이에 딸린 패총으로 구성되어 있다. 늑도유적(경상남도 기념물 제75호)에서는 삼국시대 패총의 아래층에서 융기문토기(隆起文土器), 태선침선문토기(太線沈線文土器), 이중구연토기(二重口緣土器) 등 신석기시대 전 기간에 걸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로 접어들면 이미 상당한 인구가 이 지역에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다수의 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 특히 해안평야지대를 중심으로 곳곳에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금동 지석묘군,[9] 봉남동 지석묘군, 신벽동 지석묘군(경상남도 기념물 제39호), 죽림동 지석묘군, 신복리 지석묘군, 덕곡리 지석묘군(경상남도 기념물 제49호), 구월리 지석묘군, 병둔마을 지석묘군, 송지리 지석묘 등이 있다. 그리고 취락유적인 본촌리 유적에서는 장방형주거지 18동과 석관묘 4기가 발

4) 농촌진흥청 영남작물시험장 · 농업기술연구소, 1977, 『정밀토양도 삼천포시 및 사천군』.
5) 이재현, 2016, 「늑도유적의 성격과 사회구조」, 『늑도와 하루노쓰지를 통해 본 동아시아교류의 양상』.
6)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사천 이금동 구석기유적』
7)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3, 『사천 구평리유적 -신석기시대 조개더미 발굴보고-』
8) 부산대학교 박물관, 2004, 『늑도패총과 분묘군』
9)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사천 이금동 유적』.

굴조사되었다[10]. 최근에는 사천시청 건립부지에서 대규모 취락유적이 발굴조사된 바 있다.[11]

초기철기 ·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유적은 해안구릉과 도서에 분포하고 있는데, 늑도 유적,[12] 방지리 유적,[13] 덕곡리 유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늑도 유적에서는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이어지는 단계의 삼각형점토대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유물과 중국의 오수전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늑도 일대는 고대 한 · 중 · 일 삼국간의 교류관계에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확인시켜주며, 동북아시아의 해양교류사를 규명할 수 있는 유적으로 부상되었다. 또한, 방지리 일대의 해안 구릉에서도 이 시기의 취락과 패총 등이 조사되어 당시 사천만을 중심으로 활발한 인간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천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시기는 삼한 · 삼국시대로부터 비롯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의 기록과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에 '史勿國'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사등동 고분군, 두량리 고분군,[14] 예수리 고분군,[15] 월성리 고분군,[16] 우천리 고분군, 선진리 고분군,[17] 송지리 고분군,[18] 향촌동 농공단지부지 내 유적 등이 있다. 이중 일부가 조사된 예수리 고분군과 선진리 고분군에서는 가야 수혈식석곽과 왜계 석실이, 월성리 유적에서는 신라계 석실이 조사되어 시기차에 따른 정치세력의 추이를 판단할 수 있다. 이외 삼한 · 삼국시대 취락유적으로 봉계리 유적,[19] 덕곡리 유적,[20] 사천 월성리 유적,[21] 두량리 관율주거지 등이 있다. 방어를 위한 성곽으로는 각산산성, 성황당산성 등이 알려져 있다. 각산산성은 삼천포항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성황당산성은 현문이 설치된 곳으로서 삼국시대까지 사천의 읍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읍성으로도 불린다.[22]

고려시대의 유적으로는 선진리토성이 있는데, 토성의 길이는 1㎞가 넘으며, 임진왜란 당시 왜국이 점령하여 왜성을 선진리토성 위에 축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곤명면의 금성리토성지는 퇴뫼식 산성이며, 총 둘레 약 2㎞, 면적 약 26,400㎡이었지만, 지금은 토축 길이 약 300m, 높이 약 1m, 너비 약 1.5m 정도만 남아 있다.[23]

---

10) 경상대학교 박물관, 1997, 『사천 본촌리 폐사지』.
11)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사천 덕곡리 유적 Ⅰ-丘陵-』.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사천 덕곡리 유적 Ⅱ-低濕地-』.
12) 부산대학교 박물관, 1988, 『늑도주거지』.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늑도패총 A지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6, 『사천늑도 진입로 개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 『사천 방지리 유적』.
경상대학교 박물관, 2007, 『사천 방지리 나지구 유적』.
14) 부산대학교 박물관, 1988, 『가야문화권유적정밀지표조사보고서-사천군 · 하동군』.
15) 동아대학교 박물관, 1978, 『사천 예수리 고분』.
16) 경상대학교 박물관, 1998, 『사천 월성리 고분군』, 경남개발공사.
17) 부산대학교 박물관, 1988, 『가야문화권유적정밀지표조사보고서-사천군 · 하동군』.
1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9, 『사천 송지리 옛 무덤떼』.
19)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사천 봉계리 삼국시대 집락』.
20)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사천 덕곡리 유적』.
21)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사천 월성리 유적』.
22) 사천시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사천시』.
23) 사천시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사천시』.



도면 1. 지질도(1/50,000, 출처: 한국지질연구원)

불교문화재로는 곤명면 용산리에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인 다솔사(多率寺)가 있다. 다솔사 대양루(大陽樓,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 극락전(極樂殿,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8호), 응진전(應眞殿,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9호) 등이 있다. 곤양면 흥사리에 보안암석굴(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호)이 있는데 일명 미륵암이라고 하며 창건연대는 명확하지가 않다. 곤양면 흥사리에는 이 지역 사람들의 안녕과 미륵보살의 하생을 축원하며 건립한 사천매향비(泗川埋香碑, 보물 제614호)가 있다.

관방유적은 사천읍성 · 곤양읍성을 비롯하여 각산산성(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5호), 사천 조명군성(泗川朝明軍城, 경상남도 기념물 제80호), 사천 선진리성 등이 있다.

2) 역사적 배경

사천지역에는 언제부터 정치체가 성립되었는지 알려주는 기록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에 주변지역의 낙노국(樂奴國/하동), 고순시국(古淳是國/진주),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고성) 등의 소국명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사천지역 또한 이들 소국과 연결되거나 유사한 정치체를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천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三國遺事』 勿稽子條와 『三國史記』 地理誌에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경남에서 전남지역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의 해양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해양문화집단인 '浦上八國'의 존재이다. 이 포상팔국[24]은 그 세력이 당시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발전하던 가야연맹체나 신라와도 충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포상팔국이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다.[25] 지금의 사천지역 인근이 그 중 하나로 보이는 '史勿國'으로 비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포상팔국에 대한 기록이 신라와의 갈화성(竭火城)전투 이후 문헌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전쟁 후 상당한 타격을 입어 그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였거나 멸망하였던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신라에 편입되면서 사물현(史勿縣)이 되었다가 경덕왕 16년(757) 행정개편으로 '泗水縣'으로 개칭하고, 당시 고성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26]

고려시대에는 신라의 사수현(泗水縣)을 진주목으로 이속하였으며, 서부의 곤양지역은 신라시대의 이름을 알 수 없으나, 태조 23년(940)에 '昆明縣'으로 명칭이 개칭되었다. 그리고 성종 14년(995)에 12목을 '12주 절도사'로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하게 되는데, 이때 진주지역에는 전국 10도 중 하나인 '山南道'가 설치되어, 당시의 사수현을 비롯한 10주 37현을 소관하게 하였다. 현종 2년(1011)에 사천이라 이름을 고치고, 현종 6년(1015)에는 사수현을 사주로 승격 개명하였다. 명종 2년(1172)에는 감무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됨에 따라 진주목의 속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성종 때 조세미의 수송을 위하여 전국에 12조창을 두었는데, 그 중의 하나인 통양창(通陽倉)이 사천현의 남쪽 통조포(通潮浦-지금의 용현면 선진리)에 설치되었다. 삼천포란 지명은 통양창이 개성에서 수로 3,000리나 되는 먼 곳이라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성종 11년(992)에는 현종의 아버지인 안종욱이 사수현으로 유배되

---

24)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영 · 호남에 나뉘어 있었던 다수의 소국가로서 8개의 국가 중에서 그 위치가 비정된 곳이 4곳이다. 골포국-마산만, 칠포국-진동, 고사포국-고성, 사물국-사천.

25)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 第二 奈解尼師今 十四年條.

26)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어 와룡산의 배방사(排房寺-지금의 정동면)에서 일생을 마쳤고, 현종도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지냈던 것으로 전한다. 늑도의 본래 이름은 구라도(仇羅島)로서, 현재의 동서동과 늑도 사이의 좁은 해협을 구라량(仇羅梁)이라 불렀으며, 여기에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이 설치되었다가 고성현 사량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는데 그 존폐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말기에 이르러 남해안 및 내륙지방에 왜구의 약탈이 심하였는데, 특히 사천지역은 그 침입로가 되어, 우왕 5년(1379)과 그 이듬해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공양왕 4년(1392)에는 구라섬에 침입한 왜구를 만호 이흥인이 격파하고 전함을 노획하여 나라에 바쳤다고 한다.[27]

조선시대에는 태종 13년(1413)에 현의 이름을 사천으로 고치고 현감을 설치하였다. 1415년에는 진을 두어 병마사가 현정을 겸장하게 하였다. 세종 때에는 병마첨절제사를 두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고려말 이래로 이 지방이 왜구의 침투로로 자주 이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종 원년(1419)에 어태가 현의 북쪽에 위치한 소곡산에 안치하면서 당시의 남해현과 합하여 곤남군으로 승격하였다. 세종 24년(1442)에 다시 현으로 환원되면서 현을 고읍에서 현재의 사천읍으로 옮기고 읍성을 축성하였으며 관아를 신축하였다.[28] 세종 19년(1437)에는 곤남군에서 남해현을 다시 복구하면서 진주목의 금양부곡(金陽部曲)을 편입하여 곤양군이 되었으며, 이에 앞서 1430년에 곤양읍성을 축성하였다. 성종 19년(1488)에 이르러 삼천진을 설치하고 진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가 1,440척, 높이가 15척으로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초기인 선조 25년(1592)에 이순신(李舜臣)이 이끄는 수군이 거북선을 앞세우고 사천 선창에 있는 왜군을 외양으로 유인하여 전멸시킨 사천해전이 있었다. 정유재란 때는 조·명연합군이 선진성의 왜군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지 못하였다. 고종 32년(1895)에 지방관제가 개정되면서 사천군의 군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수반되었다. 창선면(昌善面)이 남해군으로, 문선면(文善面)이 진주군으로, 남양면(南陽面)은 고성군으로 분속되었다. 이듬해인 고종 건양 원년(1896)에 다시 '도체제'가 부활되면서 비로소 '慶尙南道 泗川郡'으로 행정개편되었다. 광무 10년(1906)에는 남양·문선·축동의 3면이 사천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군·면 통폐합시에 곤양군을 사천군에 통합하면서 금양면과 서면을 하동군에 이관하였다. 1918년 문선면과 수남면을 삼천포면으로 통합하였다. 1931년 삼천포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읍동면·읍서면·읍남면은 각각 정동면·사남면·용현면으로 개칭되었다. 1956년 삼천포읍과 남양면이 합쳐져 시로 승격되면서 사천면은 읍으로 승격되어 1읍 7면으로 편제되었다. 1942년 군용으로 개설된 비행장은 6·25사변 중 공군기지로 확장되었는데, 현재의 사천공항은 민간항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3년 곤양면 가화리 1부를 진양군 내동면에, 서포면 무고리·맥사리를 곤양면에 편입하였다. 1995년 도농통폐합으로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사천시가 탄생하였다. 2001년 동서·선구·동서금·벌룡·향촌·남양동의 6개 동과 사천읍 및 정동·사남·용현·축동·곤양·곤명·서포의 1읍 7면을 포함하는 행정구역을 이루게 되었다. 늑도동은 고종 광무 10년에 사천군에 편입되어,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초양섬을 병합하여 늑도라고 한 후 문선면에 속하다가 1918년 삼천포면에 편입되고 1956년 삼천포시로 승격되어 늑도동이 되었다.

---

27) 『高麗史』 卷四十六 〈世家〉第四十六 恭讓王 二年 四月 丁丑條.
28) 『世宗實錄』 二十四年 七月 二十日 戊寅.

3. 주변유적

조사대상지의 남쪽에는 사적 제450호로 지정되어 있는 늑도 유적이 있다. 늑도는 사천시와 남해 창선 사이에 4개의 크고 작은 섬이 열을 이루고 있는데 남해 창선과 바로 이웃하게 위치하는 가장 큰 섬이다. 1979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1985년과 1986년 두 차례에 걸려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1998년 늑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삼강문화재연구원(A지구),[29] 부산대학교 박물관(B지구),[30] 동아대학교 박물관(C지구)[31]이 주관하여 발굴조사를 하였다. 이후 2003년에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32]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늑도유적의 정확한 면모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10여 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패총과 제철유적, 무덤, 주거지 등과 함께 각종 토기류(도질토기, 야요이토기, 점토대토기 등) 13,000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섬 전체가 청동기시대에서 삼한시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최대유적 중 한 곳이다. 따라서 이 일대는 청동기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인간의 활동공간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지는 늑도 유적에 인접하고 있으며 반경 1㎞ 이내에 분포하는 유적 · 문화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천 늑도동 465번지 유적[33]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초양도 내 사천 바다케이블카 하부역사 설치에 따른 구제발굴에서 늑도 유적과 동일시기인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대형구 1기, 수혈 4기, 구상유구 1기, 주혈 5기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 개 21점, 소형토기 40점, 컵형토기 11점, 심발형토기 28점,호형토기편 5점, 파수부소호편 3점, 토제받침편 1점, 석검편 1점, 고석 1점, 무문토기편 3점이다. 유적은 사천시 늑도동 초양도의 구릉 정상부에서 해안지대로 이어지는 남쪽 구릉사면부에 위치한다. 학술자문회의 결과, 항해의 안전 등을 기원하는 해양제사유적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2) 사천 늑도 유적(사적 제450호)

늑도는 사천시 삼천포항과 남해군 창선도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으로 섬 전체에 대규모의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이 유적은 1979년부터 부산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 1985년과 198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988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경남고고학연구소, 부산대학교 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실시하여 많은 유적과 유물, 유구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패총과 무덤유구, 주거지 등과 함께

---

29) 삼강문화재연구원(전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勒島 貝塚』
30) 부산대학교 박물관, 2004,『勒島 貝塚과 墳墓群』
31)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5,『泗川勒島』
3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3,『사천 늑도 진입로 개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33) 경상문화재연구원, 2020,『사천 늑도동 465번지 유적-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하부역사(초양도)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각종 토기류(중국계 경질토기, 일본계 야요이토기, 점토대 토기 등), 반량전, 오수전, 한(漢)나라 거울 등 13,0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로 볼 때 이 유적은 섬 전체가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이어지는 단계의 삼각형점토대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유적이다. 사천 늑도 유적은 고대국가 초기단계에 형성된 복합유적으로서 한 · 중 · 일 간의 고대 동아시아지역의 문화교류 증거를 보여주는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3) 대방진 굴항(문화재자료 제93호)

대방진 굴항은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연안을 빈번히 침범하던 왜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구라량의 진영이 있던 곳이다. 그 뒤 구라량이 폐쇠되어 쇠퇴했던 것을 조선 순조(재위1801～1834) 때 진주 병마절도사가 진주목 관하의 창선도와 적량첨사와의 군사적 연락을 위해, 둑을 쌓아 굴항을 만든 것이다. 당시에는 300여 명의 상비군과 전함 2척을 상주시켜 병선의 정박지로 삼고 왜구를 방어하였다. 이 대방진 굴항을 쌓기 위하여 진주목 관하 73개면에서 수천명이 동원되어 1820년경에 완공하였다고 전한다.

4) 대방동 유물산포지 2

각산 남사면 말단부의 완사면에 위치하며 최근 개통된 산복도로가 구릉의 말단부를 관통하였다. 현재 계단식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기편, 자기편,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다. 백자의 기종은 대접이 주를 이루며, 모두 경질백자편이다.

5) 마도동 마도 토기산포지

마도(馬島)는 늑도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면적 0.5㎢의 작은 섬이다. 선착장 남쪽으로 민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산포지는 민가 뒤편의 밭 남동사면에 위치한다. 이 곳에서는 승문과 격자문이 타날된 토기편과 점열문이 시문된 토기편이 확인되며, 기와편과 백자편이 일부 확인된다. 섬의 정상부는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대지이지만, 유물이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6) 마도동 저도 토기산포지

마도(馬島) 서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조그마한 선착장 주변으로 민가가 들어서 있다. 민가에서부터 정상부까지 토기편이 확인되는데, 특히 평탄한 정상부 밭에서 토기편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유물은 타날된 토기편과 돌대가 둘러져 있는 장경호편 등의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7) 사천 늑도동 41-2번지 유적[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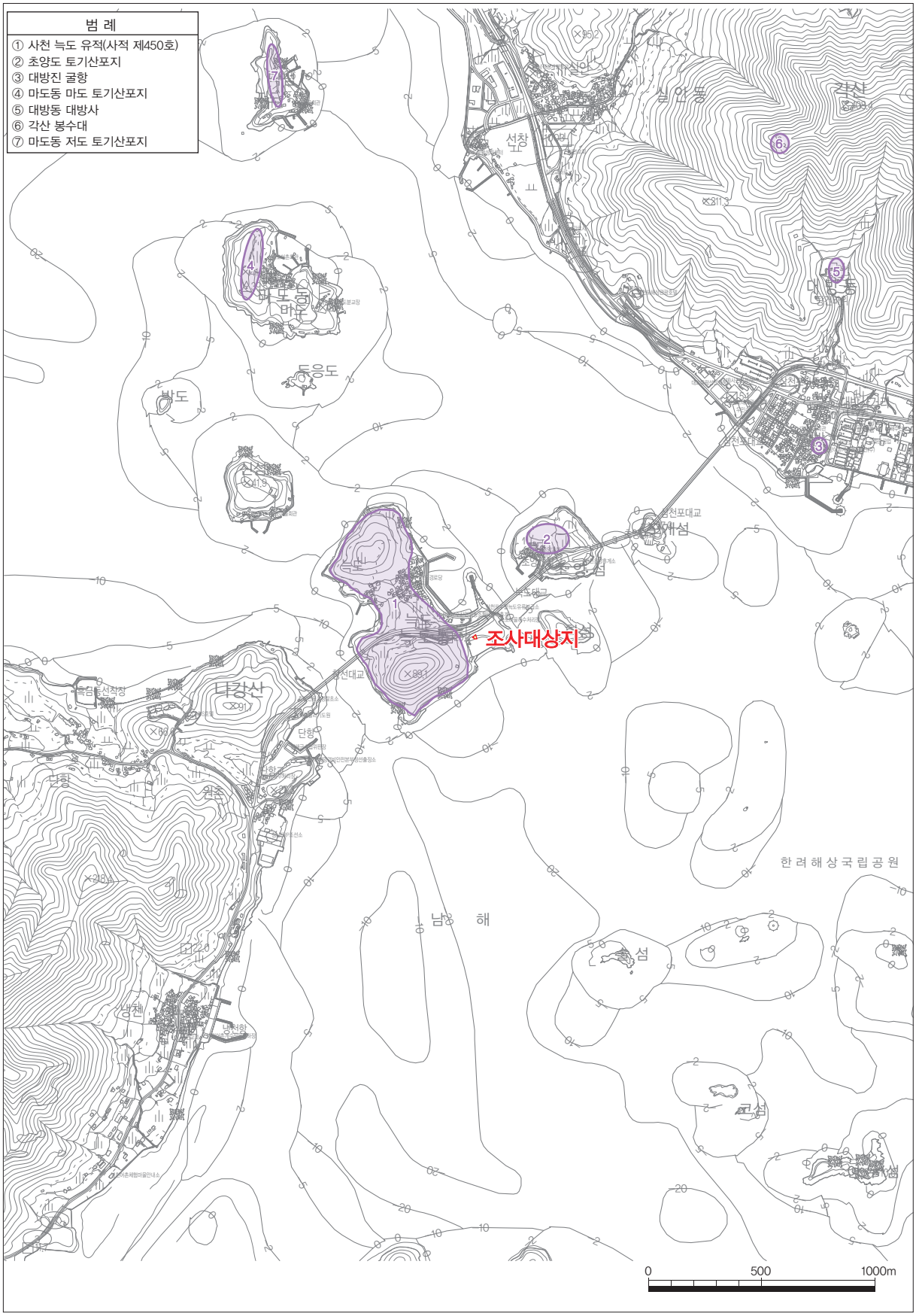
늑도동의 내만을 바라보는 동사면말단부에 위치하는 유적이다. 혼토패각층과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 혼토패각층에서 조간대 패류와 사슴 견갑골이, 유물포함층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 옹 구연부편, 두형토기 대각편 등이 출토되었다. 늑도패총과 동일시기의 유물로 판단된다.

8) 사천 늑도동 202번지 유적[35)]

삼천포에서 남해 창선으로 연결되는 3번국도에서 늑도하붓개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확장에 동반한 발굴조사가 있었다. 조사 결과, 상층은 교란이 심하며 하층에 초기철기시대의 수혈 7기와 구상유구 2기, 주혈 2기, 시대미상 구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편 3점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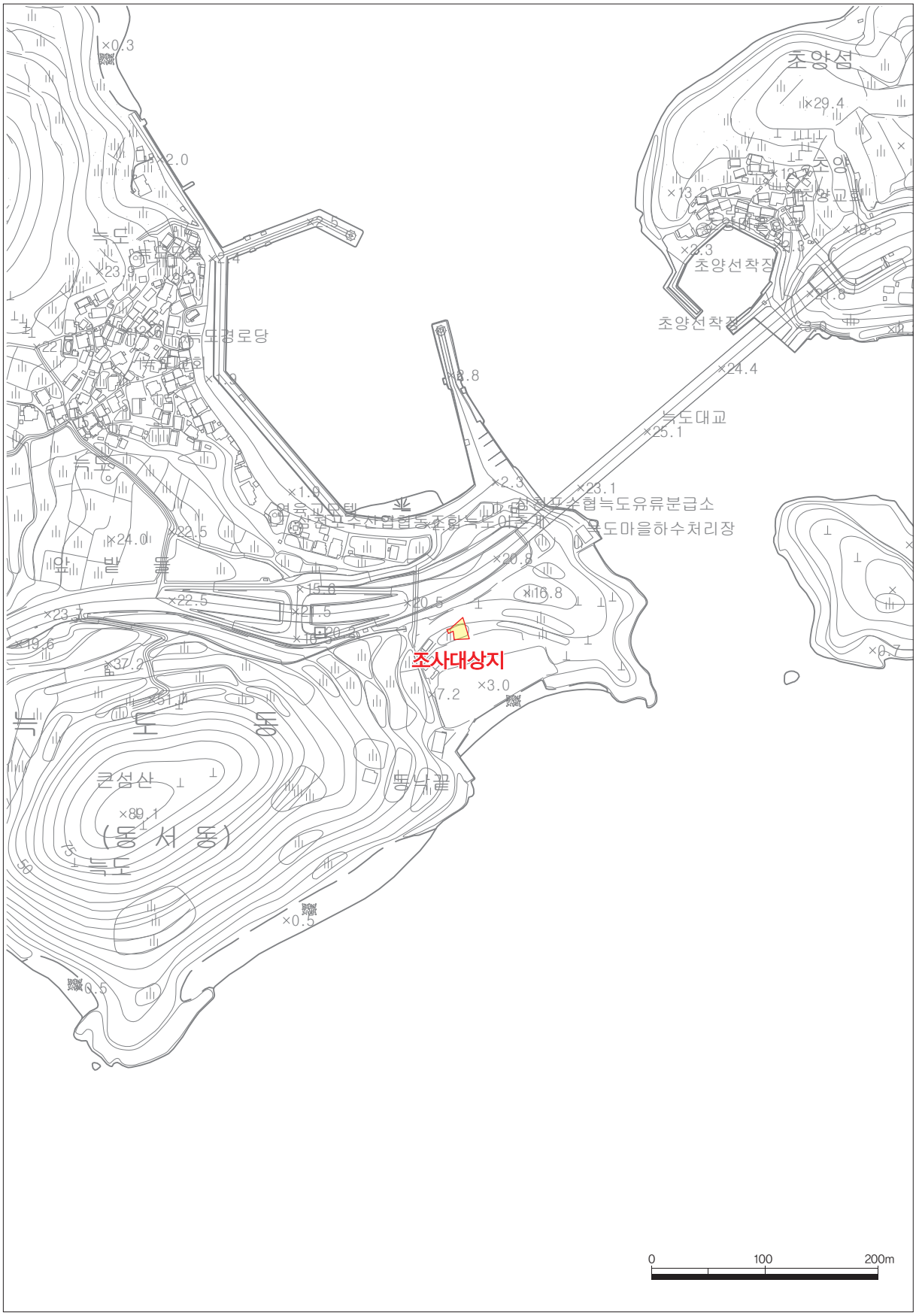
34) 한국문화재재단 ·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사천 늑도동 41-2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35) 경상문화재연구원, 2019, 『사천 늑도동 202번지 유적-늑도 하붓개마을 진압도로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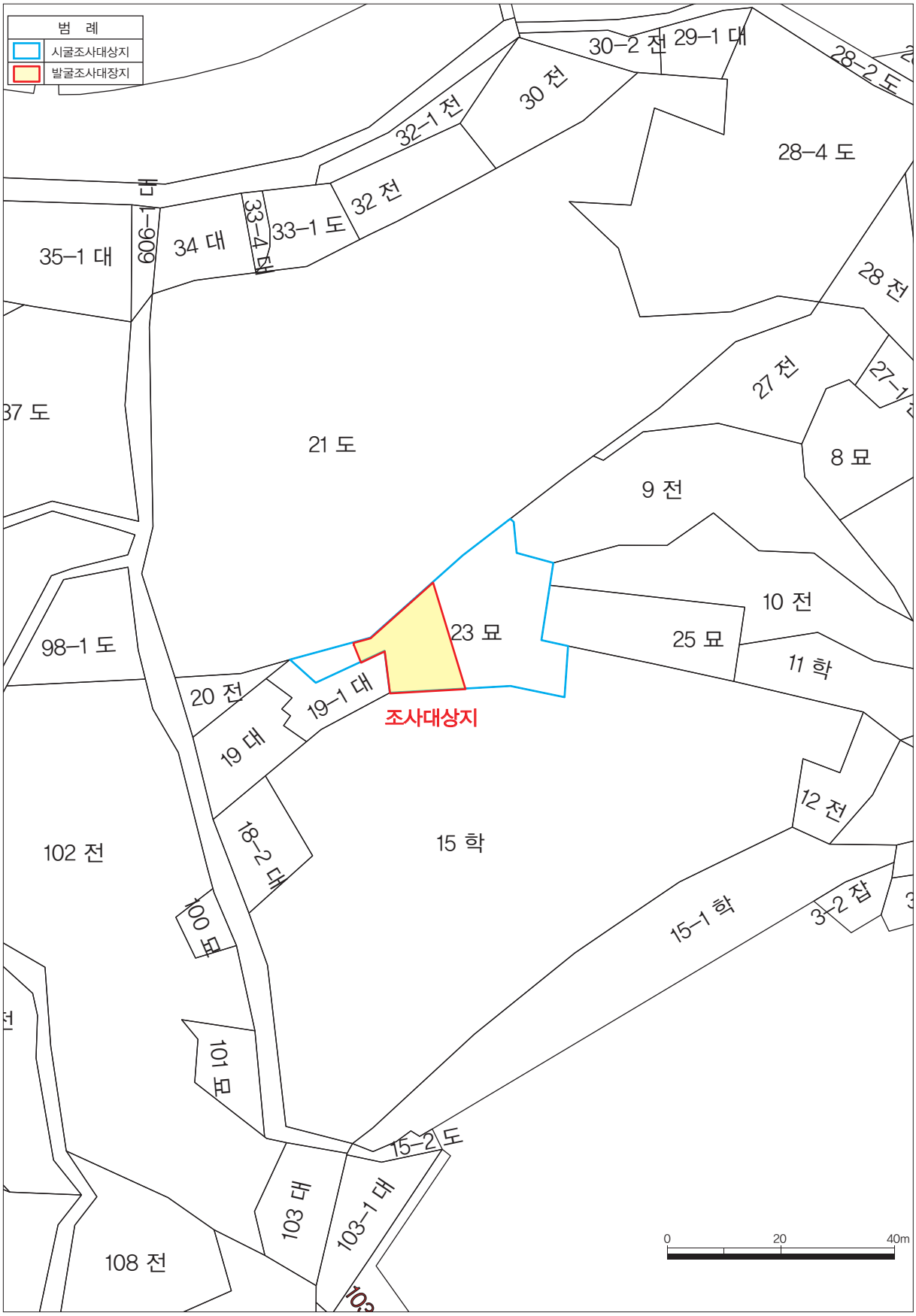
도면 2.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분포도(1/25,000)



도면 3. 일제강점기 지형도(1/50,000)



도면 4. 지형도(1/5,000)



도면 5.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1. 시굴조사

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문화재청 허가 제2018-0864호)를 받아 한국문화재재단에서 2018년 7월 25일에서 2018년 7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면적은 723㎡이다. 시굴내용에 대해 기보고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둔다.[36]

(1) 조사방법 (도면 6)



GPS측정 제원표

측지기준계 :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 GRS80, 투영법 : TM, 투영원점 : 동부원점

측점		좌표	측점		좌표
GPS1	X	258915.7623	GPS3	X	258885.4984
	Y	112320.6188		Y	112300.2757
	Z	14.98		Z	8.81
GPS2	X	258884.6496	GPS4	X	258887.6659
	Y	112330.8208		Y	112287.4928
	Z	6.47		Z	9.65

도면 6.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축척부동, 출처: 한국문화재재단)

36) 한국문화재재단, 2018.「-사천 늑도동 2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국비지원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조사는 기본적으로 트렌치법을 사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 남북방향으로 3개소, 진입로에 동서방향으로 1개소 등 총 4개소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트렌치 3에서 구상유구와 수혈이 확인되었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트렌치 1과 2 및 수목 사이에 트렌치 2개소 추가 설치하여 유구의 존재유무를 확인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트렌치 제토 및 유구확인은 층위를 파악하며 실시하였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생토층까지 제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층위

토층의 퇴적양상은 표토층-유물포함층-유구확인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토는 암갈색 사질점토이며 두께 15~17㎝ 정도로 확인되었다. 유물포함층은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편 등이 혼입된 흑갈색 사질점토로 두께 10~45㎝ 정도이며 트렌치 3 남쪽에서만 확인되었다. 유구는 생토층인 풍화암반을 굴착하였는데 표토에서 15~170㎝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토층	내용	
	1. 암갈색(10YR3/3) 사질점토 -비닐 및 현대폐기물 포함	표토층 (두께 15~80㎝ 정도)
	2. 흑갈색(10YR3/1) 사질점토 -점토대토기편 혼입	유물포함층 (두께 10~45㎝ 정도)
	3. 풍화암반층	유구확인층 (표토하 25~80㎝ 정도, 생토층 해발 8.0~13.0㎝ 정도)

삽입사진 1. 토층양상(출처:한국문화재재단)

(3) 트렌치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의 서쪽에 위치한 남북방향 트렌치이다. 규모는 길이 8.1m, 너비 2.0m, 깊이 0.1~0.8m 정도이다. 풍화암반에서 구상유구 1기와 수혈 2기가 확인되어 발굴전환면적 204.9㎡가 제시되었다. 이후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대행발굴조사를 의뢰받아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맡게 되었다.

2. 정밀발굴조사

(1)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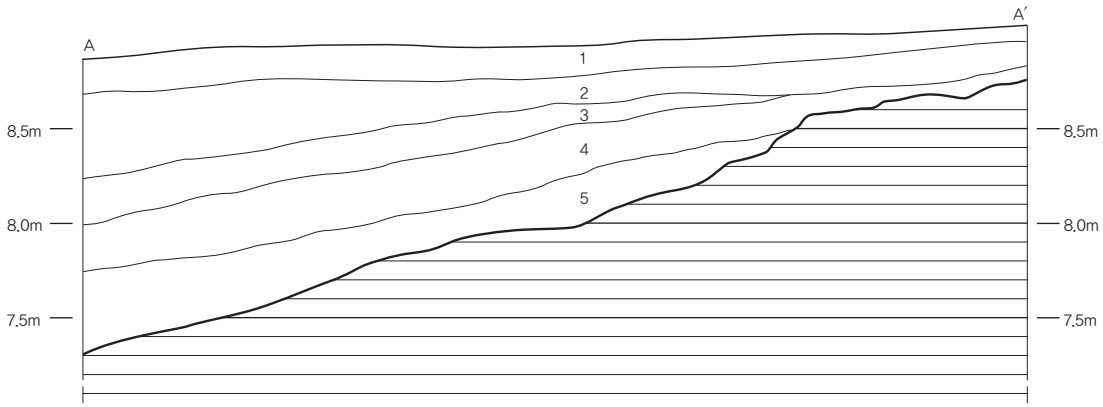
발굴조사대상지는 큰섬산의 정상부(해발 89m)에서 대방동 방면인 동쪽으로 뻗은 지맥의 남사면에 해당하며 조사대상지의 정남향에는 늑도초등학교가 위치한다. 늑도초등학교는 1923년 개교하여 2006년 폐교하였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현 운동장의 일정 부분은 내만한 사빈을 매립하여 조성하였으

며 여름철 태풍이 지나갈 무렵이면 현 교사(校舍) 전면까지 파도가 다다른다고 한다. 남쪽 해안으로부터 조사대상지까지 남북방향 직선거리는 약 75m이다. 게다가 조사대상지의 해발은 약 6~10m이다. 조사대상지의 서쪽에는 가옥 2채와 남북방향의 소로가 위치하며 동쪽에는 민묘 수기가 위치한다.

선행한 시굴조사에서 구상유구 1기와 수혈 2기의 어깨선이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경상문화재연구원 조사에서 구상유구는 풍화암반과 암반 사이를 관입한 명적갈색 점토층으로 인위적인 구조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 한국문화재재단이 조사한 수혈 1과 수혈 2는 이번 조사에서 주혈 1과 주혈 24로 유구명을 대체하였다.

조사대상지가 남고북저, 동고서저 지형이어서 토층의 퇴적방향에 맞추어 조사대상지의 중앙부에 남북방향의 중심둑을 설치하였다. 중심둑의 축선상에 그리드 기준점을 설치하고 자북방향으로 5m 그리드를 설정하였다. 기존의 3트렌치 서벽을 남북으로 연장하되 트렌치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폭 1m의 트렌치를 연장하여 굴착하강 조사하였다. 트렌치 내에서 암반면에 이르기까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기준으로 전면제토작업을 하되 조사대상지의 경계인 서벽, 북벽, 동벽의 퇴적상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 서벽의 퇴적양상이 유적의 형성을 이해할 양호한 자료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토층으로 삼았다. 그 결과, 유구는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유구설치면에 맞게 전면제토하여 유구의 어깨선을 확인하고 개별유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층위 (도면 7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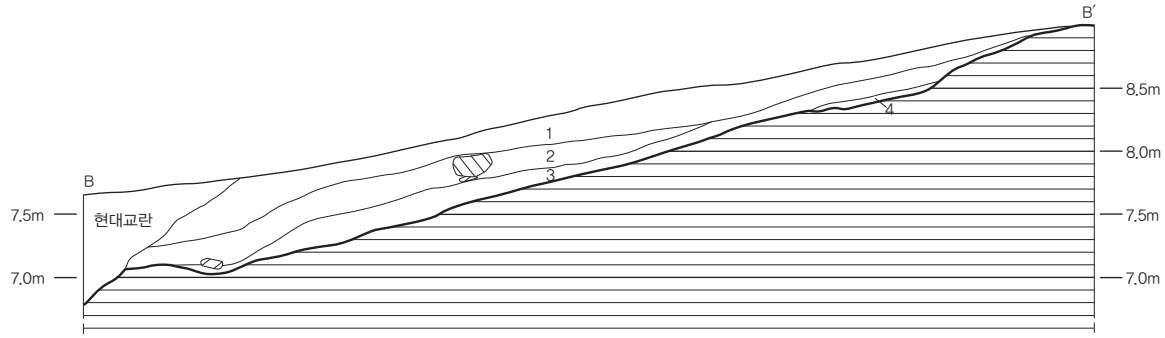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밀도 낮음. 현대 부식층.
2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6).
3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3). 소토 및 유물편 포함.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띰.
4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유물편 및 암반편 소량 혼입.
5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암반편 소량 혼입.
6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점성 약간 있음. 밀도 단단함.



도면 7. 기준층위도 A–A′(1/40)

조사대상지의 경사방향은 남북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서벽을 기준토층으로 정하였다. 층위는 5개층이며 퇴적층의 두께는 북단이 30㎝, 남단이 154㎝ 정도이다. 1층은 현표토층이며 갈색 사질점토로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2층은 갈색 사질점토이며 내부에 세력~중력상태의 각력과 옹기편, 무문토기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층상면이 구지표층이다. 3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무문토기편, 페블급 아각력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4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무문토기편이 혼입되어 있고 층하부에 페블급 아각력이 집중되어 있다. 5층은 황갈색 점질토로 점성이 강하며 무문토기편이 혼입되어 있다.



1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3). 소토 및 유물편 포함.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띰.
2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유물편 및 암반편 소량 혼입.
3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암반편 소량 혼입.
4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점성 약간 있음. 밀도 단단함.



도면 8. 기준층위도 B–B′(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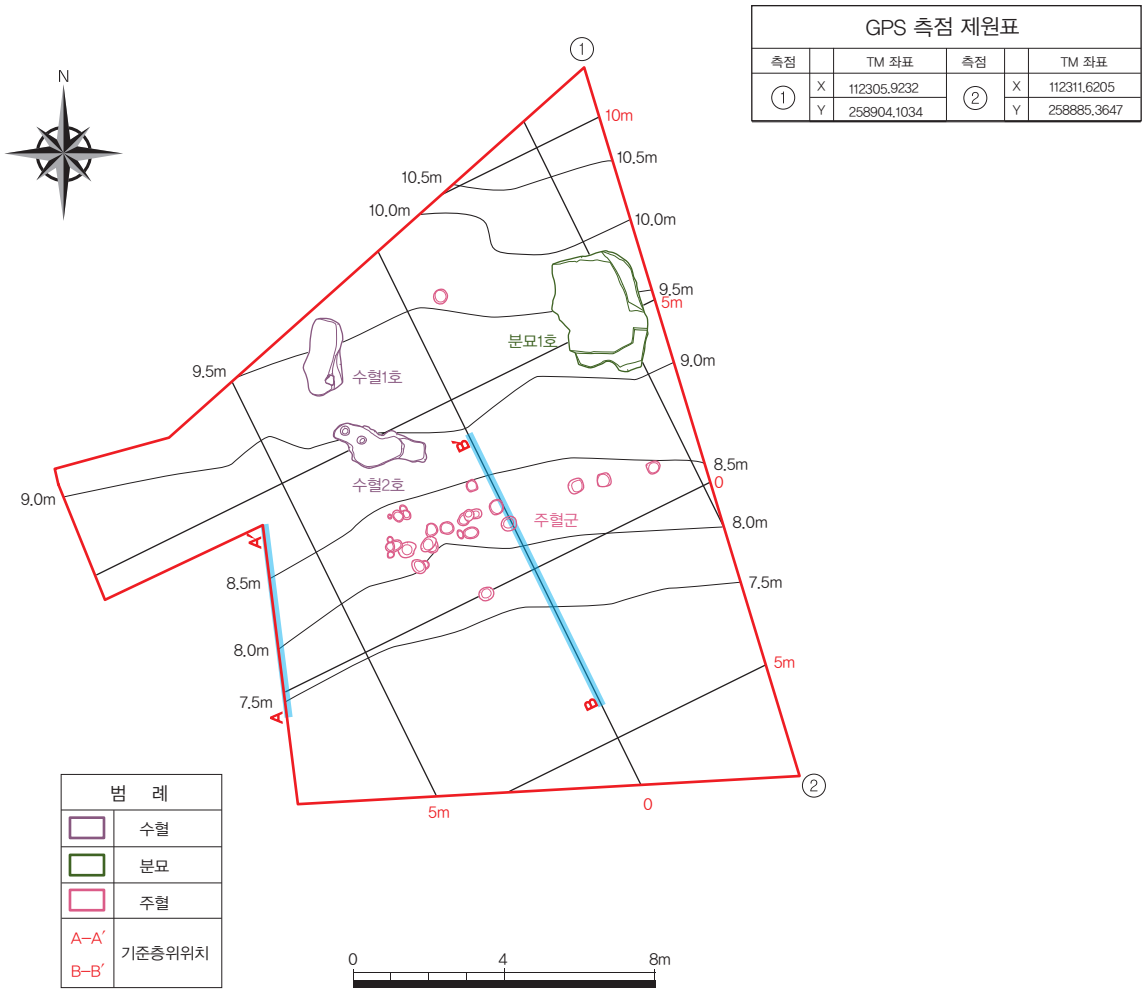
〈초기철기시대〉

1) 수혈

(1) 1호 수혈

가. 유구 (도면 10, 도판 2)

조사대상지의 서쪽에 치우친 해발 9.5m대에 등고선과 직교하여 위치한다. 남으로 1m 이격거리에 등고선과 나란하게 2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이다. 수혈의



도면 9. 발굴조사 유구배치도(1/200)

규모는 길이 2.06m, 폭 0.88m, 깊이 0.26m이다. 바닥에 별다른 시설없이 풍화암반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토는 수평에 가깝게 자연퇴적된 양상이다. 유물은 무문토기 저부편이 2점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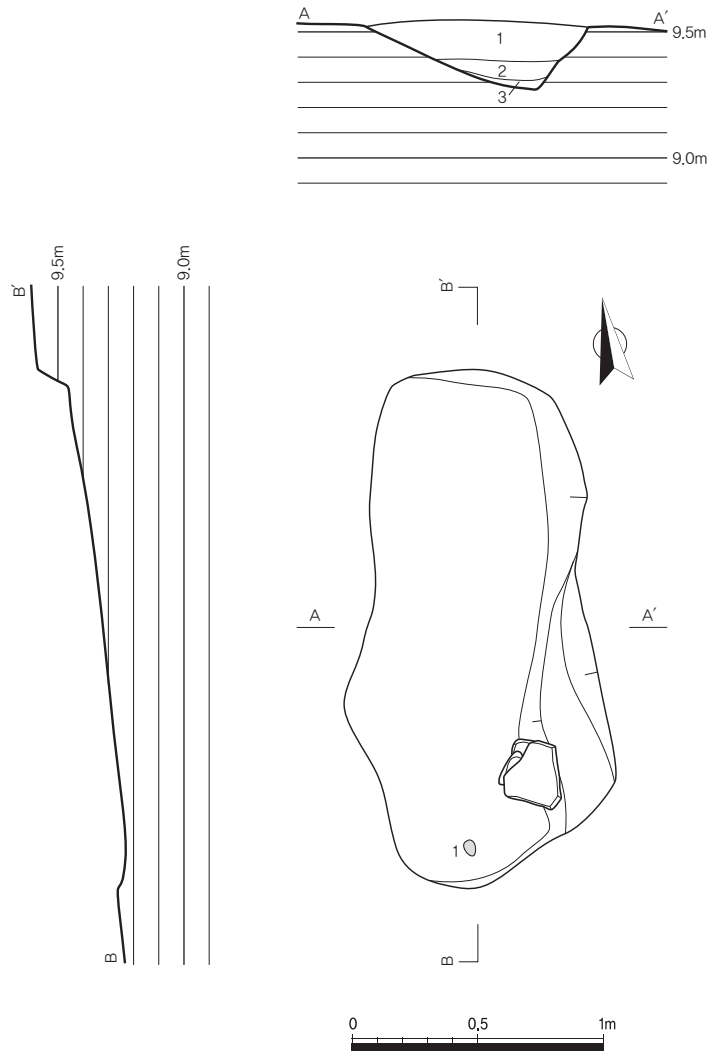
나. 유물

1.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11, 도판 2)

동하위 이하의 1/4 정도만 잔존한다. 동부는 내만하였고, 저부는 중앙이 약간 오목한 평저이며, 가장자리가 잘록하다. 표면이 박리되어 정면기법을 관찰하기 어렵다. 저부의 가장자리에 지두압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연질 소성되었고, 색조는 적갈색을 띠며, 태토에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기고:5.1㎝, 복원저경:7.2㎝

출토위치:1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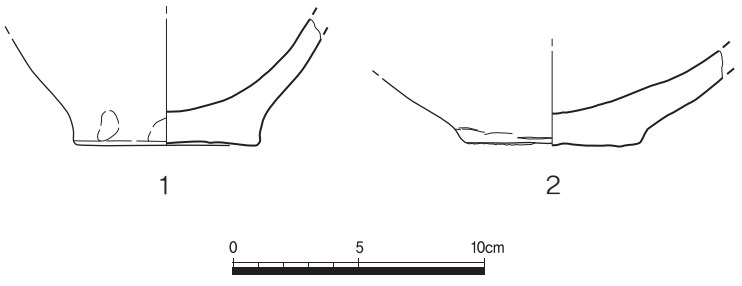
도면 10. 1호 수혈 평면도 및 단면도, 토층도(1/30)

2.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11, 도판 2)

저부편만 잔존한다. 저부는 편평하고, 가장자리에 목판누르기흔이 관찰된다. 그 외의 정면기법은 표면박리가 심해 관찰하기 어렵다. 연질소성되었고, 색조는 외면이 황회색, 내면이 흑회색을 띠며, 태토에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기고:3.8㎝, 저경:6.9㎝

출토위치:1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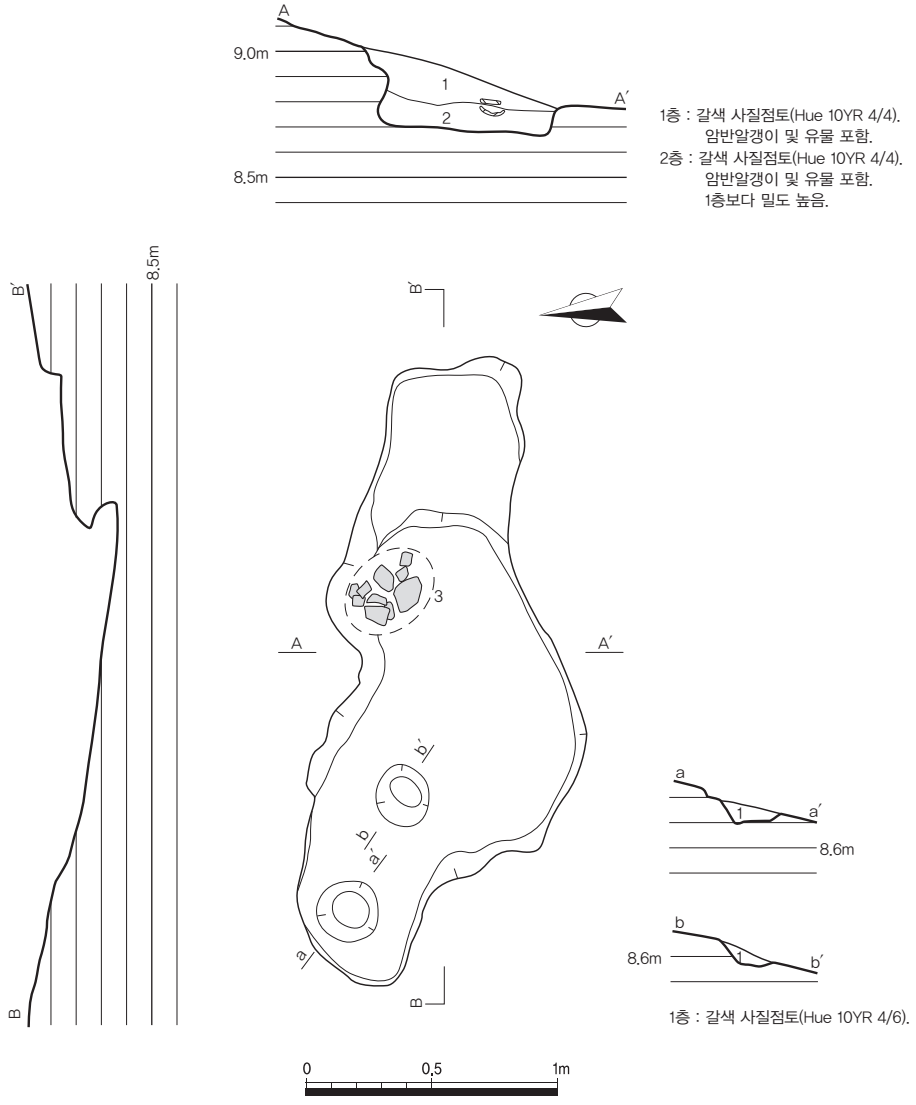


도면 11. 1호 수혈 출토유물(1 · 2:1/3)

(2) 2호 수혈

가. 유구 (도면 12, 도판 2 · 3)

조사대상지 내 해발 9m에 등고선과 평행하게 위치한다. 북쪽으로 1m 이격거리에 1호 수혈이, 남으로 1.3m에 주혈 2 · 3 · 5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2.46m, 너비 0.94m, 깊이 0.30m이다. 주혈바닥은 편평한 편이나 동쪽에 16㎝ 높이의 단차가 형성되어 있고 서쪽에는 원형주혈 2개가 확인되는데 각각 직경 24㎝, 깊이 10㎝와 직경 23㎝, 깊이 8㎝이다. 유구의 중앙에 단축을 가로지르는 기준둑을 설치하고 양측면을 층위에 맞추어 하강제토했으나 벽체, 주혈 등의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부토의 퇴적양상으로 미루어 자연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수혈 내 동쪽 바닥에서 점토대토기 구연부편 1점과 무문토기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2. 2호 수혈 평면도 및 단면도, 토층도(1/30)

나. 유물

3. 점토대토기 구연부편 (도면 13, 도판 3)

구연부 및 동부의 일부편만 잔존한다. 구연부는 외측으로 접어붙여 단면형태가 삼각형을 띤다. 동부는 직립에 가깝다. 구연부 외면에 등간격으로 지두압흔이 남아 있다. 그 외의 정면기법은 표면박리가 심해 관찰하기 어렵다. 연질 소성되었고,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적갈색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거친 점토이다.

잔존기고:5.5㎝, 복원구경: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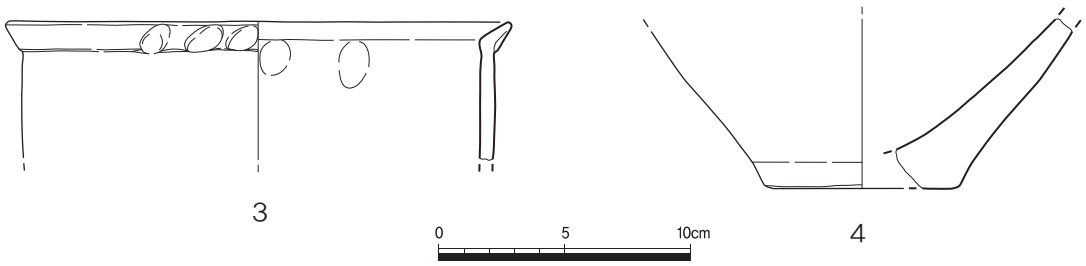
출토위치:2호 수혈

4.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13, 도판 3)

동하위 이하의 일부편만 잔존한다. 동부는 내만하였고, 저부는 편평하다. 표면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을 관찰하기 어렵다. 연질 소성되었고, 색조는 외면이 황갈색, 내면이 흑갈색, 속심이 흑회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 및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점토이다.

잔존기고:6.7㎝, 복원저경:7.8㎝

출토위치:2호 수혈



도면 13. 2호 수혈 출토유물(3 · 4:1/3)

2) 주혈

(1) 주혈1~27

가. 유구 (도면 14 · 15, 도판 3~10)

주혈1과 주혈22를 제외하고는 해발 8~8.5m 대에 집결해 있다. 주혈은 대개 평면원형에 직경은 30~40㎝, 깊이는 20~50㎝, 바닥은 평저이다. 나머지 주혈 25개는 등고선과 나란하게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간격은 10~20㎝ 정도를 유지하며 전체연장은 약 7.5m, 폭은 1열 내지 2열로 40~70㎝ 정도이다. 1개의 주혈이 단독인 경우와 보수 재굴착 주혈 내지는 보조주혈 등 중복양상이 관찰된다.

번호	너비(㎝)	깊이(㎝)	평면형태	내부토	비고
1	36*36	15	원형	1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2층 명갈색 사질점토(7.5YR5/6)	

2	12*12	9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2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3	30*34	12	타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4	26*26	14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2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3층 갈색 사질점토(10YR 4/6)	
5	26*26	8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6	46*46	18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2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3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5/3)	
7	18*18	14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8	18*18	10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9	15*15	20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10	48*48	50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2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11	32*32	14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2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3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5/3)	
12	12*12	7	원형	갈색 사질점토층(10YR 4/6)	
13	48*30	35	타원형	1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14	18*18	20	원형	갈색 사질점토(10YR 4/6)	
15	34*30	46	타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2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3층 갈색 사질점토(10YR 4/6)	
16	36*36	26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2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17	30*30	22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2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5/3)	
18	29*36	52	원형	1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2층 갈색 사질점토(10YR 4/6)	
19	28*28	54	원형	1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2층 갈색 사질점토(10YR 4/6) 3층 갈색 사질점토(10YR 4/6) 4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20	26*16	7	타원형	1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21	40*32	20	타원형	1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2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5/3) 3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6)	
22	35*35	22	원형	1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2층 갈색 사질점토(10YR 4/6)	

23	39*39	19	원형	1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2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6)	
24	36*36	36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6) 2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3층 갈색 사질점토(10YR 4/4)	
25	35*35	29	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5/3) 2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3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5/3)	
26	36*36	28	말각방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5/3) 2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5/3)	
27	32*44	22	타원형	1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5/3) 2층 황갈색 사질점토(10YR 5/3)	

나. 유물

5. 무문토기 동체부편 (도면 16, 도판 10)

동체부의 일부편만 잔존한다. 외면에 목판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다. 연질소성되었고, 색조는 외면이 적갈색, 내면이 암회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 및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잔존기고:11.8㎝

출토위치:주혈10

6.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16, 도판 10)

동하위 이하의 일부편만 잔존한다. 동부는 약하게 내만하였고, 저부는 편평하며, 가장자리가 잘록하다. 저부 가장자리에 지두압흔이 남아 있다. 그 외의 정면기법은 표면박리가 심해 관찰하기 어렵다. 연질 소성되었고, 색조는 외면이 황갈색이고, 내면이 흑갈색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거친 점토이다.

잔존기고:10.5㎝, 복원저경: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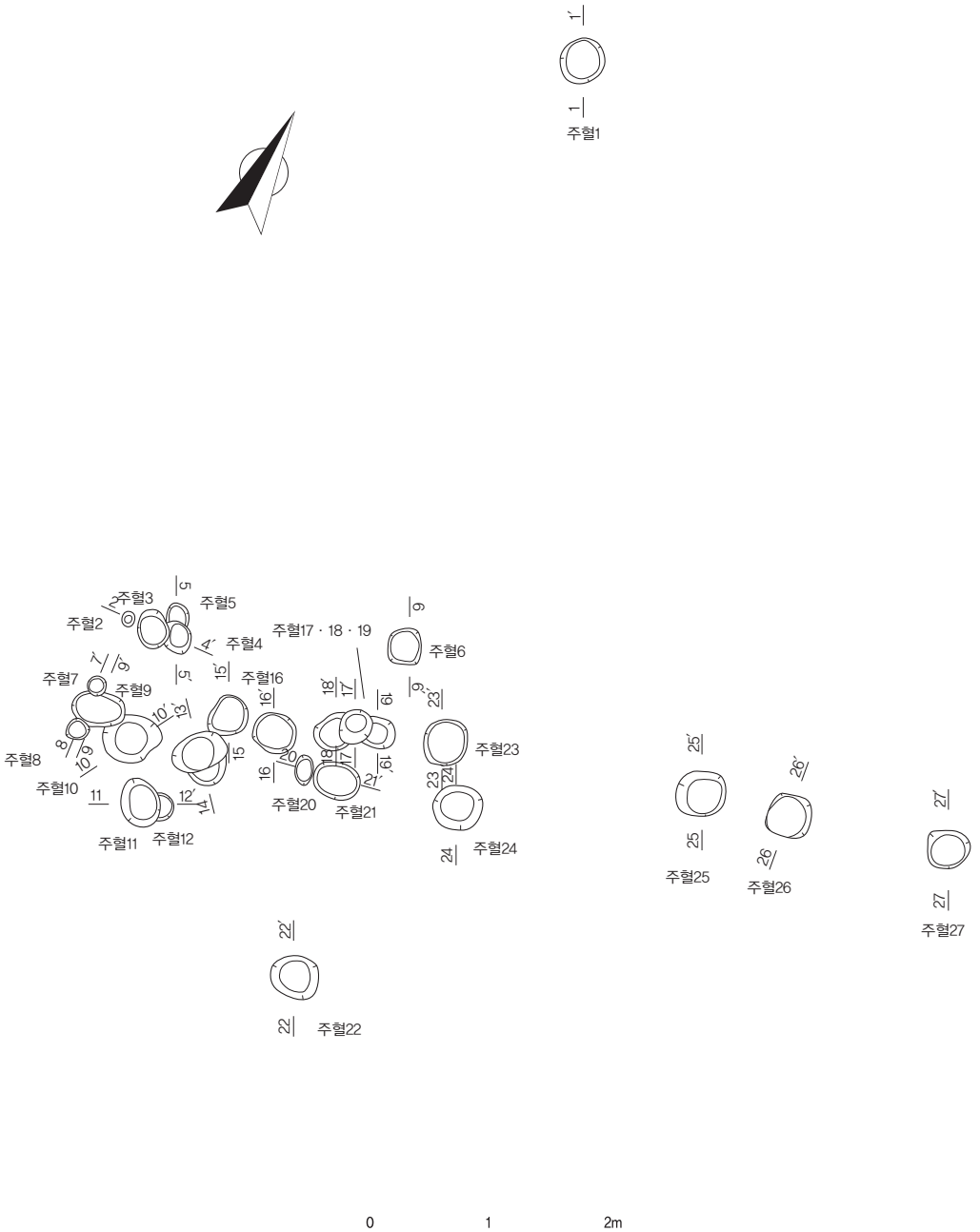
출토위치:주혈13

7. 미완성 석기 (도면 16, 도판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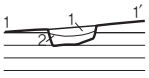
평면형태 및 단면형태는 반타원형이다. 표면은 매끄러우나 일부에 고타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회색을 띠고, 석재는 화강암계이다.

길이:8.9㎝, 너비:9.4㎝, 두께: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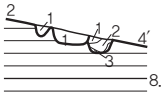
출토위치:주혈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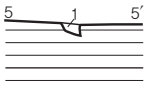
도면 14. 주혈군 평면도(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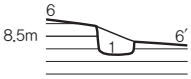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암반알갱이 다량 혼입.
2층 : 명갈색 사질점토(Hue 7.5YR 5/6).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3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6).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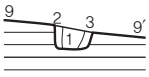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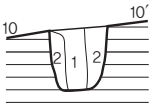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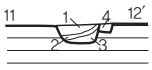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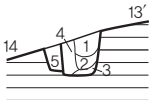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3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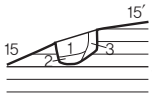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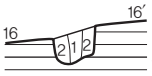
1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2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3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4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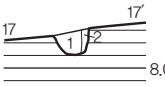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3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6).
4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5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6).
암반편 다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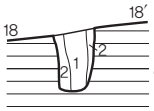
1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2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3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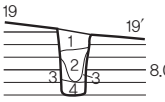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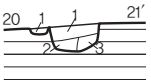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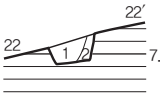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6).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3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6).
4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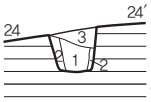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3).
3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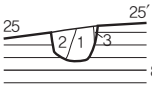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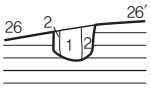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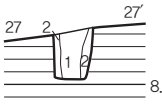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3).
3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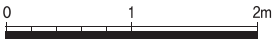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3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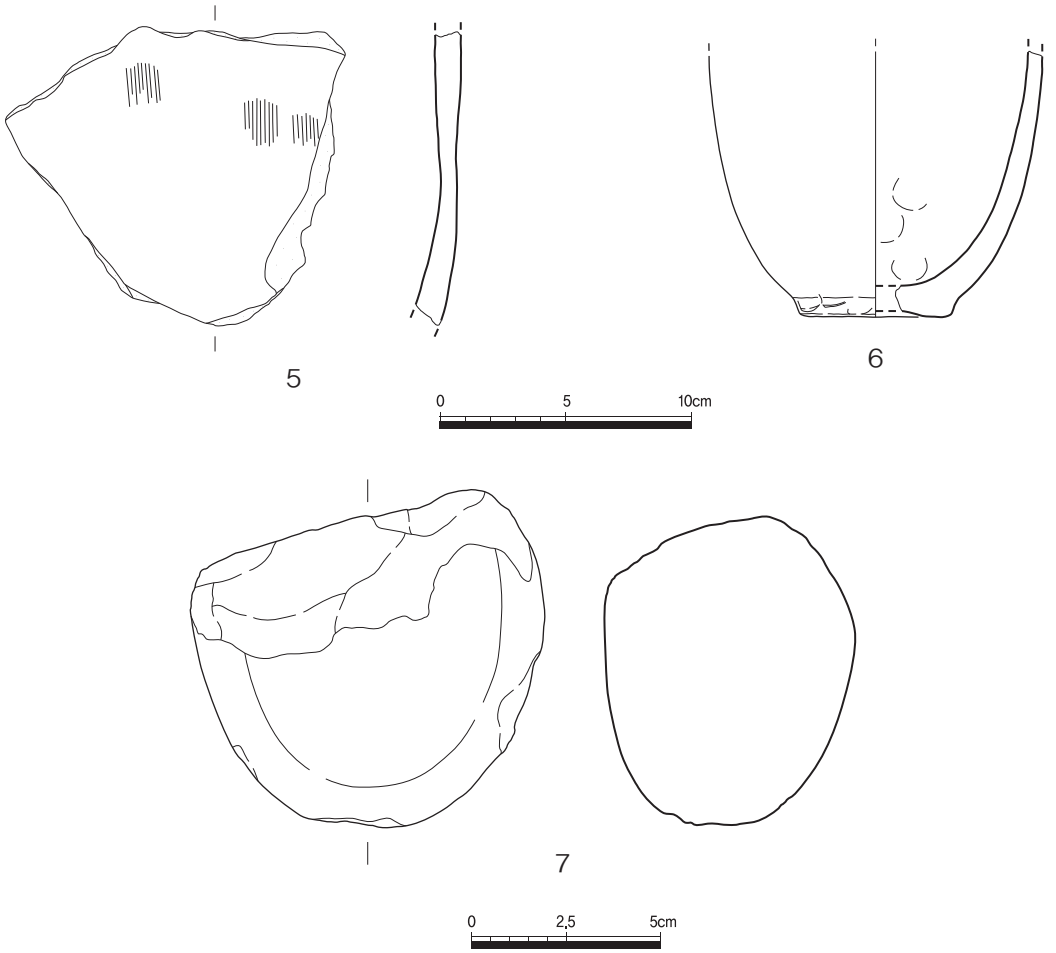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3).



1층 :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2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3).



도면 15. 주혈군 토층도(1/60)



도면 16. 주혈군 출토유물(5–주혈10, 6–주혈13, 7–주혈16, 5 · 6:1/3, 7:1/2)

〈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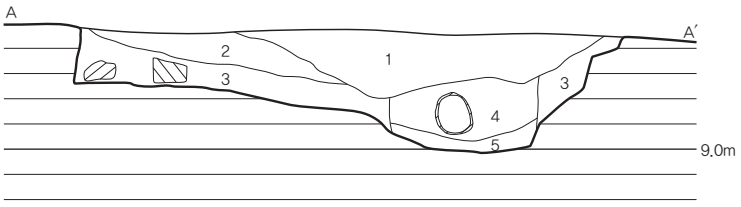
1) 민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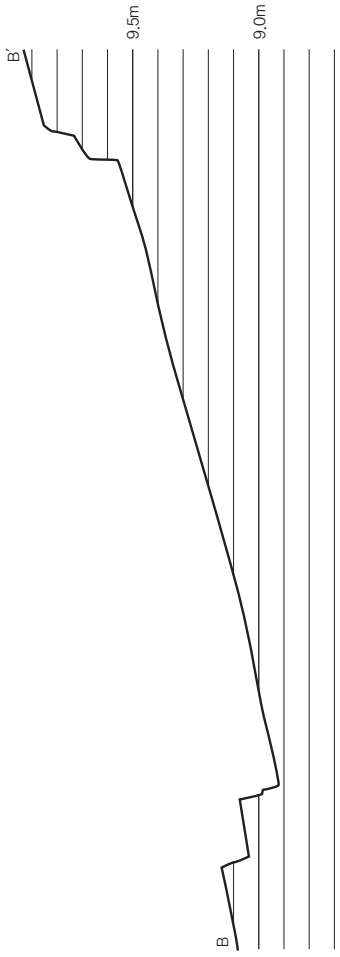
(1) 1호 민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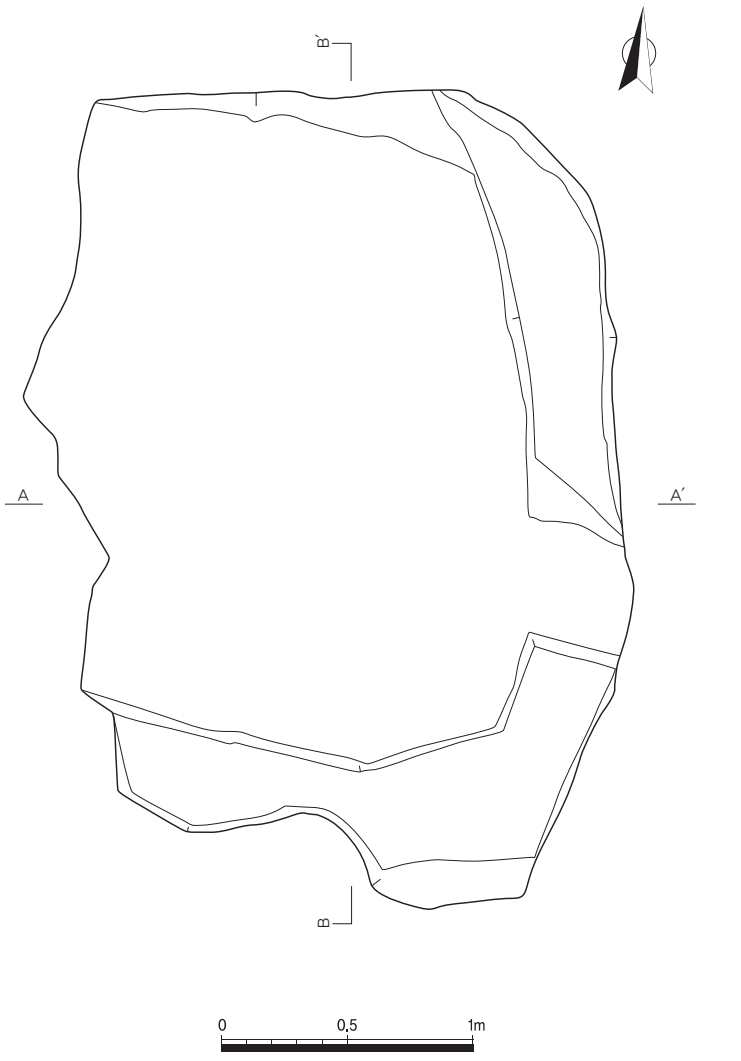
가. 유구 (도면 17, 도판 10)

조사대상지 내 동쪽 해발 9.5m 정도에 등고선과 직교하여 조성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의도하고 굴착하였으나 단단한 암반이어서 형태가 일그러진 상태이다. 평면은 길이 2.92m, 너비 2.16m, 깊이 0.46m이다. 바닥은 동쪽이 얕고 서쪽이 깊은 편으로 기울어져 있다. 토층은 5개 층이며 목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초 시신을 안치하기에 앞서 묘광바닥을 황갈색 사질점토를 사용하여 약 10㎝ 두께로 깔았다. 이후 시신이 안치될 부분을 재굴착한 후 약 5㎝ 두께로 바닥면을 정지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시신을 안치하고 황등색 사질점토로 충진하였다. 이후 황갈색 사질점토를 서쪽에 충진한 후 최후로 황갈색 사질점토(1층)를 덮었다. 인골편은 단면 3층 내에서 두개골 흔적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인골은 확인되지 않았다.

1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4).
사질기 포함. 밀도 낮음.
2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6).
황갈색 점토 소량 혼입.
3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4).
1층과 유사하나 암석 및 고동색
점토 소량 혼입.
4층 : 황등색 사질점토(Hue 10YR 6/4).
사질기 다량 포함. 밀도 낮음.
5층 :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6).







도면 17. 1호 민묘 평면도 및 단면도, 토층도(1/30)

〈제토 중 수습유물〉

8. 무문토기 개편 (도면 18, 도판 10)

개신 상위 이상만 잔존한다. 꼭지 상면은 편평하고 가장자리는 잘록하게 들어가 있으며, 신부는 외경하였다. 내외면에 목판긁기흔과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연질 소성되었고, 색조는 외면이 흑회색, 내면이 명적갈색을 띤다. 태토에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기고:5.9㎝, 꼭지경:5.5㎝

출토위치:3층

9. 무문토기 구연부편 (도면 18, 도판 11)

구연부 및 동체부의 일부편만 잔존한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였고, 구연단은 마모되어 둥글다. 동부는 직립에 가깝다. 내외면에 목판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연질 소성되었고,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띤다. 태토에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기고:9.1㎝, 복원구경:21.6㎝

출토위치:3층

10.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18, 도판 11)

저부만 잔존하며, 저구형(豬口形) 저부이다. 내외면에 목판긁기흔이 남아 있다. 연질 소성되었고, 색조는 내외면 모두 황갈색을 띠며, 태토에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기고:4.2㎝, 저경:4.7㎝

출토위치:3층

11.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18, 도판 11)

저부의 1/2 정도만 잔존한다. 저부는 편평하며, 외면에 목판긁기흔이 남아 있다. 내면에도 목판긁기흔이 관찰된다. 표면박리가 심해 내외면 모두 정면흔이 희미하다. 연질 소성되었고, 색조는 외면이 적갈색, 내면이 황갈색을 띤다. 태토에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기고:5.6㎝, 복원저경:7.9㎝

출토위치:3층

12.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18, 도판 11)

저부의 일부편만 잔존한다. 저부는 편평하고, 동부는 약하게 만곡하며 벌어졌다. 외면에 목판조정이 되어 있고, 내면에 목판긁기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연질 소성되었고, 색조는 명적갈색을 띠며, 태토에 사립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기고:6.6㎝, 복원저경: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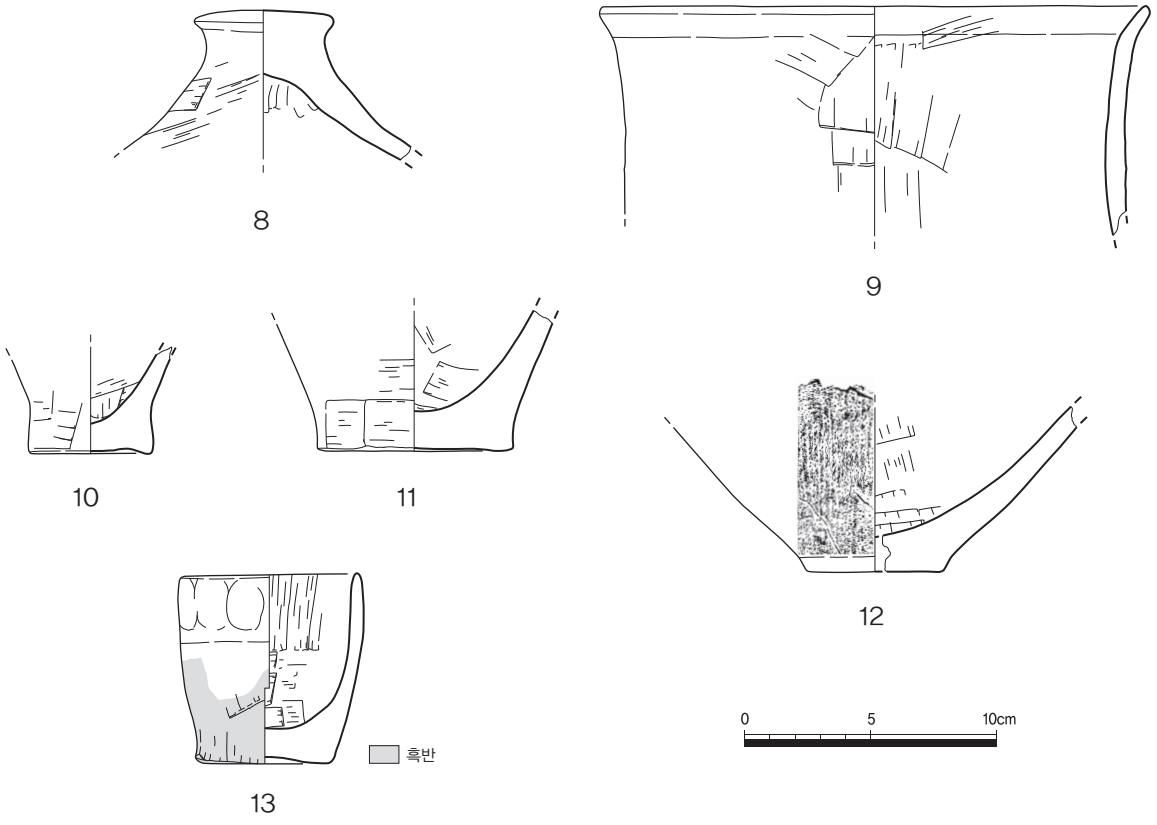
출토위치:3층

13. 컵형토기 (도면 18, 도판 11)

구연부 및 신부는 직립에 가깝도록 약하게 내만하였고, 구연단은 다소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저부는 중앙이 약간 오목한 평저이다. 외면에 목판조정흔과 물손질흔, 지두압흔이 남아 있고, 내면에 목판조정흔이 관찰된다. 표면이 박리되었다. 동하위 및 저부 외면에 흑반이 생성되어 있다. 연질 소성되었고, 색조는 황갈색을 띠며, 태토에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기고:7.4㎝, 구경:6.8㎝, 저경:4.9㎝

출토위치:4층



도면 18. 제토 중 수습유물(8~13:1/3)

Ⅳ. 조사성과

삼천포시 늑도동 23번지 유적은 늑도의 남사면부에 대한 최초의 매장문화재조사라는 데 의의가 있다. 204.9㎡라는 좁은 부지에 대한 조사이며 비교적 경사가 급한 지역에 해당한다. 발견된 유구는 수혈2기, 주혈 27개, 근대 민묘 1기이다.

이 중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유구인 해발 8m대에 동-서로 일렬로 배치된 양상을 보이는 주혈군의 해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혈의 깊이가 50㎝ 정도에 이르고 직경도 40㎝ 정도가 대부분이며 주혈의 연장은 7.5m 정도, 주혈군의 단폭은 0.4~0.7m이다.

방어용목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동쪽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이 조사한 시굴조사대상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서쪽은 조사대상지에서 제외되어 미확인인 상태이어서 향후 유사유구의 조사례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 용도에 관해서는 해안가에 건어물을 말리는 덕장과 같은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제 간곡만에 위치한 농소 유적(5세기 후반 ~ 6세기 후반)의 해발 6m대에서도 바다와 관련한 생업시설로 추정되는 수혈과 말목이 발견되어, 시기차는 있지만 생업과 관련한 유구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37] 그리고 수혈 2기는 평면 부정형이며 이번에 조사한 면적 내에서 타유구와의 유기적 관계를 논하기에는 곤란한 사정이다.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 개 및 호편과 컵형토기 완형 1점이 출토되었다. 선행 발굴조사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신석기시대와 삼국시대 토기도 있지만 소량으로 존재하며, 초기철기시대 토기로 기종은 옹과호, 굽다리토기, 시루, 뚜껑, 흑색마연토기, 소형모형토기 등이 대표 기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조사도 외형으로 판단되는 기종, 성형과 조정에 따른 속성인 목판조정, 지두압흔의 수법이 이전에 조사된 늑도 유적 출토유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구와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이번 발굴은 늑도 유적의 일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주변 일대의 발굴조사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주혈군을 포함한 유적의 성격에 대해 보다 진전된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7) 김재홍, 2018, 「신라의 거제도 군제편제과정」『한국학논총』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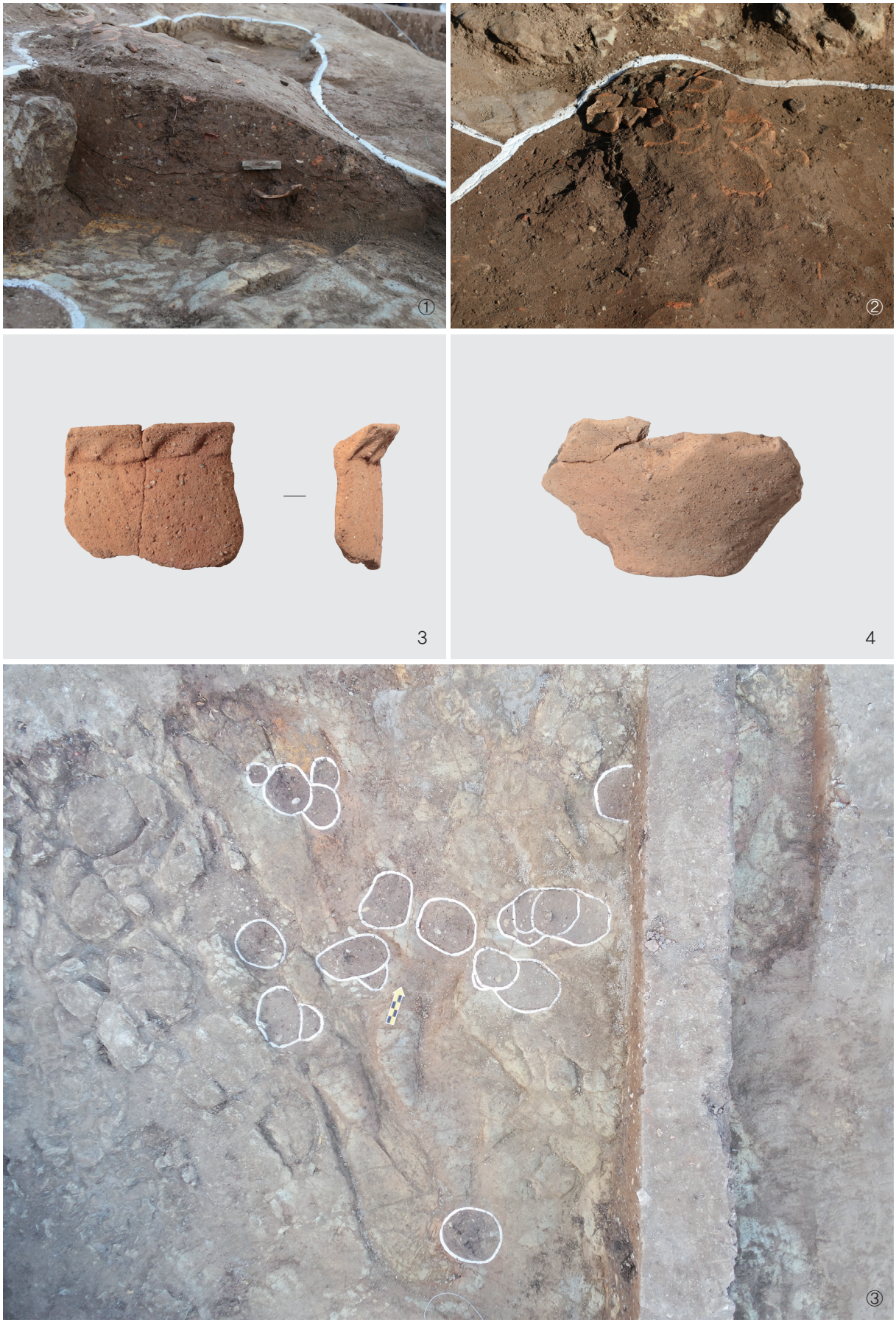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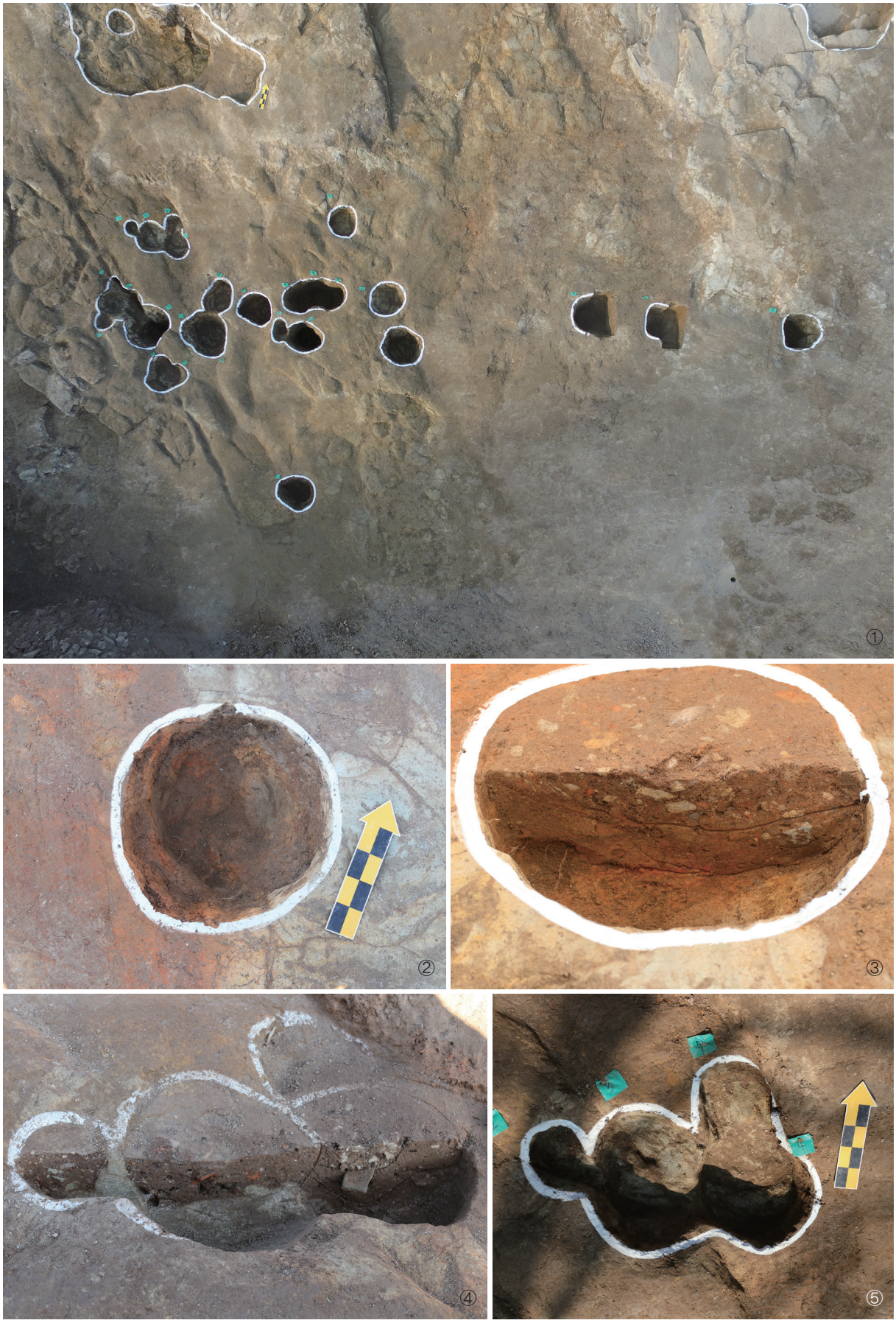
도판 1. 발굴조사지역 원경(①:남동–북서) 및 전경(②:남서–북동)



도판 2. 조사대상지 조사 전 전경(①), 초기철기시대 1호 수혈 전경(②:조사 전, ③:조사 후) 및 토층(④), 출토유물(1 · 2), 2호 수혈 전경(⑤:조사 전, ⑥:조사 후)



도판 3. 초기철기시대 2호 수혈 토층(①) 및 유물 출토양상(②), 출토유물(3 · 4), 주혈군 조사 전 전경(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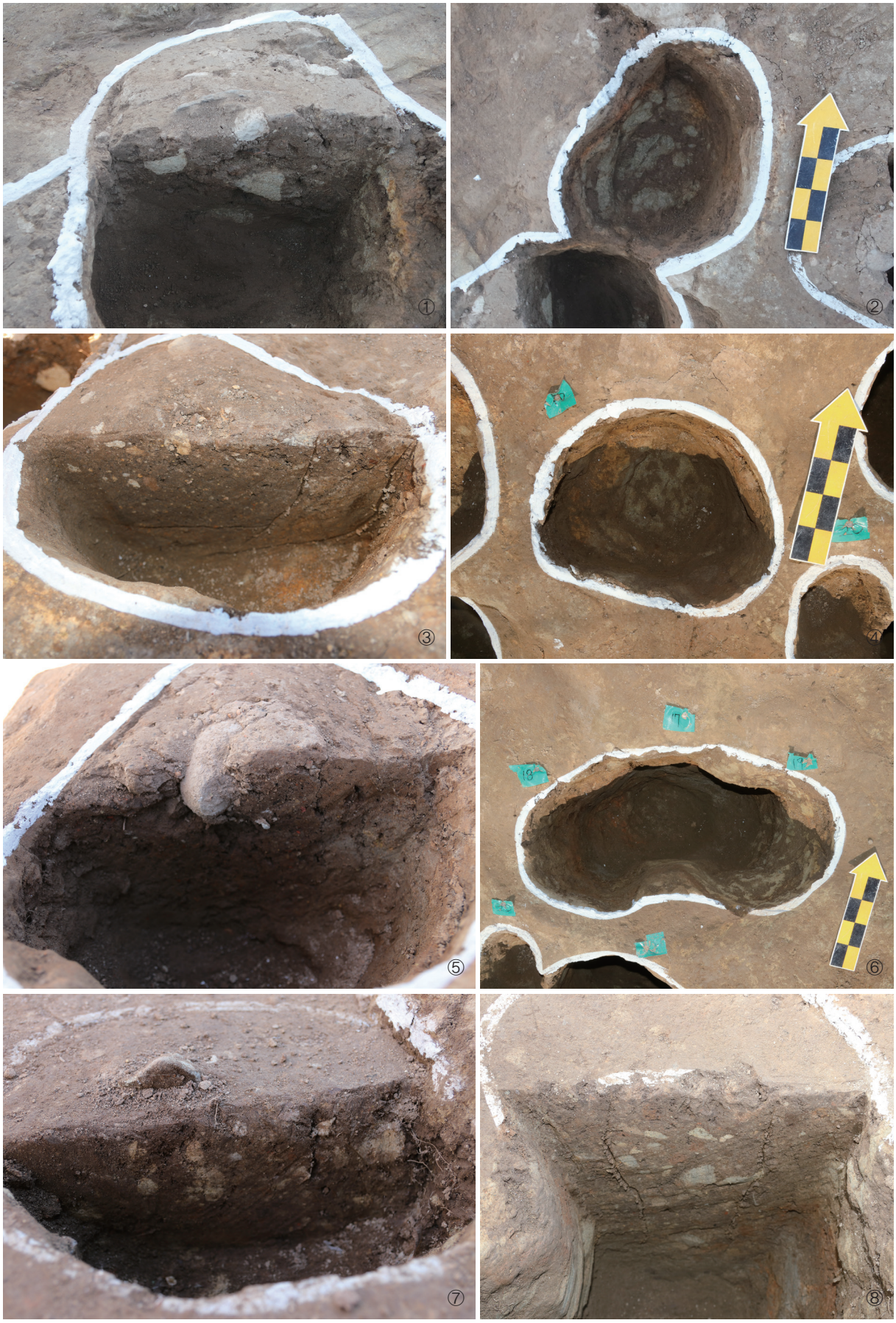
도판 4. 초기철기시대 주혈군 조사 후 전경(①), 주혈1 전경(② 및 토층(③), 주혈2~5 전경(④:조사 중, ⑤:조사 후)



도판 5. 초기철기시대 주혈2~5 토층(①:주혈2, ②:주혈3, ③:주혈4, ④:주혈5), 주혈6 전경(⑤) 및 토층(⑥), 주혈7~10 전경(⑦), 주혈7(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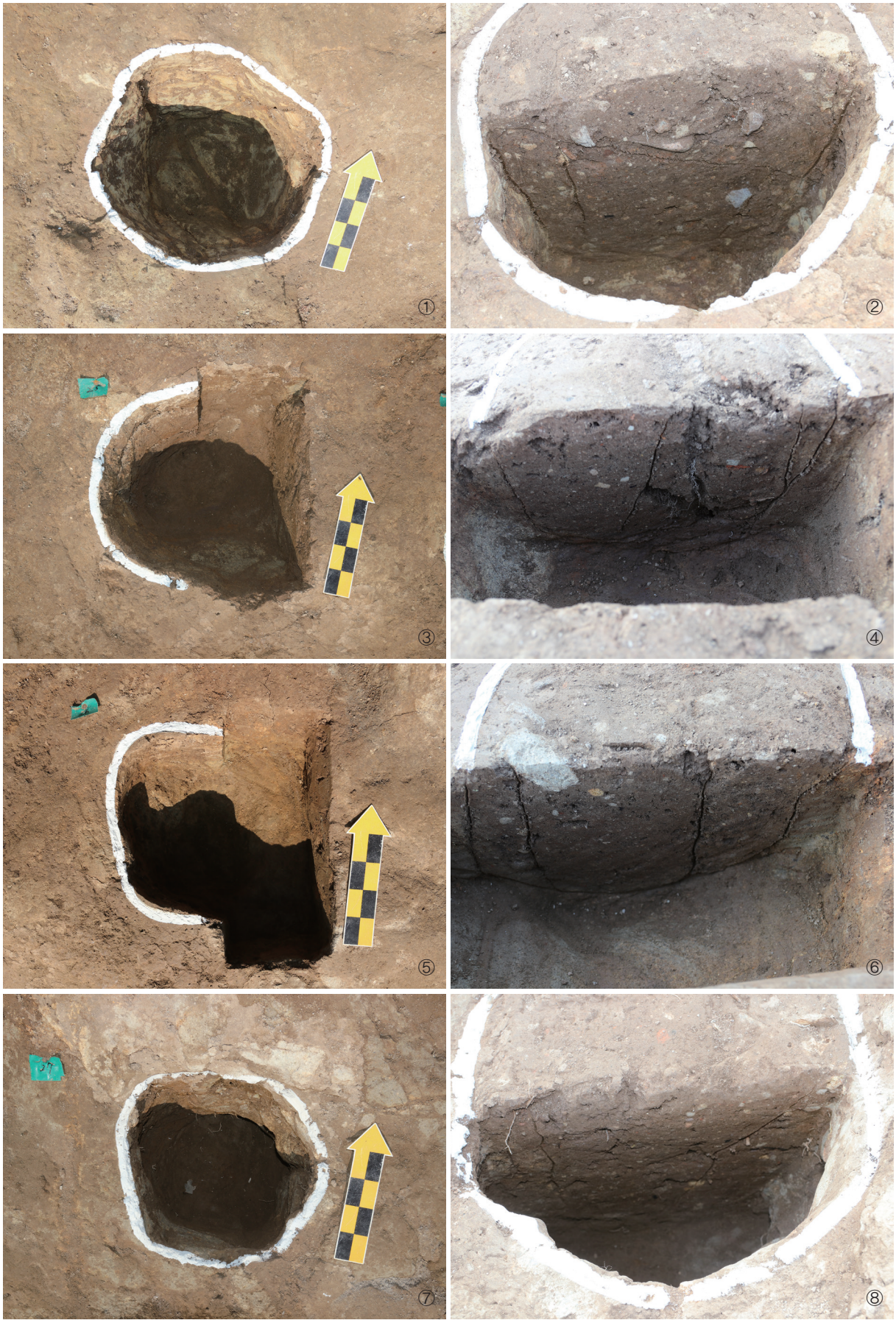
도판 6. 초기철기시대 주혈8(①), 주혈9(②), 주혈10(③), 주혈11 · 12 전경(④) 및 토층(⑤:주혈11, ⑥:주혈12), 주혈13~21 전경(⑦), 주혈13 · 14(⑧)



도판 7. 초기철기시대 주혈13 토층(①), 주혈15 전경(②) 및 토층(③), 주혈16 전경(④) 및 토층(⑤), 주혈17~19 전경(⑥) 및 토층(⑦:주혈17, ⑧:주혈18)



도판 8. 초기철기시대 주혈19 토층(①), 주혈20 · 21 전경(②) 및 토층(③:주혈20, ④:주혈21), 주혈22 전경(⑤) 및 토층(⑥), 주혈23 전경(⑦) 및 토층(⑧)



도판 9. 초기철기시대 주혈24 전경(①) 및 토층(②), 주혈25 전경(③) 및 토층(④), 주혈26 전경(⑤) 및 토층(⑥), 주혈27 전경(⑦) 및 토층(⑧)



도판 10. 주혈군 내 출토유물(5–주혈10, 6–주혈13, 7–주혈16), 근대 민묘 전경(①:조사 전, ②:조사 후) 및 토층(③), 제토 중 수습유물(8)



도판 11. 제토 중 수습유물(9~13), 조사광경(①), 제토작업광경(②), 학술자문회의 광경(③), 안전교육(④)

사천 늑도동 23번지 유적 출토유물 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 류		크 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너비)	저경(두께)		
1	무문토기 저부편	1	1호 수혈	토도	초기철기시대	5.1	–	7.2	11–1, 2–1	
2	무문토기 저부편	1	1호 수혈	토도	초기철기시대	3.8	–	6.9	11–2, 2–2	
3	점토대토기 구연부편	1	2호 수혈	토도	초기철기시대	5.5	19.8	–	13–3, 3–3	
4	무문토기 저부편	1	2호 수혈	토도	초기철기시대	6.7	–	7.8	13–4, 3–4	
5	무문토기 동체부편	1	주혈10	토도	초기철기시대	11.8	–	–	16–5, 10–5	
6	무문토기 저부편	1	주혈13	토도	초기철기시대	10.5	–	6.0	16–6, 10–6	
7	미완성석기	1	주혈16	옥석	초기철기시대	8.9	9.4	6.6	16–7, 10–7	
8	무문토기 개편	1	제토 중 수습	토도	초기철기시대	5.9	5.5	–	18–8, 10–8	
9	무문토기 구연부편	1	제토 중 수습	토도	초기철기시대	9.1	21.6	–	18–9, 11–9	
10	무문토기 저부편	1	제토 중 수습	토도	초기철기시대	4.2	–	4.7	18–10, 11–10	
11	무문토기 저부편	1	제토 중 수습	토도	초기철기시대	5.6	–	7.9	18–11, 11–11	
12	무문토기 저부편	1	제토 중 수습	토도	초기철기시대	6.6	–	5.4	18–12, 11–12	
13	컵형토기	1	제토 중 수습	토도	초기철기시대	7.4	6.8	4.9	18–13, 11–13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사천 늑도동 23번지 유적			發行日	2020年 10月 30日
發刊機關	명 칭	(재)경상문화재연구원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738 성산빌딩 5층			
	TEL	(055)744-2370	FAX	(055)744-2377	
執筆·編輯者	노태섭, 정기진, 이승일, 조재영, 고경희				
調査緣由	사천 늑도동 주택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노태섭, 이승일, 고경희, 김진율, 오영진				
調査位置	경상남도 사천시 늑도동 23번지				
調査面積	204.9㎡				
調査期間	2018년 11월 12일 ~ 2018년 11월 26일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수혈	초기철기시대	2	점토대토기편, 무문토기편	
주혈	초기철기시대	27	무문토기편	
민묘	근대	1	-	

111. 장흥 봉림리 121-1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11-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11- 9

Ⅲ. 조사내용 ····· 111-18
1. 표본조사 ····· 111-18
2. 발굴조사 ····· 111-18
〈청동기시대〉
1) 주거지 ····· 111-22
2) 수혈유구 ····· 111-24
(1) 수혈유구 1호 ····· 111-24
(2) 수혈유구 2호 ····· 111-25
〈삼국시대〉
1) 주거지 ····· 111-25
(1) 주거지 1호 ····· 111-25
(2) 주거지 2호 ····· 111-28
(3) 주거지 3호 ····· 111-32
(4) 주거지 4호 ····· 111-38
(5) 주거지 5호 ····· 111-45
(6) 주거지 6호 ····· 111-47
2) 굴립주 건물지 ····· 111-49
3) 수혈유구 ····· 111-51
4) 성격미상유구 ····· 111-51
5) 수습유물 ····· 111-53

Ⅳ. 조사성과 ····· 111-54

부록
AMS분석결과 ····· 111-97
경기 및 전남지역 국비지원 발굴조사 유적 탄화목재 수종분석 결과보고서 ····· 111-105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11-12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11-14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11-17
도면 4. 표본조사 트렌치배치도 …… 111-19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 111-20
도면 6. 청동기시대 유구배치도 …… 111-21
도면 7.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출토유물 …… 111-23
도면 8.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 · 2호 …… 111-25
도면 9. 삼국시대 유구배치도 …… 111-26
도면 10. 삼국시대 주거지 1호 및 출토유물 …… 111-27
도면 11. 삼국시대 주거지 2호 …… 111-29
도면 12.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 111-31
도면 13. 삼국시대 주거지 3호 …… 111-33
도면 14. 삼국시대 주거지 3호 출토유물1 …… 111-35
도면 15. 삼국시대 주거지 3호 출토유물2 …… 111-37
도면 16. 삼국시대 주거지 4호 …… 111-39
도면 17.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출토유물1 …… 111-42
도면 18.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출토유물2 …… 111-44
도면 19. 삼국시대 주거지 5호 및 출토유물 …… 111-46
도면 20. 삼국시대 주거지 6호 및 출토유물 …… 111-48
도면 21. 삼국시대 굴립주 건물지 …… 111-50
도면 22. 삼국시대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 …… 111-51
도면 23. 삼국시대 성격미상유구 및 출토유물 …… 111-52
도면 24. 삼국시대 수습유물 …… 111-53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①원경, ②표본조사 후) …… 111-61
도판 2. 표본조사(①트렌치1, ②트렌치2, ③트렌치3, ④트렌치4) …… 111-62
도판 3. 표본조사(①트렌치5, ②청동기시대 수혈유구, ③삼국시대 주거지) 및 발굴조사(④조사후 원경) …… 111-63
도판 4. 청동기시대 전경(①조사후) 및 주거지(②조사전) …… 111-64
도판 5. 청동기시대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 111-65
도판 6. 청동기시대 주거지(①~④내부수혈, ⑤~⑦남서주혈, ⑧~⑩북동주혈, 1~4:출토유물) …… 111-66
도판 7.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2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 111-67
도판 8. 삼국시대 전경(①조사후) 및 주거지 1호(②조사전) …… 111-68
도판 9.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중, ②조사후) …… 111-69
도판 10.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②토층, ③④벽구 토층, ⑤⑥노지) …… 111-70
도판 11.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②노지, ③유물출토상태, 5:출토유물) 및 주거지 2호(④조사전) …… 111-71
도판 12.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중, ②조사후) …… 111-72
도판 13.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②토층, ③~⑥부뚜막) …… 111-73
도판 14.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지각, ②~④유물출토상태, 6~11:출토유물) …… 111-74
도판 15.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 111-75
도판 16.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조사후, ②③토층) …… 111-76
도판 17.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④부뚜막, ⑤~⑧주혈1, ⑨~⑫주혈2, ⑬~⑯주혈3, ⑰~⑳주혈4) …… 111-77
도판 18.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④유물출토상태, 12~16:출토유물1) …… 111-78
도판 19. 삼국시대 주거지 3호 출토유물2 …… 111-79
도판 20. 삼국시대 주거지 4호(①조사전, ②조사중) …… 111-80
도판 21. 삼국시대 주거지 4호(①조사후, ②③토층) …… 111-81
도판 22. 삼국시대 주거지 4호(①~③벽구, ④~⑦노지, ⑧~⑩유물출토상태) …… 111-82
도판 23.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출토유물 …… 111-83
도판 24. 삼국시대 주거지 5호(①조사전, ②조사중) …… 111-84
도판 25. 삼국시대 주거지 5호(①조사후, ②③토층) …… 111-85
도판 26. 삼국시대 주거지 5호(①②벽구, ③노지, 40 · 41:출토유물) 및 6호(④조사전) …… 111-86
도판 27. 삼국시대 주거지 6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 111-87

도판 28. 삼국시대 주거지 6호(①토층, 42~44:출토유물) 및 굴립주 건물지(②조사전) …… 111-88
도판 29. 삼국시대 굴립주 건물지(①조사중, ②조사후) …… 111-89
도판 30. 삼국시대 굴립주 건물지(①~④주혈1, ⑤~⑧주혈2, ⑨~⑫주혈3, ⑬~⑯주혈4, ⑰~⑳주혈5, ㉑~㉔주혈6) …… 111-90
도판 31. 삼국시대 수혈유구(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45:출토유물) 및 성격미상유구(⑤조사전) …… 111-91
도판 32. 삼국시대 성격미상유구(①②조사중) …… 111-92
도판 33. 삼국시대 성격미상유구(①조사후, ②세부, ③토층, 46:출토유물) 및 수습유물(47) 111-93

Ⅰ. 조사개요

본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121-1번지로, 사업시행자 문서호씨의 동 · 식물관련시설 신축부지(2,616㎡)이다. 사업시행자는 동 · 식물관련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장흥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조사대상지는 서쪽에 인접해 4세기대 삼국시대 주거지 61동이 조사된 봉림리 유적[1]과 봉림리 흑석 유물산포지 가[2]를 비롯하여 남동쪽에 봉림리 흑석 지석묘 가군[3], 북(동)쪽에 봉림리 오산 유물산포지 가 · 나[4] 및 봉림리 오산 유적[5], 동쪽에 봉림리 봉림 유물산포지[6] 등이 분포하므로 장흥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동 · 식물관련시설 신축부지에 대해 공사 이전에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표본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2018년 6월 5일 소규모 국비지원 표본조사를 의뢰하였다. 소규모 국비지원 표본조사를 접수한 재단에서는 소규모 국비지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7월 16일 표본조사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표본조사는 7월 19일에 착수하여 7월 20일에 완료하였으며, 실조사일수 2일을 소요하였다. 표본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2기 · 주혈 2개, 원삼국시대 주거지 1동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유구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7월 30일 발굴조사 세부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8월 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조사일수 44일에 대한 발굴조사 허가(제2018-1002호)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10월 12일 착수하여 11월 28일에 완료하였으며, 실조사일수 30일을 소요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청동기시대 문화층에서 주거지 1동 · 수혈유구 2기, 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주거지 6동 · 굴립주 건물지 1동 · 수혈유구 1기 · 성격미상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무문토기 발 · 석부 · 석거 · 단경호 · 완 · 장란형토기 · 방추차 등 47점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1월 28일 학술자문회의[7]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 결과,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조사기록을 철저하게 기록보존하고 관계기관의 지침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굴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아래와 같다.

---

1) 이정호 · 이수진 · 윤효남 · 홍민영, 2013, 『장흥 봉림리 유적』,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 · 포장공사구간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3) 李榮文 · 曺根佑, 1996, 「全南의 支石墓」, 『全南의 古代墓制』, 木浦大學校博物館.
4) 이기길, 1997, 「보성강 유역에서 새로 찾은 구석기유적 예보」, 『한국고고학보』 37, 한국고고학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 · 포장공사구간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5) 全南文化財硏究院 · 長興郡, 2015, 『장흥 장평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장흥 봉림리 오산유적』.
6) 南道文化財硏究院 · 全羅南道 · 長興郡,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長興郡』.
7) 자문위원: 이정호(동신대학교 교수),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장)

조 사 단 장 : 박 종 섭(문화재조사연구단장)
책임조사원 : 정 훈 진(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 김 봉 성(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강 채 경(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 최 성 수(조사연구2팀 연구원)

*( )은 조사당시의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이건충(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김봉성 · 최성수가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박자연 · 김경화 · 김선미 · 김형란 · 손지선(이상 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 편집은 김봉성 · 박자연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사진은 오세윤(문화재사진연구소)이 촬영하였다.

원고는 Ⅰ·Ⅱ장 김봉성, Ⅲ장 김봉성(조사내용 및 유구) · 유혜원(유물), Ⅳ장 김봉성이 작성하고, 이건충이 수정하였으며, 이를 정훈진(조사연구2팀장)이 교정 및 교열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본 유적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121-1번지에 해당하며, 경 · 위도상 동경 126°55′41″, 북위 34°48′00″에 위치한다. 장평면사무소의 서쪽을 통과하는 곰치로(국지도839호선)를 따라 북서쪽의 강진방면으로 가다가 봉림보건진료소 앞을 지나 장평교차로에서 오른쪽의 곰치로로 접어들면 길 맞은편에 위치한다.

자연 · 지리적 환경[8]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가 위치하는 장흥군은 전라남도 남부에 위치한 군으로 수리적 위치는 북위 34°25′02″~34°52′30″, 동경 127°02′14″~ 126°47′17″에 해당된다. 동쪽은 보성군 · 고흥군, 서쪽은 강진군 · 영암군, 남쪽은 완도군, 북쪽은 화순군과 접하고 있으며,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여맥이 이어져 노년기 잔구성 산지가 분포하고 있다.

북부는 비교적 고지대로 산지를 이루며, 남부는 해안지대로 간척사업이 이루어져 비옥한 해안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지질은 화강암 · 편마암 및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은 금성산(錦城山, 401m) · 제암산(帝巖山, 807m) · 골치산(骨峙山, 664m) · 사자산(獅子山, 666m), 서쪽은 국사봉(國師峰, 613m) · 부용산(芙蓉山, 609m) · 수인산(修仁山, 561m) 등이 있다. 남쪽은 양암봉(陽巖峰, 465m) · 천관산(天冠山, 723m), 북쪽은 국사봉 · 봉미산(鳳尾山, 506m) · 가지산(迦智山, 510m), 중앙에는 억불산(億佛山, 518m) · 용두산(龍頭山, 551m) · 광춘산 등이 있다. 제암산은 장동면과 보성군 웅치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일명 곰재산이라고도 한다. 지형적으로 남동쪽 사면은 비교적 완만하지만, 북서쪽 사면은 급경사를 이룬다. 남쪽으로는 사자산 · 억불산 · 천관산, 북쪽으로는 금장산 · 용두산 · 봉미산 등이 뻗어 있고, 동쪽으로는 보성을 지나 고흥반도까지 그 여맥이 이어지고 있다. 탐진강(耽津江)이 북서부를 남류하다가 유치면에서 암천천(唵川川), 장흥읍에서 금강(錦江) 등 여러 지류를 합류해 강진군을 지나 남해로 흘러든다. 그 밖에 홍거천(洪巨川) · 남상천(南上川) · 고읍천(古邑川) 등이 있다. 해안지대는 간척지가 발달하여 있다. 우산도 · 장재도 · 장관도 등 대부분의 섬들이 인공 제방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기후는 동한난류가 흘러 비교적 기온이 온화한 해양성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연평균기온 12.9℃, 1월 평균기온 -0.1℃, 8월 평균기온 23.8℃, 연강수량은 1,963.3㎜이다. 특히, 여름철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로 2,000㎜이상이 내려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한다. 산간지대는 해안지대에 비해 고도에 따른 기온체감으로 2℃정도 낮다. 대개 첫서리는 10월 말경에 내리기 시작하고 늦서리는 4월 중순경까지 내린다.

장흥군의 하천은 영암군 금정면에서 발원하여 남동류하는 탐진강이 유치면, 부산면, 장흥읍에 이르기까지 대소 20개의 하천이 합류되어 장흥군에서 예양강(일면 금강)이라고 하고 사인암에 이르러 영암군 월출산에서 발원한 금천강과 합류하여 강진만으로 흐른다. 강 유역에는 용반, 부산, 한들평야 등 비교적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기타 대소하천은 동북쪽 장평면의 9개 하천은 보성강에 흐르고 남쪽의 남상천의 16개 하천은 득량만으로 흐르고 있다.

장흥군의 지질은 제4기에 형성된 충적층이 각 하천 연안에 국지적으로 분포하여, 개략적으로 보아 북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부의 능주층군 최적암, 북동부의 화강암질 변성 편마암, 남부의 화성암류로 대별할 수 있다. 토양의 분포를 보면 거의 전역에 걸쳐 구릉 및 산악지를 중심으로 암쇄토 및 양질의 산성갈색 삼림토가 분포한다.

해안선의 형태는 침식산지의 침강에 의한 리아스식 해안선의 발달로 복잡성을 띠며, 이들의 연안에는 각 하천의 바다 유입지점을 중심으로 갯벌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해안선의 총 길이는 123.7㎞, 도서 수는 14개(유인도 2, 무인도 12)이다.

역사 · 고고학적 환경[9]으로 보면, 장흥지역의 선사문화에 대한 조사는 1975년 처음 실시된 이래 꾸준히 조사가 진행되어 오다 198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대략적인 현상이 파악되었다. 또 1990년 후반부터 실시된 탐진댐 수몰지역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유적이 확인되면서 장흥지방의 선사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 파악도 가능하게 되었다.

장흥군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은 2002년 조선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장동면 북교리에서 신북유적[10]이 조사되면서이다. 신북유적에서는 좀돌날몸돌, 새기개, 대형자르개, 밀개 등이 출토되어 구석기시대 후반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흥읍 금산리 신기유적에서는 갈색찰흙층의 갱신세 퇴적층이 확인되었으며 산성화산암제 격지와 석영맥암제 밀개가 수습되었다[11]. 이외에도 보성강 수계인 장평면의 일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병동리 월곡, 우산리 우산, 봉림리 오산, 제산리 금산, 축내리, 부도리 등의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었다[12].

신석기시대 유적은 바위그늘 유적으로 알려진 오복동 유물산포지A지역 조사과정에서 직립구연의 단사선문이 새겨진 토기편들이 수습되면서 확인되었다[13].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지석묘와 주거지, 패총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지석묘는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성강 상류 지역인 장평면과 장동면 일대로, 29개군 188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둘째는 탐진강 유역인 장동면 일부와 유치면, 부산면, 장흥읍 등으로, 79개군 615기가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안양면을 비롯한 용산면,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등에는 11개군 1,450기가 분포하고 있다. 이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장흥 충열리 지석묘[14]와 탐진댐 건설로 인한 단산리 외검[15], 대리 상방촌 · 하방촌, 오복리 오복동지석묘, 송정리지석묘 나군, 신풍리 마장지석묘, 송정리 갈두지석묘군 등이다. 특히 탐진댐 수몰지구에 위치한 대리 상방촌지석묘군[16]에서는 석촉과 석검이 출토되었으며, 하방촌에서는 전체 38기의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또한 오복동에서는 23기의 지석묘가 조사 되었으며 석촉, 석검, 석부 등이 수습되었다[17]. 그리고 송정 지석묘 '나'군[18]에서는 전체 25기의 지석묘가 조사되었으며, 신풍리 마정유적에서는 전체 34기에 대한 조사와 함께 무문토기편, 어망추, 석검, 석촉,

---

9) 南道文化財硏究院 · 全羅南道 · 長興郡,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南 長興郡』.
10) 이기길 · 오병욱, 2003, 「장흥 신북 후기구석기유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남고고학회.
11) 조선대학교박물관, 2003, 『보성-임성리 제2공구(장동-장흥간)철도 건설공사 문화재지표조사』.
12) 이기길, 1997, 「보성강유역에서 새로 찾은 구석기예보」, 『학국고고학보』37, 한국고고학회.
13) 최성락 · 정영희 · 고용규 · 김영훈, 2004, 『장흥 오복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14) 최성락 · 한성욱, 1990, 『장흥 충열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15) 김건수 · 이영철 · 박미라, 2004, 『장흥 외검 · 하방촌 지석묘』, 호남문화재연구원.
16) 최성락 · 정영희 · 김영훈, 2003, 『장흥 상방촌 · 오복동 지석묘』, 목포대학교박물관.
17) 최성락 · 한성욱, 1990, 『장흥 충열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18) 이영철 · 양해운 · 문지연, 2005, 『장흥 송정 지석묘 - 나군』, 호남문화재연구원.

석부, 석도, 석착 등이 수습되었다. 이외에도 갈두유적 Ⅰ[19]에서는 전체 32기의 지석묘가, 그리고 갈두유적 Ⅱ[20]에서는 전체 68기의 지석묘가 조사되었으며 무문토기편, 홍도, 적색마연토기, 어망추, 삼각형석도, 석촉, 석부 등이 수습되었다. 주거지는 신풍리 마정유적[21]에서 51기가, 상방촌 B유적[22]에서 2기가, 갈두유적 Ⅰ에서 35기가 각각 조사되었다. 특히 갈두유적 Ⅰ에서 조사된 35기의 주가지 중 3기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가 송국리형으로, 방형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편, 석촉, 석부 등이 있다. 청동기시대의 패총유적으로는 관산읍 방촌리유적[23]에서 미완성 반월형 석도와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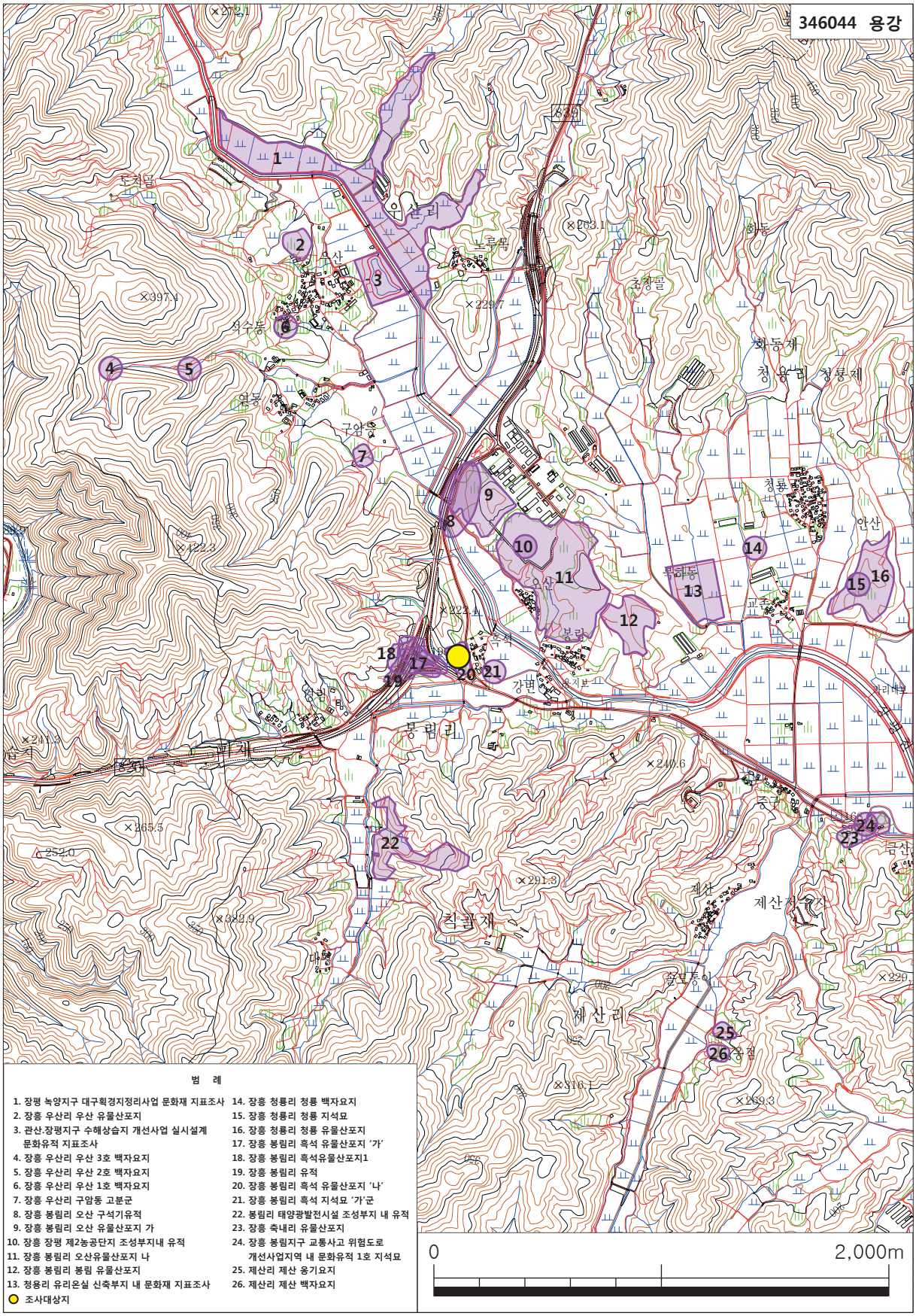
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유적으로는 고분과 주거지를 들 수 있다. 고분유적 중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충열리고분[24], 지동고분[25], 신월리고분군[26], 송정고분군[27] 등이다. 충열리고분에서는 수혈식 석실분 5기가 조사되었는데, 크기는 길이가 220~290㎝, 너비 130~185㎝, 잔존 높이 65~110㎝이며, 천정형태는 평천정 맞조림식, 바닥은 할석과 천석을 사용하여 조성하였다. 출토유물은 은제대금구편, 구슬, 철정편 등이다. 또한 탐진댐 수몰지역 내에 위치한 장흥 상방촌B유적과, 장흥 신월리, 장흥 갈두유적 등에서는 각각 석실묘와 석곽묘, 토광묘와 옹관묘가 확인되었다. 특히 신월리에서 확인된 횡혈식 석실고분의 축조시기는 6세기 후반부터 고려시대까지로 보고 있다. 주거지는 지천리유적[28]에서 42기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방형이나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외에도 수혈 56기, 지상건물지 7기, 구들, 환호 등이 확인되었다. 장흥 상방촌A유적에서는 주거지 총 107기가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방형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내부시설로는 화덕시설, 벽구, 출입구, 기둥 등이 확인되었다. 갈두유적 Ⅱ에서는 평면형태 방형계 주거지가 11기 확인되었으며, 신풍유적 Ⅱ에서는 말각방형의 주거지 3기가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석곽묘 33기와 석개 토광묘 1기, 와요지가 조사된 대리 하방촌유적[29]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성곽유적으로는 읍성지 4곳과 영진성지 1곳, 산성지 4곳 등이 확인되었으며 봉화지로는 수인산봉수지, 억불산봉수지, 천관산봉수지 등이 확인되었고[30], 도요지로는 용문리 도요지[31]를 비롯하여 모두 10개소가 확인되었다. 특히 성곽유적 중 수인산성은 13세기후반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남해안지역의 대표적인 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32].

---

19)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장흥 갈두유적 Ⅰ』.
20)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장흥 갈두유적 Ⅱ』.
21) 이영철 · 박수현, 2005, 『장흥 신풍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장흥 상방촌 B유적』.
23) 최몽룡 · 이영문, 1982, 「장흥 건산리 무문토기유적」, 『고고미술』153, 한국미술사학회.
24) 최성락 · 한성욱, 1990, 『장흥 충열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5) 최성락 · 박철원 · 최미숙, 2000, 『장흥 지천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6) 최성락 · 정영희 · 김영훈 외, 2007, 『장흥 신월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7)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장흥 송정고분군』.
28) 최성락 · 박철원 · 최미숙, 2000, 『장흥 지천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9) 김건수 · 이영철 · 박미라, 2004, 『장흥 하방촌 고분군 · 와요지』, 호남문화재연구원.
30) 배종무, 1989, 「장흥지방의 관방유적 · 도요지」, 『장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31) 최성락 · 한성욱 · 김병수 · 송혜영, 2005, 『장흥 용문리 조선백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32)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09, 『장흥 수인산성 종합학술조사』.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이처럼 장흥지역에서 다양한 유적이 확인되는 것은 이 지역이 바다와 내륙의 탐진강을 끼고 있어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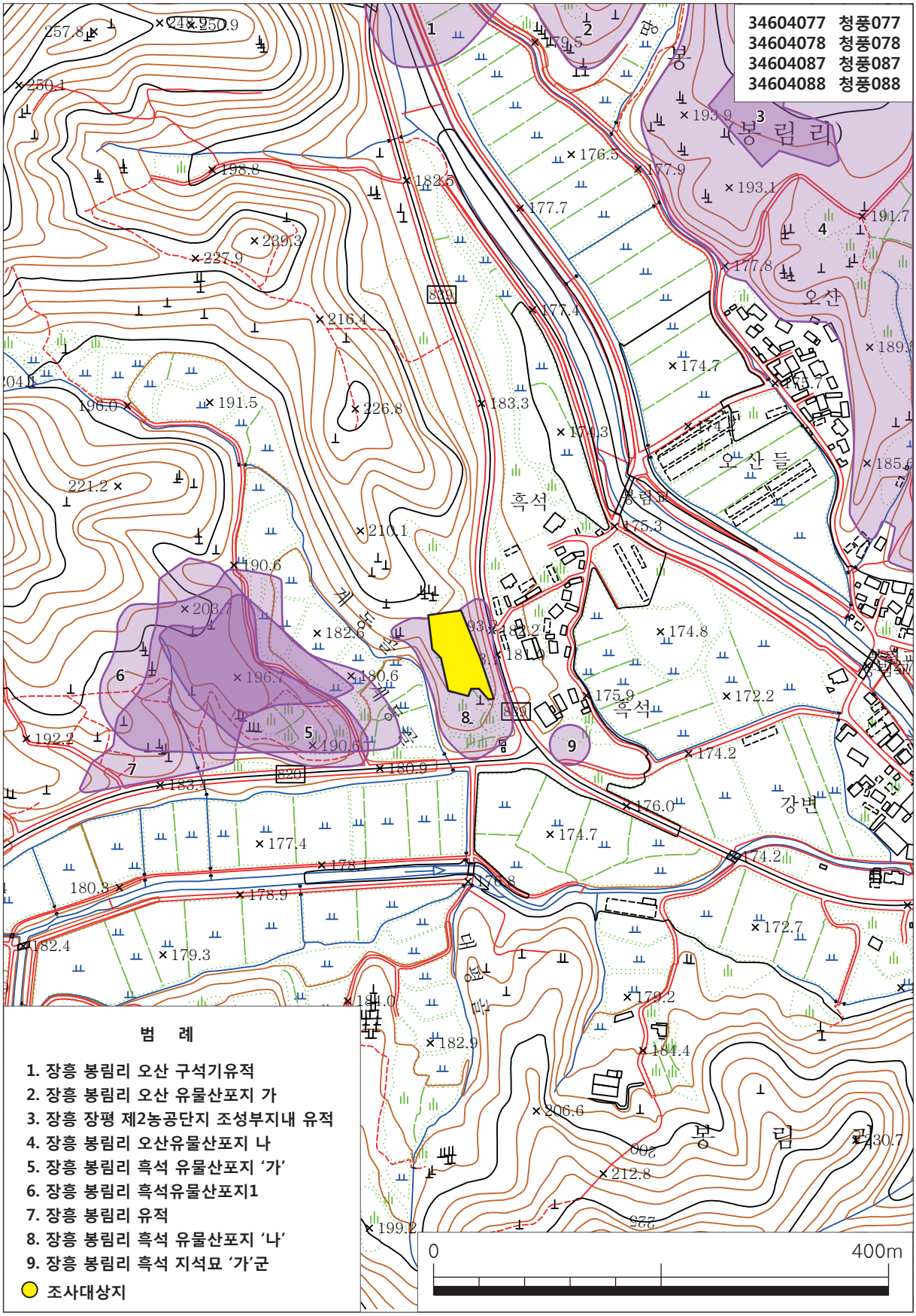
유적이 위치한 장흥군의 지명과 연혁에 관한 내용이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지리지」백제조의 기록에 4개현이 기록되어 있으며 모두 복홀군의 관할 아래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된 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지방지배기반의 재편성이었다. 통일신라는 경덕왕대에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실시하는데, 장흥지역에 있던 4개의 현은 마사양⇒벌로(伐勞), 계천⇒계수(季水), 고마미지⇒마읍(馬邑), 조차⇒조아(鳥兒) 등으로 명칭만이 바뀌며 이들은 복홀에서 보성으로 이름만 바뀐 보성군에 영속된다. 한편 통일신라기 장흥지역 행정개편 이외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다만 교종의 요람이었던 천관산 일대의 사찰과 선종의 개창지인 보림사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불사가 가능했던 것은 이 지역 토착민들의 후원에 힘입은 바 컸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해로를 통한 문물교류의 영향도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보림사의 창성탑비에 乾元二年(759, 경덕왕 18)에 국가에서 특별히 교지를 내려 장생표주를 세우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정도로 사세가 성장해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사세의 성장은 지역 토착민 세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다. 아울러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천관산 옥룡사와 천관사 · 탑산사 등의 창건도 비슷한 시기로 나타나 주목된다.

고려로 넘어오면서 장흥지역은 많은 행정적인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태조 23년(940)에 조아현이 정안현으로, 마읍현이 수영현으로 개명되어 영암군에 속하고, 벌로현은 회영현으로 계수현이 장택현으로 개명되어 통일신라기와 같이 보성군에 속한다. 인종 3년(1124)에 공예태후 임씨의 고향이라 하여 정안현이 장흥부로 승격되고 영암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면서 영암군에 속한 수영 · 탐진현(耽津縣) 및 보성군에 속한 회녕 · 장택현을 속현으로 하였다. 인종 21년(1143) 두원현이 장흥부에 편입된다.

고려초기 군현제도의 정비는 대체적으로 현종대에 완비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장흥의 경우에는 인종 때 급성장을 하게 된다. 즉 정종이 장흥으로 개명하면서 지사부로 승격되어 보성군에 속한 회녕 · 장택현과 영암군에 속한 수영 · 탐진현을 분속하게 된다. 결국 현재의 장흥지역과 탐진강 · 남해안에 연해 있는 강진남부의 탐진현을 거느리면서 서남부의 중추적 고을로서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장배경은 공예태후 임씨와 관련 있는데, 공예태후는 장흥 임씨로서 제 11대 인조의 왕비가 되어 목종 · 명종 · 신종 등 3왕을 낳았다. 이로 인해 그의 출생지인 정안이 장흥으로 개명되고 부로 승격되는 배려를 받게 된다. 부로 승격된 이후 현재의 고흥군 두원면 지역에 있던 두원현에 감무(監務)를 두면서 장흥부에 편입되고, 그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현재의 고흥군 도양읍 일대의 도양현 역시 장흥부에 속하게 된다. 고려초기 장흥부가 관할하던 지역은 현재의 장흥군 전역과 보성군 남부, 고흥군 일부, 강진군 남부지역 등으로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종 6년(1265)에 장흥부는 회주로 이름이 바뀌면서 목으로 승격된다, 회주목으로 승격된 이유는 자세하지 않으나 앞서 살핀 장흥임씨의 가세번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목으로서의 승격 시기는 최씨정권이 붕괴된 직후인데 이로보아 장흥이씨 세력은 계속 고려왕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삼별초군 항쟁이후 원의 강요에 의해 고려는 일본 정벌에 동참한다. 1차는 1274년 10월이었는데 이때 여원연합군의 전선을 만든 곳이 천관산 일대였다. 이 당시 조선(造船)은 전라도의 변산과 나주의 천관산에서 행해졌는데 정월 15일에서 5월 그믐에 이르기까지 900척에 달하는 막대한 수의 대소병선이 만들어졌다.

충선왕 2년(1310)에 장흥은 화주목에서 다시 장흥부로 강등되는데 이는 충선왕의 숙폐제거에 대한 교서나 관제개혁 등의 정책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충정왕(1349~1351)때 부터는 서남해안에 왜구의 출물이 심해지는데 1350년에 진도가 치소를 버리고 내륙 영암 명산촌으로 이주하기에 이른다. 장흥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내천을 하게 된다. 즉 장흥부는 1379년 치소를 내륙의 철치현(鐵治縣)으로 이전한다. 백제 이래 치소가 있어 온 현재의 관산 일대는 이때 내륙으로 옮겨간 뒤 조선이 개국하면서 현재의 장흥읍 일대로 새롭게 치소가 정해지면서 고읍으로 남게 된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철치현으로 피난가 있던 장흥의 父老들은 부사로 부임한 황보덕에게 치소를 옮길 것을 진정하자 황부사는 안염사 이원과 함께 이웃고을에 통첩을 내려 장정 350명을 동원해 수령현의 중녕산(현 장흥읍 원도리 · 건산리)에 성을 쌓으면서 다시 돌아온다.

태종조의 군현개편을 통해 전라도 57관이 정비되면서 장흥도호부가 되며 그 관할지역은 현재 장흥군 전역과 보성군 진사 · 회천면 일원, 고흥군 일부 그리고 완도에 속한 일부 도서지역을 포함한 영역이다. 태종 14년(1414)에 성이 좁다하여 수령현의 옛터(현 장흥읍 동동리 · 남동리 일원)로 치소를 옮기는데, 이곳은 조선시대 전기간 동안 치소가 된다. 세종 23년(1441)에는 장흥부에 속했던 두원현이 흥양현으로 통합되면서 떨어져 나간다. 이 시기 즉 조선초기에 완성된 지방제도는 몇몇 지역의 군현 · 명호의 승강을 제외하고 조선 전기간에 별다른 변동 없이 지속된다.

1895년 8도제 대신 전국이 다시 23부로 나누어지면서 장흥지역은 나주부 관할의 장흥군으로 됨으로서 고려 인종조 이래 부 또는 도호부로 유지해오던 명맥이 끊긴다. 같은 해 9월 5일에는 면 · 결 · 호수의 다소에 따라 각 군의 등급이 정해지는데 장흥군은 2등군이 되며, 이듬해에는 완도군이 신설되면서 관할 도서를 넘겨준다. 1896년 23부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장흥군은 전리남도 2등군이 된다.

1914년에는 대대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지는데 천포 · 회령 · 진사면이 보성군에 넘겨지고 한말에 분리되었던 군내 · 부서면이 장흥면, 고상 · 고하가 고읍면, 대흥 · 내덕이 대덕면, 안상 · 안하가 안양면, 장서 · 부평이 장평면으로 통폐합되고, 용계면은 장동 · 부산면에 각각 분리 통합되어 20면 499동리가 11면 135리로 조정된다. 1921년에는 부동면이 장흥면에 병합되었고, 1932년에는 남상면과 남하면이 통합되어 남면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고읍면은 관산면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장흥면과 관산 · 대덕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6년 회진출장소가 회진면으로 승격되어 현재 3개읍(장흥읍 · 관산읍 · 대덕읍), 7개면(유치면 · 용산면 · 안양면 · 장평면 · 장동면 · 부산면 · 회진면), 293리로 구성되어 있다.

장평면은 원래 장택현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장남면과 장북면을 병합해 장서면이 되었다가 1936년 부평면의 23개 리를 병합해 장서와 부평의 이름을 따서 장평면이 되었다. 이후 1973년에는 장동면 광평리가 면에 편입되어, 현재는 용강 · 봉림 · 등촌 · 양촌 · 축내 · 저산 · 우산 · 병동 · 청룡 · 기동 · 선정 · 광평 · 녹양 · 임 · 내동 · 어곡 · 복흥 · 진산 · 두봉 등 19개 리로 구성 · 유지되고 있다[33].

---

33) 장흥군, 1986, 『마을 由來誌』.

봉림리는 본래 장흥군 장서면의 지역으로서, 봉미산(도산천) 밑이 되므로 봉림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산리, 흑석리, 교동리와 대평리를 병합하여 봉림리라 해서 장평면에 편입되었다[34].

장평면 봉림리는 해발 500m 내외의 산들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2011년 장흥 유치~화순 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 공사의 일환으로 발굴조사 된 장흥 봉림리 유적[35]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6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1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형계이고, 내부시설로는 벽구와 부뚜막, 구들 등이 확인되었다. 유적은 유물상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고 주거지 간의 중첩관계도 극소수라는 점에서 거의 단일시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심시기는 대략 4세기 초반경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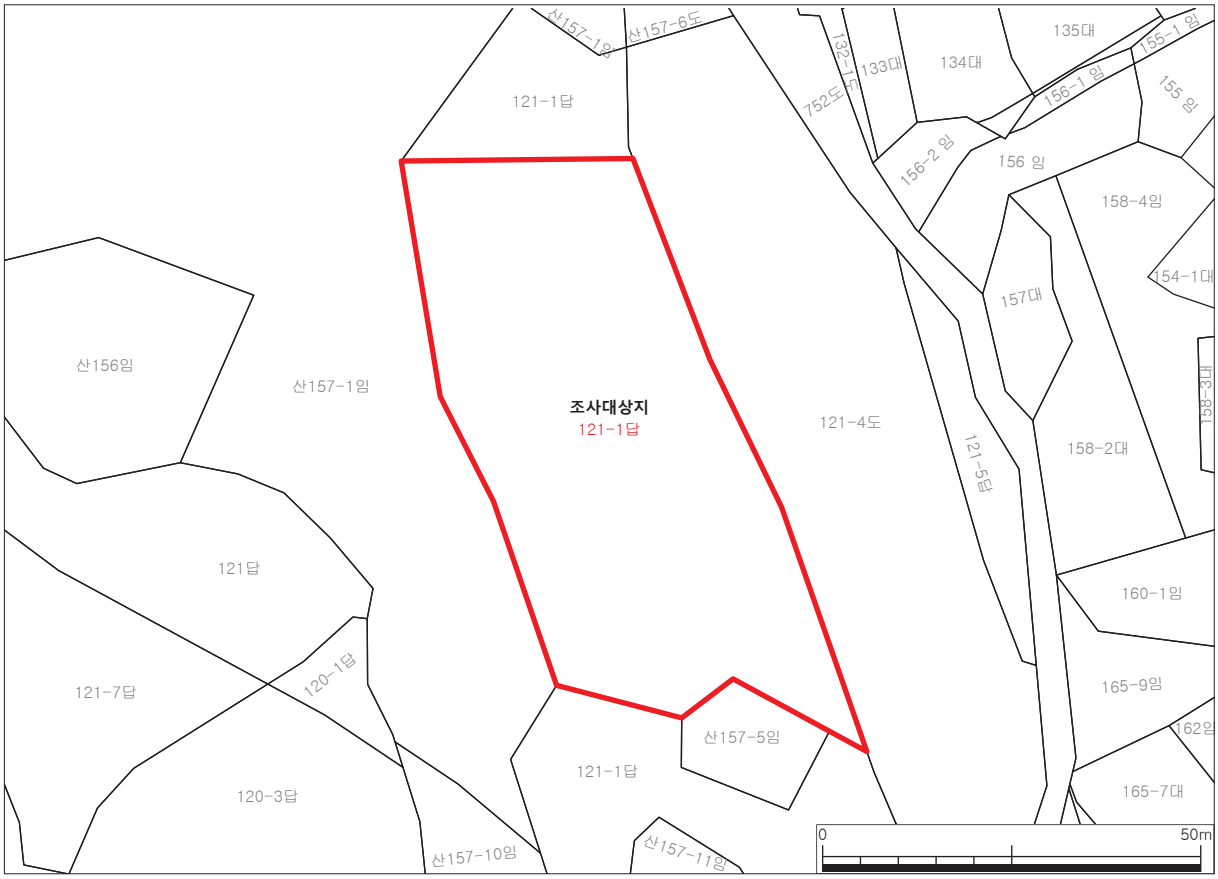
【표 1】 조사대상지 주변 유적 분포 현황

번호	유 적 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장흥 봉림리 흑석 유물산포지 '나'	0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남도문화재연구원·전라남도·장흥군,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장흥군』	
2	장흥 봉림리 오산 유적	북쪽 520m	삼국시대 생활유적 고려시대 건물지	전남문화재연구원·장흥군, 2015, 『장흥 장평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장흥 봉림리 오산 유적』	
3	장흥 봉림리 오산 유물산포지 '가'	북쪽 620m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이기길, 1997, 「보성강 유역에서 새로 찾은 구석기유적 예보」, 『한국고고학보』37, 한국고고학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4	장흥 봉림리 오산 유물산포지 '나'	북쪽 670m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이기길, 1997, 「보성강 유역에서 새로 찾은 구석기유적 예보」, 『한국고고학보』37, 한국고고학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5	장흥 우산리 구암동 고분군	북쪽 860m	삼국시대 고분군	남도문화재연구원·전라남도·장흥군,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장흥군』	
6	장흥 봉림리 봉림 유물산포지	동쪽 660m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남도문화재연구원·전라남도·장흥군,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장흥군』	
7	장흥 봉림리 흑석 지석묘 '가'	남동쪽 40m	청동기시대 고인돌	리영문·조근우, 1996, 「전남의 지석묘」, 『전남의 고대묘제』, 목포대학교박물관	

34) 한글학회, 1982, 『한국지명총람 15(전남편Ⅲ)』.

35) 이정호·이수진·윤효남·홍민영, 2013, 『장흥 봉림리유적』,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8	장흥 봉림리 흑석 유물산포지 '가'	남서쪽 148m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9	장흥 봉림리 대평 입석②	남서쪽 1000m	시대미상 선돌	남도문화재연구원·전라남도·장흥군,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장흥군』	
10	장흥 봉림리 유적	서쪽 100m	삼국시대 생활유적	이정호·이수진·윤효남·홍민영, 2013, 『장흥 봉림리 유적』,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1. 표본조사

조사지역은 장흥군의 북쪽 외곽, 가지산의 남동능선 말단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 대부분은 구지뽕 및 한약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조사지역 역시 구지뽕 경작지로 활용되어 오던 부지이다.

조사지역의 평면형태는 남쪽 변이 내외로 꺾여 있는 평행사변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표본조사는 지형 및 평면형태를 고려하여 동-서 방향으로 최초 트렌치 4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트렌치 1번과 2번 사이에 추가로 트렌치를 설정하여 총 5개의 트렌치를 설정하게 되었다. 설정된 각 트렌치 규모는 길이 1,000㎝, 너비 150㎝, 깊이 25~81㎝이다. 제토는 굴삭기를 이용한 기계제토를 실시한 후 수작업으로 정리하면서 퇴적양상과 유구 및 유물의 부존여부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지표 下 25㎝에서 확인된 암갈색점토에서 주거지 1동과 연질토기 호가 확인되었으며, 생토인 풍화암반층에서는 수혈유구 2기와 무문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암갈색점토는 원삼국시대 문화층 · 생토인 풍화암반층은 청동기시대 문화층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된 유구가 추가로 확인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표본조사 트렌치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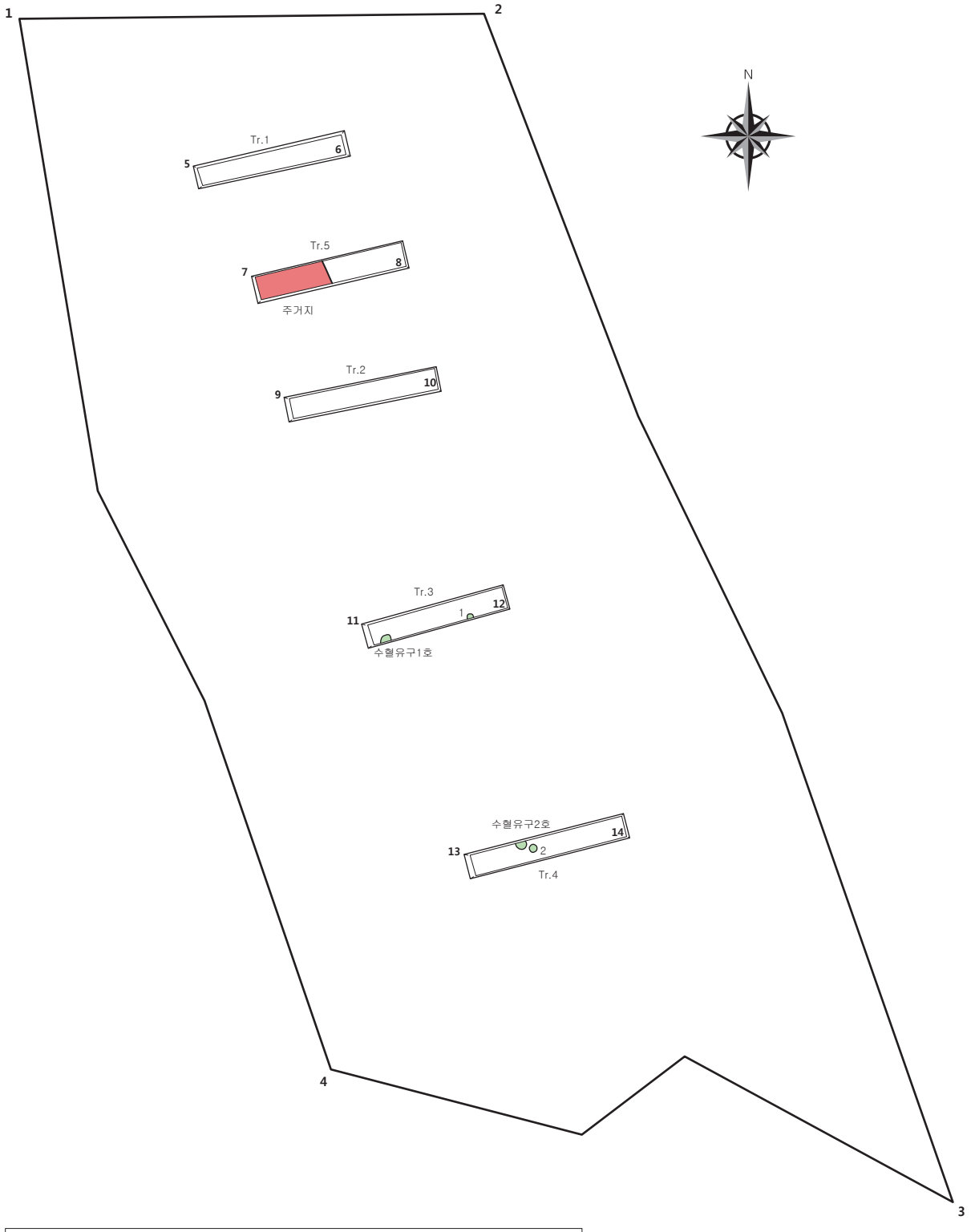
트렌치 번호	규모(㎝)			장축방향	조사내용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1,000	150	81	N-74° -E	유구 및 유물 없음	
2	1,000	150	37	N-74° -E	유구 및 유물 없음	
3	1,000	150	53	N-74° -E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주혈 1개, 무문토기 1점, 마제석촉 1점	
4	1,000	150	48	N-74° -E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주혈 1개	
5	1,000	150	25	N-74° -E	원삼국시대 주거지 1동, 호 2점	

2. 발굴조사

발굴조사를 위한 제토는 표본조사 시 확인된 토층 퇴적양상을 기준으로 문화층 상면까지 기계 제토하였으며, 문화층에 인접해서는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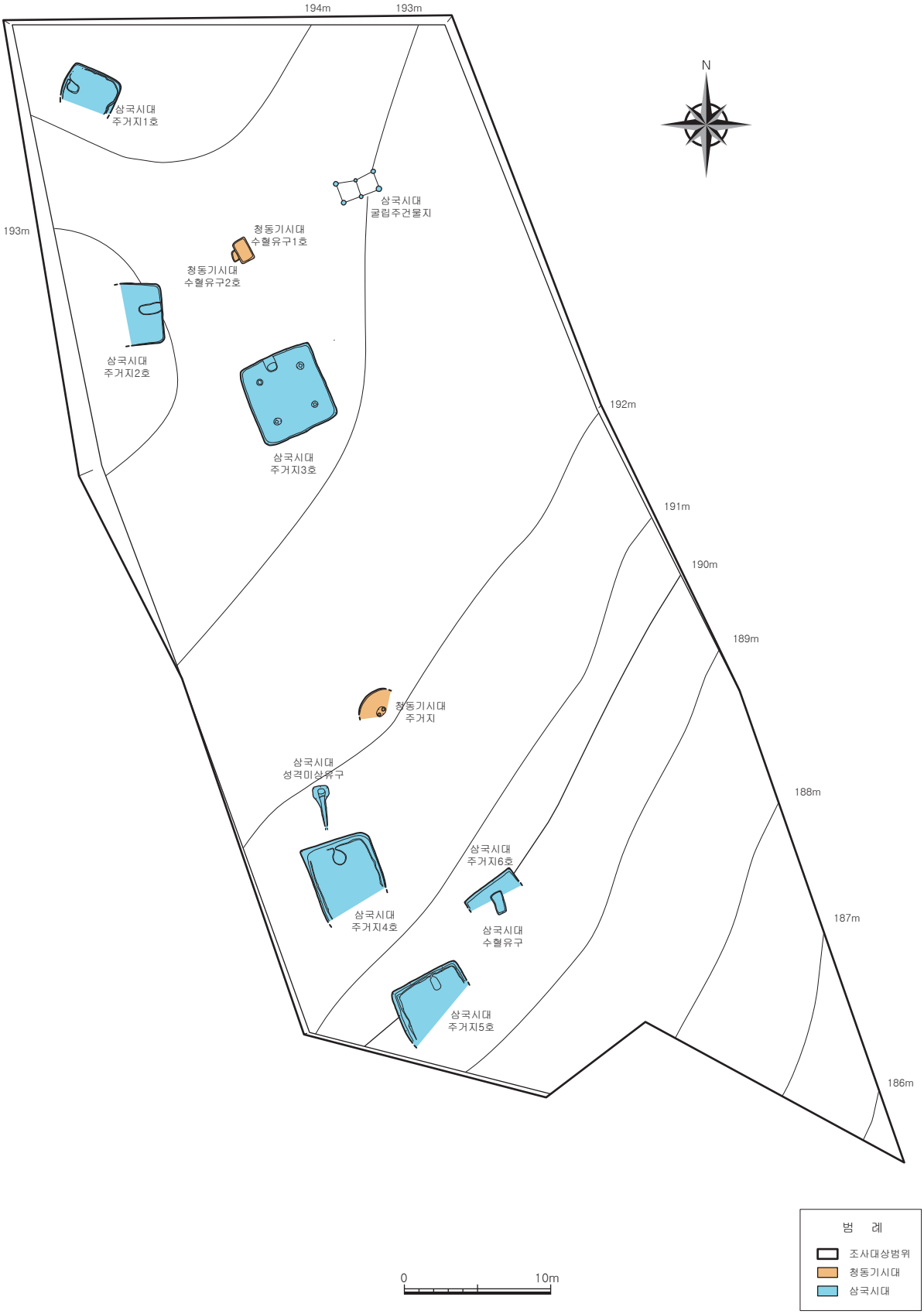
조사구역의 토층 퇴적양상은 북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토층(1층) → 삼국시대 문화층(2층) → 청동기시대 문화층(생토층)'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1층(표토층)은 갈색사질점토로 약 20㎝ 정도의 두께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는 농업용 폐비닐과 소량의 생활 쓰레기가 혼입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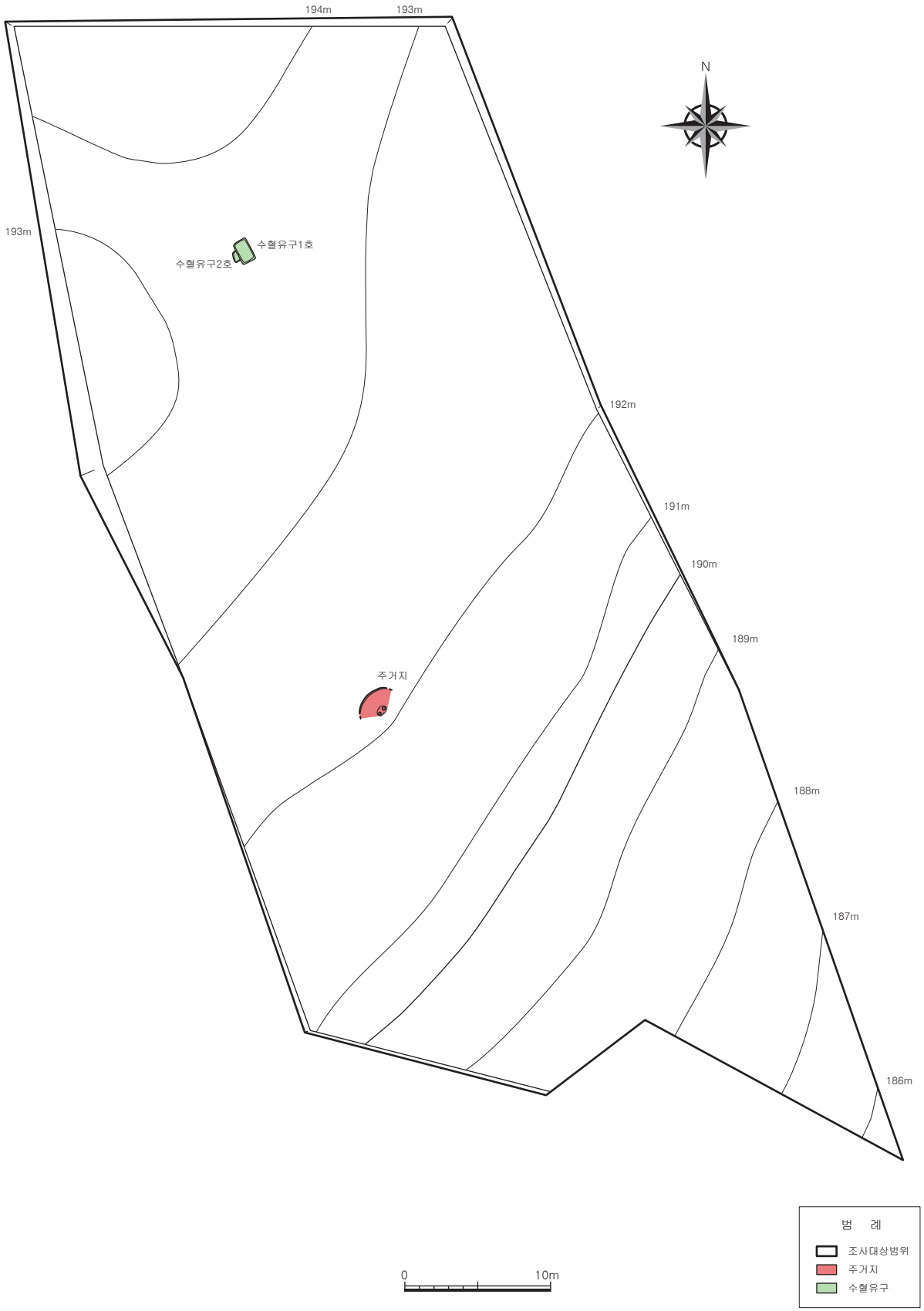


GPS 측정 제원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측정	TM 좌표		
GPS1	X	244939.200m	GPS4	X	244880.000m	GPS7	X	244931.500m	GPS10	X	244924.100m	GPS13	X	244894.400m	
	Y	193403.600m		Y	193421.100m		Y	193416.300m		Y	193428.200m		Y	193429.800m	
	Z	192.809m		Z	189.495m		Z	193.479m		Z	192.719m		Z	190.449m	
GPS2	X	244946.100m	GPS5	X	244938.600m	GPS8	X	244932.000m	GPS11	X	244909.200m	GPS14	X	244895.400m	
	Y	193433.000m		Y	193412.500m		Y	193426.000m		Y	193423.300m		Y	193440.100m	
	Z	192.591m		Z	193.509m		Z	193.158m		Z	192.466m		Z	188.758m	
GPS3	X	244887.500m	GPS6	X	244939.200m	GPS9	X	244923.700m	GPS12	X	244910.100m				
	Y	193457.200m		Y	193422.300m		Y	193418.200m		Y	193432.700m				
	Z	185.955m		Z	192.618m		Z	193.422m		Z	191.265m				

도면 4. 표본조사 트렌치배치도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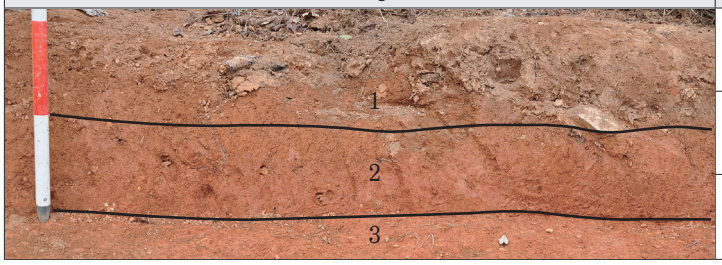
도면 6. 청동기시대 유구배치도

2층(삼국시대 문화층)은 암갈색점토로 지표 하 약 20㎝ 정도에서 확인되었으며, 최대 20㎝ 정도 두께로 퇴적되었다. 입자가 고운 점토층인데, 경작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부를 부분적으로 삭평하였으며, 계속된 경작행위로 인해 상당부분 교란되었다. 삼국시대 유구의 굴광선이 확인되는 층이다.

3층(청동기시대 문화층)은 생토인 갈색풍화암반으로 지표 하 약 40㎝ 정도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에서 남으로 경사져 내려간다. 청동기시대 유구의 굴광선이 확인되는 층이다.

제토결과 확인된 퇴적양상으로 보아 조사지역은 북쪽의 가지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는 곳으로, 청동기시대 생활유적이 형성되었다가 폐기된 후 경사면을 따라 암갈색점토가 퇴적되었으며, 그 위에 원삼국시대 생활유적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최근까지 경작지로 이용되며 부분적으로 교란되어 현 지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조사대상지 기준 토층도(북벽)

토 층	내 용	
	1층 : 갈색사질점토	표토층 (두께 20㎝)
	2층 : 암갈색점토	삼국시대 (지표하 20~40㎝)
	3층 : 갈색풍화암반	청동기시대 (지표하 40㎝ 이상)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문화층에서는 주거지 1동과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무문토기 구연부편 · 석거 · 미완성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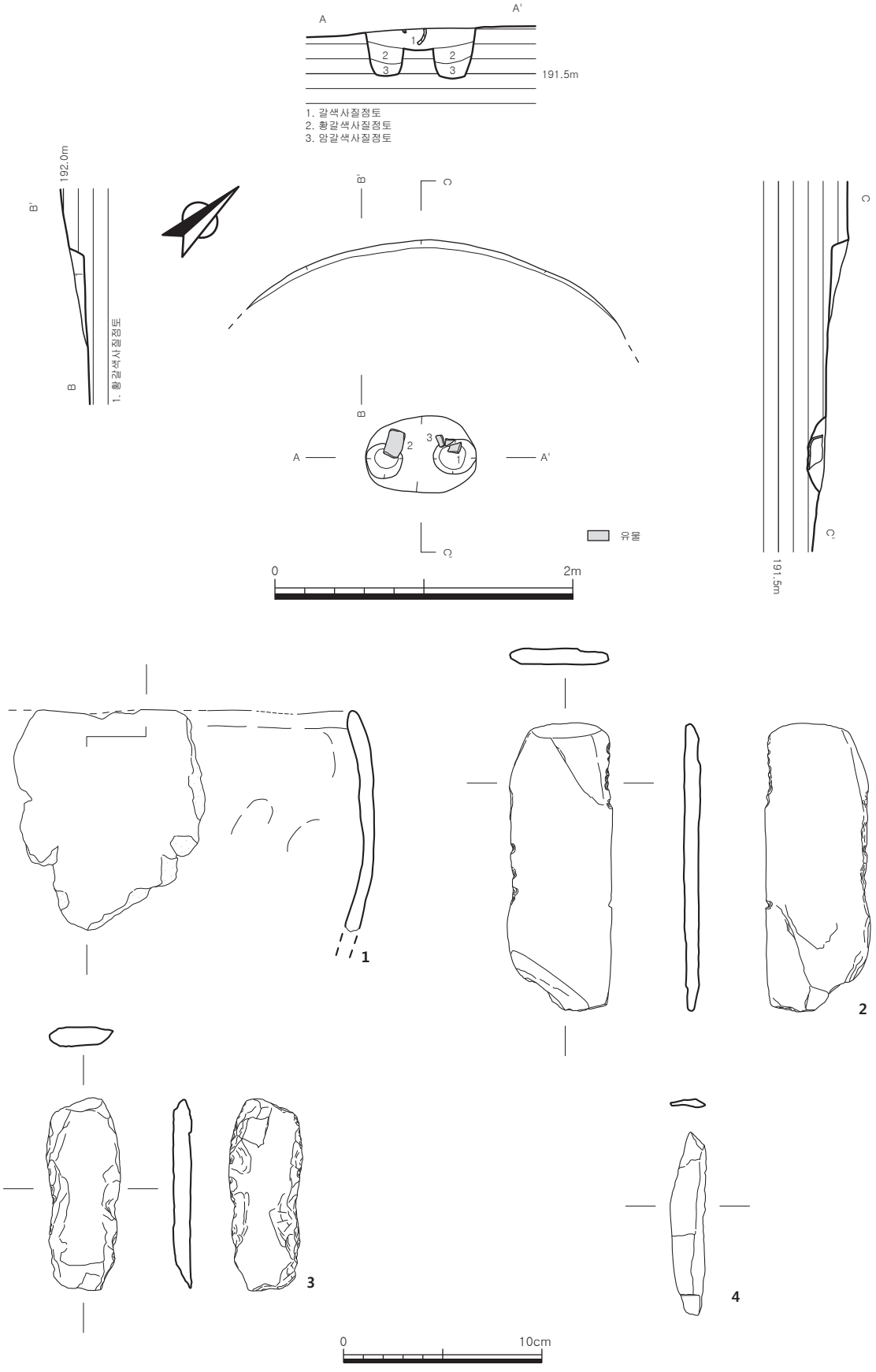
1) 주거지

가. 유구(도면 7, 도판 4-②~6-⑩)

조사구역 중앙부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191.9m 지점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26m 이격하여 수혈유구 1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풍화암반을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삭평으로 인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잔존양상으로 보아 원형으로 판단되며, 잔존규모는 길이 240㎝ · 너비 66㎝ · 최대깊이 11㎝이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42° -E)향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으며, 바닥면은 갈색풍화암반을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시설로는 작업공과 작업공 내부에서 주공이 확인되었다. 작업공은 주거지 바닥면을 굴착하고 조성하였는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74㎝ · 너비 51㎝ · 최대깊이 12㎝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경사지게 굴착되었으며, 단면은 'U'자형이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북쪽 주혈이 지름 29㎝ · 최대깊이 33㎝이고, 남쪽 주혈은 지름 22㎝ · 최대깊이 30㎝이다. 주혈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점토와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도면 7.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출토유물

유물은 작업공 내부에서 무문토기 구연부편 1점, 석거 1점, 미완성 석기 1점, 석편 1점 등 총 4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7-1, 도판 6-1)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 적황색(5YR 6/6), 속심은 회색(5YR 5/1)이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며,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1.1㎝, 두께 0.5~0.7㎝

2. 석거(도면 7-2, 도판 6-2)

화강편마암제 석거로 완형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에 가깝다. 한쪽 선단부분에 4㎝ 정도 톱니가 형성되어 있다. 횡단면형태는 납작한 육각형에 가깝다.

길이 14.4㎝, 너비 5.0㎝, 두께 0.8㎝

3. 미완성 석기(도면 7-3, 도판 6-3)

편마암제 미완성 석기로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고 횡단면형태는 납작한 육각형이다.전체적으로 타격흔이 거칠게 남아있으며 마연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길이 9.5㎝, 너비 3.2㎝, 두께 1.0㎝

4. 석편(도면 7-4, 도판 6-4)

편마암제 석편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 단면형태는 납작한 삼각형에 가깝다. 석기에서 떼어진 편인 듯하며 일부 마연흔이 보인다.

길이 9.3㎝, 너비 1.3㎝, 두께 0.4㎝

2) 수혈유구

(1) 수혈유구 1호

가. 유구(도면 8, 도판 7-①~④)

조사구역의 북쪽인 해발 193.2m 지점에 위치한다. 수혈유구 2호의 동쪽부분을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남쪽으로 26m 이격하여 주거지 1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풍화암반을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60㎝ · 너비 100㎝ · 최대깊이 12㎝이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 28° -W)향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 - 황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으며, 바닥면은 갈색풍화암반을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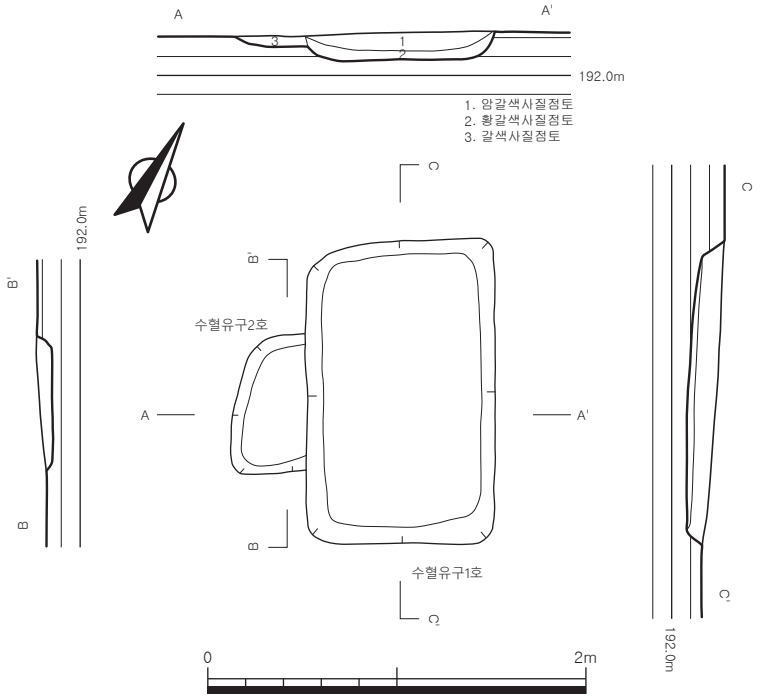
(2) 수혈유구 2호

가. 유구(도면 8, 도판 7-⑤~⑧)

조사구역의 북쪽인 해발 193.2m 지점에 위치한다. 수혈유구 1호에 의해 동쪽 부분이 파괴되었다. 남쪽으로 26m 이격하여 주거지 1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 풍화암반을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수혈유구 1호에 의해 상당부분 파괴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장방형 혹은 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73㎝ · 너비 39㎝ · 최대깊이 3㎝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으며, 바닥면은 갈색풍화암반을 비교적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8.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 · 2호

〈삼국시대〉

삼국시대 문화층에서는 주거지 6동과 굴립주 건물지 1동, 수혈유구 1기, 성격미상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단경호 · 완 · 장란형토기 ·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1) 주거지

(1) 주거지 1호

가. 유구(도면 10, 도판 8-②~11-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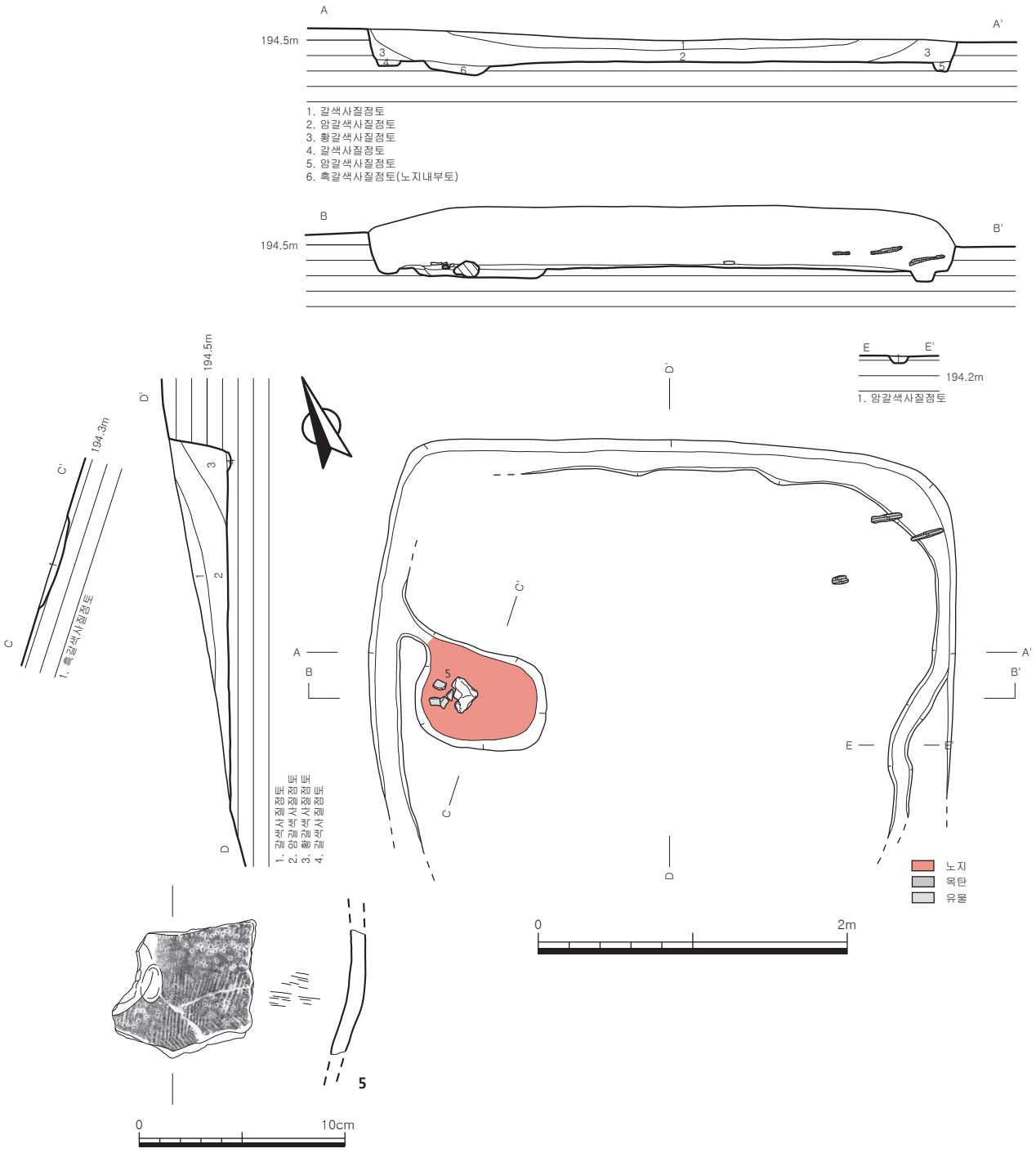
조사구역 북쪽 해발 194.7m 지점에 위치한다. 삭평으로 인해 동 · 서벽 일부와 남벽이 유실되었다. 남쪽으로 10m 이격하여 주거지 2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13.4m 이격하여 굴립주 건물지가 위치해 있다.

암갈색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삭평으로 인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잔존양상으로 보아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380㎝ · 잔존너비 270㎝ · 최대깊이 38㎝이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67° -W)향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으며, 바닥면은 풍화암반을 비교적 평탄하게 정지하였고 전체적으로 피열되어 검붉게 소결되었다.



도면 9. 삼국시대 유구배치도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벽구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서벽에 인접하여 타원형 수혈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규모는 길이 85㎝ · 너비 64㎝ · 최대깊이 4.5㎝이다. 벽면은 경사지게 굴착하였으며,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바닥면은 중앙부가 살짝 오목하게 굴착되었으며, 검붉게 소결되어 있었다.



도면 10. 삼국시대 주거지 1호 및 출토유물

바닥면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15㎝ 정도 크기의 할석 1개가 확인되었는데 지각으로 판단된다. 북서쪽부분이 돌출되어 벽구와 합류하고 있는데, 연도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25㎝ · 너비 11㎝이다.

벽구는 잔존하고 있는 주거지 벽면을 따라 너비 8~25㎝ · 최대깊이 6㎝ 정도로 굴착되어 있었으며, 단면은 'U'자형이다. 벽구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주거지는 내부에서 탄화부재가 확인되었으며, 바닥면이 전체적으로 피열된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하여 폐기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습된 탄화 부재를 이용한 AMS 분석 결과 A.D.427~A.D.561 및 A.D.332~A.D.422의 보정연대가 도출되었다.

유물은 지각 주변에서 토기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5. 토기 동체부편(도면 10-5, 도판 11-5)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은 적황색(5YR 7/6) 또는 명적색(2.5YR 7/6), 내면은 회갈색(10YR 5/2)이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하였으며 파수가 접합되었다가 탈락된 흔적이 관찰되고 파수접합시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지두압흔이 잔존한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1㎝, 두께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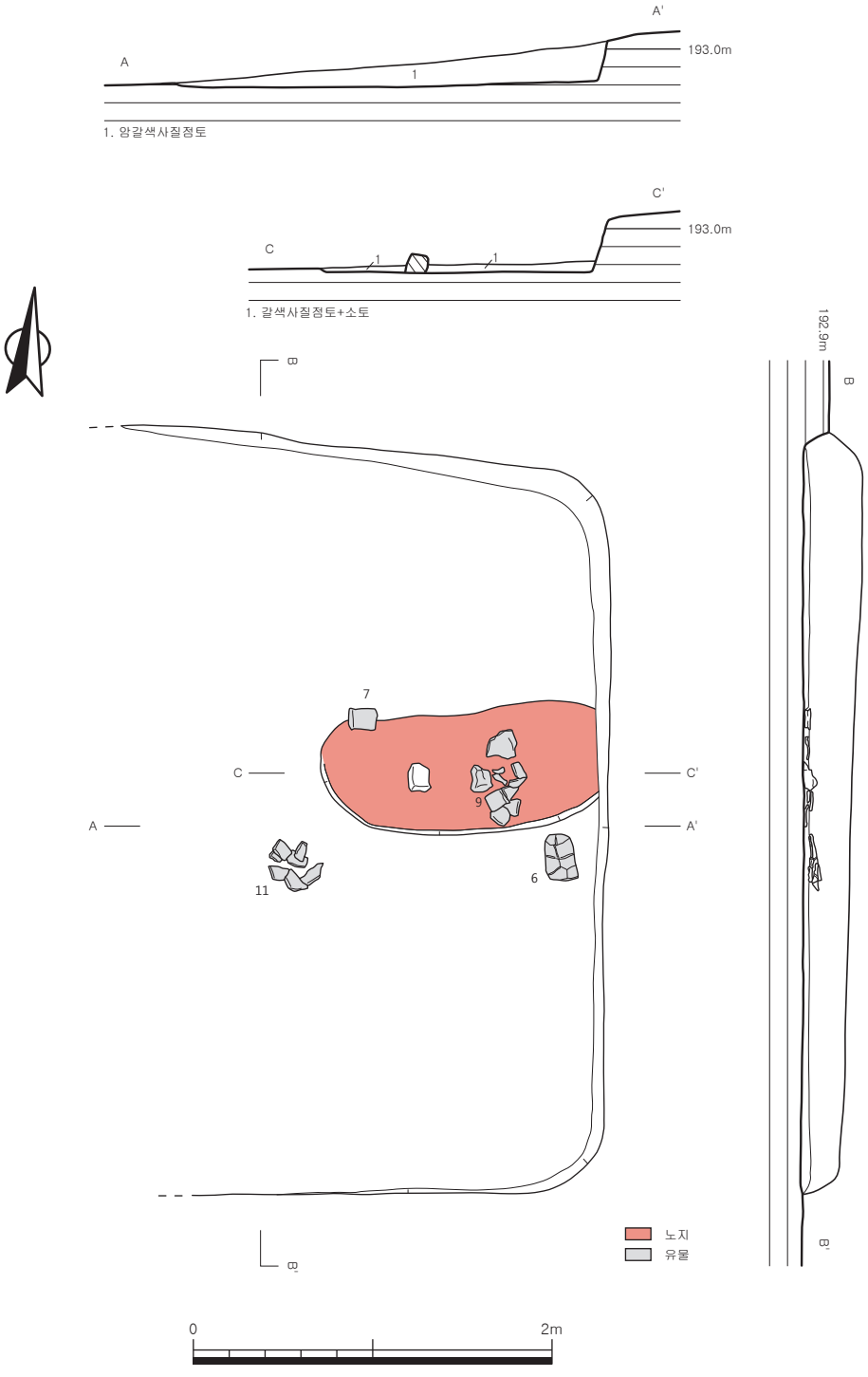
(2) 주거지 2호

가. 유구(도면 11, 도판 11-④~14-④)

조사구역 북쪽 해발 193.1m 지점에 위치한다. 삭평으로 인해 북 · 남벽 일부와 서벽이 유실되었다. 북쪽으로 10m 이격하여 주거지 1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5m 이격하여 주거지 3호가 위치해 있다.

암갈색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삭평으로 인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잔존양상으로 보아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423㎝ · 잔존너비 272㎝ · 최대깊이 29㎝이고, 장축방향은 남-북(N-5° -W)향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으며, 바닥면은 암갈색점토를 비교적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시설로는 노지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동벽에 연접하여 장타원형 수혈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154㎝ · 너비 67㎝ · 최대깊이 6㎝이다. 벽면은 경사지게 굴착하였으며, 내부에는 소량의 소토가 포함된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바닥면은 비교적 평탄하게 정지되어 있었으며, 약하게 소결되어 있었다. 바닥면 중앙에서 15㎝ 정도 크기의 할석 1개가 확인되었는데, 지각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노지 서쪽부근에서 옹 구연부편 1점, 노지와 인접한 동벽 부근 바닥면에서 옹 1점, 지각 주변에서 토기 구연부편 1점,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토기 동체부편 1점, 내부퇴적토에서 단경호 구연부 1점, 옹 구연부편 1점 등 6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1. 삼국시대 주거지 2호

나. 유물

6. 옹(도면 12-6, 도판 14-6)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가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황색(7.5YR 7/6)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으며, 경부 아래 약하게 단을 형성하였다. 동체부는 좁은 각도로 벌어져 내려오다가 상부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다시 내만한다. 구연부의 표면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동체부의 표면에는 지두압흔과 목리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9.8㎝, 복원구경 18.2㎝, 두께 0.4㎝

7. 옹 구연부편(도면 12-7, 도판 14-7)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황색(5YR 7/8)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말각으로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구연부의 내단과 경부의 외면에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하다.

잔존기고 6.4㎝, 두께 0.5㎝

8. 옹 구연부편(도면 12-8, 도판 14-8)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황색(7.5YR 6/6)을 띤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말각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좁은 각도로 벌어져 내려간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지두압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9.2㎝, 두께 0.3~0.5㎝

9. 토기 구연부편(도면 12-9, 도판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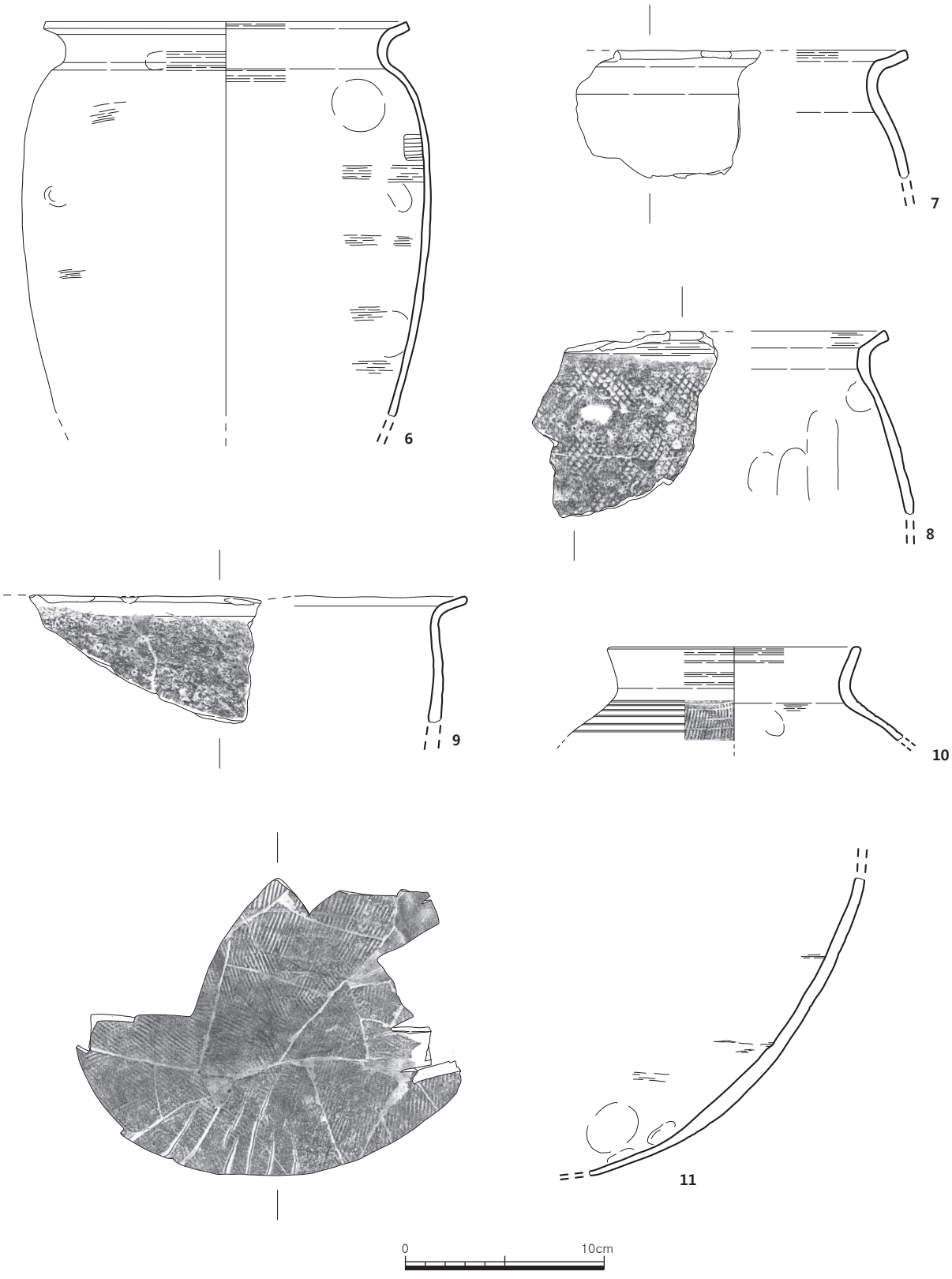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황색(7.5YR 7/6)이다. 구연부는 수평으로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수직으로 떨어진다. 외면에는 구연부에 부분적으로 지두압흔과 목리흔이 관찰되고 동체부는 사격자문 타날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3㎝, 두께 0.6㎝

10. 단경호 구연부(도면 12-10, 도판 14-10)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상복원 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황색(7.5YR 6/6)을 띤다. 구연부는 약하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구연부의 외면은 회전물손질하였으며, 동체부의 외면에는 선문 타날후 6열의 횡침선을 돌렸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7㎝, 복원구경 12.8㎝, 두께 0.5㎝



도면 12. 삼국시대 주거지 2호 출토유물

11. 토기 동체부편(도면 12-11, 도판 14-11)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암회색(10YR 4/1), 내면은 회갈색(10YR 5/2), 속심은 흑색(N 2.5/1)이다. 바닥은 원저로 추정되며 동체부는 벌어져 올라간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선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고 저부에는 사방향으로 교차 타날되었다.

잔존기고 14.9㎝, 두께 0.3~0.8㎝

(3) 주거지 3호

가. 유구(도면 13, 도판 15~18-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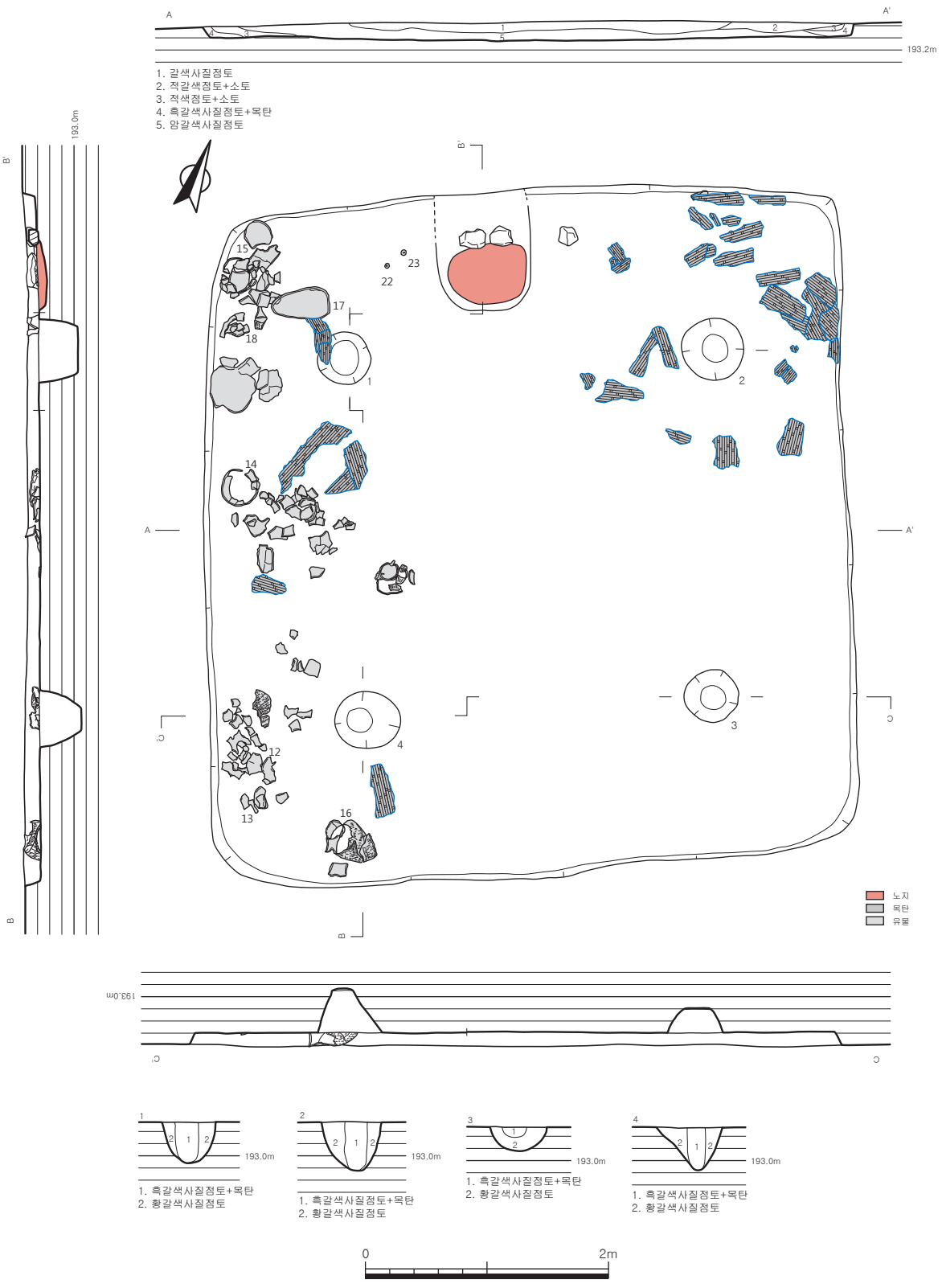
조사구역 북쪽 해발 193.4m 지점에 위치한다. 북서쪽으로 5m 이격하여 주거지 2호가 위치하고 있고, 북동쪽으로 8.6m 이격하여 굴립주 건물지가 위치해 있다.

암갈색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565㎝ · 너비 535㎝ · 최대깊이 17㎝이고, 장축방향은 남-북(N-20° -W)향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적갈색점토-적색점토-흑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암갈색점토를 비교적 평탄하게 정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피열되어 검붉게 소결되어 있었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북벽에 연접하여 말각방형에 가까운 수혈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규모는 길이 96㎝ · 너비 79㎝ · 최대깊이 8㎝이다. 내부에는 소량의 소토가 포함된 적황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경사지게 굴착하였으며, 바닥면은 중앙부가 살짝 오목하게 굴착되었고 검붉게 소결되어 있었다. 바닥면 중앙에서 20㎝ 정도 크기의 할석 2개가 나란하게 확인되었는데, 지각으로 판단된다. 주혈은 각 모서리 부근에서 1개씩 모두 4개가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고,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규모는 직경 43~54㎝ · 깊이 20~40㎝ 정도이다.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와 황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주거지 북서모서리 주혈부터 시계방향으로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주혈 중심간 거리는 주혈 1로 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306㎝ · 285㎝ · 293㎝ · 296㎝ 이다. 모두 내부 토층에서 목주흔이 확인되었는데, 확인된 목주흔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된 기둥의 지름은 16~20㎝ 정도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내부에서 탄화부재가 확인되었으며, 바닥면이 전체적으로 피열된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하여 폐기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습된 탄화 부재를 이용한 AMS 분석 결과 A.D.428~A.D.497 · A.D.506~A.D.583 · A.D.568~A.D.647의 보정연대가 도출되었다.

유물은 주거지 남서쪽 모서리 바닥면에서 완 구연부 1점 · 완 1점,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바닥면에서 단경호 1점, 북서모서리 바닥면에서 단경호 1점 · 옹 구연부 1점 · 호 1점 · 장란형토기 1점, 노지 서쪽에 인접하여 방추차 2점, 내부퇴적토 내에서 방추차 3점 등 총 12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3. 삼국시대 주거지 3호

나. 유물

12. 완(도면 14-12, 도판 18-12)

전체의 2/3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연담갈색(10YR 8/2), 속심은 담갈색(10YR 7/3)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수직으로 떨어지다가 내경하며, 바닥은 평저이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지워져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면은 지두압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0.1㎝, 복원구경 21.4㎝, 저경 15.3㎝, 두께 0.5~1.0㎝

13. 완 구연부(도면 14-13, 도판 18-13)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황색(7.5YR 7/6)이다. 구연부는 수평으로 외반하고 동체부는 약하게 내경하여 내려간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지워져 희미하게 관찰된다. 동체부 내외면에는 부분적으로 지두압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1㎝, 복원구경 25.8㎝, 두께 0.7㎝

14. 단경호(도면 14-14, 도판 1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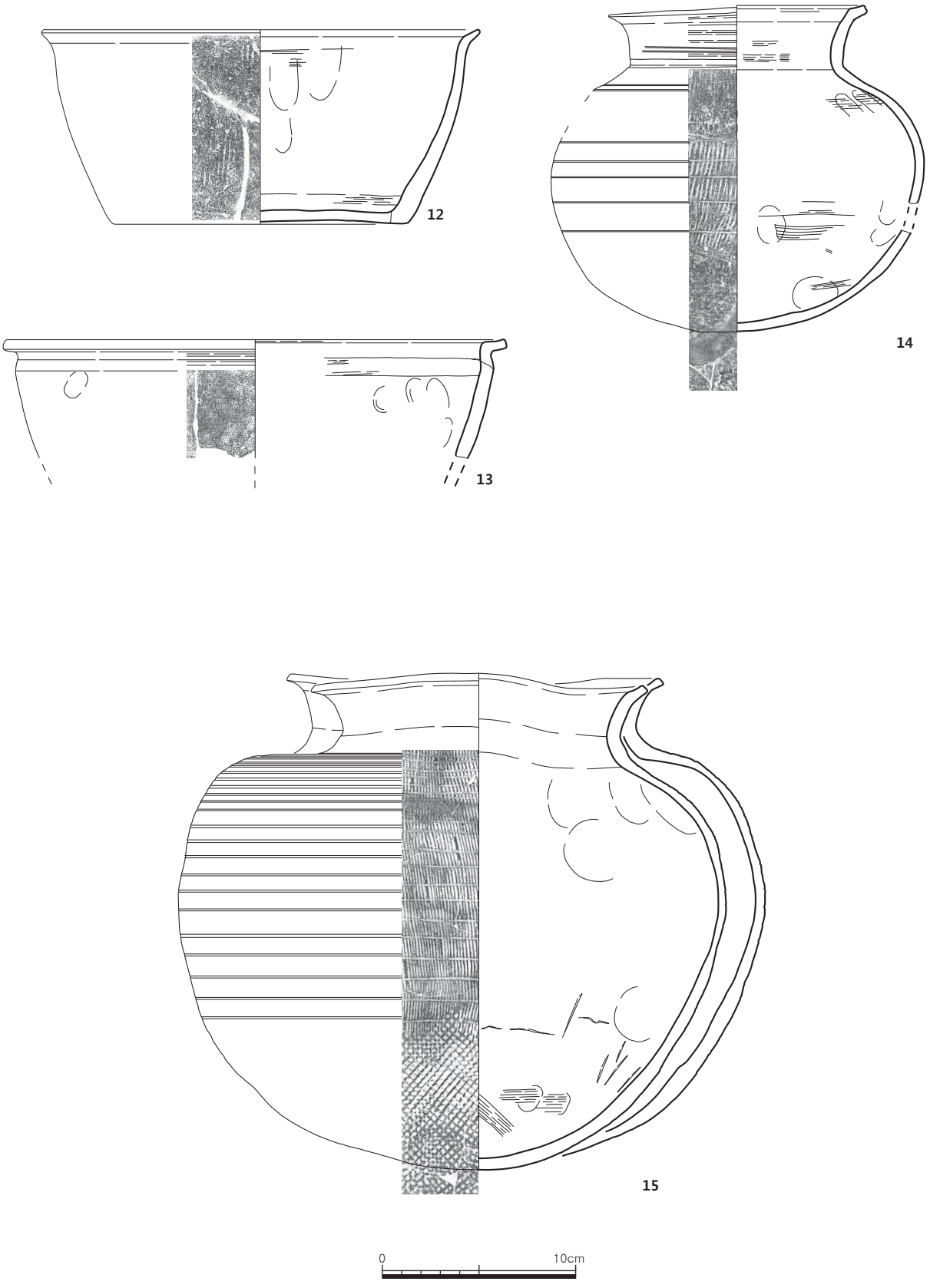
구연부의 일부와 저부가 분리된 상태로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연담황색(10YR 7/6)이다. 구연부는 외경하는 경부 상단에서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가 중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다시 내경하며, 바닥은 원저이다. 구연부는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상위에서 중하위까지 선문이 타날되었고 하위에서 바닥까지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상위에서 중하위까지 횡침선이 돌아가는데 8열이 확인된다. 동체부의 내면에는 내박자흔 · 지두압흔 · 목리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20.2㎝, 복원구경 13.2㎝, 두께 0.5㎝

15. 단경호(도면 14-15, 도판 18-15)

구연부와 동체부가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회색(10YR 7/1)이다. 구연부는 외경하는 경부에서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가 중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다시 내경하며, 바닥은 원저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상위에서 중하위까지 선문이 타날되었고 하위에서 바닥까지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상위에서 중하위까지 횡침선 21열이 확인된다. 동체부의 내면에는 내박자흔 · 지두압흔 · 목리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25.7㎝, 구경 16.8~19.0㎝, 두께 0.3~0.9㎝



도면 14. 삼국시대 주거지 3호 출토유물1

16. 호(도면 15-16, 도판 18-16)

동체부와 저부가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경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불량하여 기형이 일그러졌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연담황색(10YR 7/6)이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가 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다시 내경하며, 바닥은 원저이다. 구연부의 내면에는 횡방향 물손질 흔이 확인된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견부 아래에서 동중하위까지 선문이 타날되었고 하위에서 바닥까지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견부의 아래에서 중하위까지 횡침선 12열이 확인된다. 동체부의 내면에는 내박자흔 · 지두압흔 · 목리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36.5㎝, 구경 14.5~15.6㎝, 두께 0.3~0.8㎝

17. 장란형토기(도면 15-17, 도판 19-17)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 저부의 일부가 분리된 상태로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갈색(7.5YR 6/4)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수직에 가깝게 내경하며 내려간다. 바닥은 원저이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지두압흔이 확인되고, 저부 외면에는 목리흔이 관찰된다.

구연부: 잔존기고 12.5㎝, 두께 0.3㎝

저 부: 잔존기고 27.9㎝, 두께 0.4~0.6㎝

18. 옹 구연부(도면 15-18, 도판 19-18)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적색(2.5YR 7/6)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다. 신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8㎝, 복원구경 17.2㎝, 두께 0.3㎝

19. 방추차(도면 15-19, 도판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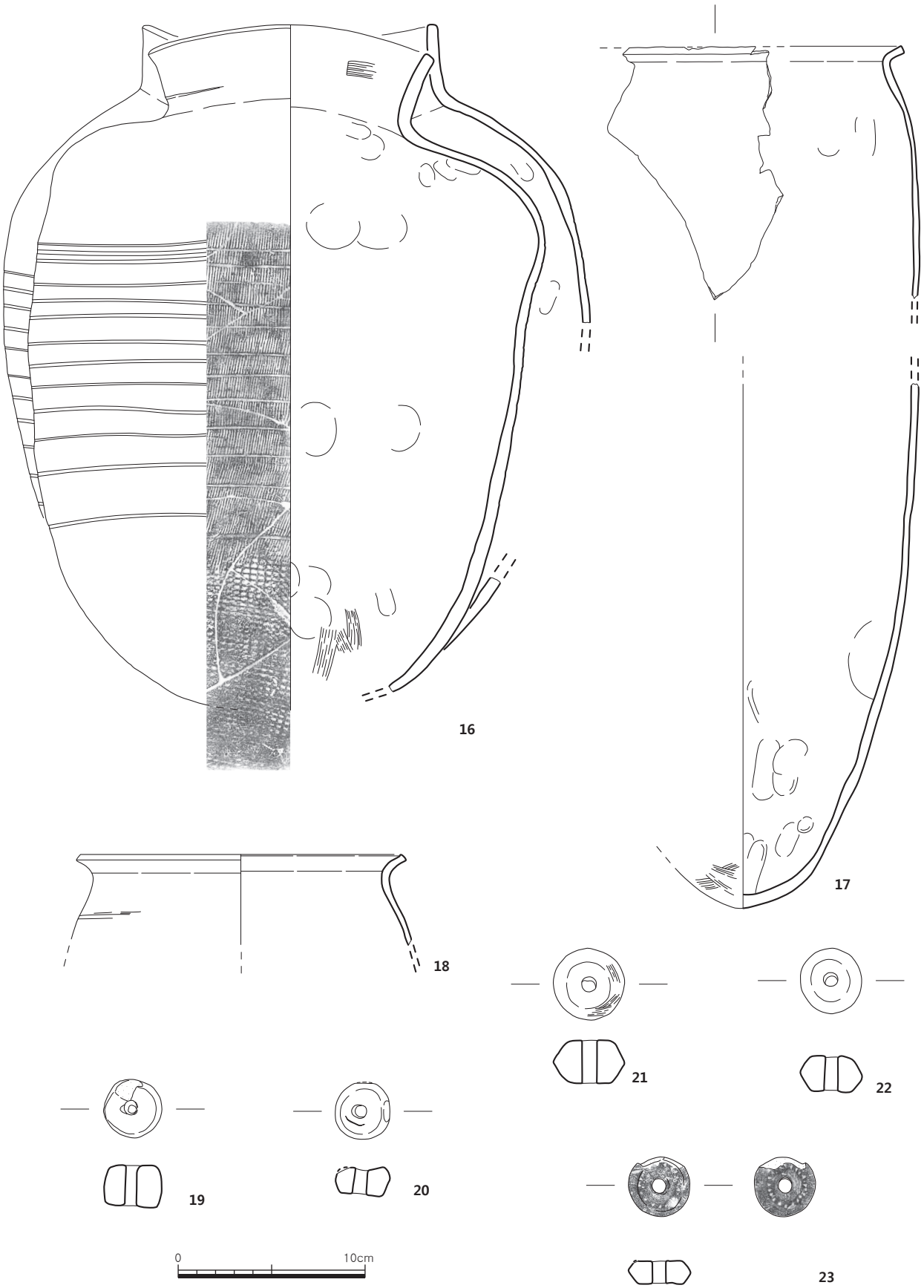
토제 방추차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깝다. 연질소성이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명갈색(7.5YR 6/4)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중앙에 직경 약 0.5㎝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측면은 배가 불룩하게 나왔으나 평탄한 편이고 가장자리를 말각으로 처리하여 단면형태는 말각장방형에 가깝다.

지름 3.1㎝, 두께 2.3㎝

20. 방추차(도면 15-20, 도판 19-20)

토제 방추차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연질소성이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갈색(10YR 5/2)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측면에는 중앙의 능선이 돌출되어 주판알형태를 띠며, 중앙에 직경 약 0.7㎝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단면형태는 말각육각형에 가깝다.

지름 2.9㎝, 두께 1.6㎝



도면 15. 삼국시대 주거지 3호 출토유물2

21. 방추차(도면 15-21, 도판 19-21)

토제 방추차로 완형이다. 연질소성이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적황색(5YR 6/6)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중앙에 직경 약 0.8㎝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측면은 중앙의 능선이 돌출되어 주판알형태를 띠며, 단면형태는 육각형이다.

지름 3.8㎝, 두께 2.3㎝

22. 방추차(도면 15-22, 도판 19-22)

토제 방추차로 완형이다. 연질소성이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적황색(5YR 6/6)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측면에는 중앙의 능선이 돌출되어 주판알형태를 띠며, 중앙에 직경 약 0.7㎝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단면형태는 육각형이다.

지름 3.3㎝, 두께 1.3㎝

23. 방추차(도면 15-23, 도판 19-23)

토제 방추차로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다. 연질소성이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갈색(10YR 5/2)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측면에는 중앙의 능선이 돌출되어 주판알형태를 띠며, 중앙에 직경 약 0.7㎝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단면형태는 육각형이다. 앞뒤 표면에 점열문 1열이 각각 돌아간다.

지름 3.3㎝, 두께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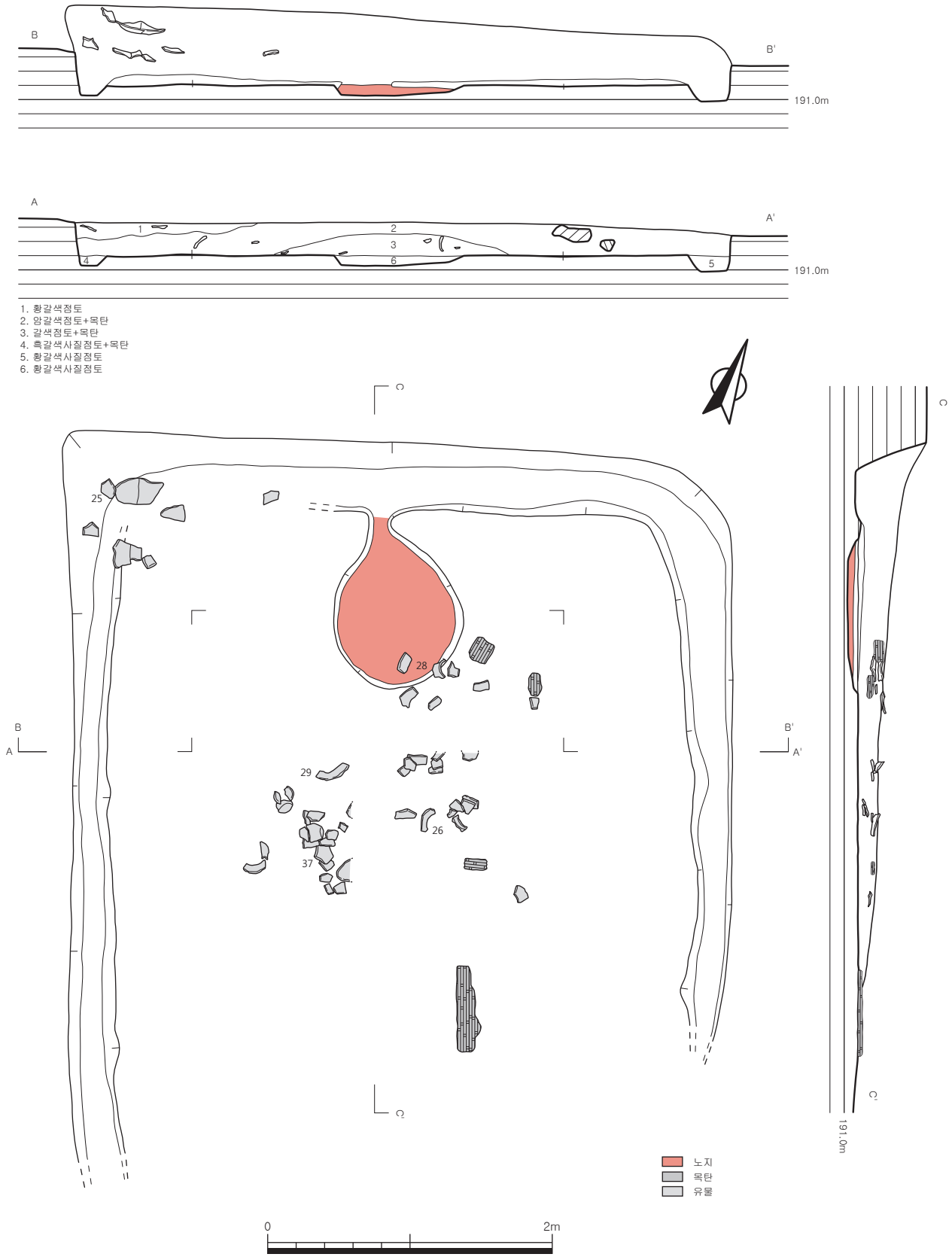
(4) 주거지 4호

가. 유구(도면 16, 도판 20~22)

조사구역 남쪽 해발 191.6m 지점에 위치한다. 삭평으로 인해 동·서벽 일부와 남벽이 유실되었다. 북쪽으로 1m 이격하여 성격미상유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6m 이격하여 주거지 6호가 위치해 있다.

암갈색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삭평으로 인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잔존양상으로 보아 장방형으로 판단되며, 규모는 잔존길이 502㎝·너비 460㎝·최대깊이 46㎝이고, 장축방향은 남-북(N-10°-W)향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점토-소량의 목탄이 혼입된 암갈색점토-소토와 목탄이 혼입된 갈색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풍화암반을 비교적 평탄하게 정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강하게 피열되어 검붉게 소결되어 있었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벽구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북벽에 인접하여 타원형에 가까운 수혈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규모는 길이 114㎝·너비 30㎝·최대깊이 6㎝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면은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중앙부가 살짝 오목하게 굴착되었으며, 검붉게 소결되었다. 북쪽부분이 돌출되어 벽구와 합류하고 있는데, 연도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15㎝·너비 15㎝이다. 벽구는 잔존하고 있는 주거지 벽면을 따라 너비 18~40㎝·최대깊이 11㎝ 정도로 굴착되어 있었으며, 단면은 'U'자형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도면 16.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주거지는 내부에서 탄화부재가 확인되었으며, 바닥면이 전체적으로 피열된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하여 폐기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습된 탄화 부재를 이용한 AMS 분석 결과 A.D.428~A.D.496 · A.D.506~A.D.597의 보정연대가 도출되었다.

유물은 북서모서리 부근에서 직구호 구연부편 1점, 중앙부 바닥면에서 10㎝정도 뜬 상태로 단경호 구연부편 2점 · 직구호 구연부편 1점 · 호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으며, 내부퇴적토에서 완 구연부 1점 · 단경호 구연부 1점 · 직구호 구연부 1점 · 호 구연부 1점 · 호 동체부편 2점 · 호 저부 1점 · 발 구연부 1점 · 구연부편 1점 · 저부편 1점 · 파수 1점 등 총 16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북서모서리에서 출토된 호 구연부편 1점을 제외하고는 주거지 중앙부에서 집중되어 출토되었는데, 주거지 중앙부는 생활공간으로서 토기가 자리하게 되면 주거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앙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바닥면에서 10㎝이상 뜬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상호 접합되지 않는 토기 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물 출토양상과 주거지 내부 공간 활용을 생각해 볼 때 주거지 중앙부에서 출토된 토기편들은 주거지 내부유물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된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나. 유물

24. 완 구연부(도면 17-24, 도판 23-24)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경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N 6/1)이다. 구연부는 사선으로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다. 신부는 수직으로 살짝 떨어지다가 내경한다. 신부의 외면 상부에는 너비 2.5㎝ 정도의 편평한 시문구를 횡방향으로 눌러서 문양효과를 냈는데 잔존편에는 4개가 확인된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0㎝, 복원구경 22.8㎝, 두께 0.6㎝

25. 직구호 구연부(도면 17-25, 도판 23-25)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구연부가 약간 찌그러져 있다. 경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회색(10YR 6/1), 속심은 회갈색(10YR 5/2)이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동체부의 외면에 선문을 타날한 후 횡침선을 돌렸는데 잔존편에 10열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7.3㎝, 구경 13.3㎝, 두께 0.5㎝

26. 직구호 구연부(도면 17-26, 도판 23-26)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은 회갈색(10YR 5/1)이고 속심은 연담갈색(10YR 8/3)이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구

연부의 표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의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다. 동체부의 내면은 마모가 심하여 정면흔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잔존기고 5.8㎝, 복원구경 18.4㎝, 두께 0.4㎝

27. 직구호 구연부(도면 17-27, 도판 23-27)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경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회색(10YR 6/1), 속심은 회갈색(10YR 5/2)이고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구연부는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의 외면은 지두압흔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내외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8㎝, 복원구경 14.4㎝, 두께 0.6㎝

28. 단경호 구연부(도면 17-28, 도판 23-28)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기형이 약간 찌그러져 있다. 경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회색(10YR 6/1)을 띤다. 구연부는 외경하는 경부에서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구연부는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의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고 횡침선 6열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지두압흔이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5㎝, 복원구경 14.8~17.4㎝, 두께 0.5㎝

29. 단경호 구연부(도면 17-29, 도판 2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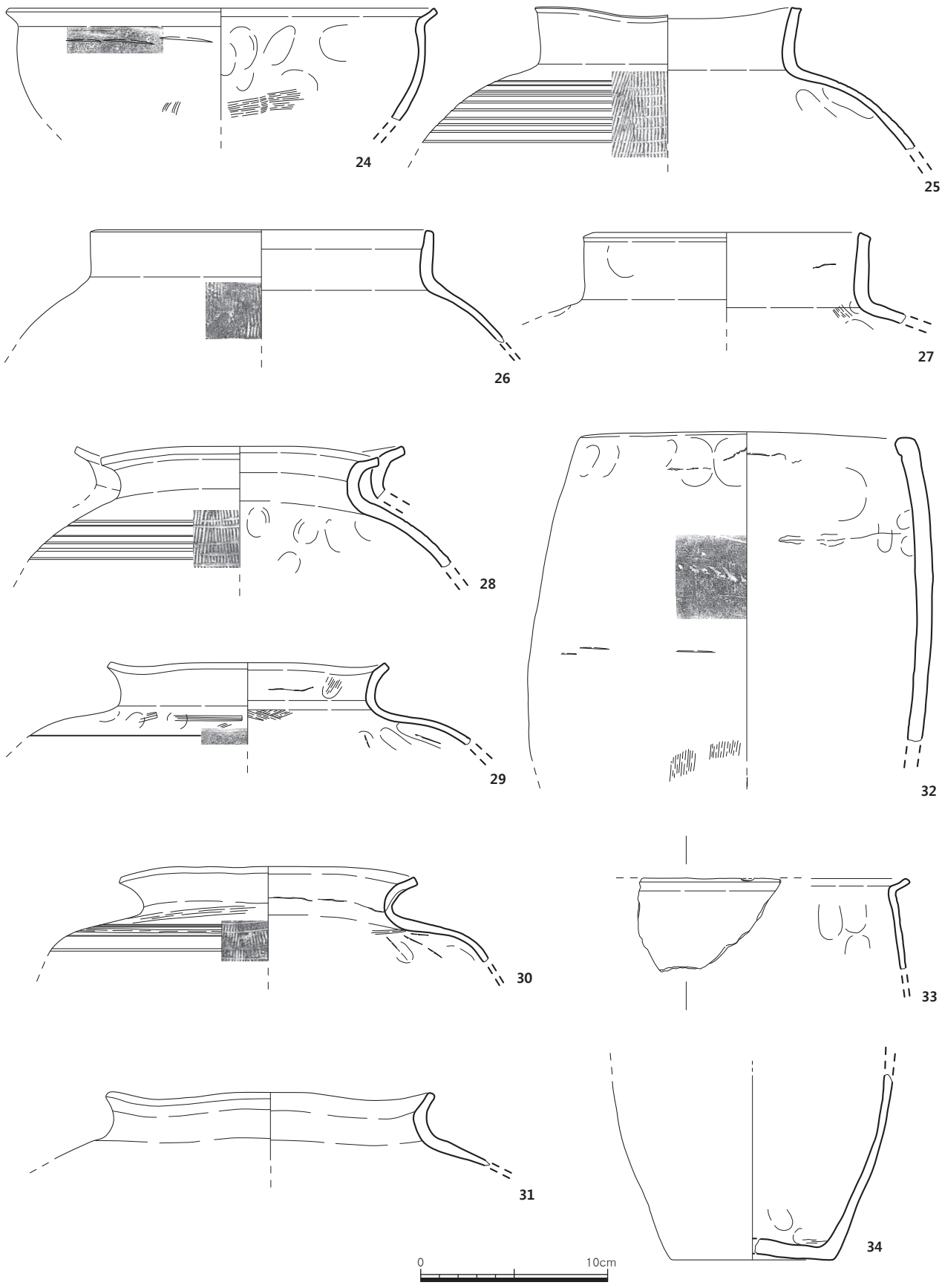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기형이 약간 찌그러져 있다. 경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회색(10YR 6/1), 속심은 회갈색(10YR 5/2)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구연부 내면에 목리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외면에는 지두압흔 · 목리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견부 아래에는 선문을 타날한 후 횡침선을 돌렸는데 1열이 확인된다. 동체부의 내면에는 지두압흔 · 목리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3㎝, 복원구경 14.6㎝, 두께 0.4㎝

30. 단경호 구연부(도면 17-30, 도판 23-30)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기형이 약간 찌그러져 있다. 경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회색(10YR 6/1)을 띤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구연부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한 후 횡침선을 돌렸는데 4열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목리흔 ·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1㎝, 복원구경 15.6㎝, 두께 0.4㎝



도면 17.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출토유물1

31. 호 구연부(도면 17-31, 도판 23-31)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기형이 약간 찌그러져 있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담황색(2.5YR 7/3)을 띤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간다. 내외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8㎝, 복원구경 17.2㎝, 두께 0.6㎝

32. 발 구연부(도면 17-32, 도판 23-32)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적황색(7.5YR 7/6), 속심은 회갈색(2.5YR 5/2)이고 외면에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구연부는 직립에 가깝게 내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동체부는 약하게 외경하며 내려간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는데 물손질로 지워져 희미하게 확인되며, 부분적으로 지두압흔과 목리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6.5㎝, 구경 17.9㎝, 두께 0.8~1.0㎝

33. 토기 구연부편(도면 17-33, 도판 23-33)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진암회색(10YR 4/1)이다. 구연부는 수평에 가깝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는 약하게 외경하며 내려간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전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8㎝, 두께 0.3㎝

34. 토기 저부(도면 17-34, 도판 2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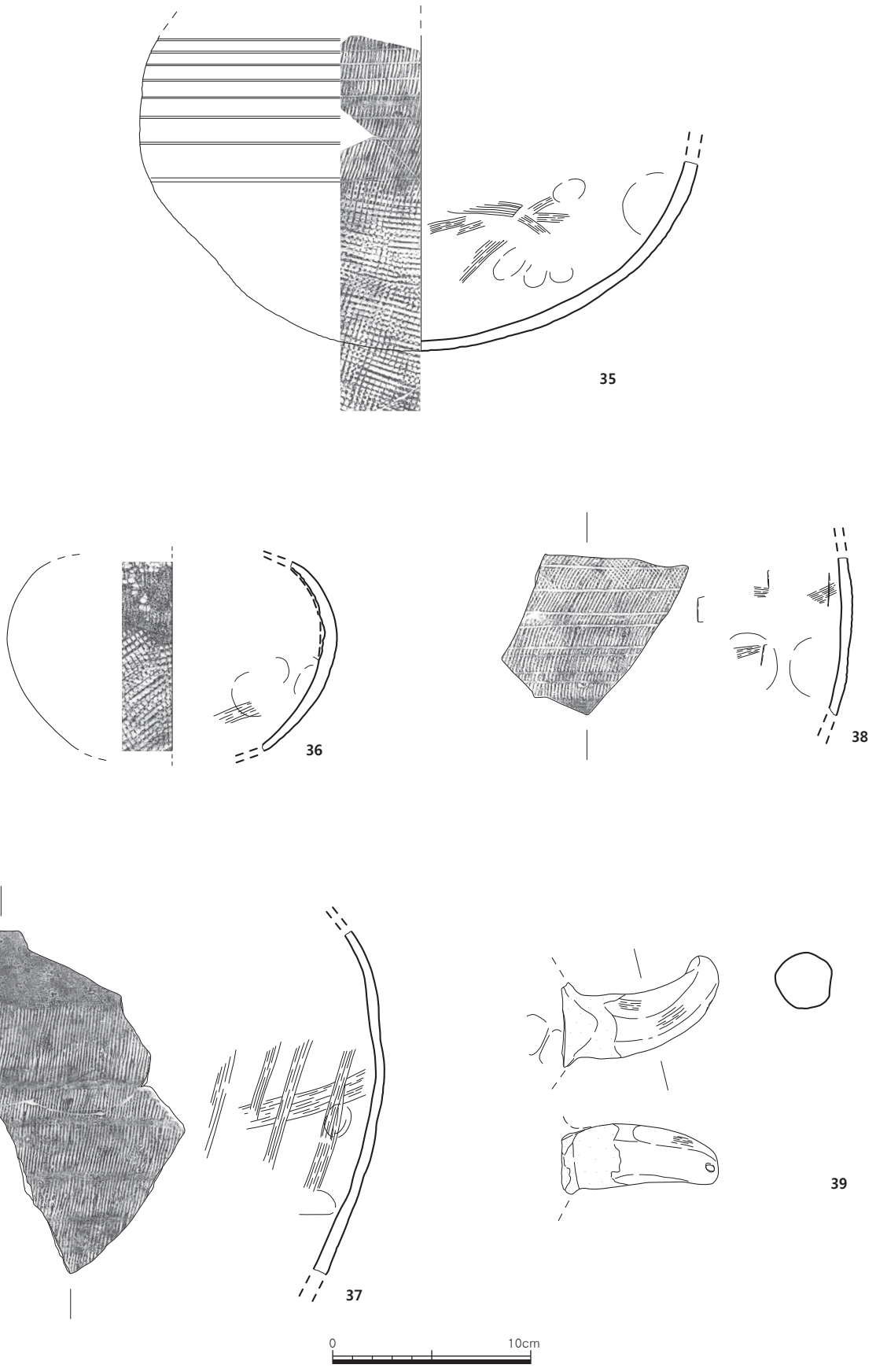
동체부 일부와 저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갈색(7.5YR 5/4) 또는 명적색(2.5YR 6/6), 속심은 암회갈색(10YR 4/2)이다. 바닥은 중앙이 들린 평저이고 동체부는 벌어져 올라간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9.9㎝, 복원저경 8.8㎝, 두께 0.4~0.7㎝

35. 호 저부(도면 18-35, 도판 23-35)

동체부 일부와 저부가 잔존한다. 경질소성이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회색(10YR 5/1), 속심은 적회색(5YR 5/2)을 띤다. 바닥은 원저이고 동체부는 벌어져 올라간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중하위에 선문을, 하위에서 바닥까지 격자문을 타날한 후 중하위에 횡침선을 돌렸는데 8열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내박자흔 · 목리흔 · 지두압흔이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6.0㎝, 두께 0.5~0.7㎝



도면 18.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출토유물2

36. 호 동체부(도면 18-36, 도판 23-36)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경질소성이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회색(N 5/1), 속심은 적회색(5YR 5/2)을 띠고 표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다. 외면 상위에서 중위까지 승문이 타날되었고 중하위에서 바닥까지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내박자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9.5㎝, 두께 04.~0.7㎝

37. 호 동체부편(도면 18-37, 도판 23-37)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10YR 6/1)이고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가며,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한 후 횡으로 문지른 5열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목리흔과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7.3㎝, 두께 0.4~0.7㎝

38. 호 동체부편(도면 18-38, 도판 23-38)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갈회색(10YR 6/2)이고 부분적으로 흑반이 형성되었다. 동체부는 벌어져 내려가며,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한 후 횡침선을 돌렸으며, 잔존편에는 8열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목리흔과 내박자흔이 관찰되며,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8.0㎝, 두께 0.6㎝

39. 파수(도면 18-39, 도판 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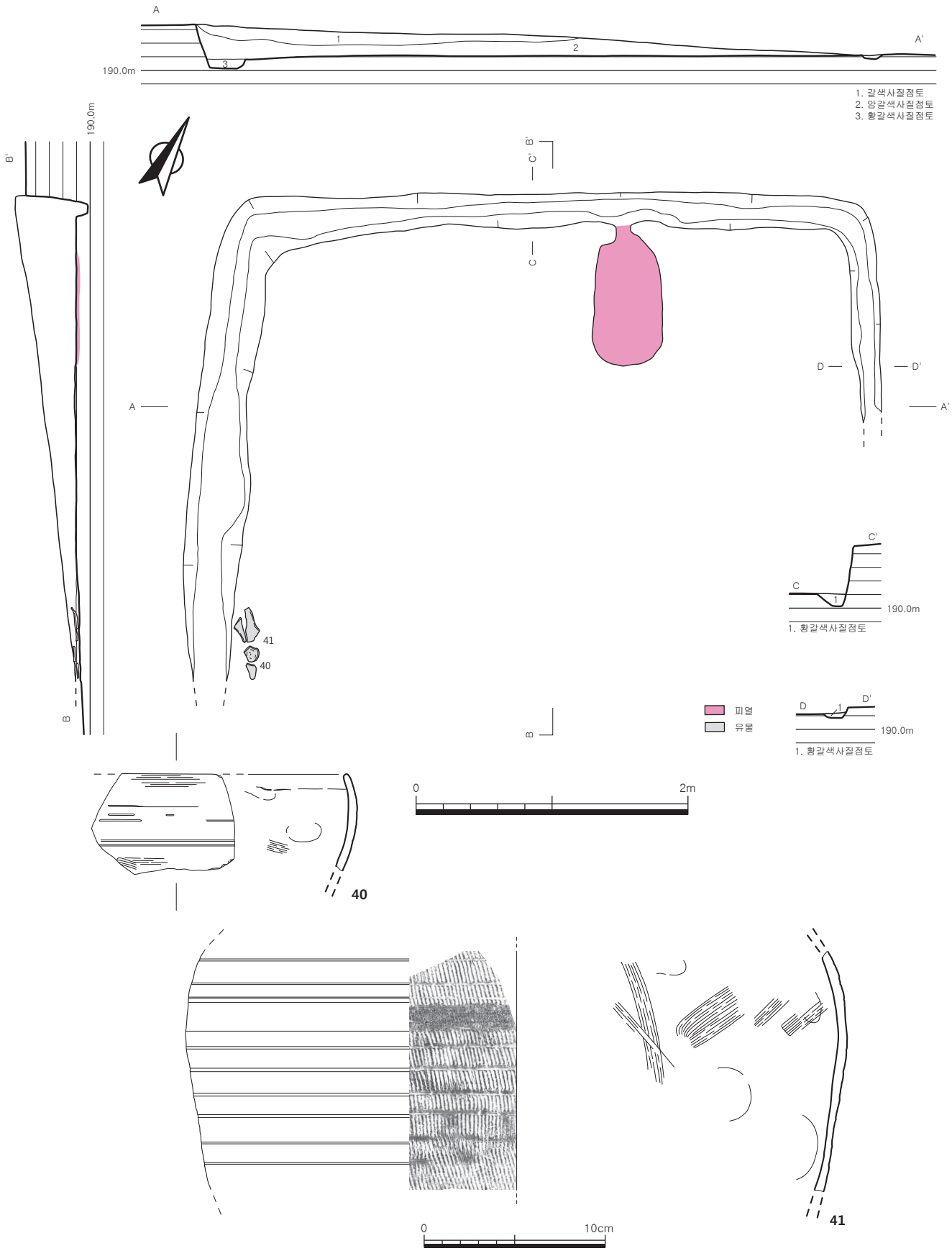
접합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연질소성에 가깝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암회갈색(10YR 4/2)이고, 속심은 적황색(7.5YR 6/4)이다. 우각형 파수로 끝부분이 위로 약간 휘어졌다. 파수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파수길이 8.0㎝, 두께 2.9㎝

(5) 주거지 5호

가. 유구(도면 19, 도판 24~26-③)

조사구역 남쪽 해발 190.6m 지점에 위치한다. 삭평으로 인해 동 · 서벽 일부와 남벽이 유실되었다. 북쪽으로 6.6m 이격하여 주거지 4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 3.4m 이격하여 주거지 6호가 위치해 있다.



도면 19. 삼국시대 주거지 5호 및 출토유물

암갈색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삭평으로 인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평면형태는 잔존양상으로 보아 장방형 혹은 방형으로 판단되며, 규모는 길이 503㎝ · 잔존너비 357㎝ · 최대깊이 54㎝이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65° -E)향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풍화암반을 비교적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벽구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북벽에 인접하여 타원형으로 붉게 소결된 바닥면만 잔존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97㎝ · 너비 50㎝이다. 북쪽부분이 돌출되어 벽구와 합류하고 있는데, 연도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12㎝ · 너비 10㎝이다. 벽구는 잔존하고 있는 주거지 벽면을 따라 너비 15~36㎝ · 최대깊이 8㎝ 정도로 굴착되어 있었으며, 단면은 'U'자형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남서모서리부근에서 호 동체부 1점, 내부퇴적토에서 완 구연부편 1점 등 총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40. 완 구연부편(도면 19-40, 도판 26-40)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소성에 가깝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10YR 6/1)을 띤다. 구연부는 내만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는 내만하여 내려간다. 동체부 외면에는 횡침선 5열이 확인되며, 부분적으로 목리흔이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지두압흔과 목리흔이 희미하게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3㎝, 두께 0.5㎝

41. 호 동체부(도면 19-41, 도판 26-41)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경질소성이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회색(10YR 6/1), 속심은 회색(N 6/1) 또는 적갈색(5YR 5/3)을 띤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그 위로 횡침선 9열이 등간격으로 돌아가며, 회전물손질로 1열의 띠가 형성되었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내박자흔 · 지두압흔 · 목리흔이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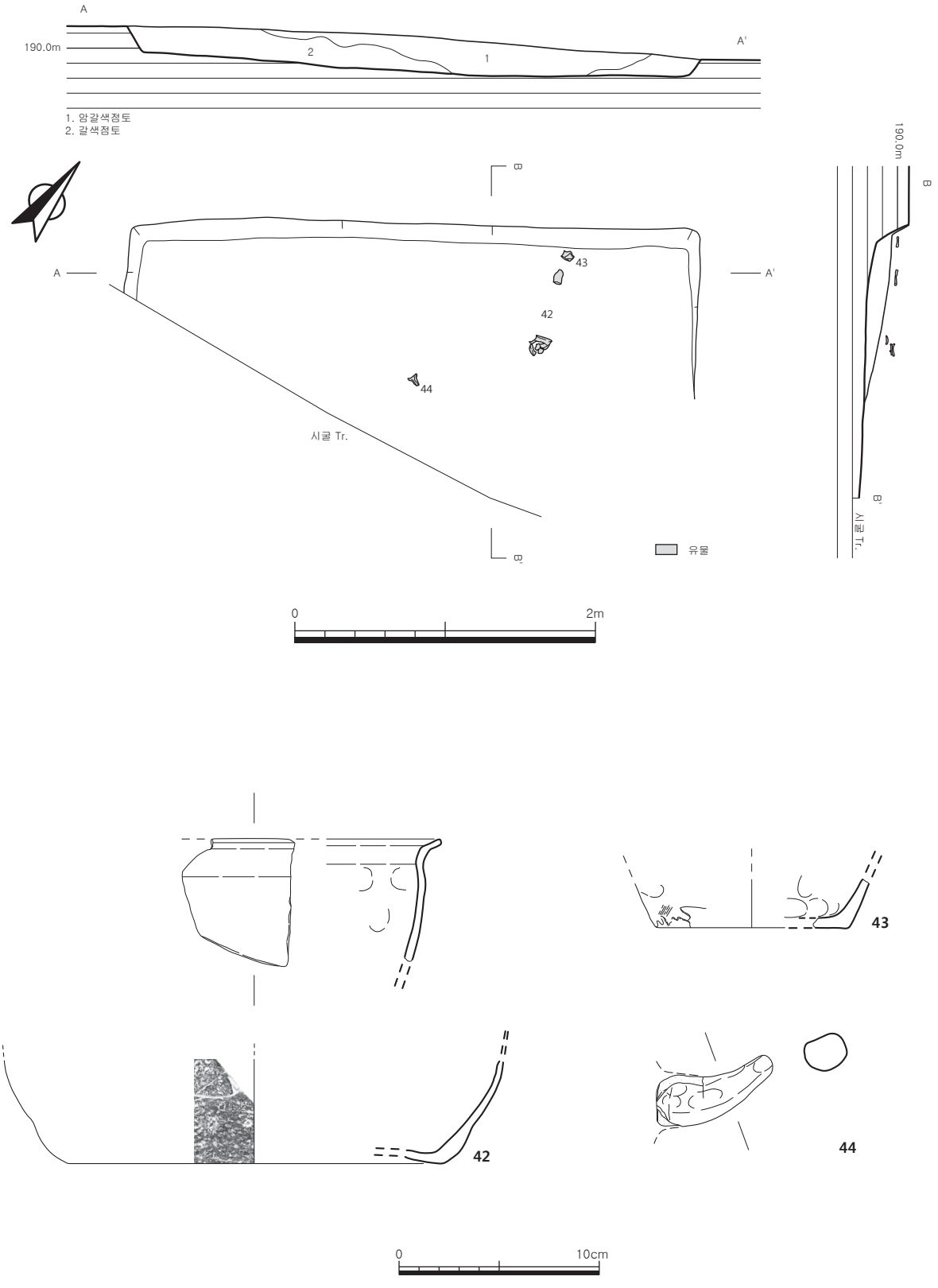
잔존기고 13.2㎝, 두께 0.5㎝

(6) 주거지 6호

가. 유구(도면 20, 도판 26-④~28-①)

조사구역 남쪽 해발 190.2m 지점에 위치한다. 수혈유구의 상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삭평으로 인해 동 · 서벽 일부와 남벽이 유실되었다. 서쪽으로 6m 이격하여 주거지 4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3.4m 이격하여 주거지 5호가 위치해 있다.

암갈색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삭평으로 인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잔존양상으로



도면 20. 삼국시대 주거지 6호 및 출토유물

보아 장방형 혹은 방형으로 판단되며, 규모는 길이 380㎝ · 잔존너비 114㎝ · 최대깊이 30㎝이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52° -E)향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점토-갈색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풍화암반을 비교적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북쪽 모서리 부근에서 토기 저부 1점, 완 1점, 중앙부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파수 1점 등 총 3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42. 완(도면 20-42, 도판 28-42)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 및 저부 일부가 서로 분리된 상태로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소성이고 소성상태는 양호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회색(2.5YR 7/2)을 띤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는 내경하여 내려가며, 바닥은 평저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대부분 지워져 희미하게 관찰되며, 부분적으로 지두압흔이 관찰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구연부: 잔존기고 6.1㎝, 두께 0.4㎝

저　부: 잔존기고 5.2㎝, 복원저경 18.8 ㎝, 두께 0.3~0.8㎝

43. 토기 저부(도면 20-43, 도판 28-43)

동체부 일부와 저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명갈색(7.5YR 6/4)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색(10YR 5/1)을 띤다. 바닥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벌어져 올라가며, 내 · 외면에 지두압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4㎝, 복원저경 9.6㎝, 두께 0.4~0.7㎝

44. 파수(도면 20-44, 도판 28-44)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깝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적황색(5YR 7/8)이다. 우각형파수로 단부로 갈수록 점점 약간씩 상향하고 뾰족해지며 선단부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단면형태는 말각장방형에 가깝다. 외면에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5.8㎝, 두께 2.1㎝

2) 굴립주 건물지

가. 유구(도면 21, 도판 28-②~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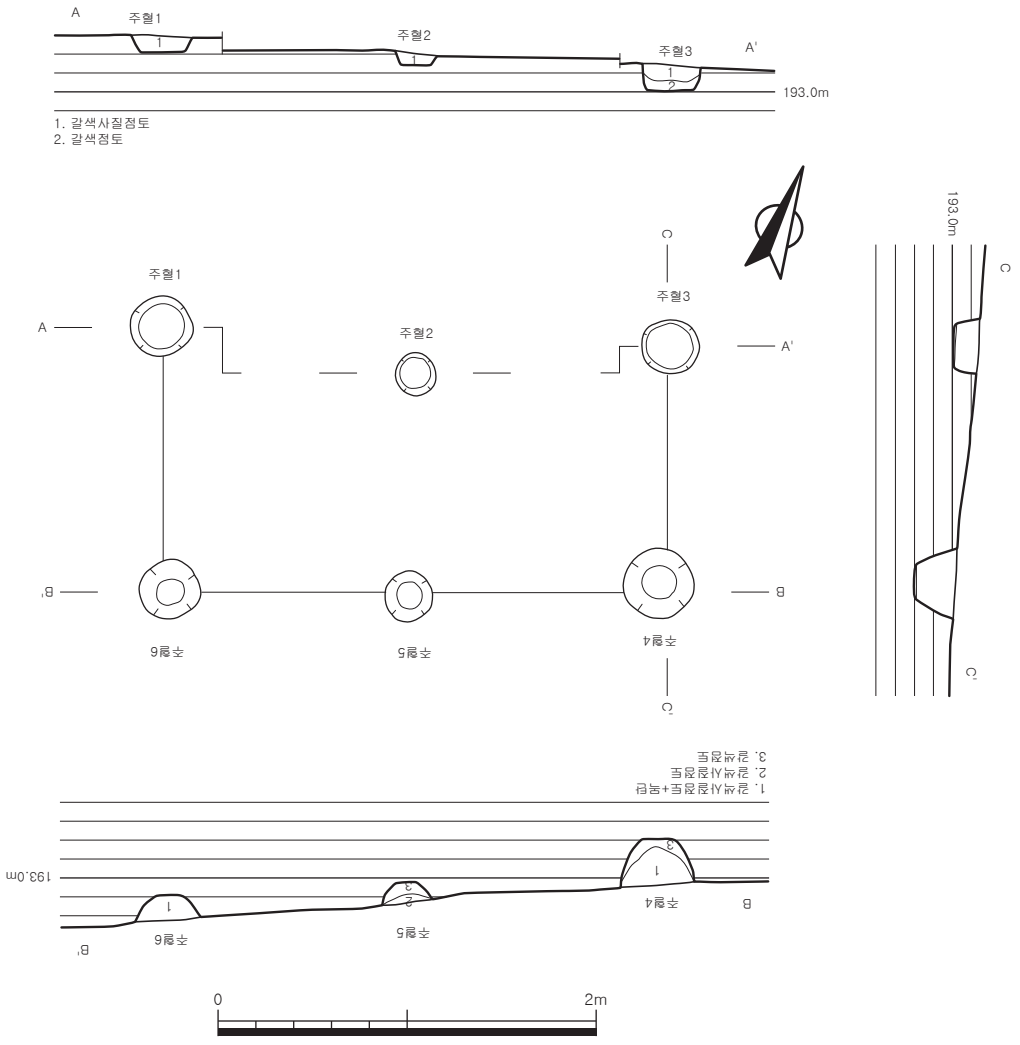
조사구역 북쪽 해발 193.3m 지점에 위치한다. 남서쪽으로 8.6m 이격하여 주거지 3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13.4m 이격하여 주거지 1호가 위치해 있다.

암갈색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293㎝ · 너비 171㎝이고, 장축방향은 동-서(N-70°-E)향이다. 확인된 주혈은 6개로 정면 2칸 · 측면 1칸의 구조이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규모는 직경 21~38㎝ · 깊이 6~25㎝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와 갈색점토가 퇴적되었다.

북서모서리 주혈부터 시계방향으로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주혈 중심간 거리는 주혈 1번으로 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135㎝ · 139㎝ · 128㎝ · 135㎝ · 130㎝ · 140㎝ 이다. 모두 내부 토층에서 목주흔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유구 폐기시 재사용을 위해 기둥을 회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21. 삼국시대 굴립주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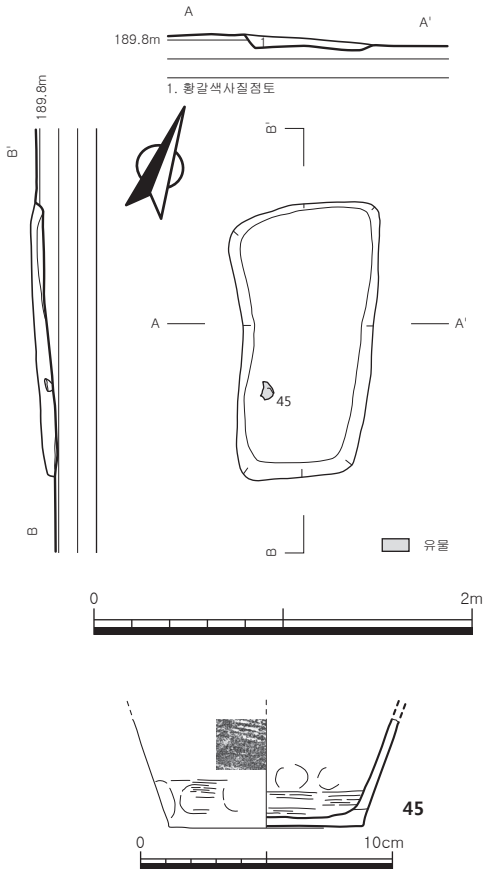
3)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22, 도판 31-①~④)

조사구역 남쪽 해발 189.9m 지점에 위치한다. 주거지 6호와 상하 중복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6호에 의해 상부가 파괴되었다. 서쪽으로 6m 이격하여 주거지 4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3.4m 이격하여 주거지 5호가 위치해 있다.

암갈색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45㎝ · 너비 63㎝ · 최대깊이 7㎝이고, 장축방향은 남-북(N-21° -W)향에 가깝다. 내부에는 황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풍화암반을 비교적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유물은 서벽 부근 바닥면에서 토기 저부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22. 삼국시대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

나. 유물

45. 토기 저부(도면 22-45, 도판 31-45)

동체부 일부와 저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적황색(5YR 7/6)이고 속심은 회색(5YR 5/1)을 띤다. 바닥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벌어져 올라가며,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저부의 외면에 횡방향의 목리흔이 관찰되며,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3㎝, 복원저경 7.8㎝, 두께 0.4㎝

4) 성격미상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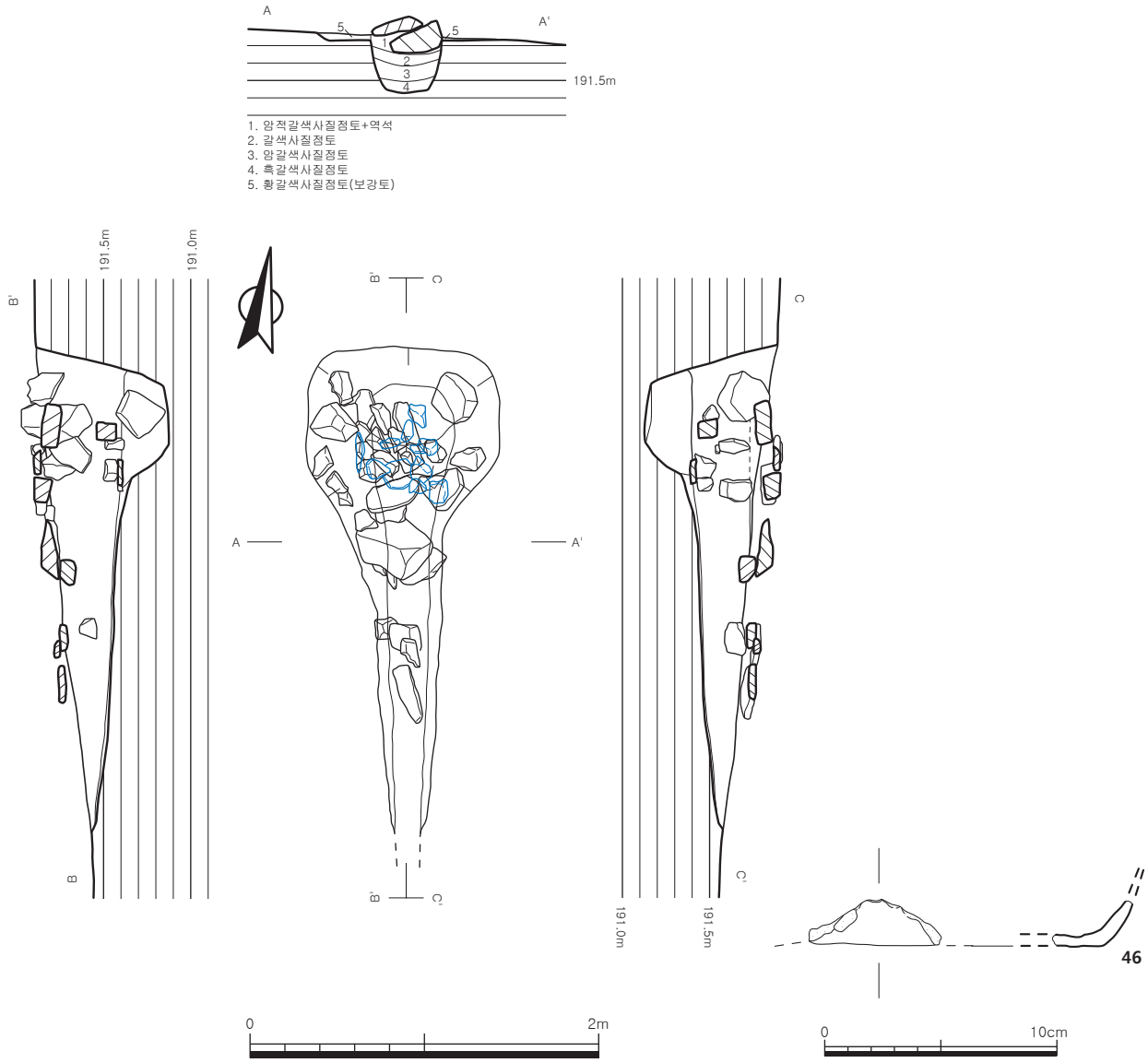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23, 도판 31-⑤~33-③)

조사구역 남쪽 해발 191.9m 지점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1m 이격하여 주거지 4호가 위치하고 있다.

암갈색점토를 굴착하고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에서 남쪽으로 길게 돌출된 건혈(鍵穴)형이며, 원형부분의 규모는 길이 110㎝ · 너비 100㎝ · 최대깊이 73㎝이고, 장축방향은 남-북(N-10° -W)향이다. 내부에는 암적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흑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갈색점토가 퇴적되었으며, 본래 원형부분 축조에 이용되었으리라 추정되는 20~40㎝ 정도 크기의 할석들이 붕적(崩積)되어 있었다. 무너져 내린 돌들을 제거하자 서쪽부분과 남쪽 일부에 잔존하고 있는 벽석들이 확인되었는데,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서쪽 벽석의 경우 2단이 잔존하고 있었다. 크기

20~40㎝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나 조밀하지 못한 양상이었다. 바닥면은 풍화암반을 비교적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원형부에서 남쪽으로 길게 돌출된 부분이 연접하는 곳에는 원형부 바닥면보다 돌출부가 21㎝정도 높도록 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약 6° 정도의 경사를 이루며 올라간다. 돌출부는 남쪽부분이 삭평으로 유실되었으며, 잔존하는 평면형태는 남쪽으로 갈수록 약하게 좁아지는 쐐기형이고, 단면은 'U'자형이다. 돌출부의 규모는 잔존길이 205㎝ · 너비 15~51㎝ · 최대깊이 43㎝이다.

유물은 서벽 벽석 사이에서 토기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23. 삼국시대 성격미상유구 및 출토유물

나. 유물

46. 토기 저부편(도면 23-46, 도판 33-46)

저부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소성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표면이 적황색(5YR 7/6)이고 속심은 회색(5YR 5/1)을 띤다. 바닥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벌어져 올라간다. 물손질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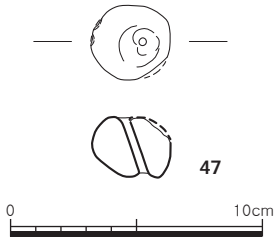
잔존기고 2.1㎝, 두께 0.8㎝

5) 수습유물

47. 어망추(도면 24-47, 도판 33-47)

토제 어망추로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다. 연질소성이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적황색(5YR 6/6)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측면에는 중앙의 능선이 돌출되어 주판알형태를 띠며, 중앙에 직경 약 0.3㎝ 크기의 구멍이 사방향으로 뚫려있다. 단면형태는 육각형이다.

지름 3.1㎝, 두께 2.3㎝



도면 24. 삼국시대 수습유물

Ⅳ. 조사성과

본 유적은 문서호씨의 동 · 식물관련시설 신축부지인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121-1번지에 해당하며, 조사면적은 2,616㎡이다. 발굴조사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실조사일수 3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장흥 봉림리 흑석 유물산포지 '나'의 분포범위 내에 해당한다. 주변에는 봉림리 유적과 봉림리 흑석 유물산포지 '가'를 비롯하여 남동쪽에 봉림리 흑석 지석묘 '가'군, 북(동)쪽에 봉림리 오산 유물산포지 '가' · '나' 및 봉림리 오산 유적, 동쪽에 봉림리 봉림 유물산포지 등 다수의 유적이 분포한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2개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 수혈유구 등 생활과 관련된 유구들이 조사되었고, 유물은 무문토기 구연부편 · 석부 · 석거 · 단경호 · 완 · 장란형토기 ·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1.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문화층에서는 주거지 1동과 수혈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잔존하는 양상으로 볼 때 평면 원형에 중앙에 타원형의 작업공을 가지고 있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형 주거지로 판단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전남지방에서 시간상으로 원형계가 줄어들고 방형계의 비중이 커지면서 철기시대 장방형주거지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이러한 양상은 서쪽으로 8㎞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는 장흥 신풍유적[37]에서 확인되고 있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1동으로 원형계 주거지만 확인되었고, 유물 또한 빈약하여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원형계주거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기 혹은 늦어도 방형계로 완전히 이행되기 전 시기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삼국시대

삼국시대 문화층에서는 주거지 6동, 수혈유구 1기, 굴립주 건물지 1동, 성격미상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북쪽과 남쪽으로 무리를 나누어 확인되었는데 북쪽의 주거지 1~3호와 남쪽의 4~6호로 작게 무리가 나뉘고 있다. 이러한 군집양상은 서쪽에 인접하고 있는 장흥 봉림리 유적[38]에서도 확인되

---

36) 최성락 · 이영철 · 한옥민 · 김영희 2001, 『영광 군동유적』 - 라지구 주거지 · 분묘 -, 목포대학교박물관.
37)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장흥 신풍유적』.
38) 전라남도 ·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3, 『장흥 봉림리 유적』.

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주거지를 중심으로 4개의 군집을 이루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군집의 형성요인은 사회갈등에 따른 방어형 마을체계로 추정된다[39].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모두 (장)방형이며, 내부시설은 노지+벽구가 시설된 1 · 4 · 5호와 노지만 시설된 2호, 노지+주혈이 시설된 3호로 삼분된다.

주거지 1호, 3호, 4호 내부에서 수습된 탄화 부재를 이용한 AMS 분석결과 1호는 A.D.332~A.D.422 · A.D.427~A.D.561, 3호는 A.D.428~A.D.497 · A.D.506~A.D.583 · A.D.568~A.D.647, 4호는 A.D.428~A.D.496 · A.D.506~A.D.597로 1호→4호→3호 순으로 확인되어 노지+벽구가 시설된 주거지가 노지+주혈이 시설된 주거지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3호는 주거지 내부 각 모서리 부근에 주혈이 배치된 이른바 사주식주거지인데 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는 3세기대에 등장하여 4세기 초에서 4세기 중후반에 호남지역 전역으로 확대된 후 4세기 말에서 5세기대에 급격히 감소하다가 6세기 이후로는 호남지역에서 사주식주거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시기로 영산강유역과 남해안권 일부 지역에서만 소수 확인되는 양상을 보인다[40]. 이러한 사주식주거지의 변천과정 및 본 유적에서 단독으로 확인된 점과 AMS 분석결과 등을 통해 추정해 볼 때 주거지 3호는 사주식주거지가 감소해 가는 5세기대의 주거지로 판단된다.

주거지 중 1호, 3호, 4호는 화재에 의해 폐기된 주거지인데, 잔존양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지 3호와 4호의 경우 그 폐기 양상이 상이하다. 즉 주거지 3호의 경우 유물들의 출토위치가 북벽과 서벽, 남벽모서리 주변으로 주거지 중앙을 생활공간으로 이용하기에 알맞게 비워져 있는데, 주거지 4호의 경우에는 출토유물의 위치가 중앙부에 집중되어 있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유물이 바닥면에서 10㎝이상 뜬 상태로 출토되었고 대부분이 상호 접합되지 않는 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에서 볼 때 주거지 3호의 경우에는 주거인의 의도한 바가 아닌 실화나 방화에 의해 폐기된 주거지로 판단되며, 주거지 4호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불을 질러 폐기한 주거지로 판단된다.

성격미상유구는 원형부 내부 바닥면에 물에 의한 침전이나 유수의 흔적이 없는 점, 바닥면이나 벽석에 불에 의해 피열된 흔적이 없는 점 등에서 불이나 물에 의한 시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돌출부가 유적의 경사면 하단인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남쪽으로 약 6° 의 경사를 이루며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돌출부 또한 배수나 집수, 혹은 배연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원형부에서 발생되는 가벼운 온기를 약하게 경사져 올라가는 긴 돌출부를 통하여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무거운 냉기를 가둬두는 빙고의 구조와 흡사한 부분이 있어 빙고나 저장시설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추정해본다.

삼국시대 문화층에서 유물은 완 · 호 · 단경호 · 직구호 · 옹 · 장란형토기 · 발 ·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는데, 완과 호 등의 생활용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출토된 토기류 중 기종파악이 가능한 유물은 다음 표와 같다.

---

39) 전라남도 ·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3, 『장흥 봉림리 유적』.
40) 임동중, 2013, 「호남지역 사주식주거지의 변천과정」,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4】 삼국시대 문화층 출토 토기류

기종 / 유구	완	호	단경호	직구호	옹	장란형토기	발
주거지 2호			1		3		
주거지 3호	2	1	2		1	1	
주거지 4호	1	5	3	3			1
주거지 5호	1	1					
주거지 6호	1						
계	5	7	6	3	4	1	1

완은 주거지 3호에서 2점, 4호 · 5호 · 6호에서 각 1점씩 총 5점이 출토되었는데 전체적인 기형파악이 가능한 것은 주거지 3호에서 출토된 두 점 정도이다. 호남지역의 삼국시대 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깊이가 얕아지고, 구연부는 외반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5세기 초가 되면 확연하게 깊이가 얕아진다[41]. 주거지 3호 출토 12번 완은 깊이가 구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은 편은 아니나 확연하게 얕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13번 완은 저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으나 구연부가 수평에 가깝게 외반하고 있고, 잔존 동체부의 기울기와 구연 지름을 대비해 볼 때 깊이가 얕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5세기 초 정도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직구호는 주거지 4호에서 3점이 출토되었는데 구연부만 출토되어 전체적 기형은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호남지역 직구호의 경우 5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구연부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주거지 4호 출토품의 경우 아직 그러한 경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한은 5세기 중엽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경호는 주거지 2호에서 1점, 주거지 3호에서 2점, 주거지 4호에서 3점 등 6점이 출토되었는데, AMS 분석 결과에서 제일 늦은 시기 유구로 확인된 주거지 3호 출토 단경호를 보면 구연 직하에서 벌어져 넓은 견부를 가지며 동상위에서 최대경을 가진 후 내경하여 저부에 이르는 기형이다. 호남지역 단경호는 5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구연부가 외반하고 저부는 중앙이 들린 오목말각평저로 변화하는데, 본 유적의 단경호를 대입해보면 구연부는 외반하나 저부는 원저이므로 5세기 중엽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3호와 4호 출토 단경호 구연부와 동체부에서는 기형의 일그러짐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기형의 일그러짐은 가마에 토기를 횡치하여 소성함으로써 중력에 의해 일그러진 것으로 함안지역에서 유행하던 횡치소성기법을 이용하여 소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거지 4호에서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침선을 시문한 호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편으로 출토되어 전체적 기형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동체부가 구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형과 시문기법으로 보아 4세기 후반 함안지역에서 유행했던 승문타날단경구형호로 추정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초에 승문타날 단경구형호, 유공광구소호, 직구소호 등 가야계유물이 장흥 지역으로 유입되는데 주거지 3호와 4호 출토 단경호에서 보이는 이러한 점들은 가야와의 교류의 산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구와 유물 및 AMS 분석결과로 보아 본 유적의 삼국시대 문화층의 하한은 5세기 중엽정도로 비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41) 서현주, 2010, 「완형토기로 본 영산강유역과 백제」, 『호남고고학보』34.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지 주변은 삼국시대 대규모 생활유적 즉, 마을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본 유적은 그 마을유적의 일부분으로 판단되며, 향후 장흥 지역의 고대 마을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사주식주거지는 5세기대 주거지인데 3세기대에 등장하여 호남지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가 6세기대에 영산강유역과 남해안권 일부지역에서만 소수 확인되어지는 사주식주거지 변천과정에 연결고리가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판



도판 1. 조사대상지(①원경, ②표본조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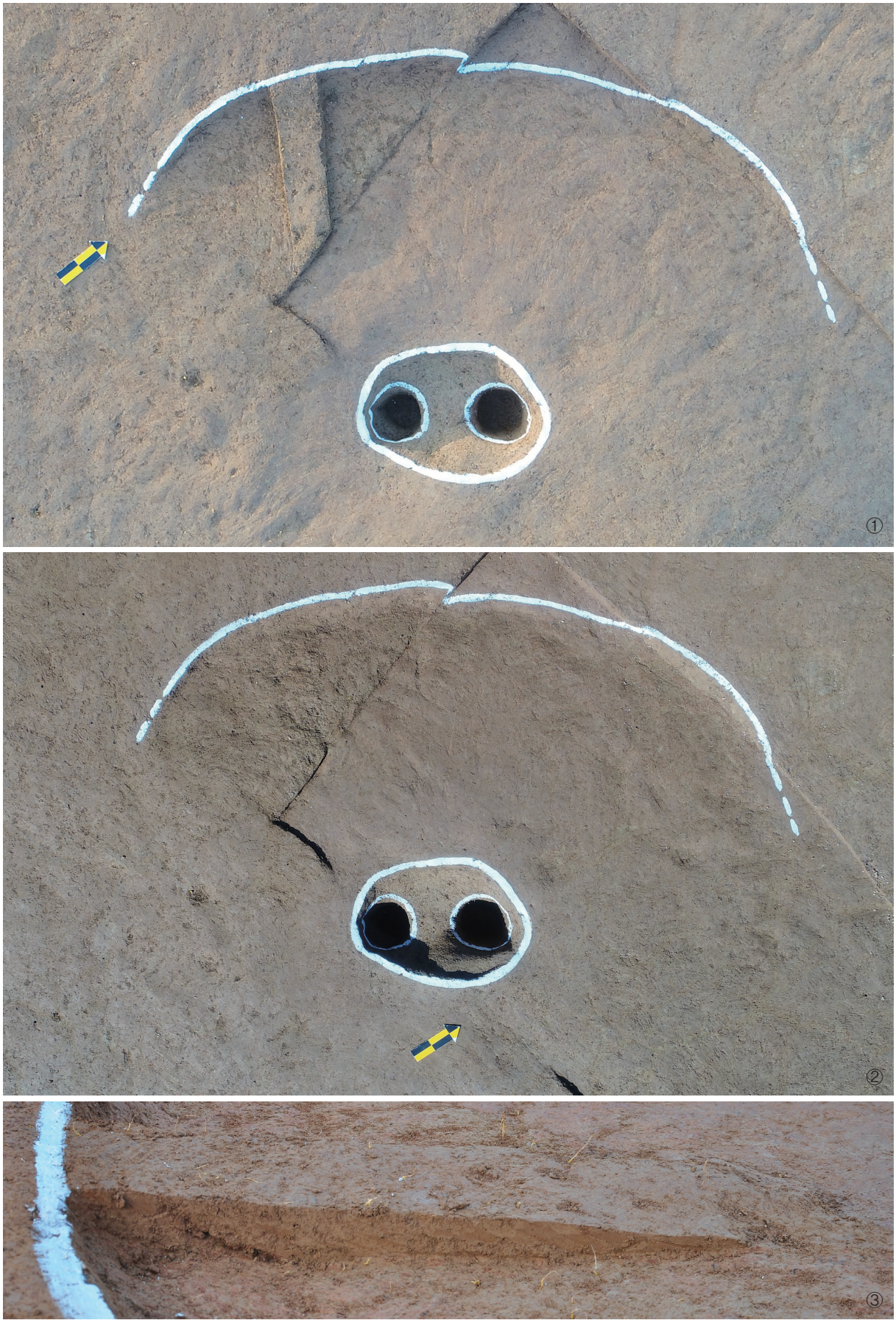
도판 2. 표본조사(①트렌치1, ②트렌치2, ③트렌치3, ④트렌치4)



도판 3. 표본조사(①트렌치5, ②청동기시대 수혈유구, ③삼국시대 주거지) 및 발굴조사(④조사후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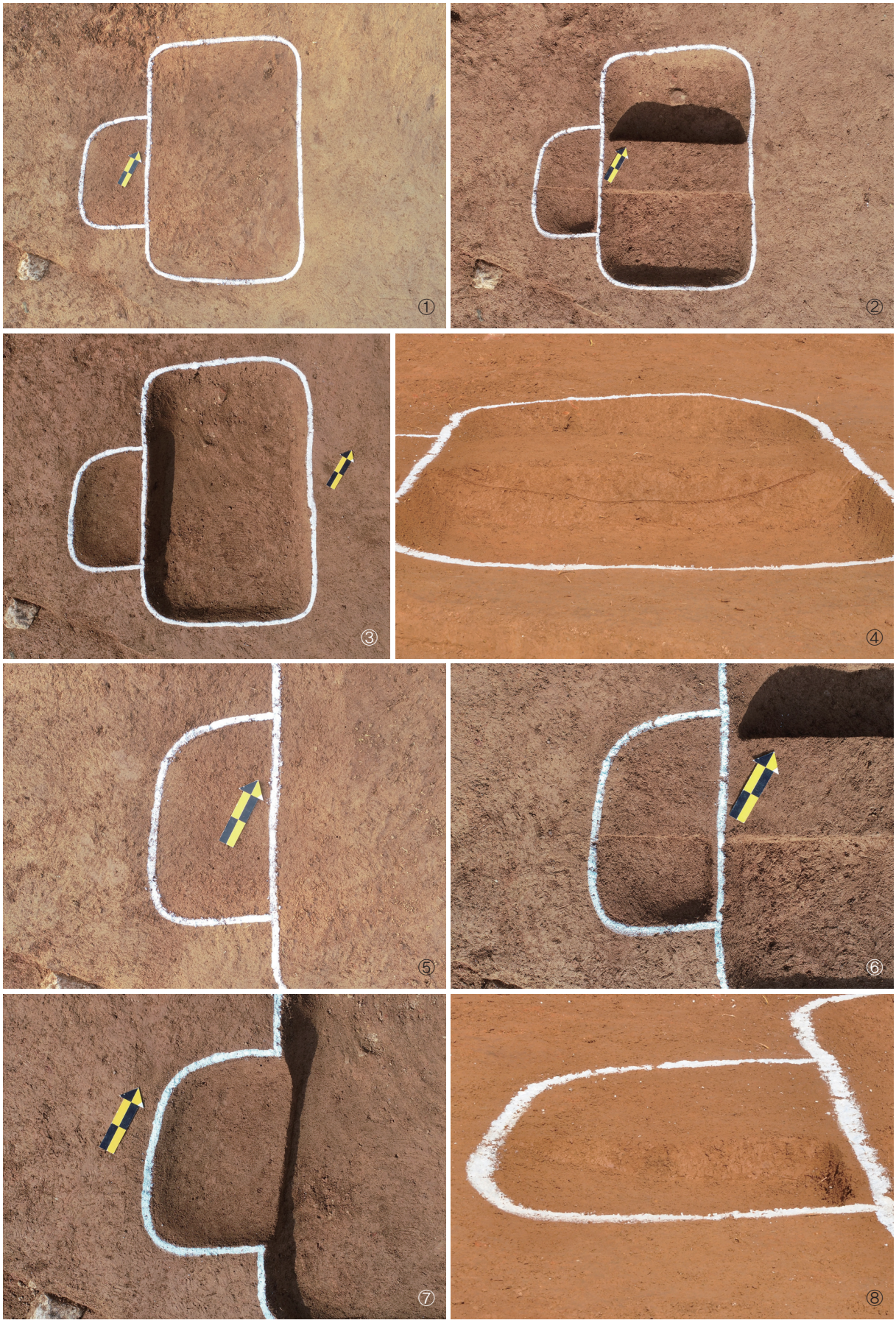
도판 4. 청동기시대 전경(①조사후) 및 주거지(②조사전)



도판 5. 청동기시대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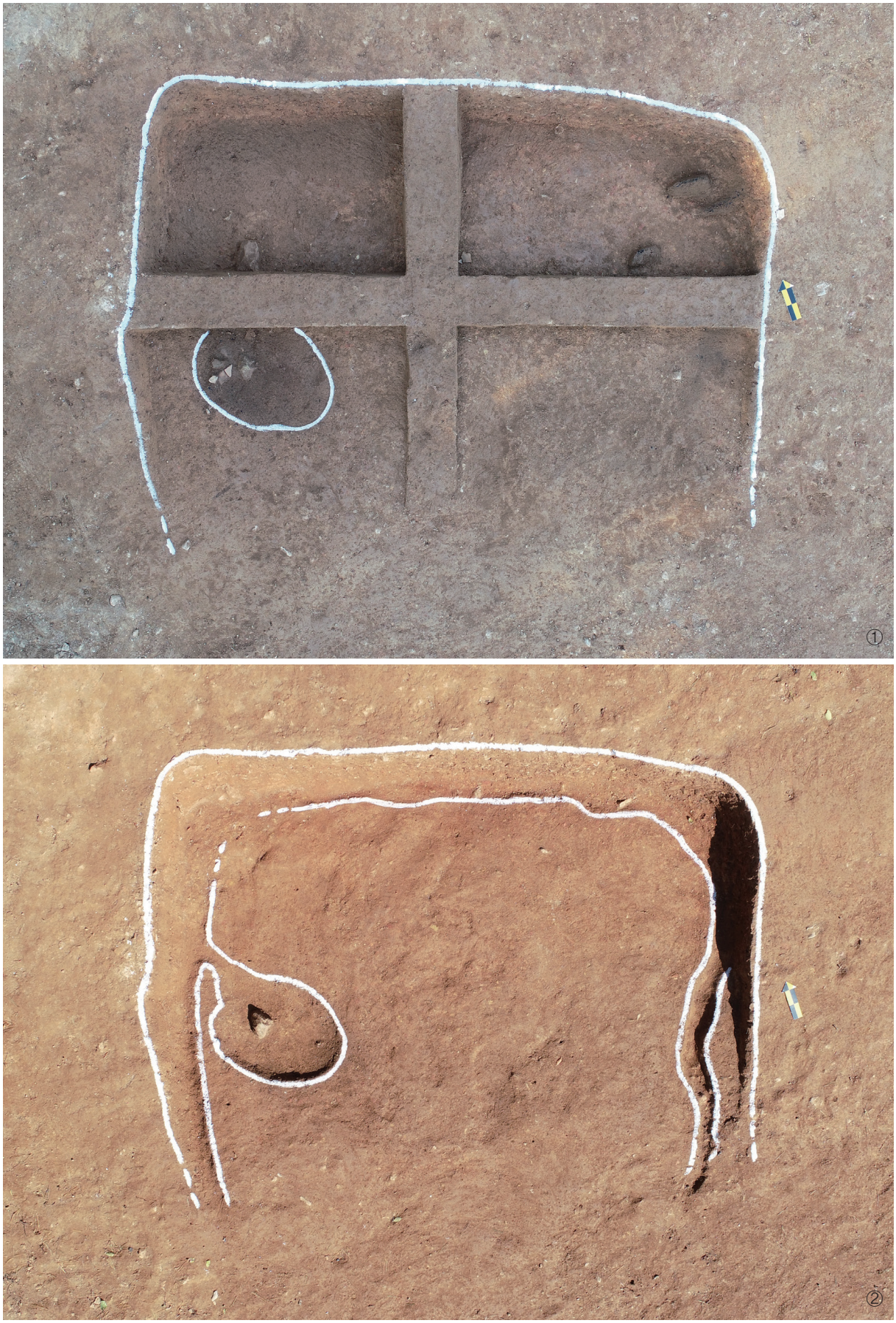
도판 6. 청동기시대 주거지(①~④내부수혈, ⑤~⑦남서주혈, ⑧~⑩북동주혈, 1~4:출토유물)



도판 7.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및 2호(⑤조사전, ⑥조사중, ⑦조사후, ⑧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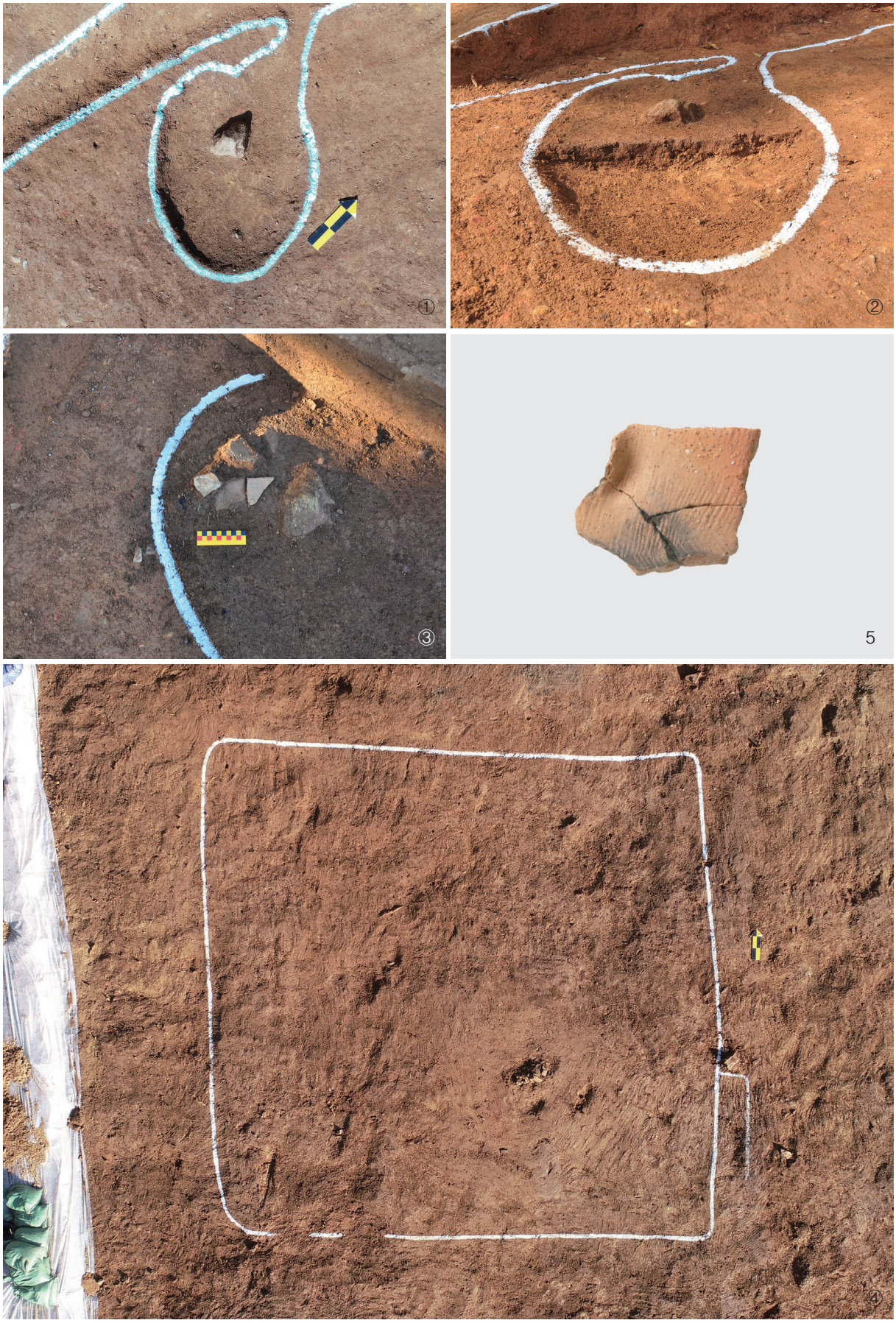
도판 8. 삼국시대 전경(①조사후) 및 주거지 1호(②조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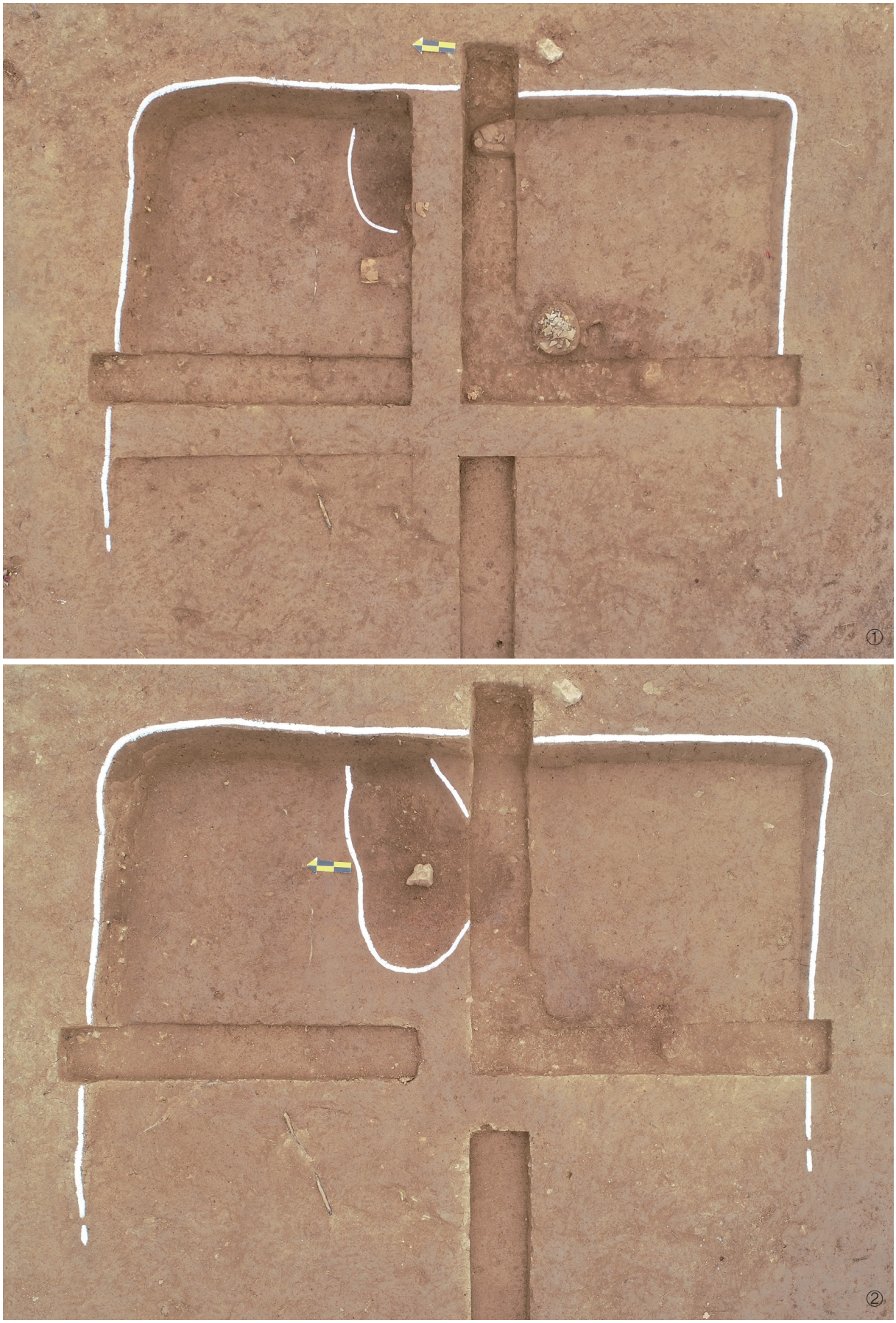
도판 9.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조사중,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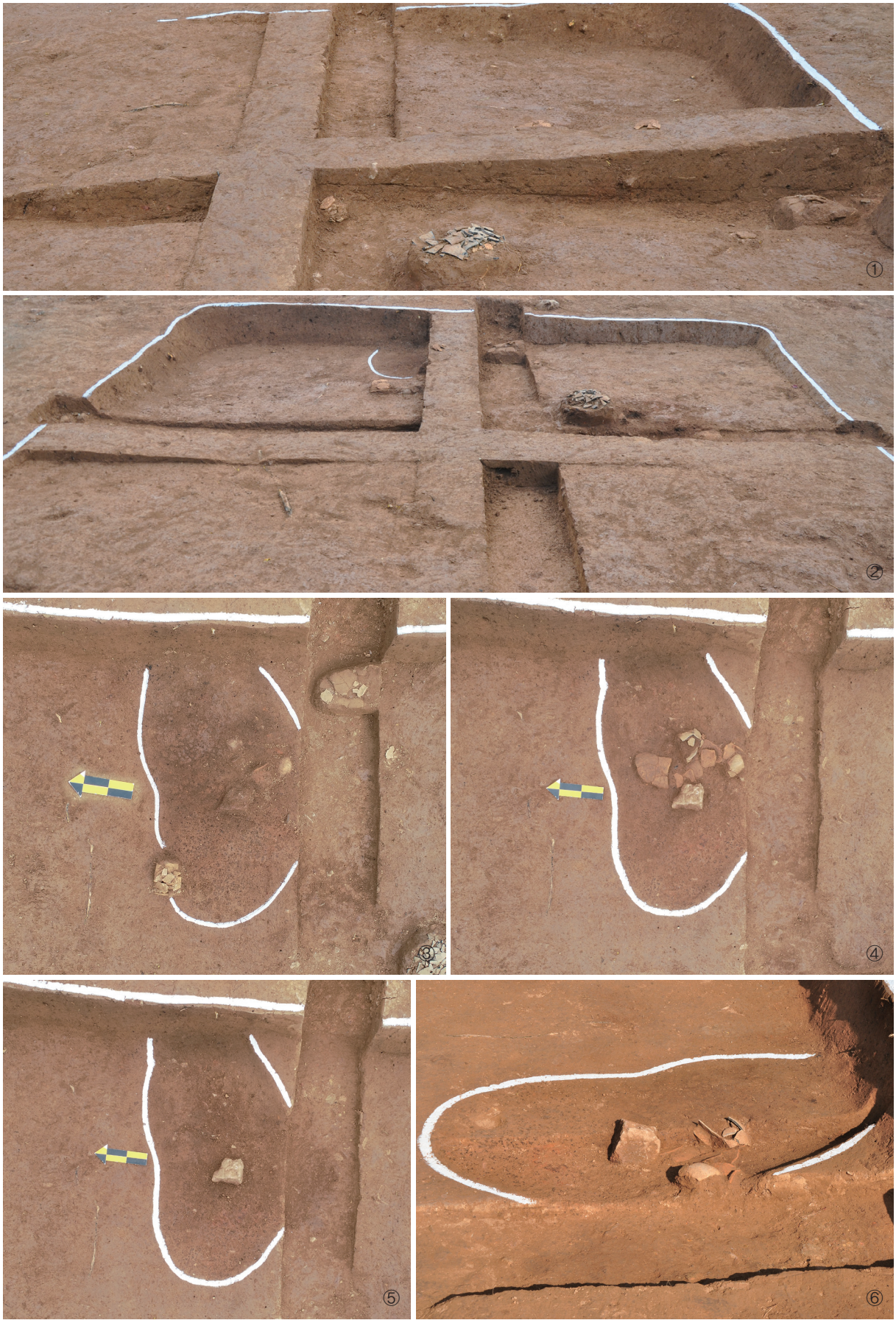
도판 10.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②토층, ③④벽구 토층, ⑤⑥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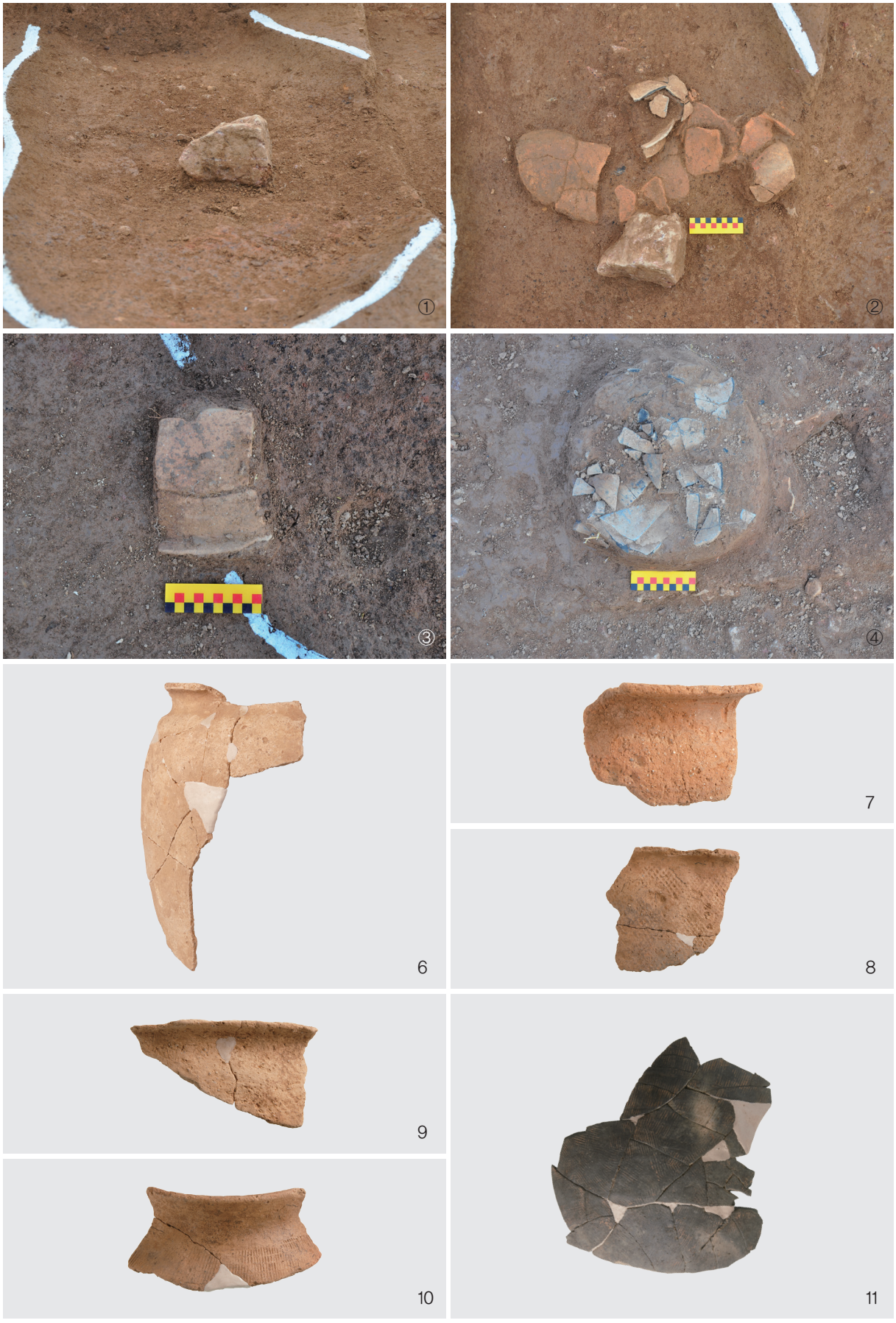
도판 11. 삼국시대 주거지 1호(①②노지, ③유물출토상태, 5:출토유물) 및 주거지 2호(④조사전)



도판 12.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조사중,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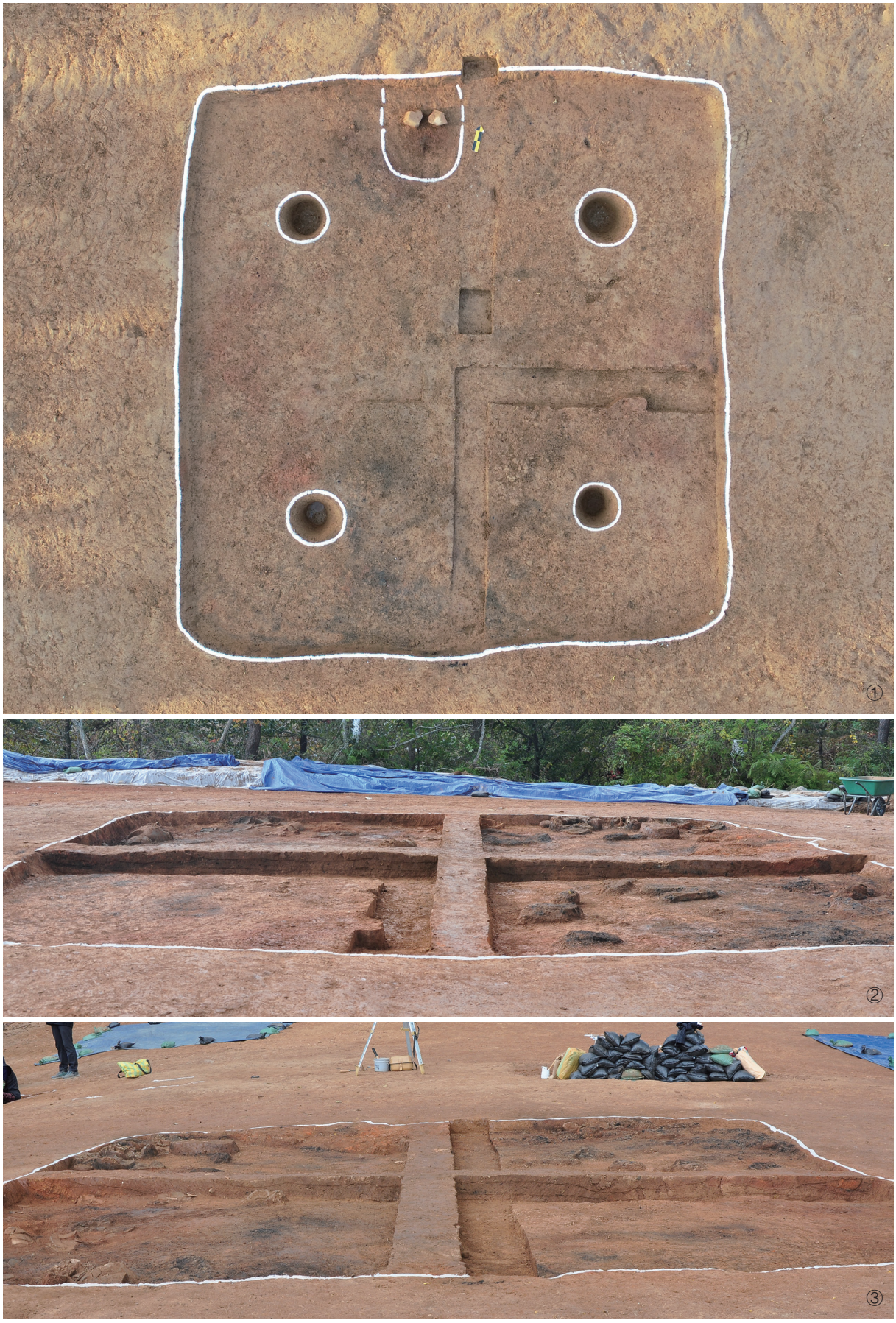
도판 13.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②토층, ③~⑥부뚜막)



도판 14. 삼국시대 주거지 2호(①지각, ②~④유물출토상태, 6~11: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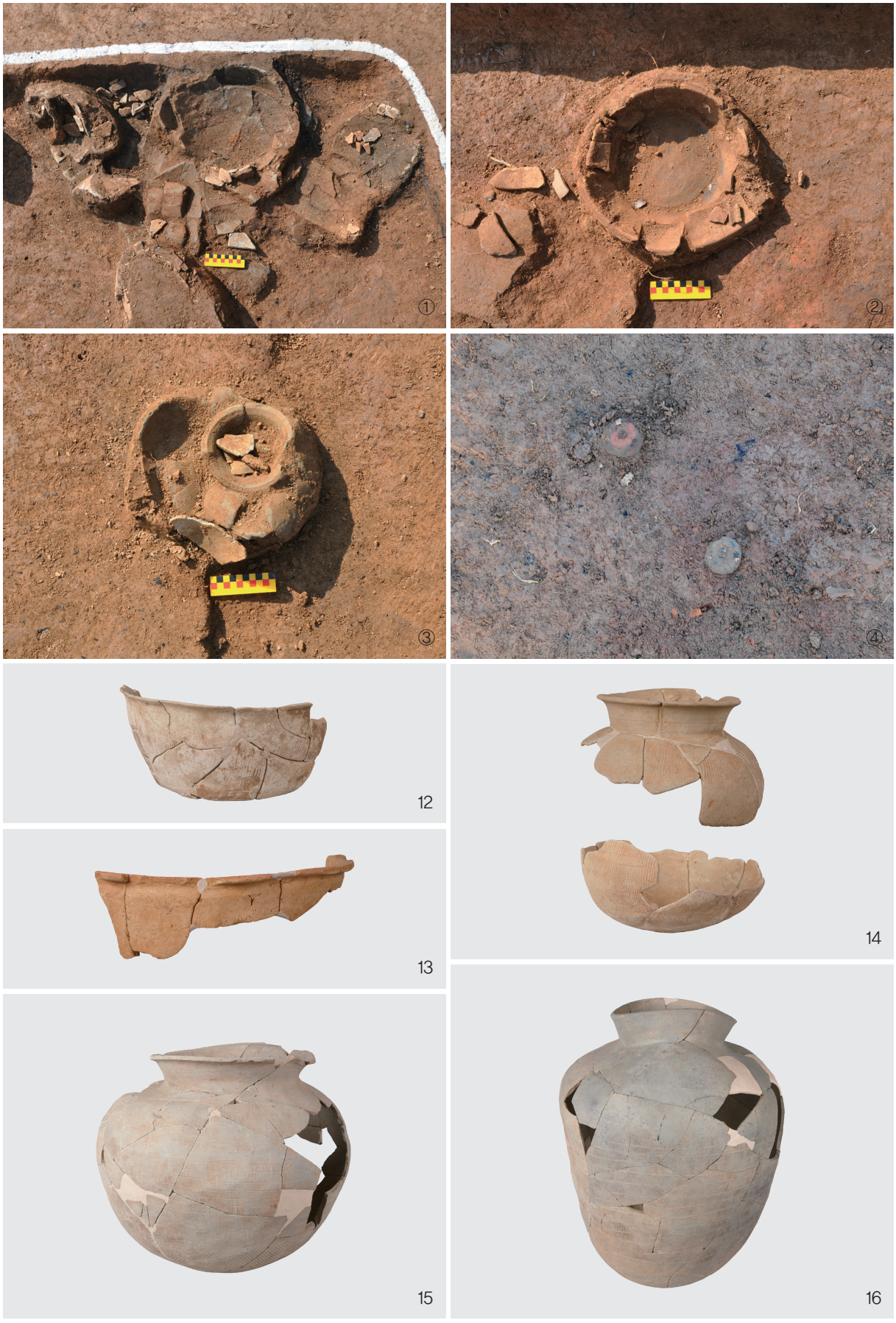
도판 15.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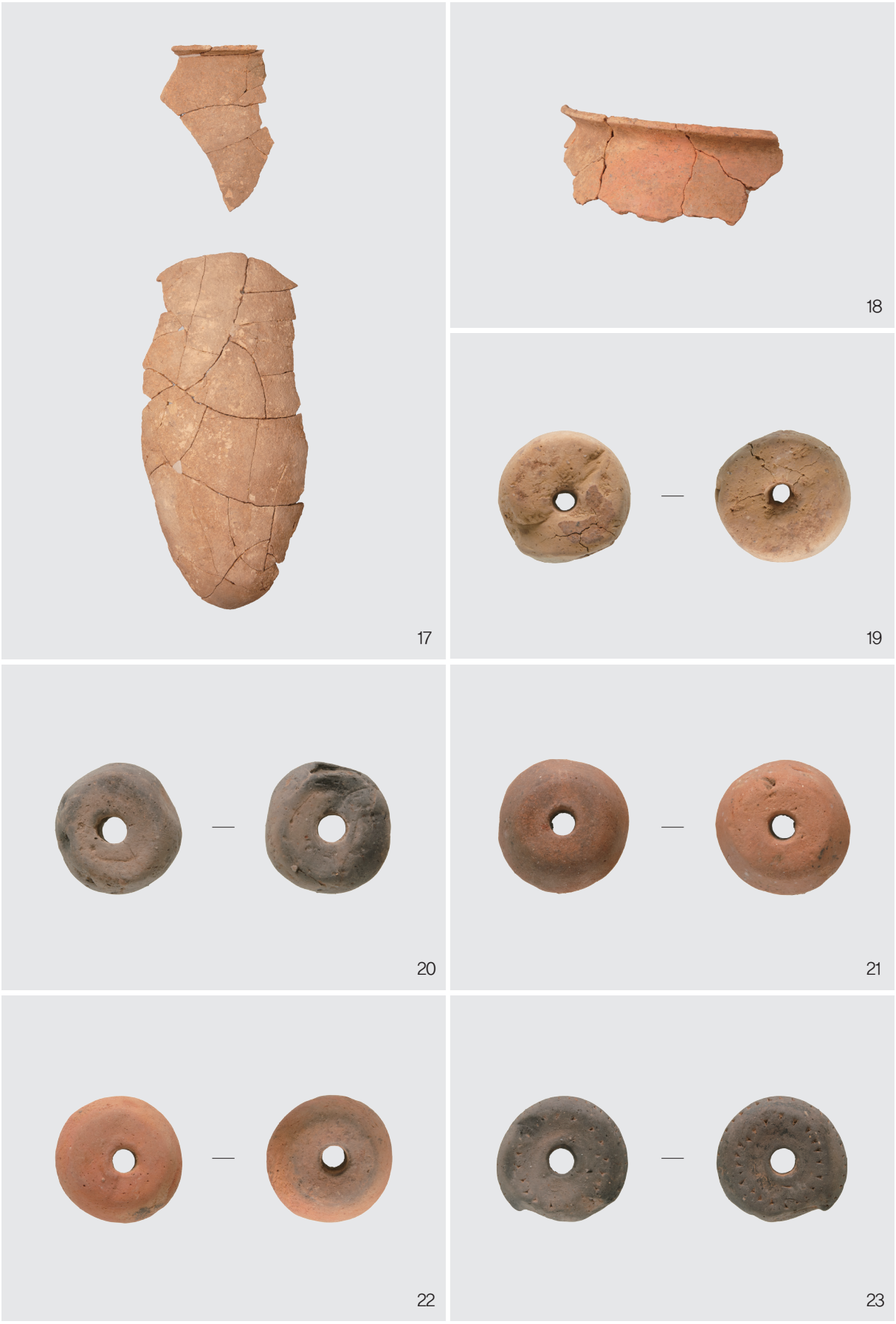
도판 16.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조사후, ②③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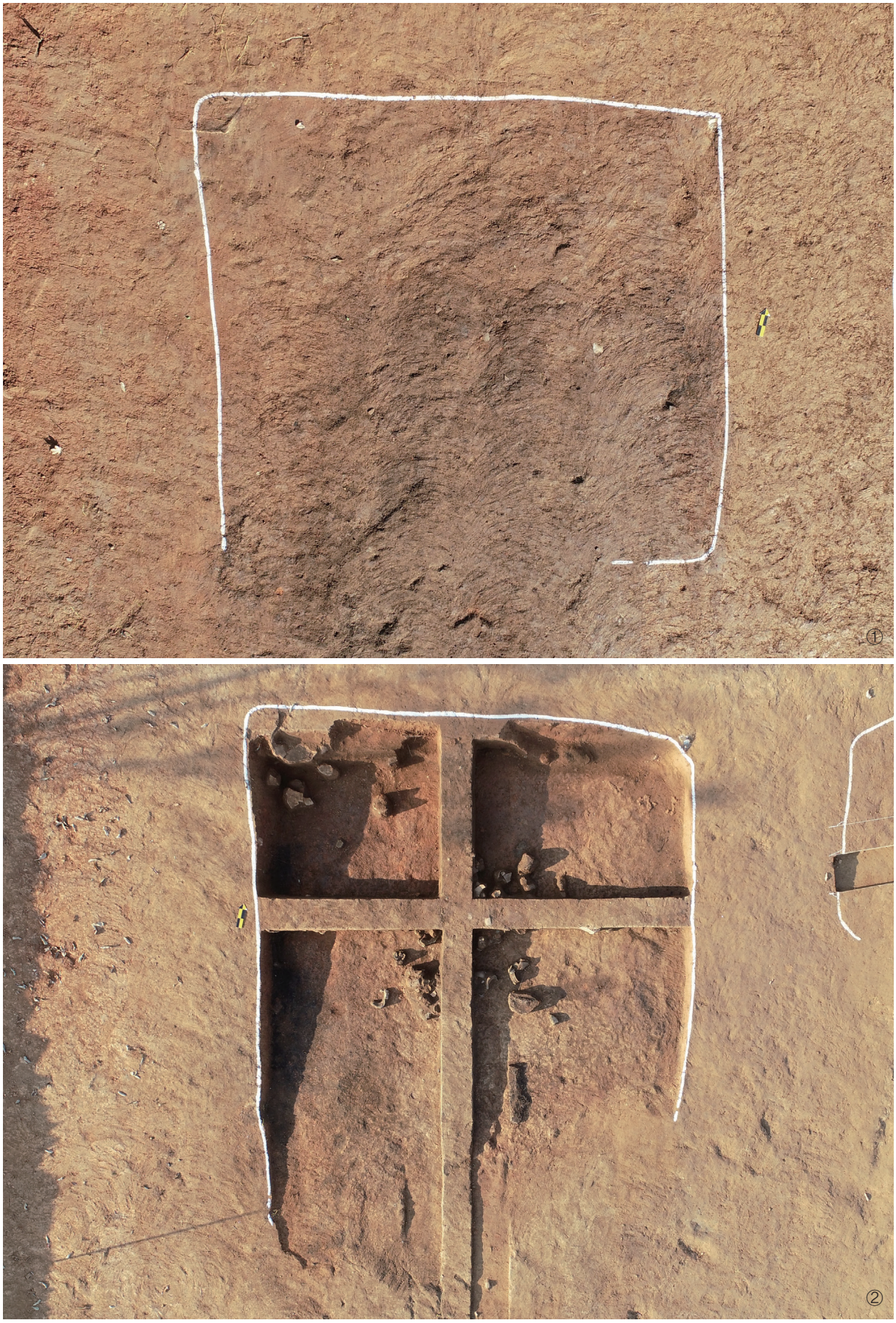
도판 17.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④부뚜막, ⑤~⑧주혈1, ⑨~⑫주혈2, ⑬~⑯주혈3, ⑰~⑳주혈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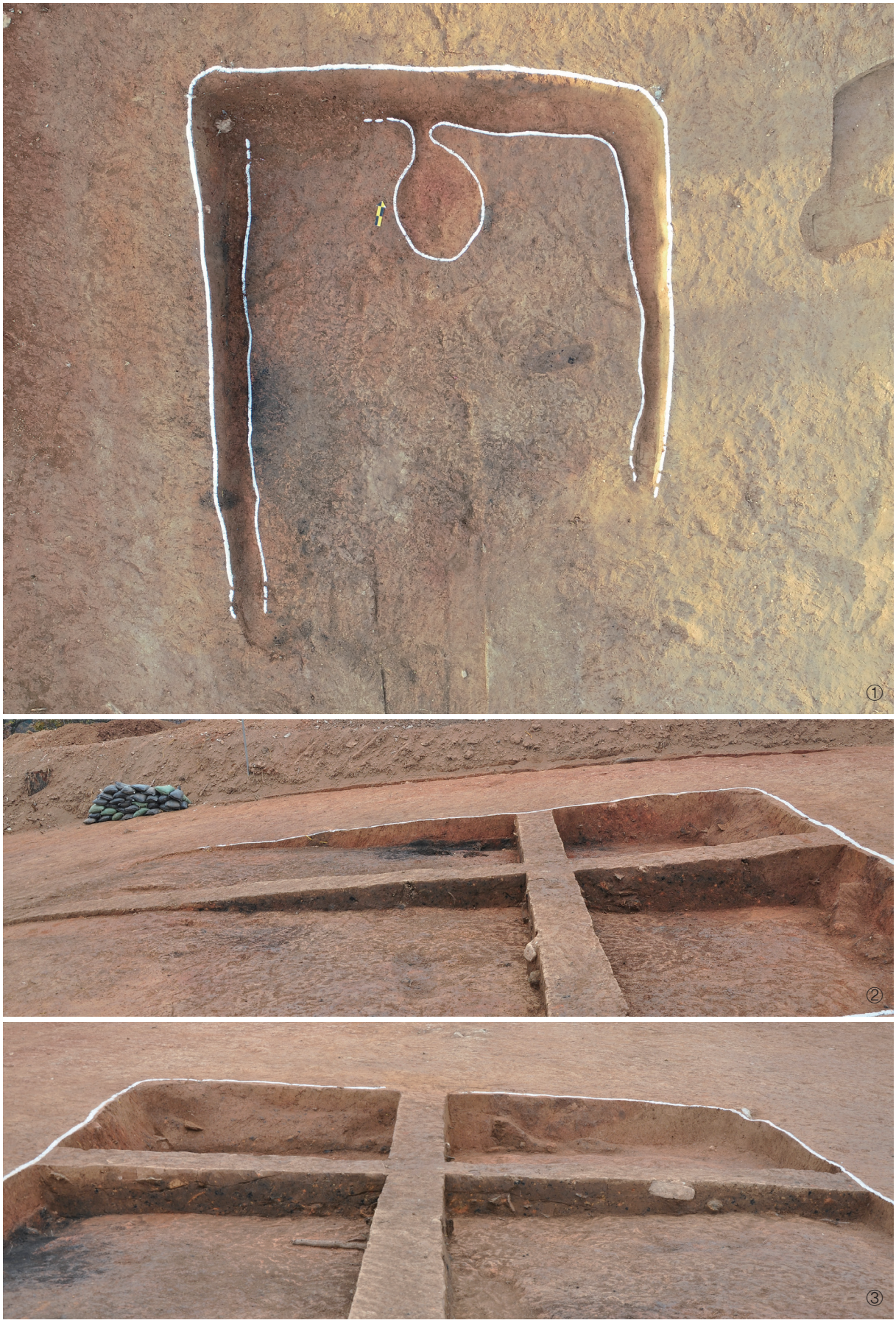
도판 18. 삼국시대 주거지 3호(①~④유물출토상태, 12~16:출토유물1)



도판 19. 삼국시대 주거지 3호 출토유물2



도판 20. 삼국시대 주거지 4호(①조사전, ②조사중)



도판 21. 삼국시대 주거지 4호(①조사후, ②③토층)



도판 22. 삼국시대 주거지 4호(①~③벽구, ④~⑦노지, ⑧~⑩유물출토상태)



도판 23.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출토유물



도판 24. 삼국시대 주거지 5호(①조사전, ②조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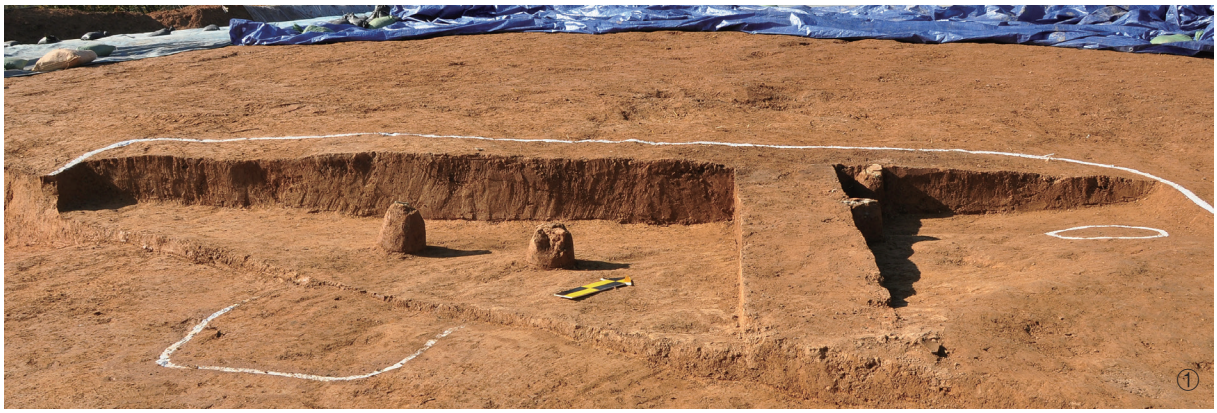
도판 25. 삼국시대 주거지 5호(①조사후, ②③토층)



도판 26. 삼국시대 주거지 5호(①②벽구, ③노지, 40 · 41:출토유물) 및 6호(④조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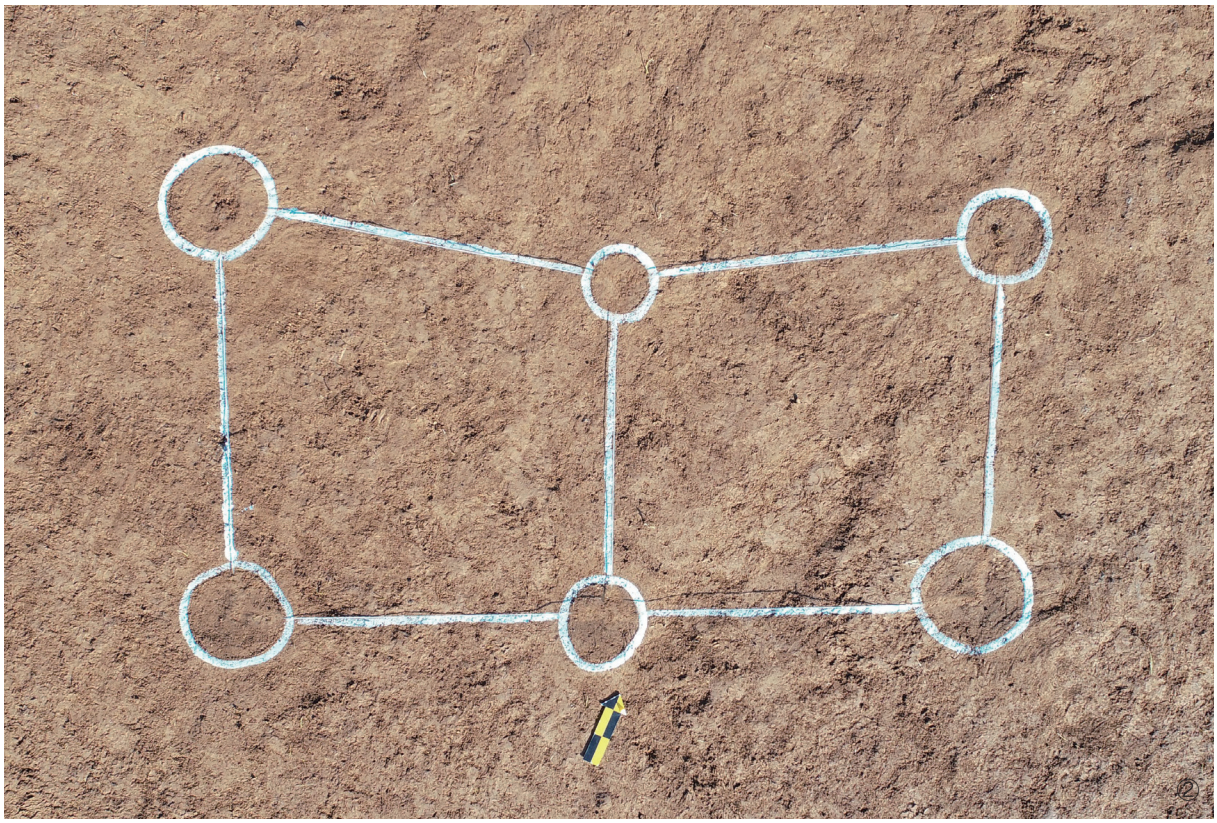
도판 27. 삼국시대 주거지 6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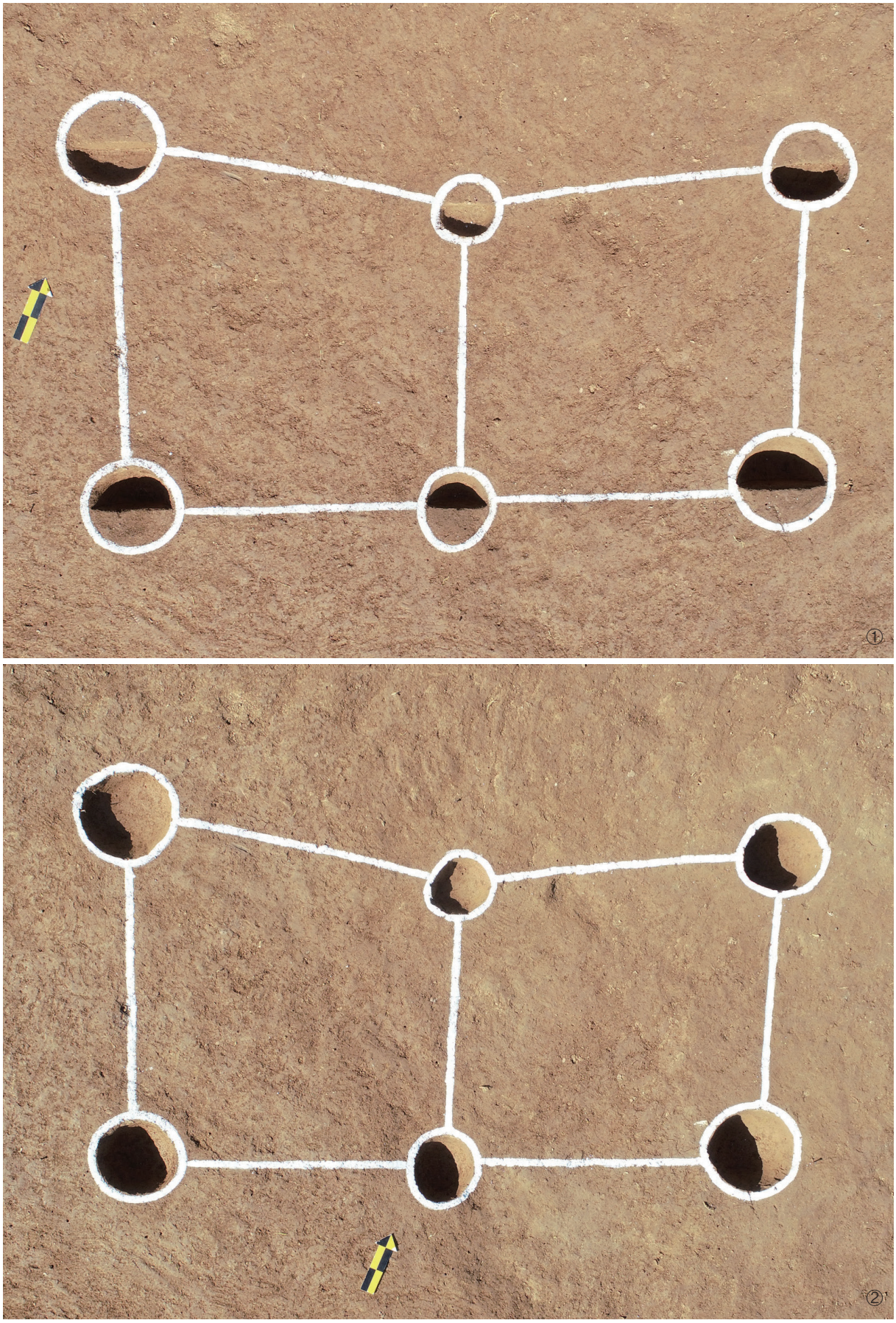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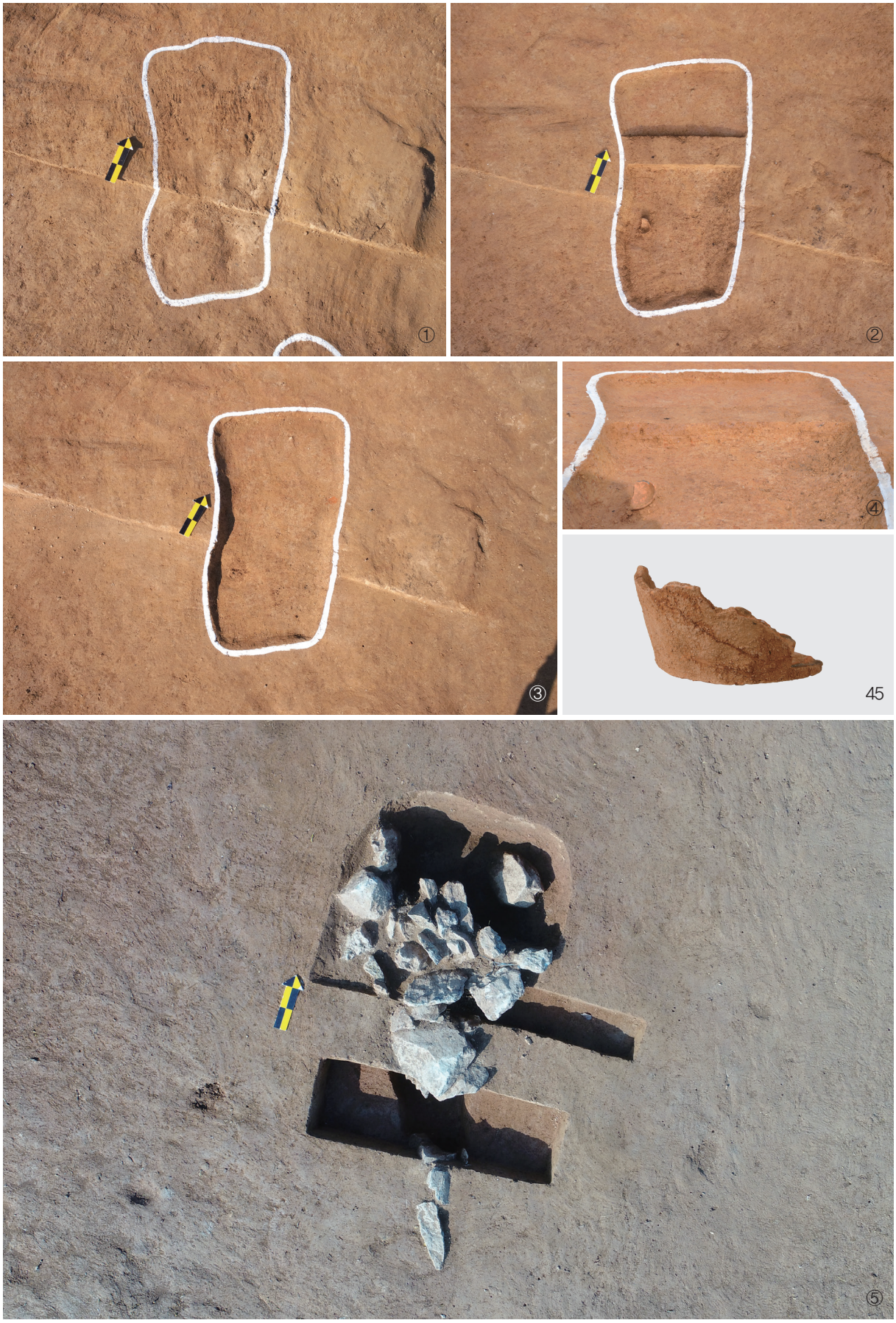
도판 28. 삼국시대 주거지 6호(①토층, 42~44:출토유물) 및 굴립주 건물지(②조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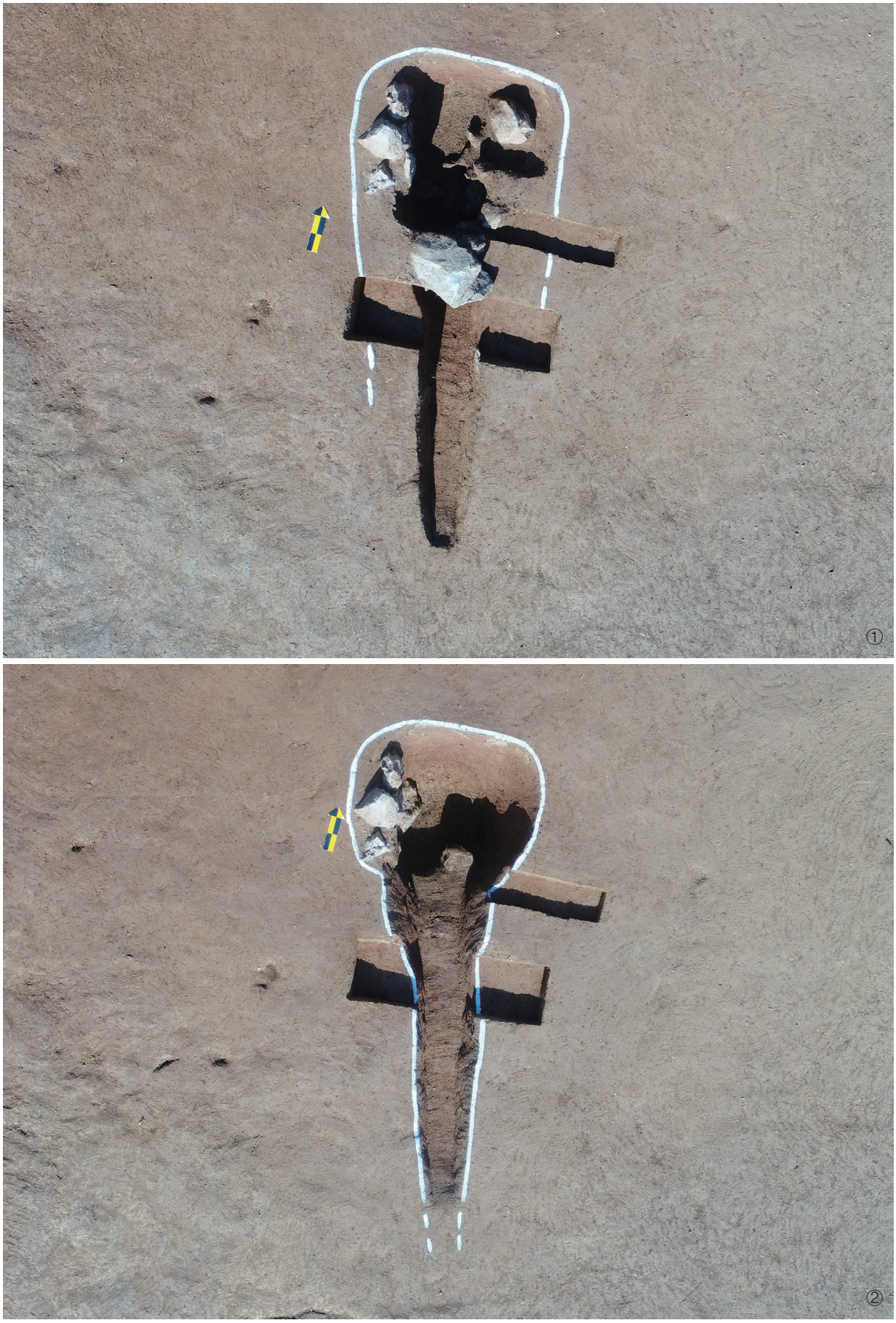
도판 29. 삼국시대 굴립주 건물지(①조사중,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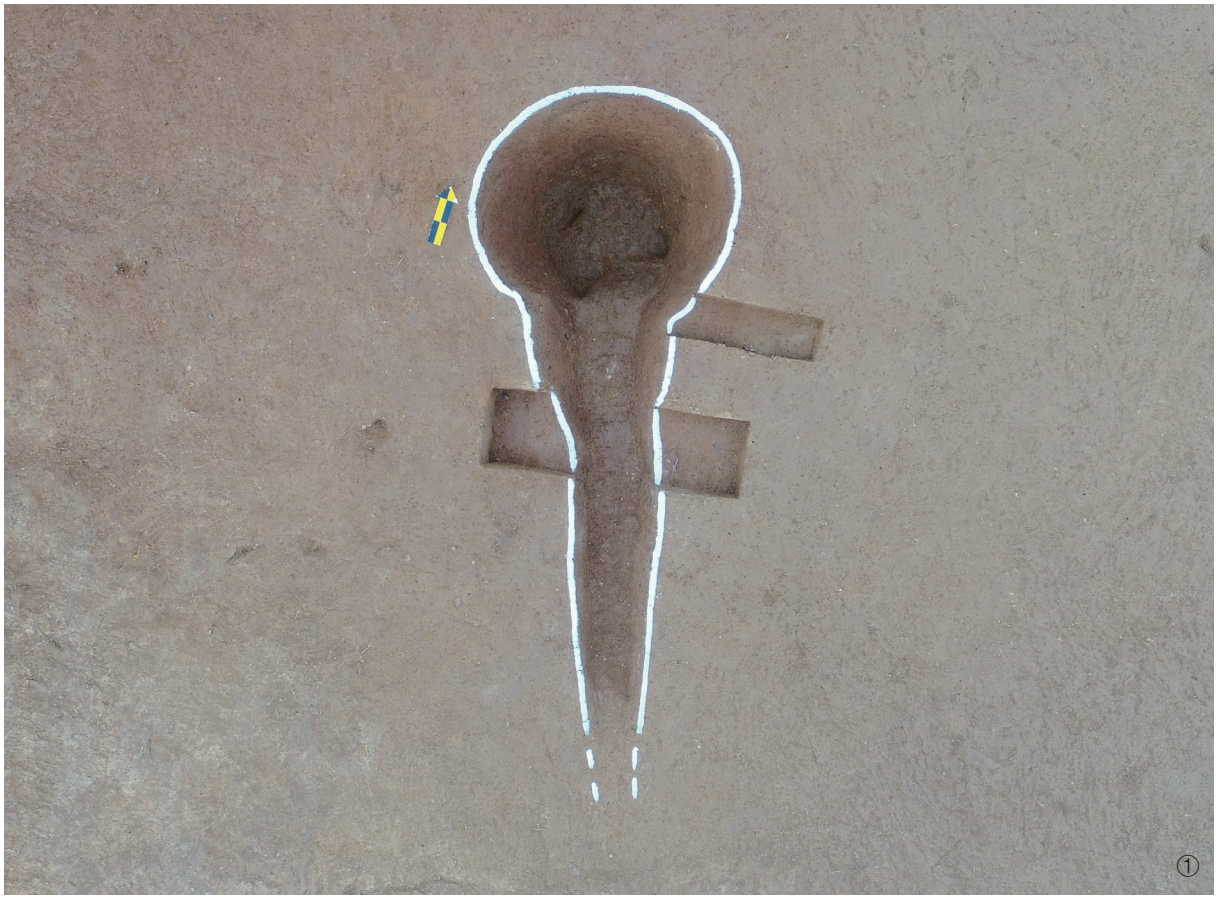
도판 30. 삼국시대 굴립주 건물지(①~④주혈1, ⑤~⑧주혈2, ⑨~⑫주혈3, ⑬~⑯주혈4, ⑰~⑳주혈5, ㉑~㉔주혈6)



도판 31. 삼국시대 수혈유구(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토층, 45:출토유물) 및 성격미상유구(⑤조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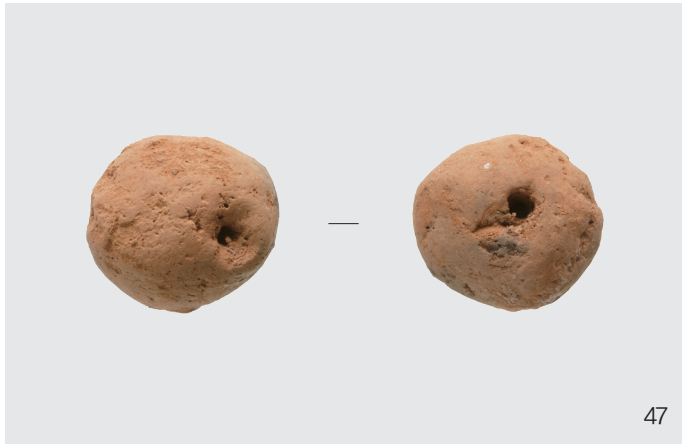
도판 32. 삼국시대 성격미상유구(①②조사중)











도판 33. 삼국시대 성격미상유구(①조사후, ②세부, ③토층, 46:출토유물) 및 수습유물(47)

부 록

장흥 봉림리 121-1번지 유적 AMS분석시료 목록

시료번호	유구명	종류	건수
1	삼국시대 주거지 1호	탄화목	1
2			1
3	삼국시대 주거지 3호		1
4			1
5	삼국시대 주거지 4호		1
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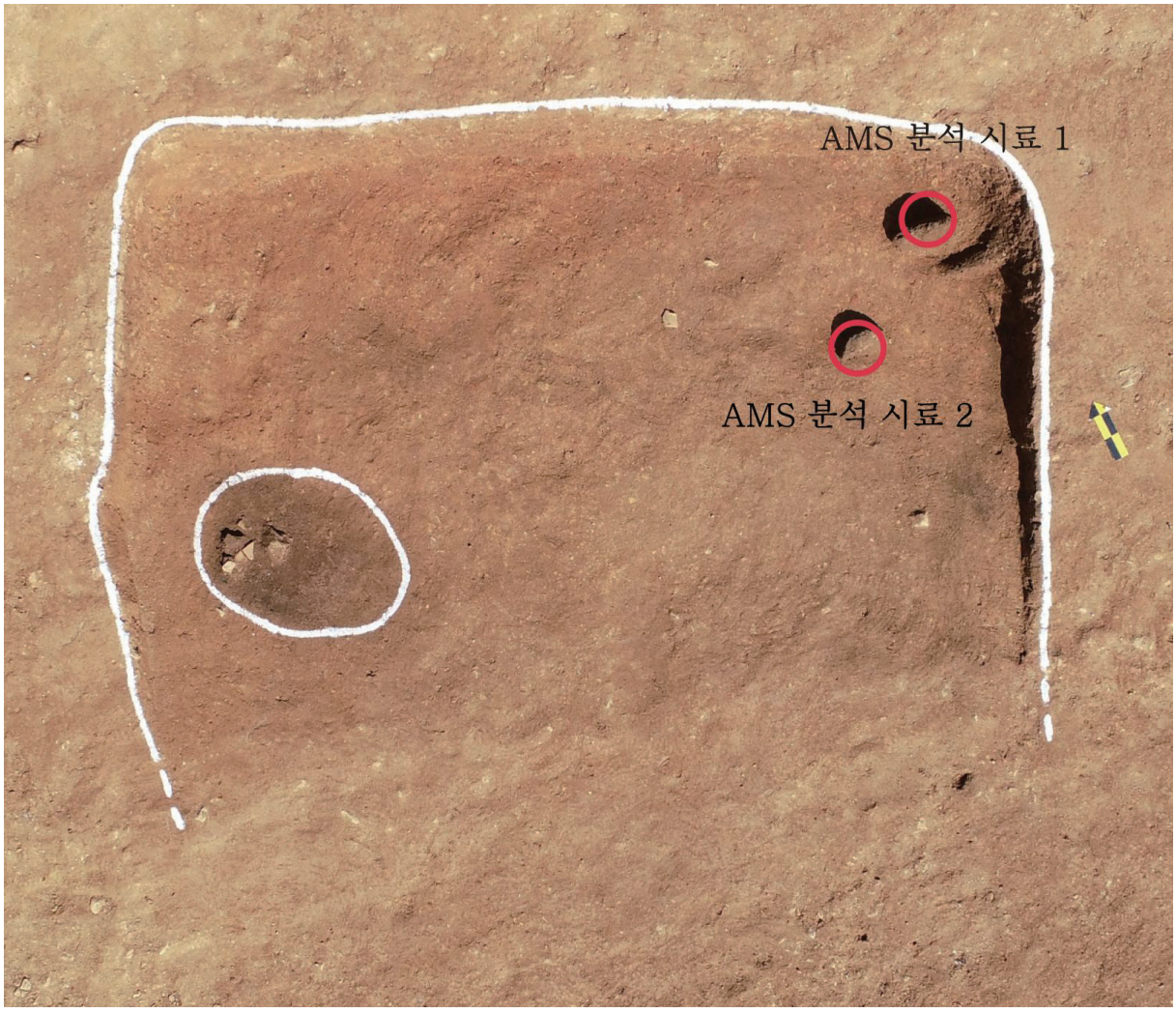


사진 1. 삼국시대 주거지 1호 AMS분석시료 채취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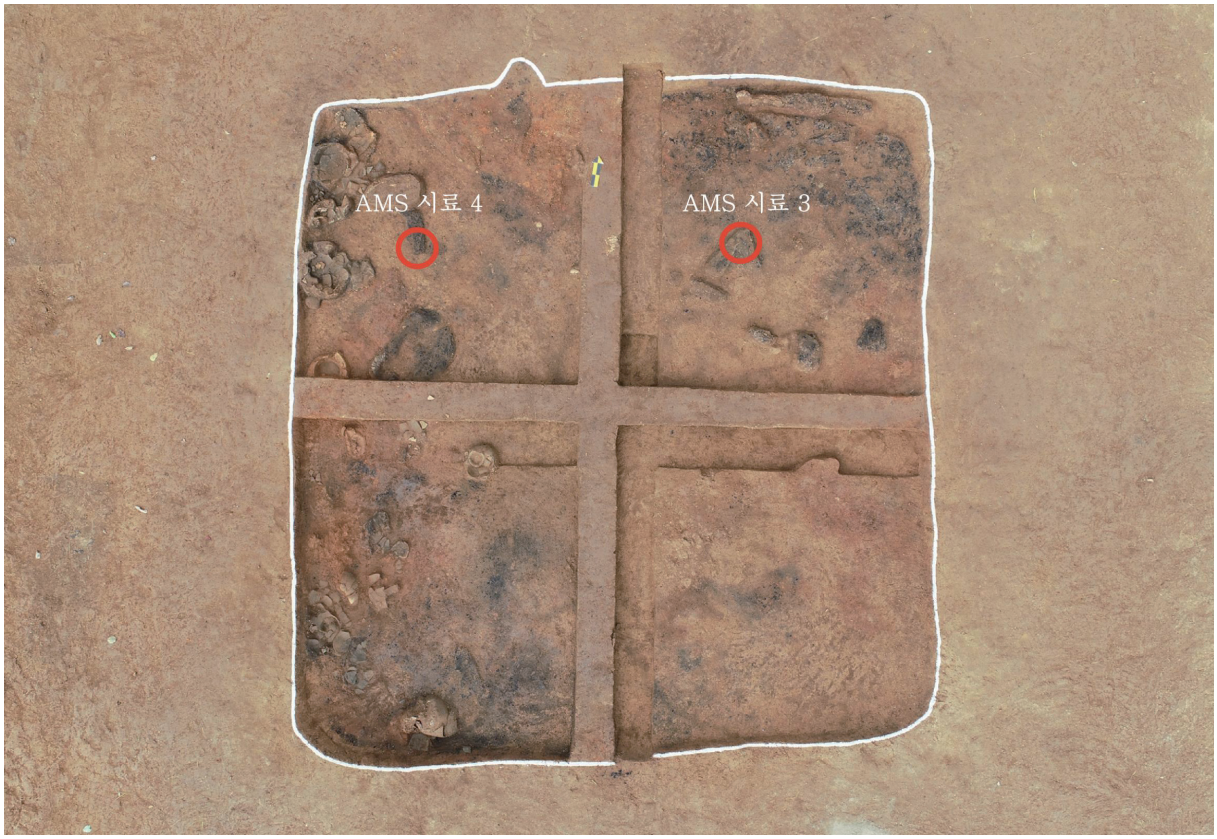


사진 2. 삼국시대 주거지 3호 AMS분석시료 채취 위치



사진 3. 삼국시대 주거지 4호 AMS분석시료 채취 위치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우) 136-7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전화 : (02)958-5959 팩스:(02)958-5974

시 험 성 적 서

발급번호	KISTAMS 1900030-34	접수일자	2019.01.14
의 뢰 자		전 화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2길 3-57 한국문화재재단 청주사무소		
시료명(수량)	5		
시험방법 및 기기	AMS		
시험일자	2019.03.06		
시험결과	별첨 참조		

특이사항

※ 본 시험성적서는 광고, 선전, 홍보 및 법적쟁송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로부터 얻은 것으로, 유사 대상시료에 적용할 수 없음.

2019 년 03 월 11 일

한 국 과 학 기 술 연 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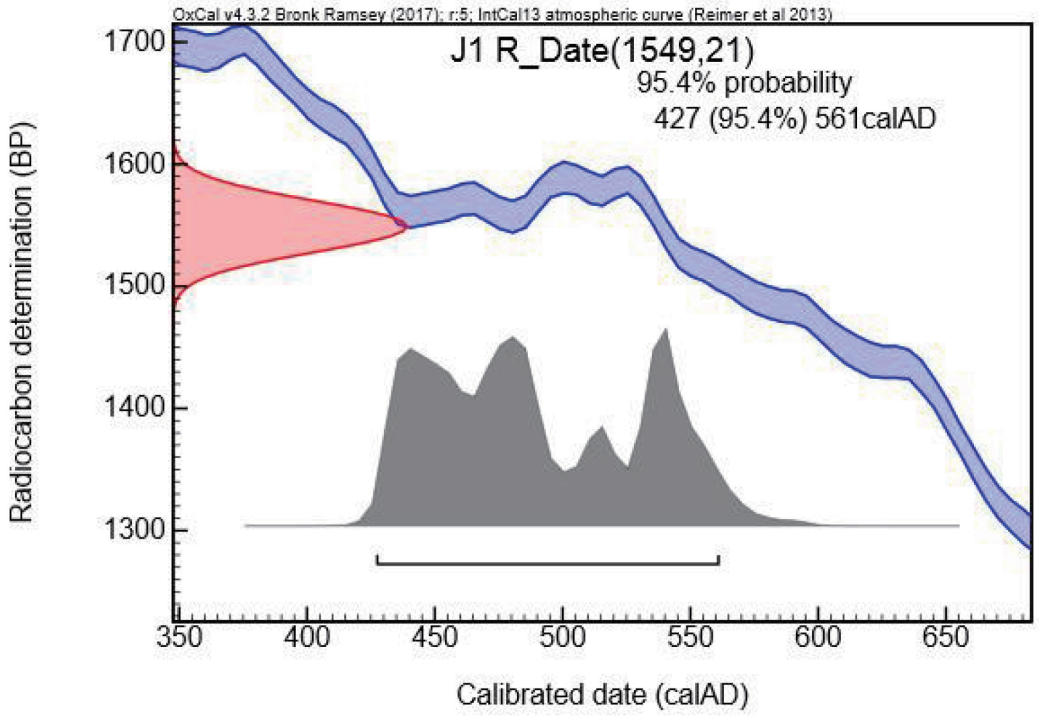
승인자: **특성분석센터장**

발급번호	KISTAMS 1900030

시 험 결 과

시료명	J1	의뢰자	
의뢰일	2019.01.14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delta^{13}C$		pMC
1,549 ± 21		-41.2 ± 0.2		82.47 ± 0.22



95.4 % probability : **427 AD ~ 561 AD**

시료처리 : AAA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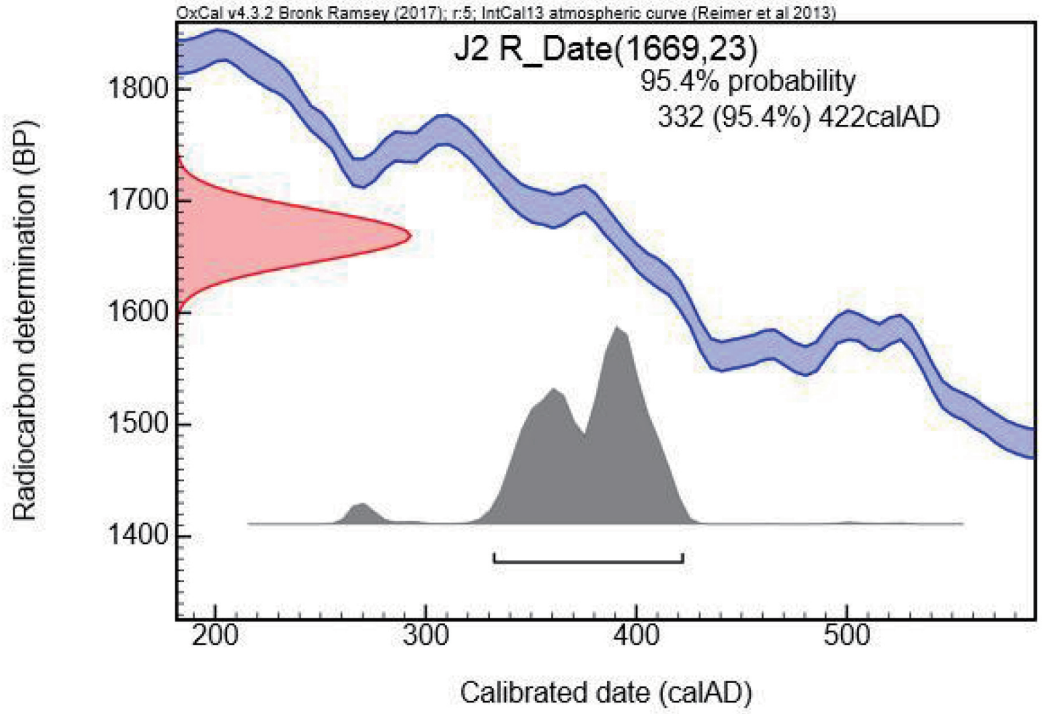
- Calendar Year Calibration : OxCal v4.2.4

발급번호	KISTAMS 1900031

시 험 결 과

시료명	J2	의뢰자	
의뢰일	2019.01.14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delta^{13}C$		pMC
1,669 ± 23		-39.9 ± 0.2		81.24 ± 0.24



95.4 % probability : **332 AD ~ 422 AD**

시료처리 : AAA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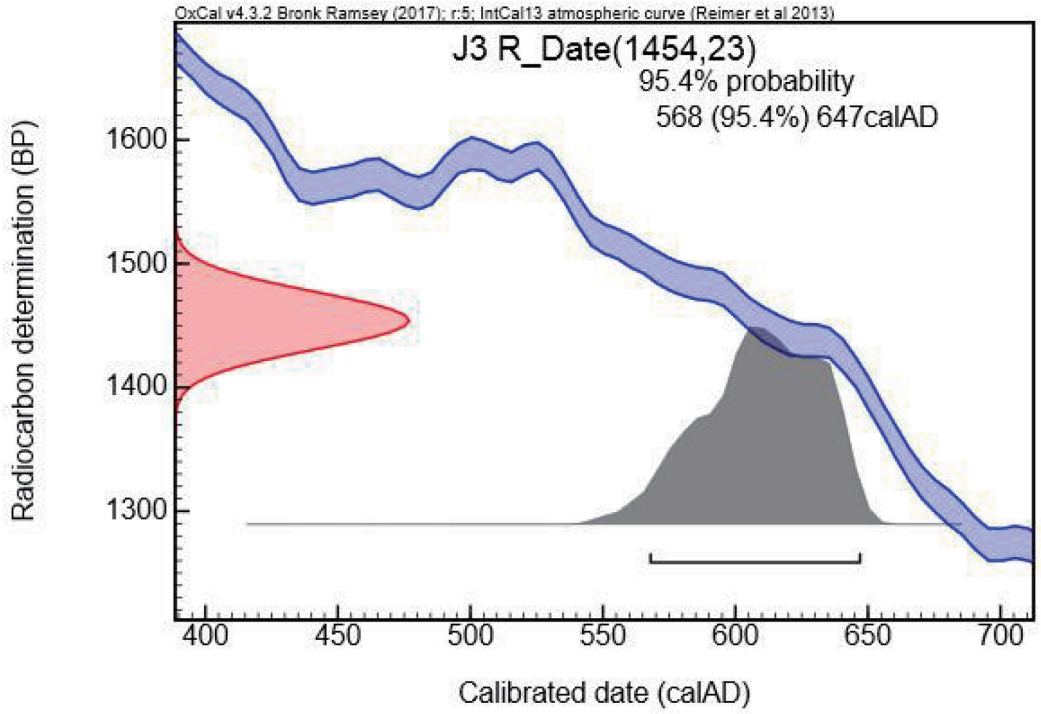
- Calendar Year Calibration : OxCal v4.2.4

발급번호	KISTAMS 1900032

시 험 결 과

시료명	J3	의뢰자	
의뢰일	2019.01.14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delta^{13}C$		pMC
1,454 ± 23		-56.6 ± 0.2		83.43 ± 0.24



95.4 % probability : **568 AD ~ 647 AD**

시료처리 : AAA처리

- Calendar Year Calibration : OxCal v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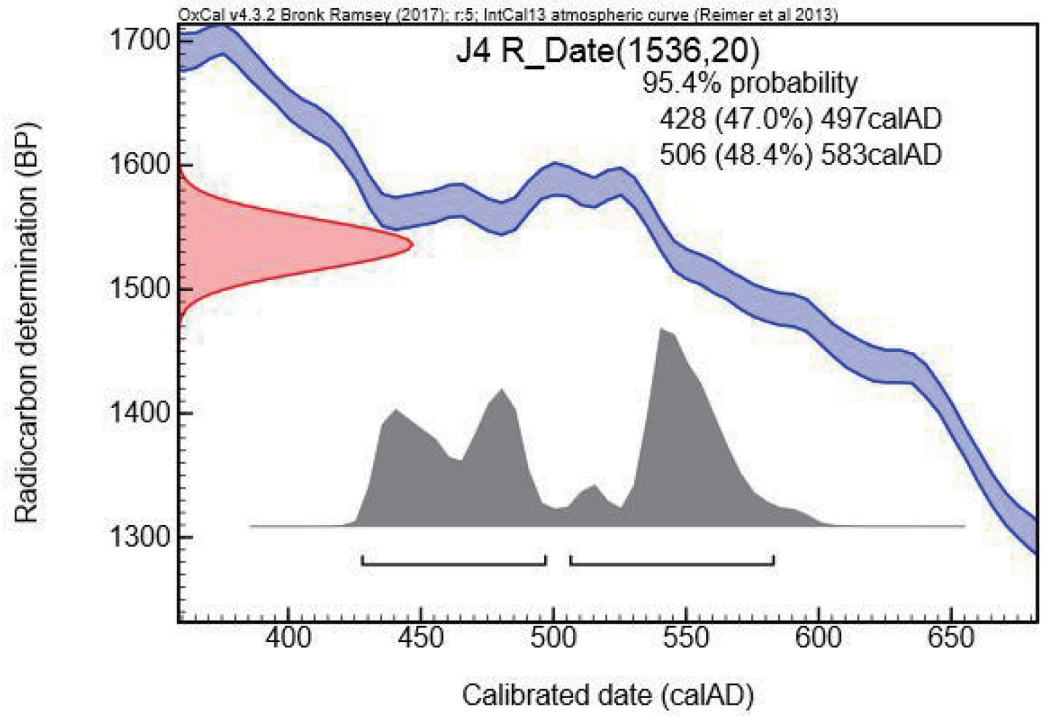
발급번호	KISTAMS 1900033

5/6

시 험 결 과

시료명	J4	의뢰자	
의뢰일	2019.01.14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delta^{13}C$		pMC
1,536 ± 20		-37.3 ± 0.2		82.59 ± 0.21



48.4 % probability : **506 AD ~ 583 AD**

47.0 % probability : **428 AD ~ 497 AD**

시료처리 : AAA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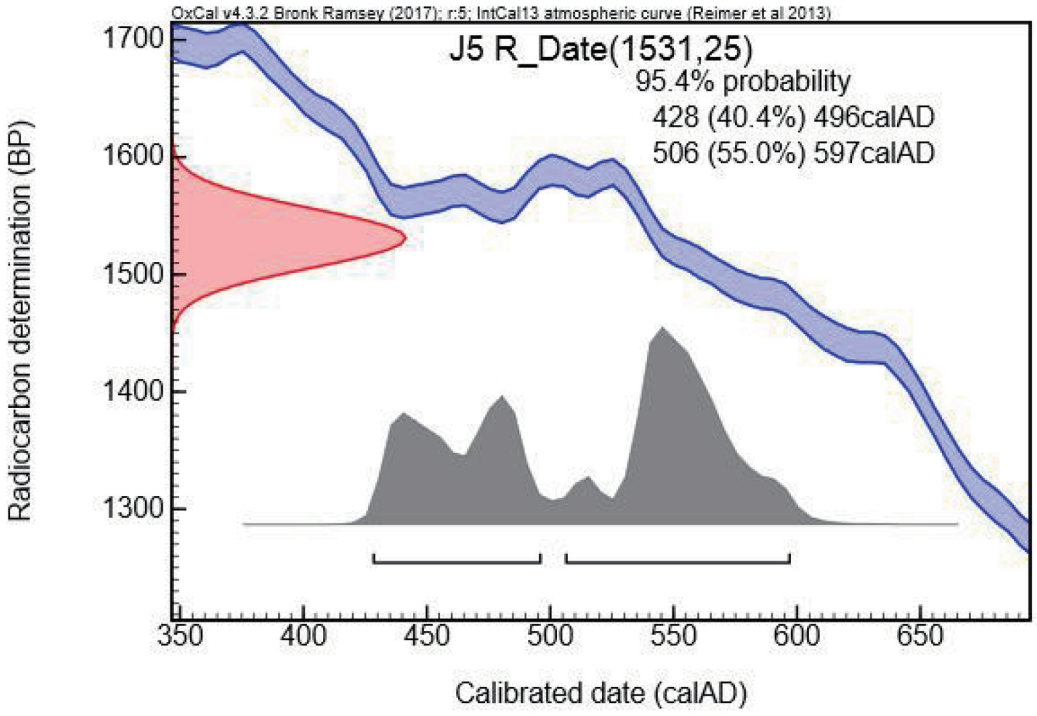
- Calendar Year Calibration : OxCal v4.2.4

발급번호	KISTAMS 1900034

시 험 결 과

시료명	J5	의뢰자	
의뢰일	2019.01.14	소 속	한국문화재재단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delta^{13}C$		pMC
1,531 ± 25		-43.1 ± 0.2		82.65 ± 0.26



55.0 % probability : **506 AD ~ 597 AD**

40.4 % probability : **428 AD ~ 496 AD**

시료처리 : AAA처리

- Calendar Year Calibration : OxCal v4.2.4

장흥 봉림리 121-1번지 유적 수종분석시료 목록

시료번호	유구명	종류	건수
1	삼국시대 주거지 3호	탄화목	1
2			1
3	삼국시대 주거지 4호		1
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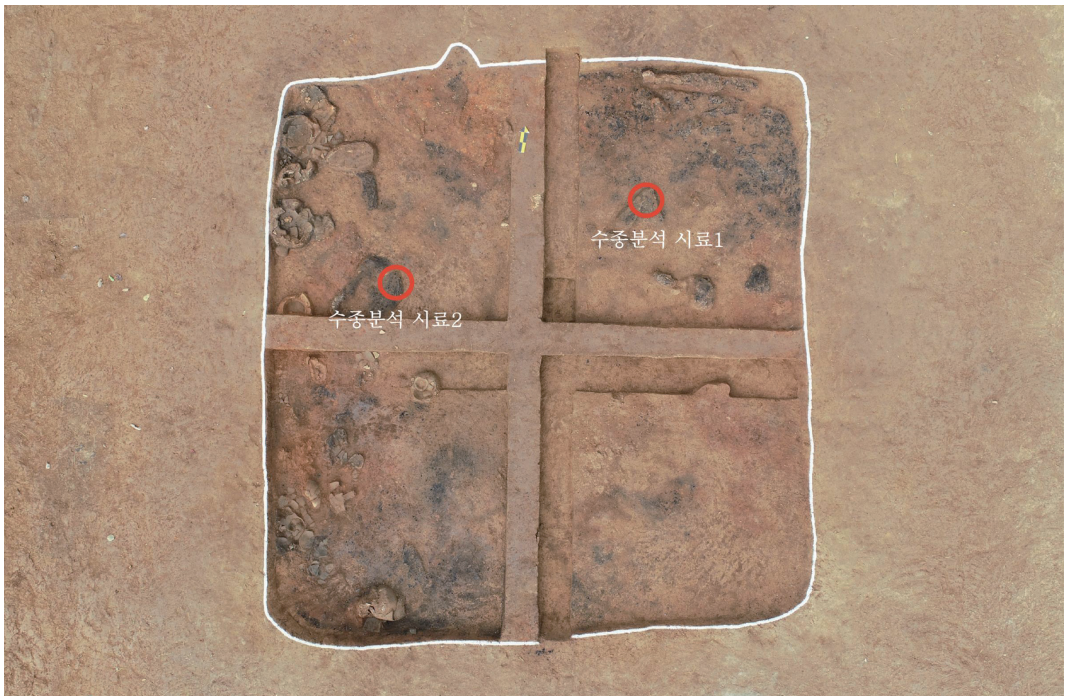


사진 1. 삼국시대 주거지 3호 수종분석시료 채취 위치



사진 2.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수종분석시료 채취 위치

경기 및 전남지역 국비지원 발굴조사 유적 탄화목재 수종분석 결과보고서

2019. 12.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111-106

경기 및 전남지역 국비지원 발굴조사 유적 탄화목재 수종분석 결과보고서

1. 개 요

○ 대 상 : 양평 하자포리 244-18번지 외 1필지 및 장흥 봉림리 121-1번지 유적 출토 목재
○ 수 량 : 총 9점
○ 의뢰기관 : 한국문화재재단
○ 분 석 자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최재완, 황인선, 박수진

2. 분석 대상 및 방법

2.1. 분석대상

양평 하자포리 244-18번지 외 1필지 및 장흥 봉림리 121-1번지 유적에서 수습된 탄화 목재 9점에 대하여 수종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경기 및 전남지역 국비지원 발굴조사 유적 탄화목 수종분석 대상

연번	유구명	시료상태	수량
1	양평 하자포리 244-18번지 외 1필지 유적	탄화목	6점
2	장흥 봉림리 121-1번지 유적	탄화목	3점

2.2. 분석 방법

대상 시료들은 삼단면이 노출되도록 스테인리스날을 이용하여 육면체 형태로 제작하고 조직을 관찰하였다. 실체현미경(SMZ645, Nikon, Japan)을 이용하여 각 개체의 삼단면을 관찰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각 시편은 알루미늄 시료홀더에 탄소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뒤 저진공 주사전자현미경(TM-3000, Hitachi, Japan)으로 조직을 미시적으로 관찰하여 수종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 사진을 촬영하였다. 수종식별은 『한국산 목재의 성질

과 용도 I』(이필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산 목재의 성질과 용도 II』(이필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산목재의 조직구조』(이원용, 향문사, 1997), 『목재조직과 성질』(박상진, 향문사, 1987), 『목가구의 수종식별과 연륜연대』(국립민속박물관, 2004)를 참조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수종분석 결과

분석 결과, 9개의 시료 중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 상수리나무아속(*Lepidobalanus*) **상수리나무류** 4점,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 상수리나무아속(*Lepidobalanus*) **졸참나무류** 2점, 가래나무과(Juglandaceae) **굴피나무속(*Platycarya*)** 3점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양평 하자포리 244-18번지 외 1필지 유적 탄화목 분석 결과

연번	유구명	시료명	수량	분석결과
1	한성백제시대 주거지 1호	양평 #1	1점	참나무과 상수리나무아속 **졸참나무류**
2		양평 #2	1점	참나무과 상수리나무아속 **상수리나무류**
3	한성백제시대 주거지 3호	양평 #3	1점	참나무과 상수리나무아속 **졸참나무류**
4		양평 #4	1점	참나무과 상수리나무아속 **상수리나무류**
5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3호	양평 #5	1점	참나무과 상수리나무아속 **상수리나무류**
6		양평 #6	1점	참나무과 상수리나무아속 **상수리나무류**

표 3. 장흥 봉림리 121-1번지 유적 출토 탄화목 분석 결과

연번	유구명	시료명	수량	분석결과
1	삼국시대 주거지 3호	장흥 #1	1점	가래나무과 **굴피나무속**
2		장흥 #2	1점	가래나무과 **굴피나무속**
3	삼국시대 주거지 4호	장흥 #3	1점	가래나무과 **굴피나무속**

3.2. 목재 해부학적 특징

□ 참나무과(Fagaceae) 상수리나무아속(*Lepidobalanus*) 졸참나무류

환공재로 횡단면에서 대형 도관이 연륜 경계를 따라 1~2열로 배열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형 도관의 크기가 급격하게 작아졌으며, 원형의 후벽이었다. 도관 내강에서 타일로시스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방사단면에서 방사조직의 형태는 평복세포로만 구성된 동성형이었다. 방사단면 상에서 20 세포열 이상 넓은 면적에 나타나는 광방사조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접선단면에서는 대부분 1열의 단열방사조직과 광방사조직이 함께 관찰되었고 천공판의 모양은 단천공이었다. 도관상호간 벽공은 교호상이었다. 이와같은 특징으로 참나무과의 상수리나무류로 식별할 수 있었다.

□ 참나무과(Fagaceae) 상수리나무아속(*Lepidobalanus*) 상수리나무류

환공재로 횡단면에서 대형 도관이 연륜 경계를 따라 1~3열로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고 도관 내강에서 타일로시스를 확인하였다. 소형 도관은 각형의 박벽이었다. 방사단면에서 동성형의 평복세포로만 이루어진 방사조직이 나타났다. 접선단면에서 광방사조직을 확인하였으며 천공판의 모양은 단천공이었고 도관상호간 벽공은 교호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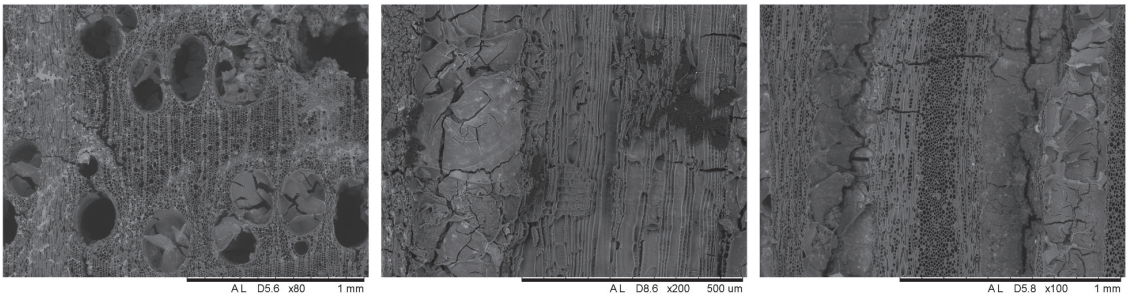
상수리나무아속의 상수리나무류와 유사한 해부학적 특징을 보이나 횡단면에서 소형 도관이 각형이며 세포벽이 박벽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상수리나무류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참나무과의 졸참나무류로 식별할 수 있었다.

□ 가래나무과(Juglandaceae) 굴피나무속(*Platycarya*)

환공재로서 횡단면에서 공권의 대형 관공은 1~3열 배열하였고 소관공은 주로 다각형이며 사상 및 방사상 등으로 복합하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방향유조직은 만재부에서 접선상으로 관찰되었다. 방사단면에서 방사조직은 이성 Ⅱ형이거나 이성 Ⅲ형이었으며 결정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접선단면에서 방사조직은 1~5 세포폭, 높이는 7~30 세포고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만재의 소도관에서 나선비후가 현저하였고 천공판의 모양은 단천공, 도관상호간 벽공은 교호상이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가래나무과의 굴피나무속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굴피나무속에 굴피나무 1종이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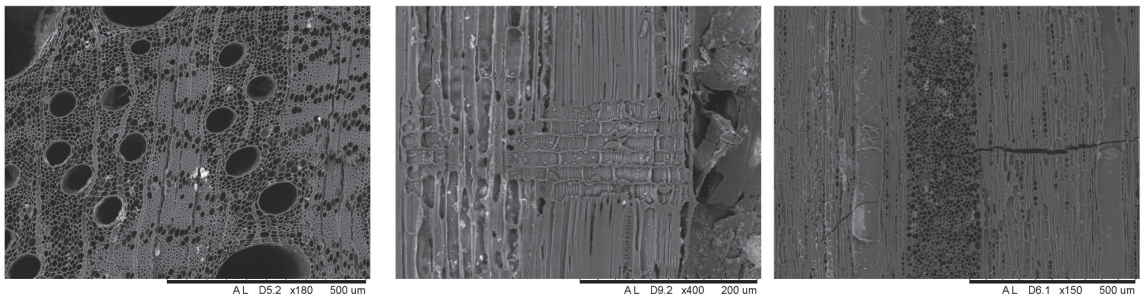
3.3. 목재 조직사진

<양평 출토 탄화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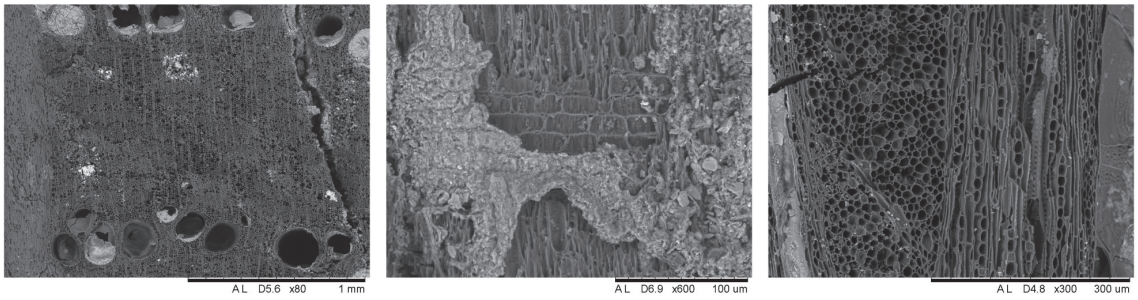
(A) 횡단면×80 (B) 방사단면×200 (C) 접선단면×100

그림 1. 양평#1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참나무과 참나무속 졸참나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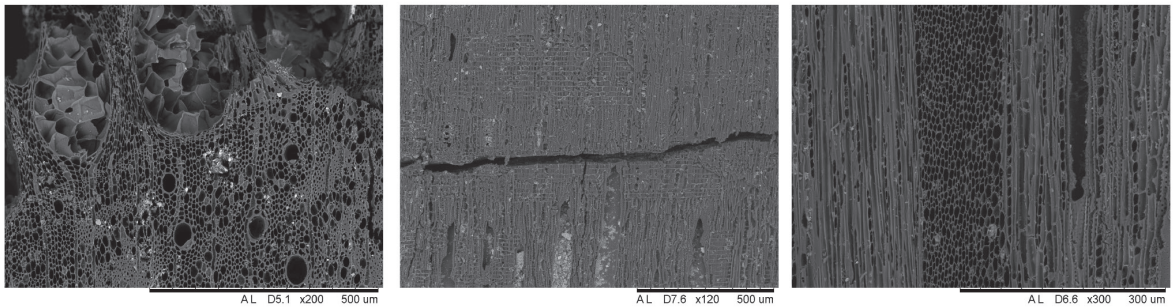
(A) 횡단면×180 (B) 방사단면×400 (C) 접선단면×150

그림 2. 양평#2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참나무과 참나무속 상수리나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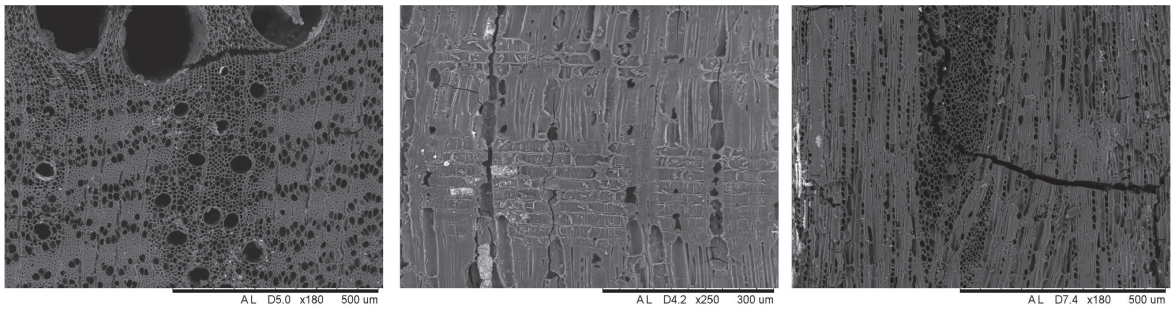
(A) 횡단면×80 (B) 방사단면×500 (C) 접선단면×300

그림 3. 양평#3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참나무과 참나무속 졸참나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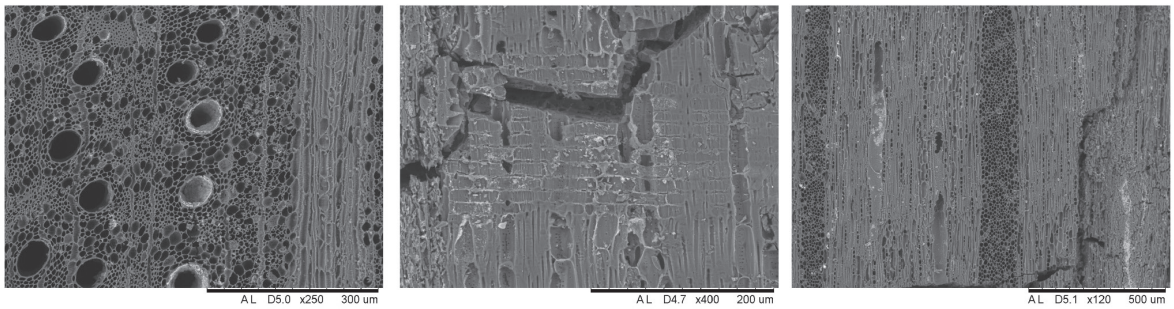
(A) 횡단면×200 (B) 방사단면×120 (C) 접선단면×300

그림 4. 양평#4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참나무과 참나무속 상수리나무류)



(A) 횡단면×180 (B) 방사단면×250 (C) 접선단면×180

그림 5. 양평#5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참나무과 참나무속 상수리나무류)



(A) 횡단면×250 (B) 방사단면×400 (C) 접선단면×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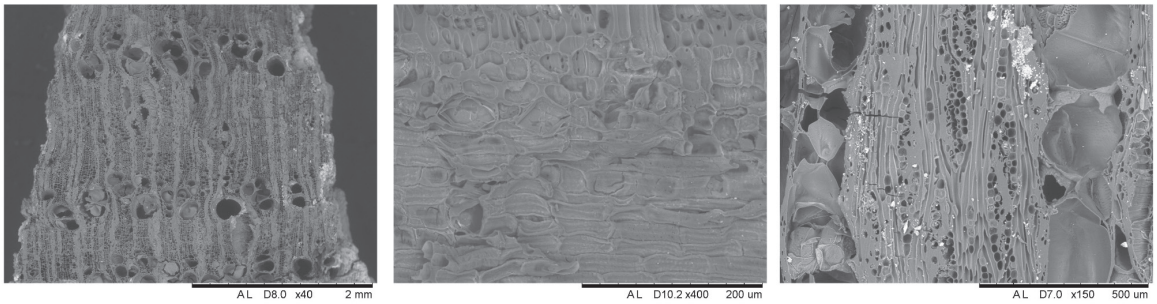
그림 6. 양평#6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참나무과 참나무속 상수리나무류)

<장흥 출토 탄화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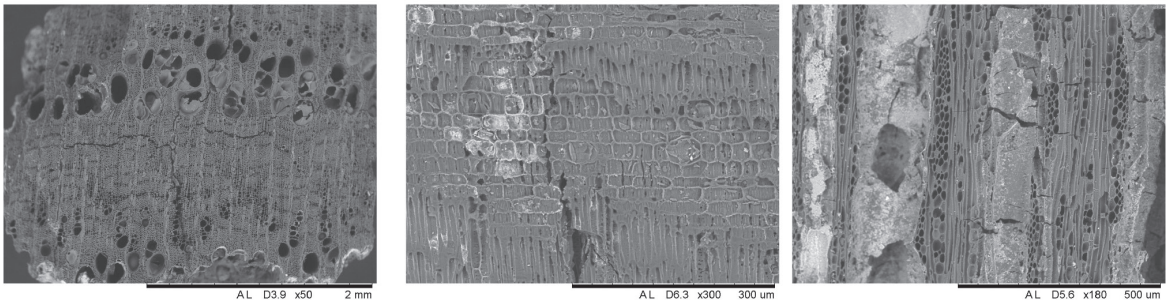
(A) 횡단면×40 (B) 방사단면×120 (C) 접선단면×300

그림 7. 장흥#1 주사전자현미경 사진(가래나무과 굴피나무속)



(A) 횡단면×40 (B) 방사단면×400 (C) 접선단면×150

그림 8. 장흥#2 주사전자현미경 사진(가래나무과 굴피나무속)



(A) 횡단면×50 (B) 방사단면×300 (C) 접선단면×180

그림 9. 장흥#3 주사전자현미경 사진(가래나무과 굴피나무속)

장흥 봉림리 121-1번지 유적 유물 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8-1002-0001	무문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토도	청동기시대	(11.1)		0.5~0.7	7-1 6-1	Y
2018-1002-0002	석거	1	주거지	옥석유리	청동기시대	14.4	5.0	0.8	7-2 6-2	Y
2018-1002-0003	미완성 석기	1	주거지	옥석유리	청동기시대	9.5	3.2	1.0	7-3 6-3	Y
2018-1002-0004	석편	1	주거지	옥석유리	청동기시대	9.3	1.3	0.4	7-4 6-4	Y
2018-1002-0005	토기 동체부편	1	주거지 1호	토도	삼국시대	(6.1)		0.8	10-5 11-5	Y
2018-1002-0006	옹	1	주거지 2호	토도	삼국시대	(19.8)	18.2	0.4	12-6 14-6	Y
2018-1002-0007	옹 구연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	삼국시대	(6.4)		0.5	12-7 14-7	Y
2018-1002-0008	옹 구연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	삼국시대	(9.2)		0.3~0.5	12-8 14-8	Y
2018-1002-0009	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	삼국시대	(6.3)		0.6	12-9 14-9	Y
2018-1002-0010	단경호 구연부	1	주거지 2호	토도	삼국시대	(4.7)	12.8	0.5	12-10 14-10	Y
2018-1002-0011	토기 동체부편	1	주거지 2호	토도	삼국시대	(14.9)		0.3~0.8	12-11 14-11	Y
2018-1002-0012	완	1	주거지 3호	토도	삼국시대	(10.1)	21.4	15.3	14-12 18-12	Y
2018-1002-0013	완 구연부	1	주거지 3호	토도	삼국시대	(6.1)	25.8	0.7	14-13 18-13	Y
2018-1002-0014	단경호	1	주거지 3호	토도	삼국시대	(20.2)	13.2	0.5	14-14 18-14	Y
2018-1002-0015	단경호	1	주거지 3호	토도	삼국시대	25.7	16.8~19.0	0.3~0.9	14-15 18-15	Y
2018-1002-0016	호	1	주거지 3호	토도	삼국시대	36.5	14.5~15.6	0.3~0.8	15-16 18-16	Y
2018-1002-0017	장란형토기	1	주거지 3호	토도	삼국시대	(12.5, 27.9)		0.3~0.6	15-17 19-17	Y
2018-1002-0018	옹 구연부	1	주거지 3호	토도	삼국시대	(4.8)	17.2	0.3	15-18 19-18	Y
2018-1002-0019	방추차	1	주거지 3호	토도	삼국시대	지름 3.1		2.3	15-19 19-19	Y
2018-1002-0020	방추차	1	주거지 3호	토도	삼국시대	지름 2.9		1.6	15-20 19-20	Y
2018-1002-0021	방추차	1	주거지 3호	토도	삼국시대	지름 3.8		2.3	15-21 19-21	Y
2018-1002-0022	방추차	1	주거지 3호	토도	삼국시대	지름 3.3		1.3	15-22 19-22	Y

2018–1002–0023	방추차	1	주거지 3호	토도	삼국시대	지름 3.3		1.3	15–23 19–23	Y
2018–1002–0024	완 구연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6.0)	22.8	0.6	17–24 23–24	Y
2018–1002–0025	직구호 구연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7.3)	13.3	0.5	17–25 23–25	Y
2018–1002–0026	직구호 구연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5.8)	18.4	0.4	17–26 23–26	Y
2018–1002–0027	직구호 구연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4.8)	14.4	0.6	17–27 23–27	Y
2018–1002–0028	단경호 구연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6.5)	14.8~ 17.4	0.5	17–28 23–28	Y
2018–1002–0029	단경호 구연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4.3)	14.6	0.4	17–29 23–29	Y
2018–1002–0030	단경호 구연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5.1)	15.6	0.4	17–30 23–30	Y
2018–1002–0031	호 구연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3.8)	17.2	0.6	17–31 23–31	Y
2018–1002–0032	발 구연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16.5)	17.9	0.8~1.0	17–32 23–32	Y
2018–1002–0033	토기 구연부편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4.8)		0.3	17–33 23–33	Y
2018–1002–0034	토기 저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9.9)		(8.8)	17–34 23–34	Y
2018–1002–0035	호 저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16.0)		0.5~0.7	18–35 23–35	Y
2018–1002–0036	호 동체부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9.5)		0.4~0.7	18–36 23–36	Y
2018–1002–0037	호 동체부편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17.3)		0.4~0.7	18–37 23–37	Y
2018–1002–0038	호 동체부편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8.0)		0.6	18–38 23–38	Y
2018–1002–0039	파수	1	주거지 4호	토도	삼국시대	(8.0)		2.9	18–39 23–39	Y
2018–1002–0040	완 구연부편	1	주거지 5호	토도	삼국시대	(5.3)		0.5	19–40 26–40	Y
2018–1002–0041	호 동체부	1	주거지 5호	토도	삼국시대	(13.2)		0.5	19–41 26–41	Y
2018–1002–0042	완	1	주거지 6호	토도	삼국시대	(6.1, 5.2)		(18.8)	20–42 28–42	Y
2018–1002–0043	토기 저부	1	주거지 6호	토도	삼국시대	(2.4)		(9.6)	20–43 28–43	Y
2018–1002–0044	파수	1	주거지 6호	토도	삼국시대	5.8		2.1	20–44 28–44	Y
2018–1002–0045	토기 저부	1	수혈유구	토도	삼국시대	(4.3)		7.8	22–45 31–45	Y
2018–1002–0046	토기 저부편	1	성격미상유구	토도	삼국시대	(2.1)		0.8	23–46 33–46	Y
2018–1002–0047	어망추	1	수습	토도	삼국시대	지름 3.1		2.3	24–47 33–47	Y

調査報告書 抄錄

<table>
<tr><td>報告書名</td><td colspan="3">장흥 봉림리 121-1번지 유적</td><td>發行日</td><td colspan="2">2020年 11月 25日</td></tr>
<tr><td rowspan="3">發刊機關</td><td>名稱</td><td colspan="5">한국문화재재단</td></tr>
<tr><td>住所</td><td colspan="5">(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td></tr>
<tr><td>TEL</td><td colspan="2">(02)3011-2173</td><td>FAX</td><td colspan="2">(02)566-5954</td></tr>
<tr><td>執筆 · 編輯者</td><td colspan="6">정훈진, 이건충, 김봉성, 최성수, 정홍선, 박자연</td></tr>
<tr><td>調査緣由</td><td colspan="6">동 · 식물관련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td></tr>
<tr><td>發掘調査者</td><td colspan="6">박종섭, 정훈진, 김봉성, 강채경, 최성수</td></tr>
<tr><td>遺蹟所在地番</td><td colspan="6">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121-1번지</td></tr>
<tr><td>調査面積</td><td colspan="6">2,616㎡</td></tr>
<tr><td>遺構種別</td><td>時代 및 年代</td><td>類型 및 基數</td><td colspan="2">重要遺物</td><td colspan="2">特記事項</td></tr>
<tr><td rowspan="2">주거지</td><td>청동기시대</td><td>1동</td><td colspan="2">무문토기 구연부편
석거, 석부</td><td colspan="2"></td></tr>
<tr><td>삼국시대</td><td>6동</td><td colspan="2">단경호, 완,
장람형토기, 방추차</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수혈유구</td><td>청동기시대</td><td>2기</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삼국시대</td><td>1기</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굴립주 건물지</td><td>삼국시대</td><td>1동</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성격미상유구</td><td>삼국시대</td><td>1기</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112. 서울 저동2가 46-27번지 외 1필지 유적

수도문물연구원

목 차

Ⅰ. 조사개요 …… 112 -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12 - 9
1. 위치와 자연 · 지리적 환경 …… 112 - 9
2. 고고학적 환경 …… 112-10
3. 역사적 환경 …… 112-19

Ⅲ. 조사내용 …… 112-27
1. 조사과정과 방법 및 층위 …… 112-27
2. 시굴조사 …… 112-28
3. 발굴조사 …… 112-31

Ⅳ. 조사성과 …… 112-44

표 목차

표 1. 조사지역 주변 문화유적 · 매장문화재 조사 현황 ····· 112-17
표 2. 조사지역 주변 문화유적 · 매장문화재 조사 현황 ····· 112-18
표 3. 조사지역 주변 문화유적 · 매장문화재 조사 현황 ····· 112-19
표 4. 조사지역 동측 대표토층 ····· 112-28
표 5. 서울 저동2가 46-27번지 유적 발굴조사 유구 현황····· 112-44

도 면 목 차

도면 1.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도(중구) ····· 112 - 9
도면 2. 조사지역의 지질현황(한국지질자원연구원) ····· 112-11
도면 3.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12-14
도면 4. 조사지역 지형도(1:5,000) ····· 112-15
도면 5. 조사지역 일원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조사결과도 ····· 112-16
도면 6. 수선전도(19세기) ····· 112-23
도면 7. 한양도성도(1770년) ····· 112-24
도면 8. 조사지역 일원 한양도성의 하천 ····· 112-24
도면 9. 조사지역 일원 지적원도(1914년) ····· 112-25
도면 10. 조사지역 지적도 ····· 112-26
도면 11. 시굴조사 트렌치현황도 ····· 112-29
도면 12. 시굴조사 출토유물 1~4 ····· 112-30
도면 13. 근대시대 문화층 건물지 평 · 단면도 ····· 112-32
도면 14. 건물지2 출토유물 5~8 ····· 112-34
도면 15. 건물지3 출토유물 9~11 ····· 112-35
도면 16. 건물지3 출토유물 12~15 ····· 112-37
도면 17. 조선시대문화층 건물지 평 · 단면도 ····· 112-38
도면 18. 건물지4 출토유물 16~18 ····· 112-40
도면 19. 건물지5 출토유물 19~20 ····· 112-41
도면 20. 건물지5 출토유물 21~25 ····· 112-42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지역 일원 항공사진(1981년) …… 112-47
도판 2. 조사지역 일원 위성사진…… 112-48
도판 3. 조사지역 전경(①북-남, ②남동-북서) …… 112-49
도판 4. 시굴조사(①트렌치 전경, ②유구 전경, ③석렬 상세, ④탐색피트 조선시대 후기 석렬 전경)… 112-50
도판 5. 시굴조사 출토유물①~④(유물번호1~4)…… 112-51
도판 6. 발굴조사 근대시대 문화층 전경(①남동-북서, ②북동-남서) …… 112-52
도판 7. 건물지1(①항공사진, ②고맥이 전경, ③고맥이 상세, ④아궁이 전경, ⑤ 고래 전경) … 112-53
도판 8. 건물지2(①전경, ②~③온돌시설(고래, 고래둑), ④~⑤벽체 기저부 전경 및 상세) … 112-54
도판 9. 건물지2 출토유물①~④(유물번호5~8) …… 112-55
도판 10. 건물지3(①항공사진, ②온돌시설 전경 ③초석 전경 ④초석 상세, ⑤기단석렬 전경)… 112-56
도판 11. 건물지3 출토유물①~④(유물번호9~12) …… 112-57
도판 12. 건물지3 출토유물①~③(유물번호13~15) …… 112-58
도판 13. 건물지4(①항공사진, ②고맥이 전경, ③부엌칸 전경, ④아궁이 전경, ⑤아궁이 상세) … 112-59
도판 14. 건물지4 출토유물①~③(유물번호16~18) …… 112-60
도판 15. 건물지5(①항공사진, ②~③고맥이 전경, ④고맥이 상세, ⑤적심석 전경)…… 112-61
도판 16. 건물지5 출토유물①~④(유물번호19~22) …… 112-62
도판 17. 건물지5 출토유물①~③(유물번호23~25) …… 112-63
도판 18. 미상유구 및 온돌시설(①미상유구 및 온돌시설 전경, ②~④미상유구 전경 및 상세, ⑤고맥이 전경) …… 112-64

Ⅰ. 조사개요

조사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6-27번지 일원으로 북쪽에는 서본원사터가, 남동쪽에는 영희전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지역 주변에는 저층의 주거시설과 사무시설 및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 지역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업지역은 서울시의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의거하여 문화재 시굴조사 대상지역에 해당하여 건축공사에 이전에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본 연구원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고, 2017년 7월 28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제2017-0996호)를 받아 2017년 8월 5일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건축허가상 신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사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벽체 등만 제거하고 철근구조물 등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수선공사와 유사하게 신축이 진행될 계획이다. 따라서 시굴조사는 도로와 직교되는 북-남방향으로 폭 2m, 길이 6m 크기의 시굴트렌치를 구획하고, 그 부분만 기존 건물의 1층 바닥 슬라브를 제거한 뒤 조사를 진행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시굴트렌치 내부에서 근대와 조선시대 건물지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2017년 8월 7일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시굴트렌치에서 확인된 유구의 범위와 형태 및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지역 전체면적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을 신청하였고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은 2018년 11월 22일 우리연구원에 대행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연구1팀-2923)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11월 26부터 동년 동월 30일까지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지표로부터 약 50~100cm 하부에서 조선시대 후기부터 근대시기까지의 문화층과 관련된 건물지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2018년 11월 28일과 11월 30일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보완조사 및 측량, 사진촬영 등의 기록 등을 실시한 후, 현장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시굴 및 발굴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굴조사	발굴조사
조 사 단 장	오경택(수도문물연구원 원장)	오경택(수도문물연구원 원장)
책임조사원	오경택(수도문물연구원 원장)	권순진(수도문물연구원 실장)
조 사 원	양현모(수도문물연구원 팀장)	양현모(수도문물연구원 팀장)
준 조 사 원	김정수, 박미화 (수도문물연구원 팀장)	한초롱(수도문물연구원 부팀장)
보 조 원	한초롱(수도문물연구원 부팀장)	김정효(수도문물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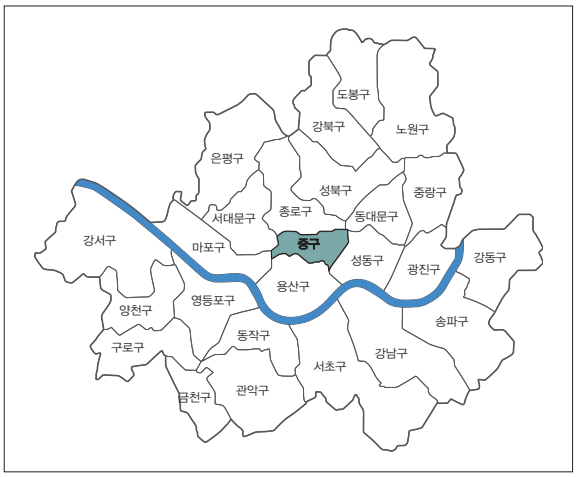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권순진 책임하에 이경현, 주정우, 정현아가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유구에 대한 원고는 주정우, 양현모가 전담하였고, 출토유물에 대한 기술은 한초롱, 유물정리 및 실측, 사진촬영,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박미화, 한초롱, 송민하가 분담하였다.

보고서의 최종 원고는 권순진이 취합하여 교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오경택이 교열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위치와 자연 · 지리적 환경



도면 1.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도(중구)

중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한강의 이북이자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북쪽은 청계천을 따라 종로구, 동쪽은 무학봉과 응봉동을 경계로 성동구, 남쪽으로는 남산을 주봉으로 하고 용산구, 서쪽으로는 서대문과 각각 접하고 있다. 중구의 법정동은 총 15개로 소공동 · 회현동 · 명동 · 필동 · 장충동 · 광희동 · 을지로동 · 신당동 · 다산동 · 약수동 · 청구동 · 신당5동 · 동화동 · 황학동 · 중림동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의 지형은 한강을 중심으로 비교적 낮고 평평한 지역에 도심이 자리 잡았으며, 가운데에 남산(해발 263m)이 위치하고 있다.

중구가 속해있는 서울은 지질시대의 조산활동으로 인해 융기와 침식으로 인해 다양한 높낮이의 산지가 발달한 곳이다. 중구는 지형적으로 남부의 산지와 북부의 저지대로 나뉜다. 남부의 산지는 주로 남산이 위치한 지역이고, 북부 저지대는 기반암이 침식된 침식평탄면으로 형성되었다. 지질은 주로 중생대 쥐라기 조산활동으로 관입한 대보화강암과 호상 편마암, 그리고 암석의 풍화 침식과 하천의 저지대 유입의 반복 작용으로 인한 충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대보화강암은 서울 시내 주변의 작은 산들(북한산, 도봉산, 남산 등)이나 대부분의 국립공원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계룡산 등을 이루고 있는 주요 암석으로 서울 화강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저지대는 남산으로부터 청계천으로 곳으로 경사도 5°미만의 평탄한 지형이며, 이 지역 대부분이 도심의 중심업무지구로 발달되어 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목멱산(남산, 해발 262m)에서 이어지는 응봉(해발 176m)은 중구의 동측에 위치한 주봉이다. 용산구와 경계가 되는 응봉은 화강암 지층이 장기간에 걸친 침식작용에 의해 잔구성 산지로 남아있으며, 목멱산은 서울 북쪽의 백악산(해발 342.4m), 동쪽의 타락산, 서쪽의 인왕산과 함께 서울 중앙부를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內四山)에 해당된다. 이중 저지대은 해발고도 20m 미만의 지대가 전체의 5.09%이고 평지의 비율은 13.68%로 이는 한강에 인접해 있는 주변지역에 비해 고도가 높고 평지의 비율도 낮아서 홍수와 범람 등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구의 북쪽으로 흐르는 청계천은 서울 시내의 한복판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며 중구와 종로구를 나누는 하천이다. 총 길이는 3.8km로 백악산, 인왕산, 목멱산 등에서 흘러나오는 지류들이 모여 동류하다가, 흥인지문 남측의 오간수문을 지나 왕십리 밖 살곶이다리 근처에서 남류하는 중랑천에 합류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한양도성의 내수(內水)이자 최대 하천이다.

중구의 기후는 냉대와 온대의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 맑은 날의 오전 기온 분포를 보면 중구 일대가 외곽지역의 비해 2~3℃ 정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여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은 겨울철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수량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의 연평균 강수량인 1,344㎜와 큰 차이가 없다.

2. 고고학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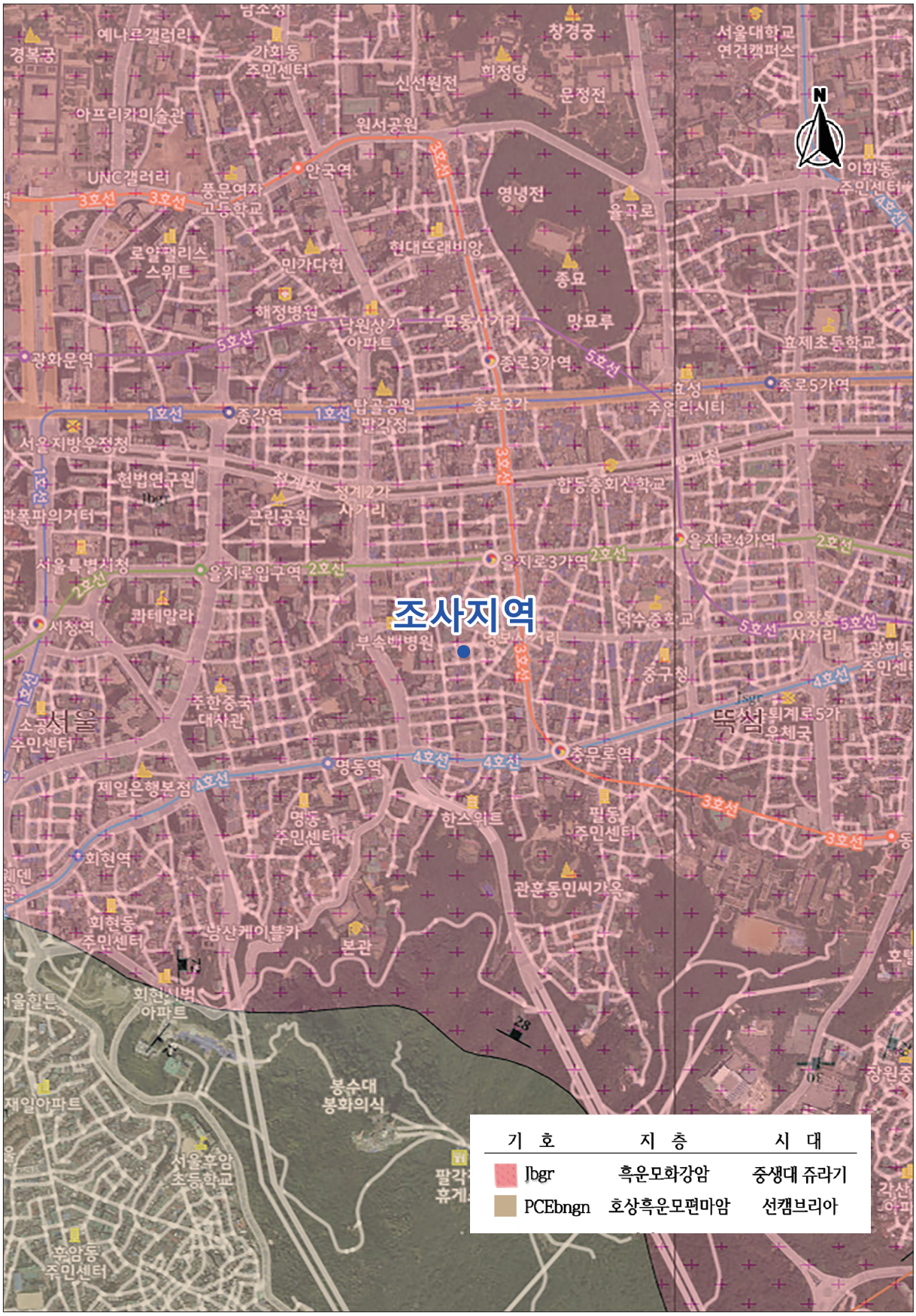
조사지역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중구는 지리적 특성상 인접 지역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수로인 한강을 이용하여 물자를 운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를 활용하여 선사시대 이래 국가의 수도나 혹은 그에 준하는 주요 도시로 기능하며 민족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중구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중구와 인접한 서대문의 무악산에서 1976년 출토된 사냥돌 유적과 또 같은 해 서대문 부근에서 출토된 주먹도끼가 인하대학교 박물관에 소장[1]되어 있는 등 구석기 유적이 일부 조사된 사례가 있다. 청동기 유적으로는 1958년 성북구 정릉동 지석묘가 조사되었고, 2003년 서울역사박물관이 조사한 서대문구 안산유물산포지에서 소양의 무문토기편이 확인되고 있어 청동기시대 고지성 취락유적이 분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

한편 한강과 그 지류에서는 보다 높은 빈도로 선사시대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암사동 선사유적지[3], 송파구 가락동 유적[4], 강남구 역삼동 유적[5], 성동구 응봉 유적[6] 등이 있다. 가락동 유적에서는 가락동식 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역삼동유적의 주거지 유적에서는 주거공간과 도구창고의 연립형 형태가 확인되었다. 2009년 강동구 고덕동과 2014년 암사동에서도 각각 주거지 5기와 14기가 조사된 바 있다[7]. 이외에도 서울의 양재동, 개포동, 원지동, 고척동 등의 지역에 개석식 지석묘들이 입지해 있었으나 개발로 멸실되었다. 초기철기시대와 관련한 유적으로는 삼성동 대모산유적[8]에서 주거지 1기와 원형점토대토기, 우각형 파수부 등이 확인되었으며 아차산보루군에서도 원형점토대토기가 지표 수습된 바 있다.

---

1) 이경수, 2005, 「서울지역 선사유적의 조사현황」『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Ⅰ』.
2) 이경수, 2005, 앞의 글,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Ⅰ』.
3) 서울대학교박물관, 1980, 『岩寺洞』.
암사동유적발굴조사단, 1983, 『岩寺洞遺蹟 發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박물관, 1985, 『岩寺洞』.
국립중앙박물관, 1994, 『岩寺洞』.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1999, 『岩寺洞 Ⅱ ; 原始生活展示館 新築敷地 發掘調査』.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2006, 『岩寺洞』3.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2007, 『岩寺洞』4.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2007, 『岩寺洞』5.
4) 김정학, 1963, 「廣州 可樂里 住居址 發掘報告」, 『古文化 2』.
5) 김양선 · 임병태, 1968, 「驛三洞 住居址 發掘報告」『史學硏究』20, 한국사학회.
6) 김원룡, 1957, 「석기시대의 서울」『향토서울』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7) 경희대학교 중악박물관, 2012, 『서울 고덕동 유적』.
(재)국방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암사동유적』.
8) 한양대학교박물관, 2009, 『大母山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도면 2. 조사지역의 지질현황(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삼국시대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삼국의 영토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진 지역으로, 삼국 항쟁과 관련하여 종로구 지역에서 주목할 유적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복속하고 세운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진흥왕순수비'로 종로구 구기동 비봉에 위치[9]하고 있다. 또한 태종 무열왕이 659년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장춘랑(長春郎)과 나랑(羅郎) 두 명의 화랑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고 하는 장의사(藏義寺)[10]터가 종로구 신영동의 세검정초등학교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장의사터에는 보물 제235호로 지정되어 있는 당간지주만이 남아있다[11]. 2012년 종로구 명륜3가 51번지 일원에서는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실묘 2기가 확인되기도 하였다[12].

조선시대에는 도성의 도로체계뿐만 아니라 전국의 통신제도를 한성부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양도성은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유적들과 도시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해방 이후 6.25전쟁과 현대화를 이루면서 많은 부분에서 옛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양도성 내의 본격적인 문화재 발굴조사는 1985년부터 궁궐(宮闕) 일원을 중심[13]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경희궁 관련 발굴조사[14]는 1985~1998년까지 진행되었다. 당시 발굴조사는 경희궁 주요

---

9) 현재는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이며, 북한산 비봉에는 복제품이 자리하고 있다.

10) 『三國史記』「太宗武烈王」6年條 ; 박상빈, 2005, 「신라 한강진출과 통일신라시대의 서울」『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Ⅰ, 142쪽 재인용.

11) 鍾路區, 1994, 『鐘路區誌』(上卷), 81~91쪽.

12)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서울 종로 명륜동 성대 글로벌 교육시설부지 내 유적』.

13) 문화재관리국, 1984년, 『昌慶宮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文化財硏究所, 1990년, 『景福宮 寢殿地域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文化財硏究所, 1994년, 『景福宮 東宮地域 重建工事報告書』.
국립중앙박물관, 1996, 『景福宮 訓局軍營直所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년, 『경복궁 가압장 이전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0년, 『景福宮 泰元殿圈域 試掘調査 略報告書』.
國立文化財硏究所, 2001년, 『昌德宮 錦川橋 周邊遺蹟』, 第1次.
國立文化財硏究所, 2001년, 『昌德宮 半島池 試掘調査報告書』.
중앙문화재연구원, 2001년, 『景福宮 泰元殿圈域 遺蹟』.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년, 『景福宮 乾淸宮址 發掘調査報告書』.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년, 『昌德宮 半島池 補修·整備工事 竣工報告書』.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2년, 『昌德宮 尙房址 遺構調査 報告書』.
國立文化財硏究所, 2002년, 『昌德宮 錦川橋 周邊遺蹟』, 第2次.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3년, 『경복궁 녹산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상명대학교박물관, 2004년, 『교통순찰대청사 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國立文化財硏究所, 2004년, 『景福宮 燒酒房址 및 興福殿址 遺蹟』.
國立文化財硏究所, 2004년, 『昌慶宮 선안문 南側休憩所 新築敷地內 遺蹟』.

14) 檀國大學校博物館, 1985년, 『整備·復元을 위한 慶熙宮址 發掘調査 報告書』.
檀國大學校博物館, 1987년, 『整備·復元을 위한 2차 慶熙宮址 發掘調査 報告書』.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0년, 『慶熙宮 崇政殿 發掘調査 報告書』.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4년, 『慶熙宮 崇政殿 回廊 및 資政殿 發掘調査 報告書』.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6년, 『慶熙宮 泰寧殿址 建立敷地 發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6년, 『서울市立博物館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8년, 『서울교원복지회관 신축부지내 發掘調査 報告書』.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8년, 『慶熙宮址 發掘調査報告書(集慶堂, 會祥殿, 隆福殿 및 龍飛泉 주변)』.

전각의 복원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숭정전 권역 일원과 금천교 일원이었다.

궁궐 이외 지역의 발굴조사는 2003년에 실시된 『청계천 복원구간 문화재 지표조사』[15]와 이후 청계천 복원공사와 더불어 진행된 『淸溪川 遺蹟』[16] 발굴조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 들어서는 종로구 청진동 166번지 일원의 "종로 청진구역 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가 발굴조사[17] 되었는데,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시전행랑(市廛行廊) 및 그 북측의 배후 건물지 유구들이 지표에서 약 4m 내외의 깊이까지 여러 문화층에 걸쳐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한양도성 내부에서는 다양한 유적들에 대하여 시굴 및 발굴조사[18]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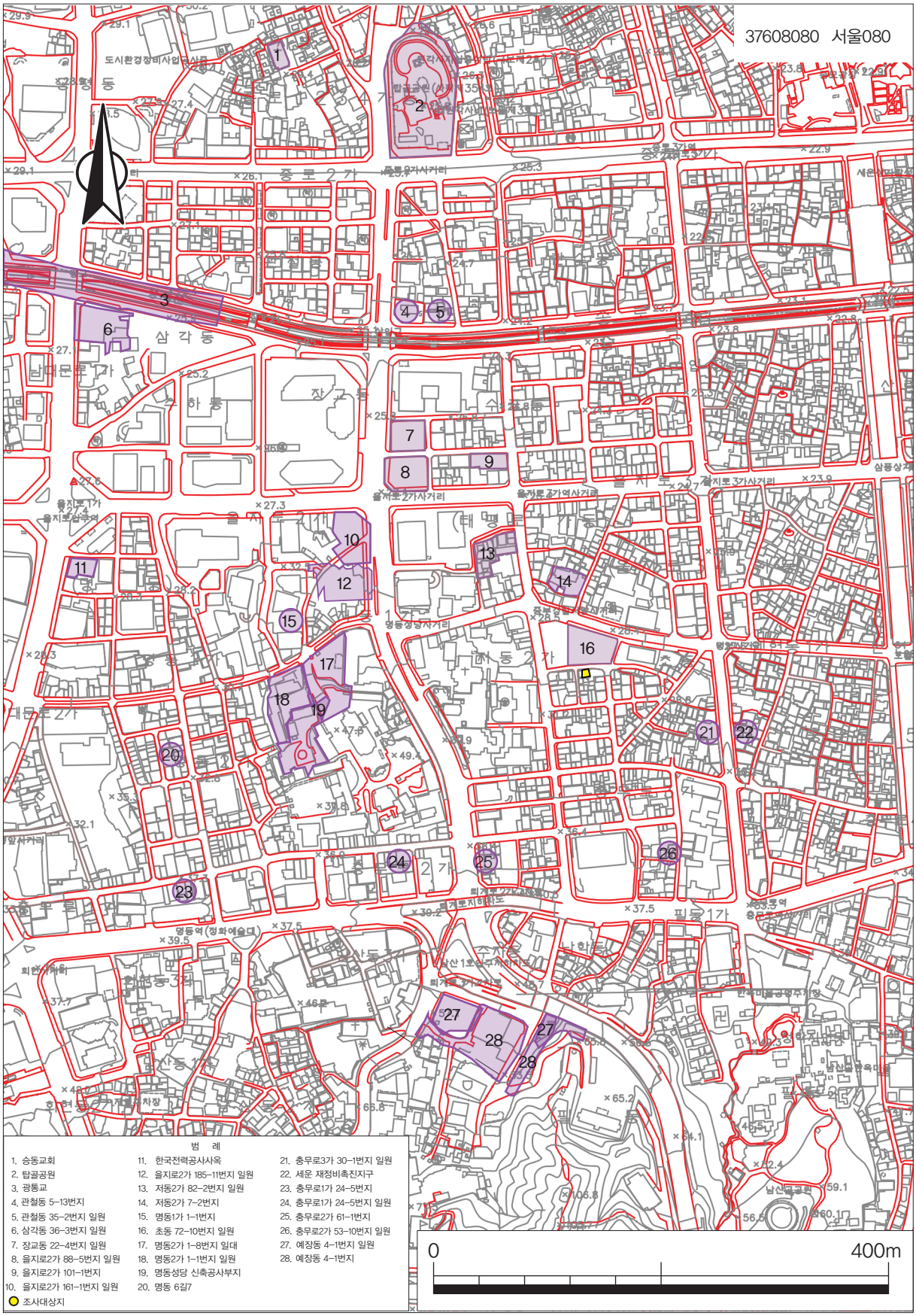
2011년에는 서울 한양도성 내부(4대문안)의 대한 종합적인 보존 ·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종합학술조사가 진행[19]되었고, 2012년에는 종합학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이 공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지역 인근에서 2014년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5-11번지 일원에서 서울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20]과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72-10번지 일원에서 서울 중구 초동 72-10번지 일원 유적[21] 등이 조사되었고, 2017년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34-3번지에서 서울 중구 삼각동(36-3번지 일원) 신한은행 S-Square 건립사업부지 내 유적[22]이, 2018년에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유적이 조사되는 등 서울특별시 중구와 종로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적에 대해서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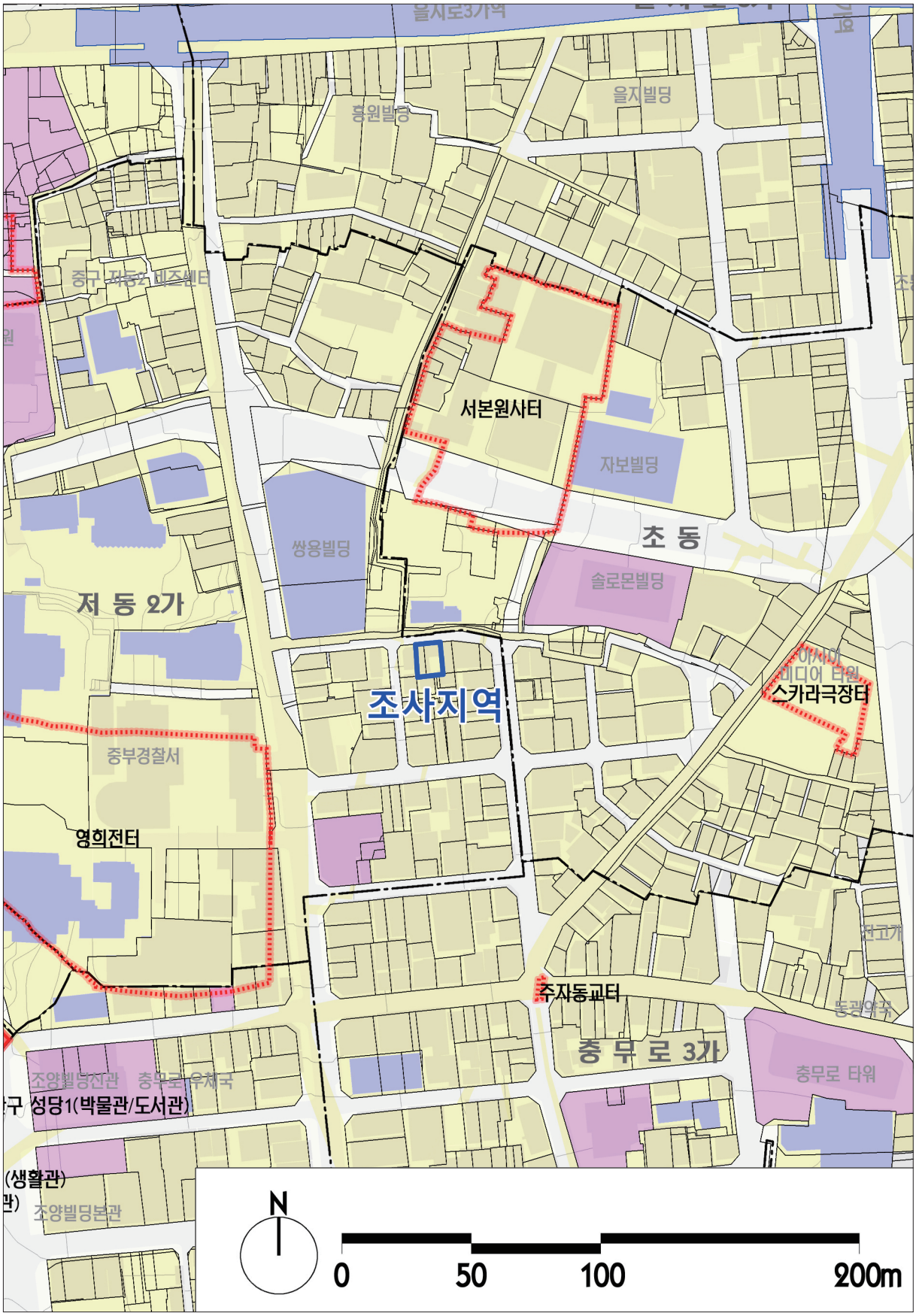
15)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3, 『청계천 복원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6) 中央文化財硏究院, 2004, 『淸溪川 遺蹟』.
17)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7, 『서울 淸進6地區 遺蹟』Ⅰ, Ⅱ.
18)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04, 『서울 종로구 관철동35-1번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상명대학교박물관, 2007,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청사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08, 『서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부지 발굴조사』.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0, 『종로2가40번지 시전행랑유적』.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0, 『종로 신문로2가 1-176번지유적』.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0, 『서울 타워호텔 서울성곽 유적』.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1, 『종로 어영청지 유적』.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1, 『서울 종로 중학천 유적』.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1, 『鐘路 淸進1地區 遺蹟』.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鐘路 淸進5地區 遺蹟』.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파고다타워종로 유적』.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서울 세종로구역 2지구 유적』.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鐘路 淸進2~3地區 遺蹟』.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서울 기기국 번사창 유적』.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鐘路 淸進12~16地區 遺蹟』.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鐘路 淸進8地區 遺蹟』.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서울 중구 명동2가 1-1번지 유적』.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서울 중구 정동 1-45번지 유적』.
19) 서울특별시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1,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
20)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1.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1)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초동 72-10번지 일원 유적』.
22) (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7. 『서울 중구 신한은행 S-square 건립사업부지 내 유적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도면 3.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4. 조사지역 지형도(1:5,000)



도면 5. 조사지역 일원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결과도

【표 1】 조사지역 주변 문화유적 · 매장문화재 조사 현황

번 호	유 적 명	소 재 지	시 대	성 격	유적분류	비 고
1	승동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7-1	대한제국 시대	-	교회	시도유형문화재 제130호
2	서울 탑골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99 외(종로2가)	조선시대	-	역사사건	-
3	광통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청계천 하상 일대	조선시대	유적있음	교량	-
4	서울 종로 다이렉트코리아 신축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5-13번지	조선시대	유적있음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09)
5	서울 관철동 35-2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35-2번지	조선시대	유적있음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6	서울 중구 삼각동 (36-3번지 일원) 신한은행S-Square 건립사업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36-3번지	조선시대 ~근현대	유적있음	-	(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7)
7	서울 장교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22-4번지 일원	-	유적있음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11)
8	서울 중구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88-5번지 일원	-	유적있음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9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01-1번지 비즈니스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01-1번지 일원	-	유적있음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10	서울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61-1 번지 일원	-	유적있음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1)
11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2, 외 3필지	일제 강점기	-	-	등록문화재 제1호

【표 2】 조사지역 주변 문화유적 · 매장문화재 조사 현황

번 호	유 적 명	소 재 지	시 대	성 격	유적분류	비 고
12	서울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지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5-11 번지 일원	-	유적있음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13	서울 중구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동2가 82-2번지 일원	조선시대	유적있음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8)
14	서울 중구 을지로12길26 오피스텔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7-2번지	조선시대	유적있음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6)
15	서울 명동1가(1-1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시굴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 YWCA연합회	조선시대 ~근현대	유적있음	-	(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8)
16	서울 중구 초동 72-10번지 일원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72-10번지 일원	-	유적있음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4)
17	명동성당 기초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8번지 일대	근대/일제 강점기	유적있음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0)
18	서울 중구 명동성당 종합계획(1단계) 증축공사 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1번지 일원	근대/일제 강점기	유적있음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1)
19	서울 중구 명동성당 종합계획(1단계)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1번지 일원	-	유적없음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20	서울 중구 명동6길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조선시대 ~근대/ 일제 강점기	유적있음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21	서울 중구 충무로3가 30-1번지 일원 비즈니스호텔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30-1번지 일원	미상	유적있음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22	서울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2-8구역)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34-3번지 일원	-	유적있음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8)

【표 3】 조사지역 주변 문화유적 · 매장문화재 조사 현황

번 호	유 적 명	소 재 지	시 대	성 격	유적분류	비 고
23	서울 충무로1가 (24-5번지 일원)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4-5번지	조선시대	유적있음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24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1-1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1-1번지 일원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유적있음	-	(재)서해문화재연구원 (2013)
25	서울 중구 충무로2가 53-10 호텔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53-10번지 일원	-	유적있음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26	서울 필동1가 (3-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4번지	조선시대 ~근대/ 일제 강점기	유적있음	-	(재)수도문물연구원 (2018)
27	서울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1번지	근대/일제 강점기 ~현대	유적있음	-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17)
28	서울 중구 예장동 (4-1번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원	일제 강점기	유적있음	-	(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6)

3. 역사적 환경

삼한 · 삼국시대에 들어서 한강유역에 등장하는 정치세력은 진국(辰國)과 마한(馬韓) 그리고 초기백제(初期百濟)로 고고학적 근거로는 지석묘를 들 수 있다.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에게 쫓겨 남하한 준왕의 세력과 고조선 멸망 후 남하한 유이민 집단 등 '금속기'를 사용하는 집단의 유입으로 한강유역 및 그 이남에는 이를 기반으로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는데 이른바 삼한연맹체가 그것이다. 삼한사회는 이른바 '군장사회(君長社會)'로 발전하는데 서울지역과 관련되는 것은 마한 54국 중 하나인 백제국(伯濟國)이다.

삼국시대에 신라는 진흥왕대에 정복국가로 발전하여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550년 '나제동맹군'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551년 백제는 한강유역을 수복했으나 553년 신라의 공격으로 한강유역은 신라에 복속되었다. 이어 진흥왕은 이들 새롭게 복속된 지역을 삼국통일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하였다. 당시 신라가 한강 이북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일종의 완충지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잦은 국경의 변화와 주(州)의 설치 및 변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553년(진흥왕 14) 신주(新州)라 하였고 몇 번의 개명 후에도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타나는 659년(무열왕 6)과 664년(문무왕 4)의 기록을 보면 한산주(漢山州)라는 지명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 다시 한 번의 개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된 이후 685년 신문왕 때인 국토를 9주 5소경으로 개편하면서 서울지방은 한산주(漢山州)라 하고, 그 치소를 광주(廣州)에 주었다. 경덕왕 7년(757)에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면서 한산주의 명칭을 한주(漢州)로 고치고, 지금의 서울지역에는 한양군(漢陽郡)을 설치하므로 서울지방은 지방 군현의 하나로 지방관이 관할하는 지방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고려시대의 서울지역은 고려 초기에는 양주(楊州)였다가 문종대(1046～1083)부터 충렬왕대(1274～1298)까지는 남경(南京), 충선왕(1298, 1308～1313)대부터 고려 말까지는 한양(漢陽)이라고 불리었다[23]. 남경은 문종21년(1067)에 삼경제(三京制)가 실시되면서 설치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었고 숙종대(1054～1105)에 다시 재건되어 궁궐이 신축되었다. 남경의 위치나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숙종6년(1101) 남경개창도감(南京開創都監)이 설치되면서 궁궐 후보지로 물색된 곳이 지금의 노원, 도봉산 아래의 해촌 방면, 용산, 경복궁 부근으로 그 범위가 현재의 위치로는 타락산, 인왕산, 한강, 북악을 의미한다는 설이 주도적이다. 충렬왕34년(1308, 충선왕 복위 원년)에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삼경제가 폐지되었는데 이때 남경을 한양부(漢陽府)로 격하시킨다. 한양부는 현재의 고양, 양주, 포천 지역 등 한강 하류의 이북지역을 관할하였다. 공민왕대(1351~1374) 배원정책을 실시하면서 한양부에서 다시 격상되었다가 격하되는 등 격상과 격하를 반복한다.

조사지역이 속해있는 서울시 중구는 조선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조성된 도성의 중심지로, 태종과 세종 대를 거치면서 국가의 주요 시설들과 도로, 하천, 다리 등 기반시설들이 건설되며 조선왕조의 기틀과 함께 한성부의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태조 3년(1394) 한양으로 천도하여 이듬해인 태조 4년(1395)에 한양을 한성부로 고쳤으며 같은 해 9월에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궁궐(宮闕)을 완성한다. 태조 5년(1396)에는 북쪽의 백악산(白岳山)과 동쪽의 낙산(駱山), 남쪽의 목멱산(木覓山), 서쪽의 인왕산(仁王山)을 연결하는 약 18km에 달하는 도성을 축조하고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5부 52방(동부 12방, 남부 11방, 서부 11방, 북부 10방, 중부 8방)으로 두었다. 지금의 중구는 4부의 여러 방(坊)을 두루 포함한 지역이다. 세조, 성종 대를 거쳐 『경국대전』의 완성과 함께 국가조직의 완비와 전국적인 도로망의 정비를 이루게 되었다[24]. 임진왜란(1592～1598)으로 도성 내 많은 시설이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집권기(1608～1623)로부터 궁궐과 많은 건물들이 중축되어 점차적으로 왕도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숙종대(1674～1720)에는 북한산성과 탕춘대성의 축조가 완성된 후인 조선후기 영조대(1724～1776)에는 다시 도성 수축론이 대두되면서 40여 곳의 삼군부에 의해 수축되었다. 행정구역을 5부 46방 밑에 328계(契)를 두게 되는데 현재의 동명이 이 계에서 많이 유래하였다. 이 시기의 도성은 상업도시로 탈바꿈하는 경향을 띤다. 특히 17세기 후반 이후 상업의 발달에 따라 교통로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18세기 이후 경강상인을 중심으로 한 상업의 발달은 한성부의 도시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중구는 주로 주거지역으로 이용된 동시에 국가의 다양한 외교, 군사, 행정시설이 산재해 있었다. 남대문로에는 舊 시전행랑의 일부가 설치되었었으며 외교장소로는 명나라 사신의 유숙을 위한 태평관(太平館, 現 세종대로39 상공회의소 일대 추정), 왜(倭) 사신의 무역장소였던 동평관(東平館, 現

23) 진원영, 2005, 「고려시대의 남경」,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Ⅰ』, 147쪽.
24) 鐘路區, 1994, 『鐘路區誌-上-』.

인현동 일대) 등이 소재해 있었다, 또한 영희전(永禧殿)과 원구단(圜丘壇), 정릉(貞陵, 태조의 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 現 저동 4번지 영국대사관 일부), 저경궁(儲慶宮, 現 남대문로3가), 인현왕후(仁顯王后) 생가(現 순화동 5번지), 풍은부원군 조만영(豊恩府院軍 趙萬永)의 노인정(現 필동2가 134-2번지 남산 북쪽 기슭)[25] 등 왕실과 관련한 별궁 및 제례시설이 있었다. 이밖에 도화서(圖畵書, 現 수하동 64번지), 장악원(掌樂院, 現 을지로2가 195번지 외환은행 본점), 선혜청(宣惠廳), 교서관(校書館, 現 예관동 =교서관동), 주자소(鑄字所, 現 주자동 일대), 균역청(均役廳) 등의 행정시설이 입지하였다.

특히 중구는 조선시대 도성방위체제에 있어 중요한 거점으로 각종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었다[26]. 훈련원(現 중구 방산동 18번지 일대), 훈련도감 양향청(훈련도감에 쓰이는 군량, 복색, 기계, 선기, 금도 등 일체의 물자를 준비하고 공급하던 관아, 現 저동1가 1번지 중부세무서 자리), 훈련도감 하도감(훈련도감의 군대 주둔지, 現 을지로7가 DDP)[27], 어영청 남소영(어영청 분원, 現 장충동2가 197번지 장충단공원), 금위영 호위청(現 남산동2가 2번지), 금위영 남별영(금위영의 분원이자 군사주둔지, 現 필동2가 103번지) 염초청(화약 제조, 現 방산동 4번지) 등이 위치하였으며 병기를 제조하는 군기시(병기와 기치 등의 제조, 現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시청)등이 현재의 중구 각지에 위치하고 있었다[28]. 중구의 남쪽에 인접한 남산은 조선시대 전국에서 올라오는 5개의 봉수가 모이는 경봉수(景烽燧)이자 종점이었다[29]. 봉수와 가까운 지리적 요건이 중구 지역에 군사시설을 밀집시킨 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후기 크게 번성하였던 한양도성은 19세기 후반 이후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커다란 변화를 거치게 되었고 급속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을 겪게 된다. 중구 일대에 각 구미인들의 입경(入京)과 거류가 시작된 것은 한성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고종22년(1885) 남산 아래에 일본의 새 공사관이 들어서면서부터였다[30]. 이후 18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을지로 일대는 중국인의 상권이 되고, 명동 · 충무로 대부분은 일본인의 상권이 된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와 경제가 집중되었고 이는 일제침략의 거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907년 한국통감부에 의해 작성된 한국은행조례가 구 한국법률 제22호로 발표되면서 탄생한 한국은행은 곧 조선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어 일제침략을 위한 본거지 역할을 하였다. 현재 사적 제280호로 지

---

25) 이 노인정은 원래 풍양조씨의 정자로 조씨집안의 고관들과 문인, 대관들이 모여 여가를 즐기던 곳이었으나 훗날 고종 31년(1895) 일본공사가 '내정개혁방안강목'을 강요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26) 조선전기 한양에는 왕실보호를 담당하는 금군과 수도방위를 위한 5위 체제로 양분되어 있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삼수병(三手兵)을 중심으로 하는 절강병법(浙江兵法)을 도입되면서 중앙에는 훈련도감이 설치되었고, 지방에는 속오군(束伍軍)이 주둔하는 새로운 군사제도로 개편되었다. 그 후 인조년간(1623~1649) 초기 이괄(李适)의 난(1624)을 계기로 어영청(御營廳) · 총융청(摠戎廳) · 수어청(守禦廳) · 금위영(禁衛營) 등의 5군영(五軍營) 체제가 숙종 때까지 갖추어졌다.

27)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동대문운동장 유적 Ⅰ·Ⅲ』.

28) 중구문화원, 1998,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제3집.

29) 조선시대의 봉수제도는 태조3년(1394) 한양 천도 후 세종5년(1423) 목멱산(木覓山) 봉수가 설치됨으로서 중앙의 경봉수로 최종 집결하는 5거화제(擧火制)의 노선이 확립되었다. 전국에서 오는 봉수를 목멱산에 설치된 5개소의 경봉수에서 받는 형태로 운영된 것이다. (김주홍, 2000, 「경기지역의 봉수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쪽.)

30) 최초의 일본공사관은 고종17년(1880) 서대문 밖 경기중영(속칭 청수관)에 일본공사가 상주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설치되었다. 고종19년(1882) 임오군란에 의해 청수관이 소실되면서 남부 진고개에 있던 무장 이종승의 저택(現 충무로2가 80번지)을 임시공사관으로 사용하였다. 다음해인 고종20년(1883)에는 현재의 종로구 경운동에 있었던 박영효의 저택을 매수하여 사용하던 것이 갑신정변으로 폐허가 되었다.

정된 한국은행 본관건물은 일본 제일은행의 한국 총지점 건물로 세종대로67에 위치하고 있다. 이밖에 동양척식회사 역시 現 을지로2가 195번지에 설립되었었다. 조선의 경제침략 3대 본거지인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가 각각 남대문로와 을지로에 위치하였다. 중구는 일제침략을 위한 조선은행을 포함하여 여러 은행의 본점건물들 역시 입지하면서 금융지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중구에 금융이 집중되면서 백화점도 인접하여 건립되는데, 현재의 신세계백화점인 미쯔코시[三越] 백화점의 경성지점이 현재의 충무로1가에 있었고 미나카이[三中]백화점 역시 충무로2가 24번지에 건립되었다. 이처럼 중구 일대는 일제침략의 거점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근대적 금융지구이자 경제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지역이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 10월 1일에는 부령(府令) 제7호(1910년 10월 1일 공포)로 한성부가 경성부(京城府)로 개칭되었고, 1911년 4월 1일에는 부령 제31호로 경성부의 행정조직을 도성을 기준으로 성 안은 5부 36방으로, 성 밖은 8면으로 하는 5부 9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1914년 4월 1일에는 부령 제111호(1913년 12월 29일 공포)로 5부의 행정구역을 확장하여 8면 가운데 도성근처의 지역을 5부로 편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1914년 3월 13일 경기도고시 제7호로 경성부의 186개 동 및 정(町)의 명칭과 구역을 공포함에 따라 조선시대 이래 계속 사용되어 왔었던 고유의 방명(坊名)과 관아를 지칭하는 일본식의 동명이 새로이 생겨나게 되었다. 동년 9월 29일 경성부 조례 제8호로 동부 · 서부 · 북구 · 용산에 4개의 출장소를 설치하고 각 동을 관할하게 하였다.

1943년 6월 10일에는 구제(區制)가 실시되면서 종전 4개(용산 · 동부 · 서부 · 영등포)의 출장소를 폐지하고, 동부출장소 관내를 동대문구와 성동구로 하였다. 또한 종전의 용산 · 서부 · 영등포출장소 관할 구역을 각각 용산구 · 서대문구 · 영등포구로 하였으며 도성 내부를 남북으로 갈라 종로구와 중구를 신설하여 모두 7개의 행정구가 탄생하였다. 이때 중구는 65개 정(町)으로 구성되었다. 194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헌장을 미군정 정보부가 특별발표하고 동년 9월 18일 법령 제106호로 '서울특별시의 설치'를 발표함으로서 동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가 정식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로써 서울시는 중구 · 종로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동대문구 · 용산구 · 영등포구 8개의 구로 구획된다[31].

1945년의 해방 이후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1944년 5월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인구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인구가 988,537명이었는데 1946년 11월에는 124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였다. 1945년에는 미군정에 의해 '서울시헌장' 등이 발표되었고 1946년 9월에는 특별시로 승격하였다. 동년 10월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 동명으로 변경하면서 한성부 때부터 내려오던 유서 깊은 동명, 위인 또는 선철(先哲)들의 이름을 따 새로이 동명을 제정하였다.

1975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7816호로 동년 10월 1일부터 중구 구역이 크게 확장되어 중구의 면적은 6.34㎢에서 9.99㎢로 행정구역이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서대문구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2가, 중림동과 의주로1가, 충무로1가, 합동, 충무로3가, 만리동1 · 2가의 일부가 중구에 편입된다. 이밖에 성동구의 황학동 · 무학동 · 흥인동 · 신당동 · 상왕십리의 일부, 용산구 한남동 일부가 중구에 편입되었고 중구 동자동 · 도동1 · 2가는 용산구로 편입되었다.

---

31) 종로구, 2017, 『제32회 종로통계연보』, 25~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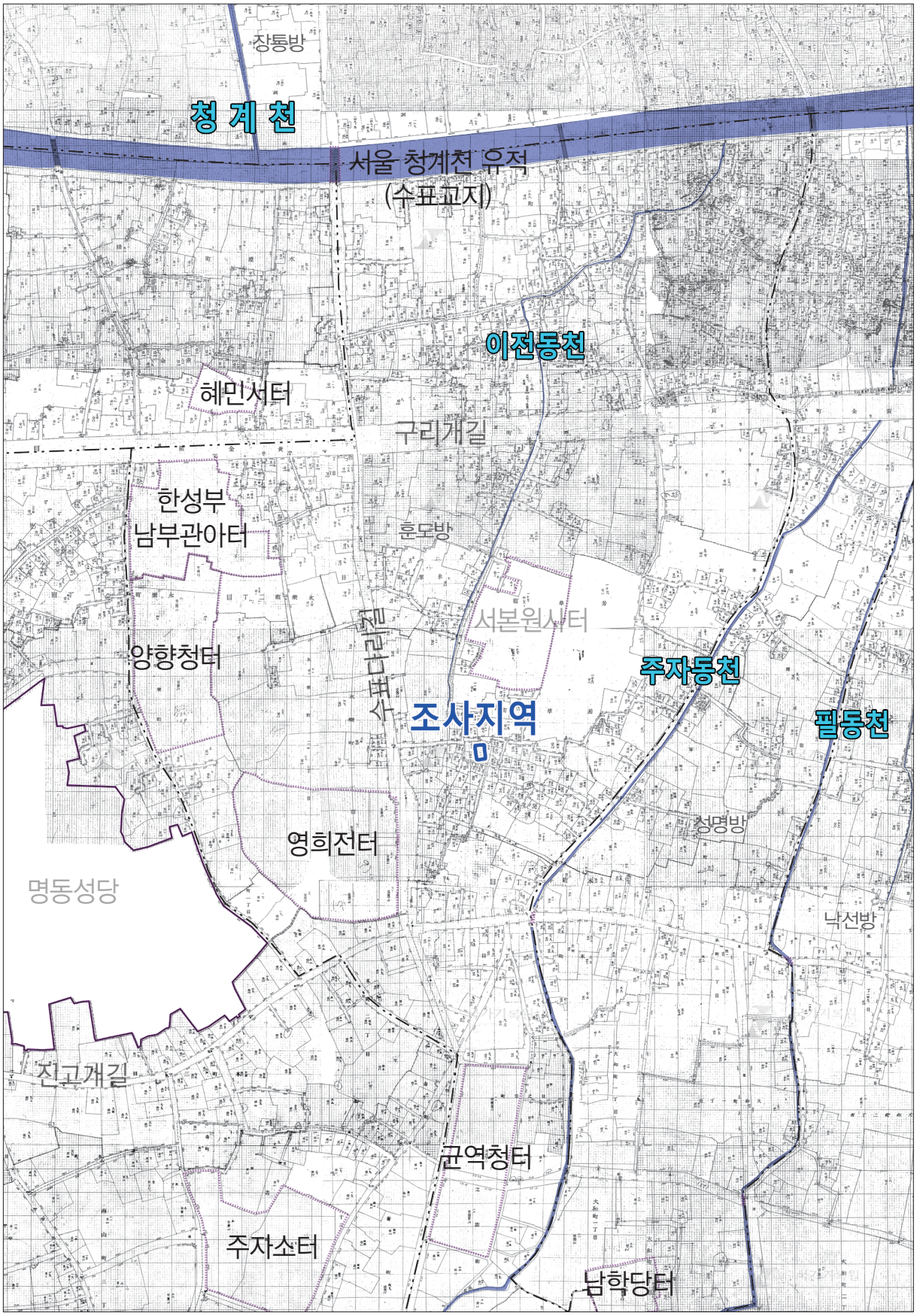
도면 6. 수선전도(19세기)



도면 7. 한양도성도(1770년)



도면 8. 조사지역 일원 한양도성의 하천



도면 9. 조사지역 일원 지적원도(1914년)



도면 10. 조사지역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1. 조사과정과 방법 및 층위

1) 조사과정과 방법

시굴조사는 기존 건물의 1층 바닥 슬라브를 제거한 뒤, 도로와 직교되는 북-남방향으로 폭 2m, 길이 6m 크기의 시굴트렌치 1기를 구획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에서 북측으로 약 10m 내외 떨어진 곳에서 실시된 '서울 중구 초동 72-10번지 일원 발굴조사'[32]에서 조선시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조사지역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유구가 잔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곳에는 탐색 Pit를 설정하고 추가 하강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층위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지표로부터 약 60cm 하부에서 근대시기로 추정되는 석렬 등이 확인되었다.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시굴트렌치 북측 일부분에 하강조사를 실시하여 지표로부터 약 100cm 하부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석렬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2017년 8월 7일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 전체 사업면적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을 신청하였고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은 2018년 11월 22일 우리연구원에 대행조사를 의뢰하였다.(조사연구1팀-2923)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11월 26 발굴조사를 착수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지표로부터 약 60~100cm 하부 내외에서 조선시대부터 근대시기까지의 건물지 관련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2018년 11월 28일, 11월 30일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의견에 따라 보완조사 및 측량, 사진촬영 등의 기록작업을 실시한 후, 현장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2) 층위

조사지역은 남쪽에 남산이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청계천과 인접해 있어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사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약 27.9~28.5m이다. 조사지역 내 유구의 유무 및 퇴적양상과 원지형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적 층위가 양호한 토벽을 기준으로 층위를 파악하였다. 층위는 10개층으로 세분되고 층의 양상을 통해 크게 표토층—근대문화층—조선시대문화층—자연층으로 구분되었다.

표토층은 기존 건물의 축조와 조성을 위한 성토층으로 주로 적갈색 사질점토와 회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고, 층위 내에서 건축폐기물과 폐비닐 등의 생활쓰레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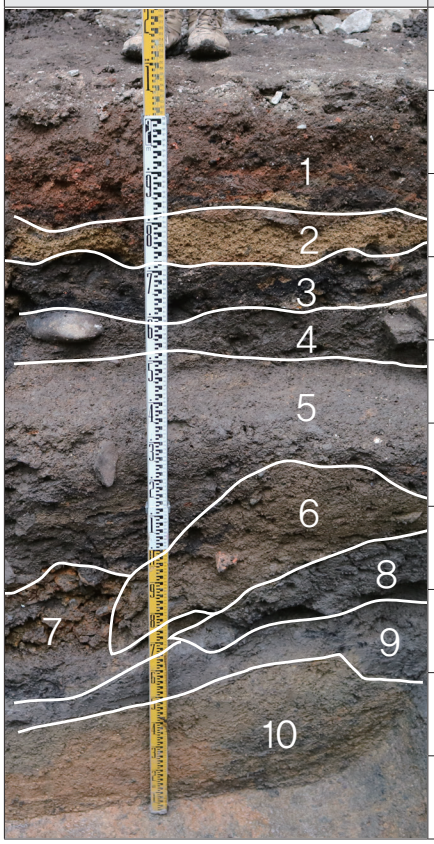
근대문화층은 표토층 바로에서 아래에서 흑갈색 사질점토와 암회색 사질점토로 형성되었고 층 내에서 석렬, 소토, 재 등이 확인되었다.

---

32)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중구 초동 72-10번지 일원 유적』.

조선시대문화층은 황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를 약 30~60cm 내외로 성토하고, 그 위에 암갈색 사질점토로 대지조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층 내에서 석렬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조선시대 백자편과 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마지막층은 자연퇴적층으로 지표로부터 약 160cm 깊이에 형성되어 있었다.

【표 4】 조사지역 동측 대표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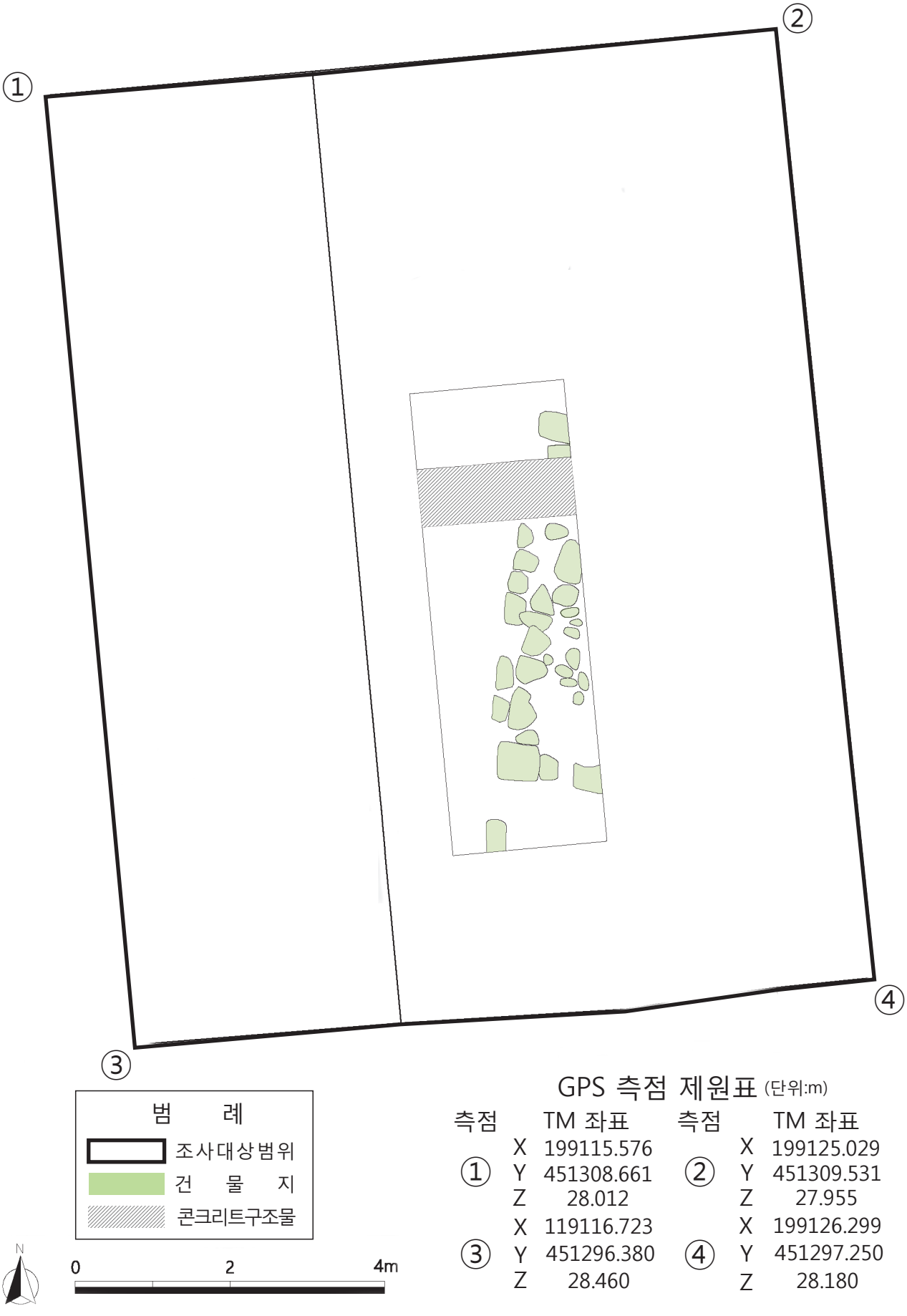
토층	내용	
	1층: 회색 사질점토, 적갈색 사질점토	표토층
	2층: 황갈색 사질토	성토층(매립 및 정지층)
	3층: 흑색 사질점토	근대시대 문화층
	4층: 암회색 사질점토	
	5층: 암갈색 사질토	조선시대 문화층 (성토 및 다짐)
	6층: 갈색 사질점토	
	7층: 황색 사질토	
	8층: 암회색 사질점토	자연퇴적층
	9층: 회색 사질점토	
	10층: 갈색 사질점토	

2. 시굴조사

가. 시굴조사(도면11, 도면12-1~4, 도판5-1~4)

조사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6-27번지 일원으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기존에 있던 건물의 벽체 등만 제거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곳이다. 시굴조사는 기존 건물의 1층 바닥 슬라브를 제거하고, 도로와 직교되는 북-남방향으로 폭 2m, 길이 6m 크기의 시굴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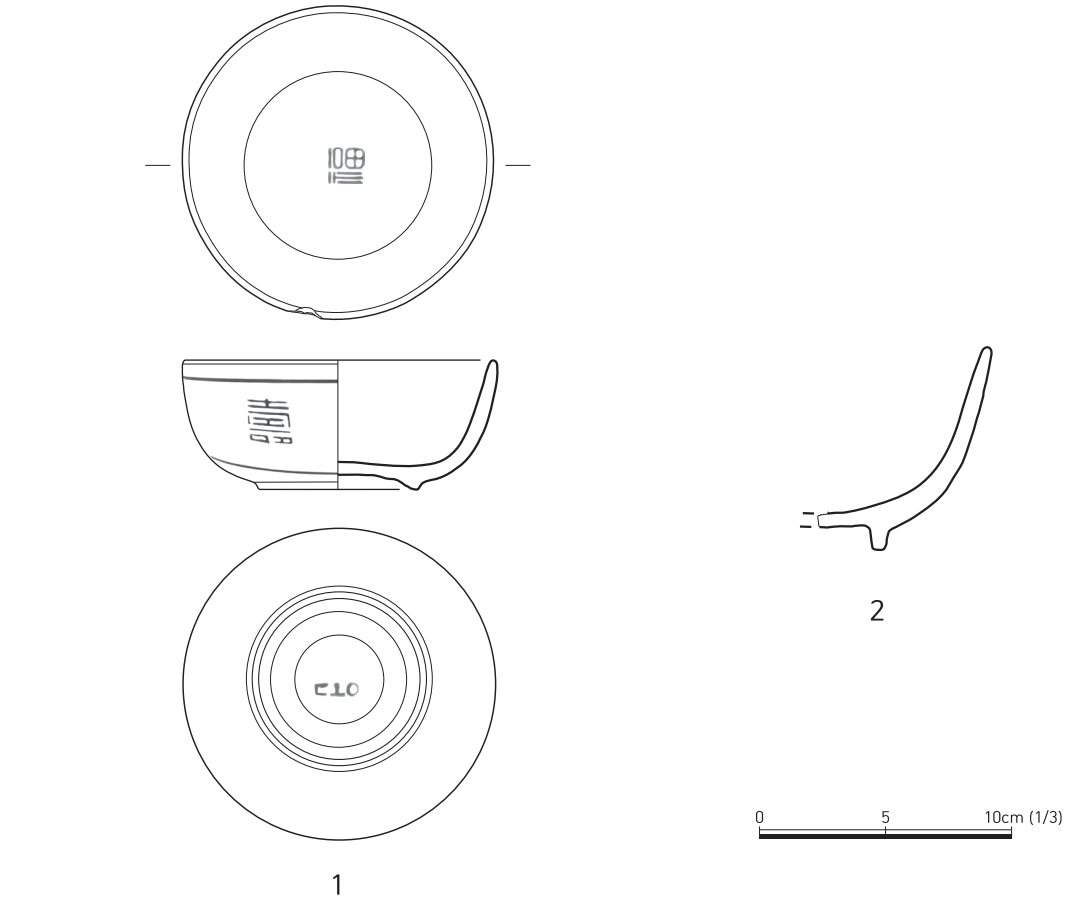
시굴조사 결과, 조사지역 내에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근대시대까지 2개 문화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대시대 문화층에서는 석렬 등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가 노출되었다.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시굴트렌치 북측 일부 구간에 탐색 Pit를 구획하여 하강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문화층이 지표로부터 약 100cm 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굴트렌치에서 수습된 유물은 외산자기, 백자편,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다.



GPS 측점 제원표 (단위:m)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199115.576	②	X	199125.029
	Y	451308.661		Y	451309.531
	Z	28.012		Z	27.955
③	X	119116.723	④	X	199126.299
	Y	451296.380		Y	451297.250
	Z	28.460		Z	28.180

도면 11. 시굴조사 트렌치현황도



도면 12. 시굴조사 출토유물 1~4

나. 유물

1. 백자 '壽福祿' 자문발편 (도면12-1, 도판 5-1)

시굴트렌치에서 출토된 백자발편으로 구연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구연부는 직립되었으며 기측선은 수직에 가깝게 내려오다 동체 하단에서 곡선을 이루며 좁아진다. 굽의 단면형태는 낮은 역사다리꼴이고 접지면에 가는모래가 받쳐져 번조된 흔적이 있다. 외면의 삼면에는 갈색 안료로 '壽, 福, 祿' 자문과 선문이 시문되었고 내저면의 중앙에는 '福' 자문이 배치되었다. 굽의 안쪽 바닥에는 'ㄷㅗㅇ' 라는 기호가 쓰였다. 태토의 색조는 백색이고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4.1㎝, 구경 12.5㎝, 저경 6.3㎝)

2. 백자발편 (도면12-2, 도판 5-2)

시굴트렌치에서 출토된 백자발편으로 굽에서 구연부까지의 일부만이 잔존한다. 구연부는 직립되었으며 기측선은 수직에 가깝게 내려오다 동체 하단에서 곡선을 이루며 좁아진다. 굽은 수직굽이고 굽 안쪽이 깊게 깎였다. 굽의 접지면에 모래가 받쳐져 번조된 흔적이 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8.0㎝)

3. 뚜껑 (도면12-3, 도판 5-3)

시굴트렌치에서 출토된 유리 뚜껑으로 완형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반형이다. 뚜껑의 상부에 'レ―トクリ―ム(레-토 쿠리-무)' 라는 글자가 가타카나(カタカナ)로 양각되었다. 색조는 백색이다.

(높이 0.8㎝, 지름 3.3㎝)

4. 암키와편 (도면12-4, 도판5-4)

시굴트렌치에서 출토된 암키와편으로 동체부의 일부만이 잔존한다. 외면과 내면에는 뚜렷한 제작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물손질되었다. 측면도 정면되었다. 태토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색조는 회흑색이다.

(잔존길이 22.7㎝, 잔존너비 14.1㎝, 두께 1.8㎝)

3.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층위와 유구를 기준으로 유구가 노출된 층까지 1차적으로 제토를 진행하였고, 조사된 유구에 대한 평면조사 및 세부조사를 통해 유구의 전체적인 영역과 형태 그리고 공간 등을 파악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지표로부터 40~100㎝ 하부에서 조선시대 후기부터 근대시기에 걸쳐 석렬, 고래, 아궁이 등 건물지 관련 유구가 조사되었다.

1) 근대시대 문화층

근대시대 문화층은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및 층위를 고려하여 먼저 상부의 표토층을 제거하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조사지역이 협소하여 토사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였고, 주변 건물과 접해있기



도면 13. 근대시대 문화층 건물지 평 · 단면도

때문에 굴착을 통해 지반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토사 적재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사를 반출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근대시대 문화층 발굴조사 결과, 조사지역에서 총 3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건물지는 대부분이 조사지역 외곽으로 진행되고 있어 건물지의 정확한 범위와 평면형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건물지는 북쪽에서 남쪽 그리고 시계방향으로 건물지1, 건물지2, 건물지3의 순서로 명명하였다.

1) 건물지1

가. 유구(도면13, 도판 7)

조사지역 북쪽, 지표로부터 약 40cm 하부에서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으로 진행되는 석렬이 확인되어 건물지1로 명명하였다. 건물지1은 기존 건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건물지의 정확한 범위와 평면형태 등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잔존하는 석렬을 통해 정면 3칸, 측면 1칸의 '一' 자형 건물의 동쪽 마지막 칸에 남쪽방향으로 반칸을 덧붙인 3.5칸 규모의 'ㄱ' 자 형태의 건물지로 추정하였다. 건물지의 주칸거리는 정면칸이 220~227cm이었고, 측면칸은 200cm 내외이며 반칸은 약 110cm 정도였다. 건물지 서쪽 마지막 칸에서는 재가 동서방향으로 진행되고, 잡석과 적벽돌을 이용하여 원형의 형태로 조성된 아궁이가 확인되어 서쪽 마지막 칸은 온돌방, 그 아래칸은 부엌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머지 2칸에서는 내부 공간을 알 수 있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궁이는 적벽돌과 8~20cm 크기의 잡석을 이용하여 지름이 약 65cm 원형으로 조성하였다. 그 밖에도 잔존하는 석렬 역시 대부분 7~25cm 크기의 잡석을 이용하여 1~2단 내외로 조성되었다.

2) 건물지2

가. 유구(도면13, 도판 8)

건물지2는 건물지1 남동쪽에서 장축이 동서방향인 2칸 규모의 '一' 자형으로 확인되었고, 주칸거리가 약 200~243cm 내외였다. 그러나 건물지 북쪽과 동쪽 끝에서 각각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으로 진행되는 석렬을 통해 건물지2의 규모는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물지가 조사지역을 벗어나 동쪽으로 진행되었고, 유구 중복과 철거 이전 건물을 조성하면서 유구가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건물지2의 정확한 범위와 평면형태는 알 수 없었다. 건물지2 북쪽 1칸 내부에서는 온돌시설인 고래와 고래둑이 확인되어 온돌방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궁이 자리로 추정되는 부분은 대부분 훼손되어 아궁이의 형태를 알 수 없었다. 고래는 줄고래로 3줄이 확인되었고, 고래둑은 10~20cm 크기의 와편을 이용하여 2열 2단으로 조성되었다. 고래둑의 폭은 약 25cm 내외였고, 길이는 140cm 정도였다. 건물지 서쪽에서는 견치석을 이용하여 1~2단 내외로 쌓아 올린 벽체부 기초석렬이 확인되었다. 벽체 기저부는 기반토인 암회색 사질점토를 굴토하고 그 위에 잡석을 이용하여 조성되었다.

나. 유물

5. 백자녹유다채학문잔편(도면14-5, 도판 9-5)

건물지2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구연부는 외반되었으며 기측선은 가파른 사선으로 내려오다 외저면에서 곡선으로 좁아진다. 굽의 단면형태는 'U' 자형이고 접지면의 유약이 닦여

번조된 흔적이 있다. 외면에는 녹색, 흑색, 분홍색의 안료로 학과 파도가 시문되었으며 굽의 안쪽 바닥에는 흑색의 안료로 기호가 표기되었다. 태토의 색조는 백색이며 외면에는 녹유, 내면과 굽의 안쪽에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4.1㎝, 구경 6.0㎝, 저경 2.9㎝)

6. 백자접시편(도면14-6, 도판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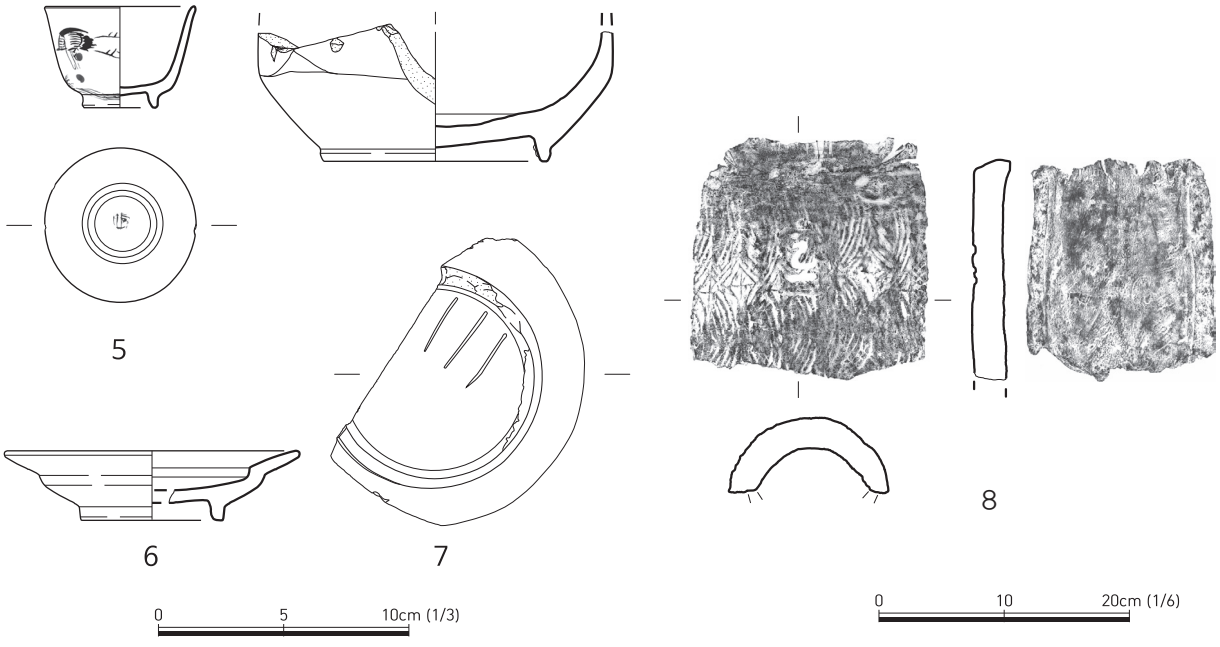
건물지2에서 출토되었다. 굽에서 구연부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구연부는 사선으로 뻗어 전을 이루고 동체 중앙에서 꺾이며 좁아진다. 기종은 잔의 받침으로 추정된다. 굽은 수직굽이고 굽의 안 바닥이 깊게 깎인 형태이다. 굽 주변에 모래가 받쳐져 번조된 흔적이 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2.8㎝, 복원구경 11.8㎝, 복원저경 5.6㎝)

7. 백자다각저부편(도면14-7, 도판 9-7)

건물지2의 고래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와 저부의 일부만이 잔존한다. 남아있는 기측선은 동체 하단에서 꺾이며 좁아진다. 기종은 병으로 추정된다. 동체 중앙은 모깎이되어 다각면을 이룬다. 굽은 수직굽이고 굽의 안 바닥이 깊게 깎인 형태이다. 접지면에 모래가 받쳐져 번조된 흔적이 있으며 안쪽 바닥에는 '三'자가 음각되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잔존높이 5.2㎝, 저경 9.0㎝)



도면 14. 건물지2 출토유물 5~8

8. 수키와편(도면14-8, 도판 9-8)

건물지2의 고래둑 축조에 사용되었던 기와이다. 동체부의 절반 가량이 잔존한다. 외면에는 중호문(重

弧紋)과 능형문(菱形紋)이 타날되었고 그 위로에 '乙一' 자가 세로로 압인되었다. 내면에는 포목흔, 점토접합흔, 사절흔이 있고 측면에는 약 1/3~1/4 정도의 범위에 그은 와도흔이 있다. 태토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색조는 회흑색이다.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흡착되어 있다.

(잔존길이 17.6㎝, 너비 12.8㎝, 두께 2.1㎝)

2) 건물지3

가. 유구(도면13, 도판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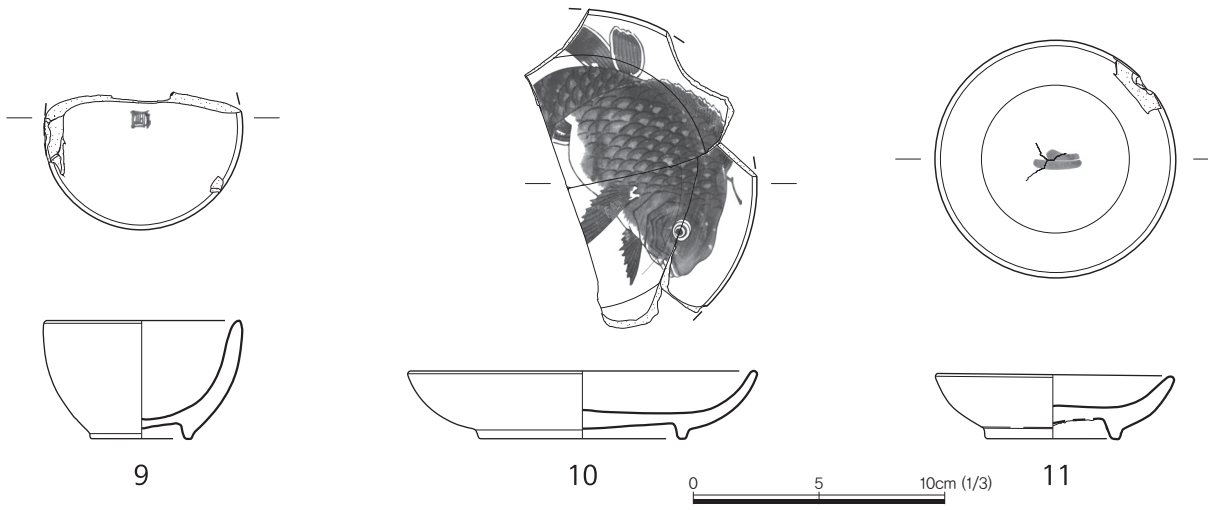
건물지3은 조사지역 남쪽에서 확인되었다. 건물지3에서 검은 재가 남북방향으로 일부 잔존하고 있어 온돌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건물지3 역시 유구의 중복 등으로 인해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건물지의 규모와 평면형태를 알 수 없었다. 그밖에 잔존하는 유구로는 초석 1기와 동서방향으로 진행하는 석렬이 있다. 초석은 기반토를 굴토하고 29×35cm 크기의 비교적 거칠게 다듬어진 석재를 올리고 10cm 크기의 잡석을 고임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석렬은 조성방식으로 보아 기단으로 추정된다. 기단석렬은 바닥에 잡석을 깔고, 그 위에 19~39cm 크기의 석재를 편평한 면이 북쪽을 향하게 1단 1열로 조성하였다. 석렬의 잔존길이는 483cm이고 폭은 약 25cm 정도였다.

나. 유물

9. 백자청화 '壽' 자문잔편(도면15-9, 도판11-9)

건물지3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절반 가량이 잔존한다. 구연부는 직립되었으며 기측선은 가파른 곡선으로 좁아진다. 외저면과 굽의 경계가 깎였다. 굽의 단면형태는 역사다리꼴이고 안쪽 바닥이 깊게 들어가 있다. 굽의 접지면에 모래가 받쳐져 번조된 흔적이 있다. 내저면의 중앙에 청화 안료로 도안화되 '壽' 자가 시문되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4.7㎝, 구경 7.9㎝, 저경 4.0㎝)



도면 15. 건물지3 출토유물 9~11

10. 백자다채어문접시편(도면15-10, 도판 11-10)

건물지3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절반 이상이 결실되었다. 구연부는 직립되었으며 기측선은 완만한 곡선으로 좁아진다. 굽의 단면형태는 역사다리꼴이고 접지면은 갈아내었다. 구순부는 갈색 안료로 채색되었으며 내면에는 녹색, 청색의 안료를 이용한 전사(轉寫)기법으로 어문(魚紋)이 시문되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고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2.7㎝, 복원구경 13.9㎝, 저경 8.3㎝)

11. 백자청화문접시편(도면15-11, 도판 11-11)

건물지3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구연부는 직립되었으며 기측선은 완만한 곡선으로 좁아진다. 외저면과 굽의 경계가 깎였다. 굽의 단면형태는 역사다리꼴이고 굽의 안쪽 바닥이 깊게 들어가 있다. 접지면과 굽의 안쪽에 흙물과 모래가 받쳐져 번조된 흔적이 있다. 내저면의 중앙에는 청화 안료로 간략한 문양이 시문되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2.6㎝, 구경 9.5㎝, 저경 5.3㎝)

12. 백자청화국화 '壽' 자문뚜껑편(도면16-12, 도판 11-12)

건물지3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일부만이 잔존한다. 남아있는 기측선은 완만한 곡선으로 벌어져 주연부에 이른다. 뚜껑의 아래쪽에 유약이 닦여 번조된 흔적이 있다. 뚜껑의 윗면에는 청화 안료로 국화절지문과 '壽' 글자가 시문되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잔존높이 3.0㎝, 복원주연지름 11.4㎝)

13. 백자저부편(도면16-13, 도판12-13)

건물지3의 배연시설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와 저부의 일부만이 잔존한다. 남아있는 기측선은 완만한 사선으로 좁아진다. 굽은 죽절굽이고 접지면과 내저원각의 안쪽에 태토빚음이 받쳐져 포개구이된 흔적이 있다. 굽의 주변은 시유되지 않았고 굽의 안쪽 바닥에 '전○'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묵서(墨書)되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고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잔존높이 2.8㎝, 복원저경 4.9㎝)

14. 수키와편(도면16-14, 도판12-14)

건물지3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외면에는 해수파문과 종속문이 타날되었고 부분적으로 물손질되었다. 내면에는 포목흔, 연철흔, 물손질흔이 있고 하단부의 약 2.5㎝ 구간은 단부조정되었다. 측면에는 약 1/4 정도 범위의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있다. 태토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색조는 회색이다.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흡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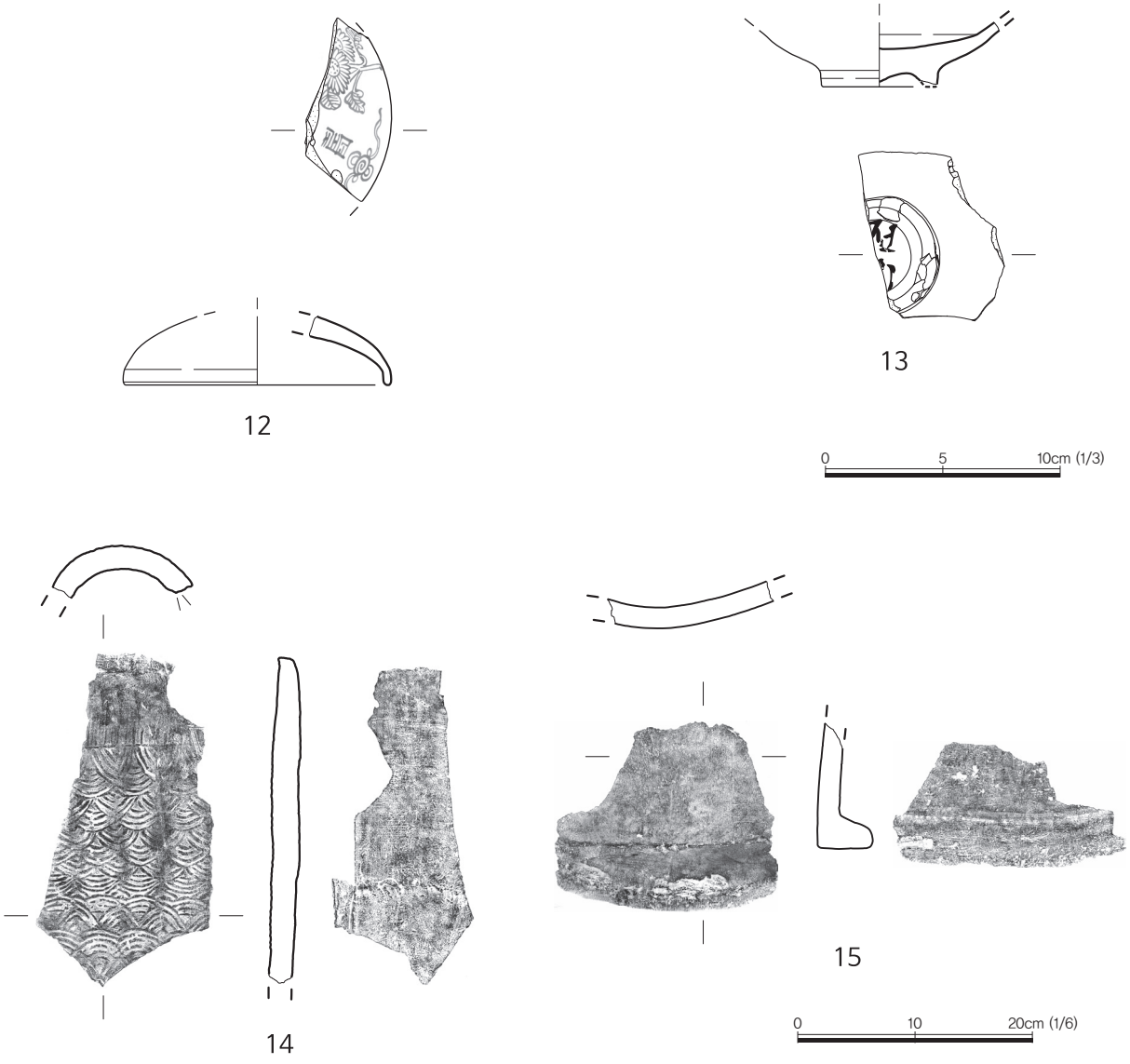
(잔존길이 27.8㎝, 잔존너비 11.9㎝, 두께 2.1㎝)

15. 암막새편(도면16-15, 도판12-15)

건물지3의 구들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일부만이 잔존한다. 막새부는 '~'형태로 막새부와 기와

부의 내외면에 모두 물손질 정면되었다. 태토의 색조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색조는 회색이다.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흡착되어 있다.

(잔존길이 14.2㎝, 잔존너비 10.7㎝, 두께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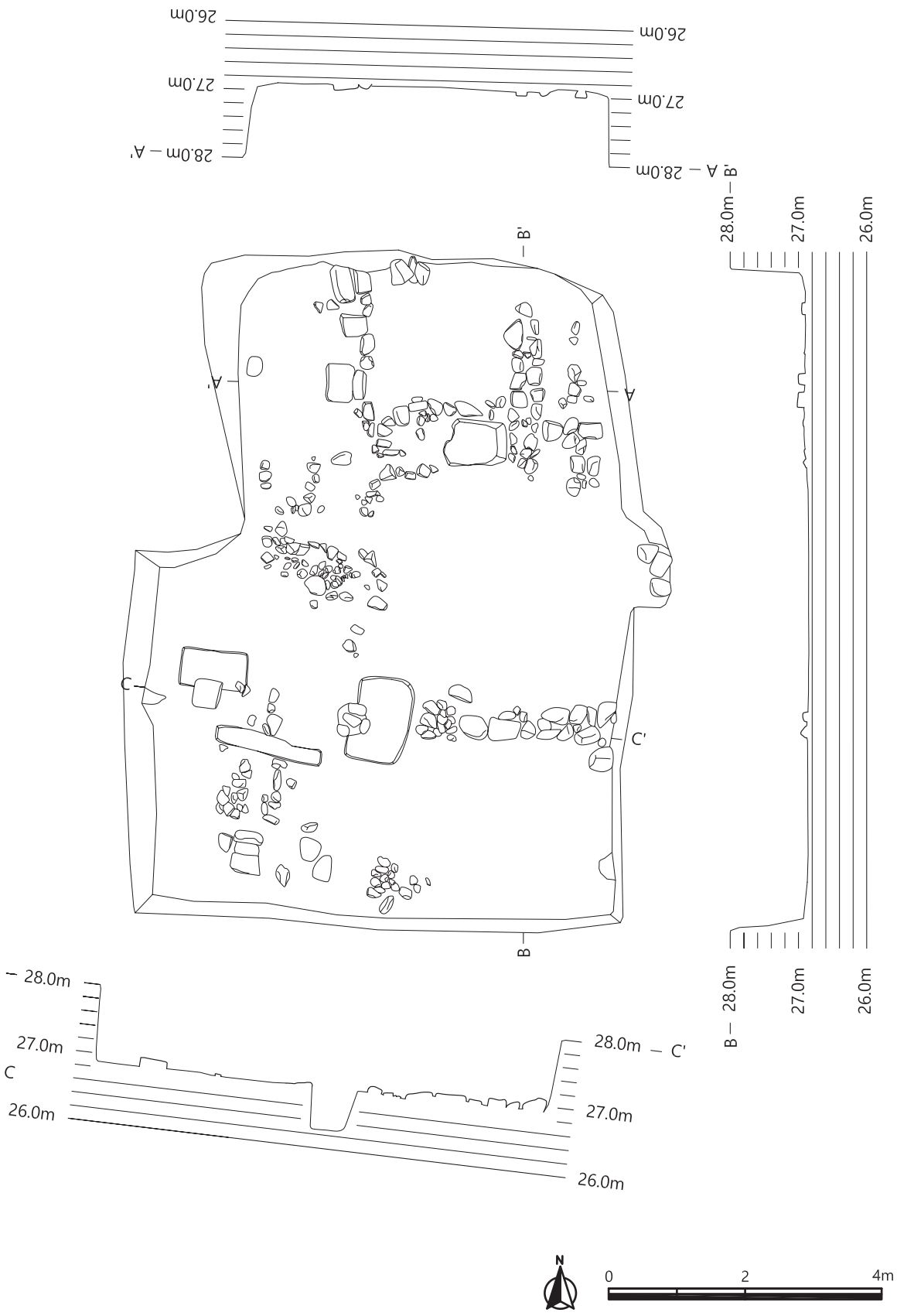


도면 16. 건물지3 출토유물 12~15

2) 조선시대 문화층

조선시대 문화층은 근대시대 문화층으로부터 약 20~60cm 하부에서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문화층 역시 유구의 중복 등으로 인해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유구의 밀도가 낮은 상태였다. 확인된 유구는 세부조사를 통해 유구의 성격과 조성 방법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문화층 발굴조사 결과, 총 2기의 건물지와 미상유구가 조사되었다. 건물지는 근대시대 건물지와 건물지4, 건물지5의 순서로 명명하였다.



도면 17. 조선시대 문화층 건물지 평 · 단면도

1) 건물지4

가. 유구(도면17, 도판13)

조사지역 북쪽, 지표로부터 약 120cm 하부에서 건물지4가 확인되었다. 건물지4는 유구의 중복으로 인해 잔존상태가 불량한 상태였고 북쪽으로 조사지역을 벗어나 정확한 범위와 평면형태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잔존하는 석렬과 아궁이를 통해 건물지4의 평면형태를 장축방향이 남북방향인 2칸 규모의 '—' 자형으로 추정하였다. 건물지의 잔존거리는 320cm 내외이다.

건물지 내부에서는 아궁이가 확인되어 북쪽칸이 온돌방, 남쪽칸은 부엌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엌칸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바닥면에 전반적으로 황갈색 사질토가 얇게 깔려 있었다. 아궁이는 양쪽에 18~24cm 크기 내외의 잡석을 봇돌로 세우고 가운데에는 28.5cm 크기 정도의 수키와를 이맛돌로 사용하여 'ㄲ' 자 형태로 조성하였다. 아궁이 내폭은 약 00cm이고 길이는 320cm 정도였다. 아궁이 동쪽으로 고맥이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되었다. 석렬의 진행은 남북방향으로 00cm 내외의 잡석과 암회색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1단으로 조성되었다. 고맥이 석렬 중 일부가 초석으로 추정되어 건물지를 개보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밖에도 고맥이로부터 동쪽으로 약 220cm 떨어진 곳에서 석렬이 확인되었다. 석렬은 7~24cm 크기의 잡석을 이용하여 2~3단, 2열로 조성되어 있었다. 축조방식으로 보아 고맥이나 벽체 기저부로 추정되었다. 석렬의 진행방향은 남북방향이고, 잔존길이는 00cm, 폭은 약 41cm 정도였다.

나. 유물

16. 백자청화산수문접시편(도면18-16, 도판14-16)

건물지4의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굽의 일부가 결실되었고 기형이 일그러졌다. 구연부는 직립되었으며 기측선은 완만한 곡선으로 좁아진다. 굽의 단면형태는 역사다리꼴이고 접지면은 갈아내었다. 구순부는 갈색 안료로 채색되었다. 내면에는 청화 안료를 이용한 전사(轉寫)기법으로 산수문(山水紋)과 장식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3.0㎝, 구경 14.3㎝, 저경 8.1㎝)

17. 백자다채송죽화조문합신(도면18-17, 도판14-17)

건물지4의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다층합(多層盒)으로 추정된다. 구순부는 평평하게 정면되었고 구연부는 직립되었다. 기측선은 구연부 아래로 단이 져 직립되어 내려온다. 굽의 단면형태는 낮은 역사다리꼴이고 굽의 바깥쪽에 흙물이 발려 번조된 흔적이 있다. 외면에는 청화와 녹색 유상채 안료를 이용하여 송죽문(松竹紋), 화조문(花鳥紋), 장식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의 색조는 백색이며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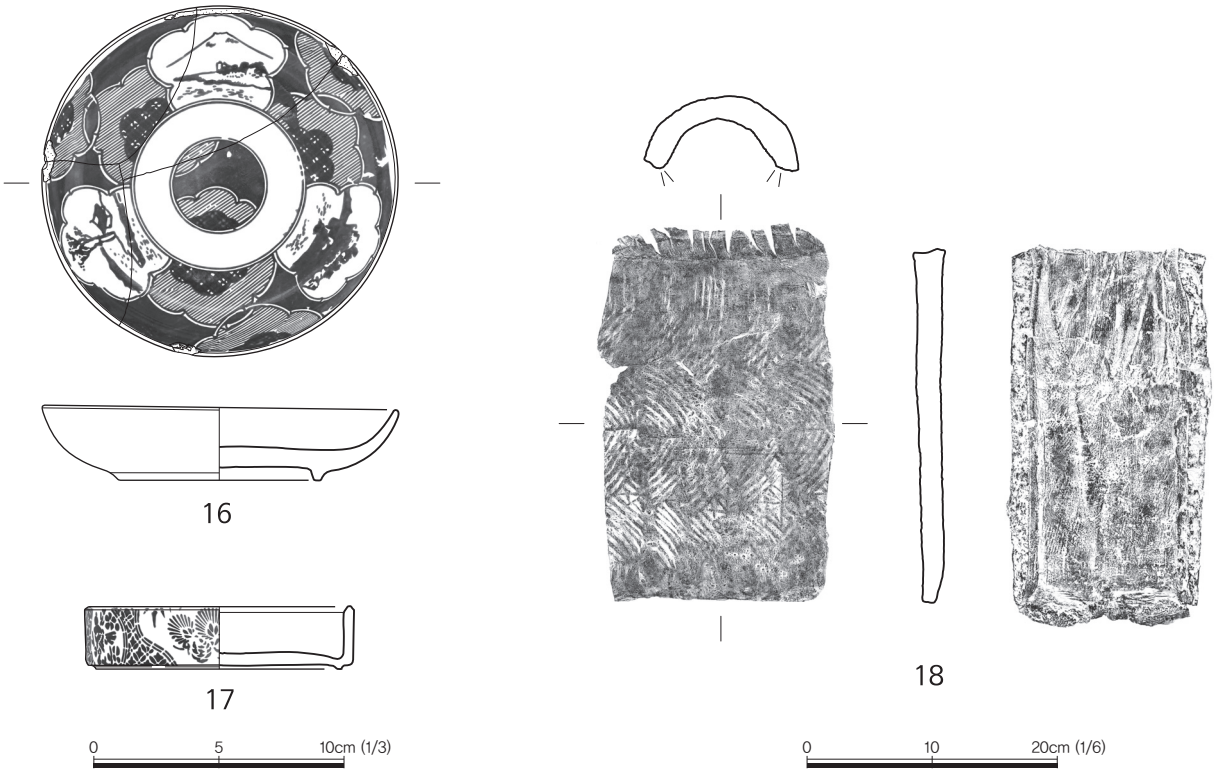
(높이 2.5㎝, 구경 10.8㎝, 저경 10.7㎝)

18. 수키와편(도면18-18, 도판14-18)

건물지4의 아궁이 축조에 사용되었던 기와이다. 동체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외면에는 중호문(重弧紋)이 장판의 타날판으로 다섯 번에 나누어 타날되었다. 부분적으로 물손질되었고 하단부에는 사방향

의 도구조정흔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 점토접합흔, 사절흔, 물손질흔, 분할계선이 있으며 하단부의 약 2.5㎝ 구간은 단부조정되었다. 측면에는 약 1/3 정도 범위의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있다 태토는 모래와 석립이 섞인 점토로 색조는 회색이다. 외면에 부분적으로 잡물이 붙어 있다.

(길이 28.2㎝, 너비 12.3㎝, 두께 1.8㎝)



도면 18. 건물지4 출토유물 16~18

2) 건물지5

가. 유구(도면17, 도판15)

건물지5는 조사지역 남동쪽에서 확인되었고, 북쪽으로 건물지4가 위치하고 있다. 건물지5에서는 고맥이와 적심석 3기만이 잔존하였고, 동쪽으로 조사지역을 벗어나 진행되었기 때문에 건물지의 규모와 평면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조사결과, 건물지5는 1칸 규모의 건물지에 서쪽으로 반칸 덧되어, 총 1.5칸 규모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건물지 내부시설을 알 수 있는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의 잔존거리는 약 380cm이었다. 적심석은 기반토를 굴토한 후 암갈색 사질점토와 4~15cm 크기의 잡석과 기와편 채워넣는 방식이었고, 지름은 약 60cm 내외였다. 고맥이는 약 15cm 이내의 잡석을 이용하여 2단 1열로 조성되었고 진행방향은 동서방향이다. 고맥이의 잔존길이와 잔존폭은 약 200cm, 25cm 정도였다.

나. 유물

19. 백자청화문발편(도면19-19, 도판1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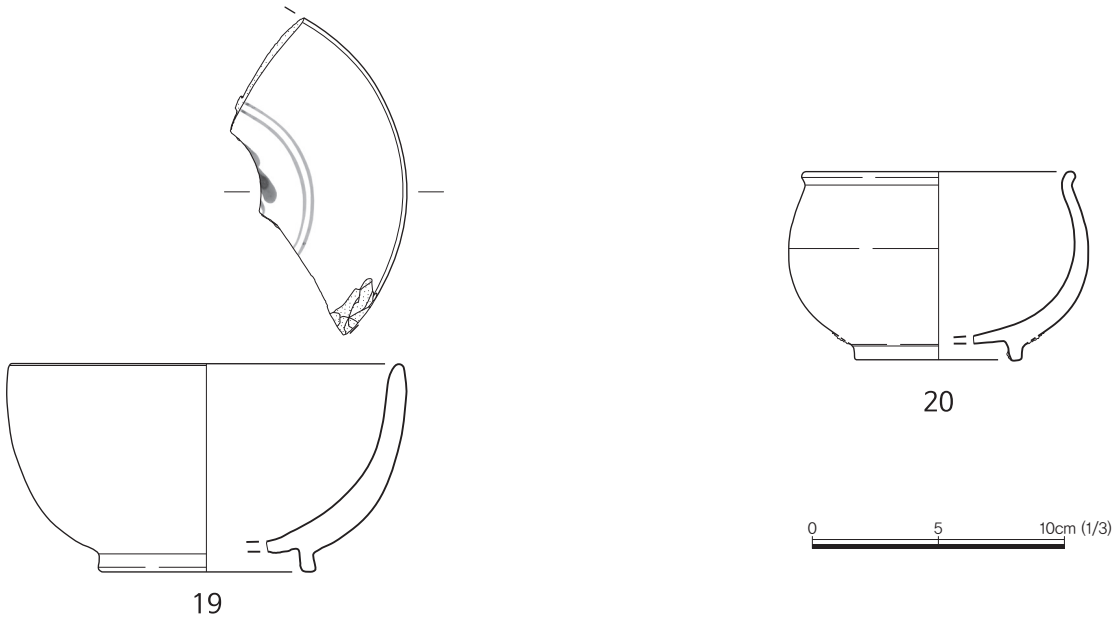
건물지5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일부만이 잔존한다. 구연부는 직립되었으며 기측선은 가파른 곡선으로 좁아진다. 외저면과 굽의 경계가 깎였다. 굽은 수직굽이고 안쪽 바닥이 깊이 들어갔다. 굽의 접지면에 모래가 받쳐져 번조된 흔적이 있다. 내저면과 굽의 측면에 청화 안료로 문양이 시문되었으나 결실되어 명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8.3㎝, 복원구경 15.6㎝, 복원저경 8.6㎝)

20. 백자발편(도면19-20, 도판16-20)

건물지5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일부만이 잔존한다. 구연부는 외반되었으며 기측선은 둥근 형태를 이루며 좁아진다. 외저면과 굽의 경계가 깎였다. 굽은 수직굽이고 안쪽 바닥이 깊이 들어갔다. 굽의 접지면과 주변에 굵은모래가 받쳐져 번조된 흔적이 있다. 태토의 색조는 백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7.5㎝, 복원구경 10.8㎝, 복원저경 6.6㎝)



도면 19. 건물지5 출토유물 19~20

21. 백자대발편(도면20-21, 도판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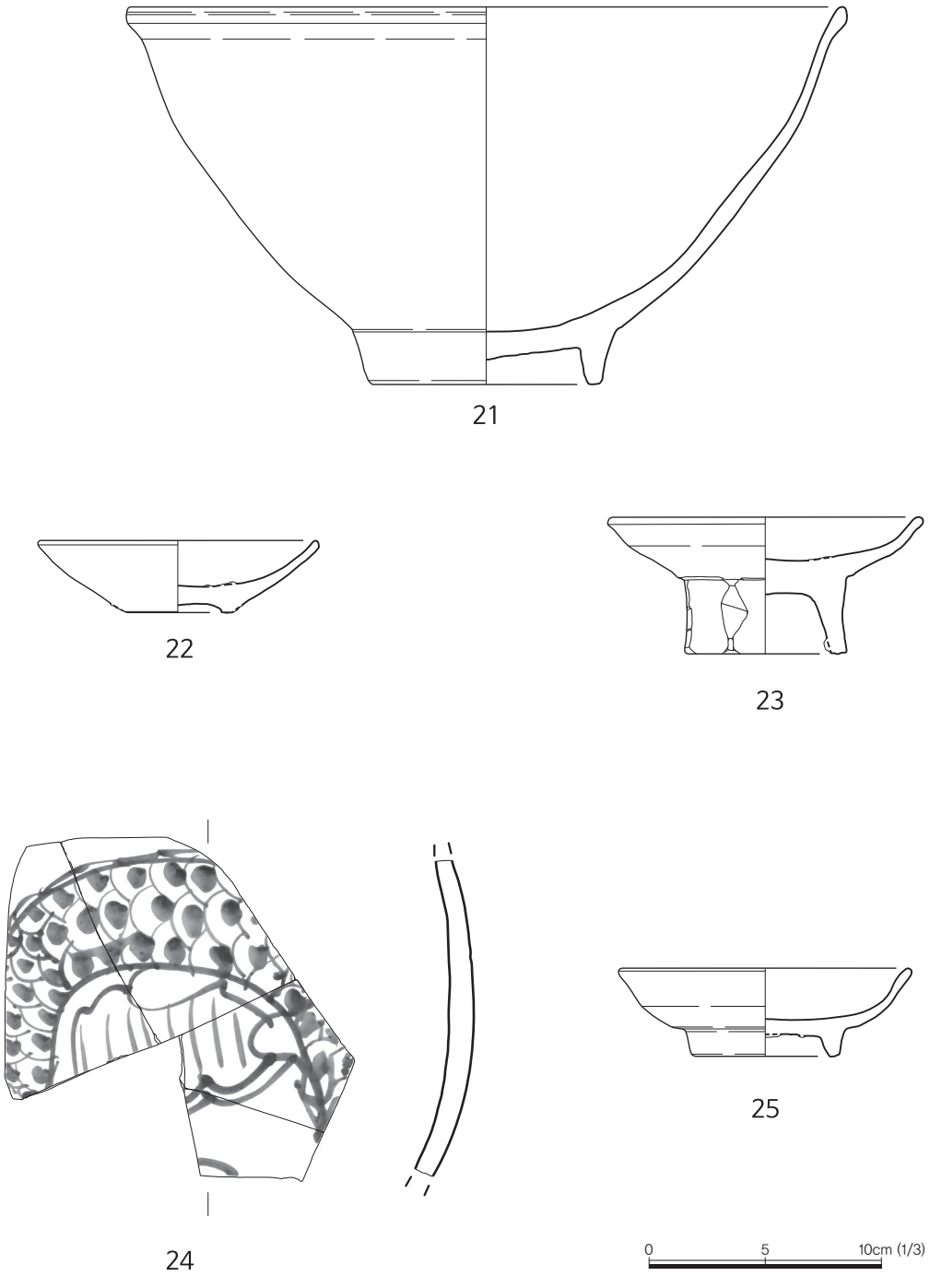
건물지5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구연부는 외반되었으며 기측선은 가파른 사선으로 좁아진다. 외저면과 굽의 경계가 깎였다. 굽의 단면형태는 역사다리꼴이고 접지면에 흙물과 모래가 받쳐져 번조된 흔적이 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부분적으로 빙렬(氷裂)이 있다.

(높이 16.3㎝, 복원구경 31.0㎝, 저경 9.9㎝)

22. 백자접시편(도면20-22, 도판16-22)

건물지5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절반 이상이 잔존한다. 구연부는 직립되었으며 기측선은 완만한 사선으로 좁아진다. 굽은 오목굽이고 접지면에 흙물과 굵은모래가, 내저면에는 굵은모래가 받쳐져 포개구이된 흔적이 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3.1㎝, 복원구경 12.1㎝, 저경 4.7㎝)



도면 20. 건물지5 출토유물 21~25

23. 백자고족접시편(도면20-23, 도판17-23)

건물지5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구연부는 외반되었으며 기측선은 완만한 사선으로 내려오다 외측면에서 꺾여 좁아진다. 굽의 단면형태는 높은 역사다리꼴이고 측면은 팔각으로 성형되었다. 굽의 접지면에 굵은모래가 섞인 태토빚음이, 내저면에는 굵은모래가 받쳐져 포개구이된 흔적이 있다. 태토의 색조는 회백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5.9㎝, 복원 13.6㎝, 저경 7.0㎝)

24. 백자철화용문동체부편(도면20-24, 도판17-24)

건물지5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일부만이 잔존한다. 외면에는 철화 안료로 용문(龍紋)이 시문되었고 내외면에 물레흔이 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잔존길이 13.4㎝)

25. 백자접시편(도면20-25, 도판17-25)

건물지5의 하부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구연부는 외반되었으며 기측선은 완만한 곡선으로 좁아진다. 외저면과 굽의 경계가 깎였다. 굽의 단면형태는 역사다리꼴이고 접지면과 굽의 안쪽 바닥에 굵은모래와 석립이 받쳐져 번조된 흔적이 있다. 태토의 색조는 백회색이며 청색을 띠는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높이 3.8㎝, 복원구경 12.6㎝, 저경 6.4㎝)

2) 미상유구

가. 유구(도면17, 도판18)

건물지5 서쪽에서 미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미상유구 바닥면에서 타나 남은 목재와 재가 일부 확인되어 온돌과 관련된 시설로 사용되다가 후에 다른 용도를 위해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상유구는 추정 고래둑 남쪽 끝에서 비교적 거칠게 다듬어진 석재를 이용하여 28×78cm 크기의 방형으로 조성 후 내부에 명갈색 사질토를 채워 넣고 그 위에 25~42cm 크기의 석재를 덮은 형태이다. 그밖에도 미상유구 인접한 곳에서 고래와 고래둑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추정 고래둑은 15cm 이내의 잡석을 이용하여 남북방향으로 1단 1열로 조성되었고, 잔존길이는 약 170cm 정도였다.

Ⅳ. 조사성과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저동2가 46-27번지 일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부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6-27번지이며 면적은 118.3㎡이다. 조사지역의 층위는 조사지역의 남동쪽 외곽벽을 기준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4개 층위로 구분되었고, 상부부터 지표층(Ⅰ층) → 근대시대 문화층(Ⅱ층) → 조선시대 문화층(Ⅲ층) → 자연퇴적층(Ⅳ층)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2개 문화층에서 근대 건물지 3기, 조선후기 건물지 3기, 미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조선후기 백자를 비롯하여 외산자기 등 25점이 출토되었다.

2. 근대 문화층에서는 총 3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물지 3기 모두 철거 이전 건물을 조성하면서 많은 부분 훼손되었고 조사지역을 벗어나 계속 진행되고 있어 명확한 범위와 평면형태를 알 수 없었다.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조사된 건물지2는 2칸 규모의 '—' 자형으로 내부시설에서 온돌시설인 고래둑과 고래가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외산자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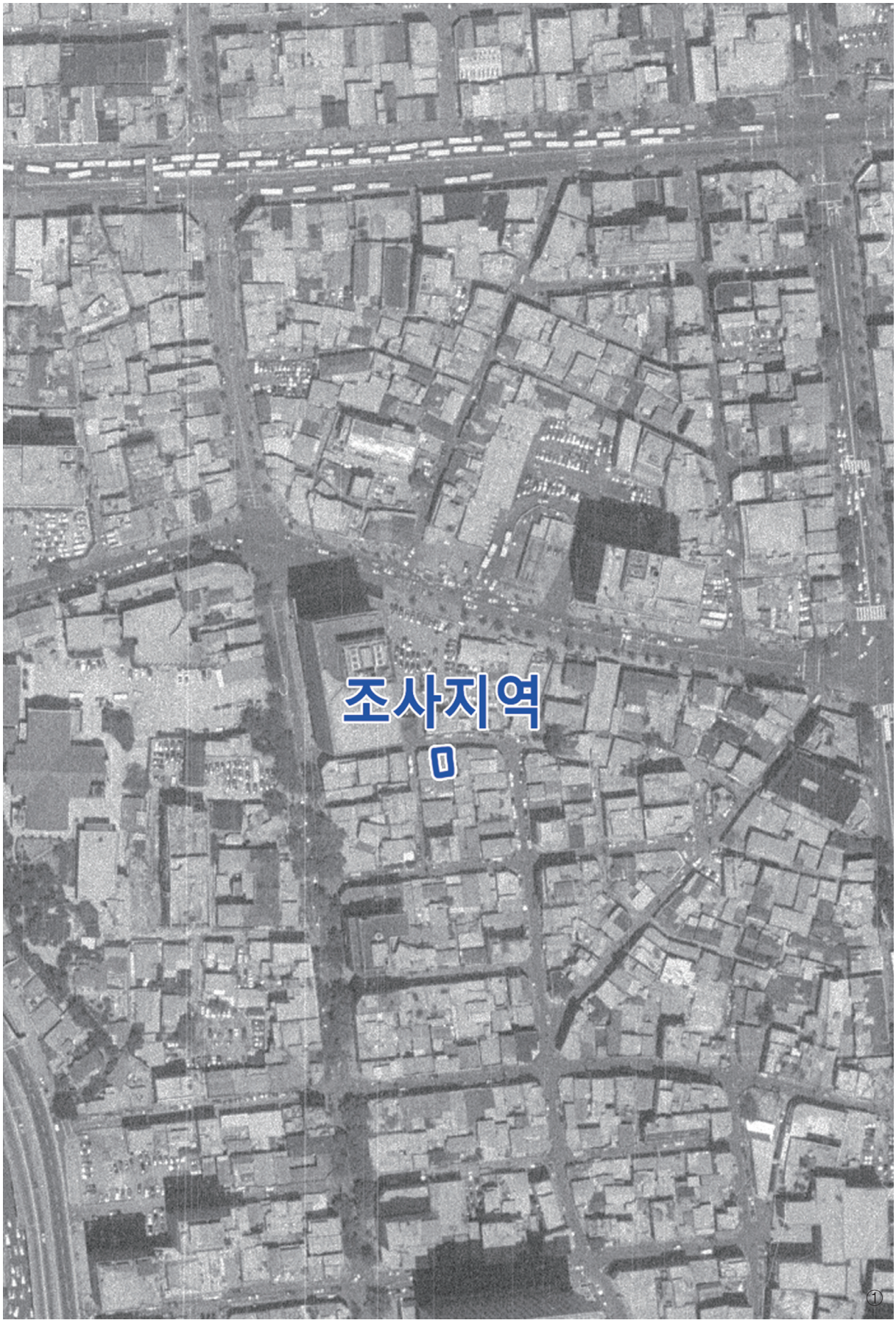
3. 조선시대 문화층에서는 건물지 2기와 미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건물지도 유구의 중복 으로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건물지의 명확한 범위와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출토된 유물로는 조선시대 후기로 편년되는 흑물과 모래받침으로 번조된 자기편을 비롯하여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표 5】 서울 저동2가 46-27번지 유적 발굴조사 유구 현황

구 분	유구성격	특 징	소 계	합 계
근대	건물지1	ㄱ자 형태, 3.5칸 규모, 아궁이	1	6
	건물지2	—자 형태, 2칸 규모, 온돌시설	1	
	건물지3	고래둑 고래 일부	1	
조선후기	건물지4	—자 형태, 2칸 규모, 아궁이	1	
	건물지5	—자 형태, 1.5칸 규모, 고맥이	1	
	미상유구	방형	1	

셋째, 조사지역에서 조사된 건물지는 중복과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분 훼손되어 잔존상태가 불명확하고, 조사지역 외곽으로 벗어나고 있어 전체적인 범위와 평명형태 등을 파악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조사된 유구들은 인접 조사자료들과 함께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교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판



도판 1. 조사지역 일원 항공사진(1981년)



도판 2. 조사지역 일원 위성사진



도판 3. 조사지역 전경(①북-남, ②남동-북서)



도판 4. 시굴조사(①트렌치 전경, ②유구 전경, ③석렬 상세, ④탐색피트 조선시대 후기 석렬 전경)



도판 5. 시굴조사 출토유물①~④(유물번호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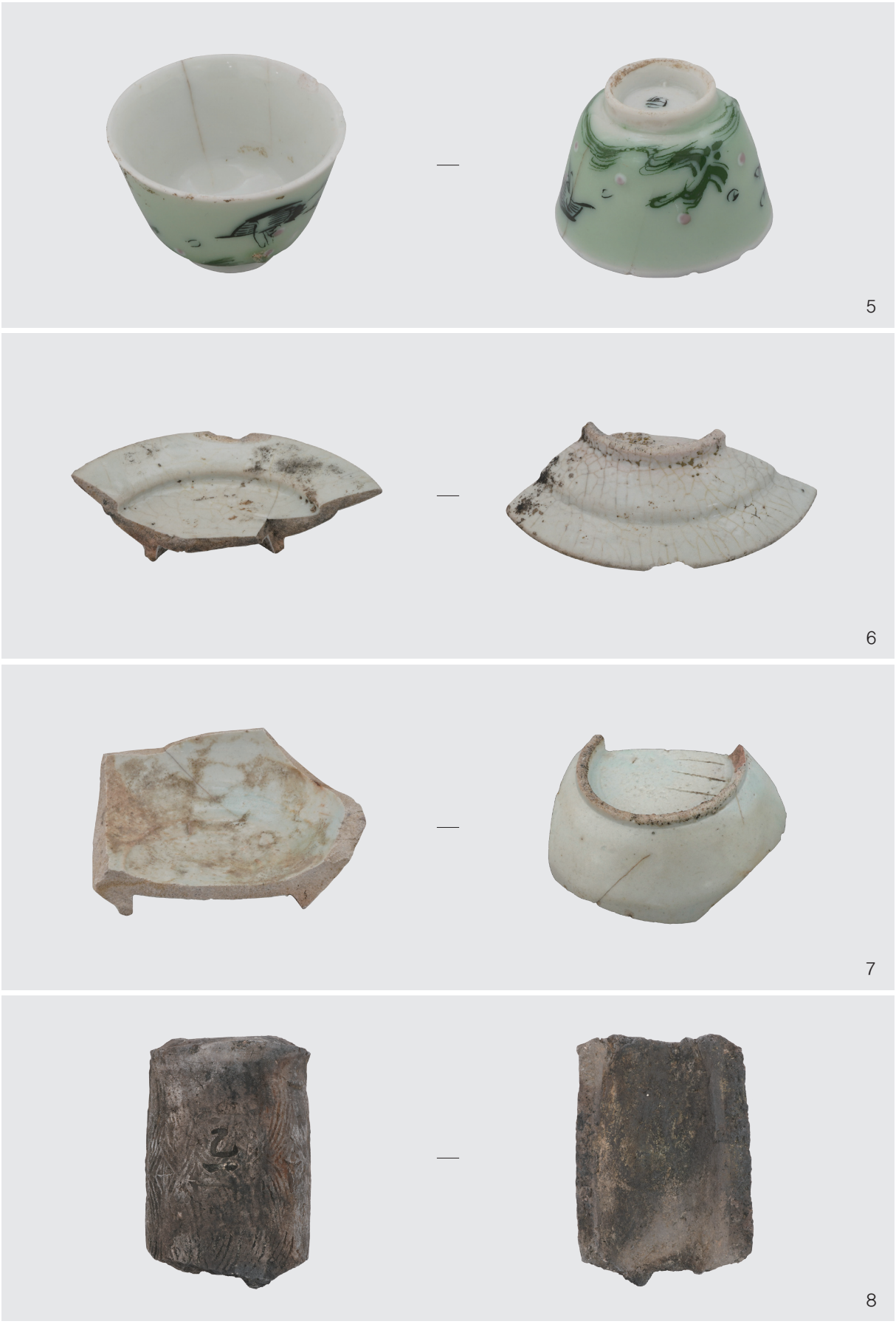
도판 6. 발굴조사 근대시대 문화층 전경(①남동–북서, ②북동–남서)



도판 7. 건물지1(①항공사진, ②고맥이 전경, ③고맥이 상세, ④아궁이 전경, ⑤고래 전경)



도판 8. 건물지2(①전경, ②~③온돌시설(고래, 고래둑), ④~⑤벽체 기저부 전경 및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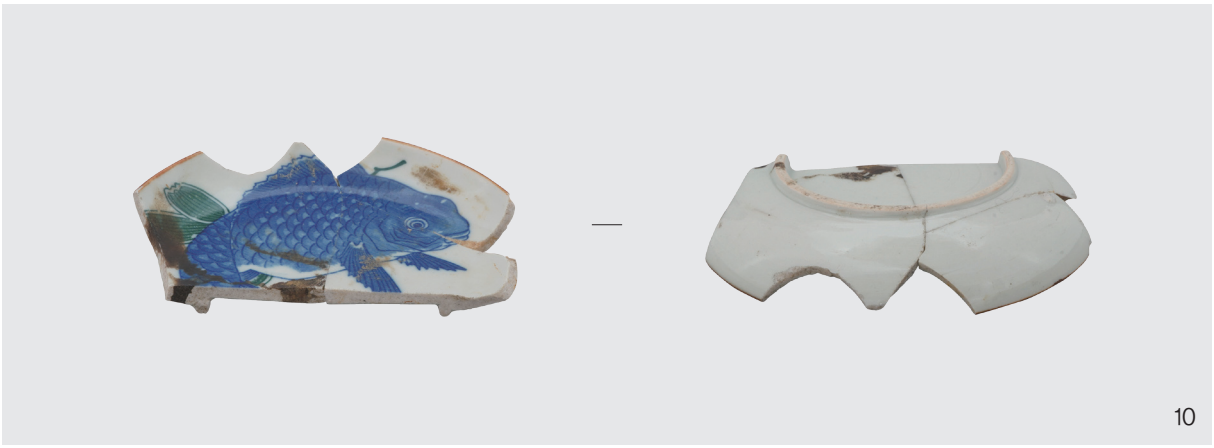


도판 9. 건물지2 출토유물①~④(유물번호5~8)



도판10. 건물지3(①항공사진, ②온돌시설 전경 ③초석 전경 ④초석 상세, ⑤기단석렬 전경)









도판11. 건물지3 출토유물①~④(유물번호9~12)







도판12. 건물지3 출토유물①~③(유물번호13~15)



도판13. 건물지4(①항공사진, ②고맥이 전경, ③부엌칸 전경, ④아궁이 전경, ⑤아궁이 상세)



16



17



18

도판14. 건물지4 출토유물①~③(유물번호16~18)



도판15. 건물지5(①항공사진, ②~③고맥이 전경, ④고맥이 상세, ⑤적심석 전경)









도판16. 건물지5 출토유물①~④(유물번호19~22)







도판17. 건물지5 출토유물①~③(유물번호23~25)



도판18. 미상유구 및 온돌시설(①미상유구 및 온돌시설 전경, ②~④미상유구 전경 및 상세, ⑤고맥이 전경)

부 록

1. 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서울 중구 저동2가 46-27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유적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6-27번지 일원		
조사 면적		조사 기관	수도문물연구원
조사 기간		회의 일시	
유적 현황 및 성격	◦ 본 사업지역이 서울시의 "4대문안 문화유적 보호방안"에 따라 시굴조사 대상지역에 해당되어 시굴조사를 실시함.		
조사기관 의견 검토	◦ 시굴조사 결과, 지표하 60㎝에서 근대기 초석과 장석렬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조사지역 북쪽에 탐색 pit를 설치하여 하강한 결과 조선시대 석렬등 문화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따라서 조사지역 전체에 대한 정밀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성격과 하층 문화층의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추가 의견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서울시립대	신 희로		(인)
세종대	하-문식		(인)

2017년 월 일

2.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서울 중구 저동2가(46-27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유적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6-27번지 일원			
조사 면적	118.3㎡	조사 기관	수도문물연구원	
조사 기간	2018.11.22.~2017.11.28. (실조사일수 5일)		회의 일시	2018.11.28
유적 현황 및 성격	◦ 발굴조사 결과 상층에서부터 근대이후의 건물지 2, 건물지 1과 조선시대 후기~근대기로 추정되는 건물지 3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조사기관 의견 검토	◦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을 남기후 건물지 2와 건물지 4에 대한 하강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 3의 전모 및 유구의 추가 잔존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기타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추가 의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지역 전체에 대한 성격을 확인한 후 보존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서울시립대	사회로 (인)	세종문	하문식 (인)	
	(인)		(인)	
2018년 11월 28일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서울 중구 저동2가(46-27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유적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6-27번지 일원		
조사 면적	118.3㎡	조사 기관	수도문물연구원
조사 기간	2018.11.22. ~ 2018.11.28. (실조사일수 5일)	회의 일시	2018.11.30.
유적 현황 및 성격	◦ 건물지 3기에 대한 하강조사 결과, 건물지 2와 건물지 1의 하부에서 조선시대 후기로 추정되는 건물지 구획 석렬과 아궁이 시설을 갖춘 건물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건물지 3의 구들시설 하부에서는 용도가 불명확한 석렬 유구 1기가 발견되었다.		
조사기관 의견 검토	◦ 잔존 상태가 불량하고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유구가 밀집돼 있어 유구의 명확한 성격과 범위를 확정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나, 조선시대 후기부터 중소규모의 민가가 밀집 조성된 곳으로 볼 수 있겠다.		
추가 의견	◦ 현 상태에 대한 기록 보호후 관련 절차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세종문	김나로식 [illegible]	서울시립대	신 희권 (인)
	(인)		(인)

2018년 11월 30일

3.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첨부 1]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허가번호	제2017-0996호
유 적 명	서울 중구 저동2가(46-27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조사기관	재단법인 수도문물연구원
출토유물	25건 25점 2박스
회의일시	2019년 1월 31일
평 가 의 견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	전량 귀속
학술 문화재 (비수록)	없음
매몰자료 (비수록)	없음

평 가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명지대	조용이 (서명)	중앙대	최태신 (서명)
박수문화재연구원	서봉수 (서명)		(서명)

4. 설계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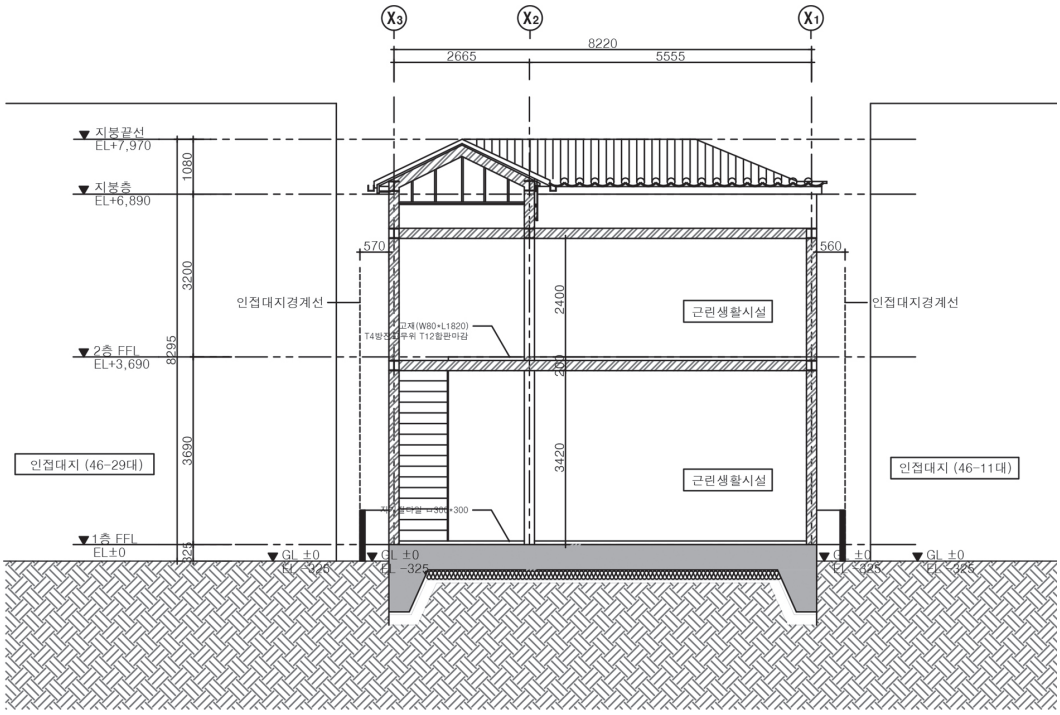
설 계 개 요

전체 개요

건 물 명	저동 2가 4627 근린생활시설
대지 위치	중구 저동2가 46-27외 1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지 면적	118.3 m^2 (36평)
건축면적	69.62 m^2
연 면 적	133.01 m^2
용적율 산정용 연 면 적	133.01 m^2
건 폐 율	58.85 % (법정 60%이하)
용 적 률	112.43% (법정 600이하%)
규 모	지상2층
최고높이	7.97 m
구 조	철골구조
주 차	0대(주차없음)
	법정 제1종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133.01 / 134 = 0.99 → 0대
일일오수발생량	4.646㎥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35 ℓ /㎡
	133.01 X 35 X 0.001 = 4.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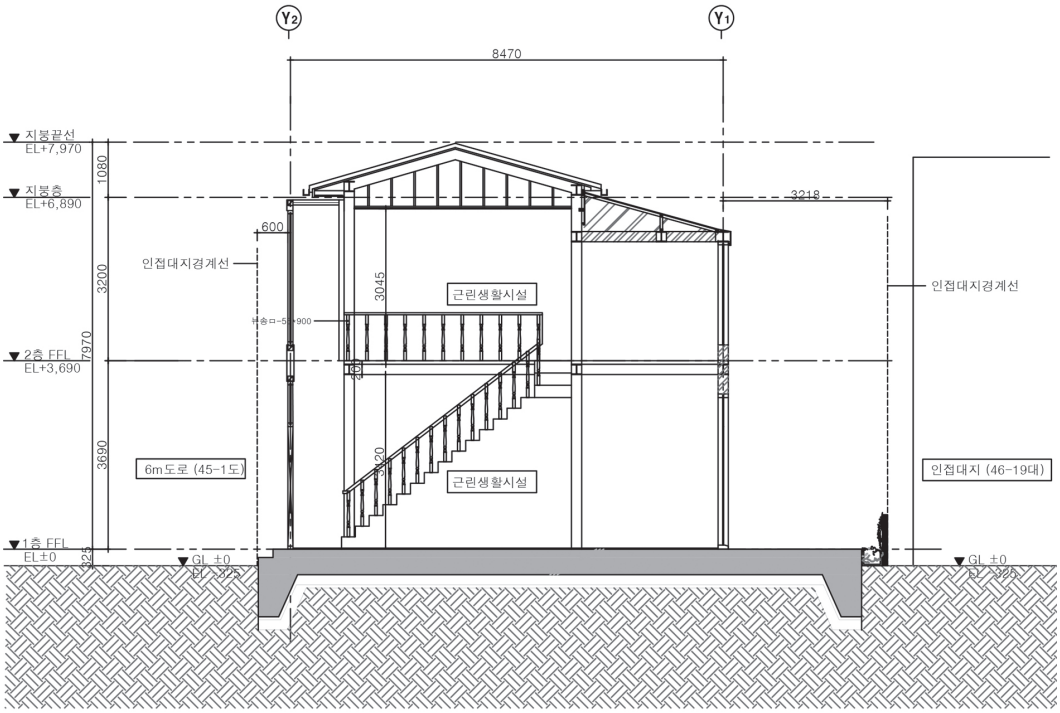
층별면적개요

구 분	용 도	면 적	비 고
지상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69.62㎡(21.09평)	
지상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63.39㎡(19.21평)	
합 계		133.01㎡(40.30평)	



대 지 종 단 면 도

축 척 : 1/120



대 지 횡 단 면 도

축 척 : 1/120

서울 저동2가 46-27번지 외 1필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0996-0001	백자녹채 '壽福祿' 자문발편	1	시굴트렌치	토도	근대	5.1	12.5	6.3	도면12-1 도판5-1
2017-0996-0002	백자발편	1	시굴트렌치	토도	조선	8.4	-	-	도면12-2 도판5-2
2017-0996-0003	뚜껑편	1	시굴트렌치	옥석 유리	근대	0.9	-	3.3	도면12-3 도판5-3
2017-0996-0004	암키와편	1	시굴트렌치	토도	조선	잔존 (22.5)	잔존 (10.5)	(1.7)	도면12-4 도판5-4
2017-0996-0005	백자다채학문잔편	1	건물지2	토도	근대	4.1	6.0	2.8	도면14-5 도판9-5
2017-0996-0006	백자접시편	1	건물지2	토도	조선	2.6	-	-	도면14-6 도판9-6
2017-0996-0007	백자다각저부편	1	건물지2	토도	조선	잔존 5.3	-	8.9	도면14-7 도판9-7
2017-0996-0008	수키와편	1	건물지2	토도	근대	잔존 (18.9)	(12.8)	(2.4)	도면14-8 도판9-8
2017-0996-0009	백자청화 '壽' 자문잔편	1	건물지3	토도	조선	4.6	7.7	3.8	도면15-9 도판11-9
2017-0996-0010	백자다채어문접시편	1	건물지3	토도	근대	2.5	-	8.2	도면15-10 도판11-10
2017-0996-0011	백자청화문접시편	1	건물지3	토도	조선	2.5	9.5	5.4	도면15-11 도판11-11
2017-0996-0012	백자청화국화 '壽' 자문뚜껑편	1	건물지3	토도	조선	잔존 2.1	-	-	도면16-12 도판11-12
2017-0996-0013	백자저부편	1	건물지3	토도	조선	잔존 2.8	-	-	도면16-13 도판12-13
2017-0996-0014	수키와편	1	건물지3	토도	조선	잔존 (27.7)	잔존 (11.7)	(2.0)	도면16-14 도판12-14
2017-0996-0015	암막새편	1	건물지3	토도	근대	잔존 (11.1)	잔존 (20.0)	(1.9)	도면16-15 도판12-15
2017-0996-0016	백자청화산수문 접시편	1	건물지4	토도	근대	2.9	14.3	8.0	도면18-16 도판14-16
2017-0996-0017	백자다채송죽화조문합신	1	건물지4	토도	근대	2.6	10.8	9.9	도면18-17 도판14-17
2017-0996-0018	수키와편	1	건물지4	토도	조선	(28.5)	(12.2)	(1.8)	도면18-18 도판14-18
2017-0996-0019	백자청화문발편	1	건물지5	토도	조선	7.5	-	-	도면19-19 도판16-19

2017–0996–0020	백자발편	1	건물지5	토도	조선	7.2	–	–	도면19–20 도판16–20
2017–0996–0021	백자대발편	1	건물지5	토도	조선	15.6	–	10.2	도면20–21 도판16–21
2017–0996–0022	백자접시편	1	건물지5	토도	조선	3.2	–	4.0	도면20–22 도판16–22
2017–0996–0023	백자고족접시편	1	건물지5	토도	조선	5.9	–	7.3	도면20–23 도판17–23
2017–0996–0024	백자철화용문동체부편	1	건물지5	토도	조선	잔존 (14.2)	–	–	도면20–24 도판17–24
2017–0996–0025	백자접시편	1	건물지5	토도	조선	3.8	–	6.3	도면20–25 도판17–25
	소계	25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서울 저동2가 46-27번지 외 1필지 유적		發行日	2020年 11月 27日
發刊機關	명 칭	재단법인 수도문물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17 3층		
	전 화	02-304-6512	팩 스	02-6954-6512
執筆·編輯者	오경택, 권순진, 김정효, 이경현, 주정우, 송민하, 정현아, 한초롱, 양현모			
調査緣由	구제발굴(건물 신축)			
發掘調査者	오경택, 권순진, 양현모, 한초롱, 김정효, 정현아			
遺蹟所在地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6-27번지 일원			
調査面積	118.3㎡			
調査期間	시굴조사 : 2017년 8월 5일 ~ 2017년 8월 7일(실조사일수 2일) 발굴조사 : 2018년 11월 26일 ~ 2018년 11월 30일(실조사일수 5일)			

遺蹟種類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건물지	근대	3기	백자다채학문잔편	-
건물지	조선	2기	백자철화용문동체부편	-
미상유구	조선	1기		

113. 공주 교동 52-2번지 외 2필지 유적

고운문화재연구원

〈일 러 두 기〉

1. 본 보고서는 '공주 교동(52-2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허가 제2018-1408호)' 의 발굴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이다.
2. 발굴조사는 국비지원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되었다.
3. 조사대상지역은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52-2번지 외 2필지이며, 발굴조사 대상면적은 180㎡ 이다.
4. 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이며, 발굴조사는 2018년 11월 19일에 착수하여 11월 30일에 완료하였다.
5. 본문의 지형도는 국립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에서 발행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였고, 이를 도판에 맞추어 편집하였다.
6. 본문의 고지도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에서 발췌하였다.
7. 도면의 방위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단면에 표시된 수치는 해발고도이다.
8. (재)고운문화재연구원은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본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목 차

Ⅰ. 조사개요 ……113 -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13 - 8

Ⅲ. 조사내용 …… 113-22
1) 적심유구 …… 113-23
(1) 적심유구 1호 …… 113-24
(2) 적심유구 2호…… 113-26
(3) 적심유구 3호…… 113-28
2) 구상유구 …… 113-31
3) 수혈유구 …… 113-33

Ⅳ. 조사성과 …… 113-49

도 면 목 차

도면 1. 공주시 행정구역도 …… 113 – 8
도면 2. 조사지역 및 주변 ①분포지형도 · ②퇴적양식도 · ③토양모재도 …… 113 – 9
도면 3. 조사지역 및 주변 수계도 …… 113 – 9
도면 4. 조사지역 및 주변 지질도 …… 113–11
도면 5.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13–17
도면 6.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13–19
도면 7.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13–21
도면 8. 발굴조사지역 유구배치도 …… 113–23
도면 9. 적심유구 1호 및 출토유물 …… 113–25
도면 10. 적심유구 2호 및 출토유물 …… 113–27
도면 11. 적심유구 3호 …… 113–28
도면 12. 적심유구 3호 출토유물1 …… 113–29
도면 13. 적심유구 3호 출토유물2 …… 113–30
도면 14. 구상유구 1호 및 출토유물 …… 113–32
도면 15. 수혈유구 1호, 2호, 3호 …… 113–34
도면 16.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 …… 113–35
도면 17.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1 …… 113–37
도면 18.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2 …… 113–38
도면 19. 수혈유구 4호~10호 …… 113–39
도면 20.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 …… 113–41
도면 21. 수혈유구 8호 출토유물 …… 113–41
도면 22. 수혈유구 11~21호 …… 113–43
도면 23. 수혈유구 14호 출토유물 …… 113–44
도면 24. 지표수습유물1 …… 113–47
도면 25. 지표수습유물2 …… 113–48

도 판 목 차

도판 1. 발굴조사대상지(①조사전, ②조사후) …… 113-53
도판 2. 적심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토층, 1~4:출토유물), 적심유구 2호(④조사전, ⑤조사후) …… 113-54
도판 3. 적심유구 2호(①토층, 5~7:출토유물), 3호(②조사전, ③조사중, ④조사후, ⑤토층, 8~11:출토유물1) …… 113-55
도판 4. 적심유구 3호(12~15:출토유물2), 구상유구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1, ③토층, ④조사중2) …… 113-56
도판 5. 구상유구 3호(①유물출토상태, ②조사후, 16~18:출토유물), 수혈유구 1호(③조사전, ④조사중, ⑤토층, ⑥조사후) …… 113-57
도판 6. 수혈유구 1호(19~23:출토유물),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 113-58
도판 7. 수혈유구 2호(24~32:출토유물),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4호(④조사전, ⑤조사중, ⑥조사후) …… 113-59
도판 8. 수혈유구 5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6호(④조사중, ⑤조사후, ⑥토층), 7호(⑦조사중, ⑧조사후, ⑨토층, 33:수습유물), 8호(⑩조사중, ⑪조사후, ⑫토층, 34:수습유물), 9 · 10호(⑬조사중, ⑭조사후, ⑮9호 토층, ⑯10호 토층) …… 113-60
도판 9. 수혈유구 11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④12 · 13호 조사전, ⑤12호 조사후, ⑥13호 조사후, 14호(⑦조사중, ⑧조사후, 35:수습유물),15호(⑨조사중, ⑩조사후, ⑪토층), 16호(⑫조사중, ⑬조사후, ⑭토층), 17호(⑮조사중, ⑯조사후, ⑰토층) … 113-61
도판 10. 수혈유구 18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19 · 20 · 21호(④조사중, ⑤조사후, ⑥19호 토층,⑦21호 토층), 문화층 수습유물(38~41) …… 113-62
도판 11. 1차 학술자문회의(①~②), 2차 학술자문회의(③~④) …… 113-63

Ⅰ. 조사개요

본 조사대상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52-2번지 일원으로 사업시행자인 이종갑氏의 단독주택 신축 예정부지(404.6㎡ 中 발굴조사지역 180㎡)이다. 본 발굴조사 대상지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렌치 내부에서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문화층과 그 위로 조선시대 문화층이 확인된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이전에 추가적인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

공주시의 조치를 통보받은 민원인은 공사 이전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2018년 08월 공주시를 경유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이에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국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민원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에 대행조사를 위탁하였다[2].

본 유적에 대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11월 12일 실조사일수 10일로 허가(제2018-1408호)를 받았다[3]. 현장조사는 11월 19일에 착수하여 11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실조사일수는 10일(현장원상복구포함)이 소요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적심유구 3기와 구상유구 1기, 수혈유구 21기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토기편 26점, 기와편 12점, 방추차 1점, 백자편 2점 등 모두 41점이 확인되었다.

○ 발굴조사 당시 조사단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김경범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장)
책임조사원:김경범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장)
조　사　원:최선애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 1팀장)
준 조 사 원:이정님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이다은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보고서의 작성은 최선애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내용은 최선애, 조사성과는 오운형(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이 작성하였다. 실측 및 도면 · 도판편집은 이정님 · 이다은 · 김남덕(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 연구원)이, 유물정리 및 복원은 석유란(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원)이 분담하였다. 유물실측 및 도면 교정, 도면 · 도판 편집은 최선애 · 김남덕이 담당하였다. 유물사진은 오운형이 촬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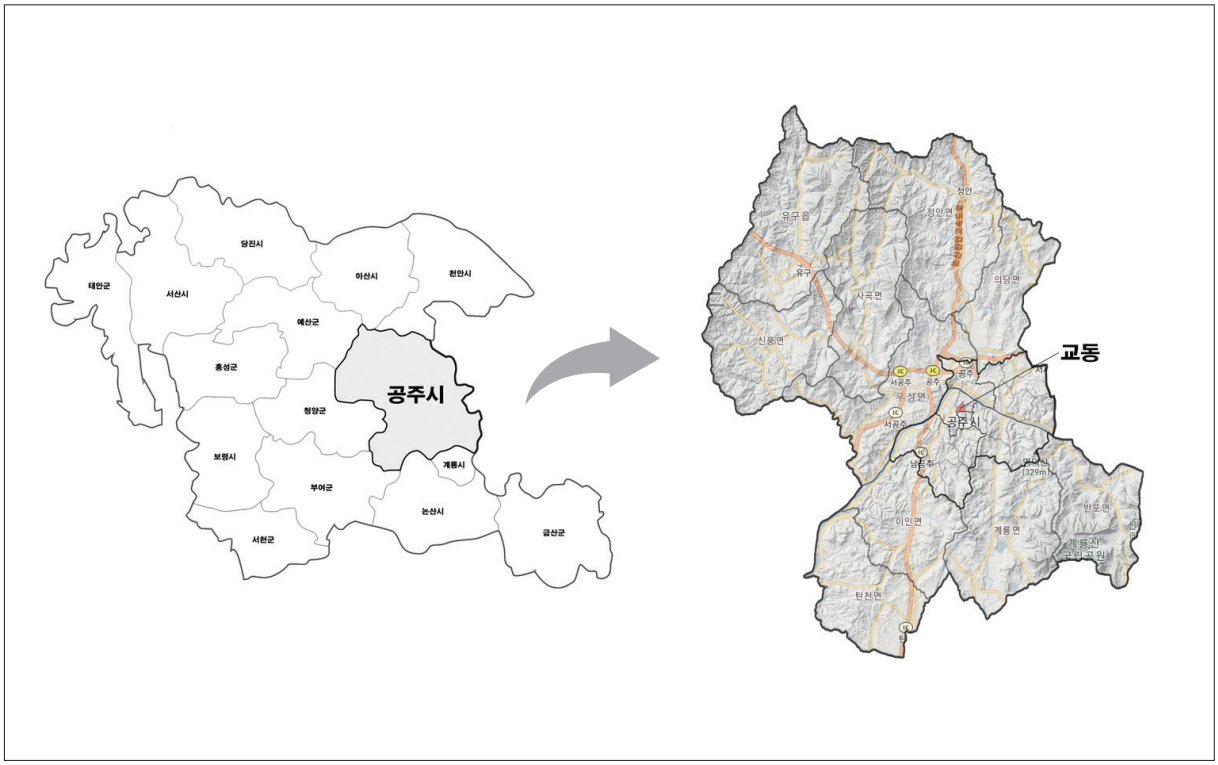
보고서의 교정 및 교열은 오운형이 하였고, 최종적으로 김경범이 감수하였다.

더불어 원활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애써주신 한국문화재재단 관계자와 사업시행자 이종갑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

1) 비전문화유산연구원, 2018. 8, 『공주 교동 53-6번지 일원 단독주택부지 문화재 입회조사 보고서』.
2) 한국문화재재단 조사연구1팀-2644호(2018.10.26.; 공주시 교동 52-2번지 외 3필지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대한 대행조사 의뢰).
3)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3158호[2018.11.12.; 공주 교동(52-2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발굴허가(제2018-1408호)].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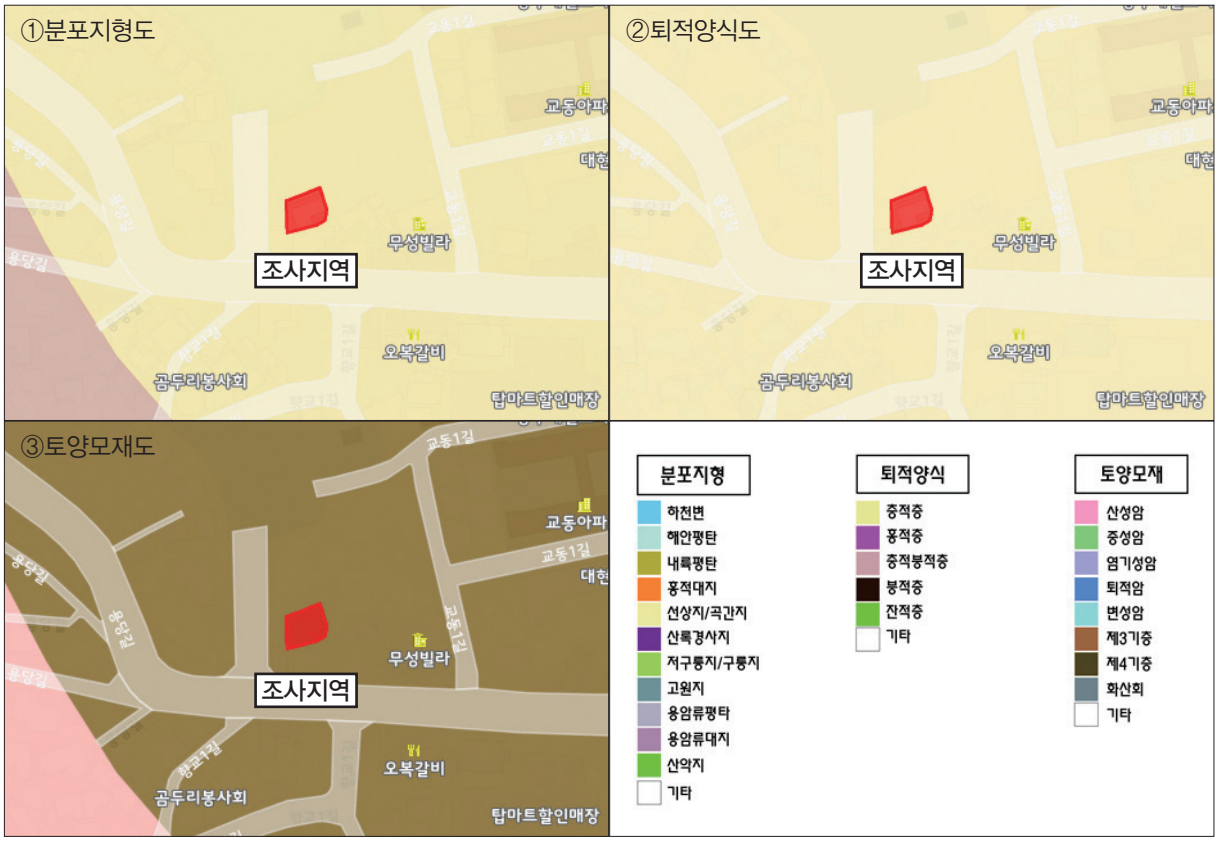


도면 1. 공주시 행정구역도

공주시는 충청남도의 동부 중앙에 위치해 있다. 시의 동쪽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연서면 · 장군면 · 금남면과 대전광역시의 유성구 · 서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예산군의 대술면 · 신양면과 청양군의 운곡면 · 대치면 · 정산면 · 목면 · 청남면과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계룡시와 논산시의 상월면 · 노성면, 부여군의 초촌면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아산시의 송악면과 천안시의 광덕면과 접하고 있다. 수리적 위치로 동단은 반포면 봉암리로 동경 127° 17′ 39″, 서단은 신풍면의 국사봉으로 동경 126° 53′ 05″, 남단은 탄천면 화정리로 북위 36° 16′ 20″, 북단은 유구읍 탑곡리 봉수산으로 북위 36° 40′ 06″이다. 공주시의 총 면적은 약 864.29㎢로 충청남도 총 면적(8213.36㎢)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공주지역의 지형적 특징은 차령산맥에 의해 북서와 동남으로 구분되며, 차령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크게 산지지형과 분지지형으로 구분된다. 산지지형은 주로 북부와 남동부에 분포되어 있는데, 북부쪽은 차령산맥이 북동에서 서남향으로 뻗어 무성산(613.6m) · 국사봉(590.6m) · 금계산

4) 충청남도 · 한남대학교, 1993, 『금강지』.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8,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공주시지』상 · 하.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참조.



도면 2. 조사지역 및 주변 ①분포지형도 · ②퇴적양식도 · ③토양모재도



도면 3. 조사지역 및 주변 수계도

(574.8m) · 갈미봉(515.2m) 등이 형성되어 있다. 북부지역은 비교적 높은 사지 지역을 이루고 있으며,남동지역은 천황봉(846.1m)를 최고봉으로 하는 계룡산지가 남북으로 뻗어 해발 400m이상의 고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공주시의 시가지는 월성산(313m)을 최고봉으로 하여 대체로 해발 200m 미만의 구릉성산지인 공산성 · 주미산 · 봉황산 · 연미산 · 취리산 등으로 둘러싸여 분지지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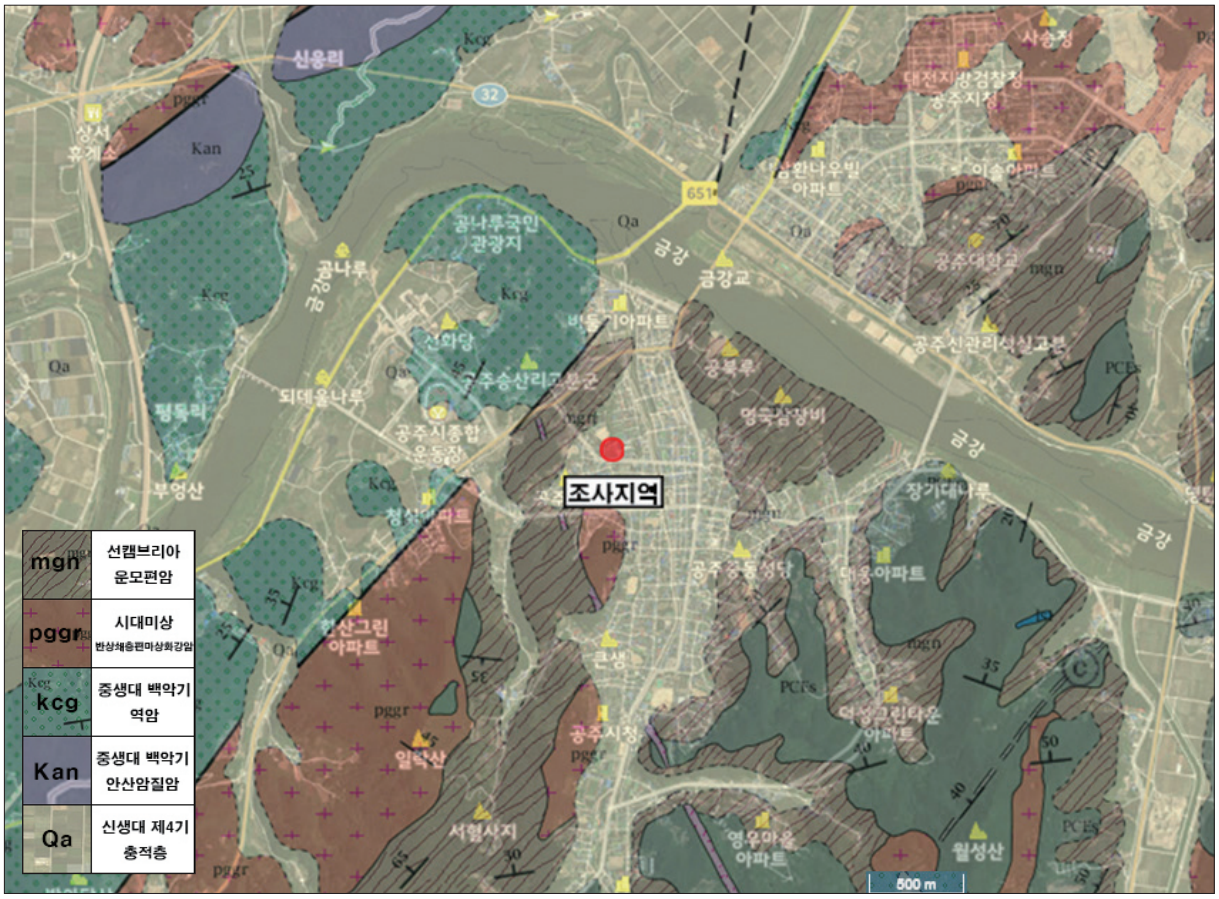
토양은 금강 북쪽은 갈색 · 담황갈색의 양토 및 세치양토이며, 남쪽은 암색의 양토 · 치양토이다.

공주지역의 수계는 중심수계인 금강으로 유입되는 정안천 · 유구천을 비롯한 여러 하천들은 남북방향의 구조곡을 따라 금강과 직교하며 유입한다. 이들 하천은 다시 대교천 · 용성천 등의 소하천들이 합류하여 금강 북부의 일부 지역과 남부 중앙의 논산시와의 접경지대 등에서 일부 평야를 이루고 있다.

공주지역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변성암류로부터 고생대와 중생대의 퇴적암류와 중생대의 화성암류가 중심을 이룬다. 공주시에 가장 오래된 암석은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운모편암과 편마암이다. 운모편암은 주로 흑운모 편암이고, 편마암은 화강암질 편마암, 호성편마암 및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모편암은 주로 봉화대에서 금학동 오곡동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편마암은 공주시 전역에 분포하는데, 특히 금강 북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에 공주층군이라 불리는 퇴적암류가 상기 암석들을 부정합으로 덮히고, 부정합면을 따라 2차적으로 단층이 발달하게 되었다. 공주층군은 의당면 청룡리 부근에서 금강변을 따라 남서쪽으로 뻗어 이인면 만수리를 지나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부근까지 분포한다. 공주분지에 퇴적된 이들 퇴적암류는 모두 육성기원 쇄설성 퇴적암으로 분지의 가장자리에는 역암과 각력암이 분포하고 중심부로 향하면서 역질 사암과 세일이 우세해진다. 이후 공주층군의 형성시기 혹은 그 직후에 공주분지 서북단 일대에서 안산암이 관입 또는 분출되었으며, 동부에서는 반암류가 남북방향을 따라 관입하였다. 그 후 오랜 침식작용으로 신생대 제4기 충적층이 퇴적되어 현재의 지질구조를 이루고 있다.

공주지역의 기후는 중위도 상에 위치하여 대체로 온난다습한 기후지역에 속하고 기후구분 상으로 중부 서안형과 남부 서안형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공주시의 경계까지만 해도 북쪽은 아산만에서 약 42㎞, 서쪽은 천수만에서 약 40㎞ 이상 떨어져 있어 내륙적인 기후의 특색이 나타난다. 공주시의 봄철 평균 기온은 약 11.8℃로 서해안보다 약 0.5℃정도 높고 인근 대전보다는 약 0.6℃정도 낮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약 24.7℃로 인근 부여의 24.5℃보다 높고 대전의 24.6℃보다 높은 편이며, 가을철 평균기온은 약 14.0℃로 대전의 14.7℃보다 낮다. 겨울철 평균기온은 약 -0.9℃로 충남지역의 겨울철 평균기온은 -1.5℃~1.0℃보다 높은 편이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교동은 공주시의 서북부에 위치하며, 금강의 남쪽 유역에 위치한다. 동북쪽으로는 금성동, 서쪽으로는 웅진동, 남쪽으로는 반죽동과 접한다. 조사지역은 공주여자중학교 정문으로 올라가는 소로와 인접하여 동쪽에 위치하며, 해발 약 21~22m에 해당한다. 송산리고분군이 북서쪽으로 약 500m 떨어져 위치하며, 공산성이 북동쪽으로 약 520m 떨어져 위치한다. 남서쪽으로는 약 210m 떨어져 공주향교가 위치한다. 또한 제민천이 조사지역과 약 218m 떨어져 남-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도면 4. 조사지역 및 주변 지질도

2. 공주시의 고고 · 역사적 환경

1) 고고학적 환경

공주지역은 금강이라는 대하천이 관류하는 지역으로 충청지방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일찍부터 인류활동의 흔적이 확인되어 왔다.

공주지역의 대표적인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석장리유적[5]이 있다. 석장리유적은 1964년부터 2010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전기 구석기시대부터 2~3만년 전의 후기 구석기시대까지 형성된 문화층으로, 주먹도끼 · 좀돌날 · 새기개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석장리유적과 인접한 석장리동 78번지 유적에서도 2개의 유물층에서 밀개 · 긁개 · 찍개 · 망치돌 등이 출토되었다[6]. 이 외에도

5) 손보기, 1976, 「석장리의 구석기문화」, 『한국사논문』, 역사학회.
한국선사문화연구소 · 충청남도 공주시, 1993, 『석장리 선사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12,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사적 제334호)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석장리 구석기유적 13차 발굴조사 보고서』.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5, 『공주 석장리동 78번지 유적』.

하봉리유적[7], 반포면 마암리의 용굴, 시목동, 소학동, 장기면 금암리 등지에서 댜양한 구석기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장원리유적[8], 신관동 관골유적[9] 등이 있다. 장원리유적에서는 유물포함층만 확인되는 등 단편적인 양상을 보였지만 빗살무늬토기편과 보습형 석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신관동 관골유적에서는 출입구가 달린 장방형의 형태로 대천리식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다양한 문양의 빗살무늬토기와 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석장리유적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산발적으로 수습되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성격에 따라서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분묘유적으로는 분강 · 저석리유적[10], 남산리유적의 기반식 지석묘[11], 산의리유적[12], 수촌리유적[13], 당암리유적[14], 봉안리유적, 송학리 유적 등이 있다. 남산리유적에서는 지석묘 3기가, 당암리유적에서는 석관묘와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분강 · 저석리유적, 산의리유적, 송학리유적에서는 옹관묘가 석관묘 등이 확인되었다.

생활유적으로는 귀산리유적[15], 태봉동유적[16], 장원리유적, 안영리유적[17], 장선리유적[18], 제천리유적[19], 당암리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귀산리유적에서는 나지막한 구릉선 산지에서 송국리형 주거지 8기, 원형주거지 3기, 말각방형주거지 5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석촉과 석도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한편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유적으로는 장기면 봉안리[20]와 의당면 수촌리유적[21] 등이 있다. 각각 토광묘과 적석목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청동유물과 옥류 등이 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성격에 따라 생활유적, 분묘유적, 관방유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생활유적인 안녕리유적, 장선리 토실유적, 덕지리유적[22] 등이 있다. 장선리 토실유적은 『삼국지(三國志)』 위서(僞書)동이전(東夷傳)마한조(馬韓條)에 언급된 기록 중에서 '초옥토실'을 만들어 거처하였는데, 그 형태가 무덤과 같고 출입구가 위에 있으며, 가족이 모두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장유와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기록에 나타난 바와 그 형태가 흡사하다. 즉, 장선리 토실유적은 문헌과 비교해 볼

---

7) 국립공주박물관, 1995, 『하봉리 Ⅰ』.
8)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공주 장원리 유적』.
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공주 신관동 관골유적』.
10) 공주대학교박물관, 1997, 『분강 · 저석리유적』.
11) 공주대학교박물관 · 충청남도, 1998, 『공주시의 역사와 문화』.
12) 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공주 산의리유적』.
1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공주 수촌리유적』.
14) 백제문화재연구원, 2014, 『공주 당암리 · 연기 송원리 유적』.
15)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공주 귀산리유적』.
16)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태봉동유적』.
17)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공주 안영리유적』.
1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3, 『공주 장선리 토실유적』.
1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공주 제천리 유적』.
20) 안승조, 1978, 「공주 봉안리 출토 동검, 동과」, 『고고미술』136 · 137합호, 한국미술사학회.
2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주13) 보고서 참조.
22)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덕지리유적』.

수 있는 고고학적 사례로 마한의 주거형태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주거지 이외에도 덕지리와 귀산리 유적에서는 토기가마가 조사되었다. 분묘유적은 하봉리유적[23], 장원리유적, 상서리유적[24], 분강 · 저석리고분군 등이 있다.

관방유적으로는 수촌리 토성[25]이 있는데, 수촌리 토성은 현재 잔존하는 성벽의 높이는 약 4.5m 내외이며, 치와 접해 있는 부분에 약 20m 정도가 남아있다. 또한, 공주 봉안리 유적[26]에서는 토광묘와 옹관묘가 각 1기씩 확인되었으며, 토광묘 내에서는 원저호가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유적은 분묘유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무령왕릉이 포함되어 있는 송산리 고분군을 비롯하여 시목동 고분군[27], 웅진동 고분군[28], 보통골 고분군[29], 신기동 · 금학동 고분군[30], 수촌리 고분군, 남산리 · 송학리 고분군[31], 분강 · 저석리 고분군, 산의리유적, 취리산유적[32], 우금치 고분군, 국고리 고분군, 교촌리 고분군, 웅진동유적, 중학동유적, 오룡리유적[33] 등이 있다. 남산리 고분군, 분강 · 저석리 고분군, 취리산유적, 수촌리 고분군, 신관동 78번지 외 유적 등에서만 토광묘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의 유적에서는 석실분이 확인되었다. 오룡리 유적에서는 횡혈식 석실묘 · 수혈식 석곽묘 · 횡구식 석곽묘 등 8기가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는 환두도 · 살포 · 철모 · 철부 · 철겸 · 광구장경호 · 직구호 · 단경소호 · 단경호 · 개배 등이 출토되었다.

생활유적으로는 공산성 및 공산성 내 왕궁부속시설유적, 정지산유적[34], 안영리유적, 금흥동유적, 장선리유적, 남산리유적, 화정리유적, 산성동유적, 웅진동(253-1번지 외)유적 등에서 대벽건물지와 기와건물지, 수혈유구 등의 생활유적이 조사되었다. 청룡리유적[35]에서는 백제시대 주거지 5기와 수혈유구 6기,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발형토기편 · 동이편 · 내박자 · 시루편 · 철도자편 등이 있다.

관방유적으로는 공산성을 대표적이다. 공산성 내에서는 백제시대의 벽주건물지와 수혈주거지 · 방형유구 · 미상유구 등이 조사되었으며, 출토유물로는 연화문 와당 등이 있다.

생산유적으로는 검상동의 백제기와 가마가 확인된 바 있다.

통일신라~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성격에 따라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

23) 국립공주박물관, 1995, 『하봉리 Ⅰ』.
24)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2004, 『공주 상서리유적』.
25) 국립공주박물관, 2002, 『공주 수촌리토성 Ⅰ』.
가경고고학연구소, 2011, 『공주 수촌리토성 지표조사 보고서』.
26) 백제문화재연구원, 2014, 『공주 봉안리 유적』.
27) 공주사범대학부설백제문화연구소, 1967, 「공주백제고분양식의 1예」, 『백제문화 1』.
28) 공주사범대학부설백제문화연구소, 1981, 「공주 웅진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백제문화 14』.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8, 『공주 웅진동 고분군』.
29) 공주대학교박물관, 1992, 『공주 보통골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30) 공주대학교박물관, 1993, 『공주 신기동 · 금학동 백제 · 고려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3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3, 『공주 남산리 · 송학리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32) 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취리산』.
33) 백제문화재연구원, 2018, 『공주 오룡리 유적』.
34) 국립공주박물관, 1999, 『정지산』.
3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9, 『공주 청룡리유적』.

분묘유적으로는 보통골 고분군, 송학리 · 남산리 고분군, 금흥동유적, 정지산유적 등이 있으며, 생활유적으로는 공산성[36], 신관동유적, 단지리유적, 웅진동(256-1번지 외) 유적[37] 등이 있다. 보통골 고분군, 송학리 · 남산리고분군에서 각각 1기씩의 횡구식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정지산유적에서는 다수의 화장묘가 확인되었다.

2) 역사적 환경[38]

공주지역은 삼한시대에는 공주의 외곽지역이기는 하지만 마한의 한 세력인 불운국(不雲國)과 감원비리국(監爰卑離國)이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백제가 고구려의 남진에 밀려 웅진으로 천도한 것은 개로왕의 아들 문주왕 원년의 일이며, 이로써 웅진백

제기(475～538년)가 열린다. 이러한 천도는 한성백제기에 이미 웅진에 대한 사전정보가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웅진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에 의한 천도가 아니었으며, 웅진세력에 의한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의 왕실은 문주왕(475～477년) · 삼근왕(477～479년)대의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동성왕(479～501년) · 무령왕(501～523년) · 성왕(523～538년)대에 이르기까지 왕권의 안정과 대외적인 지위를 다시 확보 할 수 있었다. 즉 웅진도읍기 5대 63년은 쇠미해진 백제의 국력을 회복하여 중흥의 초석을 다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웅진 백제기의 지방 통치조직은 22담로제였다. 백제는 26대 538년(성왕 16)에 사비(부여)로 천도하여 660년(의자왕 31)까지 123년간 사비백제기가 지속된다. 이때의 지방통치 조직은 웅진백제기의 22담로제를 바탕으로 조직된 5방제이다. 이 5방제는 백제지역의 주요 거점들인 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웅진(공주)은 사비의 북방으로 편제되어 웅진 방령을 두고 10개 군을 통솔하였다. 당시의 5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비를 중심으로 중방은 고사성(전북 고창), 동방은 득안성(충남 은진부근), 서방은 도선성(미상), 남방은 구지하성(전남 장성), 북방은 웅진(충남 공주)이다. 백제는 나당 연합군의 협공에 의해 660년에 멸망하였다. 그러나 당은 백제가 멸망하자 백제지역에 당군이 주둔하면서 웅진, 마한(익산), 동명(미상), 사련(미상), 덕안(은진)에 5개 도독부를 설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독부는 곧바로 웅진도독부를 비롯한 4개 도독부로 재편되었다. 그 후 당은 이를 다시 개편하여 웅진도독부를 최고 치소로 하고 그 밑에 7주 52현을 주었다. 7주는 동명 · 지심 · 노산 · 고사 · 사반 · 대방 · 분차 등이다. 그러다가 670년에 신라가 당군을 축출하고 백제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웅진도독부는 소멸하게 된다.

통일신라시대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군-현 체제로 새롭게 편제되었다. 먼저 686년(신문왕 6)에 행정구역을 재편하였는데, 행정개편 작업의 내용은 군현명의 개칭과 9주 5소경의 설치로 대표

---

36) 공주사범대학부설백제문화연구소, 1982, 『공산성』.
공주사범대학박물관, 1987, 『공산성내 추정 왕궁지 발굴조사보고서』.
공주사범대학박물관, 1990, 『공산성 성지』.
공주대학교박물관, 1992, 『공산성 건물지』.
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공산성 지당』.
37)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4, 『공주 웅진동(256-1번지 외) 유적』.
3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6, 『공주 수촌리 고분군Ⅳ』참조.

된다. 9주는 삼국의 옛 영토에 각 3주씩 설치했는데, 백제지역에는 웅천주(공주), 무진주(광주), 완산주(전주)를 설치하였다. 공주는 웅진에서 웅천주로 이름을 바꾸고 도독을 두었으며 13개 군 29개현이 속해 있었다. 특히 통일신라시기 행정변화에서 인근지역 중 웅천주에 직속된 현은 백제시기의 열야산현(熱也山縣, 논산 노성), 벌음지현(伐音支縣, 공주 신풍)이었으며 니산현(尼山縣)과 청음현(淸音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웅천주의 영속군현 중에서 그래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여 지는 군을 보면 공주지역의 북으로는 대목악군(大木岳郡, 천안 목천), 남으로 소부리군(所夫理郡, 부여), 동남으로 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 논산 연산), 동으로는 우술군(雨述郡, 대덕 회덕), 동북으로 일모산군(一牟山郡, 연기), 서북으로 탕정군(湯井郡, 아산 온양)이 있었다. 이 9주의 편제와 더불어 각처에 별개의 행정체계를 갖는 5소경과 각주에 지방군의 주둔지인 정(停)을 두었다. 웅천주 관내에는 서원경(청주)이 소경으로 되어 있었고, 웅천주의 청양지역에 고량부리정(古良夫里停)이 있었다. 이러한 주군현의 편제는 통일신라 전 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며, 다만 명칭이 757년(경덕왕 16)에 웅천주에서 웅주로 개칭되었다. 후삼국시대의 공주는 후백제의 북변, 고려의 남변으로 두 세력이 마주 닿는 지점에 위치하여 양 세력이 서로 호각의 다툼을 벌인 지역이었다. 고려에 의하여 한반도가 재통일되면서, 940년(태조 23)에 웅주를 공주로 개칭하고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제도의 개편이 완료된 것은 그보다 훨씬 후대인 983년(성종 2)이며 이때에 전국에 12목이 설치된다. 공주도 광주 · 양주 · 충주 · 청주 · 전주 · 나주 · 승주 · 진주 · 상주 · 해주와 더불어 목으로 승격되어 다시 충청지역의 행정중심지로 부각된다. 그리고 995년(성종 14)에는 10도제가 실시되면서 목을 절도사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이때 공주를 안절군(安節軍)으로 개칭하고 하남도에 속하게 하였다. 그 후 1018년(현종 9)에 전국의 행정구역이 전면 수정되어 4대도호부 · 8목 · 56지주군사 · 28진장 · 20현령을 두었다. 이때 공주는 목에서 탈락하여 지사군의 하나가 되어 주지사가 파견되었으며, 대신 청주가 목으로 승격한다. 이때의 공주는 4개군 8개현을 통괄하게 된다. 즉 지사군으로 격이 낮추어지기는 하였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인근의 군현들을 통할할 수 있었다. 공주지사군에 덕은군(德恩郡) · 회덕군(懷德郡) · 부여군(扶餘郡) · 연산군(連山郡) 등의 4개의 속군과 시진현(市津縣) · 진령현(鎭岺縣) · 유성현(儒城縣) · 석성현(石城縣) · 정산현(定山縣) · 니산현(尼山縣) · 신풍현(新豊縣) · 덕진현(德津縣)등 8개의 속현이 소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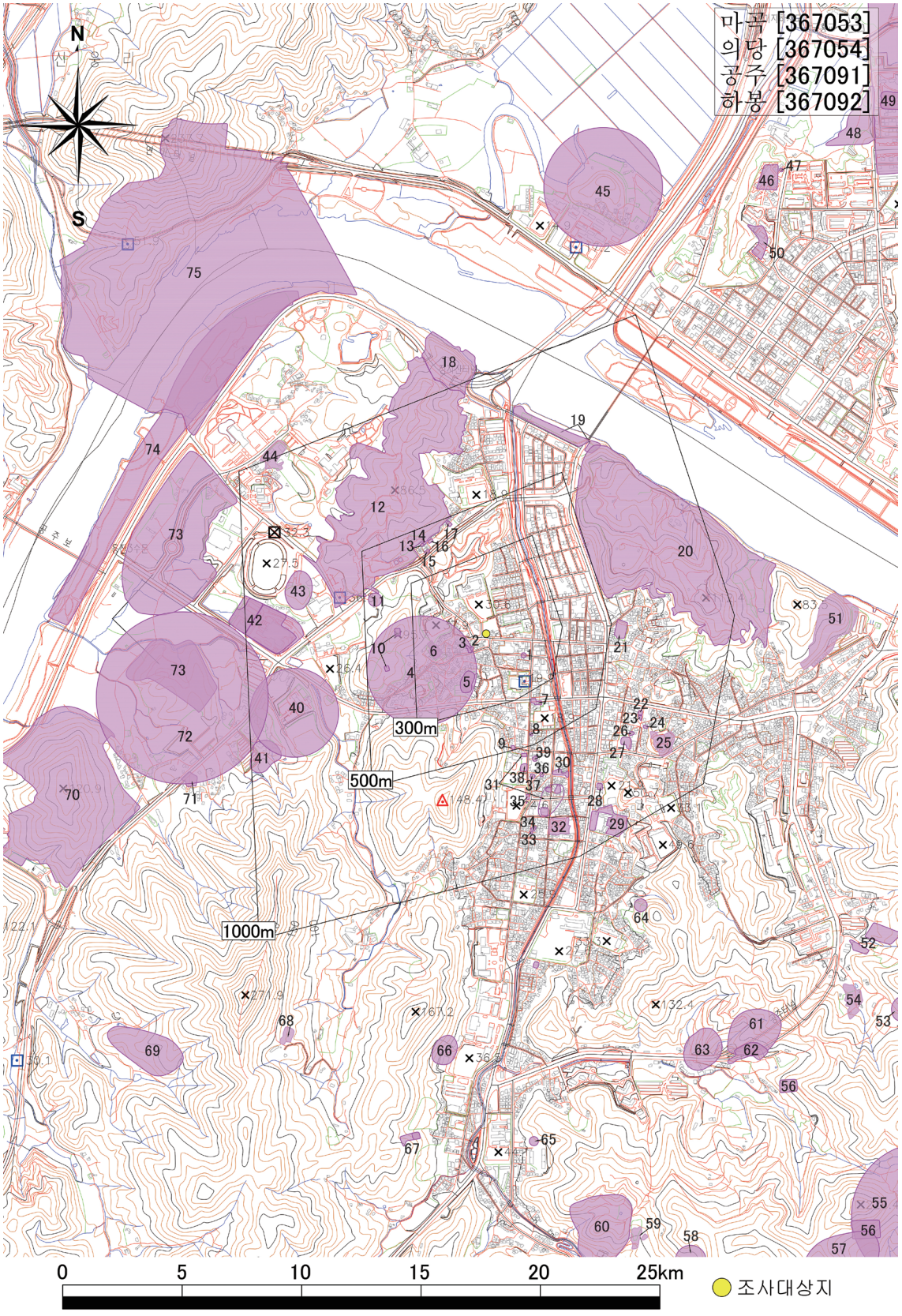
이러한 당시의 공주 지주사의 통할 구역은 대체로 오늘날의 공주 · 논산 · 대덕 · 청양 등 일부 지역에 걸치는 넓은 지역이었고, 이 후 이들 지역이 하나의 동질성을 갖는 충청내륙 문화권으로 형성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공주의 원의 지배하에 있던 1314년(충혜왕 2)에 원조평장각 활적의 처 경화옹주의 외향이라 하여 공주목으로 다시 승격하였다. 한편 이 시기의 지방편제로서 군현으로 편재되지 않은 독립행정단위로서 향 · 소 · 부곡이 존재했다. 1176년 무신 집권기 천민의 난으로 유명한 망이 · 망소이의 난이 바로 공주의 명학소에서 일어났다. 조선시대의 공주는 지방 행정의 중심지인 감영의 소재지이자 관찰사가 부임하는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태종 때에는 공주가 충청도의 4목(공주 · 충주 · 청주 · 홍주)중 하나로 정3품인 목사가 파견되었다. 그 후 세조 때에는 진관체제가 수립되면서 공주목사는 종3품인 철점제사를 겸하였고, 공주진관 내에는 인접 군현들이 군사동원체계상 공주의 예하에 들게 되었다. 1598년(선조 31) 충청감영이 충주로부터 공주로 이전됨으로써 공주는 충청도의 수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일

시 공주에 감영이 설치된 적이 있긴 하였지만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은 이때 이후의 일이다. 감영의 공주 이전에 따라 충청도의 명칭은 공충도 · 공홍도 · 공청도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정조대에 이르러 한때 충청도를 충청남 · 북도로 분할한 적이 있었지만 감영은 여전히 공주에 두었으며, 충청도로 다시 합하였다. 1670년(현종 11)부터 1679년(숙종 5), 1778년(정조 2)부터 1787년(정조 11)까지 공주목은 일시 현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중앙관제가 정비되었고, 1년 후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8도의 감영(監營), 안무영(按撫營), 유수부(留守府)를 폐지하고 소지역주의를 채택하여 전국을 23개의 府로 개편하고 종래에 있던 부 · 목 · 군 · 현을 郡으로 통합하여 336개의 郡을 설치하였다. 이 때 공주군은 23면 체제로 바뀌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공주지역은 공주면, 주외면, 목동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하면, 신상면 등의 13개 면 · 6개 정 · 207개리로 재편되었다. 1938년 4월 1일 공주면이 공주읍으로 승격되면서, 주외면의 일부인 금성리, 금학리, 옥룡리, 용당리 등 4개리가 공주읍에 흡수되었다. 이에 따라 공주군은 1읍 11개면이 되었다. 1986년 1월 1일 공주군이 공주시로 승격되면서 공주군과 분리되었다. 이 때 이인면의 주미리 · 태봉리 · 오곡리 · 봉정리 · 검상리와 우성면의 쌍신리 · 월미리 · 장기면의 무릉리 · 월송리 · 금흥리, 계룡면의 신기리 · 소학리 · 상왕리가 공주시로 편입되었다.

공주시의 행정구역은 1읍(유구읍), 10면(계룡면 · 반포면 · 사곡면 · 신풍면 · 우성면 · 의당면 · 이인면 · 장기면 · 정안면 · 탄천면)이며, 동은 행정 6개동(금학동 · 산성동 · 신관동 · 옥룡동 · 웅진동 · 중학동)과 법정 24개동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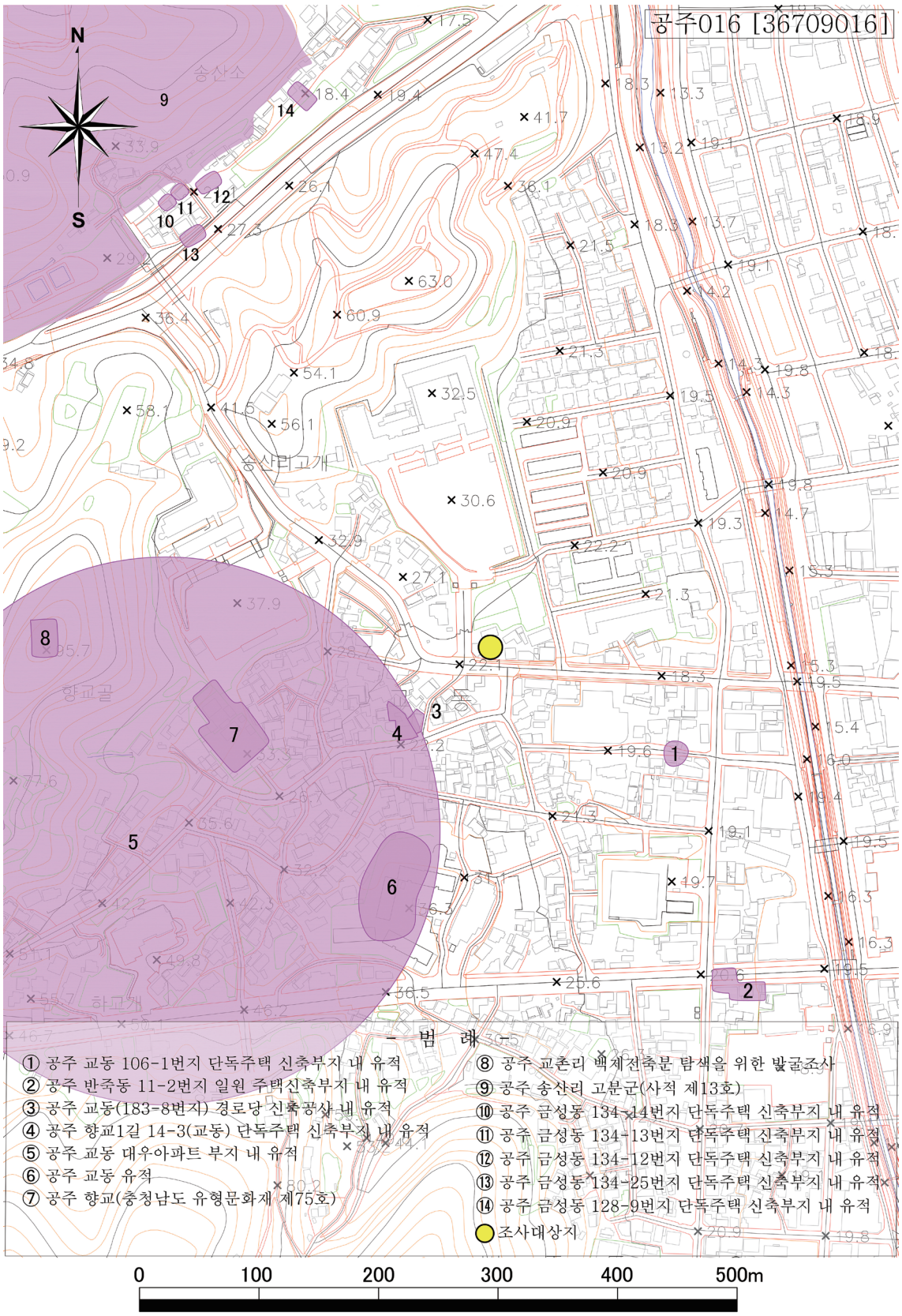
조사지역이 위치한 교동은 공주군 남부면 지역으로 공주향교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교촌 또는 향교골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교촌의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공주면 금정이라 하였다. 1931년 공주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공주읍 관할이 되었으며, 1986년 공주읍에서 공주시로 승격되면서 공주시의 행정동인 웅진동 관할의 법정동이 되었다.



도면 5.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표 1】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 범례

범 례			
1	공주 교동 106-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39	공주 반죽동(121-7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	공주 교동(183-8번지) 경로당 신축공사 내 유적	40	공주 웅진동 고분
3	공주 향교1길 14-3(교동)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41	공주 박산소 고분군
4	공주 교동 대우아파트부지 내 유적	42	공주 웅진동(256-1번지 외) 유적
5	공주 교동 유적	43	공주 웅진동 고분군①
6	공주 향교(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75호)	44	포정사문루(시도유형문화재 제93호)
7	공주 반죽동 11-2번지 일원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45	공주 취리산 고분군
8	공주 반죽동(144-2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46	공주 신관동 350번지 아파트 개발사업부지
9	공주 반죽동 118-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47	공주 신관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 내 유적
10	공주 교촌리 백제전축분 탐색을 위한 발굴조사	48	금흥동 유물산포지
11	공주 웅진동(65번지 외) 유적	49	공주 신금택지개발지구 내 유적
12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	50	공주 신관동 아파트 건립부지 내 유적
13	공주 금성동 134-1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51	공주 옥녀봉성(시도기념물 제99호)
14	공주 금성동 134-1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52	충남 공주시 옥룡동 산20-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 내 유적
15	공주 금성동 134-2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53	공주 옥룡동 월성산 고분군
16	공주 금성동 134-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54	공주수원사지(충청남도 기념물 제36호)
17	공주 금성동 128-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55	상왕동 추정 동성왕릉지
18	공주 정지산유적(사적 제474호)	56	신기동 고분군
19	공주(추정)웅진제	57	공주 신기동 고분군
20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	58	남혈사지
21	공주 산성동 142-1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59	공주 남혈사지(시도기념물 제35호)
22	공주 중동 49-3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60	공주 금학동 남산 고분군
23	공주 중동(49-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61	공주 금학동 고분군②
24	공주 중동 50-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62	공주 금학동 고분군
25	공주중동성당(충청남도 기념물 제142호)	63	공주 금학동 고분군
26	공주 중동(5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64	공주 중학동 주택부지 내 유적
27	공주 우영터	65	금학동 건물지
28	공주 중동상가 신축부지내 유적	66	공주 금학동 사지
29	공주 교동 330-6번지 일원 공주목관아터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67	금학동 추정 건물지
30	공주 반죽동(182-4번지) 장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지내 유적	68	공주 서혈사지(시도기념물 제37호)
31	공주 대통사지	69	공주 봉정동 고분군
32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보물 제150호)	70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부지
33	공주 반죽동(28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71	웅진동 유적분포가능지역3
34	공주 반죽동(281-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72	공주 웅진동 고분군 I
35	공주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73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부지 내 유적
36	공주 반죽동(209-1번지) 단독주택 부지 내 유적	74	공주 곰나루 주변유적
37	공주 반죽동(232-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75	공주 고마나루(명승 제21호)
38	공주 쌈지주차장(반죽동 331번지 일원)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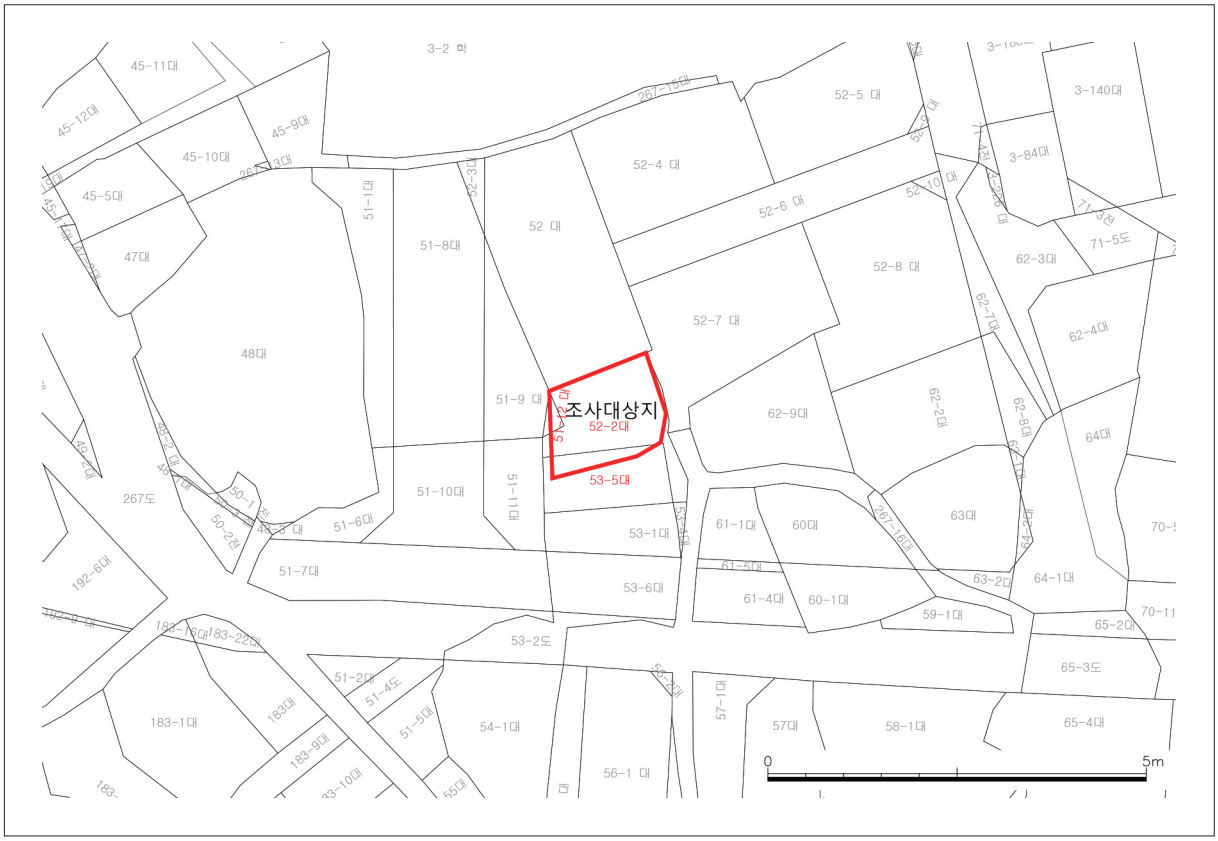


도면 6.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표 2】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m)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공주 교동 106-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174	역사시대 미상	한국문화재재단, 2011, 공주 교동 106-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 발(시)굴조사 약보고서	소성유구
2	공주 반죽동 11-2번지 일원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348	고려	공주대학교박물관, 2014, 공주 반죽동 11-2번지 개발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개략보고서	건물지
3	공주 교동(183-8번지) 경로당 신축공사 부지 내 유적	80	통일신라	누리고고학연구소, 2016, 공주 교동(183-8번지) 경로당 신축부지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담장시설
4	공주 향교1길 14-3(교동)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90	통일신라~고려	누리고고학연구소, 2015, 충청남도 공주시 향교1길 14-3(교동) 국비지원 소규모 발굴조사 약보고서	건물지, 담장시설
5	공주 교동 대우아파트 부지 내 유적	310	백제~고려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각지 시굴조사보고서Ⅱ-공주 교동 대우아파트부지조사	건물지, 저장혈
6	공주 교동 유적	186	백제~고려	공주대학교박물관, 1996, 교동 아파트부지유적조사보고	건물지, 저장혈
7	공주 향교	200	조선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75호
8	공주 교촌리 백제전축분 탐색을 위한 발굴조사	348	백제	공주대학교박물관, 2018, 공주 교촌리 백제전축분 탐색을 위한 발굴조사 개략보고서	고분
9	공주 송산리 고분군	425	백제		사적 제13호
10	공주 금성동 134-1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450	조선	한국문화재재단, 2015, 공주 금성동 134-1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수혈유구
11	공주 금성동 134-1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453	역사시대 미상	한국문화재재단, 2015, 공주 금성동 134-1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주혈
12	공주 금성동 134-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448	통일신라~역사시대 미상	한국문화재재단, 2016, 공주 금성동 134-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건물지, 석렬유구, 주혈

13	공주 금성동 134-2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430	조선	한국문화재재단, 2015, 공주 금성동 134-2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석렬유구
14	공주 금성동 128-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472	통일신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공주 금성동 128-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 발(시)굴조사 약보고서	구상유구



도면 7.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북서쪽의 정지산과 북동쪽의 공산, 남동쪽에 봉황산(148.4m) 사이에 위치한다. 정지산의 남동쪽 가지능선 말단부에 해당하며, 조사지역 북쪽은 공주여자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구택(舊宅)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었다.

현장조사를 위한 제토는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층위를 참고하면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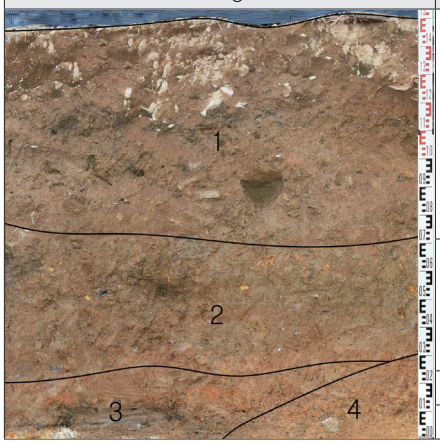
발굴조사는 제토 및 조사과정에서 벽면의 붕괴가 우려되어 조사대상지의 외곽경계에서 약 1~2m 정도 떨어진 지점부터 벽면이 사면을 이루도록 제토하였다. 또한 조사지역 북쪽으로는 신축빌라의 주차장 옹벽이 조성되어 있고, 북서쪽으로는 도시가스관이 매립되어 있어 외곽경계로부터 약 2m 정도 떨어져 조사를 진행하였다. 입회조사 시 설정하였던 트렌치의 토층을 확인하여 한 층씩 걷어내며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토층을 한층씩 걷어내는 과정에서 토사 적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조사지역의 남쪽부분을 1지점, 북쪽부분을 2지점으로 명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Ⅰ지점에서는 유구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표에서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건물 건축 및 생활 과정에서 원지형이 삭평된 것으로 판단된다. 2지점에서는 Ⅲ층(문화층)에서 적심유구 3기와 구상유구 1기, 수혈유구 21기 등 총 25기의 조선시대 유구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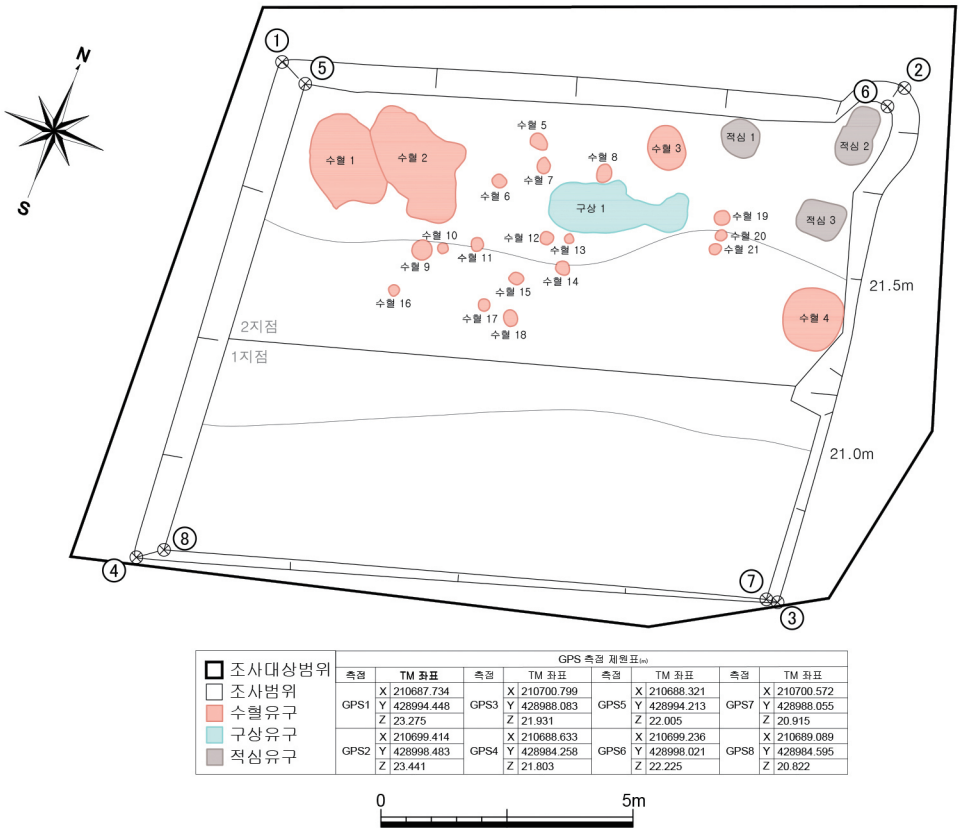
〈퇴적양상〉

1지점의 퇴적양상은 남서쪽 경계벽면을 기준으로 암갈색사질점토(1층) – 암적갈색사질점토(2층)의 순으로 퇴적되어 확인되었다. 1~2층은 표토 및 기존 가옥이 조성되었던 층으로 확인된다. 1지점에서는 유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표에서 다양한 시대의 유물들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있었던 가옥을 조성하기 위해 원지형을 삭평하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남서벽 경계부)

토 층	내 용	
	1층 : 암갈색사질점토	표토 및 기존 가옥 조성층 (1문화층)
	2층 : 암적갈색사질점토	
	3층 : 적갈색사질점토	조선시대문화층(2문화층)
	4층 : 황갈색사질점토	기반토층

2지점의 퇴적양상은 남서쪽 경계벽면을 기준으로 암갈색사질점토(1층) - 암적갈색사질점토(2층) - 적갈색사질점토(3층) - 황갈색사질점토(4층, 기반토층) 순이다. 토층양상을 크게 분류하면 가옥조성을 위한 복토층과 자연퇴적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 2층은 생활쓰레기 및 하수관, 할석과 풍화토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 가옥을 조성하기 위해 복토한 층으로 판단된다. 3층에서는 조선시대 문화층이 확인된다.



GPS 측점 제원표(m)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GPS1	X	210687.734	GPS3	X	210700.799	GPS5	X	210688.321	GPS7	X	210700.572
	Y	428994.448		Y	428988.083		Y	428994.213		Y	428988.055
	Z	23.275		Z	21.931		Z	22.005		Z	20.915
GPS2	X	210699.414	GPS4	X	210688.633	GPS6	X	210699.236	GPS8	X	210689.089
	Y	428998.483		Y	428984.258		Y	428998.021		Y	428984.595
	Z	23.441		Z	21.803		Z	22.225		Z	20.822

도면 8. 발굴조사지역 유구배치도

1. 유구 및 출토유물

1) 적심유구

적심유구는 조사대상지의 북동쪽경계와 동쪽경계에 접하여 위치하며 총 3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 및 장방형이다.

(1) 적심유구 1호

가. 유구(도면 9, 도판 2-①~③)

조사대상지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유구의 북쪽은 경계지점에 접해있다. 해발 약 22.1m 내외의 평탄

지에 입지한다. 적심유구의 중심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5m 떨어져 2호 적심유구가 확인된다.

적갈색사질점토층(조선시대 문화층)을 제거하자 유구의 굴광선과 적심시설의 내부석재 상면이 노출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73~78㎝의 규모이다. 적심유구는 풍화암반토인 기반암을 약 10~15㎝ 깊이로 굴착한 후 7㎝×10㎝, 10㎝×12㎝ 정도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조성하였다. 내부에서는 암적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벽면은 사선에 가깝게 처리하였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편평하다.

유물은 토기동체부편과 토기저부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동체부편(도면 9, 도판 2-1)

파수는 결실되고 흔적만 남아있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황색(N 6/0)이고, 속심은 명회색(5Y 7/5)이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파수 부착시 생긴 지두흔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11.2㎝, 두께 0.6~1.0㎝

2. 동체부편(도면 9, 도판 2-2)

대부분 결실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청색(N 4/0)이다. 외면에는 1.5㎝ 간격으로 횡선이 돌려져 있으며, 그 사이로 파상문이 횡방향으로 시문되었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7㎝, 두께 0.8~1.2㎝

3. 저부편(도면 9, 도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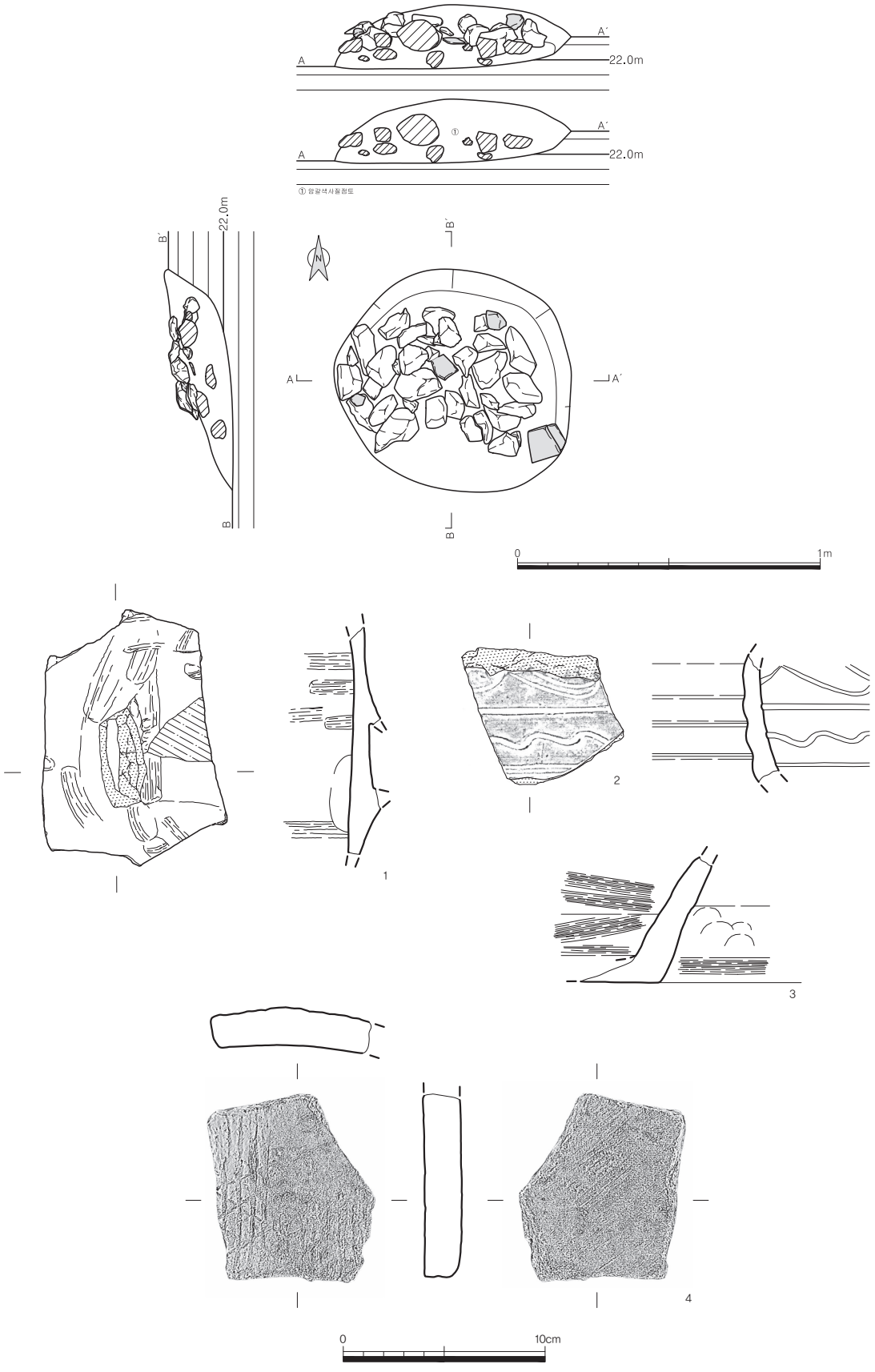
대부분 결실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색(N 6/0)이다. 바닥면은 평저이고, 바닥면과 동체부 접합 부분은 깎기 정면하였으며 바닥면과 동체부 접합 흔적이 남아있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0㎝, 두께 0.8~1.5㎝

4. 암키와편(도면 9, 도판 2-4)

암키와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색(N 5/0)이며, 속심은 명회색(7.5Y 6/1)이다. 외면에는 넓은 간격의 사격자문을 타날 후 종방향으로 집선문을 타날하였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8.7㎝, 잔존폭 7.7㎝, 두께 1.3~1.6㎝



도면 9. 적심유구 1호 및 출토유물

(2) 적심유구 2호

가. 유구(도면 10, 도판 2-④~⑤, 3-①)

조사지역의 북동쪽 경계지점에 접하여 해발 약 22.1m에서 확인되었다. 적심유구의 중심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2.5m 떨어져 1호 적심유구가, 남쪽으로 약 1.6m 떨어져 3호 적심유구가 확인된다.

적갈색사질점토층(조선시대 문화층)을 제거하자 유구의 굴광선과 적심유구의 내부석재 상면이 노출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직경 70㎝의 규모이다. 적심시설은 평면은 장방형으로 조성하였으며, 내부에 조성하였던 할석 일부는 유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암적갈색사질점토를 약 25~30㎝ 깊이로 굴착한 후 4㎝×10㎝, 12㎝×16㎝ 등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유물은 토기구연부과 토기저부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5. 구연부편(도면 10, 도판 3-5)

자기구연부편으로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포함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갈색(5Y 3/1)이며, 속심은 적갈색(7.5Y 4/2)이다. 기형은 동체부에서 완만한 경사를 두면서 벌어지다가 구연부는 살짝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잔존기고 4.7㎝, 두께 0.6~0.8㎝

6. 저부편(도면 10, 도판 3-6)

대부분 결실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연질의 저부편이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외면은 회갈색(N 6/0)이고 내면은 암회색(N 4/0)이며, 속심은 황갈색(7.5Y 7/6)이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9㎝, 두께 0.7~1.0㎝

7. 암키와편(도면 10, 도판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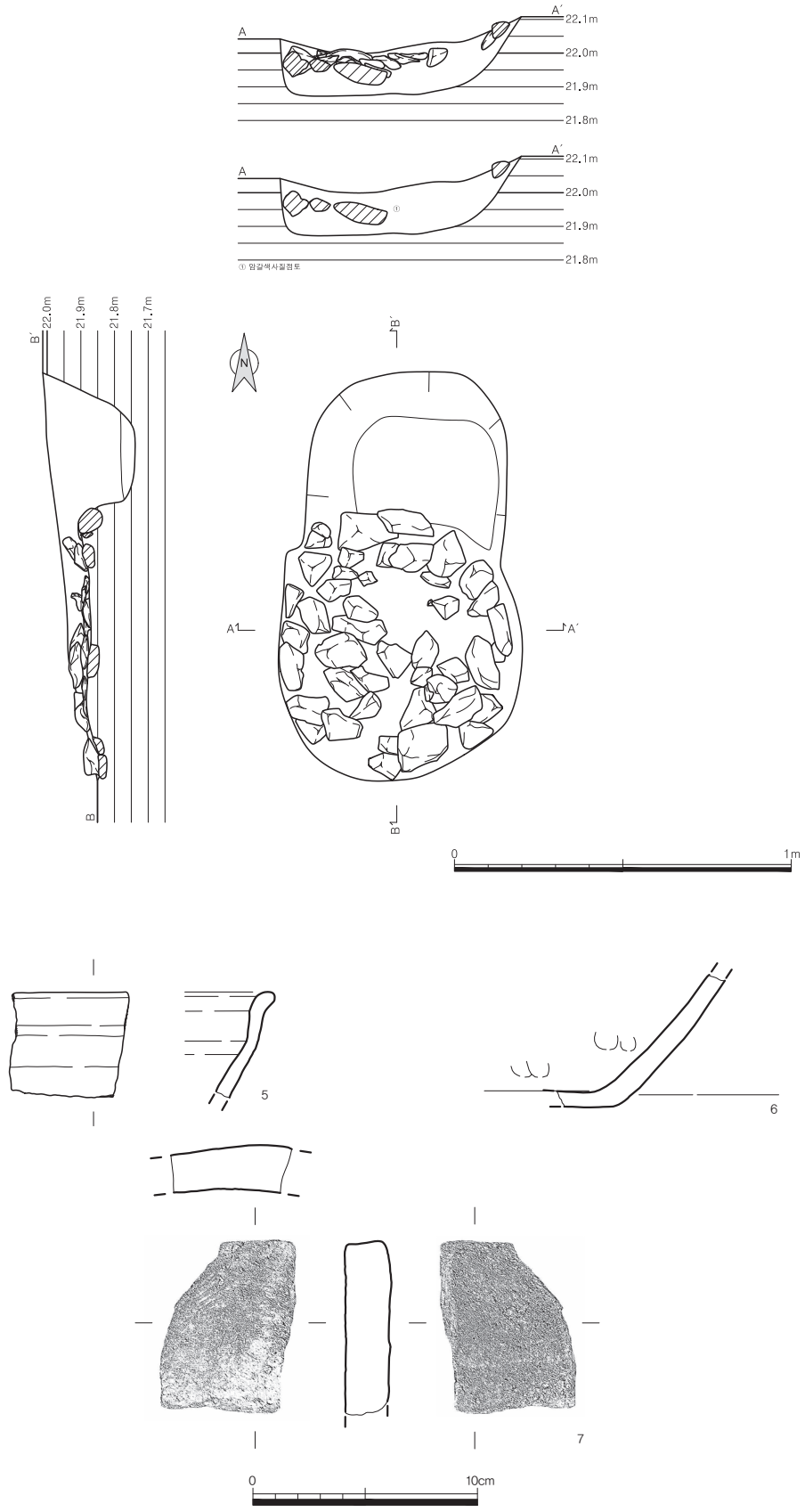
일부만 남아있는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색(N 6/0)이며, 속심은 명회색(7.5Y 6/1)이다. 외면에는 짧은 외골문을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7.2㎝, 잔존폭 5.3㎝, 두께 1.5㎝

(3) 적심유구 3호

가. 유구(도면 11, 도판 3-②~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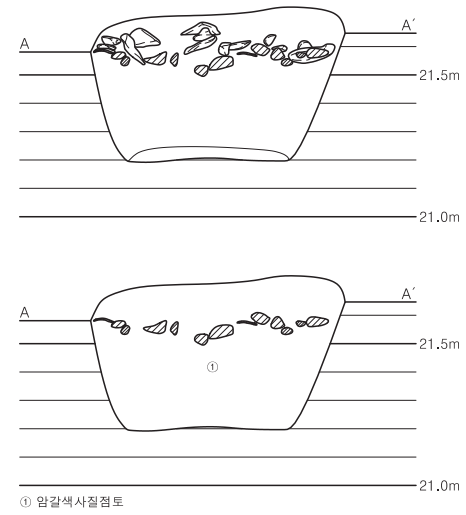
조사지역의 북동쪽 경계지점에 접하여 해발 약 21.6m에서 확인되었다. 북서쪽으로 약 1.5m 떨어져 1호 적심유구가, 북쪽으로 약 1.6m 떨어져 3호 적심유구가 확인된다.



도면 10. 적심유구 2호 및 출토유물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직경 100~110㎝의 규모이다. 적심유구는 암적갈색사질점토를 약 25~30㎝ 깊이로 굴착한 후 7㎝×9㎝, 7㎝×16㎝ 등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유물은 석재와 함께 일부 토기구연부과 토기저부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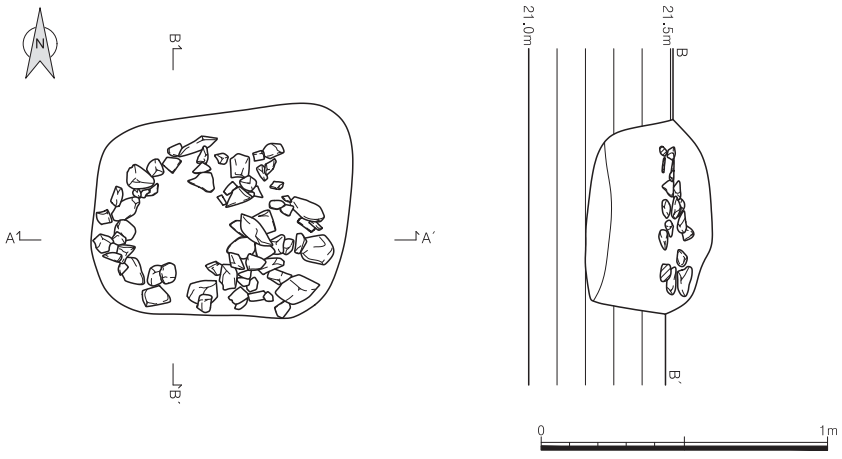


나. 유물

8. 동체부편(도면 12, 도판 3-8)

대부분 결실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청색(N 4/0)이며, 내면과 속심은 명회색(5Y 6/1)이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1㎝, 두께 0.5~0.6㎝



도면 11. 적심유구 3호

9. 동체부편(도면 12, 도판 3-9)

대부분 결실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의 색조는 회청색(N 4/0, N 6/0)이며, 내면은 연회색(2.5Y 6/1), 속심은 회청색(N 6/0)과 적갈색(2.5YR 3/3)이다. 외면에는 사선으로 짧은 집선문이 타날되었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6.5㎝, 두께 1.3~1.8㎝

10. 저부편(도면 12, 도판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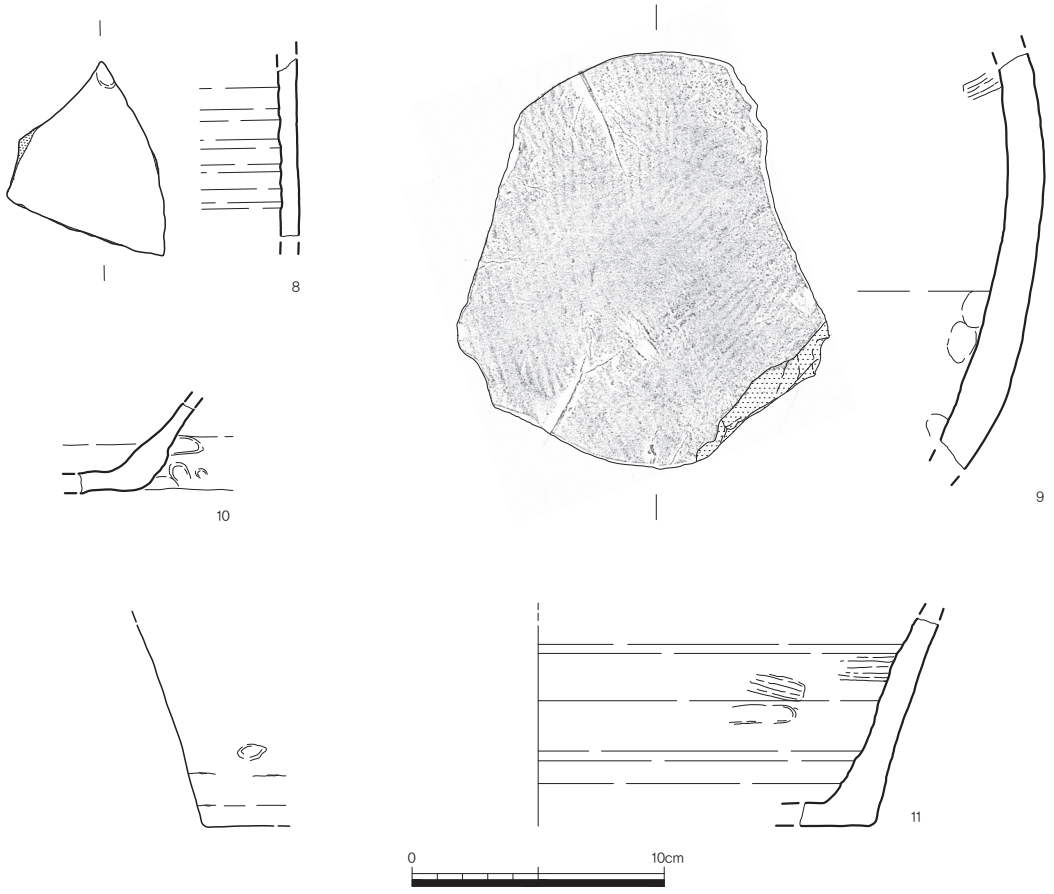
대부분 결실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연질의 저부편이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속심은 명회색(N 7/0)다. 바닥면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밖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저부와 동체부 연결부분에는 지두흔이 확인되고,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5㎝, 두께 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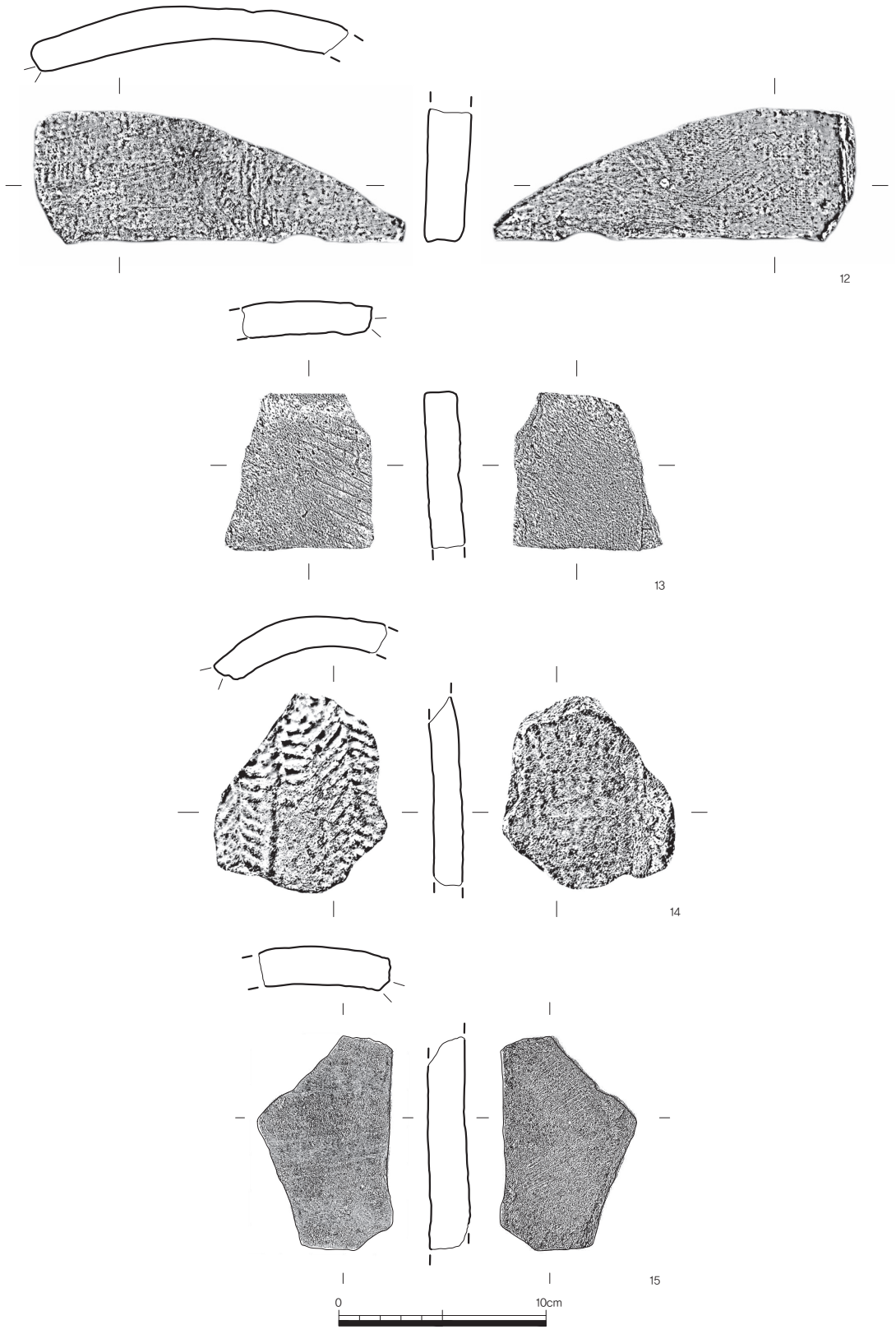
11. 저부편(도면 12, 도판 3-11)

경질의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회색(2.5Y 5/1)이다. 바닥면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밖으로 벌어져 올라가는 올라간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8.3㎝, 복원저경 26.6㎝, 두께 0.8~1.6㎝



도면 12. 적심유구 3호 출토유물1



도면 13. 적심유구 3호 출토유물2

12. 암키와편(도면 13, 도판 4-12)

일부만 남아있는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청색(N 5/0)이다. 외면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정면하여 무문이고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1/5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6.2㎝, 잔존폭 18.0㎝, 두께 1.7㎝

13. 암키와편(도면 13, 도판 4-13)

일부만 남아있는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황갈색(10YR 7/4)과 연회색(5Y 7/1)이다. 외면에는 사선으로 집선문을 타날하였으나, 일부는 물손질하여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점토접합흔이 남아있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1/4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7.2㎝, 잔존폭 6.2㎝, 두께 1.5㎝

14. 암키와편(도면 13, 도판 4-14)

일부만 남아있는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갈색(10YR 6/4)이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4/5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9.8㎝, 잔존폭 8.0㎝, 두께 1.5㎝

15. 암키와편(도면 13, 도판 4-15)

일부만 남아있는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연회색(N 6/0)이다. 외면에는 집선문이 횡방향으로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1/5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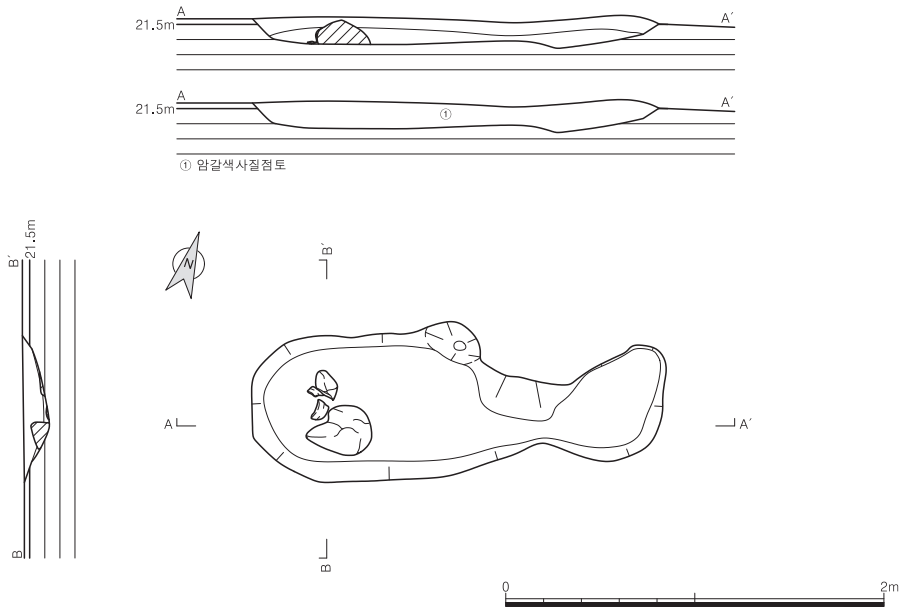
잔존길이 10.3㎝, 잔존폭 6.3㎝, 두께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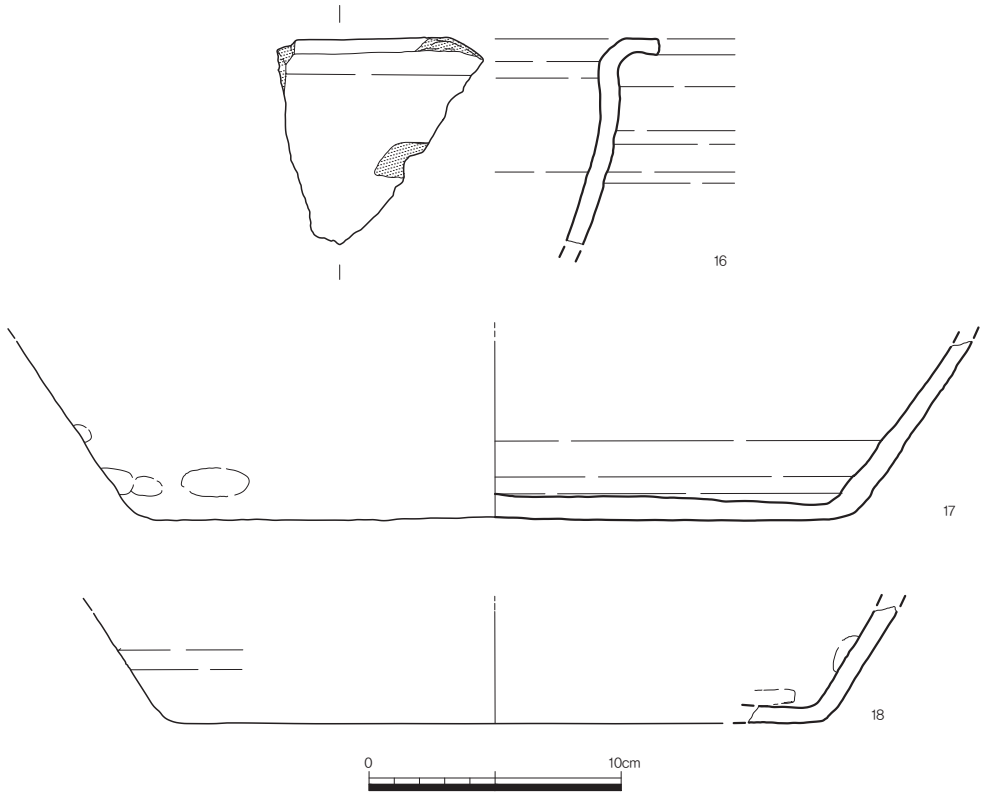
2) 구상유구

(1) 구상유구 1호

가. 유구(도면 14, 도판 4-①~④ · 5-①~②)

조사지역의 북쪽 중앙 해발 약 21.5m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장축 271㎝, 단축 104㎝, 깊이 23~30㎝이고, 장축방향은 남서-북동(N-18° -E)다.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내부퇴적토는 암적갈색 사질점토의 단일 층위로 이루어졌다. 내부에서는 수혈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유구의 서쪽에서 석재가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시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내부에서 토기구연부편, 토기동체부편, 토기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도면 14. 구상유구 1호 및 출토유물

나. 유물

16. 구연부편(도면 14, 도판 5-16)

일부만 남아있는 경질의 토기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회색(N 5/0)이다. 구연부는 거의 직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짧은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8.1㎝, 두께 0.6~0.8㎝

17. 저부편(도면 14, 도판 5-17)

경질의 저부로 1/4정도 남아있으며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외면의 색조는 회색(N 7/0)이고 내면은 황회색(2.5Y 7/1)이다. 바닥면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밖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동체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짧은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며, 저부와 동체부 연결부분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1㎝, 복원저경 26.4㎝, 두께 0.6~0.9㎝

18. 저부편(도면 14, 도판 5-18)

경질의 저부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연회색(10YR 7/1)이다. 바닥면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밖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6㎝, 복원저경 26.0㎝, 두께 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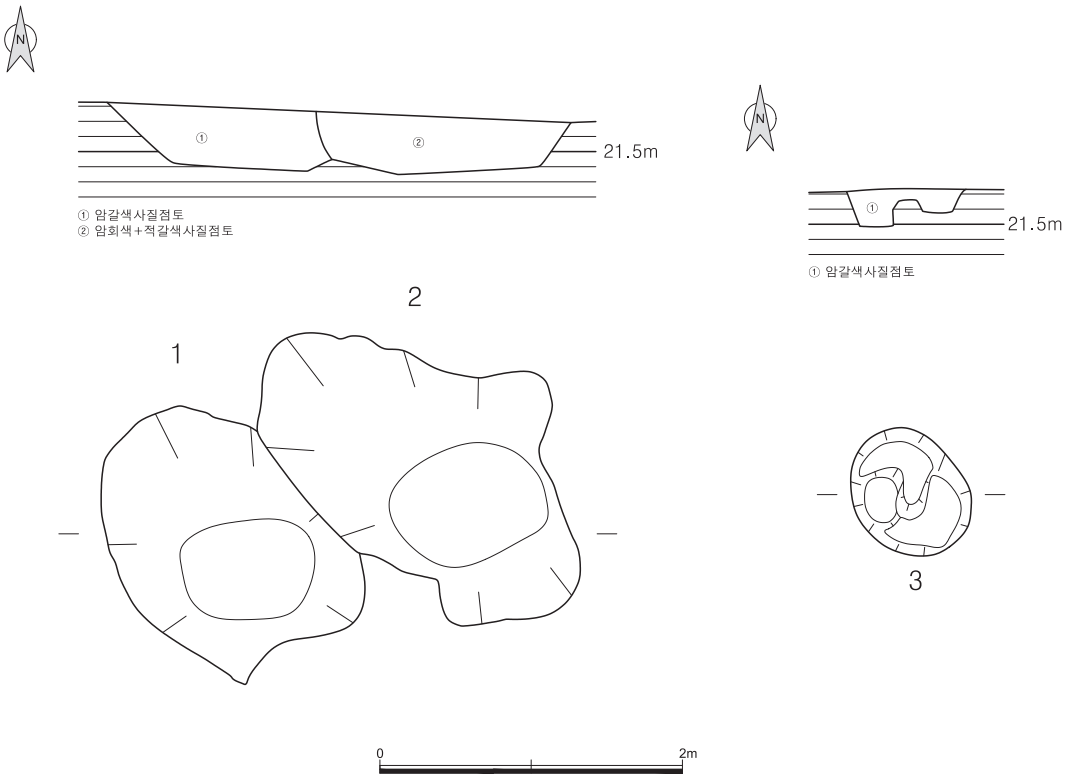
3) 수혈유구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 2지점 전체에 분포하여 21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등이다. 수혈유구 1~2호는 서로 중복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수혈유구 3호는 적심유구 1호의 서쪽에 인접해 있고 수혈유구 4호는 3호 적심유구 남쪽에 위치한다. 5~21호 수혈유구는 크기를 살펴보았을 때 주혈유구에 가깝지만 성격이 불분명하여 수혈유구라 명명하였다.

(1) 수혈유구 1호

가. 유구(도면 15, 도판 5-③~⑥)

조사대상지의 서쪽 해발 21.7m에 위치하는데, 유구의 동쪽 일부는 중복되어 수혈유구2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273㎝ · 너비 191㎝ · 깊이 22.6㎝이다. 벽면은 바닥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며, 내부에서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내부토와 같이 토기구연부편과 토기저부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15. 수혈유구 1호, 2호, 3호

나. 유물

19. 구연부편(도면 16, 도판 6-19)

일부만 남아있는 경질의 토기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회색(N 6/0)이고, 속심은 연회색(N 7/0)이다. 기형은 경부에서 살짝 내만하였다가 구연부는 거의 직각으로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1㎝, 두께 0.7~0.9㎝

20. 반편(도면16, 도판 6-20)

경질의 토기반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암회청색(N 3/0)이며, 속심은 적갈색(7.5Y 3/4)이다. 바닥면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동중위에서 한번 꺾여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저면에는 두 줄의 횡침선과 사선으로 점열문이 시문되었으며, 연주문이 시문되었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1.6㎝, 두께 0.3~0.9㎝

21. 저부편(도면16, 도판 6-21)

경질의 저부로 4/5정도 남아있다. 태토는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회색(N 6/0)이고 속심은 명회색(N 7/0)이다. 바닥면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밖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2㎝, 저경 10.7㎝, 두께 0.6~0.9㎝

22. 암키와편(도면16, 도판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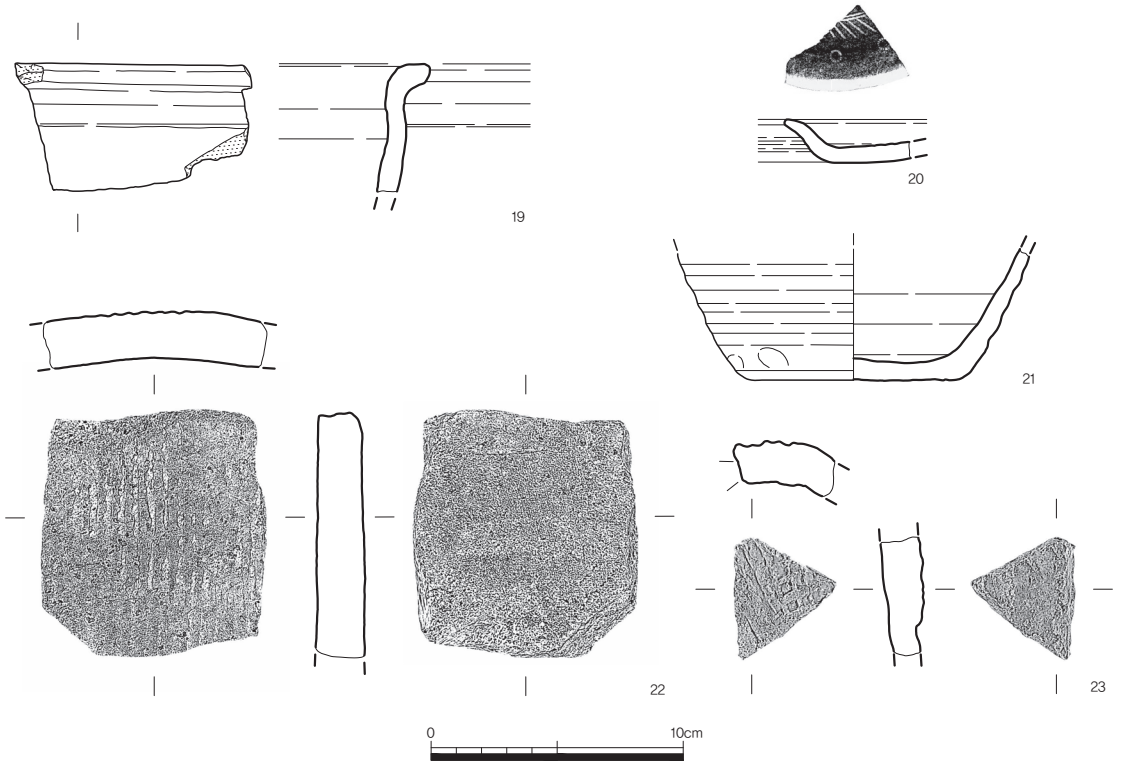
암키와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청색(2.5Y 5/2)이다. 외면에는 집선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9.2㎝, 잔존폭 8.4㎝, 두께 1.6㎝

23. 암키와편(도면16, 도판 6-23)

암키와편으로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청색(7.5Y 5/1)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으나,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4.6㎝, 잔존폭 4.0㎝, 두께 1.4~1.6㎝



도면 16.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

(2) 수혈유구 2호

가. 유구(도면 15, 도판 6-①~④)

조사대상지의 서쪽 해발 21.7m에 위치하는데, 수혈유구 1호의 동벽 일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273㎝ · 너비 210㎝ · 깊이 37.7㎝이다. 벽면은 바닥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며, 내부에서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내부토와 같이 토기구연부편과 토기동체부편, 토기저부편, 기와편,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4. 구연부편(도면 17, 도판 7-24)

일부만 남아있는 경질의 토기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회색(N 6/0)이며, 속심은 연회색(2.5Y 7/1)이다. 동체부에서 완만한 경사를 지며 올라가다가 견부에서 살짝 내만하였다가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0㎝, 구경 15.2㎝, 두께 0.6~0.8㎝

25. 구연부편(도면 17, 도판 7-25)

일부만 남아있는 경질의 토기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연회색(5Y 7/1)이다. 형태는 견부에서 살짝 내만하였다가 구연부는 외반하였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4㎝, 두께 0.6~0.9㎝

26. 구연부편(도면 17, 도판 7-26)

경질의 구연부로 1/6정도 남아있으며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회색(N 6/0)이며, 속심은 연회색(N 7/0)이다. 형태는 견부에서 살짝 내만하였다가 구연부는 외반하였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7.4㎝, 구경 32.4㎝, 두께 0.7~0.8㎝

27. 동체부편(도면 17, 도판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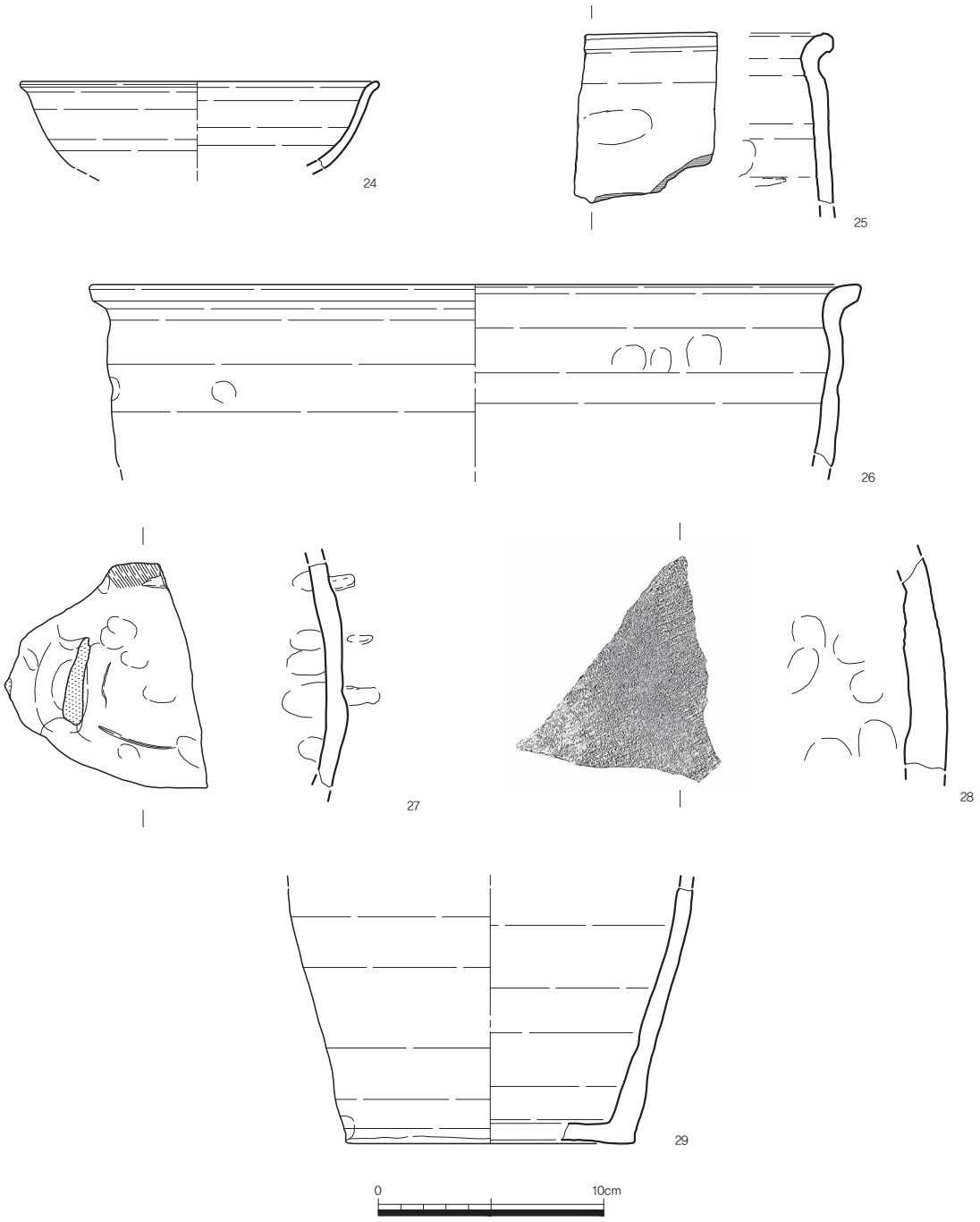
경질의 대상파수 동체부편으로, 파수는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회색(N 7/0)이다. 외면에는 대상파수가 확인되나 대부분 결실되어 가장자리 일부만 잔존하고, 파수 부착시 생긴 지두흔이 남아있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9.6㎝, 두께 0.8~1.0㎝

28. 동체부편(도면 17, 도판 7-28)

경질의 구연부로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회색(N 6/0)이며, 속심은 연회색(N 7/0)이다. 형태는 견부에서 살짝 내만하였다가 구연부는 외반하였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1㎝, 두께 0.7~0.9㎝



도면 17.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1

29. 저부편(도면 17, 도판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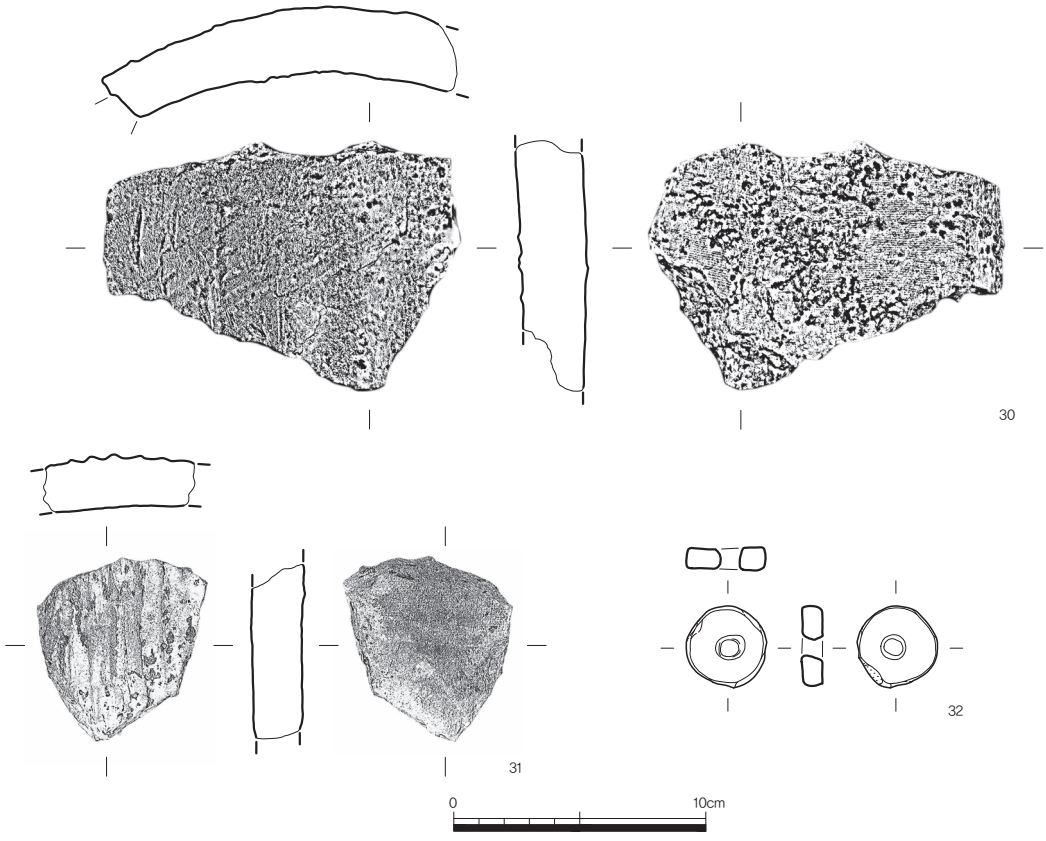
경질의 병 저부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외면의 색조는 암회청색(N 3/0)이고 내면은 회색(N 5/0)이며, 속심은 적갈색(7.5YR 4/1)이다. 바닥면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유약이 흘러내린 흔적이 관찰되며, 내면에서는 바닥에서만 유약성분이 확인된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지두흔도 확인된다.

잔존기고 11.5㎝, 저경 13.0㎝, 두께 0.6~1.1㎝

30. 암키와편(도면 18, 도판 7-30)

암키와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청색(7.5YR 5/1)이다. 외면에는 사방향으로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희미하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3/4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9.0㎝, 잔존폭 14.0㎝, 두께 2.0~2.4㎝



도면 18.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2

31. 암키와편(도면 18, 도판 7-31)

암키와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황갈색(10YR 7/6)이다.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6.4㎝, 잔존폭 6.3㎝, 두께 1.8~2.0㎝

32. 방추차(도면 18, 도판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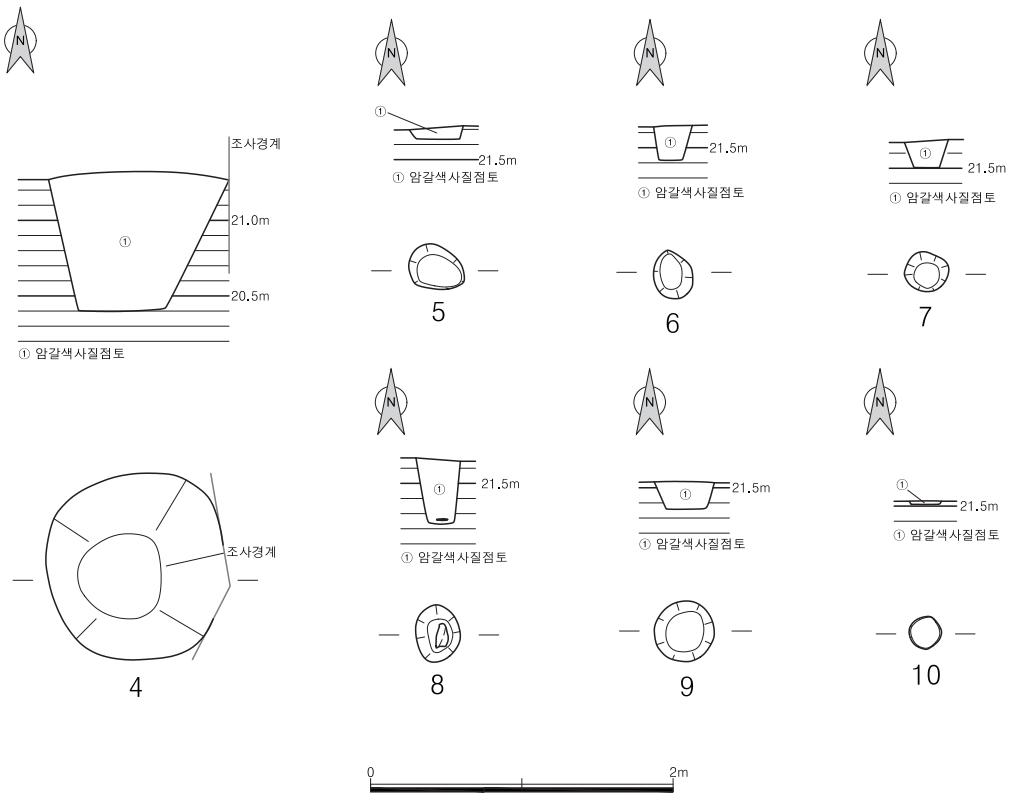
토제 방추차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내 · 외면 색조는 암회색(N 3/0)이며, 속심은 회색(N 6/0, 7.5Y 6/3)이다. 형태는 원형으로 중앙에 지름 약 0.9㎝의 구멍이 뚫려있다.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지름 3.0㎝, 두께 0.8~0.9㎝

(3) 수혈유구 3호

가. 유구(도면 15, 도판 7-①~③)

조사대상지의 북쪽 해발 21.7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77㎝ · 너비 84㎝ · 깊이 40㎝이다. 내부에서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구조는 북쪽과 중앙부분부터 시계방향으로 단을 지며 레벨차를 두고 있다. 내부토가 매몰되어 있었으며, 내부에서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19. 수혈유구 4호~10호

(4) 수혈유구 4호

가. 유구(도면 19, 도판 7-④~⑥)

조사대상지의 동쪽 해발 21.3m에 위치하는데, 동쪽 조사경계 외곽으로 이어진다. 북쪽으로 약 1m정도 떨어진 곳에 적심유구 3호가 위치한다.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는데, 평면형태는 잔존양상으로 보아 원형으로 보인다. 규모는 길이 119㎝ · 너비 125㎝ · 깊이 91.9㎝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5) 수혈유구 5호

가. 유구(도면 19, 도판 8-①~③)

조사대상지의 북쪽 중앙 해발 21.7m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약 9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6호가, 남동쪽으로 약 25㎝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7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8㎝ · 너비 39㎝ · 깊이 9.4㎝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6) 수혈유구 6호

가. 유구(도면 19, 도판 8-④~⑥)

조사대상지의 북쪽 중앙 해발 21.7m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약 9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5호가, 북동쪽으로 약 75㎝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7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31㎝ · 너비 28㎝ · 깊이 18.3㎝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7) 수혈유구 7호

가. 유구(도면 19, 도판 8-⑦~⑨)

조사대상지의 북쪽 중앙 해발 21.7m에 위치한다. 북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6호가, 동쪽으로 약 10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8호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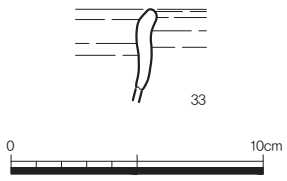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7㎝ · 너비 33㎝ · 깊이 25.3㎝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유물은 내부토와 함께 토기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3. 구연부편(도면 20, 도판 8-33)

경질의 구연부로 극히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회색(N 7/0)이며, 속심은 연갈색(7.5YR 6/3)이다. 형태는 견부에서 살짝 내만하였다가 구연부는 외반하였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1㎝, 두께 0.3~0.5㎝



도면 20.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

(8) 수혈유구 8호

가. 유구(도면 19, 도판 8-⑩~⑫)

조사대상지의 북쪽 중앙 해발 21.7m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7호가, 남쪽으로 접하여 구상유구 1호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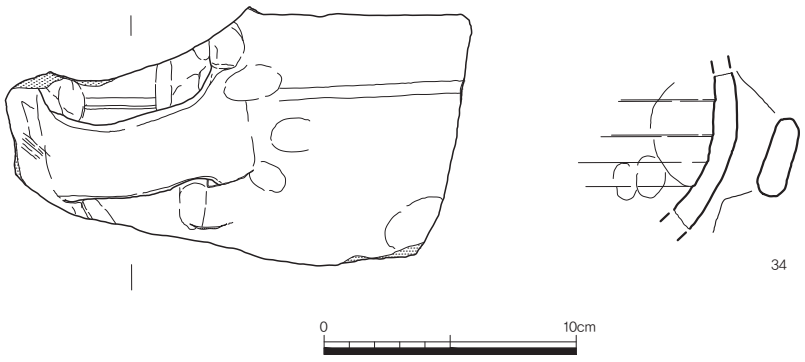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30㎝ · 너비 38㎝ · 깊이 38.5㎝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유물은 바닥면에서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4. 동체부편(도면 21, 도판 8-34)

경질의 대상파수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외면의 색조는 회색(N 4/0)이며, 내면은 연회색(5N 7/1)이다. 외 · 내면에는 파수 부착시 생긴 지두흔이 다량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9.8㎝, 두께 0.8~1.0㎝



도면 21. 수혈유구 8호 출토유물

(9) 수혈유구 9호

가. 유구(도면 19, 도판 8-⑬~⑮)

조사대상지의 북서쪽 중앙 해발 21.6m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약 1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0호가,

남쪽으로 약 7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6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41.5㎝ · 너비 41.7㎝ · 깊이 20㎝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10) 수혈유구 10호

가. 유구(도면 19, 도판 8-⑬~⑭ · ⑯)

조사대상지의 북서쪽 중앙 해발 21.5m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9호가, 북동쪽으로 약 5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1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5㎝ · 너비 22㎝ · 깊이 3.9㎝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11) 수혈유구 11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9-①~③)

조사대상지의 북서쪽 중앙 해발 21.5m에 위치한다. 남서쪽으로 약 7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0호가, 북동쪽으로 약 12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2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5㎝ · 너비 28.5㎝ · 깊이 12.2㎝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12) 수혈유구 12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9-④~⑤)

조사대상지의 2지점 중앙 해발 21.6m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약 3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3호가, 남동쪽으로 약 5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4호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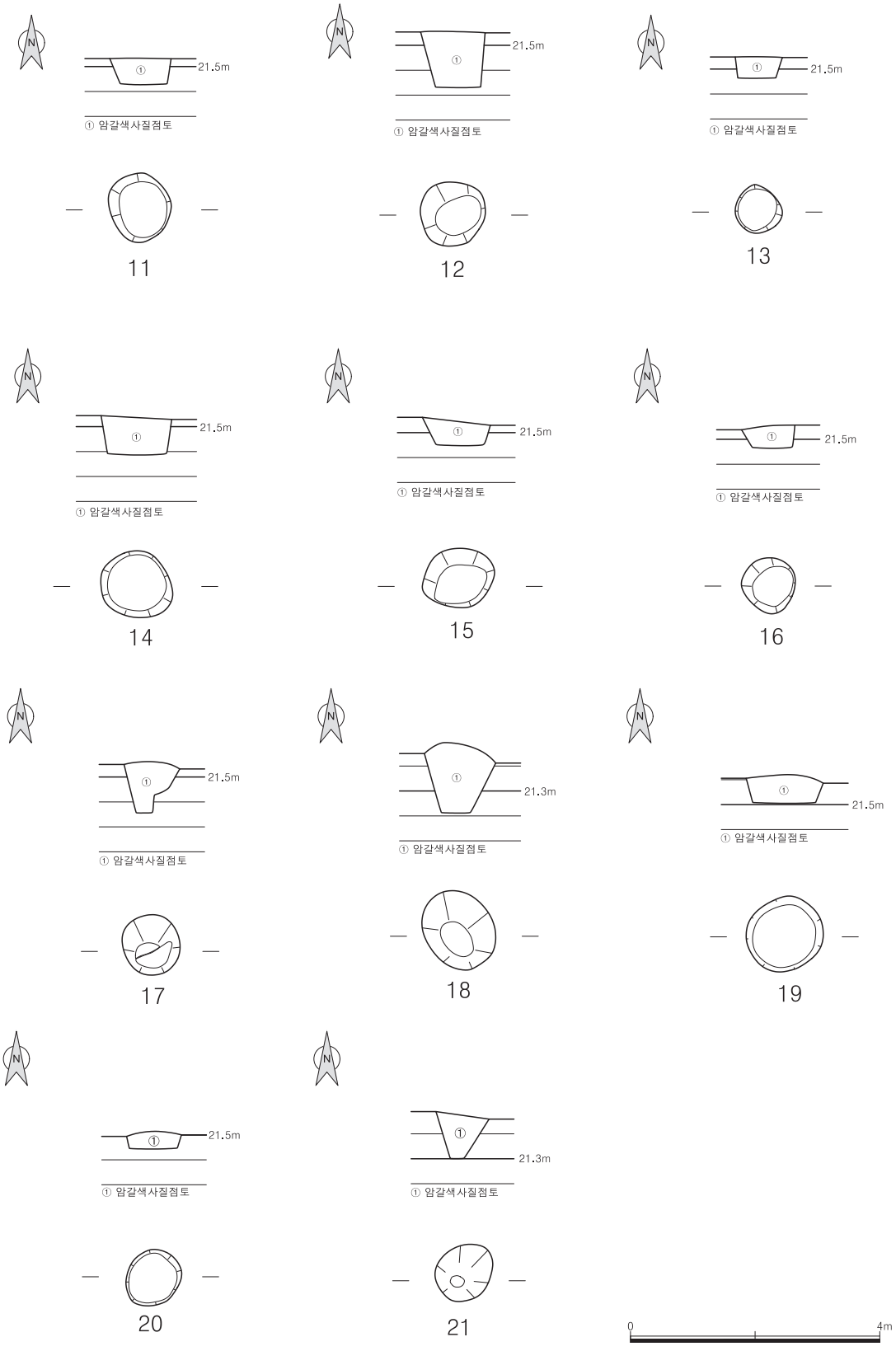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6.5㎝ · 너비 28㎝ · 깊이 23.9㎝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13) 수혈유구 13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9-④ · ⑥)

조사대상지의 2지점 중앙 해발 21.6m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약 3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2호가, 남쪽으로 약 45㎝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4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0㎝ · 너비 21㎝ · 깊이 20.8㎝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도면 22. 수혈유구 11~21호

(14) 수혈유구 14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9-⑦~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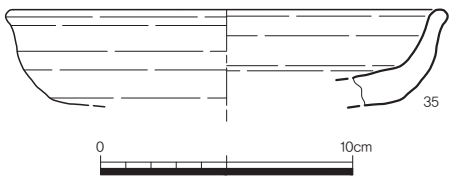
조사대상지의 2지점 중앙 해발 21.5m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약 45㎝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3호가, 남서쪽으로 약 8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5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8㎝ · 너비 31.5㎝ · 깊이 15㎝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유물은 내부토와 함께 토기반편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5. 반편(도면 23, 도판 9-35)

경질의 토기반으로 1/5정도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회색(5Y 6/1)이다. 바닥면은 평저이고, 동체부는 동중위에서 한번 꺾여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 ·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도면 23. 수혈유구 14호 출토유물

기고 3.4㎝, 구경 : 17.0㎝, 두께 0.3~0.9㎝

(15) 수혈유구 15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9-⑨~⑪)

조사대상지의 2지점 중앙 해발 21.6m에 위치한다. 북동쪽으로 약 8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4호가, 남쪽으로 약 6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7호와 18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32㎝ · 너비 26㎝ · 깊이 10.9㎝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16) 수혈유구 16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9-⑫~⑭)

조사대상지 해발 21.6m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약 8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9호가, 동쪽으로 약 17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7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4㎝ · 너비 25㎝ · 깊이 9㎝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17) 수혈유구 17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9-⑮~⑰)

조사대상지 해발 21.6m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약 6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5호가, 동쪽으로 약 4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8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5㎝ · 너비 27㎝ · 깊이 22㎝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18) 수혈유구 18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10-①~③)

조사대상지 중앙 해발 21.4m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약 4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7호가, 북쪽으로 약 6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5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30㎝ · 너비 35㎝ · 깊이 28㎝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19) 수혈유구 19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10-④~⑥)

조사대상지 해발 21.6m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약 60㎝ 떨어진 곳에 구상유구 1호가, 동쪽으로 약 150㎝ 떨어진 곳에 적심유구 3호가, 남쪽으로 약 1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20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32.7㎝ · 너비 32.5㎝ · 깊이 10.4㎝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20) 수혈유구 20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10-④~⑤)

조사대상지 해발 21.5m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약 1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19호가, 남쪽으로 약 1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21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5㎝ · 너비 23.5㎝ · 깊이 6.9㎝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21) 수혈유구 21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10-④~⑤ · ⑦)

조사대상지 해발 21.5m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약 10㎝ 떨어진 곳에 수혈유구 20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암갈색사질점토를 'U' 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5㎝ · 너비 24㎝ · 깊이 18.7㎝이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지표수습유물〉

36. 백자 잔(도면 24, 도판 10-36)

백자 잔으로 4/5이상 잔존한다. 태토는 명회색(2.5Y 7/1)을 띠며,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유색은 연회색(N 7/0)이다. 기형은 저부에서 한 번 꺾여 동체부로 바라지며 올라간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며, 굵은 모래받침을 하였다.

기고 4.5㎝, 구경 7.5㎝, 저경 3.5㎝, 두께 0.4~0.8㎝

37. 백자 제기접시(도면 24, 도판 10-37)

백자 제기접시 1/4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명회색(2.5Y 8/1)을 띠며,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유색은 연회색(N 8/0)이다. 기형은 높은 굽의 8각으로 면취하였으며, 굽을 성형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잘라낸 흔적이 관찰된다. 동체는 완만하게 벌어지면 올라가다가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굽 바닥에는 가는 모래 빚음받침을 하였다.

기고 4.5㎝, 구경 11.6㎝, 저경 6.0㎝, 두께 0.4~0.7㎝

38. 동체부편(도면 24, 도판 10-38)

경질의 대상파수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색조는 회색(7.5Y 5/1)이며, 속심은 연회색(N 7/0)이다. 외면에서는 2줄의 횡침선이 일부 확인된다. 외 · 내면에는 파수 부착시 생긴 지두흔이 다량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1.3㎝, 두께 0.4~1.1㎝

39. 저부편(도면 24, 도판 10-39)

연질의 저부편으로 1/2정도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일부 박리되었다. 외면의 색조는 연회갈색(2.5Y 7/2)이고 내면은 회색(N 5/0)이며, 속심은 적갈색(7.5YR 4/1)이다. 바닥면은 평저이고 저부와 동체부가 연결되는 부분은 완만하게 벌어져 올라가는 형태이다. 바닥 중앙에는 지름 2.1㎝의 구멍이 뚫려있다. 구멍은 외면에서 내면방향으로 투공하였다. 내 · 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도 일부 확인된다.

잔존기고 4.8㎝, 저경 11.2㎝, 두께 0.6~0.8㎝

40. 암키와편(도면 25, 도판 1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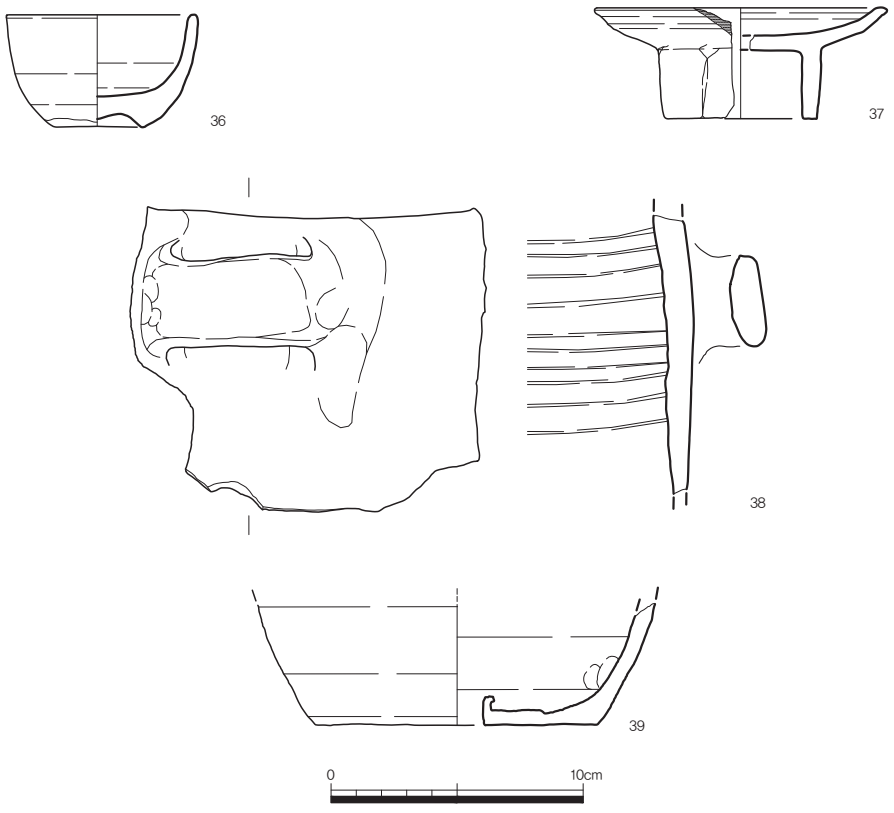
암키와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갈색(2.5Y 5/2)이며, 속심은 황갈색(10YR 7/4)이다.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고 하단부는 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3/5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3.0㎝, 잔존폭 16.0㎝, 두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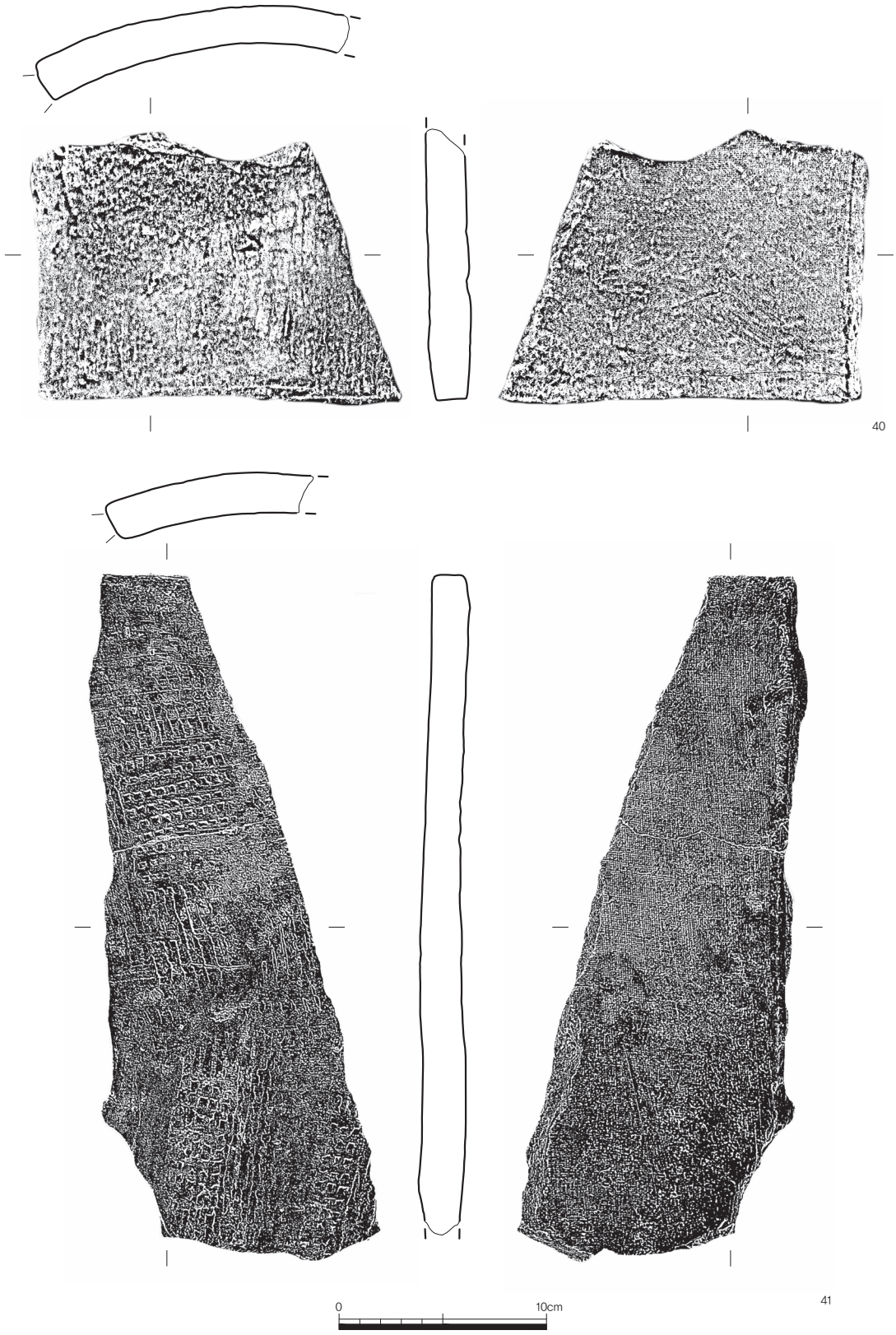
41. 암키와편(도면 25, 도판 10-41)

암키와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 및 석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회청색(7.5Y 5/1)이며, 속심은 연회갈색(2.5Y 5/2)이다. 외면에는 종방향과 사방향의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1/2정도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33.1㎝, 잔존폭 11.5㎝, 두께 1.6~2.0㎝



도면 24. 지표수습유물1



도면 25. 지표수습유물2

Ⅳ. 조사성과

이번 발굴조사는 이종갑氏의 단독주택 신축부지인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52-2번지 일원(404.6㎡ 中 발굴조사지역 180㎡)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발굴조사결과,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적심유구 3기, 구상유구 1기, 수혈유구 21기 등 총 25기의 생활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 대한 입회조사는 (재)비전문화유산연구원에서 2018년 8월 15일에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문화층과 그 위로 조선시대 건물지의 대지조성토 및 축대시설이 확인되어 유구가 확인된 조사지역 상단부 일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밀발굴조사는 (재)고운문화재연구원에서 전체 사업부지 중 상단부에 해당하는 180㎡에 대하여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실조사일수 10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층위는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상층에 있는 1문화층은 근대 가옥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층이며 그 하부에서 확인되는 2문화층은 조선시대문화층이다. 1문화층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2문화층에서 확인되는 유구는 조선시대 후기로 추정되는 적심유구 3기, 구상유구 1기, 수혈유구 21기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토기편 26점, 기와편 12점, 방추차 1점, 백자편 2점 등 총 41점(지표수습유물 6점 포함)이 확인되었다.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적심유구 3기의 폐기시점은 평면형태와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 등으로 볼 때 조선시대 중~후기로 판단되나 출토유물이 소략하여 구체적인 편년은 판단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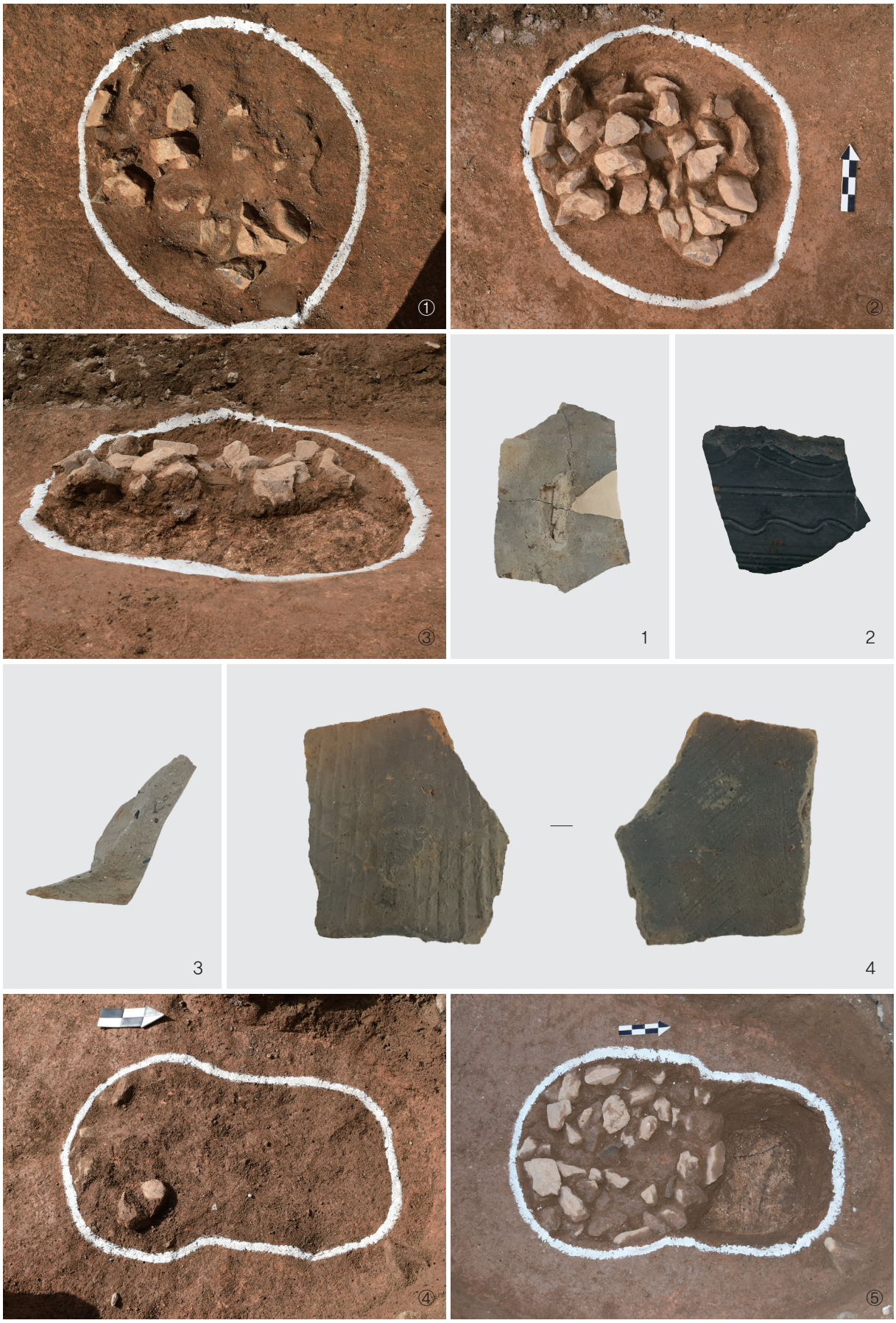
조사된 유구들은 개별유구의 규모 뿐만 아니라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잔존상태가 불량하였다. 이러한 문화층(유구)의 훼손은 선대(先代)문화층과 차이가 없는 층위에서 후대(後代)문화층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2문화층인 조선시대유구가 확인되는 층이 후대 근대가옥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층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발굴조사에서는 협소한 조사면적과 상부의 현대가옥 등으로 인한 훼손 등 제반조사여건이 양호하지 않았으나, 조선시대문화층이 확인되었고 유물도 확인된 유구와 관련되어 출토되었다. 또한 추후 본 조사지역 주변으로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본 조사유구와 관련되어 추가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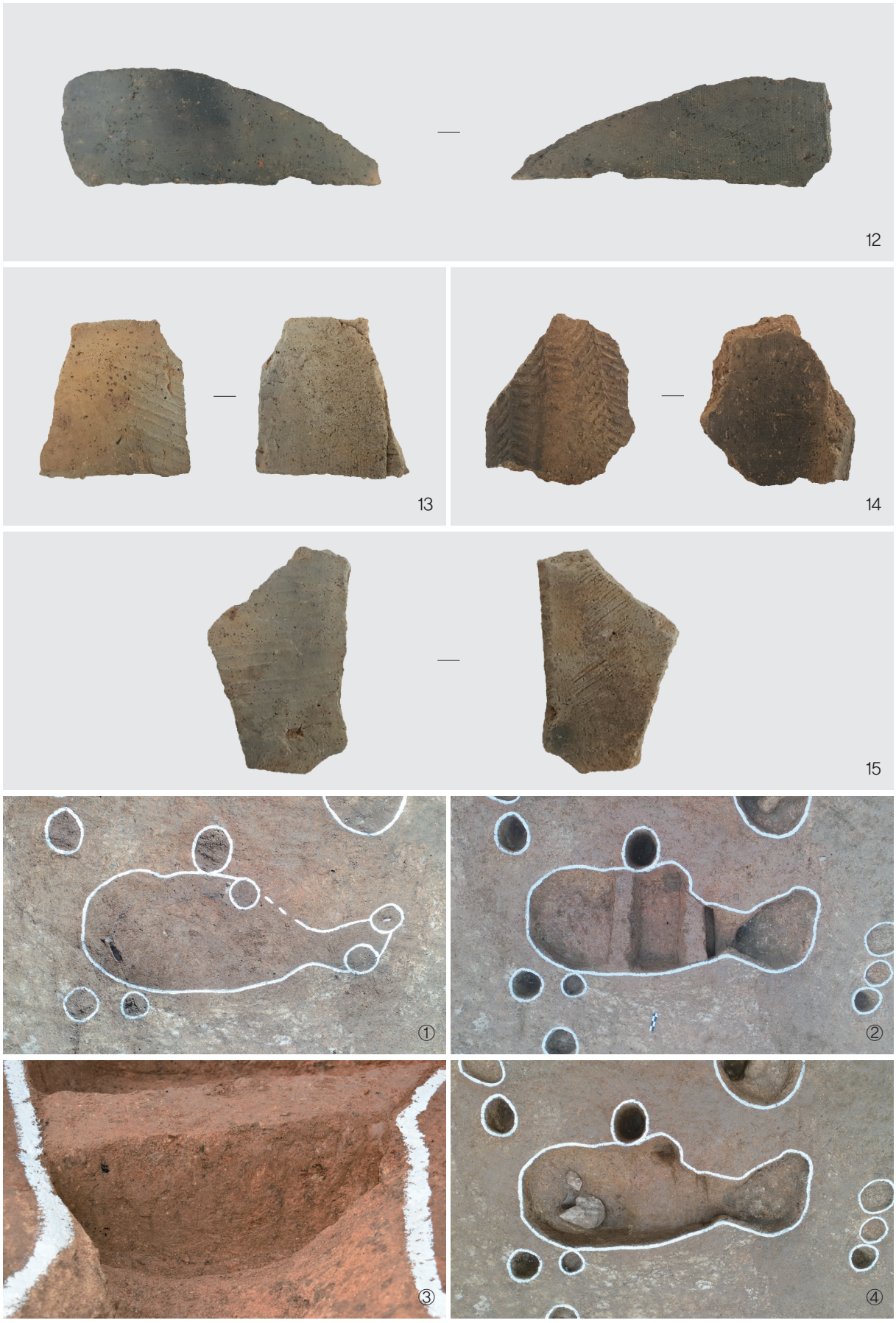
도판 1. 발굴조사대상지(①조사전,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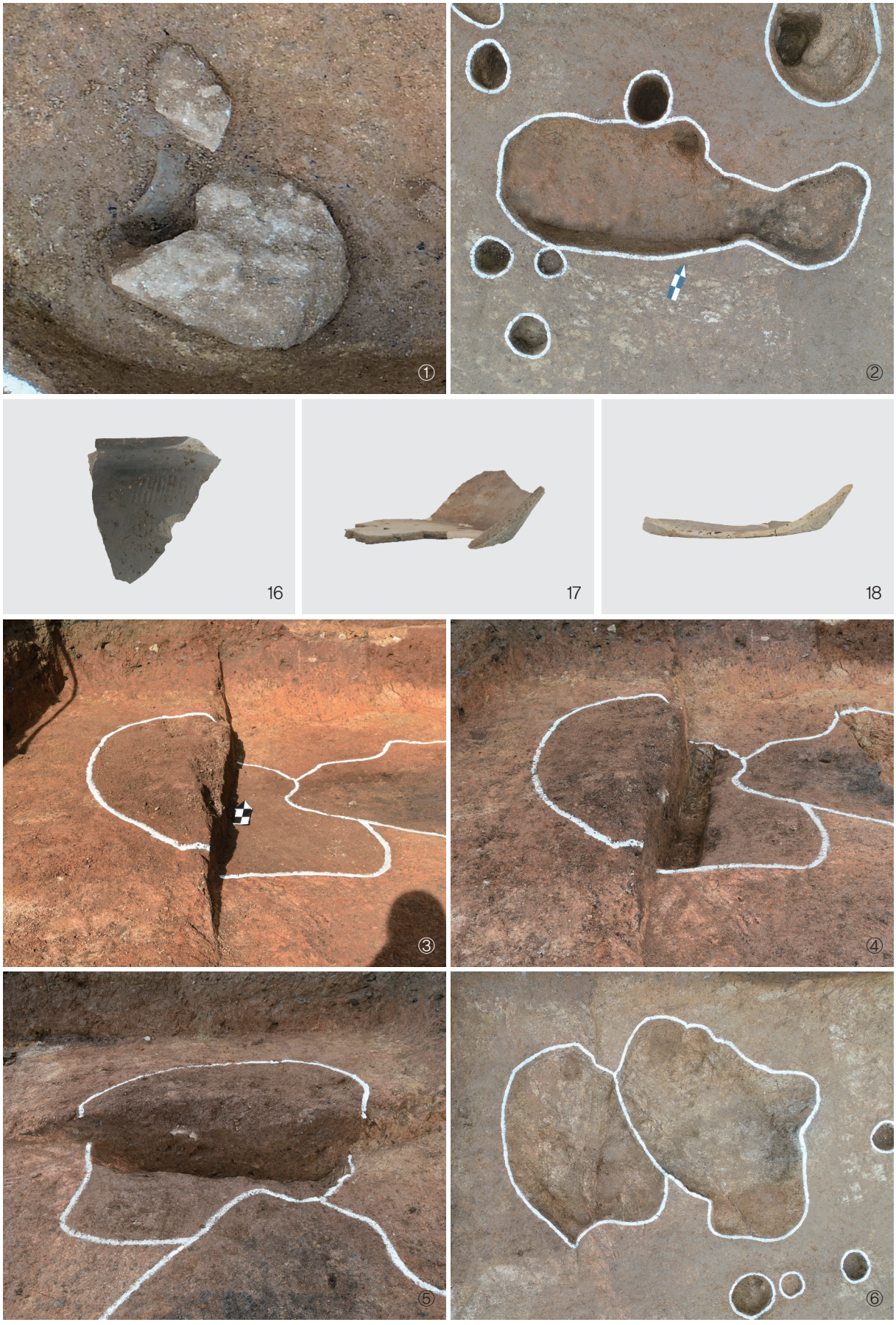
도판 2. 적심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토층, 1~4:출토유물), 적심유구 2호(④조사전, ⑤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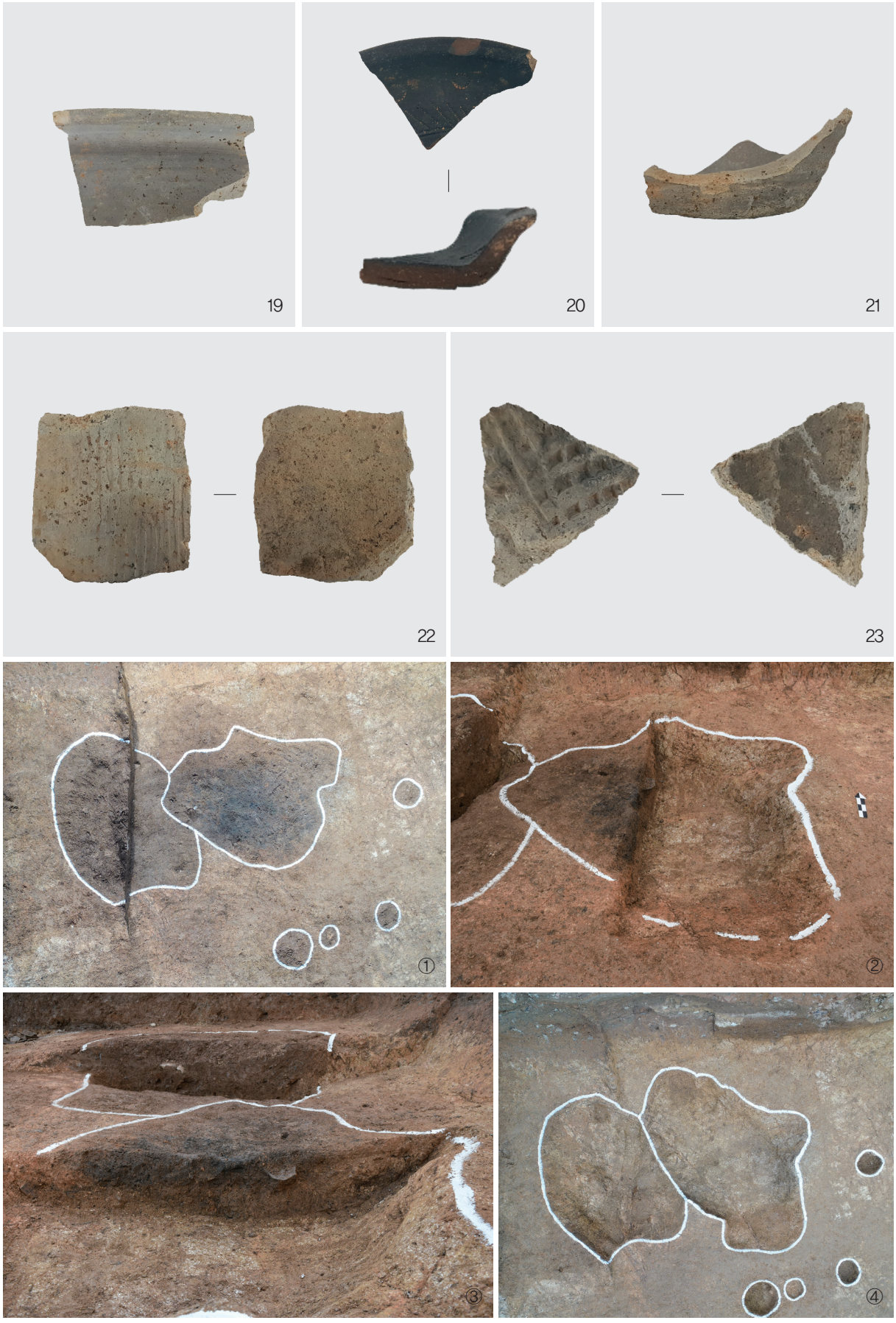
도판 3. 적심유구 2호(①토층, 5~7:출토유물), 3호(②조사전, ③조사중, ④조사후, ⑤토층, 8~11:출토유물1)



도판 4. 적심유구 3호(12~15:출토유물2), 구상유구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1, ③토층, ④조사중2)



도판 5. 구상유구 3호(①유물출토상태, ②조사후, 16~18:출토유물), 수혈유구 1호(③조사전,④조사중, ⑤토층, ⑥조사후)



도판 6. 수혈유구 1호(19~23:출토유물),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후)





도판 7. 수혈유구 2호(24~32:출토유물), 3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4호(④조사전, ⑤조사중, ⑥조사후)



도판 8. 수혈유구 5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6호(④조사중, ⑤조사후, ⑥토층), 7호(⑦조사중, ⑧조사후, ⑨토층, 33: 수습유물), 8호(⑩조사중, ⑪조사후, ⑫토층, 34:수습유물), 9 · 10호(⑬조사중, ⑭조사후, ⑮9호토층, ⑯10호토층)



도판 9. 수혈유구 11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④12 · 13호 조사전, ⑤12호 조사후,⑥13호 조사후, 14호(⑦조사중, ⑧조사후, 35:수습유물), 15호(⑨조사중, ⑩조사후, ⑪토층), 16호(⑫조사중, ⑬조사후, ⑭토층), 17호(⑮조사중, ⑯조사후, ⑰토층)



도판 10. 수혈유구 18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토층), 19 · 20 · 21호(④조사중, ⑤조사후, ⑥19호 토층, ⑦21호 토층), 지표수습 유물(38~41)



도판 11. 1차 학술자문회의(①~②), 2차 학술자문회의(③~④)

공주 교동 52-2번지 외 2필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비고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8-1408-0001	동체부편	1	적심1호	토도	조선	11.2	·	(0.6~1.0)	9-1 2-1	
2018-1408-0002	동체부편	1	적심1호	토도	조선	6.7	·	(0.8~1.2)	9-2 2-2	
2018-1408-0003	저부편	1	적심1호	토도	조선	6.0	·	(0.8~1.5)	9-3 2-3	
2018-1408-0004	암키와편	1	적심1호	토도	조선	(8.7)	(7.7)	(1.3~1.6)	9-4 2-4	
2018-1408-0005	구연부편	1	적심2호	토도	조선	4.7	·	(0.6~0.8)	10-5 3-5	
2018-1408-0006	저부편	1	적심2호	토도	조선	5.9	·	(0.7~1.0)	10-6 3-6	
2018-1408-0007	암키와편	1	적심2호	토도	조선	(7.2)	(5.3)	(1.5)	10-7 3-7	
2018-1408-0008	동체부편	1	적심3호	토도	조선	7.1	·	(0.5~0.6)	12-8 3-8	
2018-1408-0009	동체부편	1	적심3호	토도	조선	16.5	·	(1.3~1.8)	12-9 3-9	
2018-1408-0010	저부편	1	적심3호	토도	조선	3.5	·	(0.5~1.1)	12-10 3-10	
2018-1408-0011	저부편	1	적심3호	토도	조선	8.3	·	26.6 (0.8~1.6)	12-11 3-11	
2018-1408-0012	암키와편	1	적심3호	토도	조선	(6.2)	(18.0)	(1.7)	13-12 4-12	
2018-1408-0013	암키와편	1	적심3호	토도	조선	(7.2)	(6.2)	(1.5)	13-13 4-13	
2018-1408-0014	암키와편	1	적심3호	토도	조선	(9.8)	(8.0)	(1.5)	13-14 4-14	
2018-1408-0015	암키와편	1	적심3호	토도	조선	(10.3)	(6.3)	(1.8)	13-15 4-15	
2018-1408-0016	구연부편	1	구상1호	토도	조선	8.1	·	(0.6~0.8)	14-16 5-16	
2018-1408-0017	저부편	1	구상1호	토도	조선	7.1	·	26.4 (0.6~0.9)	14-17 5-17	
2018-1408-0018	저부편	1	구상1호	토도	조선	4.6		26.0 (0.6~0.8)	14-18 5-18	
2018-1408-0019	구연부편	1	수혈1호	토도	조선	5.1	·	(0.7~0.9)	16-19 6-19	
2018-1408-0020	반편	1	수혈1호	토도	조선	1.6	·	(0.3~0.9)	16-20 6-20	
2018-1408-0021	저부편	1	수혈1호	토도	조선	5.2	·	10.7 (0.6~0.9)	16-21 6-21	

2018–1408–0022	암키와편	1	수혈1호	토도	조선	(9.2)	(8.4)	(1.6)	16–22 6–22	
2018–1408–0023	암키와편	1	수혈1호	토도	조선	(4.6)	(4.0)	(1.4~1.6)	16–23 6–23	
2018–1408–0024	구연부편	1	수혈2호	토도	조선	4.0	15.2	(0.6~0.8)	17–24 7–24	
2018–1408–0025	구연부편	1	수혈2호	토도	조선	7.4	·	(0.6~0.9)	17–25 7–25	
2018–1408–0026	구연부편	1	수혈2호	토도	조선	7.4	32.4	(0.7~0.8)	17–26 7–26	
2018–1408–0027	동체부편	1	수혈2호	토도	조선	9.6	·	(0.8~1.0)	17–27 7–27	
2018–1408–0028	동체부편	1	수혈2호	토도	조선	5.1	·	(0.7~0.9)	17–28 7–28	
2018–1408–0029	저부편	1	수혈2호	토도	조선	11.5	·	13.0 (0.6~1.1)	17–29 7–29	
2018–1408–0030	암키와편	1	수혈2호	토도	조선	(9.0)	(14.0)	(2.0~2.4)	18–30 7–30	
2018–1408–0031	암키와편	1	수혈2호	토도	조선	(6.4)	(6.3)	(1.8~2.0)	18–31 7–31	
2018–1408–0032	방추차	1	수혈2호	토도	조선	(3.0)	·	(0.8~0.9)	18–32 7–32	
2018–1408–0033	구연부편	1	수혈7호	토도	조선	3.1	·	(0.3~0.5)	20–33 8–33	
2018–1408–0034	동체부편	1	수혈8호	토도	조선	9.8	·	(0.8~1.0)	21–34 8–34	
2018–1408–0035	반편	1	수혈14호	토도	조선	3.4	17.0	(0.3~0.9)	23–35 9–35	
2018–1408–0036	백자 잔	1	수습	자기	조선	4.5	7.5	3.5 (0.4~0.8)	24–36 10–36	
2018–1408–0037	백자 제기 접시	1	수습	자기	조선	4.5	11.6	6.0 (0.4~0.7)	24–37 10–37	
2018–1408–0038	동체부편	1	수습	토도	조선	11.3	·	(0.4~1.1)	24–38 10–38	
2018–1408–0039	저부편	1	수습	토도	조선	4.8	·	11.2 (0.6~0.8)	24–39 10–39	
2018–1408–0040	암키와편	1	수습	토도	조선	(13.0)	(16.0)	(2.0)	25–40 10–40	
2018–1408–0041	암키와편	1	수습	토도	조선	(33.1)	(11.5)	(1.6~2.0)	25–41 10–41	

調査報告書 抄錄

<table>
<tr><td>報告書名</td><td colspan="3">공주 교동 52-2번지 외 2필지 유적</td><td>發行日</td><td>2020年 11月 27日</td></tr>
<tr><td rowspan="3">發刊機關</td><td>名稱</td><td colspan="4">고운문화재연구원</td></tr>
<tr><td>住所</td><td colspan="4">(31447)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217-1, 2층</td></tr>
<tr><td>TEL</td><td colspan="2">(041)534-9420</td><td>FAX</td><td>(041)534-9421</td></tr>
<tr><td>執筆·編輯者</td><td colspan="5">김경범 · 오운형 · 최선애 · 이정님 · 김남덕 · 이다은</td></tr>
<tr><td>調査緣由</td><td colspan="5">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td></tr>
<tr><td>發掘調査者</td><td colspan="5">김경범 · 최선애 · 이정님 · 이다은</td></tr>
<tr><td>遺蹟所在地番</td><td colspan="5">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52-2번지 외 2필지</td></tr>
<tr><td>調査面積</td><td colspan="5">180㎡</td></tr>
<tr><td>遺構種別</td><td>時代 및 年代</td><td>類型 및 基數</td><td colspan="2">重要遺物</td><td>特記事項</td></tr>
<tr><td>적심유구</td><td>조선</td><td>3기</td><td colspan="2">경질토기편, 암키와편</td><td></td></tr>
<tr><td>구상유구</td><td>조선</td><td>1기</td><td colspan="2">경질토기편</td><td></td></tr>
<tr><td>수혈유구</td><td>조선</td><td>21기</td><td colspan="2">경질토기편, 암키와편</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able>

114. 포항 만석리 82번지 유적

(재)세종문화재연구원

목 차

Ⅰ. 조사개요 …… 114 -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14-10

Ⅲ. 조사내용 …… 114-17
1. 조사방법과 유적층위 …… 114-17
1) 조사방법 …… 114-17
2) 유적층위 …… 114-19
2. 발굴조사 …… 114-25
1) 공방지 …… 114-25
2) 건물지 …… 114-36
3) 수 혈 …… 114-39
4) 지표수습유물 …… 114-47

Ⅳ. 조사성과 …… 114-48

부록…… 114-85
1. 포항 만석리 82번지 유적 출토유물 목록…… 114-86

도 면 목 차

도면 1. 유적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①(S=1/25,000, 2014년) …… 114-13
도면 2. 유적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②(S=1/25,000, 1915년) …… 114-14
도면 3. 유적 위치 및 지형도(S=1/5,000) …… 114-15
도면 4. 유적 위치 및 지번도(S=1/300) …… 114-16
도면 5. 입회조사 현황도(S=1/500) …… 114-18
도면 6. 유구배치도(S=1/200) …… 114-20
도면 7. 유적 표준층위(S=1/60) …… 114-21
도면 8.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평면도 및 단면도(S=1/60) …… 114-23
도면 9.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수혈 1~9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 114-26
도면 10.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수혈 10~18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 114-27
도면 11.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수혈 19~27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 114-28
도면 12.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수혈 28~31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 114-29
도면 13. 통일신라시대 공방지내 수습유물(1~15) …… 114-32
도면 14. 통일신라시대 공방지내 수습유물(16~18) …… 114-35
도면 15.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 114-37
도면 16. 통일신라시대 건물지내 수습유물(19~21) …… 114-38
도면 17. 통일신라시대 수혈 1~9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 114-42
도면 18. 통일신라시대 수혈 10~18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 114-43
도면 19. 통일신라시대 수혈 19~28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 114-44
도면 20. 통일신라시대 수혈 29~38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 114-45
도면 21. 통일신라시대 수혈 39~45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 114-46
도면 22. 통일신라시대 수혈 46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 114-47
도면 23. 지표수습유물(22) …… 114-47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원경(①S→N), 조사대상지 근경(②SE→NW) …… 114-53
도판 2. 조사전 전경(①SE→NW, ②SW→NE, ③NE→SW, ④NW→SE,) 및 발굴조사 조사 완료후 전경(⑤) …… 114-54
도판 3. 조사중 중심 남북토층(①직상방, ②SW→NE, ③ · ④세부) …… 114-55
도판 4. 유적 중심 남북토층 세부(①~④) …… 114-56
도판 5. 공방지 상부 'T' 자형 토층둑 전경(①) 및 남북토층 전경(②S→N, ③W→E) …… 114-57
도판 6. 공방지 상부 남북토층 세부(①~③) …… 114-58
도판 7. 공방지 상부 남북토층 세부(①~④) 및 동서토층 전경(⑤SW→NE, ⑥E→W) …… 114-59
도판 8. 공방지 상부 동서토층 세부(①~⑤) …… 114-60
도판 9. 공방지 상부 동서토층 세부(①~⑤) …… 114-61
도판 10. 공방지 전경(①직상방)과 세부(②배수구와 석축부) …… 114-62
도판 11. 공방지 석축 세부(①~④) …… 114-63
도판 12. 공방지 석축부내 유물 출토상태(①~⑧) …… 114-64
도판 13. 공방지 석축부 단면상태(①단면 1, ②단면 2, ③단면 3) …… 114-65
도판 14. 공방지내 수혈군 전경(①) 및 수혈 전경(②1호, ③2호, ④3호, ⑤4호) …… 114-66
도판 15. 공방지내 수혈 전경(①5호, ②5호 토층, ③6호, ④7호, ⑤8호, ⑥9호, ⑦10호, ⑧11호) …… 114-67
도판 16. 공방지내 수혈 전경(①12호, ②13호, ③14호, ④15호, ⑤16호, ⑥17호, ⑦18호, ⑧19호) …… 114-68
도판 17. 공방지내 수혈 전경(①20호, ②21호, ③22호, ④23호, ⑤24호, ⑥25호, ⑦26호, ⑧27호) …… 114-69
도판 18. 공방지내 수혈 전경(①28호, ②29호, ③30호, ④31호), 공방지내 수습유물(1~4) … 114-70
도판 19. 공방지내 수습유물(5~12) …… 114-71
도판 20. 공방지내 수습유물(13~17) …… 114-72
도판 21. 공방지내 수습유물(18), 건물지 직상방 전경(①) …… 114-73
도판 22. 건물지 전경(①E→W, ②S→N) …… 114-74
도판 23. 건물지 직상방 전경(①), 기단부 전면 세부(②·③S→N) …… 114-75
도판 24. 건물지 종단면 토층(①전경, ②세부), 기단부 측면 전경(③) 및 추정적심부(④·⑤) … 114-76
도판 25. 건물지 적심1 단면(①), 적심 2 주변 단면(②~④), 건물지 구 전경(⑤) …… 114-77
도판 26. 건물지 구 단면토층(①), 건물지 수습유물(19~21) …… 114-78
도판 27. 수혈 조사완료 전경(①1호, ②2호, ③3호, ④4호, ⑤5호, ⑥6호, ⑦7호, ⑧8호) … 114-79
도판 28. 수혈 조사완료 전경(①9호, ②10호, ③11호, ④12호, ⑤13호, ⑥14호, ⑦15호, ⑧16호) …… 114-80

도판 29. 수혈 조사완료 전경(①17호, ②18호, ③19호, ④20 · 21호, ⑤22호, ⑥23호, ⑦24호, ⑧25호) …… 114-81
도판 30. 수혈 조사완료 전경(①26호, ②27호, ③28호, ④29호, ⑤30호, ⑥31·32호, ⑦33호, ⑧34호) …… 114-82
도판 31. 수혈 조사완료 전경(①35호, ②36호, ③37호, ④38호, ⑤39호, ⑥40호, ⑦41호, ⑧42호) …… 114-83
도판 32. 수혈 조사완료 전경(①43호, ②44호, ③45호, ④ · ⑤46호), 지표수습유물(22) … 114-84

Ⅰ. 조사개요

본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82번지에 해당한다. 이곳은 최광호씨(개인)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자는 상기 부지에 대한 건물신축을 위하여 포항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검토의견 회신[포항시 문화예술과-13478호, 2018. 9. 3.]을 통해 당 신청부지는 포항문화유적분포지도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포항 반곡리고분군)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의 건축시행에 앞서 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관이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의 유존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포항시청의 회신결과에 따라 건축주인 최광호씨는 (재)화랑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입회조사를 실시(2018년 9월 18일)하였고 그 결과로 "제1트렌치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제2트렌치 전체에 걸쳐 유구가 확인되었다. 2트렌치에서 노출된 유구는 수혈유구와 석군 등이며 규모는 트렌치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유물은 대체로 삼국시대 경질토기 및 연질토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유구의 정확한 성격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행 이전에 반드시 이번 조사지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조사기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1].

이에 최광호씨는 본 부지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정밀발굴조사를 (재)세종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였고, 본 연구원에서는 유적의 성격규명과 보존 ·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나아가 고고학적인 기초 학술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18년 11월 19일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12월 7일까지 실조사 15일간의 일정으로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밀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1동과 건물지 1동, 수혈 46기 등 모두 48기의 유구와 병 구연부편, 덧띠무늬병 저부편, 병 저부편, 토기 저부편, 파수부편, 연화병 범편, 수키와편, 암키와편, 병 견부편, 동이 구연부편 등 모두 2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정밀발굴조사 중인 2018년 12월 6일에는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내용의 검토와 함께 조사 후 향후 유적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였다[2].

정밀발굴조사 완료 후 본 연구원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포항 만석리 82번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완료신고를 하였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에 포항 만석리 82번지 유적 발굴조사 완료신고를 하였고, 이에 문화재청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 보존을 철저히 하고, 건설공사 시행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 규정을 준수하라."는 발굴조사 완료조치 통보(발굴제도과-14985호, 2018. 12. 20.)가 있었다.

이상의 본 발굴조사 경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

1) (재)화랑문화재연구원, 2018. 9, 「포항 북구 신광면 만석리 82번지 입회조사 결과서」.

2)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8. 12, 『포항 만석리(8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국비지원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표 1】 조사경과 내용

구분	항 목	기 간	내 용
1	건축신고 검토내용 회신	2018년 9월 3일	문화예술과-13478호. '반곡리고분군'에 해당. 입회조사 필요 의견 제시.
2	입회조사 -(재)화랑문화재연구원	2018년 9월 18일	760㎡ 조사, 제2트렌치에서 유구확인. 조사지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실시 의견 제시.
3	소규모 국비지원 정밀발굴조사 의뢰	2018년 11월	최광호(개인) → (재)세종문화재연구원
4	문화재청 발굴허가	2018년 11월 12일	허가 제2018-1405호(실조사일수 15일) 면적 : 760㎡
5	국지비원 정밀발굴조사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8년 11월 19일 ~ 2018년 12월 7일	760㎡에 대한 조사 실시.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1기, 건물지 1동, 수혈 26기 확인.
6	학술자문회의	2018년 12월 6일	조사를 마무리 하고 기록 · 보존토록 함. 행정절차 거쳐 예정된 공사 실시.

본 정밀발굴조사에 참여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단 장 : 김 창 억 (세종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박 달 석 (세종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유 병 록 (세종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 조 사 원 : 이 동 욱 (세종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 준 조 사 원 : 김 준 식 (세종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욱 현 (세종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양 성 민 (세종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신 상 백 (세종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정밀발굴조사 후 각종 관련 자료의 정리는 상기 조사원들이 담당하였고, 본 보고서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발굴조사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 및 유물의 관리는 도영아(세종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와 김은경(세종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담당하였으며, 금속유물의 보존처리는 권정순(세종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이 진행하였다. 그리고 조사계약 등 조사 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는 우리 연구원의 사무부 직원들이 수고하였다.

본 보고서의 발간작업은 현장조사를 담당하였던 이동욱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유물 실측 · 탁본, 유구 · 유물제도, 지도편집은 도영아 주도하에 임미정, 전수원, 송현희, 임경옥, 정지혜, 지시은(이상 보조요원)이 보조하였다. 각 부문별 분담업무에 대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 총　　괄 : 유병록
○ 연구기획 : 유병록 · 이동욱
○ 유물정리 · 복원 : 권정순, 양성민, 신상백
○ 유물실측 · 탁본 : 도영아, 김준식, 김욱현
○ 유물 · 유구제도 : 도영아, 양성민, 신상백, 김욱현
○ 유물 사진 촬영 : 도영아, 신상백, 이재영(향운사진연구소)
○ 도면편집 : 도영아, 유병록, 신상백
○ 도판편집 : 유병록, 신상백
○ 본문작성 : Ⅰ장 조사개요 – 유병록
Ⅱ장 유적의 위치와 현황 – 이동욱
Ⅲ장 조사내용 – 박달석, 유병록, 이동욱, 김준식, 김욱현, 양성민, 신상백
Ⅳ장 조사성과 – 유병록
○ 교　　정 : 유병록, 도영아
○ 교　　열 : 김창억, 박달석
○ 출　　판 : 유병록, 도영아

한편, 2019년 3월 28일에 이재환(경북대학교박물관), 김대욱(영남대학교박물관), 차순철(서라벌문화재연구원) 평가위원들과 선별회의를 개최하였다. 끝으로 본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최광호씨에게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3)]

유적이 위치한 포항지역은 영남지방의 동편에 위치하고, 만석리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포항시 신광면에 속해 있다. 신광면은 동쪽으로는 흥해읍 · 청하면, 서쪽으로는 기계면, 남쪽으로는 경주시 강동면, 북쪽으로는 죽장면과 접하고 있다. 면계를 따라 백악기 흑운모화강암을 주축으로 하는 산릉이 형성되어 있고 면 전체가 곡강천 상류의 유역 분지를 이루고 있다. 유역분지의 북서부는 해발고도 200m 이상의 개석산지이지만 남동부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뻗은 해발고도 100m 이상의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남동부 저지는 언양 단층선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구조선분지이다. 신광면의 서쪽으로는 비학산(761.5m)이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천령산(774.8m), 동쪽으로 내연산(920m)과 도음산(382.7m)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82번지로, 신광면사무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4㎞ 떨어져 있는 곳으로, '신광면사무소'에서 남쪽으로 약 20m 직진하면 '토성길 25번길'이 나온다. 이곳에서 우회전하여 약 148m를 이동한 후, 다시 우회전하여 약 210m를 이동하면 '비학로'와 합류한다. 이곳에서 '비학로'를 따라 청송 · 청하 방면으로 약 4㎞ 직진하면 좌측에 '포항신광온천'이 나오는데 조사지역은 '포항신광온천' 뒤편의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내연산(920m)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최말단의 가지능선 동쪽사면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주변은 내연산에서 뻗어 내린 최말단 가지능선들이 동편에 형성되어 있고 곡강천이 신광분지를 동쪽에서 감싸 안고 흐르고 있다. 조사지역의 지형은 북동-남서 방향의 낮은 구릉의 남동쪽 사면부로 조사 전 경작지(밭)로 이용되면서 거의 평탄면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포항의 역사는 넓게는 영일군(迎日郡), 좁게는 연일(延日)과 흥해(興海)를 모태로 하여 형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예부터 같은 생활 · 문화권속에서 행정적인 이합(離合)을 거듭하였다. 이 고장에 언제부터 인류가 거주하였는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영일만의 바닷가와 형산강(兄山江)을 끼고 있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일찍부터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기계면 구지리 · 화대리, 동해면 임곡리유적과 장기면 산서리 새터유적(후기구석기-B.C. 20,000년)이 알려져

---

3) 유적의 자연 · 지리적 환경과 고고 · 역사적 환경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자연 · 지리적환경-
한글학회, 1979, 『한국지명총람7』(경북편).
浦項市史編纂委員會, 1999, 『浦項市史』下.
浦項市 ·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2002, 『浦項文化遺蹟分布地圖』, 學術硏究叢書 31.
(財)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6, 『浦項 法光寺址-發掘調査中間報告Ⅲ』.
포항시청, 2018. 『2016~2018 시정백서』.
포항시청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kr).
-고고 · 역사적 환경-
(財)嶺南文化財硏究院, 1998, 『浦項玉城里古墳群Ⅰ · Ⅱ』.
國立慶州博物館, 2000, 『玉城里古墳群Ⅰ · Ⅱ · Ⅲ』.
(財)聖林文化財硏究院, 2010, 『浦項 世界里 新羅墓 · 高麗瓦窯群』.
문화재 GIS인트라넷 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있다. 임곡리유적[4]은 2000년과 2001년에 강원대학교박물관에서 동해안지역의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임곡리유적은 동해제일교회 뒤의 소규모 단구면에 입지하고 있고, 몸돌, 돌날 등이 수습되어 후기구석기단계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해 위덕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진 장기면 산서리 새터유적[5]에서는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혼펠스와 응회암제의 전형적인 후기구석기시대로 추정되는 돌날몸돌, 돌날, 긁개, 뚜르개, 찌르개 등이 출토되었다. 이후 신석기시대 유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후 청동기시대의 흔적은 주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고장 역사의 시원을 밝혀줄 실마리가 되고 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신광면의 '신광(神光)'은 "신라 제26대 진평왕이 법광사(法廣寺)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 비학산(飛鶴山, 해발 762m)에서 밝은 빗줄기가 찬란하게 뻗어 나와 이를 본 왕이 신령스러운 빛이라고 여기고, 이 지역을 '신광'이라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데서 유래하였다.

역사적으로 포항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서부터 보이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辰韓지역에 모두 12개의 소국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포항 일대에는 음즙벌국(音汁伐國)과 근기국(勤耆國)의 고지(故地)로 비정되고 있다. 신광면 흥곡리(당시에는 영일군 신광면 마조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晉率善穢佰長' 銘 동인(銅印)[6]은 이 지역에 예족(濊族)이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당시 소국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三國史》에서도 포항지역에 예족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7], 2세기 초엽에 사로국이 파사이사금에 이르러 근기국 등 소국을 병합하면서 영일, 울산 지역으로 세력을 뻗치기 시작한다. 신광면은 삼국시대 초기에는 동잉음현(東仍音縣, 神乙)이였으며,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757)에 신광현(神光縣)으로 개명하여 의창군의 영현이 되며, 이후 일어진(昵於鎭)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 태조 13년(930)에는 태조가 친히 행차한 후 신광진(神光鎭)으로 개칭, 현종 9년(1018)에는 경주부의 속현이 된다. 조선시대 정조 13년(1789)에는 면리제(面里制) 실시로 22리를 관할하는 신광면이 되어 경주부의 직속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며, 고종 32년(1895)에는 전국 행정단위 군제 개편시 경주군의 행정구역으로 동래부의 관할이 된다. 고종 33년(1896)에는 경주군의 행정구역으로 경상북도의 관할이 된다. 1906년에 경주군의 행정구역이었던 신광면이 흥해군으로 편입되고,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는 24리동을 관할하며 1914년에는 24동이 13동으로 통폐합된다. 현대에 이르러 1988년 동을 리로 개정하였으며, 1994년에 법정리 13리, 행정리 22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면서 포항시 북구에 속하게 된다.

조사지역은 『文化遺蹟分布地圖-浦項市-』에 등재되어 있는 '반곡리고분군'에 포함되어 된 곳으로, 고분군은 만석교를 건너 청하로 통하는 도로 서쪽의 구릉에 위치한다. 묘제는 수혈식석곽묘로 분묘의 대부분은 도굴되었다. 지표면에서는 호편, 고배 대각편, 자기편 등이 확인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조사지역의 동쪽으로 약 50m 떨어져 '포항 만석리 유물산포지'가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약 250m 떨어져 '포항 만석리 노거수 1', '포항 만석리 노거수 2', '포항 만석리 노거수 3'이 위치한다. 서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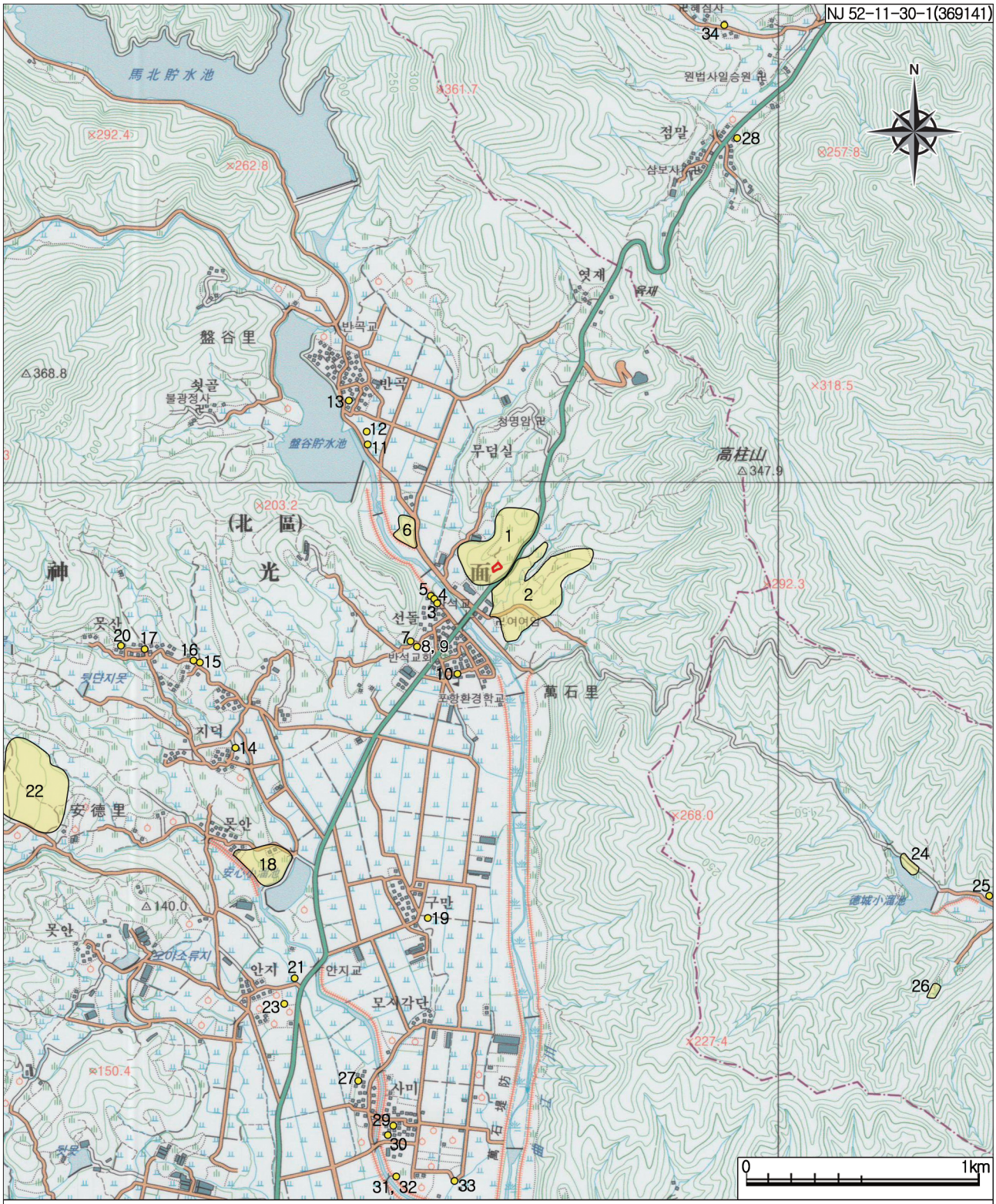
---

4) 홍영호 · 김상태, 2001, 「경북 동해안지역의 새로운 구석기 유적」, 『한국구석기학보』 3.
5) 威德大學校博物館, 2002, 「浦項 새터 舊石器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佛敎考古學』 第2號.
6) 韓國古代社會硏究所,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신라1 · 가야 편), p.217.
7) 신라본기 남해왕 16년조-2월 봄, 북명(北溟)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인장을 주워 바쳤다.

250m 떨어진 곳에는 '반곡리 유물산포지'가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450m 떨어진 곳에 '포항 만석리 노거수 4', '만석리 민속신앙유적2', '만석리 선돌', '포항 만석리 민치헌 선정비'가 위치한다. 북서쪽으로 약 750m 떨어진 곳에는 '반곡리 민속신앙유적'이 위치하며, 950m 떨어진 곳에서 '반곡리 편영복 묘'가 있다. 유적 주변 일대 유적에 대한 것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지역 주변유적 현황

유적 번호	유 적 명	행정구역	시대	유적성격	이격 거리
1	반곡리고분군	포항시 북구 신광면 반곡리 150번지 일원	삼국~ 통일신라	고분군	조사지역 포함
2	포항 만석리 유물산포지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155-2, 34-1 외	삼국 ~조선	유물 산포지	동쪽 50m
3	포항 만석리 노거수 1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164	조선	노거수	남서쪽 250m
4	포항 만석리 노거수 2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164	조선	노거수	남서쪽 250m
5	포항 만석리 노거수 3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164	조선	노거수	남서쪽 250m
6	반곡리 유물산포지	포항시 북구 신광면 반곡리 310	삼국 ~조선	유물 산포지	서쪽 250m
7	포항 만석리 노거수 4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802	조선	노거수	남서쪽 450m
8	만석리 민속신앙유적 2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2리 251-1	시대 미상	민속	남서쪽 450m
9	만석리 선돌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2리 251-1	시대 미상	민속	남서쪽 450m
10	포항 만석리 민치헌선정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272-11	시대 미상	선정비	남쪽 450m
11	반곡리 민속신앙유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반곡리 364-3	시대 미상	민속	북서쪽 750m
12	반곡리 편영복 묘	포항시 북구 신광면 반곡리 364-1	조선	분묘	북서쪽 9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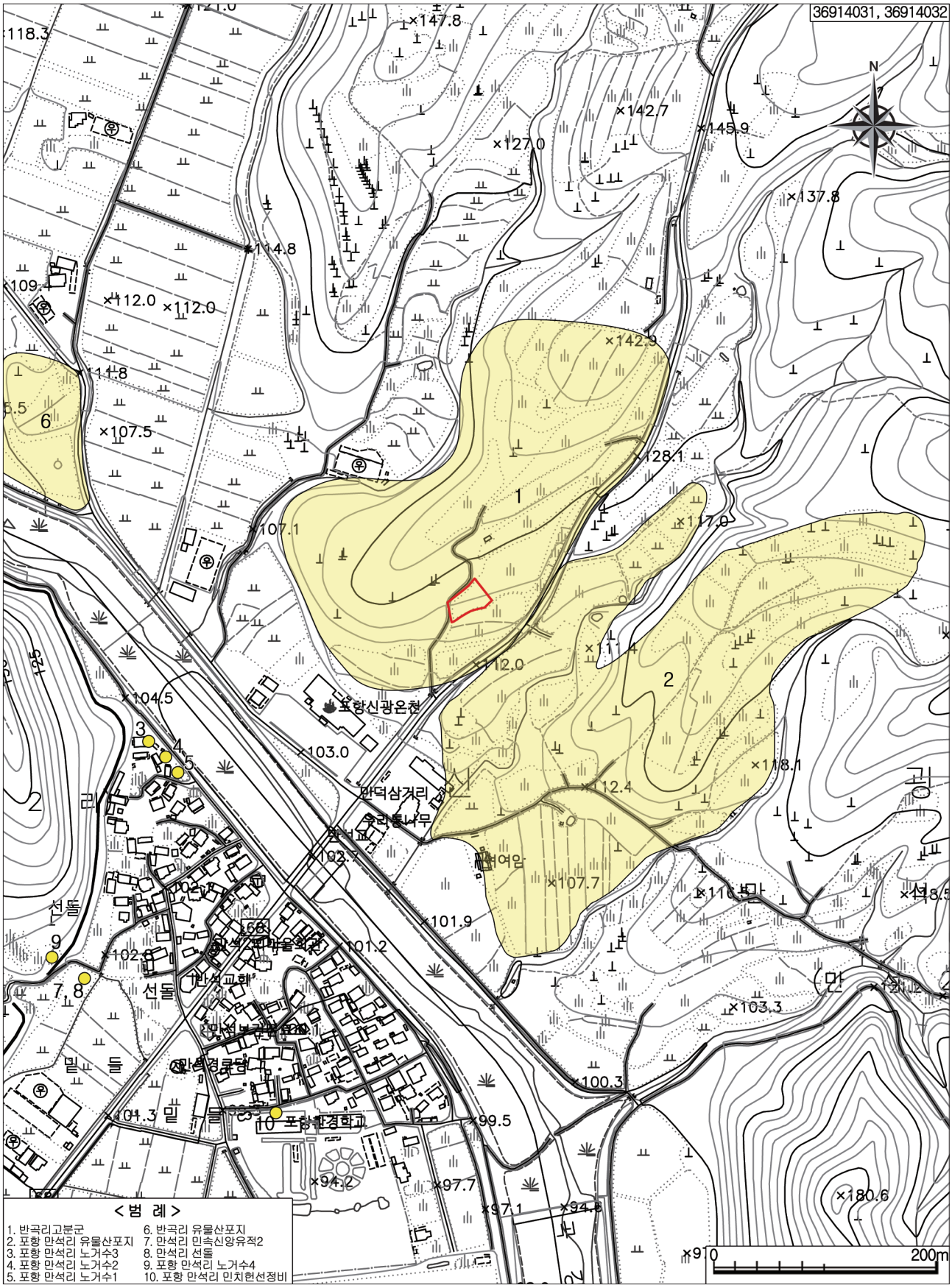
<범 례>

1. 반곡리고분군
2. 포항 만석리 유물산포지
3. 포항 만석리 노거수1
4. 포항 만석리 노거수2
5. 포항 만석리 노거수3
6. 반곡리 유물산포지
7. 포항 만석리 노거수4
8. 만석리 민속신앙유적2
9. 만석리 선돌
10. 포항 만석리 민치헌선정비
11. 반곡리 민속신앙유적
12. 반곡리 편영복 묘
13. 반곡리 휘문정
14. 안덕리 민속신앙유적2
15. 안덕리 와요지
16. 안덕리 성혈바위1
17. 안덕리 성혈바위2
18. 안덕리 유물산포지
19. 포항 만석리 민속신앙유적1
20. 반곡리 여강이씨 재실
21. 포항 안덕리 지정 보호수
22. 안덕리고분군
23. 안덕리 민속신앙유적1
24. 덕성리 분청사기요지1
25. 덕성리 담화정
26. 덕성리 토기요지
27. 사정리 죽헌정
28. 영안리 민속신앙유적
29. 사정리 락천정
30. 사정리 세헌정
31. 포항 사정리 군 보호수
32. 사정리 민속신앙유적
33. 사정리 주공가적보영세불망비
34. 영안리 숭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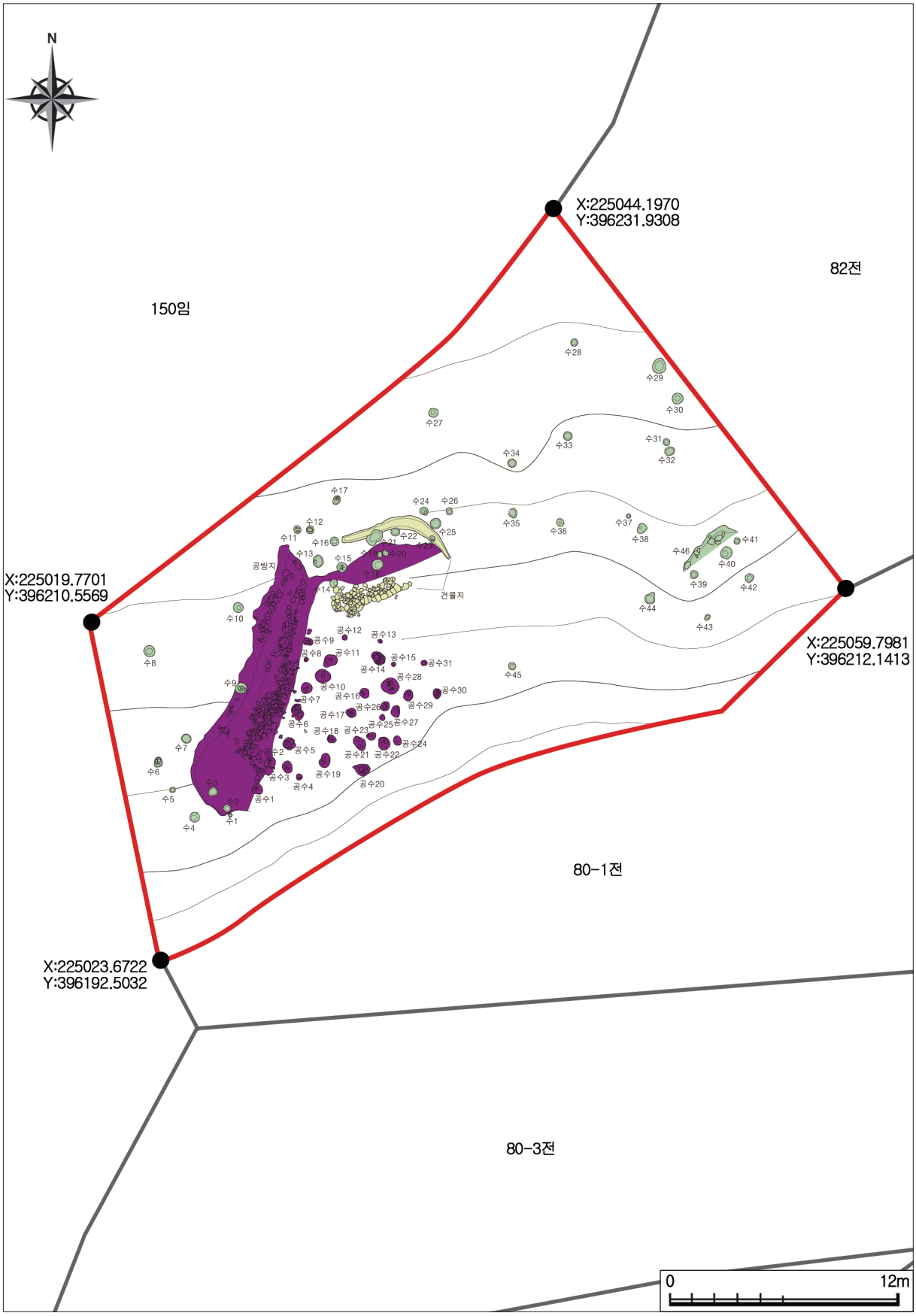
도면 1. 유적(□)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①(S=1/25,000, 2014년)



도면 2. 유적(□)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②(S=1/25,000, 1915년)



도면 3. 유적(□) 위치 및 지형도(S=1/5,000)



도면 4. 유적(□) 위치 및 지번도(S=1/300)

Ⅲ. 조사내용

1. 조사방법과 유적층위

1)조사방법

본 유적은 발굴조사에 앞서 2018년 9월 18일에 화랑문화재연구원에서 입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2트렌치에서 수혈유구와 석군 등이 확인되었고, 유물은 삼국시대 경질토기와 연질토기가 확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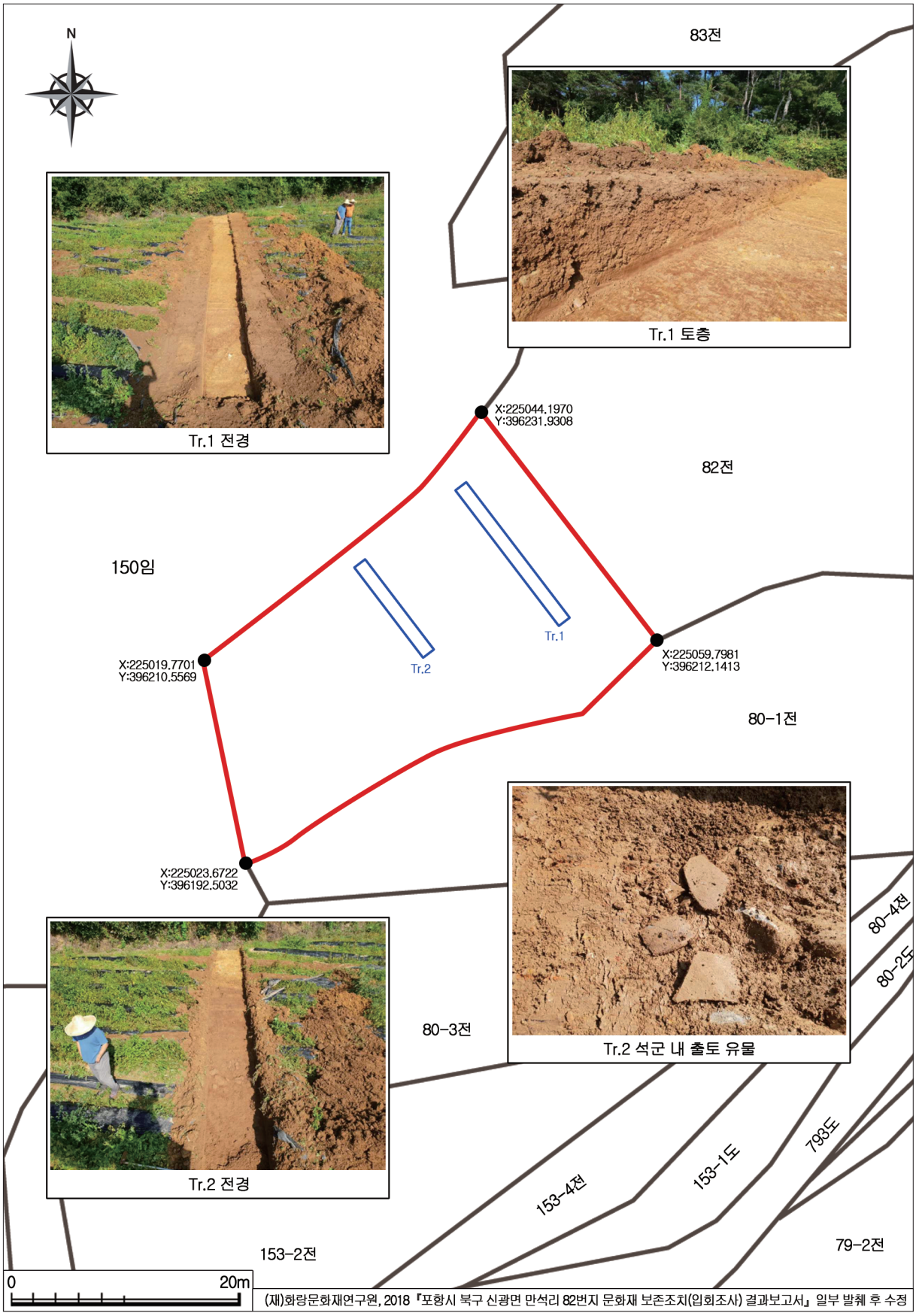
이후, 정밀발굴조사는 단독건물 신축대상부지인 760㎡를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실조사일수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평면상 북동-남서 약 40m, 북서-남동 약 25m의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자연적인 경사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나 현대 밭으로 평탄화되면서 그 비고차는 최고 2.5m 정도에 불과하다.

정밀발굴조사의 순서는 준비 및 착수→경작층 및 후대 복토층 제거→정밀제토 및 유구확인→유구 내부조사→조사기록, 실측, 사진촬영→보충조사 및 정리→조사완료 후 복토의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조사 착수 전 우선적으로 조사지역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동시에 조사 전 상태를 촬영 및 기록하였다. 조사 착수 후, 지난 9월의 입회조사 중 설치된 2개의 탐색트렌치 중 유구가 확인되었던 서쪽 트렌치상의 유구 확인면을 기준으로 그 상부층은 전면 제토하였다. 이 탐색트렌치는 조사대상지역의 중앙부에 해당되어 동쪽 벽면쪽 토층을 통해 본 유적의 전체적인 퇴적양상을 파악하였다.

제토작업은 조사지역의 서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도로 붕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사경계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굴착기(포크레인)를 이용해 퇴적토를 유구 직상면까지 제거한 다음, 인력으로 유구 확인과 노출작업을 실시하였다. 제토의 순서는 중앙토층부를 기준으로 서쪽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중앙토층의 파악 이후에는 나머지 동쪽부분까지 모두 제토하였다.

유구는 상부층 제거 후 바로 확인되어 유구 내부 조사와 함께 실측, 사진촬영, 기록 등 자료작성의 제반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다. 도면은 유구의 평면 · 단입면 · 배치도 등을 작성하였다. 사진촬영은 토층이나 유구 촬영 시에는 물을 분사하여 토색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였고, 유구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각도와 방식으로 촬영을 실시하여 유구의 평면형태 등을 보여주었다.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정확한 위치와 양상을 기록하여 수습하였고, 유물 수습 시 도면 표기와 유물에 동일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수습하였다. 유물은 수습한 후 유물목록을 작성하였고, 현장조사 중에 유물세척과 복원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조사 진행 과정은 조사기록지에 기록하였고, 전체 유구배치도에 표기하여 각 유구의 분포 양상과 이격거리 등을 파악하였다.



도면 5. 입회조사(□) 현황도(S=1/500)

2) 유적층위

조사지역에 대한 층서는 이전에 실시된 입회조사를 통해 수혈 및 석군 등이 확인된 바 있다. 현 표토 하 20㎝ 아래 기반층에서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및 석축, 기단건물지, 수혈 등의 유구가 확인된다. 표준층위는 조사구역의 중앙에 기준둑을 설치한 후 유적의 전체적인 퇴적양상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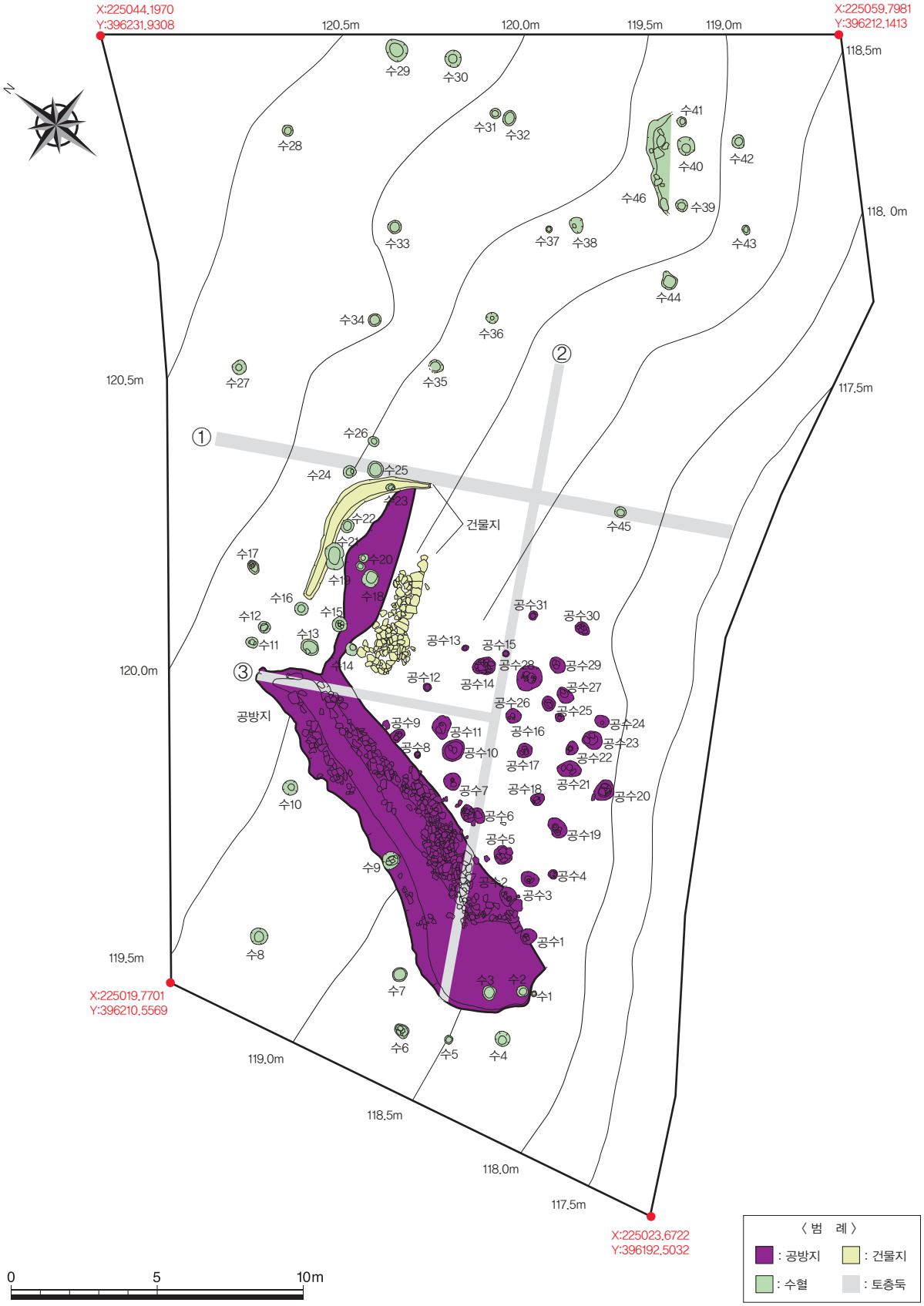
조사지역의 표준층위는 5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표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위에서부터 현대경작층에 해당하는 갈색사질토(細～中砂)와 황갈색사질토(細～粗砂) 아래에 통일신라시대 퇴적층인 갈색사질점토(소토 · 목탄 소량 혼입층)와 암갈색사질점토(소토 · 목탄 혼입층)의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적중심부에 해당하는 이 두 층은 〈표 4〉의 서쪽 공방지쪽 상부에 퇴적된 두 층과 연결할 수 있는 층으로 그 구성물에서 명확한 구분을 보이고 있다. 즉, 기반층인 명황갈색풍화암반 바로 상부에 소토와 목탄이 다량 혼입된 층위와 그 상부에 소토와 목탄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 공방지를 벗어난 유적중심 토층으로 갈수록 소토와 목탄의 양이 점차 줄어들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층위상으로는 연결된다. 기반층 바로 위층인 4층은 공방지 및 건물지의 폐기과정에서 퇴적된 것으로 보이며, 그 상부의 3층은 이곳의 폐기가 거의 완료된 이후 주위에서 유입된 흙과 기존 4층과 섞인 양상이다.

【표 3】 조사지역 표준층위(유적중심 남북)

해발	토층사진	토층내용
119.0m		1. 갈색사질토(현대경작층)
		2. 황갈색사질토(현대경작층)
		3. 갈색사질점토(공방지 매몰후 퇴적토)
118.5m		4. 암갈색사질점토(공방지 폐기후 퇴적토)
		5. 명황갈색풍화암반(기반층)

【표 4】 조사지역 표준층위(공방지 상부 동서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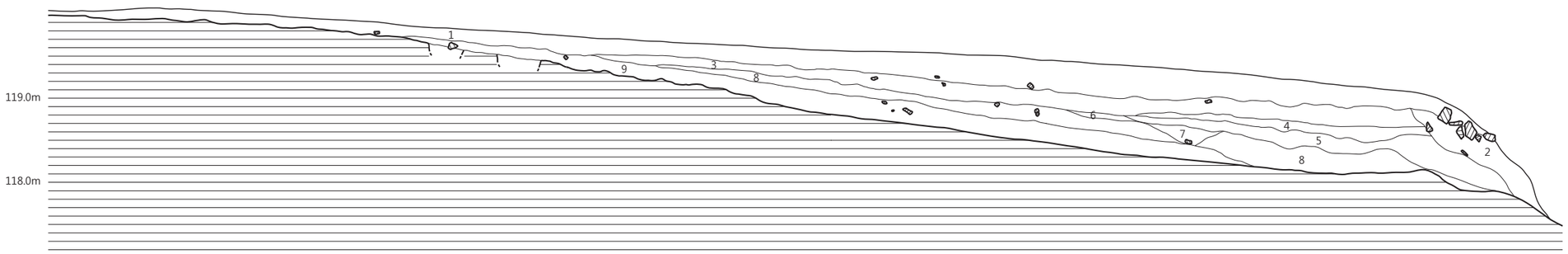
해발	토층사진	토층내용
119.0m		
		3. 갈색사질점토(공방지 매몰후 퇴적토)
		4. 암갈색사질점토(공방지 폐기후 퇴적토)
118.5m		5. 명황갈색풍화암반(기반층)



도면 6. 유구배치도(S=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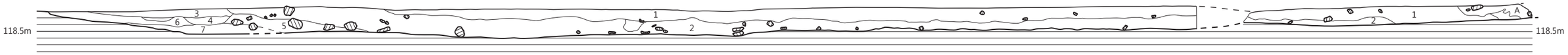
①

1층: 갈색사질토(Hue 10YR 4/4) : 세립~중립질 사, 일부 2층이 블록상으로 혼입, 현대경작층으로 부식토층에 가까움
2층: 명황갈색사질토(Hue 10YR 6/8) : 석재로 축대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하부에 채운 흙
3층: 황갈색사질토(Hue 10YR 4/4) : 세립~조립사, 크고 작은 자갈도 다소 많이 혼입, 주변 단순 유입 퇴적토, 현대층
4층: 암갈색사질토(Hue 10YR 3/4) : 세립사 중심, 일부 자갈이 혼입되어 있으나 대체로 입자가 균등함
5층: 등색사질토(Hue 7.5YR 6/6) : 세립사 중심으로 입자가 균일한 편, 약간의 점성
6층: 회갈색사질점토(Hue 10YR 4/2) : 점토~세립사 중심으로 약간의 점성
7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 점토~세립사 중심으로 약간의 점성
8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 점토~세립질 중심이며 약간의 점성, 소토와 목탄 소량 혼입
9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 점토~세립질 중심이며 약간의 점성, 소토와 목탄 혼입
10층: 풍화암반층 : 기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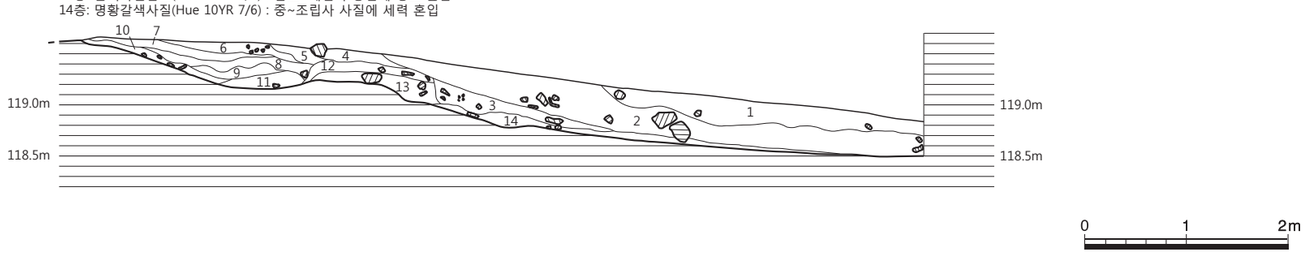
②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 점토~세립사 중심, 약간의 점성, 소토와 목탄 소량 혼입
2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 점토~세립사 중심, 약간의 점성, 소토와 목탄 다량 혼입
3층: 명적갈색사질점토(Hue 5YR 5/8) : 점토~세립사 중심, 치밀하고 경도 보통
4층: 명적갈색사질점토(Hue 5YR 5/6) : 점토~세립사 중심, 토성은 3층과 거의 유사
5층: 회황색사질점토(Hue 10YR 6/2) : 점토~세립사 중심, 경도 높음
6층: 회황갈색사질토(Hue 10YR 5/2) : 점토~조립사 중심, 세력도 포함
7층: 황등색사질점토(Hue 10YR 6/3) : 점토~중립사 중심, 일부 세력 혼입, 경도 높음
A층: 등색사질토(Hue 7.5YR 6/8) : 중~조립사에 세력이 다량 혼입, 유수 퇴적토



③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 세립사 중심, 약간의 점성, 소토와 목탄 소량 혼입
2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 세립사 중심, 약간의 점성, 소토와 목탄 다량 혼입
3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 세립사 중심, 경도 높음, 소토와 목탄 소량 혼입
4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 점토~세립사 중심, 상부로 가면서 회백색조가 강함
5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6) : 점토~세립사 중심, 소토 소량 혼입
6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 점토~세립사 중심, 회백색조가 강함
7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6) : 점토~세립사 중심에 경도 높음, 소토 소량 혼입
8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 점토~세립사 중심에 경도 높음
9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 8층과 토성은 거의 유사하며 회백색조 강함
10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 점토~세립사 중심, 경도 높음
1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 점토~세립사 중심, 경도 높음
12층: 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6) : 점토~중립사, 경도 보통
13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 점토~세립사 중심에 경도 높음
14층: 명황갈색사질(Hue 10YR 7/6) : 중~조립사 사질에 세력 혼입



도면 7. 유적 표준층위(S=1/60)



1층: 갈색사질토(Hue 10YR 4/4), 세~중립사 중심, 치밀도 낮고 단단함. 목탄과 소토 소량 혼입

도면 8.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평면도 및 단면도(S=1/60)

2. 발굴조사

1) 공방지

(1) 유구(도면 8~12, 사진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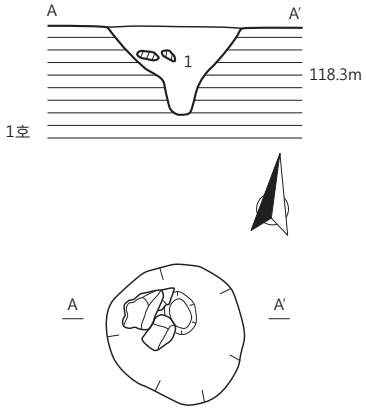
공방지는 유적의 남서쪽 사면의 해발 119m 선상에 위치한다. 공방지는 경사면 위쪽 등고방향과 유사한 남북으로 축조된 석축 배수시설과 그 아래쪽에 31개의 크고 작은 수혈들을 포함한 유구이다.

먼저 배수시설을 포함한 석축의 조성방식을 보면, 경사면 위쪽의 기반층을 단면 'U'자형의 溝狀으로 평면상 14.5m의 길이로 팠다. 북쪽 끝단은 마치 현재는 삭평된 경사면 위쪽 곡부와 이어지듯 돌출된 형태로 판 반면 남쪽 끝단은 굴착면이 弧狀을 띠며 동쪽으로 꺾인다. 북쪽부분의 배수구 바닥과 상부면과 40㎝에 이르는 비고차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차 높이차가 좁혀져 남쪽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북편으로는 배수구의 양 측면으로 석재를 쌓아 보강했는데 경사면 위쪽에 해당하는 측면으로는 길이 20~40㎝ 크기의 석축이 약 4m 정도만 확인될 뿐이고 대부분 반대편으로 집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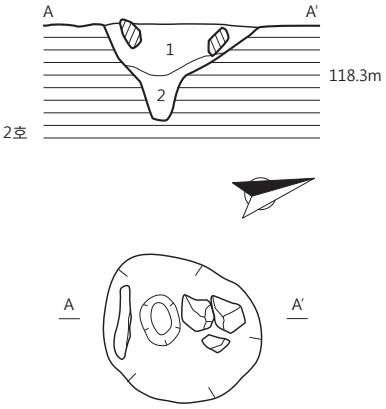
배수구 동편 석축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25°-E) 방향으로 정연하지는 않지만 배수구의 방향을 따라 길쭉하게 약 12.3m의 길이로 확인되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 석축의 폭은 넓어진다. 석축 북쪽은 약 70~80㎝의 폭으로 약 4m 진행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폭이 최대 약 150㎝까지 두 배 정도 넓어지는데 일부 동쪽 수혈군으로 면한 부분은 1~2단의 면이 맞추어진 부분도 확인된다. 이 석축이 쌓여진 부분이 그 동편 평탄면에 조성된 수혈군보다 약 40㎝의 비고차로 높다는 점과 온전히 수혈군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수혈군으로 이루어진 공방지 내부시설을 보호하는 배수시설로 판단된다.

배수구 및 석축시설 동편의 수혈군은 대체로 동서 4m, 남북 4m의 정방형 범위 내에 31개의 수혈이 밀집 분포하는데 석축의 저면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당시에도 거의 수평에 가까운 평탄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혈의 평면은 대체로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22~95㎝, 깊이는 11~56㎝로 다양하다. 수혈의 용도는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내부나 단면상태를 보았을 때 대부분은 토기를 제작하던 녹로축을 박았던 녹로축혈과 일부는 작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세웠던 시설의 주혈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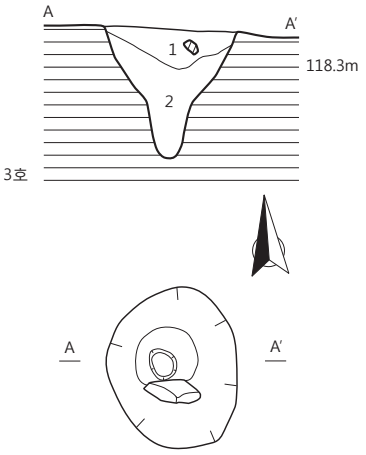
먼저 추정 녹로축혈은 모두 22기로 단면상으로 보면 'Y'자형과 'U'자형으로 나뉘고, 일부 중복 혹은 보수의 결과로 'W'자형도 있으며, 총 세가지 경우가 있다. 축혈 중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는 단면 'Y'자형은 깔데기형태와도 유사한데 모두 14기에 해당하고, 상부는 넓고 하부는 직경 10㎝ 내외 크기로 다시 좁게 파여진 이단굴광 구조를 보인다. 이는 녹로축을 고정하기 위해 하부는 실제 축이 박히는 부분인 바닥을 다시 좁게 판 것으로 보인다. 상부의 넓은 부분에는 축을 고정하기 위해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전부 혹은 일부 벽면에 크고 작은 돌들을 메운 것들도 있다. 이렇게 녹로축혈 내부에 하나 이상의 할석으로 보강한 구조가 전체 22기 중 16기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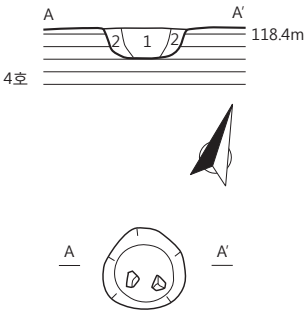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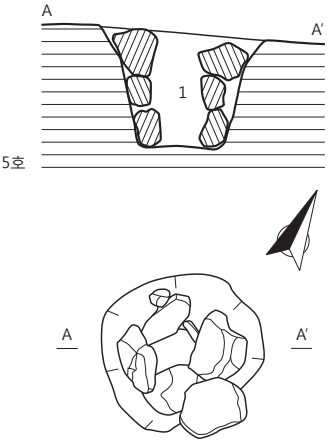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점토~세립사
중심에 목탄과 소토 혼입
2층: 명황갈색사질토(Hue 10YR 6/8), 세~중립사
중심에 경도 높음, 기반토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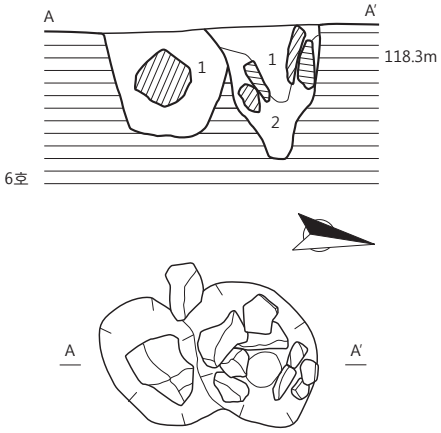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세립사
중심, 목탄 혼입
2층: 명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6/8), 점토~세립사
중심, 기반층과 거의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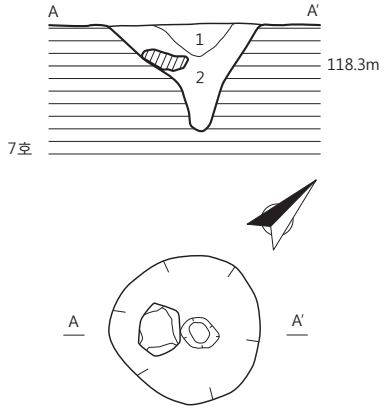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중립사, 일부 목탄흔
2층: 명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6/6),
기반층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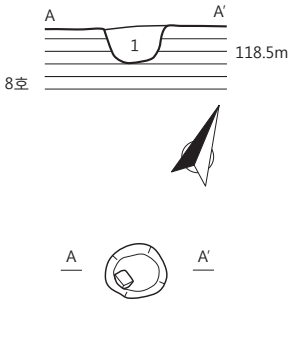
1층: 흑갈색사질점토(Hue 10YR 3/2),
점토~실트 중심, 목탄과 소토 다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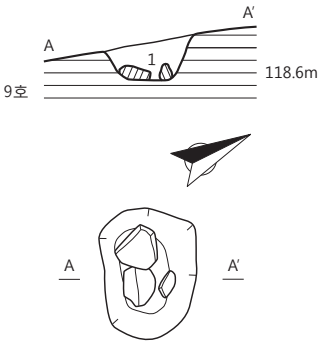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점토~세립사 중심,
소토와 목탄 다량 혼입
2층: 명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7/8), 점토~세립사 중심에
기반층과 유사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세립사
중심, 소토와 목탄 다량 혼입
2층: 명황갈색사질토(Hue 10YR 6/8), 실트~중립사
중심, 목탄 일부 혼입, 기반토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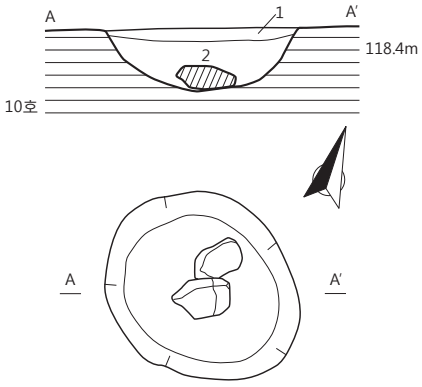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6),
점토~세립사 중심, 소토와 목탄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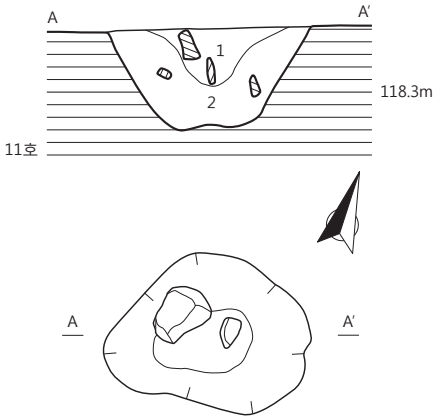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점성 보통, 밀도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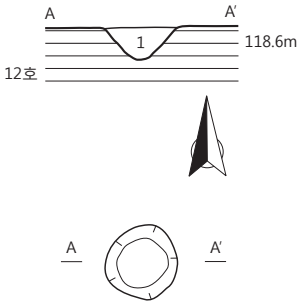
도면 9.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수혈 1~9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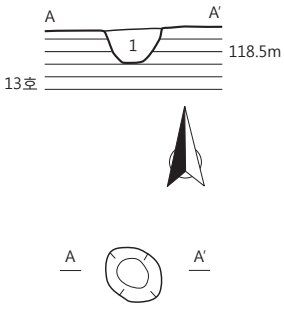
1층: 소토목탄혼입층
2층: 명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6/6), 사질성 강하고, 거의 기반층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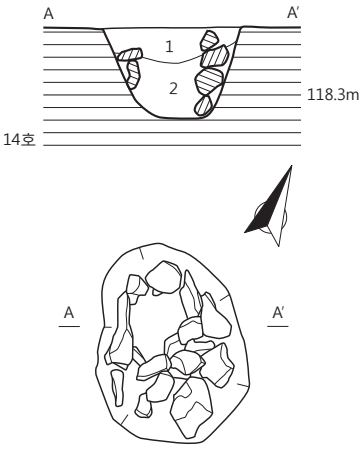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3), 점토~실트 중심, 목탄과 소토 혼입
2층: 명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7/6), 점토~세립사 중심, 기반층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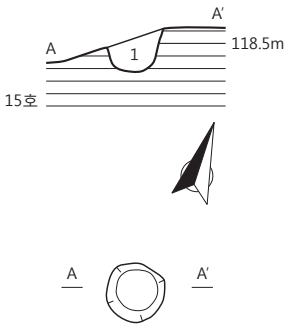
1층: 회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세립사 중심, 점성 있음, 소토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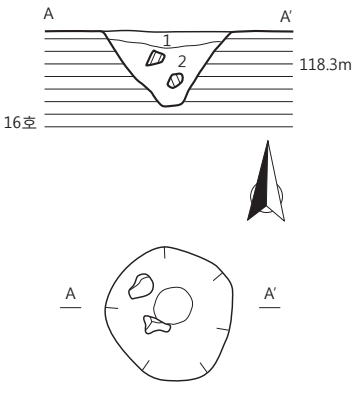
1층: 회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세립사 중심, 목탄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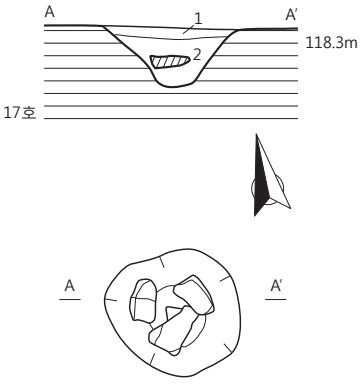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점토~세립사, 목탄과 소토 혼입
2층: 명황갈색사질토(Hue 10YR 6/6), 실트~세립사, 기반층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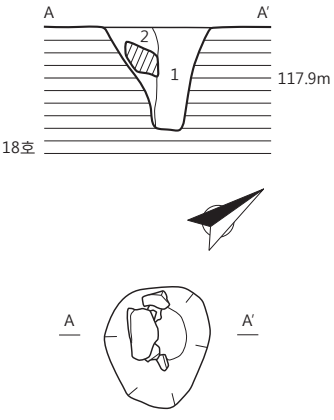
1층: 회갈색사질점토(Hue 10YR 6/2), 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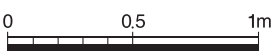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점토~세립사, 목탄과 소토 혼입
2층: 명황갈색사질토(Hue 10YR 6/6), 실트~세립사, 기반층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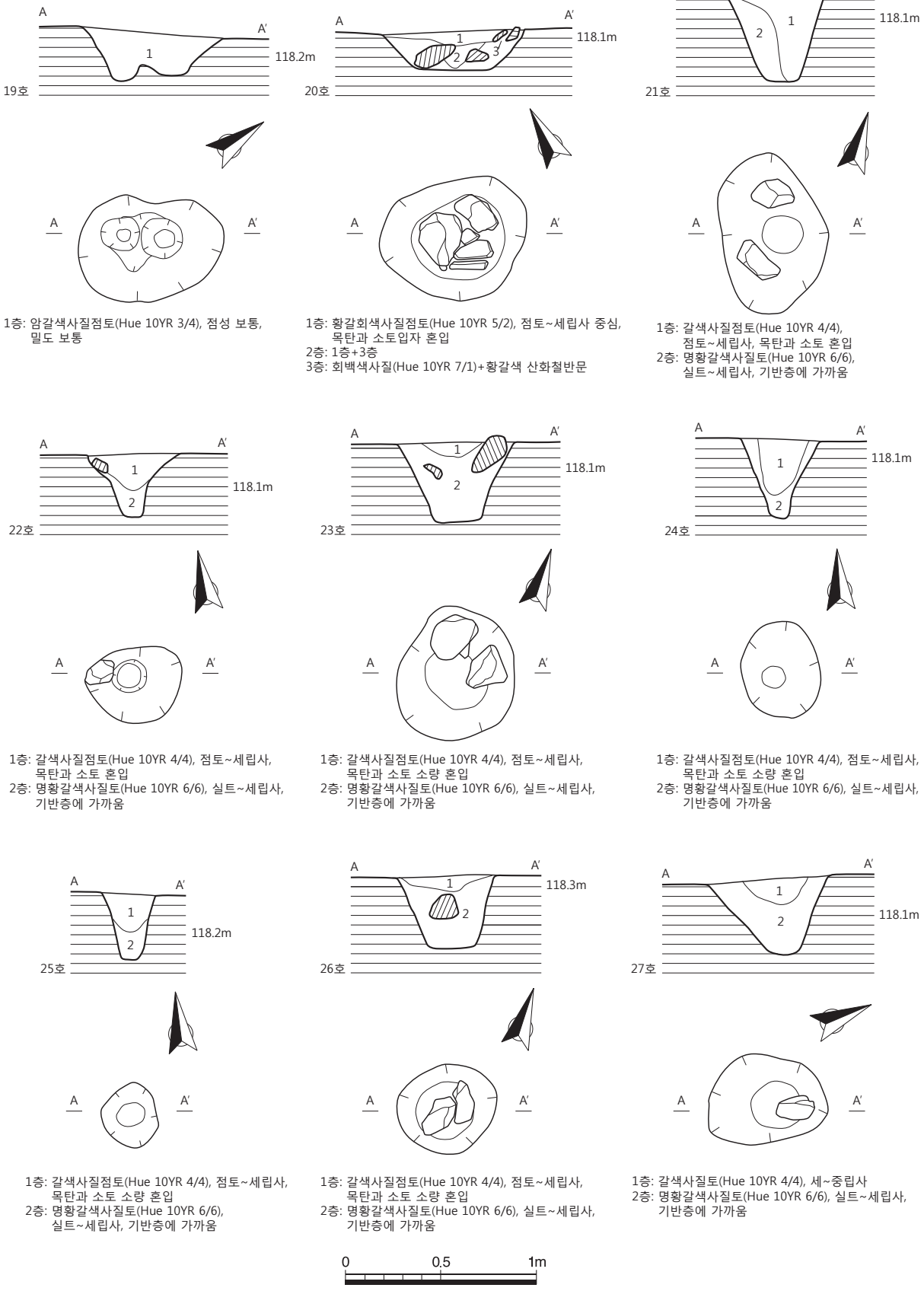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점토~세립사, 목탄 혼입
2층: 명황갈색사질토(Hue 10YR 6/6), 실트~세립사, 기반층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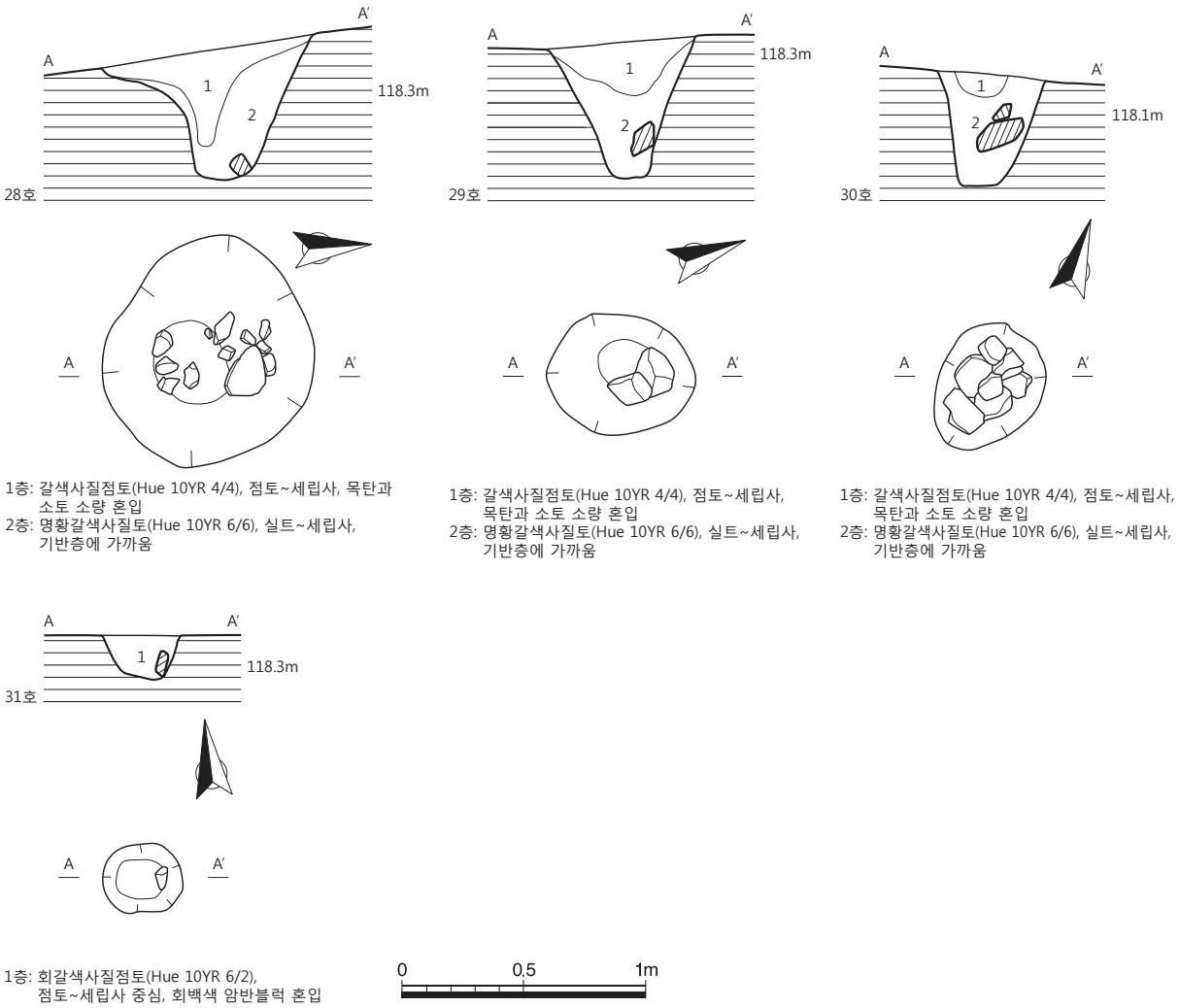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4/2), 점토~세립사, 일부 목탄 혼입
2층: 명황갈색사질토(Hue 10YR 6/6), 세~중립사, 기반층에 가까움



도면 10.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수혈 10~18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도면 11.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수혈 19~27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도면 12. 통일신라시대 공방지 수혈 28~31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다음으로 단면 'U'자상을 띠는 것도 녹로축혈일 가능성이 있는데 주로 10~20㎝의 중간 빈 공간을 중심으로 석재들을 돌린 형태이다. 일부 녹로축혈로 추정되는 수혈 중에 평면 '8'자형태에 단면상으로도 'W'자형을 띠고 있는 것이 세 사례(6 · 11 · 19호)가 있는데 수혈의 중복이나 축혈 재보수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추정 주혈은 직경이나 잔존깊이가 녹로축혈에 비해 현저히 작고 얕으면서 일부 단면상으로 토층에 목심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는 것 등이다.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녹로축혈이나 주혈 모두 그 중심에 나무기둥을 박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혈의 외형적인 크기에 따라 그 용도를 구분하였다.

이 외 수혈 바닥에 마치 적심의 구조처럼 납작한 돌들이 깔려있는 것도 2기(9 · 20호)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점에서 녹로축의 하부를 받치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유물은 병 구연부편, 덧띄무늬병 저부편, 병 저부편, 토기 저부편, 파수부편, 연화병 범편, 수키와편, 암키편 등 총 18점이 공방지의 석축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표 5】 공방지 내 수혈 속성표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단면 형태	규모(㎝)			내부양상	비고 (용도)
					장축	단축	깊이		
1	9	14-②	원형	Y	54	54	34	최하단 폭이 10㎝이며 단일토층, 한쪽 가장자리로 참외돌 3개 밀집	축혈
2	9	14-③	원형	Y	60	58	39	최하단 폭이 10㎝이며 소토 · 목탄 혼입층이 상부층을 이룸, 한쪽 가장자리로 석재 3개	〃
3	9	14-④	타원형	Y	64	52	50	최하단 폭이 10㎝이며 소토 · 목탄 혼입층이 상부층을 이룸, 남쪽 가장자리에 석재 1개	〃
4	9	14-⑤	원형	U	34	32	12	중앙에 목심흔으로 보이는 폭 15㎝ 토층	주혈
5	9	15-①·②	원형	U	64	62	44	중앙 15㎝ 폭을 둘러싸고 가장자리로 할석 충전	축혈
6	9	15-③	부정형	U+Y	86	50	53	축혈 2개가 중복관계로 평면상 8자 형태, 남쪽은 중앙에 호박돌, 북쪽은 중앙 10㎝ 폭 둘레 가장자리로 크고 작은 석재 돌림	축혈 (2개 중복)
7	9	15-④	원형	Y	60	60	42	최하단 폭이 10㎝에 서쪽 벽면에 석재 1개	축혈
8	9	15-⑤	원형	U	24	22	14	내부에 소토 · 목탄 혼입(단일층), 목심흔 없음	주혈
9	9	15-⑥	타원형	U	52	36	16	바닥에 납작한 석재 3개	〃
10	10	15-⑦	원형	반원형	76	73	25	바닥에 주먹만한 석재 2개	수혈
11	10	15-⑧	타원형	W	82	60	40	단면상으로 보아 1회 이상 보수, 일부 가장자리로 석재	축혈
12	10	16-①	원형	V	29	28	11	토층상으로나 내부에 별 특징 없음	주혈
13	10	16-②	원형	V	22	22	13	소토 · 목탄 혼입 단일층	〃
14	10	16-③	타원형	U	80	54	36	중앙 폭 20㎝ 목심부와 그 주변에 크고 작은 석재 다량 메움, 상부 소토 · 목탄층	축혈
15	10	16-④	원형	U	24	22	14	토층상으로나 내부에 별 특징 없음	주혈
16	10	16-⑤	원형	Y	52	50	30	최하단 폭이 10㎝이며 중간 벽면에 석재 2개	축혈
17	10	16-⑥	원형	Y	54	50	24	벽면으로 3매의 길쭉한 석재 중앙에 폭 10㎝의 공간	〃
18	10	16-⑦	타원형	Y	48	42	40	남쪽 벽면에 석재 충전, 최하단부 폭 12㎝	〃
19	11	16-⑧	타원형	W	74	50	26	두 개의 축혈이 중복관계이거나 재보수의 가능성, 모두 최하단부의 폭이 10㎝	〃
20	11	17-①	타원형	U	74	62	20	바닥에 석재 밀집	적심
21	11	17-②	타원형	Y	84	54	48	남북 벽면에 석재 한 점씩, 최하단 폭 10㎝	축혈
22	11	17-③	타원형	Y	50	40	33	최하단 폭 10㎝, 중간까지 소토 · 목탄 혼입층	〃
23	11	17-④	타원형	U	70	61	42	북벽으로 석재 두 점 충전, 기둥의 폭은 20㎝로 추정	〃
24	11	17-⑤	타원형	Y	49	41	41	소토 · 목탄 혼입층이 중앙부에 V자형으로 혼입	〃
25	11	17-⑥	타원형	U	34	28	34	상부는 목탄 혼입층, 최하부의 폭은 10㎝	〃
26	11	17-⑦	원형	U	50	47	38	중앙바닥에 참외돌 2점	〃
27	11	17-⑧	타원형	V	62	46	40	바닥에 석재 한 점	〃
28	12	18-①	원형	Y?	95	86	52	남북벽면 밤자갈 사이에 폭 20㎝	〃
29	12	18-②	타원형	Y	60	48	56	동벽 2매의 석재, 나머지 폭 10㎝ 공간	〃
30	12	18-③	타원형	U	50	44	46	ㄷ자로 둘러진 석재 사이 폭 10㎝ 공간	〃
31	12	18-④	원형	U	32	28	18	동벽에 석재 1개	주혈

(2) 수습유물

1. 병 구연부편(도면 13, 도판 18)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구연부 1/4 정도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 및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외경하며 올라가다 내경하고, 구연단은 둥글다. 전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고, 구연 외면과 경부 내면은 표면 산화되었다.

현고 4.0㎝, 복원구경 9.0㎝

2. 병 구연부편(도면 13, 도판 18)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구연부 1/2 정도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회색, 속심은 회적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약하게 凹면을 이룬다. 전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고, 구연 내면은 표면 산화되었다.

현고 3.1㎝, 복원구경 8.0㎝

3. 병 구연부편(도면 13, 도판 18)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구연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황회색,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사립이 혼용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직립하다가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글면서 뾰족하다. 구연부 내면에 조으기흔이 관찰되고, 구연부 내외면과 동체 상위에 자연유가 부착된 후 산화 · 박리되었다.

현고 3.8㎝, 복원구경 3.4㎝

4. 병 구연부편(도면 13, 도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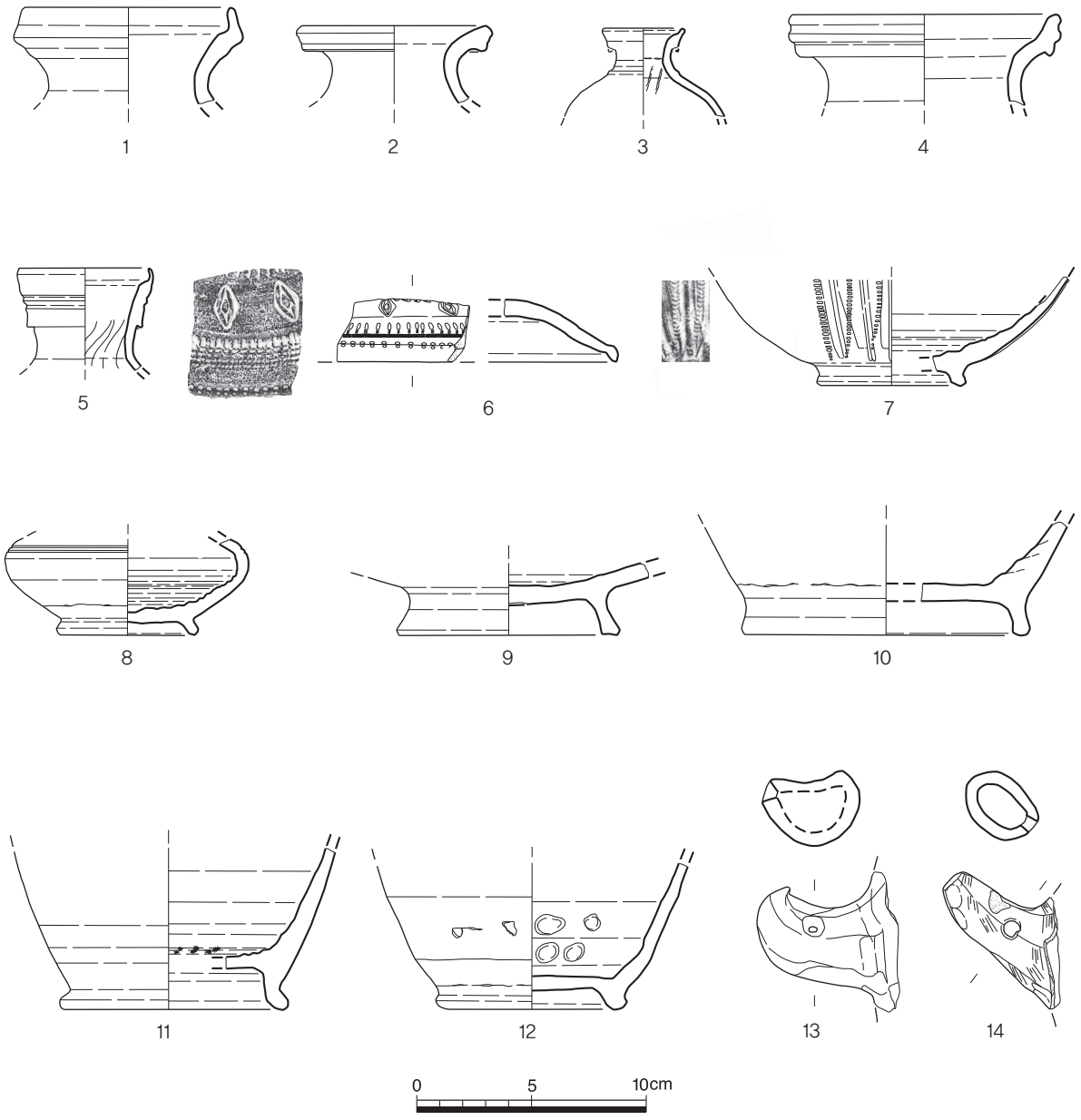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구연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 및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백색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외경하다 부가구연식으로 올라가고 구연단은 둥글다. 구연 외면에 2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현고 4.0㎝, 복원구경 11.6㎝

5. 병 구연부편(도면 13, 도판 19)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구연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회색, 속심은 회갈색을 띤다. 태토는 백색 사립이 소량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약하게 외경하다 부가구연식으로 올라가고, 구연단은 둥글면서 뾰족하다. 구연 외면에 1조의 돌대가 돌아가고, 내면에는 조으기흔이 관찰된다.

현고 4.3㎝, 복원구경 5.6㎝



도면 13. 통일신라시대 공방지내 수습유물(1~15)

6. 개편(도면 13, 도판 19)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드림과 개신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외면은 암회색, 내면은 회백색, 속심은 회적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드림부는 수직으로 내려오고, 드림단은 둥글면서 뾰족하다. 개신 외면에는 (점열문)+능형문+점열문이 시문되었다.

현고 2.8㎝

7. 덧띠무늬병 저부편(도면 13, 도판 19)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굽과 신부 하위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 및 속심은 회백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 외면에 단면 삼각형의 덧띠를 종방향으로 붙인 후 그 양 옆으로 종장점열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남아있다.

현고 4.7㎝, 복원굽경 6.0㎝

8. 병 저부편(도면 13, 도판 19)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굽 2/3, 신부 하위 1/3 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청회색, 속심은 연적갈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신부 외면 중위에 2조의 횡침선을 돌렸고, 하위에는 굽접합 후 조정한 흔이 관찰된다. 신부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강하게 남아있고, 기외면 상위와 내저면에 자연유가 부착된 후 산화 · 박리되었다.

현고 4.2㎝, 굽저경 5.8㎝, 동최대경 10.6㎝

9. 토기 저부편(도면 13, 도판 19)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굽 대부분과 동체 하위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 및 속심은 회백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전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현고 3.1㎝, 굽저경 9.4㎝

10. 토기 저부편(도면 13, 도판 19)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동체 하위와 굽 일부가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 및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 내면에는 쌓기흔이 관찰되고, 전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현고 4.8㎝, 복원굽저경 12.3㎝

11. 토기 저부편(도면 13, 도판 19)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굽과 동체 하위 1/3 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청회색, 속심은 연적갈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 내저면에 초흔이 관찰되고, 기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강하게 남아있다. 기외면과 굽 내면에 자연유가 부착된 후 산화 · 박리되었다.

현고 7.1㎝, 복원굽저경 9.5㎝

12. 토기 저부편(도면 13, 도판 19)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연질 소성이며, 굽과 동체 하위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 및 속심은 갈회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 외면 하위에는 굽접합 후 조정흔과 도구정면흔이 있고, 동체 내면에는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현고 6.4㎝, 굽저경 7.2㎝

13. 파수부편(도면 13, 도판 20)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연질 소성이며, 파수만 잔존한다. 내외면 및 속심은 명황갈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측면에 구멍을 뚫었으나 관통되지 않은 우각형파수이다. 파수 내면은 비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파수에는 손누름흔과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현길이 6.1㎝, 현너비 6.2㎝, 두께 3.2㎝

14. 파수부편(도면 13, 도판 20)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와질 소성이며, 파수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 속심은 황등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측면에 구멍을 뚫었으나 관통되지 않은 단면이 타원형에 가까운 우각형파수이다. 파수 내면은 비어 있고, 파수에는 손누름흔과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현길이 5.0㎝, 현너비 5.0㎝, 두께 2.5㎝

15. 연화병 범편(도면 13, 도판 20)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연질 소성이며, 구연부와 동체 1/2 정도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 및 속심은 천황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내경하고 구연단은 둥글며, 동최대경은 중상위에 위치한다. 전면에 큰 연꽃잎이 있는 거푸집에서 찍어낸 토기이며 기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현고 14.1㎝, 복원구경 14.5㎝, 복원동최대경 24.2㎝

16. 수키와편(도면 14, 도판 20)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우측 하단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 및 속심은 회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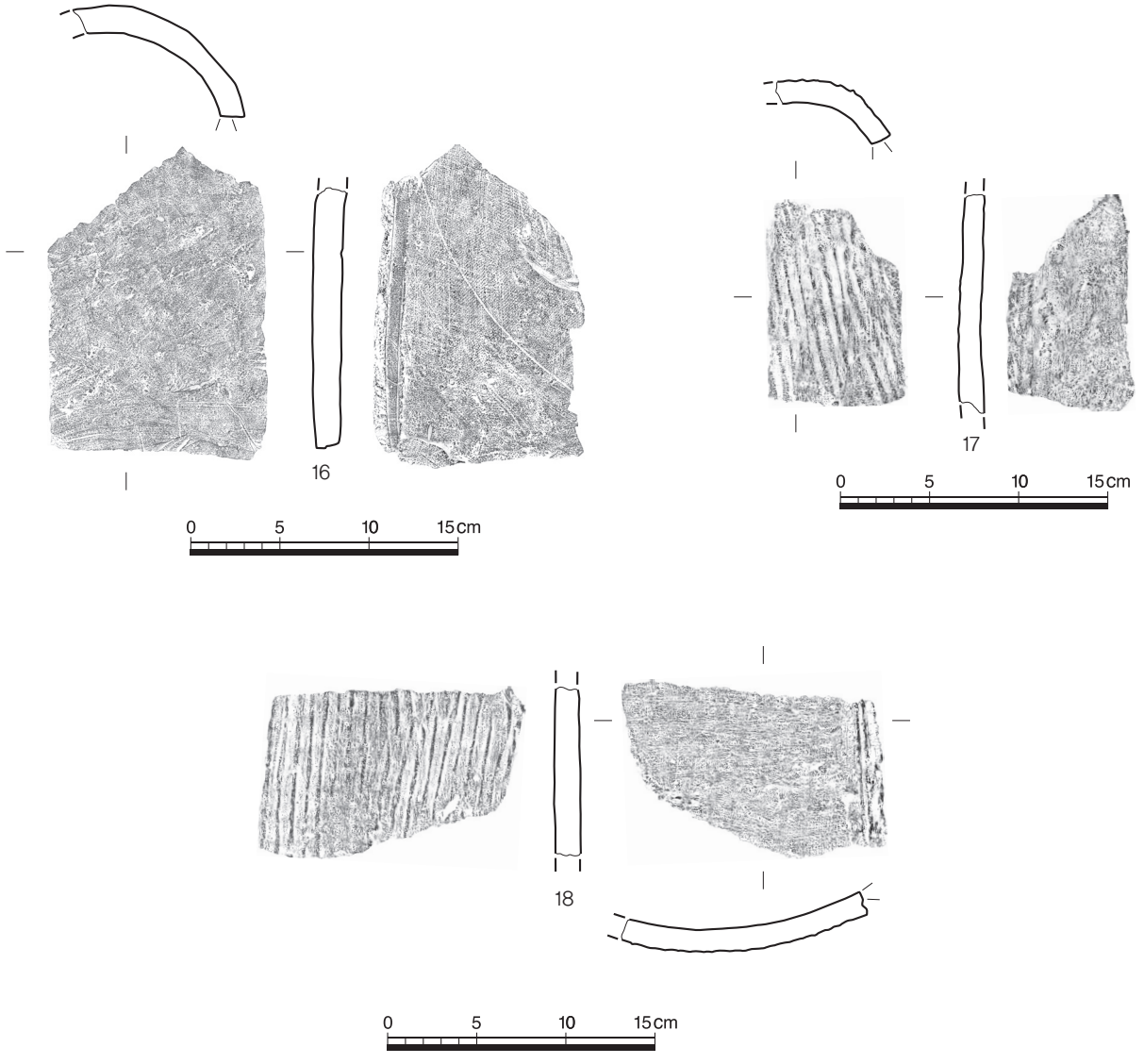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선문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포목흔과 사절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하단은 물손질하였고, 우측면 내면에서 외면으로 0.7㎝ 정도의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4.6㎝, 현너비 9.5㎝, 두께 1.5㎝

17. 수키와편(도면 14, 도판 20)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연질 소성이며, 우측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 및 속심은 담황등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석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선문 타날흔이 있고, 우측면 내면에서 외면으로 0.7㎝ 정도의 와도흔이 확인된다. 기내외면 일부는 표면 마모되었다.

현길이 12.2㎝, 현너비 6.3㎝, 두께 1.2㎝



도면 14. 통일신라시대 공방지내 수습유물(16~18)

18. 암키와편(도면 14, 도판 21)

공방지내에서 수습되었다. 와질 소성이며, 우측 일부만 잔존한다. 외면은 명황갈색, 내면과 속심은 등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선문 타날흔이 있고, 내면에는 포목흔이 일부에 희미하게 남아있다. 우측면 내면에서 외면으로 0.5㎝ 정도의 와도흔이 확인된다. 기내외면 일부는 표면 마모되었다.

현길이 9.5㎝, 현너비 13.7㎝, 두께 1.3㎝

2) 건물지

(1) 유구(도면 15, 사진 22~26)

건물지는 기단과 적심, 구 등이 포함된 기단건물지로 공방지 북편에 녹로축혈과 수혈, 주혈 등과 일부 중복관계에 있는데 건물지가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석재들로만 구성된 기단건물지 부분과 이를 후면에서 건물지 대부분을 'ㄱ'자로 둘러싸고 있는 溝까지 포함한다.

먼저, 기단건물지는 일부만 남은 상태인데 4.4m 정도 남은 기단열의 장축방향은 거의 동서 방향(N-4° -E)에 가깝다. 기단석은 14~46㎝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남쪽으로 면을 거의 일직선상으로 맞추고 최대 2단까지, 높이는 최대 40㎝까지 확인된다. 기단열의 서쪽 끝단은 각지지 않고 둥글게 돌려지고 있는 점에서 원상태로 추정되며 반대쪽 동쪽은 현 상태로 보아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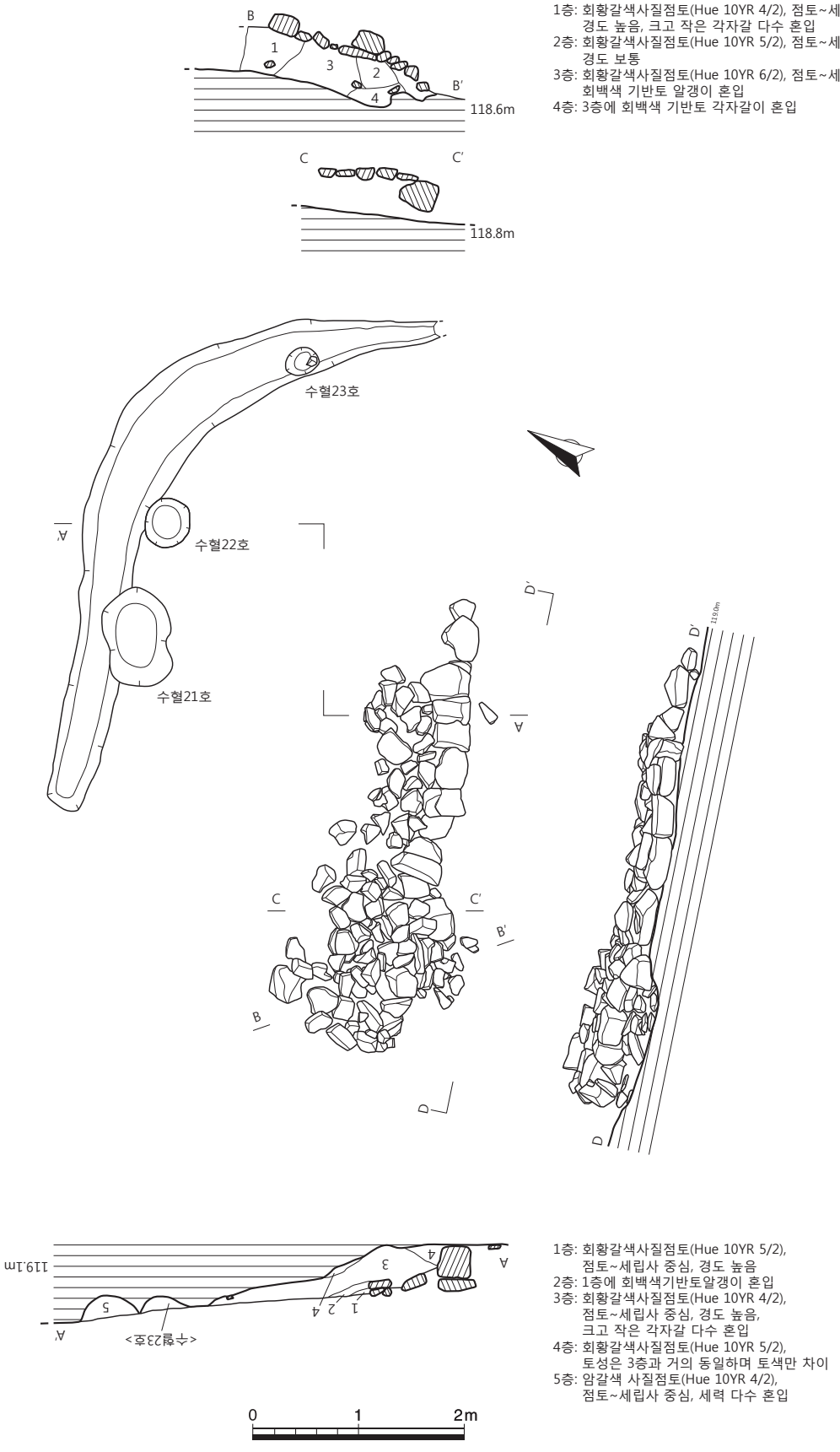
건물지의 종단면 토층을 통해 건물지의 축조방식을 살펴보면 기단면에서 후면 약 2.5m까지 기반면 기준으로 약 20°의 완만한 경사면에 한 매의 기단석열 뒷편으로 최대 30㎝까지 복토한 후 그 상부에 크고 작은 할석들을 한두벌 깐 형태이다. 그렇게 깔린 석재들은 약한 경사를 이루며 뒤편으로 이어지는데 기단 앞면 기준으로 최대 잔존 폭이 1.6m인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확인되지 않는 후면의 석재들은 후대에 모두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의 종단면 토층을 통해 건물지의 축조방식을 살펴보면 기단면에서 후면 약 2.5m까지 기반면 기준으로 약 20°의 완만한 경사면에 한 매의 기단석열 뒷편으로 최대 30㎝까지 복토한 후 그 상부에 크고 작은 할석들을 한두벌 깐 형태이다. 그렇게 깔린 석재들은 약한 경사를 이루며 뒤편으로 이어지는데 기단 앞면 기준으로 최대 잔존 폭이 1.6m인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확인되지 않는 후면의 석재들은 후대에 모두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 기단 전면부쪽 약 30㎝ 안쪽에서 적심 2기가 확인되는데 적심의 크기는 직경 120㎝ 정도이고, 적심간의 간격은 중심부를 기준으로 약 200㎝이다. 건물지 뒤편을 감싸고 있는 구 사이 간격을 감안해 볼 때, 적심 하나 정도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前面은 2칸으로 이루어진 건물지로 추정된다.

기단건물지 후면 경사 위쪽에 건물지를 감싸고 있는 구의 규모는 길이 580㎝, 너비 40~70㎝, 잔존 최대 깊이는 15~30㎝ 정도이다. 구의 서쪽 시작부분이 완만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20㎝ 정도의 깊이로 바로 깊어진다는 점에서 원래 이 부분부터 파여진 것으로 보이며 기단건물지를 보호하기 위한 배수시설로 판단된다.

유물은 파수부호편, 암키와편 등 총 3점이 건물지 적심과 하부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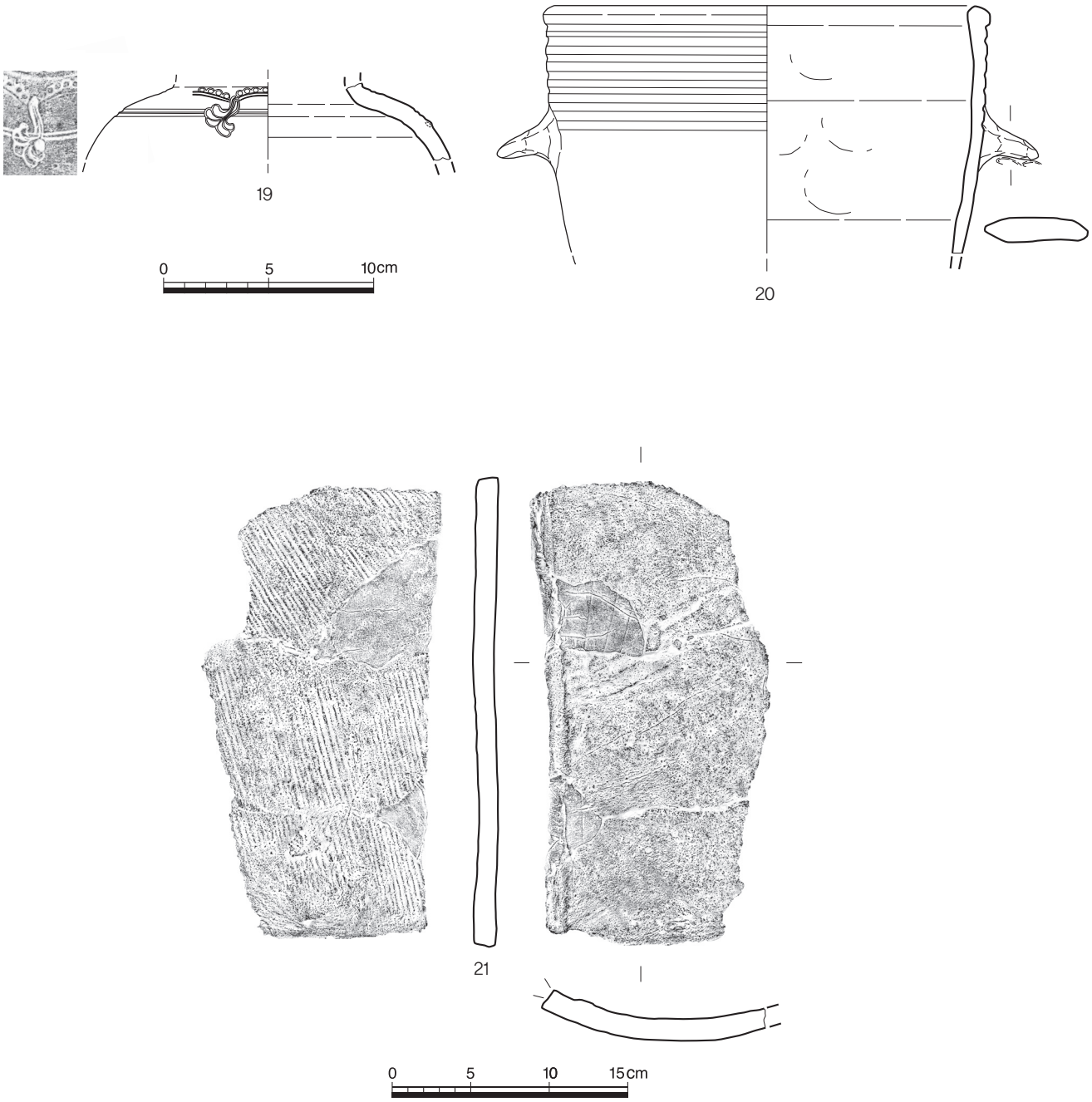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4/2), 점토~세립사 중심, 경도 높음, 크고 작은 각자갈 다수 혼입
2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세립사 중심, 경도 보통
3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6/2), 점토~세립사 중심, 회백색 기반토 알갱이 혼입
4층: 3층에 회백색 기반토 각자갈이 혼입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세립사 중심, 경도 높음
2층: 1층에 회백색기반토알갱이 혼입
3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4/2), 점토~세립사 중심, 경도 높음, 크고 작은 각자갈 다수 혼입
4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토성은 3층과 거의 동일하며 토색만 차이
5층: 암갈색 사질점토(Hue 10YR 4/2), 점토~세립사 중심, 세력 다수 혼입

0 1 2m

도면 15.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30)



도면 16. 통일신라시대 건물지내 수습유물(19~21)

(2) 수습유물

19. 병 견부편(도면 16, 도판 26)

건물지내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견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외면은 담황갈색, 내면과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견부 외면에 2조의 횡침선을 돌린 후 운문과 호선연주문의 영락장식을 시문하였고, 내면에는 물레성형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견부에 소량의 기포가 생성되었고, 전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외면 전체에

자연유가 부착된 후 산화 · 박리되었다.

현고 3.7㎝

20. 동이 구연부편(도면 16, 도판 26)

건물지내에서 수습되었다. 와질 소성이며, 구연부와 동체 일부 및 파수 1개가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 및 속심은 명황갈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 외면 상위에 7조의 횡침선을 돌렸다. 중위에 단면 타원형인 파수가 부착되었고, 파수에는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 내면에 희미한 내박자흔이 있고, 기내외면 일부는 표면 마모되었다.

현고 11.8㎝, 복원구경 20.0㎝

21. 암키와편(도면 16, 도판 26)

건물지내에서 수습되었다. 연질 소성이며, 좌측 1/2 정도 잔존한다. 내외면 및 속심은 명적갈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백색 석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사방향의 선문 타날흔이 있고, 우측면 내면에서 외면으로 0.8㎝ 정도의 와도흔이 확인된다. 외면 일부와 내면 대부분은 표면 마모되었다.

길이 29.8㎝, 현너비 14.2㎝, 두께 1.3㎝

3) 수혈

(1) 유구(도면 17~22, 사진 27~32)

수혈은 모두 46기로 공방지와 건물지를 제외한 주변에서 확인되는 모든 수혈들이 해당한다. 일부는 공방지나 건물지와 중복관계에 있기도 하는데 평면형태는 원형이나 타원형이 대부분이고, 일부 부정형도 확인되었다. 형태가 완전히 다른 39호를 제외한 원형이나 타원형 수혈의 규모는 장축이 20~90㎝, 단축은 18~64㎝, 잔존 깊이는 6~68㎝ 정도로 확인되었다.

수혈의 단면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은 'U'자형을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46기 중 28기가 해당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반원형이며 공방지내 수혈 중 녹로축혈로 추정되는 단면형태인 'Y'자형은 1례(15호)에 지나지 않는다. 단면형태에 따라 그 용도를 가늠한다면 'U'자형은 주혈, 반원형은 용도미상의 수혈로 추정되나 일부 'U'자형태 중 규모가 다소 큰 것들은 주혈이 아닌 수혈로 추정하였다.

내부토는 거의 대부분 단일층이며, 주혈인 경우 목심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외 토층이 2개 층으로 나뉘는 경우 중간부분을 기준으로 상하로 구분되었다. 내부토 중 목탄과 소토가 혼입된 것들이 일부 있으나, 수혈로 추정되는 것들의 경우 기반층과 거의 같은 토성을 보이고 있다.

수혈 중 유일하게 형태가 다른 46호 수혈은 기반층을 'ㄴ'자형으로 굴착하였는데, 잔존길이 470㎝, 잔존 너비 90㎝, 잔존 깊이는 최대 20㎝이다. 수혈의 내부에는 14~40㎝ 할석들이 정연하게 축조되지는 않았지만 벽면을 따라 놓여져 있다.

수혈 내부에서는 유물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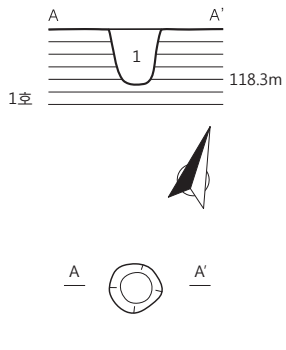
【표 6】 수혈 속성표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단면 형태	규모(㎝)			내부양상	비고 (용도)
					장축	단축	깊이		
1	17	27-①	원형	U	20	18	22	단일층	주혈
2	17	27-②	원형	U	40	38	29	단일층, 목탄흔 확인, 공방지 주구와 중복관계	〃
3	17	27-③	원형	U	48	46	21	단일층, 공방지 주구와 중복관계	수혈
4	17	27-④	원형	U	21	20	9	상하 2개 층	〃
5	17	27-⑤	원형	U	29	28	17	폭 20㎝의 목심흔	주혈
6	17	27-⑥	타원형	U	52	42	24	중심부에 참외돌 밀집	수혈
7	17	27-⑦	원형	U	51	48	25	단일층, 바닥에 경사	〃
8	17	27-⑧	원형	반원형	60	59	8	단일층	〃
9	17	28-①	원형	U	60	56	36	소토 · 목탄 혼입 단일층, 바닥으로 주먹돌 밀집	〃
10	18	28-②	원형	반원형	52	52	10	단일층	〃
11	18	28-③	타원형	U	47	36	28	단일층, 한쪽 벽면에 납작석재 1매	주혈
12	18	28-④	원형	U	42	40	9	소토 · 목탄 혼입, 바닥에 납작석재 1매	초석
13	18	28-⑤	타원형	반원형	64	52	24	소토 · 목탄 혼입	수혈
14	18	28-⑥	원형	U	40	40	22	단일층, 기단건물지 하부 중복	〃
15	18	28-⑦	원형	Y	52	25	68	상하 2개층, 벽면에 석재 수매	녹로축혈
16	18	28-⑧	원형	U	50	48	50	상하 2개층, 상부층내 소토 혼입	수혈
17	18	29-①	타원형	부정U	56	36	26	내부에 납작석재 2매	주혈
18	18	29-②	원형	U	60	55	40	단일층, 목탄흔	수혈
19	19	29-③	원형	U	28	31	11	단일층, 소토 · 목탄 혼입	주혈
20	19	29-④	원형	U	28	32	12	단일층, 소토 · 목탄 혼입	〃
21	19	29-④	8자형	U	94	64	32	단면상에 목심흔	수혈
22	19	29-⑤	타원형	반원형	46	42	14	단일층	〃
23	19	29-⑥	타원형	반원형	32	25	16	단일층, 목탄 혼입, 벽면에 석재 1매	주혈
24	19	29-⑦	원형	U	44	40	38	단일층, 소토 · 목탄 혼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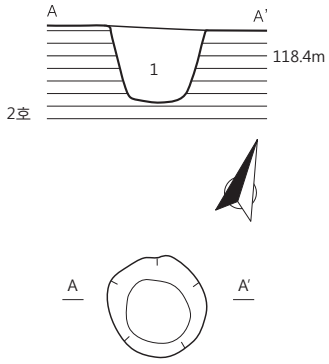
25	19	29-⑧	원형	반원형	56	56	14	단일층	수혈
26	19	30-①	타원형	U	39	34	22	단일층, 목탄흔	주혈
27	19	30-②	원형	U	50	50	25	단일층	〃
28	19	30-③	원형	반원형	40	38	6	단일층	수혈
29	20	30-④	타원형	U	80	70	52	상하 2개 층	주혈
30	20	30-⑤	원형	U	58	56	16	단일층	〃
31	20	30-⑥	원형	U	38	36	10	단일층	〃
32	20	30-⑥	타원형	U	54	44	25	단일층	〃
33	20	30-⑦	원형	반원형	46	46	12	단일층	수혈
34	20	30-⑧	원형	반원형	46	44	11	단일층	〃
35	20	31-①	원형	반원형	46	46	6	단일층	〃
36	20	31-②	원형	반원형	40	38	12	단일층	〃
37	20	31-③	원형	U	24	22	6	단일층	주혈
38	20	31-④	타원형	부정형	56	46	10	단일층, 불규칙한 바닥	수혈
39	21	31-⑤	원형	U	42	40	13	단일층	〃
40	21	31-⑥	원형	U	64	64	37	단일층	주혈
41	21	31-⑦	원형	반원형	24	24	6	단일층, 목탄흔	수혈
42	21	31-⑧	원형	반원형	46	42	12	단일층	〃
43	21	32-①	타원형	부정형	34	26	5	단일층	〃
44	21	32-②	원형	U	66	56	18	단일층	〃
45	21	32-③	원형	U	40	38	24	소토 · 목탄 혼입층이 목심	주혈
46	22	32-④ · ⑤	부정형	L	352	(90)	7	단일층, 벽면으로 석재 집중	수혈

【표 7】 유구 · 유물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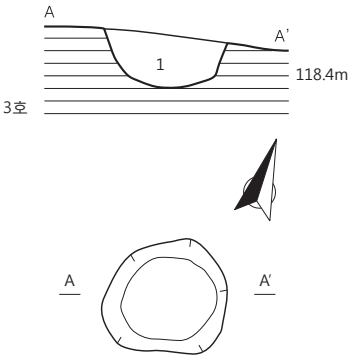
시대	유 구(기)				유 물(점)		
	공방지	건물지	수혈	계	토도	와전	계
통일신라	1	1	46	48	18	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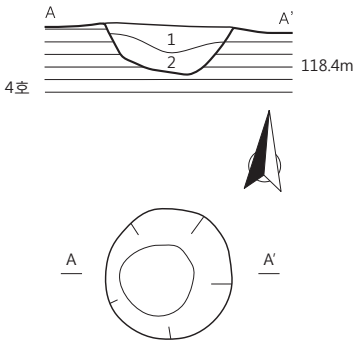
1층: 회갈색사질점토(Hue 10YR 6/2),
점토~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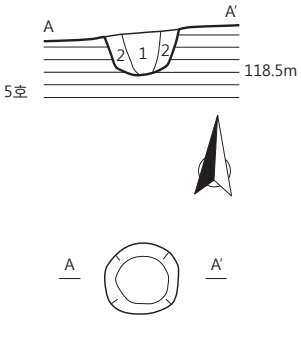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3), 점토~실트,
목탄과 소토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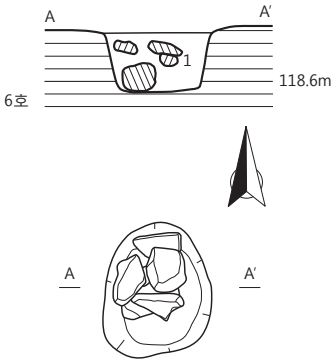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회백색점토
부분적 혼입, 사질성 더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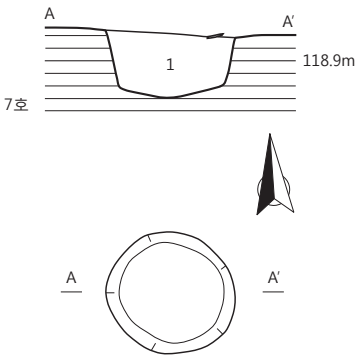
1층: 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4/2),
점토~세립사 중심
2층: 1층+황등색사질점토(Hue 7.5YR 7/8, 기반토),
두 층이 균일하게 혼합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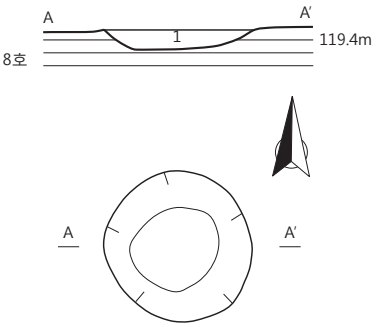
1층: 회갈색사질점토(Hue 10YR 6/2), 점토~세립사 중심,
목탄과 망간반문 소량 보임
2층: 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6), 점토~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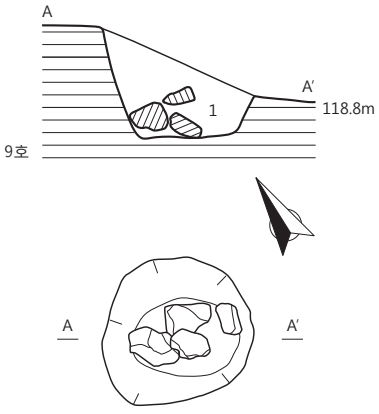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6/2),
점토~세립사 중심, 일부 망간반문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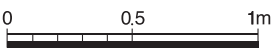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6/2),
점토~세립사 중심, 목탄흔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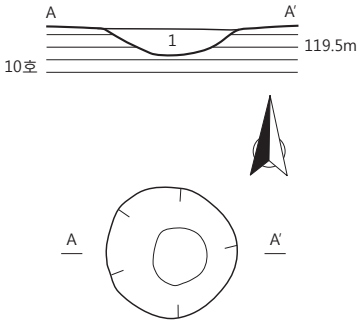
1층: 명갈색사질토(Hue 7.5YR 5/6), 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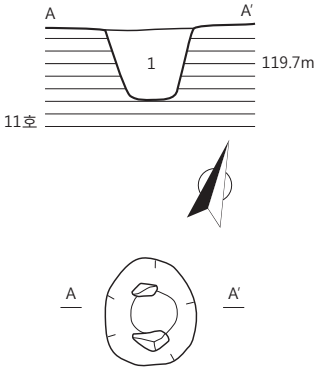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점토~세립사로
균일하고 치밀, 목탄과 소토입자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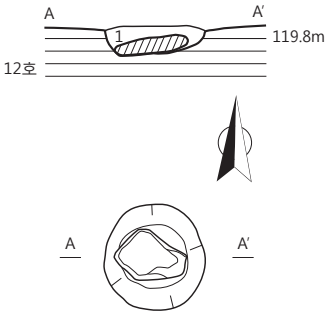
도면 17. 통일신라시대 수혈 1~9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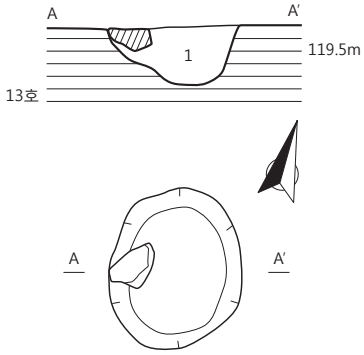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6), 점토~중립사, 경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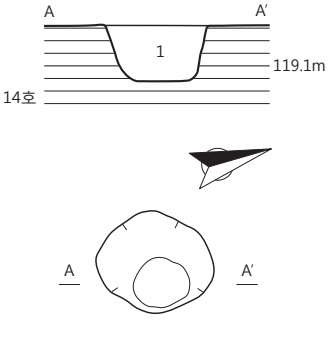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점토~세립사, 목탄과 소토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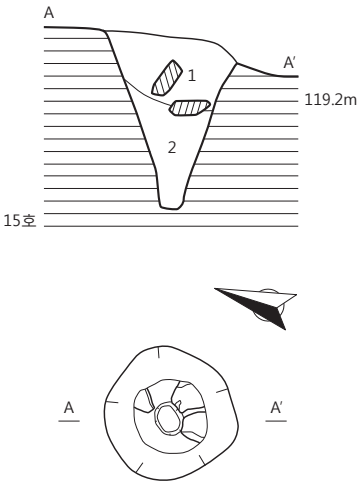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소토와 목탄 다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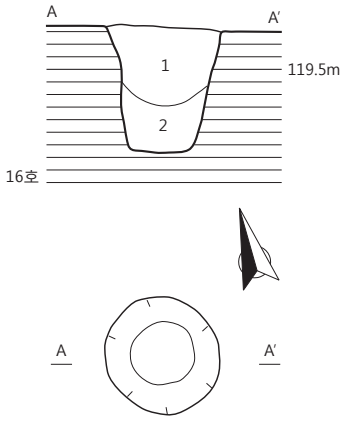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점토~세립사 중심, 목탄과 소토 다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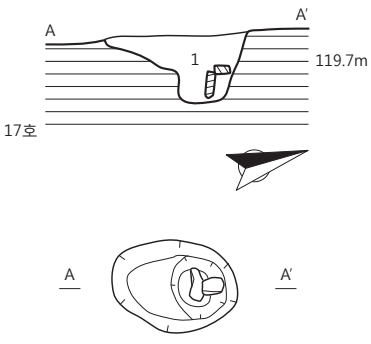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 R 4/4), 점토~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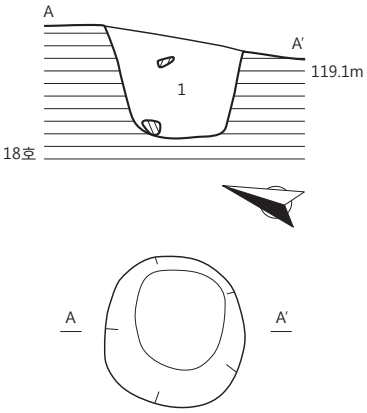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점토~세립사, 목탄과 소토 소량 혼입
2층: 명황갈색사질토(Hue 10YR 6/6), 실트~세립사, 기반층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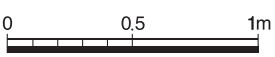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점토~세립사, 목탄과 소토 소량 혼입
2층: 명황갈색사질토(Hue 10YR 6/6), 실트~세립사, 기반층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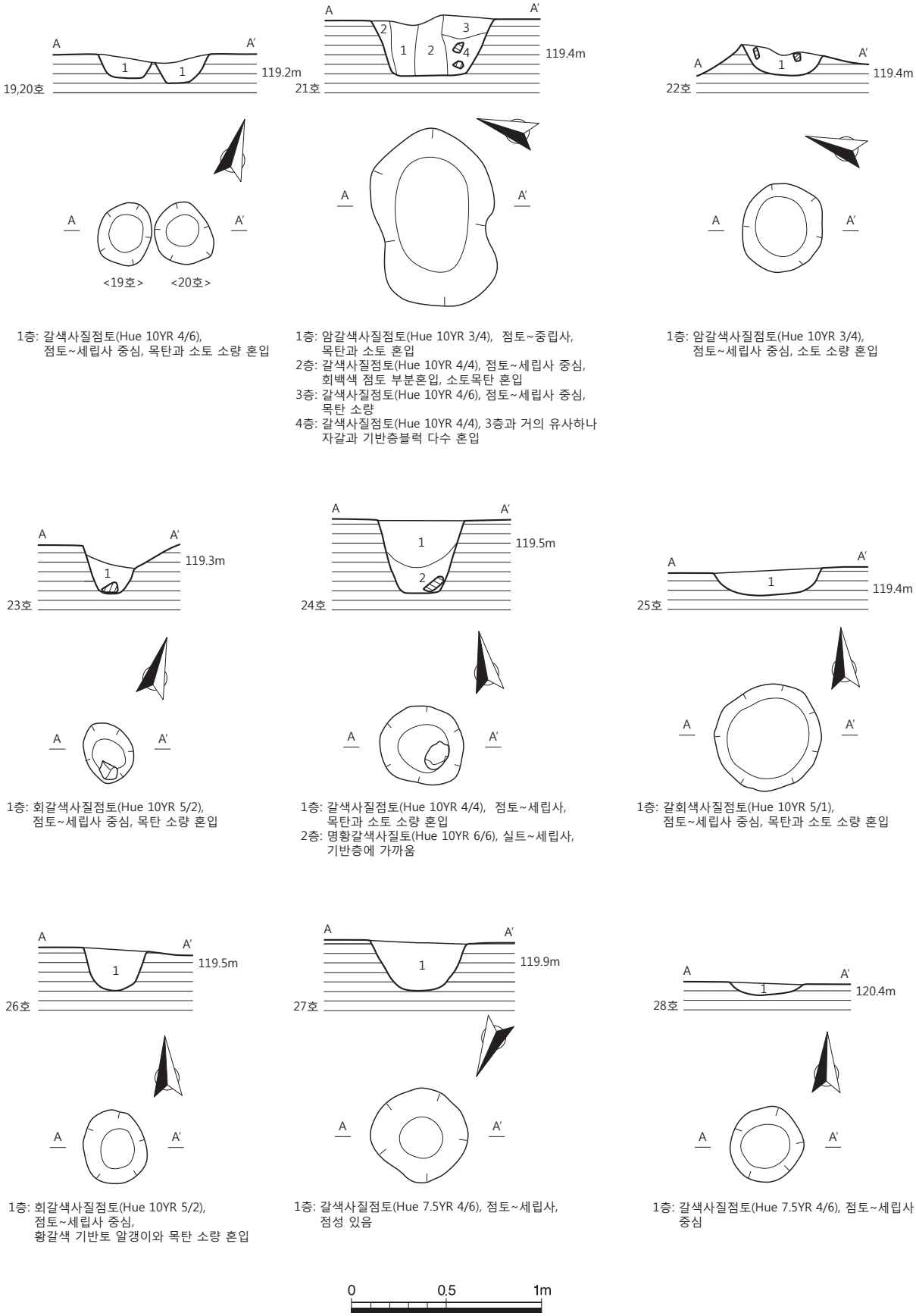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점성 보통, 밀도 보통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점토~세립사, 목탄과 소토입자 소량 혼입



도면 18. 통일신라시대 수혈 10~18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6), 점토~세립사 중심, 목탄과 소토 소량 혼입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점토~중립사, 목탄과 소토 혼입
2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점토~세립사 중심, 회백색 점토 부분혼입, 소토목탄 혼입
3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6), 점토~세립사 중심, 목탄 소량
4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3층과 거의 유사하나 자갈과 기반층블럭 다수 혼입

1층: 암갈색사질점토(Hue 10YR 3/4), 점토~세립사 중심, 소토 소량 혼입

1층: 회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세립사 중심, 목탄 소량 혼입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4), 점토~세립사, 목탄과 소토 소량 혼입
2층: 명황갈색사질토(Hue 10YR 6/6), 실트~세립사, 기반층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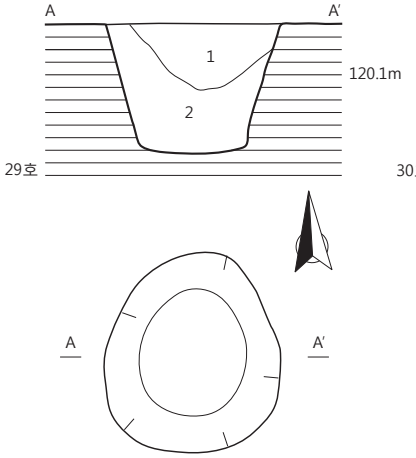
1층: 갈회색사질점토(Hue 10YR 5/1), 점토~세립사 중심, 목탄과 소토 소량 혼입

1층: 회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세립사 중심, 황갈색 기반토 알갱이와 목탄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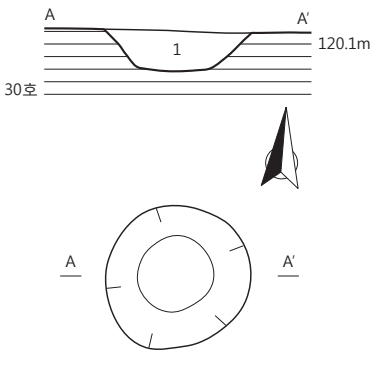
1층: 갈색사질점토(Hue 7.5YR 4/6), 점토~세립사, 점성 있음

1층: 갈색사질점토(Hue 7.5YR 4/6), 점토~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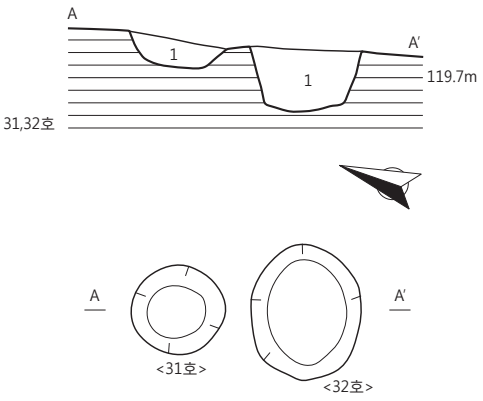
도면 19. 통일신라시대 수혈 19~28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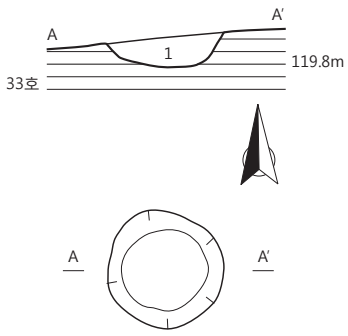
1층: 갈회색사질점토(Hue 10YR 5/1), 점토~세립사 중심,목탄과 소토 소량 혼입
2층: 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4/6), 점토~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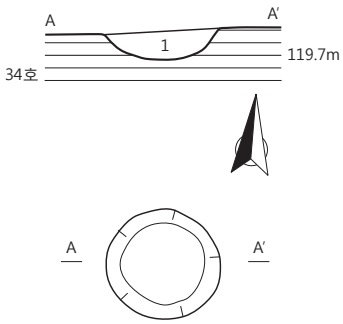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6/2), 점토~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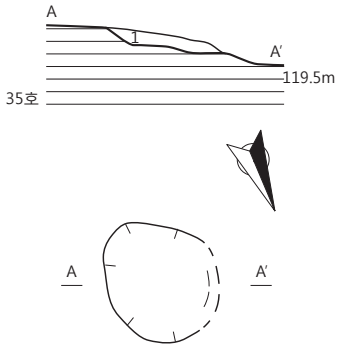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6/2)에 기반층(황갈색사질점토) 블록 혼입, 망간반문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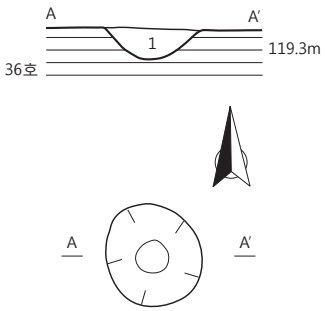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6/2), 점토~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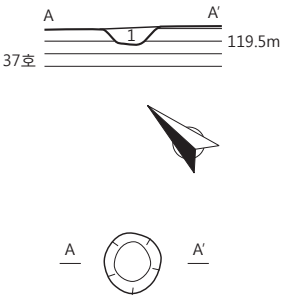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6/2), 점토~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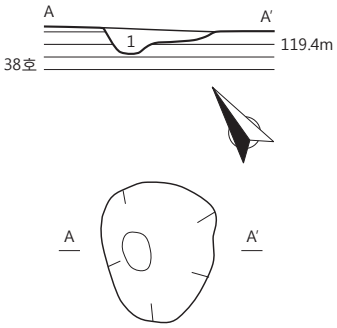
1층: 갈색사질점토(Hue 10YR 4/6), 세~중립질층 중심, 경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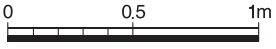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6/2), 점토~세립사 중심, 목탄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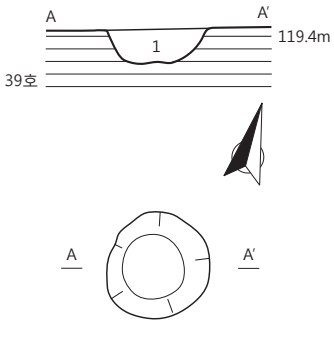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6/2), 점토~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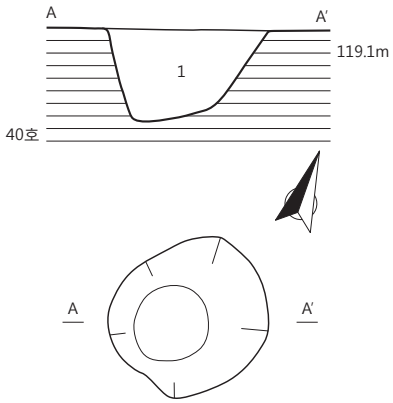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6/2), 점토~세립사 중심, 하부에 기반층(황갈색사질점토)블록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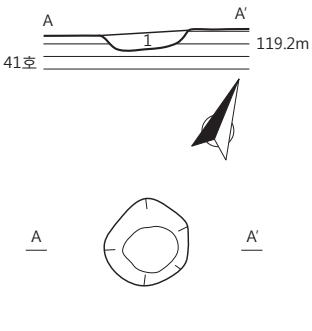
도면 20. 통일신라시대 수혈 29~38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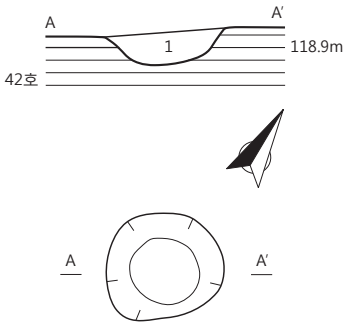
1층: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점토~세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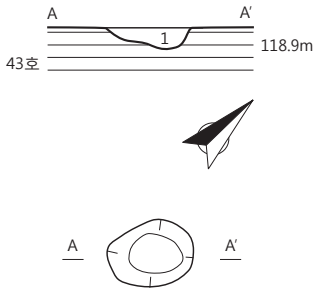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중립사, 목탄 소량 혼입, 망간반문과 결핵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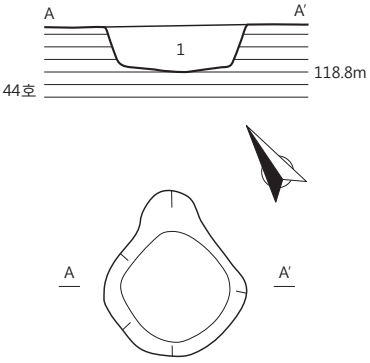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세립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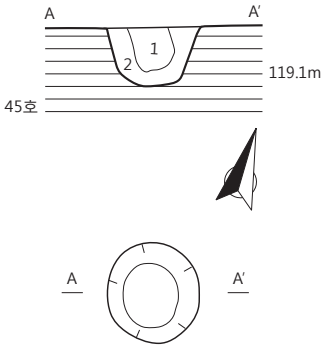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세립사 중심, 목탄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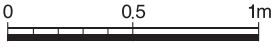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2), 점토~세립사 중심, 소토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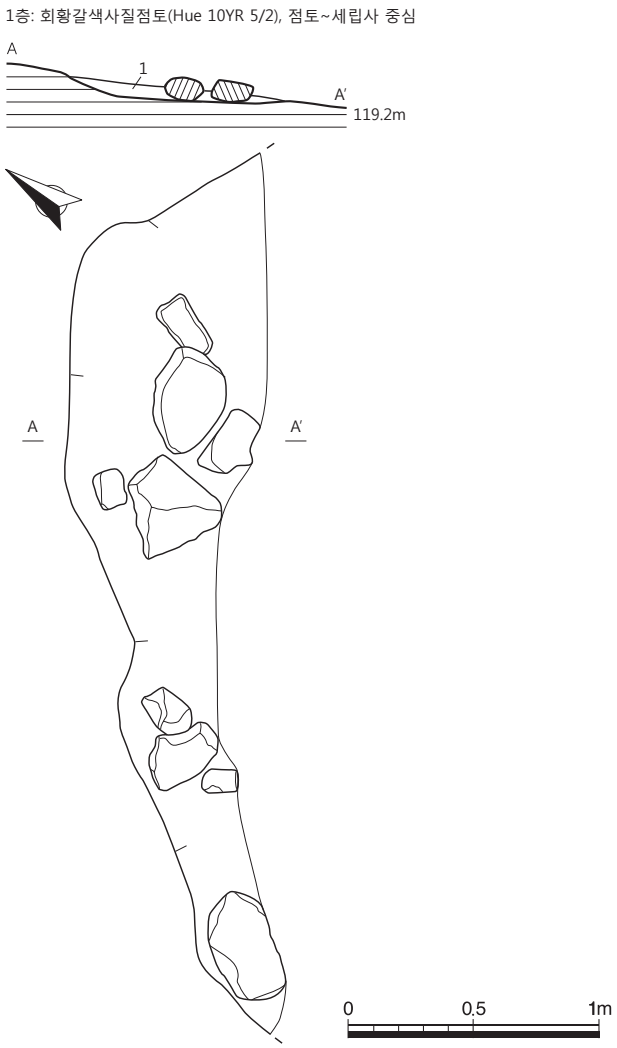
1층: 회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6/2), 점토~세립사 중심, 갈색 망간반문 다량 혼입



1층: 회갈색사질점토(Hue 10YR 2/2), 점토~세립사 중심, 목탄과 소토 혼입
2층: 황갈색사질점토(Hue 10YR 5/6), 점토~세립사 중심



도면 21. 통일신라시대 수혈 39~45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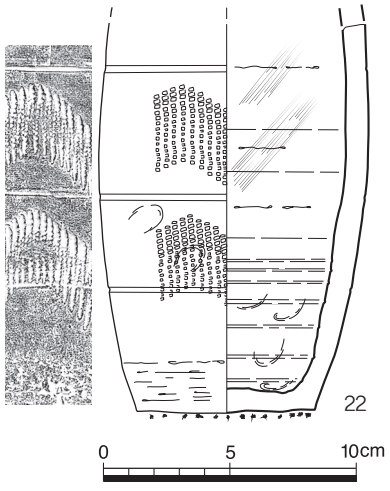
도면 22. 통일신라시대 수혈 46호 평면도 및 토층도(S=1/30)

4) 지표수습유물

22. 병 동체부편(도면 23, 도판 32)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경질 소성이며, 동체와 저부 일부만 잔존하여 동체는 도상복원하였다. 외면은 회색, 내면은 회백색, 속심은 암자회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최대경은 중위에 위치하고 바닥은 평저이다. 동체 외면에 각 1조씩 3단의 횡침선을 돌렸고, 하위에는 점토보강 후 회전깎기조정하였다. 동체 외면에 '∧' 자형으로 점열문을 2단을 시문하였고, 희미한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 내면에는 물레성형흔, 점토대접합흔, 물손질흔, 손누름흔이 있고 바닥 외면에 다량의 초흔이 관찰된다. 전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 내면 하위 일부와 바닥 내외면, 동체 외면 전체에 자연유가 부착된 후 산화 · 박리되었다.

현고 15.5㎝, 저경 7.0㎝, 동최대경 10.6㎝



도면 23. 지표수습유물(22)

Ⅳ. 조사성과

포항 만석리 82번지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82번지로, 전체조사면적은 760㎡이며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 실조사일수 15일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은 신광면에서 동쪽의 청하면으로 넘어가는 '비학로'와 만석리의 곡강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신광온천'의 바로 북동쪽 구릉의 말단 사면부로서, 이번 조사지역을 포함한 일대는 '반곡리고분군'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조사지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방지 1기, 건물지 1동, 수혈 46기 등 총 48기의 유구와 병 구연부편, 덧띠무늬병 저부편, 병 저부편, 파수부편, 연화병 범편, 수키와편, 암키와편, 병 견부편, 동이 구연부편 등 총 2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적내 유구의 先築은 서편의 공방지로 추정되는데 가로, 세로 4m의 방형의 범위내 녹로축을 박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로축혈과 일부 주혈로 추정되는 수혈 31기와 이를 경사면 위쪽에서 감싸고 있는 석축과 배수시설이 하나의 단위로 조성되었다. 31기의 수혈 중 녹로축혈로 추정되는 것은 27개로 기반층을 'U'자형으로 굴착하여 조성한 형태와 주혈 내부에 다시 직경 10㎝ 내외 크기의 주혈이 있는 2단 주혈 형태로 구분된다. 녹로축을 박았던 주혈 내부에는 10~30㎝ 정도 크기의 할석이 벽면쪽을 돌아가며 채워져 있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는 녹로축을 고정하기 위한 시설로 판단된다. 축혈 사이에는 다소 직경이 좁고, 단면상으로 보아 주혈로 추정되는 수혈도 확인되었으나 불규칙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형성이 없다. 녹로축혈 서편의 석축은 석축 사이의 지대가 석축보다 낮은 점과 석축이 지대가 높은 북쪽에서 지대가 낮은 남서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공방지의 내부시설을 보호하는 배수시설 및 축대로 판단된다.

공방지의 동쪽에 입지한 건물지는 남향으로 향한 기단부가 일부 남은 기단건물지로 하부에 각종 수혈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전에 있었던 공방지의 일부로 추정된다. 본 건물은 잔존한 기단부에 추정 적심 2기가 있고, 그 후면에 건물지를 'ㄱ'자로 감싸고 도는 배수시설로 추정되는 구의 범위를 감안해 볼 때, 기단의 동편에 적심이 하나 정도는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당초 이 건물은 정면 2칸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서편의 공방지와 직접적인 중복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거의 동시기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출토된 유물은 공방지와 건물지에서 연화병 범편, 파수부편, 토기 저부편, 덧띠무늬병 저부편, 수키와편, 암키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류와 기와류를 통해서 볼 때 본 유적의 연대는 8세기 중반~9세기 초로 추정되며 녹로축혈과 건물지의 규모나 구조상 일반적인 가옥이라기보다는 공방과 공방을 운영하던 특수목적의 건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유구들이 조사지역에 고루 확인되었으나 현대 경작으로 인한 삭평으로 공방지와 건물지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출토유물 역시 대부분 편으로 온전한 유물은 없고, 통일신라시대의 일반적인 토기류나 기와류로서 토제 연화병 범편을 제외하고 특이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성과는 포항 신광면내에서는 처음으로 통일신라시대유적이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그 성격에 있어서도 공방지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사시대부터 특히 삼국~통일신라시대에는 이 지역이 주요 교통로로서 중요한 곳으로 당시의 유적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에도 현대의 개발에 소외되면서 유적조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탓에 알려진 유적이 별로 없는 상태이다. 본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해당하는 직선거리로 3.6㎞ 지점에 역시 통일신라기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진 法光寺[8]가 위치하고 있다. 법광사의 중요성으로 여러 차례의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전모가 일부 알려지고 있는데, 본 유적의 연대나 그 성격으로 보아 법광사와의 관련성도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경주지역에서 북쪽의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에 본 유적이 조사되어 통일신라기의 지역문화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금번 정밀발굴조사의 의의가 있다.

---

8)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3,『浦項法光寺址 發掘調査中間報告 Ⅰ』.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5,『浦項法光寺址 發掘調査中間報告 Ⅱ』.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6,『浦項法光寺址 發掘調査中間報告 Ⅲ』.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7,『포항 법광사지 유적 7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법광사의 창건연대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고식수막새와 단각고배를 통해 진평왕대(재위 579~632년)인 7세기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법광사 소재의 삼층석탑으로 1968년 도굴당했다가 다시 회수되면서 석탑 내에서 발견된 탑지석의 석탑기에 탑의 건립이 828년(大和二年 戊申七月 香照師圓寂尼捨財建塔)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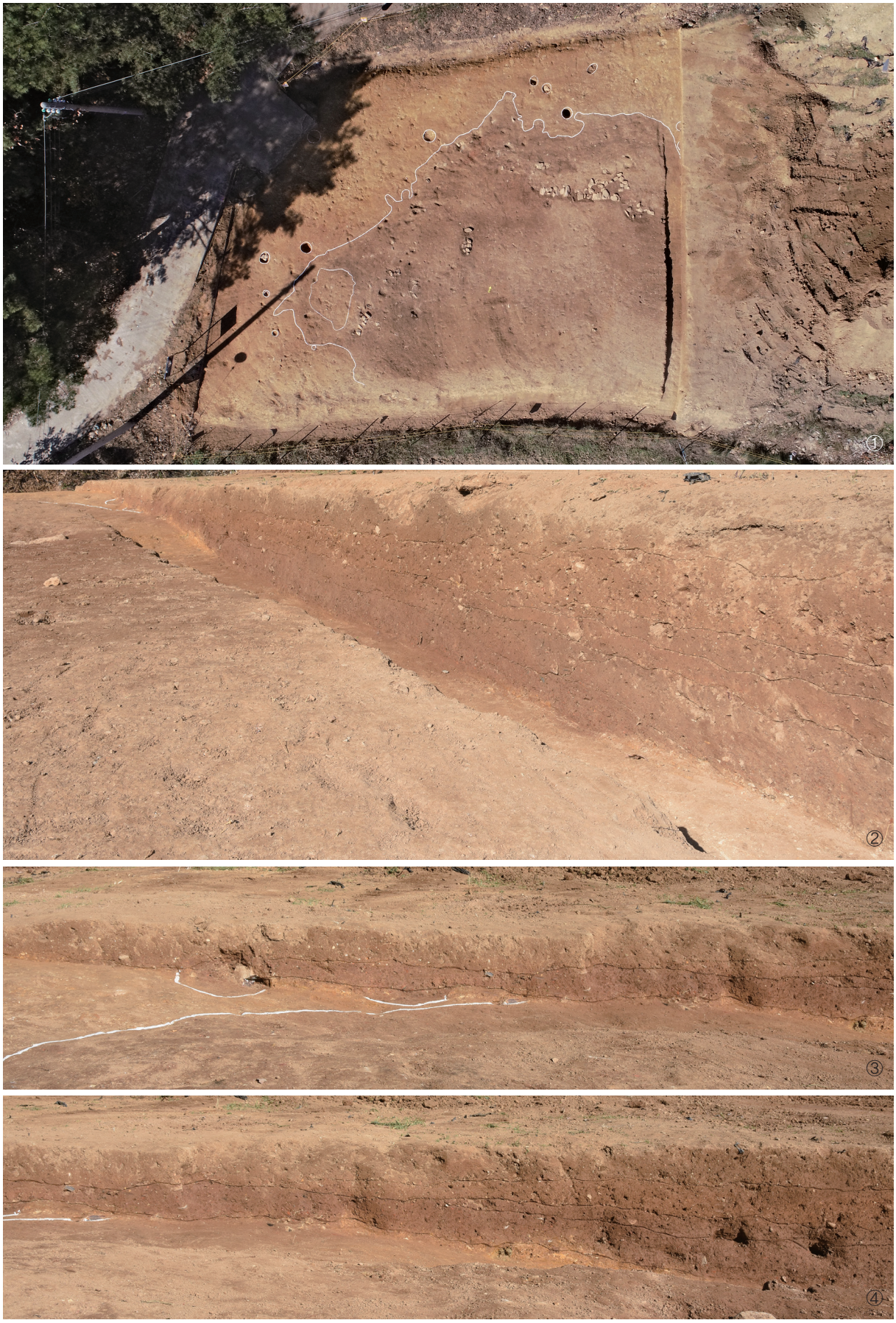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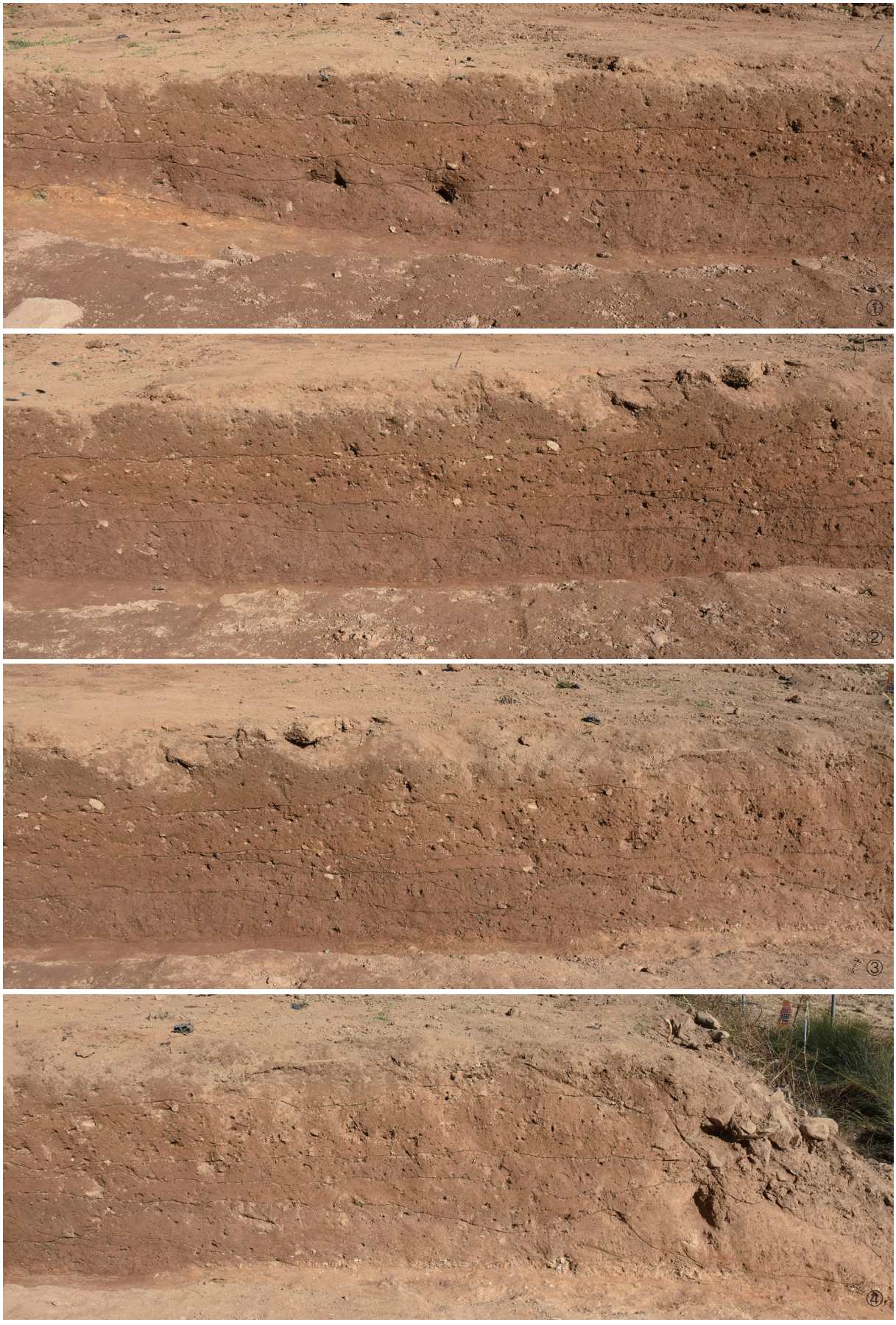
도판 1. 조사대상지 원경(①S→N), 조사대상지 근경(②SE→NW)



도판 2. 조사전 전경(①SE→NW, ②SW→NE, ③NE→SW, ④NW→SE,) 및 발굴조사 조사완료후 전경(⑤)



도판 3. 조사중 중심 남북토층(①직상방, ②SW→NE, ③ · ④세부)



도판 4. 유적 중심 남북토층 세부(①~④)



도판 5. 공방지 상부 'T' 자형 토층둑 전경(①) 및 남북토층 전경(②S→N, ③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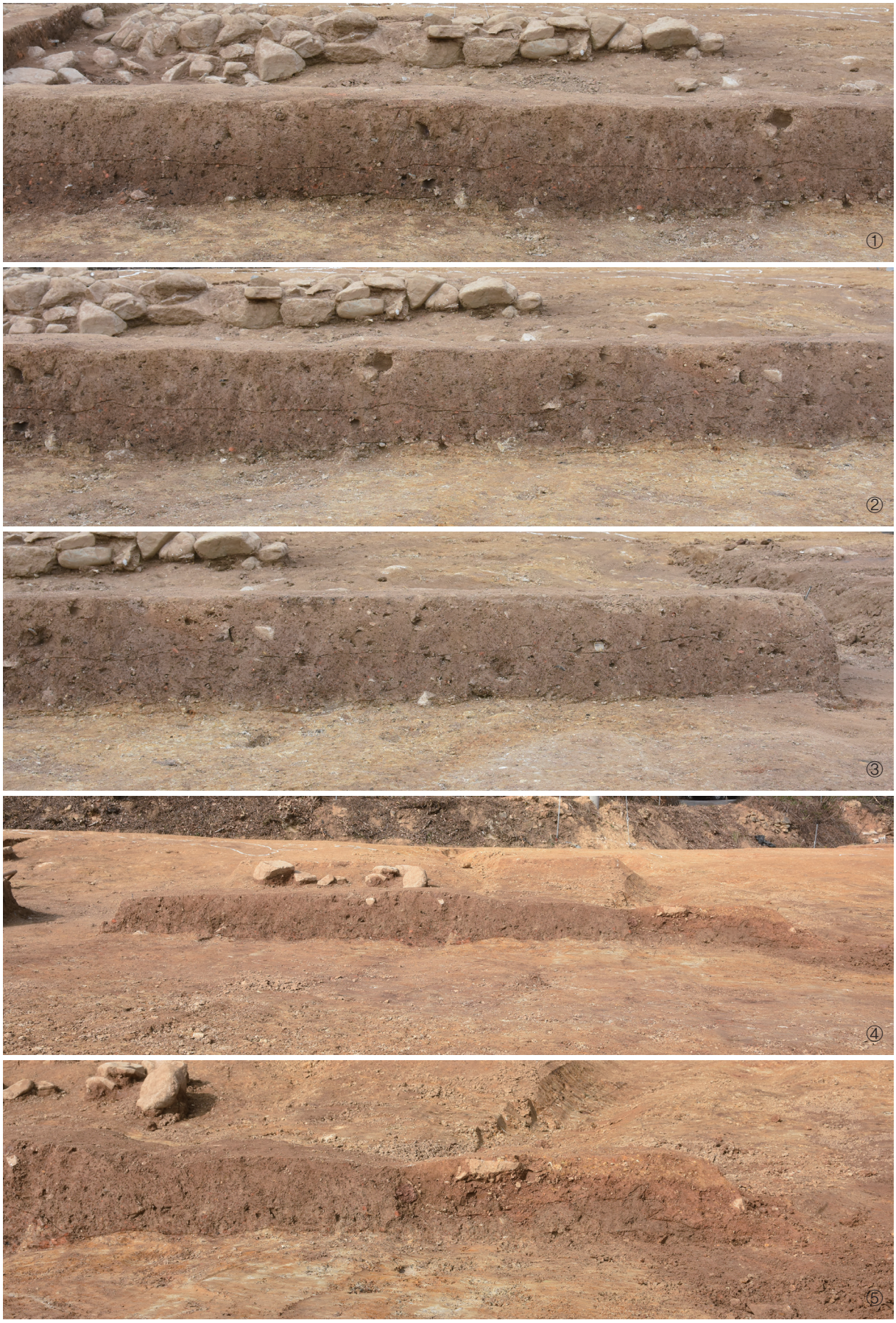
도판 6. 공방지 상부 남북토층 세부(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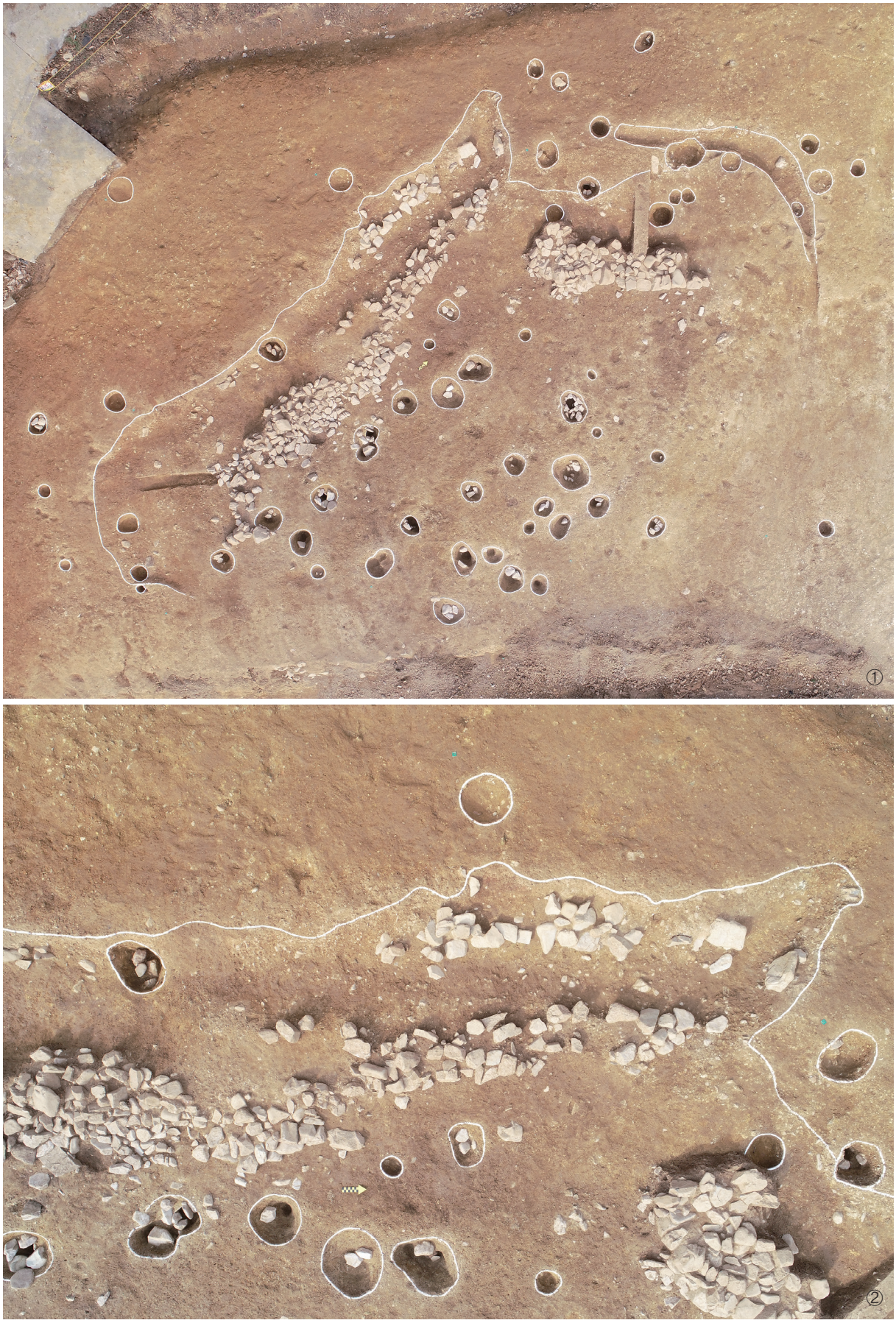
도판 7. 공방지 상부 남북토층 세부(①~④) 및 동서토층 전경(⑤SW→NE, ⑥E→W)



도판 8. 공방지 상부 동서토층 세부(①~⑤)



도판 9. 공방지 상부 동서토층 세부(①~⑤)



도판 10. 공방지 전경(①직상방)과 세부(②배수구와 석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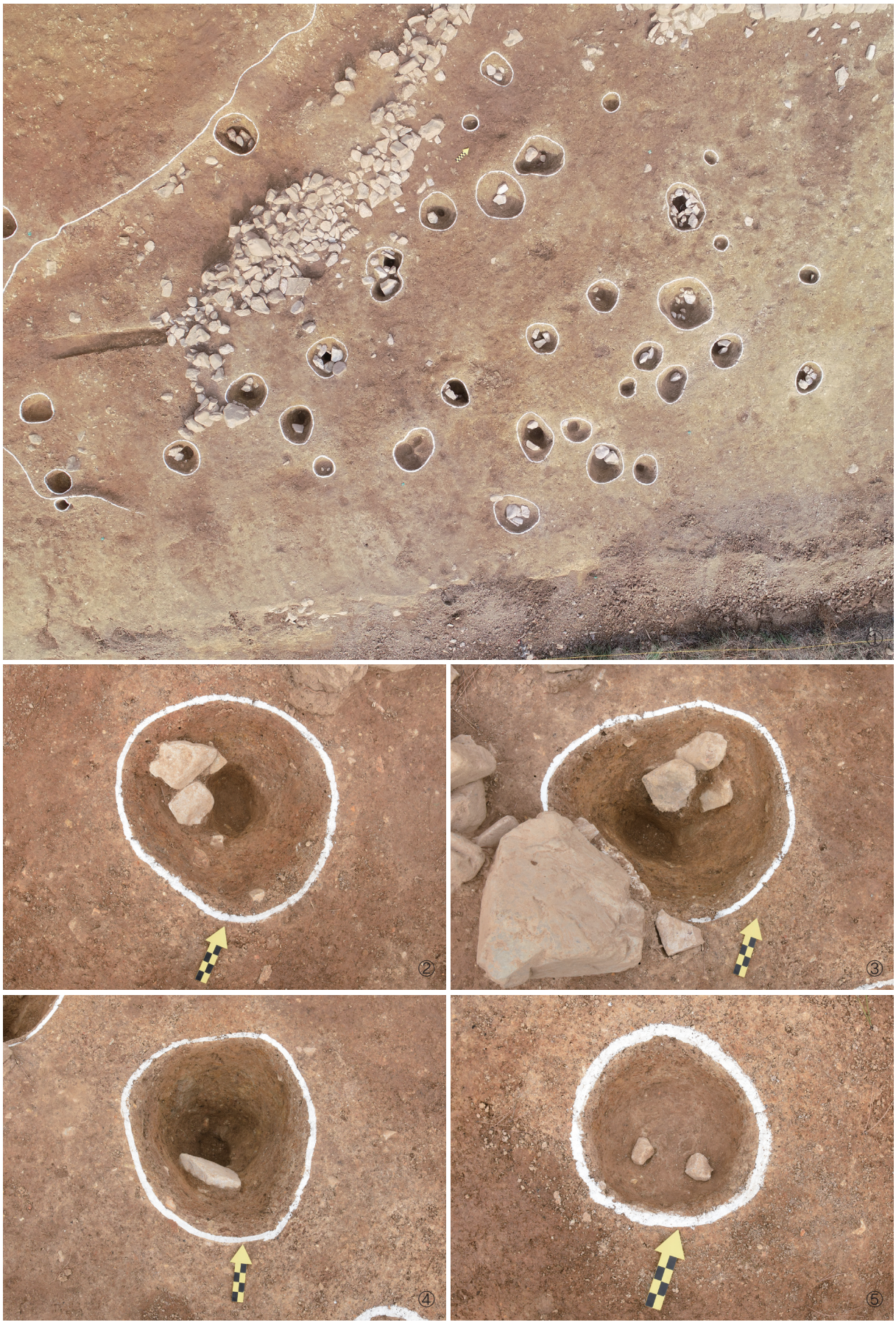
도판 11. 공방지 석축 세부(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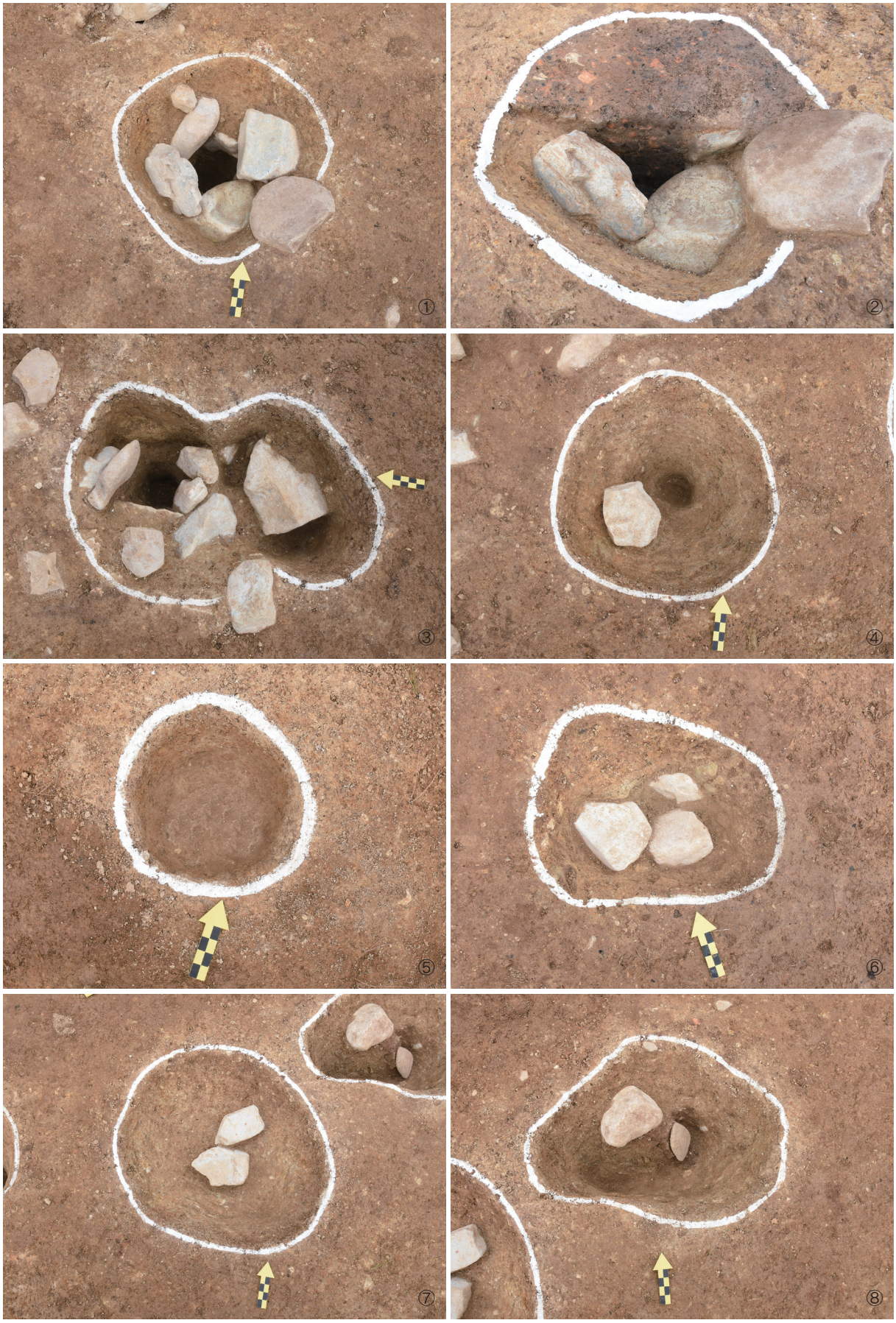
도판 12. 공방지 석축부내 유물 출토상태(①~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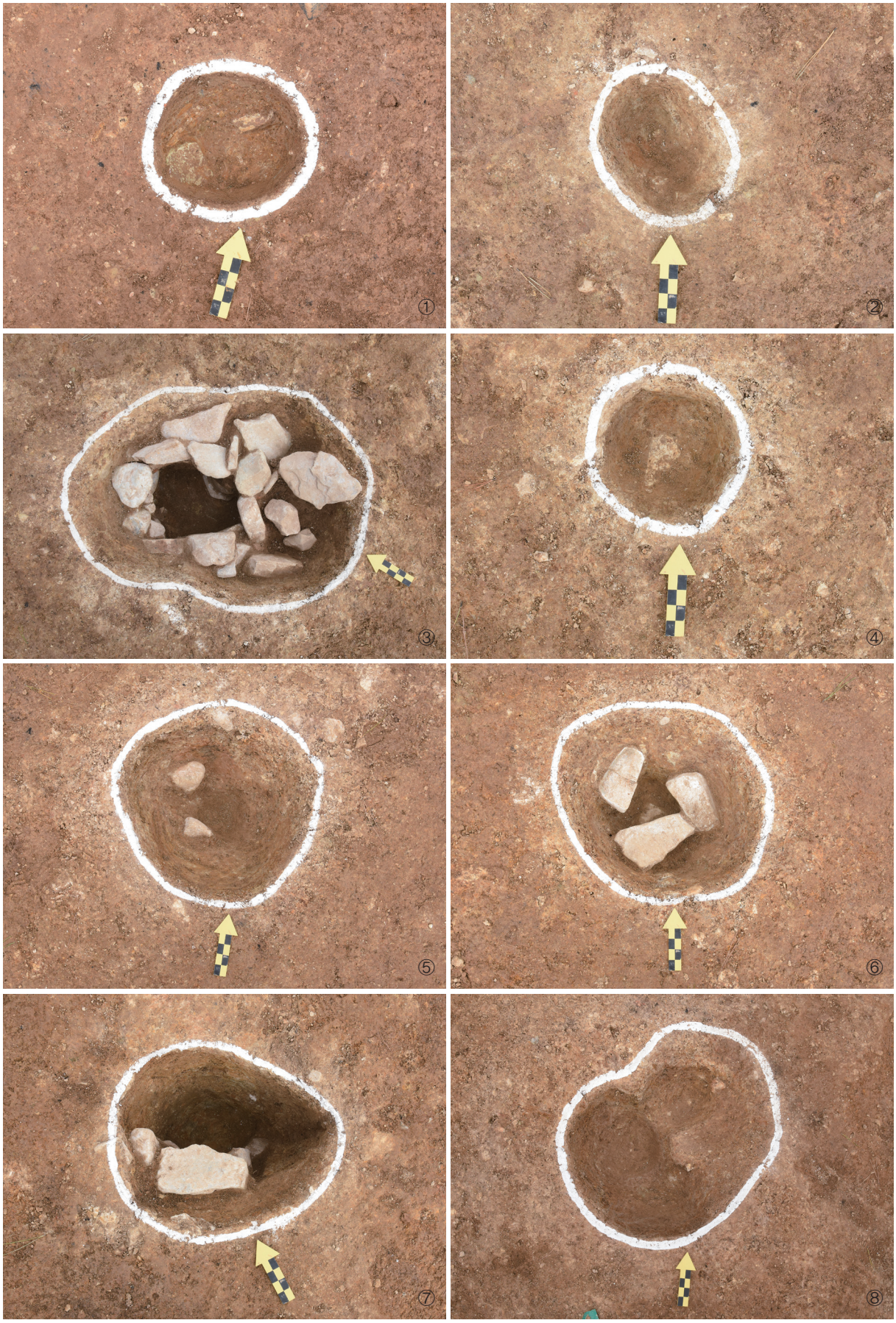
도판 13. 공방지 석축부 단면상태(①단면 1, ②단면 2, ③단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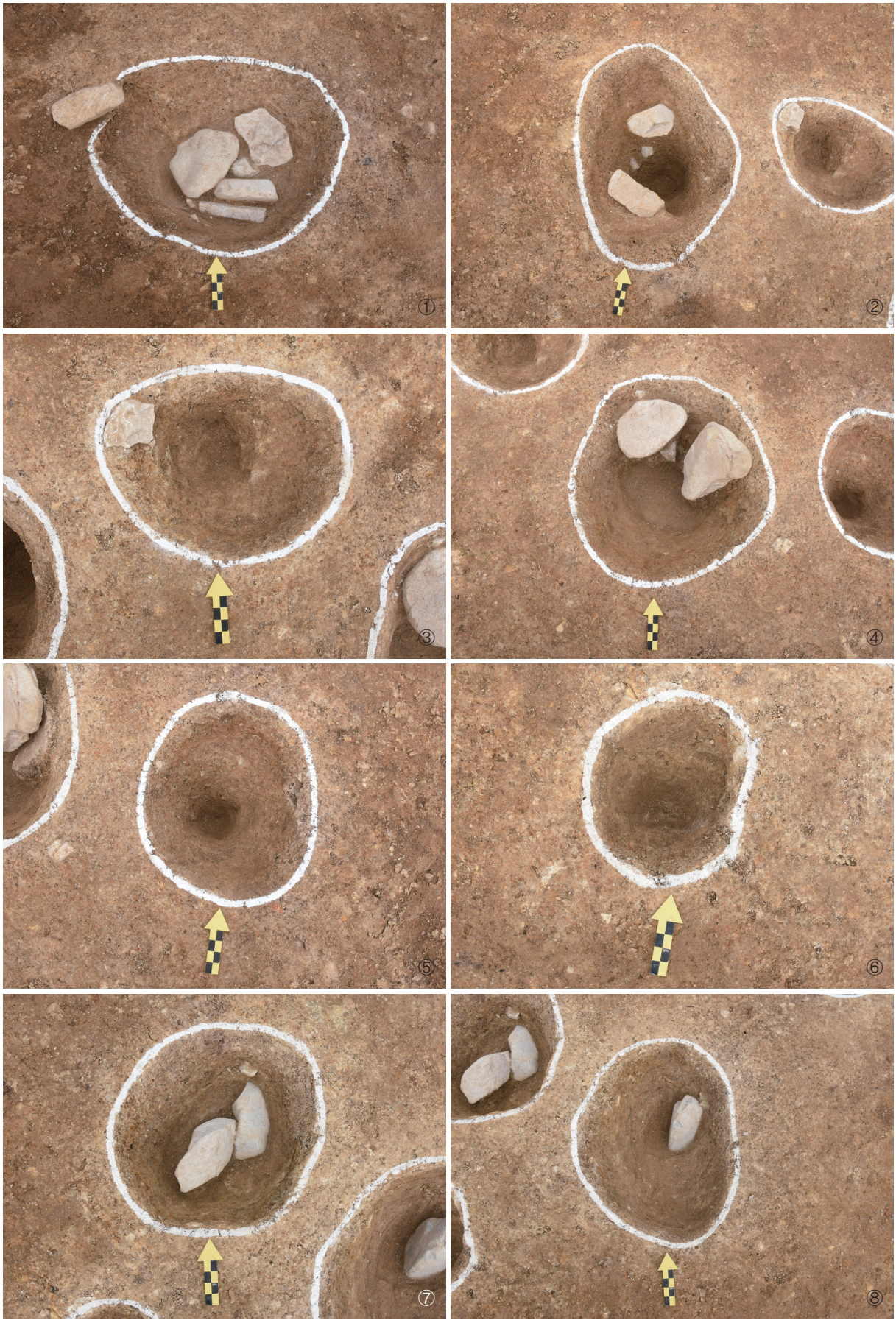
도판 14. 공방지내 수혈군 전경(①) 및 수혈 전경(②1호, ③2호, ④3호, ⑤4호)



도판 15. 공방지내 수혈 전경(①5호, ②5호 토층, ③6호, ④7호, ⑤8호, ⑥9호, ⑦10호, ⑧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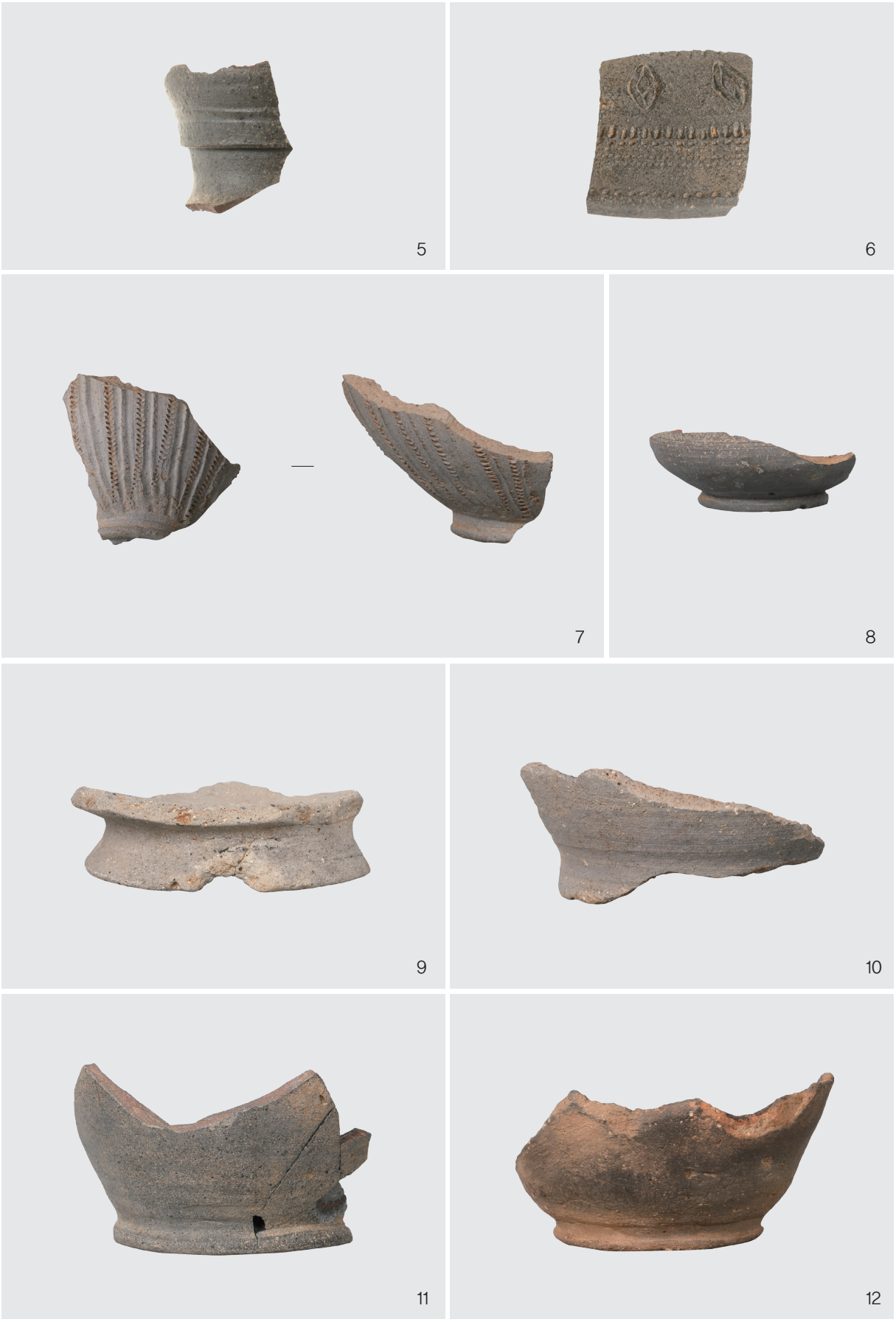
도판 16. 공방지내 수혈 전경(①12호, ②13호, ③14호, ④15호, ⑤16호, ⑥17호, ⑦18호, ⑧19호)



도판 17. 공방지내 수혈 전경(①20호, ②21호, ③22호, ④23호, ⑤24호, ⑥25호, ⑦26호, ⑧27호)



도판 18. 공방지내 수혈 전경(①28호, ②29호, ③30호, ④31호), 공방지내 수습유물(1~4)



도판 19. 공방지내 수습유물(5~12)



13



14





15 내면

15



16



17

도판 20. 공방지내 수습유물(13~17)





도판 21. 공방지내 수습유물(18), 건물지 직상방 전경(①)



도판 22. 건물지 전경(①E→W, ②S→N)



도판 23. 건물지 직상방 전경(①), 기단부 전면 세부(② · ③S→N)



도판 24. 건물지 종단면 토층(①전경, ②세부), 기단부 측면 전경(③) 및 추정적심부(④ · ⑤)



도판 25. 건물지 적심1 단면(①), 적심 2 주변 단면(②~④), 건물지 구 전경(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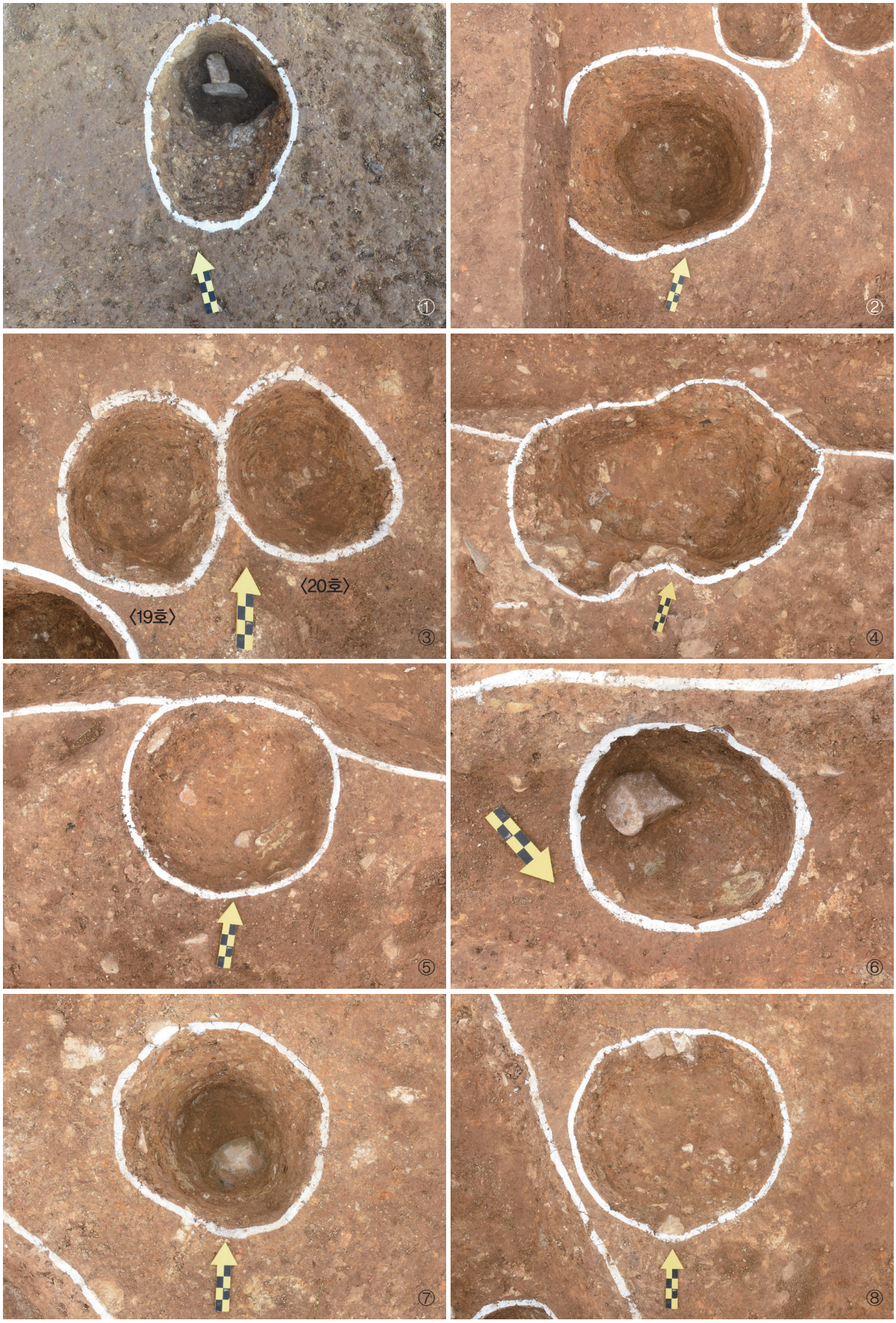
도판 26. 건물지 구 단면토층(①), 건물지 수습유물(19~21)



도판 27. 수혈 조사완료 전경(①1호, ②2호, ③3호, ④4호, ⑤5호, ⑥6호, ⑦7호, ⑧8호)



도판 28. 수혈 조사완료 전경(①9호, ②10호, ③11호, ④12호, ⑤13호, ⑥14호, ⑦15호, ⑧16호)



도판 29. 수혈 조사완료 전경(①17호, ②18호, ③19 · 20호, ④21호, ⑤22호, ⑥23호, ⑦24호, ⑧25호)



도판 30. 수혈 조사완료 전경(①26호, ②27호, ③28호, ④29호, ⑤30호, ⑥31 · 32호, ⑦33호, ⑧34호)



도판 31. 수혈 조사완료 전경(①35호, ②36호, ③37호, ④38호, ⑤39호, ⑥40호, ⑦41호, ⑧42호)



도판 32. 수혈 조사완료 전경(①43호, ②44호, ③45호, ④ · ⑤46호), 지표수습유물(22)

부 록

포항 만석리 82번지 유적 출토유물 목록

연번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보고서 도면번호, 사진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1	2018-1405-0000001	병 구연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4.0)	(9.0)	·	13, 18	Y
2	2018-1405-0000002	병 구연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3.1)	(8.0)	·	13, 18	Y
3	2018-1405-0000003	병 구연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3.8)	(3.4)	·	13, 18	Y
4	2018-1405-0000004	병 구연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4.0)	(11.6)	·	13, 18	Y
5	2018-1405-0000005	병 구연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4.3)	(5.6)	·	13, 19	Y
6	2018-1405-0000006	개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2.8)	·	·	13, 19	Y
7	2018-1405-0000007	덧띠무늬병 저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4.7)	·	(6.0)	13, 19	Y
8	2018-1405-0000008	병 저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4.2)	·	5.8	13, 19	Y
9	2018-1405-0000009	토기 저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3.1)	·	9.4	13, 19	Y
10	2018-1405-0000010	토기 저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4.8)	·	(12.3)	13, 19	Y
11	2018-1405-0000011	토기 저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7.1)	·	(9.5)	13, 19	Y
12	2018-1405-0000012	토기 저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6.4)	·	7.2	13, 19	Y
13	2018-1405-0000013	파수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6.1)	(6.2)	3.2	13, 20	Y
14	2018-1405-0000014	파수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5.0)	(5.0)	2.5	13, 20	Y
15	2018-1405-0000015	연화병 범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14.1)	(14.5)	·	13, 20	Y
16	2018-1405-0000016	수키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14.6)	(9.5)	1.5	14, 20	Y
17	2018-1405-0000017	수키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12.2)	(6.3)	1.2	14, 20	Y
18	2018-1405-0000018	암키와편	1	공방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9.5)	(13.7)	1.3	14, 21	Y
19	2018-1405-0000019	병 견부편	1	건물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3.7)	·	·	16, 26	Y
20	2018-1405-0000020	동이 구연부편	1	건물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11.8)	(20.0)	·	16, 26	Y
21	2018-1405-0000021	암키와편	1	건물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29.8	(14.2)	1.3	16, 26	Y
22	2018-1405-0000022	병 동체부편	1	지표수습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15.5)	·	7.0	23, 32	Y

調査報告書 抄錄

<table>
<tr><td>報 告 書 名</td><td colspan="3">포항 만석리 82번지 유적</td><td>發行日</td><td>2020年 11月 25日</td></tr>
<tr><td rowspan="3">發 刊 機 關</td><td>명칭</td><td colspan="4">(재)세종문화재연구원</td></tr>
<tr><td>주소</td><td colspan="4">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 1길 25(신대리 377)</td></tr>
<tr><td>TEL</td><td colspan="2">(053)752-0303</td><td>FAX</td><td>(053)752-0363</td></tr>
<tr><td>執筆 · 編輯者</td><td colspan="5">김창억, 박달석, 유병록, 이동욱, 김준식, 김욱현, 양성민, 신상백</td></tr>
<tr><td>調 査 緣 由</td><td colspan="5">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구제발굴</td></tr>
<tr><td>發 掘 調 査 者</td><td colspan="5">김창억, 박달석, 유병록, 이동욱, 김준식, 김욱현, 양성민, 신상백</td></tr>
<tr><td>調 査 位 置</td><td colspan="5">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82번지
지리적 좌표 : 동경 129° 16'43.1″ · 북위 36° 09'50.0″</td></tr>
<tr><td>調 査 面 積</td><td colspan="5">760㎡</td></tr>
<tr><td>調 査 期 間</td><td colspan="5">2018년 11월 19일 ~ 2018년 12월 7일(실조사일수 15일)</td></tr>
<tr><td>遺 構 種 別</td><td>時代 및 年代</td><td>類型 및 基數</td><td colspan="2">重要遺物</td><td>特記事項</td></tr>
<tr><td rowspan="3">생활유적</td><td rowspan="3">통일신라</td><td>공방지 1기,
공방지 내 수혈 31기</td><td colspan="2">병 구연부편,
덧띠무늬병 저부편,
병 저부편,
토기 저부편,
파수부편,
연화병 범편,
수키와편, 암키와편</td><td>·</td></tr>
<tr><td>건물지 1동</td><td colspan="2">병 견부편,
동이 구연부편,
암키와편</td><td>·</td></tr>
<tr><td>수혈 46기</td><td colspan="2">·</td><td>·</td></tr>
</table>

115. 경주 사정동 53-4번지 외 1필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Ⅰ. 조사개요 …… 115-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15- 9

Ⅲ. 조사내용 …… 115-16
1. 시굴조사 …… 115-16
2. 발굴조사 …… 115-17
1) 건물지 …… 115-19
(1) 건물지 1호 …… 115-19
(2) 건물지 2호 …… 115-20
2) 석조유구 …… 115-20
3) 담장지 …… 115-27
4) 집석유구 …… 115-28
(1) 집석유구 1호 …… 115-28
(2) 집석유구 2호 …… 115-45
5) 매납유구 …… 115-46
(1) 매납유구 1호 …… 115-46
(2) 매납유구 2호 …… 115-48
6) 초석 및 적심 …… 115-48
7) 수혈유구 …… 115-50
8) 주혈 …… 115-53

Ⅳ. 조사성과 …… 115-56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15-1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15-13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15-15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배치도 …… 115-16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분포도 …… 115-18
도면 6. 건물지 1호 …… 115-19
도면 7. 건물지 2호 …… 115-21
도면 8. 석조유구 …… 115-23
도면 9. 석조유구 출토유물1(1~5) …… 115-24
도면 10. 석조유구 출토유물2(6 · 7) …… 115-26
도면 11. 담장지 및 출토유물(8) …… 115-27
도면 12. 집석유구 1호 …… 115-29
도면 13.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1(9~18) …… 115-32
도면 14.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2(19~25) …… 115-35
도면 15.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3(26 · 27) …… 115-37
도면 16.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4(28 · 29) …… 115-39
도면 17.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5(30~32) …… 115-40
도면 18.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6(33 · 34) …… 115-42
도면 19.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7(35~37) …… 115-43
도면 20.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8(38~40) …… 115-44
도면 21. 집석유구 2호 …… 115-45
도면 22. 매납유구 1 · 2호 …… 115-46
도면 23. 집석유구 1호(41) 및 2호(42) 출토유물 …… 115-47
도면 24. 초석 1 · 2호 및 적심 …… 115-49
도면 25. 수혈유구 1~3 · 5 · 6호 …… 115-51
도면 26. 수혈유구 4호 및 출토유물(43 · 44) …… 115-52
도면 27. 주혈 1~5 …… 115-54
도면 28. 상부 수습유물(45~47) …… 115-55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원경(①(W→E)) 및 조사전 전경(②(NE→SW)) …… 115-59
도판 2. 조사대상지 시굴조사(①조사후(항공사진), ②트렌치 1(E→W), ③트렌치 1 서벽 토층, ④트렌치 2(E→W), ⑤트렌치 2 북장벽 토층) …… 115-60
도판 3. 조사대상지 전경(①조사전(항공사진), ②조사중(항공사진)) 및 토층(③남쪽, ④북쪽) … 115-61
도판 4. 건물지 1호 조사후(①) 및 적심 세부(②③적심 1, ④⑤적심 2) …… 115-62
도판 5. 건물지 2호 조사후(①) 및 적심 세부(②③적심 1, ④⑤적심 2, ⑥⑦적심 3) …… 115-63
도판 6. 건물지 2호 적심 세부(①②적심 4, ③④적심 5) 및 석조유구 조사전(⑤항공촬영) … 115-64
도판 7. 석조유구(①조사중, ②③유물 출토상태, ④⑤입수구세부, ⑥단면 및 토층) …… 115-65
도판 8. 석조유구 출토유물1(1~5) …… 115-66
도판 9. 석조유구 출토유물2(6 · 7) 및 담장지 조사후(①②) …… 115-67
도판 10. 담장지(①토층, ②입면, 8: 출토유물) 및 집석유구 1호 전경(③)…… 115-68
도판 11. 집석유구 1호(①단면, ②~⑥북서쪽 폐와 노출상태, ⑦북서쪽 토층) …… 115-69
도판 12. 집석유구 1호(①~⑤남동쪽 폐와 노출상태 및 단면, ⑥⑦북동쪽 집석 내 유물 출토상태) …… 115-70
도판 13.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1(9~21) …… 115-71
도판 14.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2(22~26) …… 115-72
도판 15.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3(27~32) …… 115-73
도판 16.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4(33~35) …… 115-74
도판 17.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5(36~40) 및 집석유구 2호(①)…… 115-75
도판 18. 집석유구 2호 단면(①), 매납유구 1 · 2호(②), 매납유구 1호(③조사전, ④조사중, ⑤조사후, ⑥토층, 41: 출토유물) …… 115-76
도판 19. 매납유구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단면, 42: 출토유물) …… 115-77
도판 20. 초석 1호(①노출후, ②단면), 초석 2호(③노출후, ④단면), 적심(⑤노출후, ⑥단면), 수혈유구 1호(⑦조사전, ⑧조사중) …… 115-78
도판 21. 수혈유구 1호(①조사후, ②토층), 수혈유구 2호(③조사전, ④조사후, ⑤토층), 수혈유구 3호(⑥조사전, ⑦조사후, ⑧토층) …… 115-79
도판 22. 수혈유구 4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내부주혈1 토층, ④내부주혈2 토층, ⑤수혈 토층, 43 · 44: 출토유물)…… 115-80
도판 23. 수혈유구 5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토층), 수혈유구 6호(④조사전, ⑤조사중, ⑥토층), 주혈 1(⑦조사후, ⑧토층) …… 115-81
도판 24. 주혈 2(①조사후, ②토층), 주혈 3(③조사후, ④토층), 주혈 5(⑤조사후, ⑥토층), 주혈 6(⑦조사후, ⑧토층)…… 115-82
도판 25. 상부 수습유물(45~47: 출토유물) 및 자문위원회의 모습(①②) …… 115-83

Ⅰ. 조사개요

본 보고서는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53-4, 56-7번지로 정복남 · 강정민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332㎡)이다. 조사 경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경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경주시는 신청지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등 관계규정에 의거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사항(대릉원 일원)에 준하므로 원안대로 시행가능하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여 동법 제11조에 의거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매장문화재 조사(시 · 발굴)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시행자는 본 조사가 국비지원 대상임을 경주시를 통해 확인하여 2018년 7월 6일에 문화재청 문화재전자행정 협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 재단에 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시굴조사 세부계획서는 8월 22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8월 28일에 현장조사일수 2일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제2018-1071호)를 받았다.

시굴조사는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현장조사일수 2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폐와무지 2기, 적심 2기, 석군 1기, 수혈유구 3기, 주혈 2개 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지 전면(332㎡)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

정밀발굴조사 세부계획서는 10월 12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10월 23일에 현장조사일수 18일에 대한 문화재청 변경허가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11월 9일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동, 석조유구 1기, 담장지 1기, 집석유구 2기, 매납유구 2기, 초석 및 적심 3기, 수혈유구 6기, 주혈 5개 등 총 2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2018년 11월 29일 학술자문회의[2)]에서는 집석유구 및 석조유구의 단면을 절개하여 마무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유구의 잔존상태가 대부분 양호하지 않으므로 기록 보존한 후 예정된 공사를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시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학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집석유구 및 석조유구 등에 대한 단면 절개를 실시하고 기록 보존한 후 12월 7일(현장조사일수 18일)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연구지원팀장)
책임조사원 : 박 강 민(조사연구1팀 부팀장)
조 사 원 : 남 효 정(조사연구1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이 현 호(조사연구1팀 연구원)

---

1) 한국문화재재단, 2018, 「소규모 국비지원 시굴조사 약식보고서-경주 사정동 53-4번지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2) 학술자문회의 자문위원 : 강봉원(경주대학교 교수), 박홍국(위덕대학교 박물관장)

보　조　원 : 오 현 민(조사연구1팀 연구원)

*( )은 조사당시의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강성귀 책임 하에 윤민비, 김유정, 윤영경, 이영호, 김정애 등 본 재단 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강성귀, 이현호, 황도담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의 사진은 오세윤(문화재사진연구소)이 촬영하였다.

원고는 박강민 책임 하에 Ⅰ·Ⅱ장 남효정, Ⅲ장 남효정(조사내용 및 유구), 강성귀 · 윤민비(유물), Ⅳ장 남효정이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박강민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53-4, 57-6번지에 해당하며, 경 · 위도상 동경 129°12′25.04″, 북위 35°50′19.40″이다. 조사대상지는 경주 태종로 서라벌네거리에 위치한 단석명가 찰보리빵의 남쪽에 접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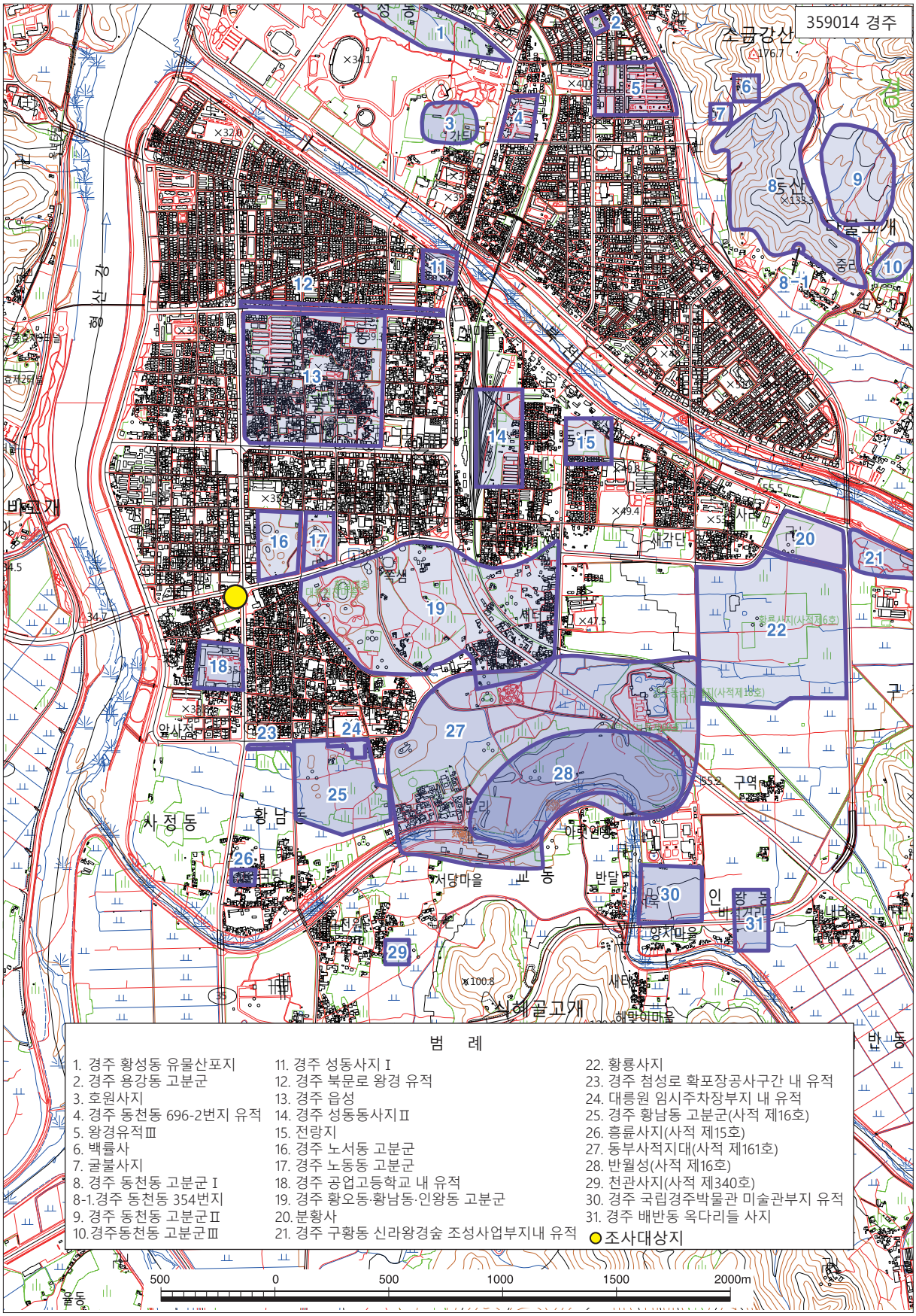
자연 · 지리적[3]으로 조사대상지는 하천의 영향으로 형성된 선상대지의 평탄면(해발 35.9~36.3m 정도)에 해당하며, 서쪽으로 500m 정도 떨어져 형산강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다. 사정동은 북쪽에 소금강산(176m), 남쪽에 남산(494m), 서쪽에 선도산(390m), 동쪽에 명활산(266m)에 의해 둘러싸인 경주 분지의 중심지역 중 서쪽지역에 위치한다.

역사적[4]으로, 사정동은 '사정', '구역거리', '국당' 등으로 불렸는데, '사정'은 맑은 물이 흐르는 문천(汶川, 蚊川)가에 있는 마을로 부드럽고 고운 모래가 많다하여 '沙正'이라 일컫었으며, '구역거리'는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경주역이 있어 그 후 역이 있던 곳이라 '舊驛'이라 불렀다. '菊堂'은 사정 남쪽 남천가에 있는 마을로 나라에서 제사지내는 당이 있었다고 하여 불려진 이름이라 한다. 조선말기에 사정, 앞사정, 뒤사정, 국당을 통틀어 '사정'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사정리로 불렸으며, 1955년 시제 실시에 의해 법정동인 사정동으로 되었다가 1986년 사정동, 탑동, 율동을 묶어 행정동인 탑정동으로 운영되었다.

고고학적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상 조사대상지는 '경주 대릉원'[5]에서 서쪽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발굴조사된 유적으로는 북쪽으로 10~30m 정도 떨어져 '경주 태종로 지중화사업지구내 유적'[6], 북서쪽으로 125m 정도 떨어져 '경주 노서동 169-13번지 유적'[7], 남쪽으로 100m 정도 떨어져 '경주 사정동 51-4번지 유적'[8]등이 있다. 또한, 조사대상지의 남쪽에 접한 '경주 사정동 53-6번지 일원 유적'[9]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석군 및 부석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

3) 자연 · 지리적 환경은 『경주시사 Ⅰ』(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6)을 참고하여 수정 · 가필하였다.
4) 역사적 환경은 『慶州 風物地理誌』(경주시 · 경주문화원, 2006)을 참고하여 수정 · 가필하였다.
5) 國立慶州博物館 · 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대릉원으로 본래 사적 제38호 경주 노동동고분군, 사적 제39호 경주 노서동 고분군, 사적 40호 경주 황남동 고분군, 사적 제41호 경주 황오동 고분군, 사적 제42호 경주 인왕동 고분군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11년 유적의 특성과 역사성으로 고려하여 고분군을 통합하여 사적 제 512호로 재지정하였다.
6)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1, 『경주 문산리 유적Ⅱ-경주 태종로 전선지중화사업부지 내 유적』.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경주 태종로 전선지중화부지(2차) 유적』.
동서도로, 적심, 건물지 관련 석렬, 우물 등 건축관련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본 조사대상지와 인접한 구역은 라-3구역으로 문화층 및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7) 성림문화재연구원, 2010, 『경주 노서동 169-13번지 유적』.
건물지, 담장지, 우물, 적심 등이 확인되었다.
8)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10, 『왕경유적 XV-경주 사정동 51-4번지 주유소부지 내 유적』.
석군, 담장, 방형 석조유구, 수혈,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9) 화랑문화재연구원, 2019, 「경주 사정동 53-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통일신라시대 기단석렬, 담장유구 등 건축관련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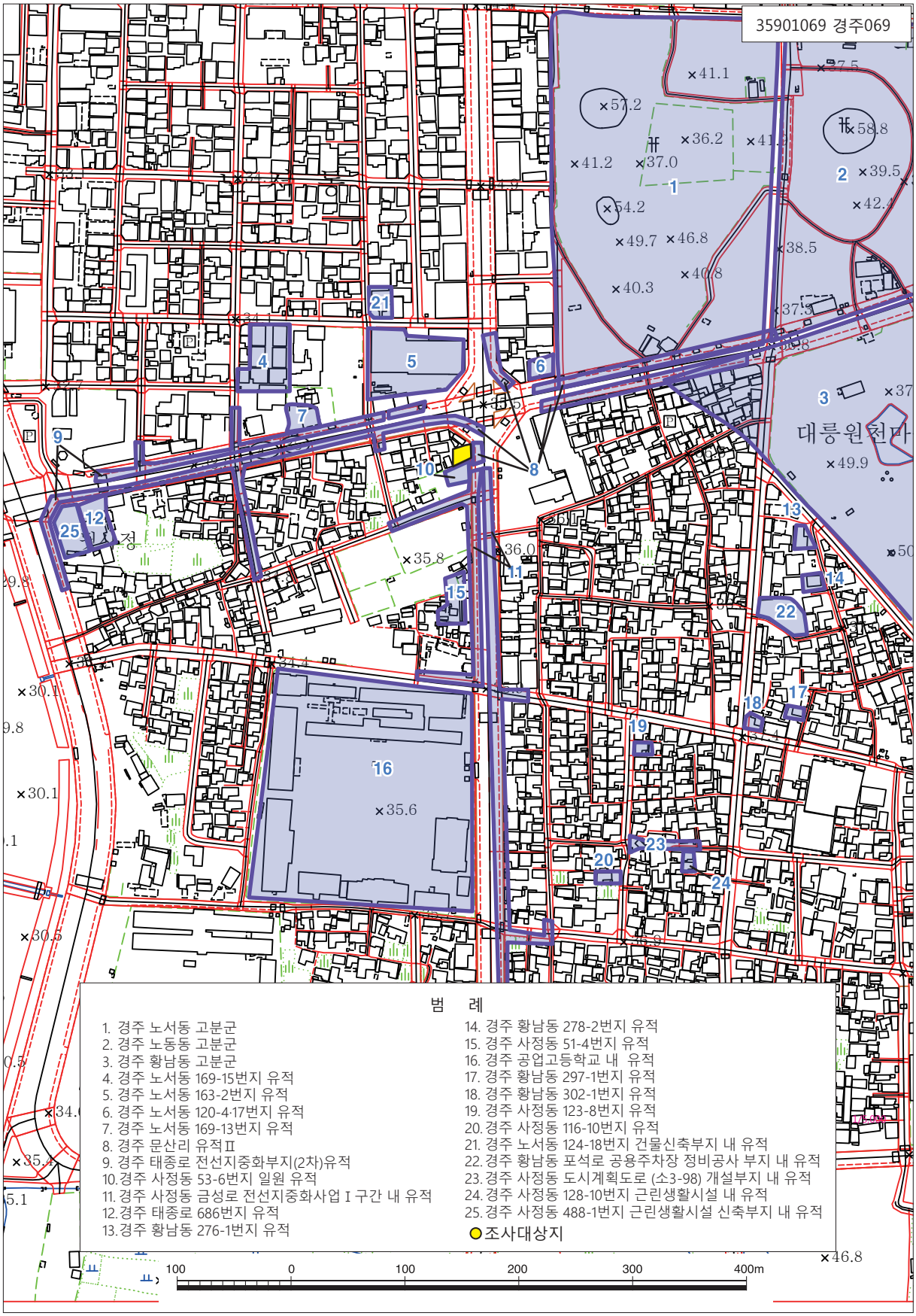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주변유적의 자세한 분포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주변유적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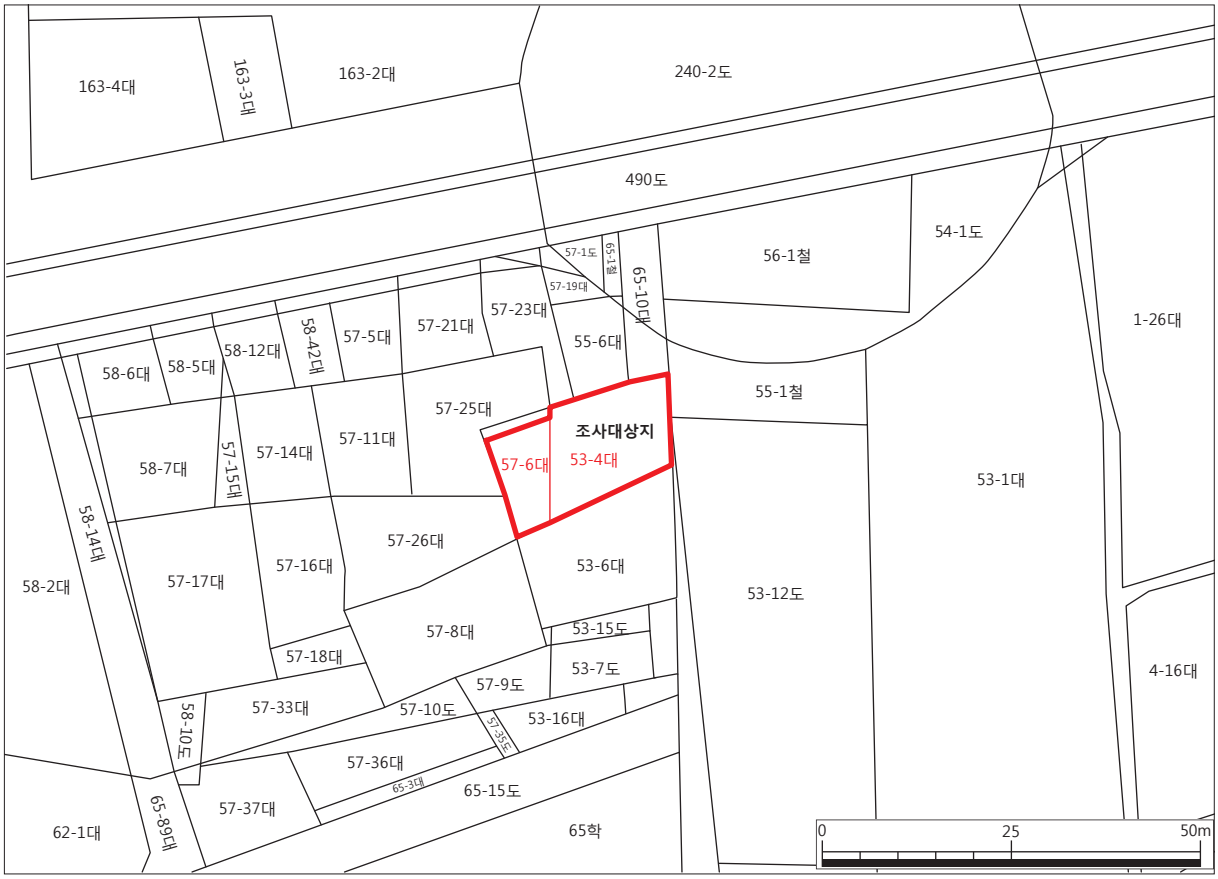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경주 성건동 352-10번지 유적	북서쪽 643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수혈, 우물 등	화랑문화재연구원, 2016, 『경주 성건동 352-10번지 유적』	
2	경주 성건동 373-13번지 유적	북서쪽 570m	통일신라시대 담장, 적심건물지 등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왕경유적6-경주 성건동 373-13번지 유적』	
3	경주 노서동 62번지 유적	북동쪽 550m	통일신라시대 매납 조선시대 건물지 등	韓國文化財財團, 2015, 「경주 노서동 62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보고서 Ⅷ -경북1-』	
4	경주 성건동 342-43번지 유적	북서쪽 500m	통일신라시대 담장, 적심, 배수로 조선시대 건물지 등	계림문화재연구원, 2015, 『경주 성건동 342-43번지 유적 공동주택신축부지』	
5	경주 월성초등학교 운동장트랙 조성공사부지 내 유적	북동쪽 450m	통일신라시대 담장, 도로유구, 암거식배수로, 우물 고려시대 집석 등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경주 월성초등학교 운동장트랙 (측구수로)조성공사부지 내 경주 노서동 35-1번지 왕경유적』	
6	경주 성건동 342-17번지 유적	북서쪽 430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도로 등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경주 성건동 342-17번지 유적』	
7	경주 노서리 고분군	북동쪽 300m	삼국시대 고분군	國立慶州博物館 · 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사적 제39호
8	경주 노동리 고분군	북동쪽 450m	삼국시대 고분군	國立慶州博物館 · 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사적 제38호
9	경주 노서동 136-4번지 일원 건물신축 부지 내 유적	북서쪽 530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우물 등	화랑문화재연구원, 2017, 『경주 노서동 136-4번지 유적』	
10	경주 노서동 178-32번지 일원 숙박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북서쪽 479m	삼국시대 구 통일신라시대 도로, 건물지 등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1, 『경주 노서동 178-32 · 35 유적 』	
11	경주 노서동 129-15번지 유적	북쪽 334m	통일신라시대 적심 등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노서동 129-15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12	경주 노서동 129-2번지 유적	북쪽 331m	통일신라시대 적심건물지, 담장, 석조유구 등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노서동 129-2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13	경주 노서동 132-32번지 유적	북서쪽 346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기단석렬 등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4, 『경주 노서동 132-32번지 유적』	
14	경주 노서동 132-34번지 유적	북서쪽 336m	통일신라시대 초석, 적심, 석군 등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4, 『경주 노서동 132-34번지 유적』	
15	경주 노서동 132-31번지 유적	북서쪽 315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기단석렬 등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4, 『경주 노서동 132-31번지 유적』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6	경주 노서동 176-32번지 외 2필지 유적	북서쪽 369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 등	덕난문화유산연구원, 2015, 「경주 노서동 176-32번지 외 2필지 공동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17	경주 노서동 176-40번지 유적	북서쪽 349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우물 등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 「경주 노서동 176-40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Ⅷ -경북2-』	
18	경주 노서동 176-29번지 유적	북서쪽 339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석렬 고려~조선시대 적심, 수혈 등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 「경주 노서동 176-29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Ⅷ -경북2-』	
19	경주 노서동 132-11번지 유적	북서쪽 279m	통일신라시대 담장, 배수로, 건물지 등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노서동 132-11번지 숙박시설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약보고서」	
20	경주 노서동 133-23번지 유적	북서쪽 245m	조선시대 수혈, 우물 등	성림문화재연구원, 2010, 『경주 노서동 133-23번지 조선시대 생활유적』	
21	경주 노서동 160-11번지 유적	북서쪽 461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석렬, 진단구 등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경주 노서동 다세대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2	경주 노서동 181-24번지 유적	북서쪽 373m	통일신라시대 도로, 담장 등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2013, 『경주노서동 181-24번지 유적』	
23	경주 노서동 120-20번지 유적	북쪽 111m	통일신라시대 도로, 건물지 등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경주 노서동 120-20번지 유적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24	경주 노서동 169-15번지 유적	북서쪽 188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배수로, 석렬 등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노서동 169-15번지 일원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5	경주 노서동 농협종합건축물 신축공사유적	북쪽 78m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 건물지 등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2004년도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경주 노서동 농협종합건축물 신축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26	경주 노서동 169-13번지 유적	북서쪽 125m	통일신라시대 적심건물지, 담장, 우물 등	성림문화재연구원, 2010, 『경주 노서동 169-13번지 통일신라시대 생활유적』	
27	경주 노서동 120-4, 17번지 유적	북동쪽 111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등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2004년도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경주 노서동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120-4,17번지)시굴조사	
28	경주 문산리 유적Ⅱ	북동쪽 12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등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1, 『경주 문산리유적Ⅱ-경주 태종로 전선지중화사업부지 내 유적』	
29	경주 태종로 전선지중화대상사업 (2차)부지내 유적	북서쪽 27m	통일신라시대 도로, 매납 조선시대 우물 등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경주 태종로 전선지중화부지(2차) 유적』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30	경주 황남리고분군	동쪽 288m	삼국시대 고분군	國立慶州博物館 · 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31	경주 사정동 금성로 전선지중화사업 I 유적	남쪽 38m	시대미상 적심, 석렬 등	계림문화재연구원, 2015. 『금성로 전선지중화사업 1구간 경주 사정동 53-12번지 일원 유적』	
32	경주 태종로 686번지 유적	서쪽 325m	통일신라시대 적심건물지, 적심 등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17, 『경주 태종로 686 유적』	
33	경주 사정동 51-4번지 유적	남쪽 107m	조선시대 담장, 수혈, 주혈 등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10, 『경주 사정동 54-1번지 주유소부지내 유적』	
34	경주 황남동 278-2번지 유적	남동쪽 315m	통일신라 건물지, 매납, 기단석렬 등	韓國文化財財團, 2015, 「경주 황남동278-2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Ⅸ -경북2-』	
35	경주 형산강 경주 1지구 하천 개수공사부지내 추정 목교지 유적	서쪽 412m	시대미상 목교지, 부석시설 등	계림문화재연구원, 2014, 『경주 형산강 경주 1지구 하천개수공사 부지내 추정목교지 유적』	
36	경주 공업고등학교내 배수시설 설치 부지 유적	남쪽 210m	청동기~통일신라시대 노지, 적심, 석렬 등	國立慶州博物館, 2011, 『慶州工業高等學校遺構 收拾調査』	
37	경주 사정동 459-9번지 유적	남서쪽 411m	고려시대 건물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1, 『경주시 사정동 459-9번지 수습 발굴조사보고서』	
38	경주 사정동 78-4번지 유적	남쪽 409m	통일신라, 시대미상 우물, 구상유구, 수혈주거지 등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9, 『왕경유적 Ⅻ -경주 사정동 78-4번지 유적』	
39	경주 노서동 124-18번지 유적	북서쪽 140m	통일신라~조선시대 도로, 건물지 등	금오문화재연구원, 2019, 「경주 노서동 124-18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0	경주 황남동 포석로 공용주차장 정비고공사부지내 유적	남동쪽 319m	통일신라~조선시대 건물지 등	화랑문화재연구원, 2019, 「경주 황남동 포석로 공용주차장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1	경주 사정동 도시계획도로(소3-98) 개설부지 내 유적	남동쪽 382m	통일신라~조선시대 수혈 등	금오문화재연구원, 2019, 「경주 사정동 도시계획도로(소3-98) 개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2	경주 사정동 128-10번지 유적	남동쪽 400m	통일신라~조선시대 적심, 석렬유구, 수혈 등	한국문화재재단, 2020, 「경주 사정동 128-1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3	경주 사정동 488-1번지 유적	서쪽 349m	통일신라~조선시대 적심, 집석 우물, 삼가마 등	한국문화재재단, 2020, 「경주 사정동 488-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	경주 사정동 53-6번지 유적	남쪽 12m	통일신라시대 기단석렬, 담장, 소성유구, 수혈 등	화랑문화재연구원, 2019, 「경주 사정동 53-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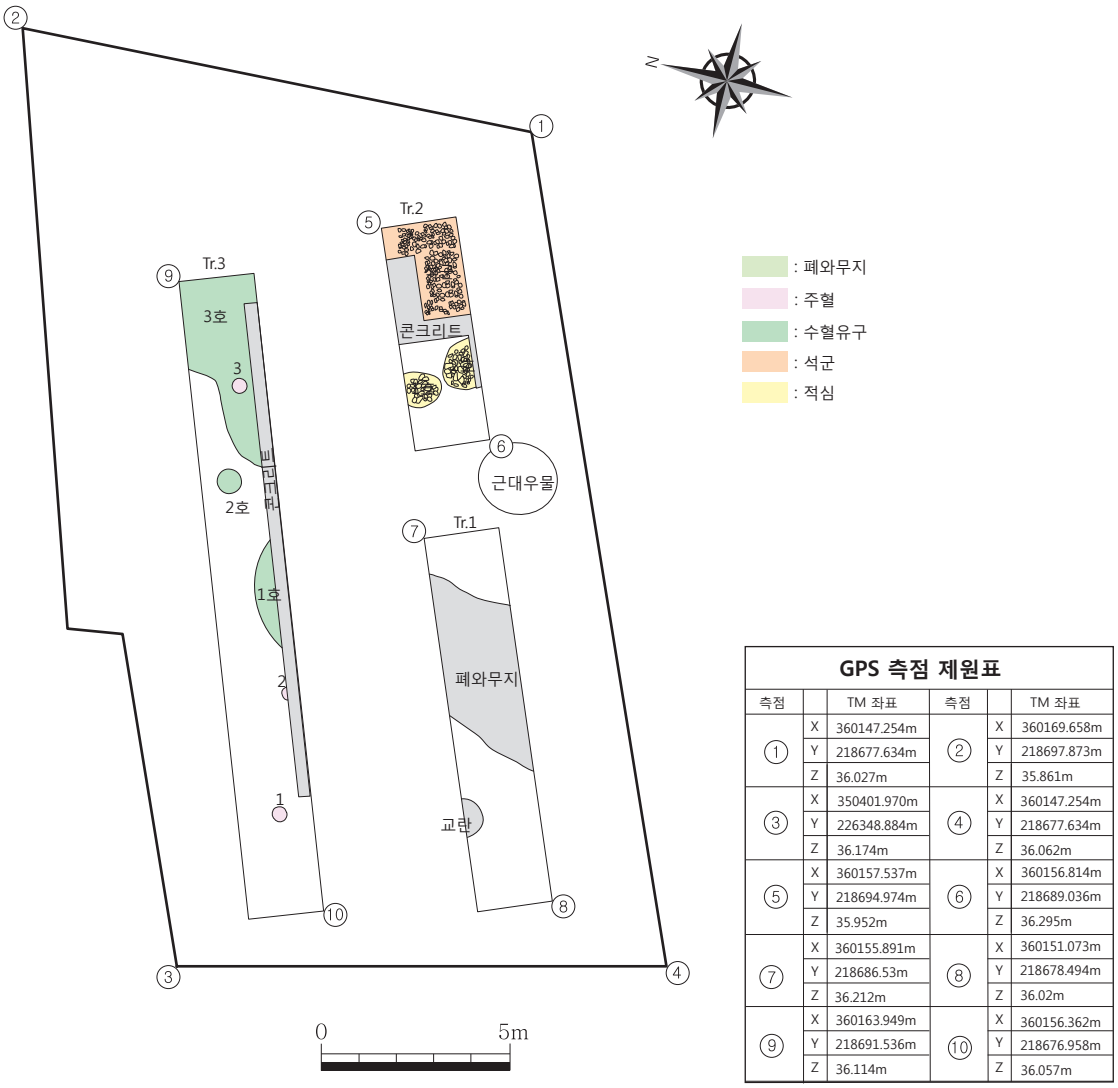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1. 시굴조사

시굴조사를 위한 트렌치는 조사대상지의 평면형태와 지장물 등을 고려하여 동-서 방향으로 트렌치 3개소를 설치하였다.

트렌치의 제토 및 유구 확인은 전체적인 층위를 파악하면서 실시하였으며, 유구가 확인되지 않으면 생토층까지 제토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토는 굴삭기를 이용한 기계제토를 실시한 후, 수작업으로 정리하면서 토층 퇴적양상과 유구 및 유물의 유존여부를 확인하였다.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360147.254m	②	X	360169.658m
	Y	218677.634m		Y	218697.873m
	Z	36.027m		Z	35.861m
③	X	350401.970m	④	X	360147.254m
	Y	226348.884m		Y	218677.634m
	Z	36.174m		Z	36.062m
⑤	X	360157.537m	⑥	X	360156.814m
	Y	218694.974m		Y	218689.036m
	Z	35.952m		Z	36.295m
⑦	X	360155.891m	⑧	X	360151.073m
	Y	218686.53m		Y	218678.494m
	Z	36.212m		Z	36.02m
⑨	X	360163.949m	⑩	X	360156.362m
	Y	218691.536m		Y	218676.958m
	Z	36.114m		Z	36.057m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배치도

조사대상지의 전반적인 토층 퇴적양상은 근 · 현대 복토층(1 · 2층)→퇴적층(3층)→통일신라시대 문화층(4층, 생토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표토하 90~120㎝ 정도의 갈색 역석층(생토층)에서 폐와무지 1기, 적심 2기, 석군 1기, 수혈유구 3기, 주혈 2개 등의 총 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폐와무지와 적심 등에서 중판타날기와편, 인화문토기편 등이 확인되어 통일신라시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밀발굴조사는 조사대상지 전면(332㎡)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표 2】 시굴조사 트렌치 속성표

트렌치 번호	규모(㎝)			장축 방향	조사내용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1,000	200	100	동-서	폐와무지 1기	
2	600	200	100	동-서	적심 2기, 석군 1기	
3	1,700	200	100~170	동-서	수혈유구 3기, 주혈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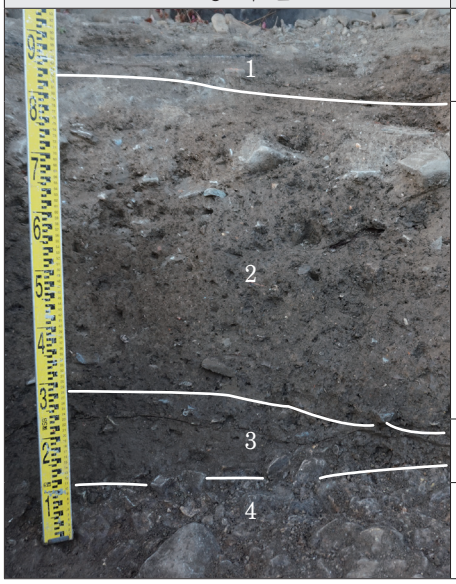
2. 발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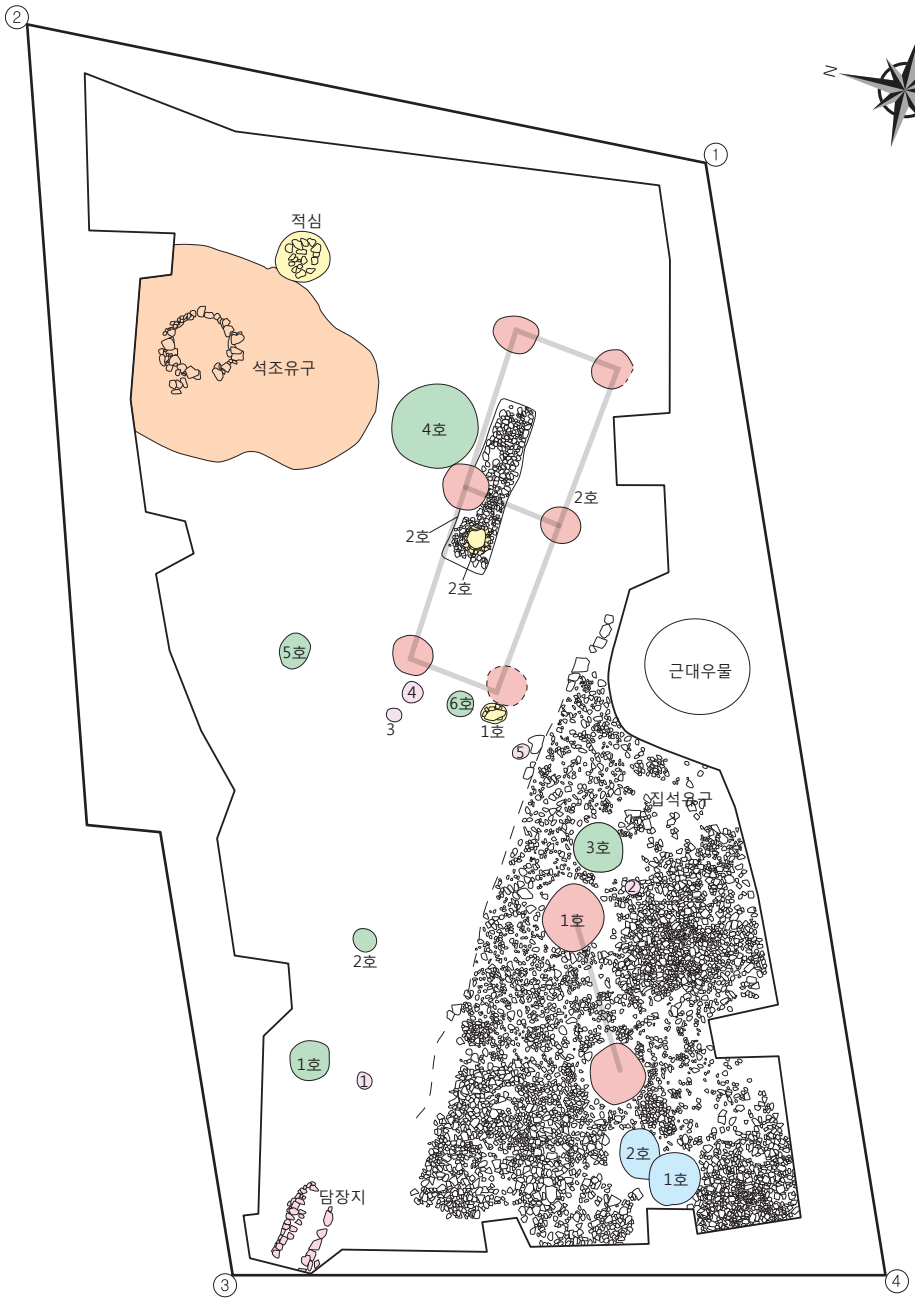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표토하 90~120㎝ 정도의 갈색 역석층(생토층) 상면을 중심으로 전면 제토하여 실시하였다. 제토는 유구가 확인되는 상면까지는 굴삭기를 이용한 기계 제토를 실시한 후 수작업으로 정리하면서 유구 및 유물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제토범위는 주변으로 상가건물이 인접해 있고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어 경계에서 안쪽으로 50~100㎝ 정도 이격하여 설정하였다. 남쪽 경계 중앙부에는 근대 우물이 위치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지의 전반적인 토층양상은 근 · 현대 복토층(1 · 2층)→퇴적층(3층)→통일신라시대 문화층(4층, 생토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조사대상지 토층(북쪽 경계부)

토 층 사 진	내 용	
	1층: 명황갈색(10YR 6/6) 사질점토	근 · 현대 복토층 (두께 70㎝ 정도)
	2층: 흑갈색(10YR 3/1) 사질점토 - 건축폐기물 등 다량 포함	
	3층: 흑갈색(10YR 3/2) 사질점토 - 목탄 및 조선시대 기와편 포함	퇴적층 (두께 20㎝ 정도)
	4층: 갈색(7.5YR 4/6) 역석층 - 역석 다량 포함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생토층, 표토하 90~110㎝ 정도)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360147.254m	②	X	360169.658m
	Y	218677.634m		Y	218697.873m
	Z	36.027m		Z	35.861m
③	X	350401.970m	④	X	360147.254m
	Y	226348.884m		Y	218677.634m
	Z	80.174m		Z	36.062m

: 건물지 : 담장지
: 초석·적심 : 석조유구
: 수혈유구 : 주혈
: 매납유구 : 집석유구

0 5m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분포도

근 · 현대 복토층(1 · 2층)은 명황갈색 사질점토층과 건축폐기물이 다량 포함된 흑갈색 사질점토층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두께는 70㎝ 정도이다. 퇴적층(3층)은 목탄 및 조선시대 기와편이 소량 포함된 흑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두께는 20㎝ 정도이다. 통일신라시대 문화층(4층, 생토층)은 표토하 90~110㎝(해발 34.8~35.1m) 정도에서 확인된 역석이 다량 포함된 갈색 역석층으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및 석조유구 등 건축관련 유구가 확인되었다. 원지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낮아지다 서쪽 경계부에서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지형이다.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동, 석조유구 1기, 담장지 1기, 집석유구 2기, 매납유구 2기, 초석 및 적심 3기, 수혈유구 6기, 주혈 5개 등 2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1) 건물지

2동의 적심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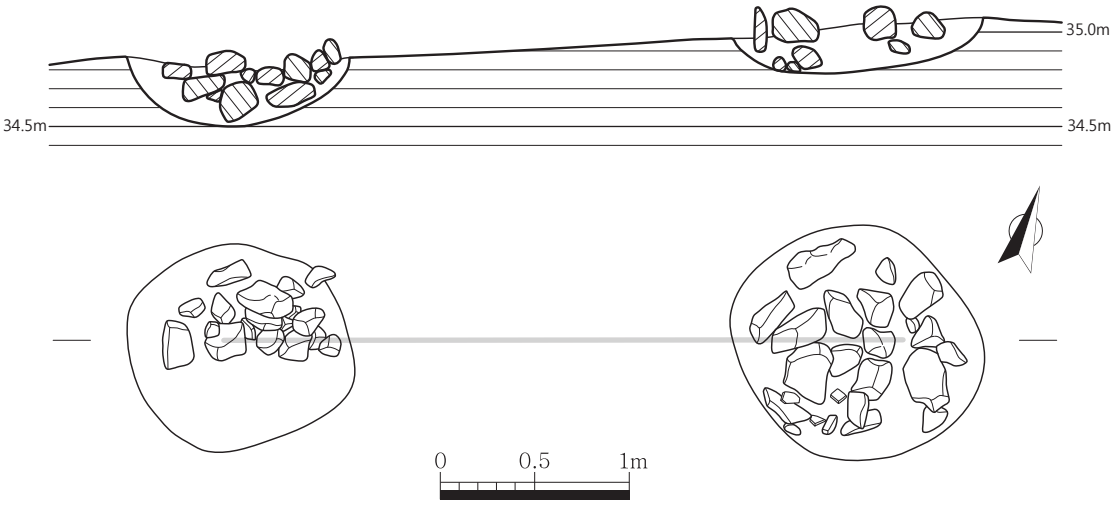
(1) 건물지 1호

가. 유구(도면 6, 도판 4)

조사대상지 남서쪽에 위치하며, 집석유구 1호의 중앙부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주변으로는 서쪽에 매납유구 1 · 2호가 인접해 있다.

건물지는 적심 2기가 동-서 1칸의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적심간 간격은 300㎝ 정도이다. 적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20~135㎝, 깊이 20~30㎝ 정도이다. 적심석은 2~3단 정도 잔존하며, 원형의 수혈을 굴착하고 10~30㎝ 정도 크기의 천 · 할석과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웠다.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6. 건물지 1호

【표 4】 건물지 1호 적심 속성표

적심 번호	규모(㎝)		적심석	내부토	비고
	직경	깊이			
①	135	20	10~30㎝ 정도의 천 · 할석 적심석 1~2단 잔존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②	120	30	10~30㎝ 정도의 천 · 할석 적심석 2~3단 잔존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2) 건물지 2호

가. 유구(도면 7, 도판 5 · 6)

조사대상지 남동쪽에 위치하며, 집석유구 2호의 북벽 중앙 일부를 파괴하고 건물지 적심②가 조성되어 있다. 주변으로는 북쪽에 석조유구와 수혈유구 4호가 인접해 있으며, 집석유구 2호의 내부에 초석 2호가 조성되어 있다.

건물지는 적심 5기가 남-북 1칸, 동-서 2칸의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규모는 남-북 길이 290㎝, 동-서 길이 750㎝ 정도이다. 적심 간의 간격은 남-북 200㎝, 동-서 320~350㎝ 정도이다. 적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70~90㎝, 깊이 15~40㎝ 정도이다. 적심석으로 1~3단 정도 잔존하며, 원형의 수혈을 굴착하고 10~40㎝ 정도 크기의 천 · 할석과 갈색 사질점토를 채웠다.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5】 건물지 2호 적심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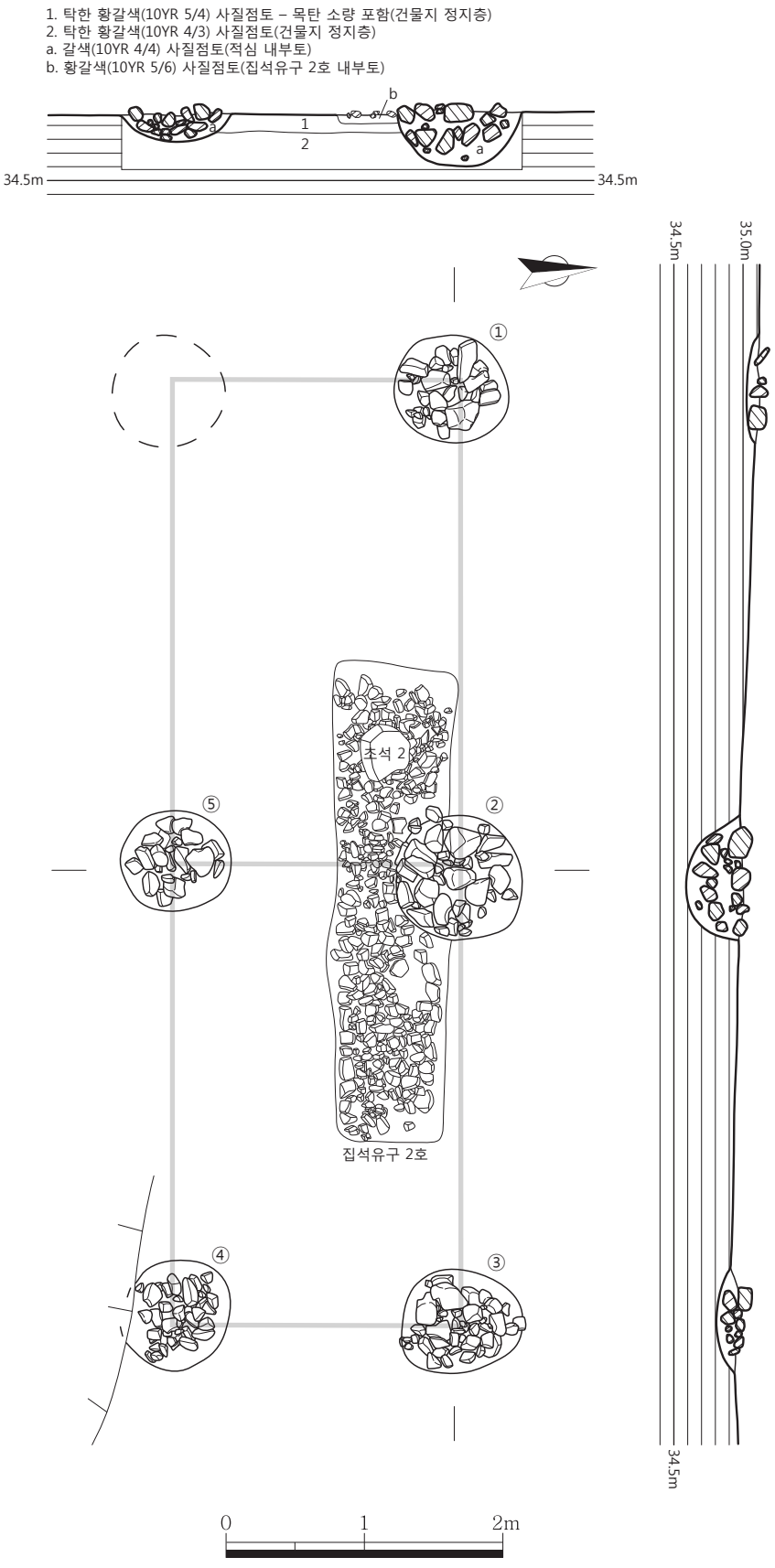
적심 번호	규모(㎝)		적심석	내부토	비고
	직경	깊이			
①	70	15	10~40㎝ 정도의 천 · 할석 적심석 1단 잔존	갈색(10YR 4/4) 사질점토	
②	90	40	10~40㎝ 정도의 천 · 할석 적심석 2~3단 잔존	갈색(10YR 4/4) 사질점토	집석유구 2호 일부 파괴
③	70	23	10~40㎝ 정도의 천 · 할석 적심석 2단 잔존	갈색(10YR 4/4) 사질점토	
④	70	27	10~40㎝ 정도의 천 · 할석 적심석 2~3단 잔존	갈색(10YR 4/4) 사질점토	
⑤	80	30	10~40㎝ 정도의 천 · 할석 적심석 2~3단 잔존	갈색(10YR 4/6) 사질점토	

2) 석조유구[10)]

가. 유구(도면 8, 도판 7)

조사대상지 북동쪽 경계부에 위치하며, 북쪽 경계 밖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전 석조 내부에는 벽석이

10) 우물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서벽에 입수구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되어 석조유구로 구분하였다.


1. 탁한 황갈색(10YR 5/4) 사질점토 – 목탄 소량 포함(건물지 정지층)
2. 탁한 황갈색(10YR 4/3) 사질점토(건물지 정지층)
a. 갈색(10YR 4/4) 사질점토(적심 내부토)
b.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집석유구 2호 내부토)
34.5m
34.5m
34.5m
35.0m
34.5m
①
②
③
④
⑤
조석 2
집석유구 2호
0
1
2m

도면 7. 건물지 2호

함몰된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할석이 채워져 있었다. 내부조사는 노출된 벽석 상단에서 100㎝ 정도 아래까지 수작업으로 수평제토 하면서 진행하였으며, 그 아래는 2분으로 단면 절개조사를 실시하였다.

석조유구는 석조와 주변에 부석시설이 확인되었다. 먼저, 석조의 굴광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하부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상광하협식이다. 굴광의 규모는 상부직경 250㎝, 하부직경 90㎝, 깊이 200㎝ 정도이다. 석축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중앙부 폭이 넓은 중광형이다. 벽석은 27~30단 정도 남아있다. 석축의 규모는 상부직경 110㎝, 중간직경 130㎝, 하부직경 80㎝ 정도이다. 벽석은 상부와 하부 2~5단 정도는 40~50㎝ 정도 크기의 큰 천 · 할석을, 그 외에는 10~30㎝ 정도 크기의 천 · 할석을 허튼층 쌓기 하였다. 석축의 서벽 상부에는 입수구가 확인되며 규모는 너비 30㎝, 깊이 35~40㎝ 정도이다. 다른 벽석보다 3~4단 정도 낮게 축조하고 역석을 사용하여 벽면을 비스듬하게 조성하였다. 바닥면에는 특별한 시설 없이 갈색 역석층을 사용하였다. 굴광면과 벽석 사이에는 하부에서부터 암갈색 사질점토, 세석립과 소형 할석이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 10~20㎝ 정도 크기의 할석이 다량 포함된 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충전하였다.

부석시설은 석조 주변으로 부정형으로 확인되었으며, 규모는 남-북 길이 480㎝, 동-서 길이 450㎝ 정도이며, 갈색 역석층(생토층)을 20㎝ 정도 깊이로 굴착하여 역석과 10㎝ 내외의 소형 할석을 채워 조성하였다. 또한, 입수구와 연결되는 부분은 다른 부석시설보다 5~10㎝ 가량 낮게 조성되었으며, 서에서 동으로 낮아지는 양상이다. 규모는 길이 60㎝, 너비 60㎝, 깊이 5~10㎝ 정도이다.

유물은 부석시설 내에서 연화문수막새 1점, 암키와편 1점, 석조 내부조사 중에 병편 1점, 연화문수막새 2점, 수키와편 2점 등 총 7점을 선별 수습하였다.

나. 유물

1. 병편(도면 9-1, 도판 8-1)

구연부와 경부 일부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갈회색(10YR 5/1)이고, 속심은 회갈색(5YR 5/2)이다. 내외면 일부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었는데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경부에는 2조의 침선을 돌린 후, 침선 상위에는 7치구와 3치구의 파상문 2열을 시문하였으며, 침선 하위에는 종파상문-횡점열문 2열-합성문의 순으로 인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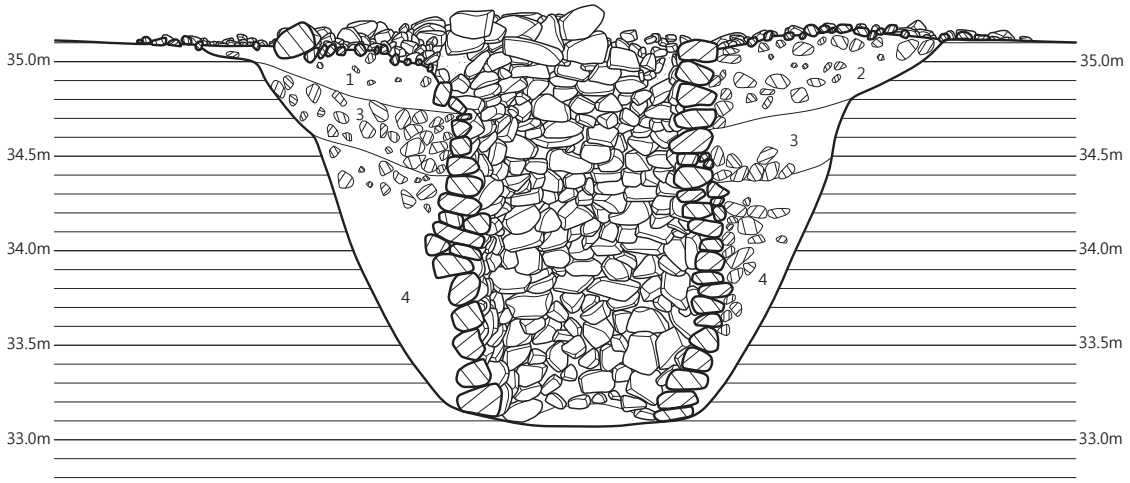
잔존기고 10.2㎝, 복원구경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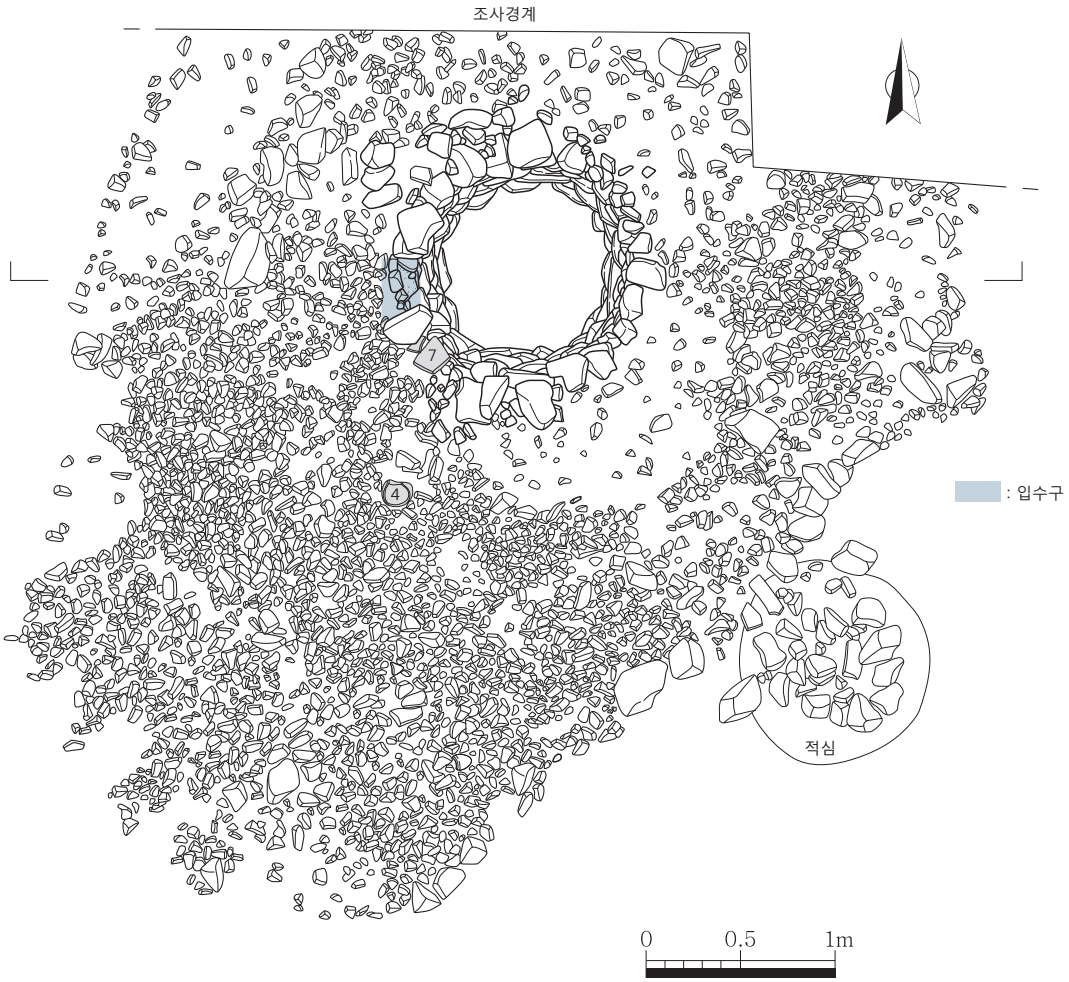
2. 연화문수막새편(도면 9-2, 도판 8-2)

드림부 일부와 기와부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갈회색(10YR 5/1)이다. 문양부는 단판연화문으로 3엽의 꽃잎이 잔존하며, 꽃잎 중앙에는 능각을 시문하였다. 간엽은 역삼각형을 배치하였다. 기와부 내면에는 선문 타날흔이 확인되며, 드림부 내면에는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드림부 상면에는 기와 접합흔이 확인되며, 기와부 접합 후 주연부는 깎기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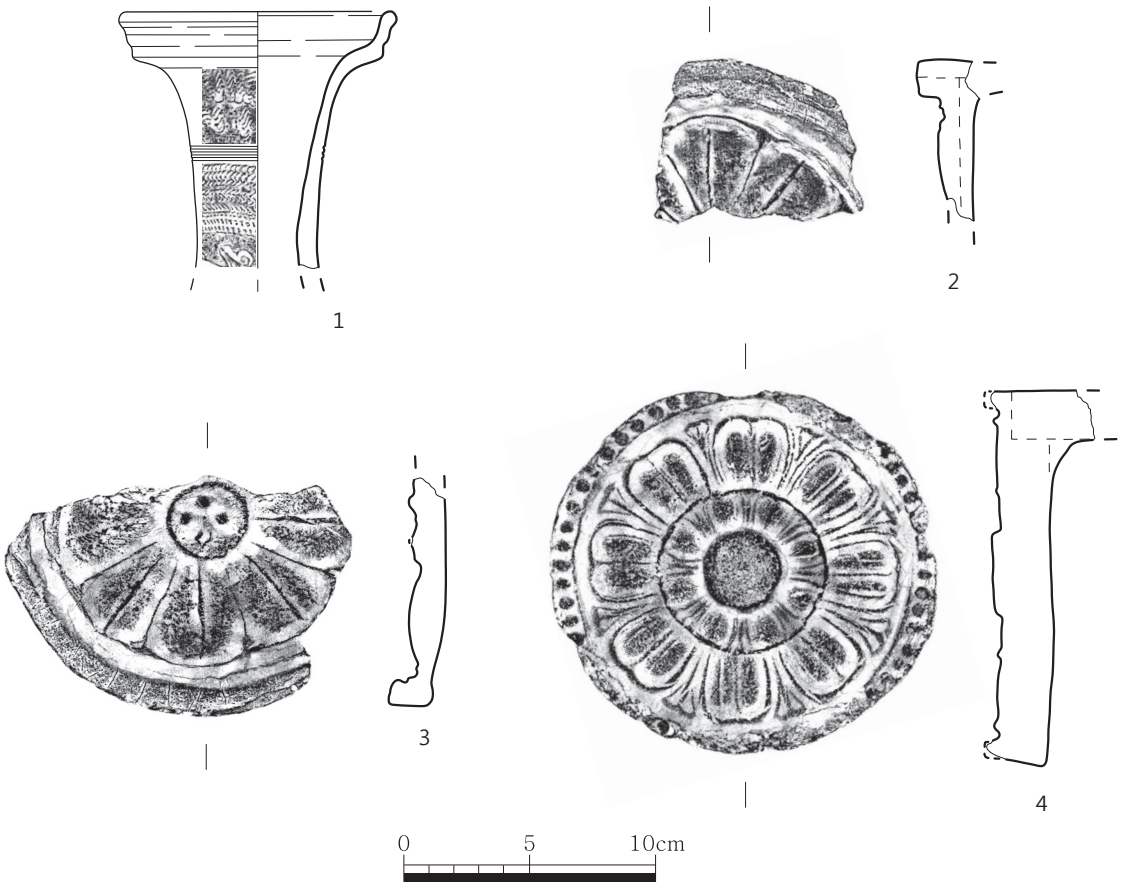
잔존직경 6.4㎝, 두께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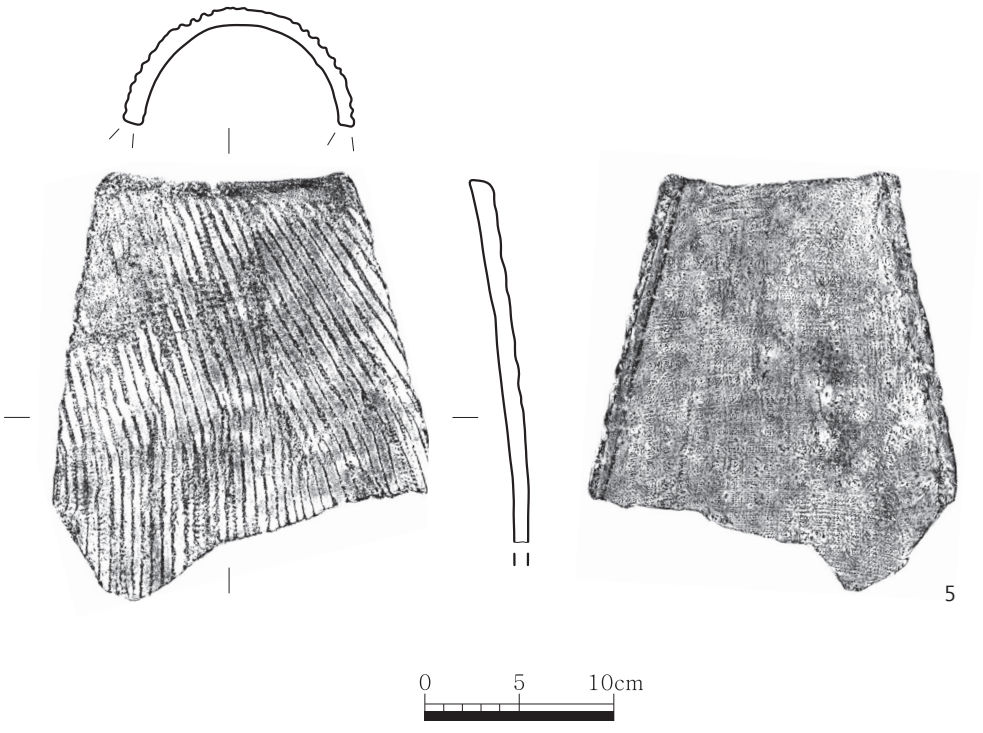
1. 갈색(10YR 4/4) 사질점토 – 사질성 강함
2. 갈색(10YR 4/4) 사질점토 – 소형 할석 다량 포함
3.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세석립 및 소형 할석 다량 포함
4.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 – 점성 있음





도면 8. 석조유구





도면 9. 석조유구 출토유물1(1~5)

3. 연화문수막새편(도면 9-3, 도판 8-3)

드림부 1/2 정도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탁한 황등색(10YR 7/3)이고, 속심의 색조는 황등색(7.5YR 7/8)이다. 주연부는 약간 돌출되었으며, 무문이다. 문양부는 단판연화문으로 5엽의 꽃잎이 잔존하며, 꽃잎 중앙에는 능각을 시문하였다. 간엽은 'T'자형을 배치하였는데 자방까지 길게 뻗어 있다. 자방은 돌출형으로 4개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주연부는 드림부 내면에는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직경 9.0㎝, 두께 1.4㎝

4. 연화문수막새(도면 9-4, 도판 8-4)

드림부와 기와부 극히 일부가 잔존하며, 주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갈회색(7.5YR 6/1)이다. 주연부는 돌출형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단을 형성하였으며,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는 중판연화문으로 내외판 꽃잎을 엇갈리게 배치하여 구분하였다. 내판과 외판에는 8엽의 도톰한 꽃잎을 배치하였으며, 외엽은 꽃잎 끝이 'm'자형을 이룬다. 간엽은 외판에 부채꼴모양을 배치하였는데 내판까지 길게 뻗어 있다. 자방은 돌출형이다. 드림부 내면에는 물손질흔과 점토보강흔이 확인된다. 기와부 외면은 무문이며,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직경 14.9㎝, 두께 2.3㎝

5. 수키와편(도면 9-5, 도판 8-5)

상부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탁한 황등색(10YR 7/2)이고, 내면 일부는 회황갈색(10YR 6/2)을 띤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합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격자문을 타날하였는데 물손질 정면하여 타날흔 일부가 지워졌다. 와도흔는 좌측이 외→내로 1/2~2/3, 우측은 내→외로 1/3~전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2.4㎝, 너비 12.8㎝, 두께 1.0㎝

6. 수키와편(도면 10-6, 도판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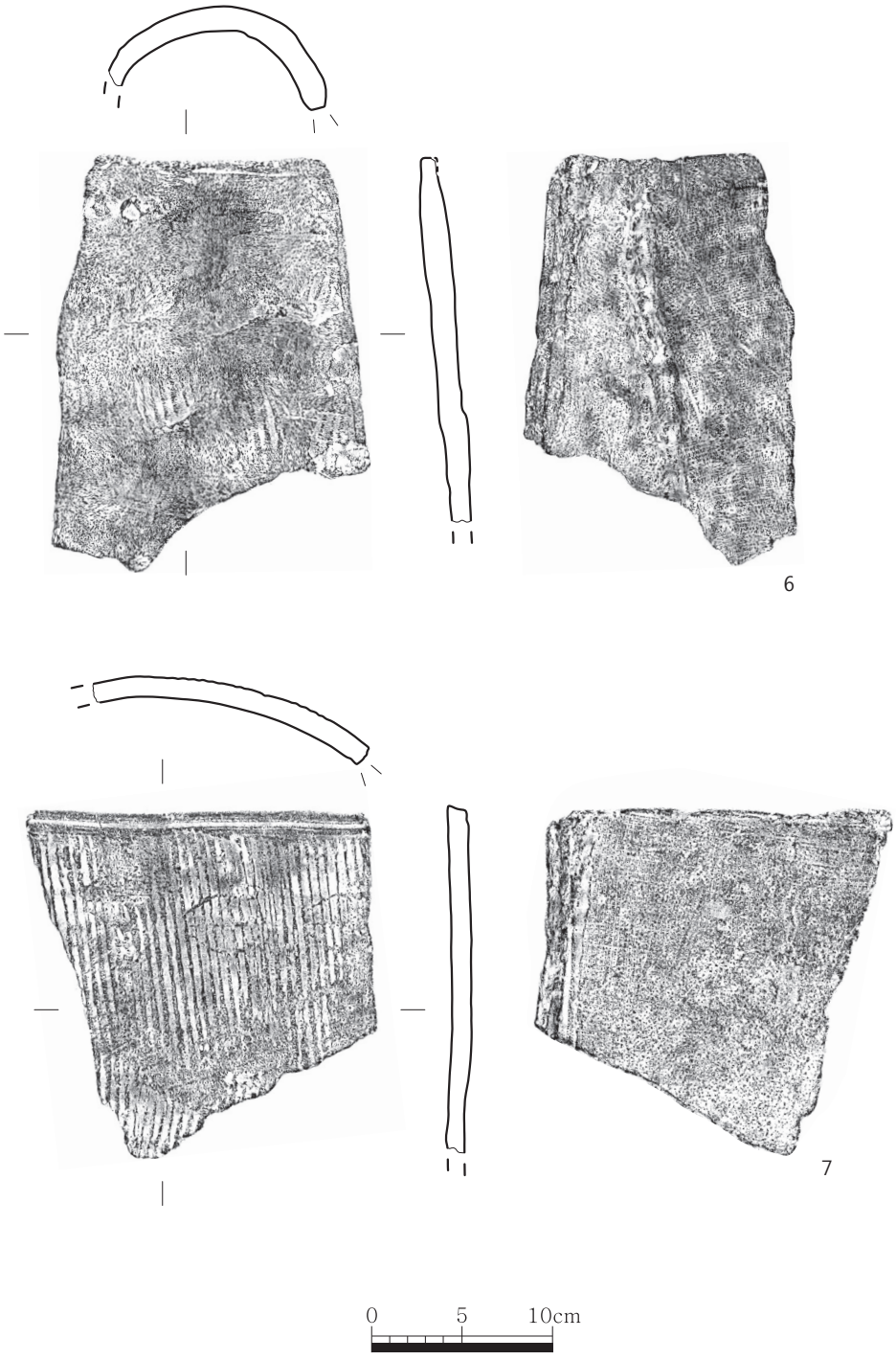
좌측과 하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등색(7.5YR 6/8)이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하였는데 물손질 정면하여 타날흔의 대부분이 지워졌다. 와도는 전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2.9㎝, 잔존너비 12.5㎝, 두께 1.4㎝

7. 암키와편(도면 10-7, 도판 9-7)

우측 상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갈회색(10YR 5/1)이고, 속심과 내외면 상위의 일부는 천황등색(10YR 8/3)을 띤다. 내면에는 물손질흔과 점토보강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타원형문+선문을 타날하였는데

상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여 타날흔이 지워졌다. 와도흔은 내→외로 1/4~1/2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9.2㎝, 잔존너비 18.5㎝, 두께 1.1㎝



도면 10. 석조유구 출토유물2(6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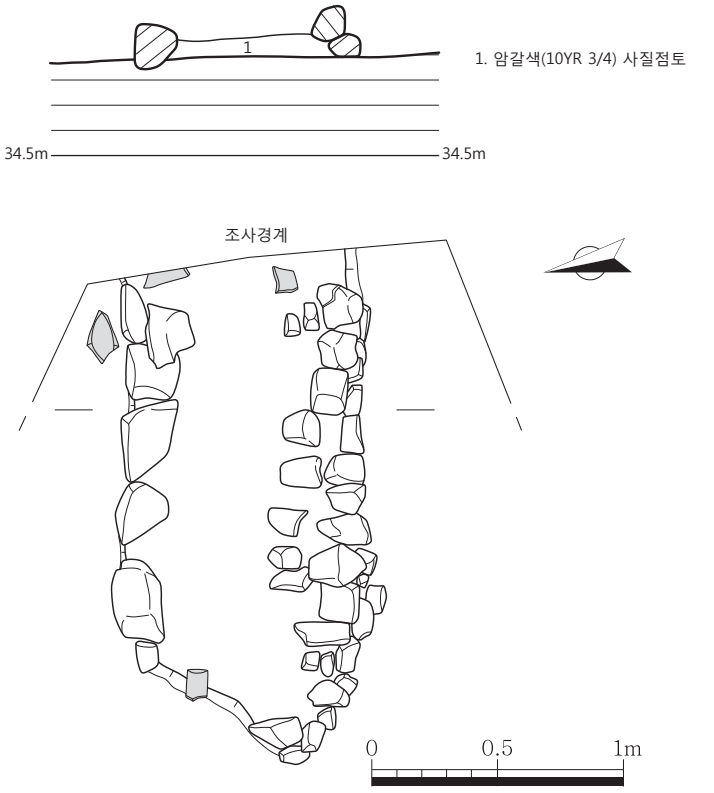
3) 담장지

가. 유구(도면 11, 도판 9 · 10)

조사대상지 북서쪽 경계부에 위치하며, 서쪽 경계 밖으로 진행한다. 주변으로 남쪽에는 집석유구 1호가 인접해 있다.

현재 1~2단 정도 잔존하고 있으며, 확인된 규모는 길이 200㎝, 너비 100㎝, 높이 10~14㎝ 정도이다. 최하단석은 20~40㎝ 정도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여 외면을 맞춘 후, 상부에 10~20㎝ 정도 크기의 천 · 할석을 들여쌓기 하고, 내부에 암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넣었다.

유물은 내부에서 塼片 1점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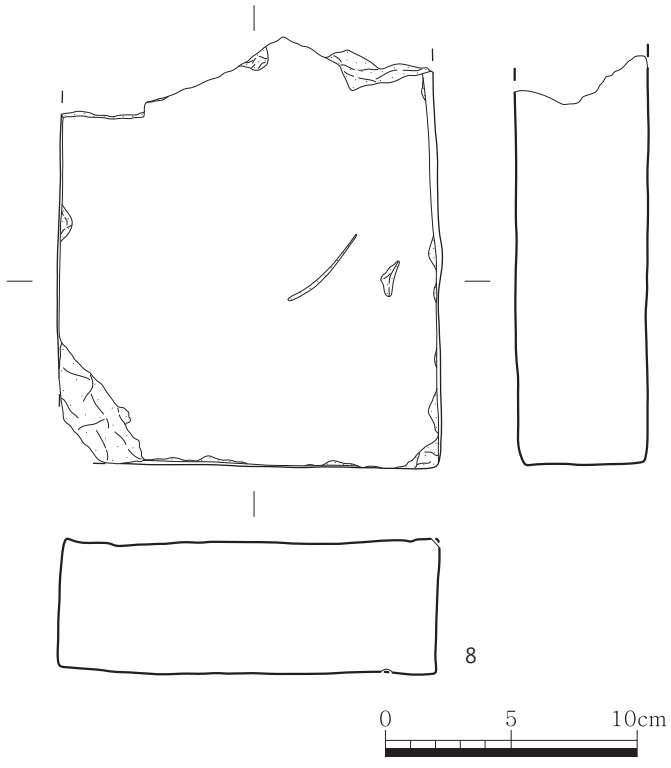


나. 유물

8. 塼片(도면 11-8, 도판 10-8)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석립과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무문이며, 전반적인 색조는 갈회색(10YR 6/1)을 띠는데 일부는 회백색(10YR 7/1)을 띤다. 앞면 일부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었는데 대부분 산화 박리되었다. 전면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잔존길이 17.1㎝, 너비 15.2㎝, 두께 5.2㎝



도면 11. 담장지 및 출토유물(8)

4) 집석유구

조사대상지 남쪽 경계부와 동쪽 중앙부에서 총 2기가 확인되었다.

(1) 집석유구 1호

가. 유구(도면 12, 도판 11 · 12)

조사대상지 남쪽 경계부에 위치하며, 건물지 1호, 매납유구 1 · 2호, 수혈유구 3호, 주혈 2에 의해 파괴되었다.

확인된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확인된 규모는 남-북 길이 760㎝, 동-서 길이 1,100㎝ 정도이다. 남쪽과 서쪽 경계면에는 기와편이 집중적으로 깔려있는 폐와무지가 확인되며, 북쪽 경계면에는 북쪽면을 맞춘 석렬이 동-서 방향으로 확인된다. 단면조사 결과, 동쪽에서 서쪽으로 낮아지는 원지형을 따라 소토 및 목탄이 포함된 회황갈색 사질점토와 다량의 기와편 및 길이 5㎝ 미만의 잔자갈과 황갈색 사질점토를 갈색 역석층(생토층) 상부에 두께 10㎝ 정도로 깔아서 조성하였다.

유물은 내부 노출 및 단면 확인 중에 개편 2점, 호 대각 1점, 대부완 1점, 병편 1점, 동이편 1점, 벼루편 2점, 방추차 1점, 연화문수막새 7점, 보상화문수막새 2점, 당초화문암막새 1점, 수키와편 6점, 암키와편 5점, 전편 2점 등 총 32점을 선별하여 수습하였다.

나. 유물

9. 개편(도면 13-9, 도판 13-9)

꼭지와 신부 상위의 일부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이고, 속심은 회적색(10R 5/2)이다. 외면에는 회올리브색(5Y 4/3)의 자연유가 흡착되었는데 일부는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하는 신부 상위에는 1조의 침선을 돌린 후, 침선 상위에는 삼각집선문을, 침선 하위에는 이중원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2.1㎝ 꼭지고 0.9㎝, 꼭지경 3.8㎝

10. 개편(도면 13-10, 도판 13-10)

전체 기형의 1/3 정도만 잔존하여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이고, 속심은 회적색(10R 4/2)이다. 외면 상위와 구연부 내면의 일부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었는데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되어 담황색(2.5Y 8/3)을 띤다. 내외면은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4.7㎝, 꼭지고 0.8㎝, 복원꼭지경 8.7㎝, 복원구경 19.1㎝


35.0m
매납유구 1호
1
2
35.0m
34.5m
34.5m
1.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 다량의 기와편, 잔자갈, 소토 및 목탄 포함
2.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 소토 및 목탄 포함, 5㎝ 정도 크기의 잔자갈 채움
34.5m
시굴 Tr
2
1
매납유구 2호
매납유구 1호
34.5m
B'
시굴 Tr
조사경계
매납유구 2호
건물지 1호
수혈유구 3호
수혈 2
A
매납유구 1호
A'
조사경계
B
: 폐와무지
0
1
2m

도면 12. 집석유구 1호

11. 호 대각(도면 13-11, 도판 13-11)

동체부 일부와 대각이 잔존하는데 대각단는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갈회색(10YR 5/1)이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1㎝, 저경 8.9㎝

12. 대부완편(도면 13-12, 도판 13-12)

신부 하위의 일부와 대각 1/2 정도가 잔존하여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5Y 5/1)이고, 속심은 회백색(5Y 7/1)이다. 내외면은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6㎝, 복원저경 7.4㎝

13. 병 경부(도면 13-13, 도판 13-13)

경부 일부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이고, 속심은 회갈색(5YR 4/2)이다. 내외면 일부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었는데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경부 하위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려 동체부와 구분하였다. 잔존하는 경부 중위에는 2조의 침선을 돌린 후, 침선 상위에는 종장연속 점열문과 능형문을, 침선 하위에는 점열문을 인화하였다.

잔존기고 11.4㎝

14. 동이편(도면 13-14, 도판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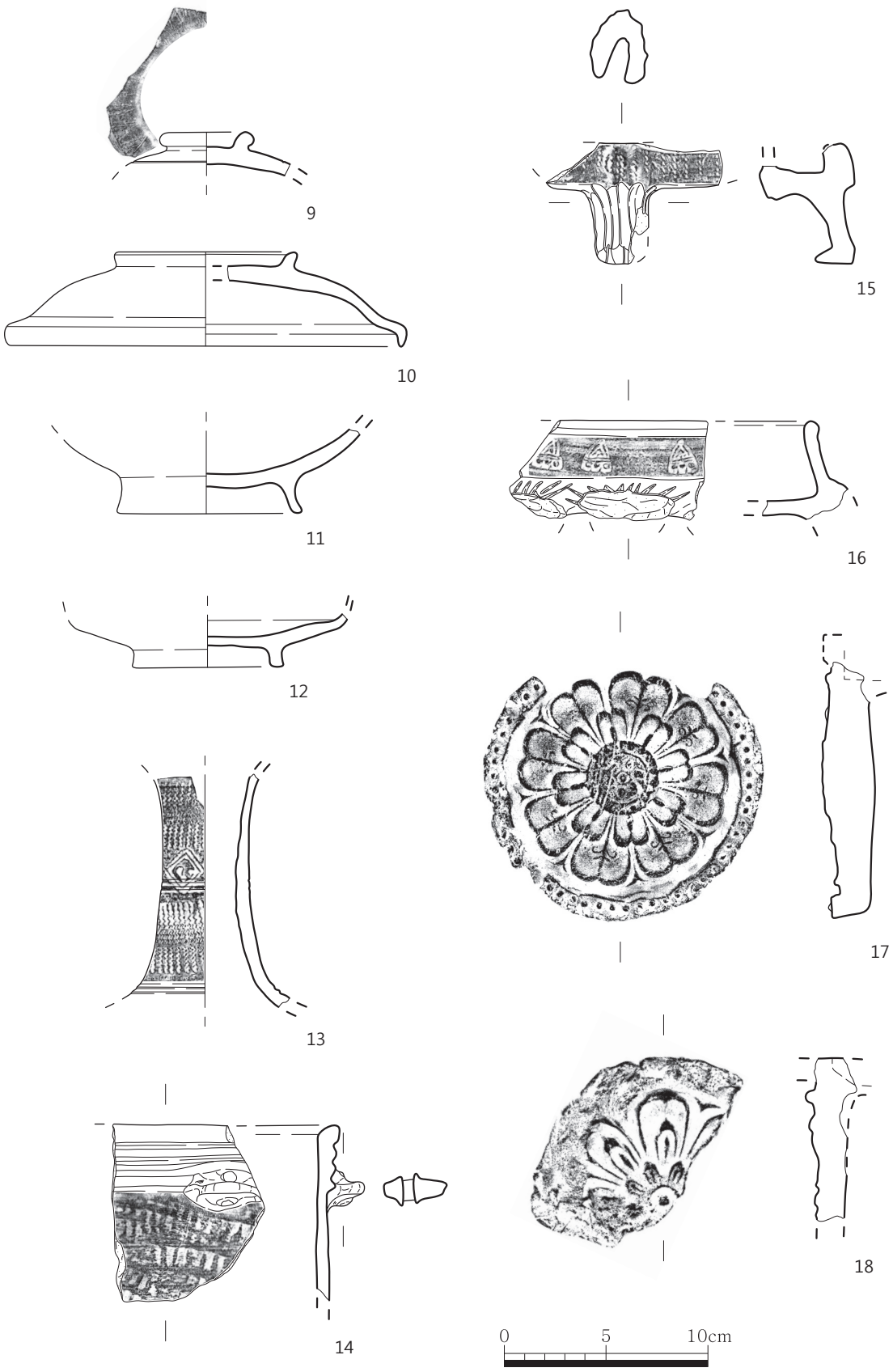
구연부와 동체부 상위의 일부, 파수 1개가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갈회색(10YR 6/1)이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 타날흔이 확인된다. 구연부 하위에는 3조의 돌대를 돌린 후, 단면형태 횡타원형의 파수를 부착하였으며, 파수 중앙에는 직경 0.5㎝ 크기의 원형 투공을 양쪽에서 뚫었다.

잔존기고 8.6㎝

15. 벼루편(도면 13-15, 도판 13-15)

구연부, 신부 일부와 대각 1개가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이고, 속심은 회적색(2.5YR 4//2)이다. 구연부와 신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대각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신부 중위에서부터 부착되었으며, 신부 외면과 대각 부착으로 돌출된 부분에는 점열문을 인화하였다.

잔존기고 5.9㎝



도면 13.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1(9~18)

16. 벼루편(도면 13-16, 도판 13-16)

구연부와 신부 일부가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회적색(2.5YR 4//2)이고, 신부 외면의 일부는 회적색(2.5YR 5/2)을 띤다. 내외면 일부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었는데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되었다. 구연부와 신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구연부 하위에는 1조의 돌대를 돌린 후, 돌대 하위에 합성문을 시문하였으며, 신부 하위 대각접합부에는 종선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4.9㎝

17. 연화문수막새(도면 13-17, 도판 13-17)

드림부만 잔존하는데 주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고, 외면 일부는 천황색(2.5Y 7/3)을 띤다. 주연부는 돌출되었으며,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는 중판연화문으로 내외판 꽃잎을 엇갈리게 배치하여 구분하였다. 내판에는 8엽의 'm'자형 꽃잎 내 물방울형 자엽을 배치하였으며, 외판에 8엽의 'm'자형 꽃잎 내 인동문형 자엽을 배치하였다. 간엽은 외판에 'Y'자형을 배치하였는데 내판까지 뻗어 있다. 자방은 돌출형으로 1+5과의 연자를 배치하였고, 그 주변으로 원권을 돌린 후,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드림부 내면의 상단부에는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직경 12.5㎝, 두께 2.6㎝

18. 연화문수막새편(도면 13-18, 도판 13-18)

드림부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이 탁한 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갈회색(10YR 6/1)이다. 문양부는 중판연화문으로 내외판에 꽃잎을 엇갈리게 배치하여 구분하였다. 내판에는 4엽의 꽃잎 내 물방울형 자엽을 배치하였으며, 외판에는 4엽의 꽃잎이 잔존하는데 꽃잎 내에는 화문 자엽, 그 내면에는 물방울형 자엽을 배치하였다. 간엽은 외판에 'Y'자형을 배치하였다. 드림부 내면에는 점토보강흔이 확인된다.

잔존직경 8.0㎝, 두께 1.5㎝

19. 연화문수막새편(도면 14-19, 도판 13-19)

드림부 1/2 정도와 기와부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갈회색(10YR 6/1)이고, 내면과 속심은 명황갈색(10YR 6/8)이다. 주연부는 돌출되었으며,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는 단판연화문으로 6엽의 꽃잎이 잔존하며, 꽃잎 내에는 회문 자엽을 배치하였다. 간엽은 'Y'자형을 배치하였는데 자방까지 뻗어 있다. 자방은 원권을 돌린 평면형으로 연자를 배치하였다. 드림부 내면의 상단부에는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직경 9.4㎝, 두께 1.9㎝

20. 연화문수막새편(도면 14-20, 도판 13-20)

드림부 1/2 정도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주연부는 안쪽으로 단을 형성하였으며,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는 중판연화문으로 내외판 꽃잎을 엇갈리게 배치하여 구분하였다. 내판에는 12엽의 꽃잎을 배치하였고 물방울형 자엽을 배치하였으며, 외판에는 9엽의 꽃잎이 잔존하는데 화문 자엽 내 호박문형 자엽을 배치하였다. 외판에 물방울형 간엽을 배치하였다. 자방은 원권을 돌린 반구형이다. 드림부 내면에는 점토보강흔이 확인된다.

직경 15.0㎝, 두께 1.9㎝

21. 연화문수막새편(도면 14-21, 도판 13-21)

드림부와 기와부 일부가 잔존하며, 문양부 표면의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갈색(10YR 5/2)이다. 주연부는 돌출되었으며, 가장자리를 따라 단을 형성한 후,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잔존하는 문양부에는 2엽의 꽃잎 내 화문 자엽이 확인되며, 간엽은 역삼각형을 배치하였다. 드림부 내면에는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기와부 외면은 무문이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된다. 와도는 전면 분할하였다.

잔존직경 6.7㎝, 두께 2.0㎝

22. 연화문수막새(도면 14-22, 도판 1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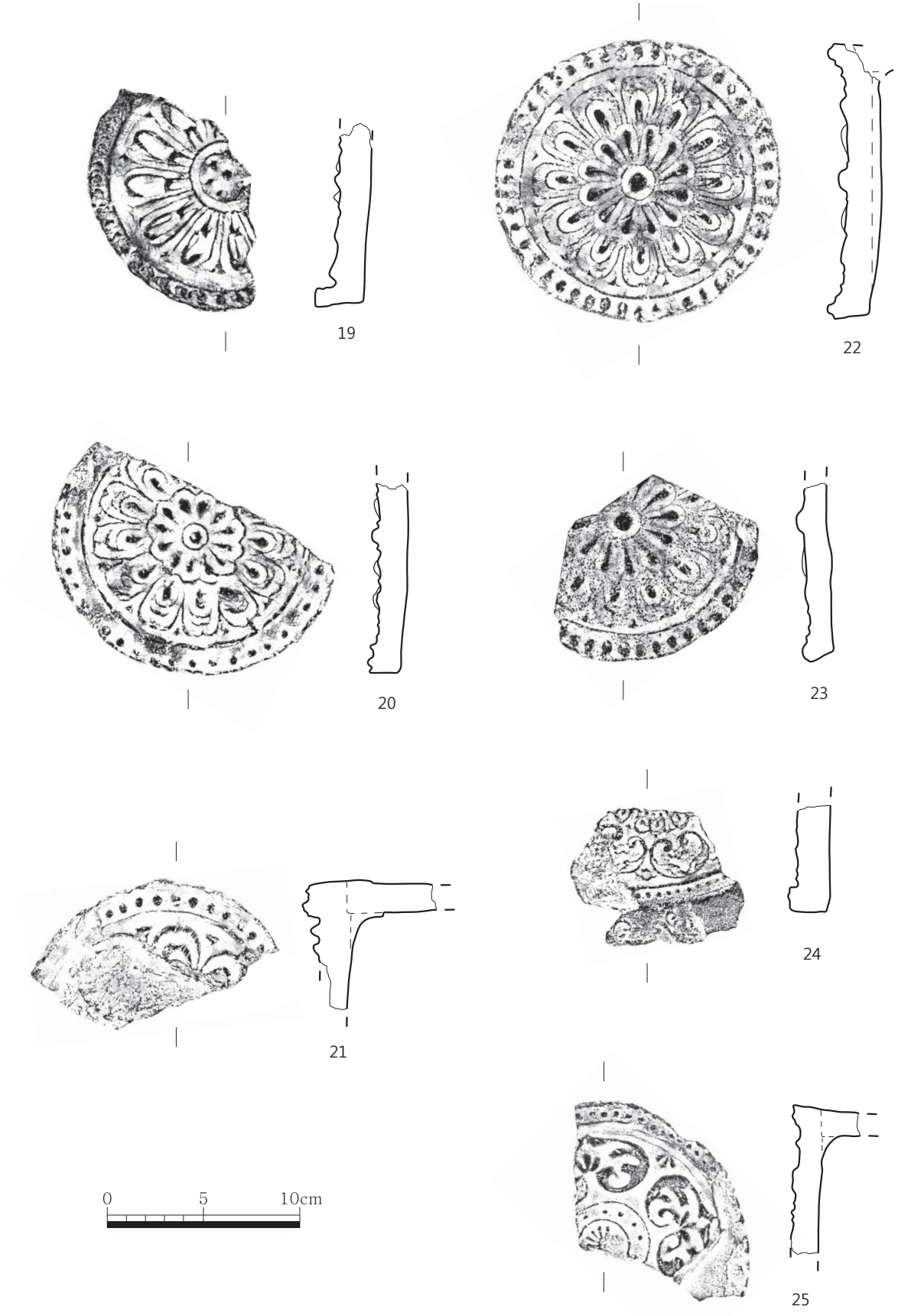
드림부와 기와부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탁한 황등색(10YR 7/4)이다. 주연부는 돌출되었으며, 안쪽에는 단을 형성한 후,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는 중판연화문으로 내외판 꽃잎을 엇갈리게 배치하여 구분하였다. 내판에는 12엽의 꽃잎 내 물방울형 자엽을 배치하였으며, 외판에는 12엽의 꽃잎 내 호박문 자엽을 배치하였다. 간엽은 외판에 'T'자형을 배치하였으며, 자방은 원권을 돌린 반구형이다. 드림부 내면에는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직경 14.2㎝, 두께 2.2㎝

23. 연화문수막새편(도면 14-23, 도판 14-23)

드림부 일부와 기와부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탁한 황등색(10YR 7/4)이다. 주연부는 돌출되었으며, 안쪽에는 단을 형성한 후,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는 중판연화문으로 내외판 꽃잎을 엇갈리게 배치하여 구분하였다. 잔존하는 내판에는 9엽의 꽃잎 내 물방울형 자엽을 배치하였으며, 외판에는 6엽의 꽃잎 내 호박문 자엽을 배치하였다. 간엽은 외판에 역삼각형을 배치하였으며, 자방은 원권을 돌린 반구형이다. 드림부 내면에는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직경 9.3㎝, 두께 1.6㎝



도면 14.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2(19~25)

24. 연화보상화수막새편(도면 14-24, 도판 14-24)

드림부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6/)이고, 속심은 탁한 황등색(10YR 7/2)이다. 주연부는 돌출되었으며, 안쪽에는 단을 형성한 후,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는 중판으로 내판에는 3엽의 꽃잎 내 물방울형 자엽을 배치하였으며, 외판에는 2엽의 보상화문이 잔존한다. 드림부 하단면에는 당초문의 일부가 확인된다. 드림부 내면에는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직경 5.5㎝, 두께 1.8㎝

25. 보상화문수막새편(도면 14-25, 도판 14-25)

드림부 1/3 정도와 기와부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명갈회색(7.5YR 7/2)이다. 주연부는 돌출되었으며,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에는 2엽의 보상화문이 잔존하며, 자방은 평면형으로 1과를 중앙에 두고 꽃술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2조의 원권을 돌린 후, 원권 내부에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드림부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기와부 외면은 무문이며, 기와부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직경 7.7㎝, 두께 1.5㎝

26. 당초화문암막새(도면 15-26, 도판 1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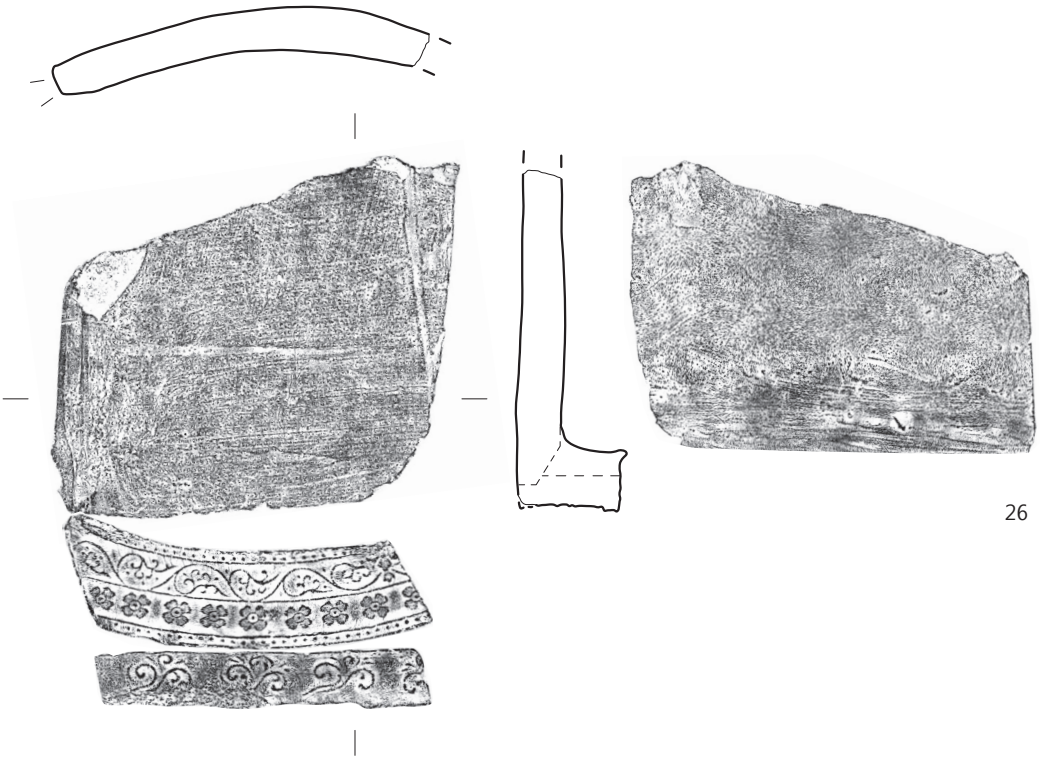
드림부 1/2 정도와 기와부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갈회색(7.5YR 6/1)이고, 속심은 탁한 황등색(10YR 6/4)이다. 가장자리를 따라 상하로 돌대를 돌려 그 사이에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는 당초화문으로 중앙에 돌대를 돌린 후, 돌대 상위에는 당초문을, 하위에는 화문을 배치하였다. 당초문은 상하대향형으로 마디를 잘라놓은 듯 독립적으로 배치하였다. 드림부 하단면에는 당초문을 배치하였다. 드림부 내면에는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기와부 외면은 무문이며, 기와부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된다. 와도흔은 좌측에서 확인되며, 전면 분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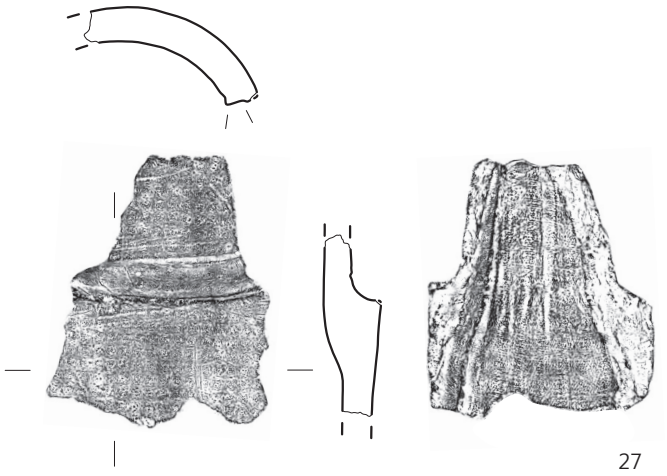
- 드림부: 높이 5.4㎝, 잔존너비 19.4㎝
- 기와부: 잔존길이 14.7㎝, 두께 2.4㎝

27. 수키와편(도면 15-27, 도판 15-27)

미구기와로 미구부와 우측 상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갈회색(10YR 5/1)이고, 속심은 탁한 황등색(10YR 7/2)이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무문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미구부는 둔각으로 부착하였다. 와도흔은 내→외로 1/3~2/3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3.6㎝, 잔존너비 9.5㎝, 두께 1.9㎝







도면 15.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3(26 · 27)

28. 수키와(도면 16-28, 도판 15-28)

상단부 극히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갈회색(10YR 5/1)이고, 외면 일부는 회백색(10YR 7/1)을 띤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점토합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선문을 중판 타날하였는데 하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여 타날흔의 대부분이 지워졌다. 와도흔은 좌측이 내→외로 1/5~1/2 정도, 우측은 외→내로 1/3~2/3 정도 분할하였다.

길이 28.2㎝, 너비 14.6㎝, 두께 1.5㎝

29. 수키와(도면 16-29, 도판 15-29)

우측 전체와 좌측 하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 속심은 회황갈색(10YR 6/2)이고, 외면 일부는 탁한 황등색(10YR 7/3)을 띤다. 내면에는 점토합흔과 포목흔, 합철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집선문(사선문+종선문)을 타날하였는데 물손질 정면하여 타날흔의 일부가 지워졌다. 와도흔은 내→외로 1/5~1/3 정도 분할하였다.

길이 27.0㎝, 잔존너비 11.5㎝, 두께 1.5㎝

30. 수키와(도면 17-30, 도판 15-30)

좌측 상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이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점토합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격자문을 타날하였는데 상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여 타날흔이 지워졌다. 와도흔은 외→내로 1/3~1/2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2.4㎝, 잔존너비 9.8㎝, 두께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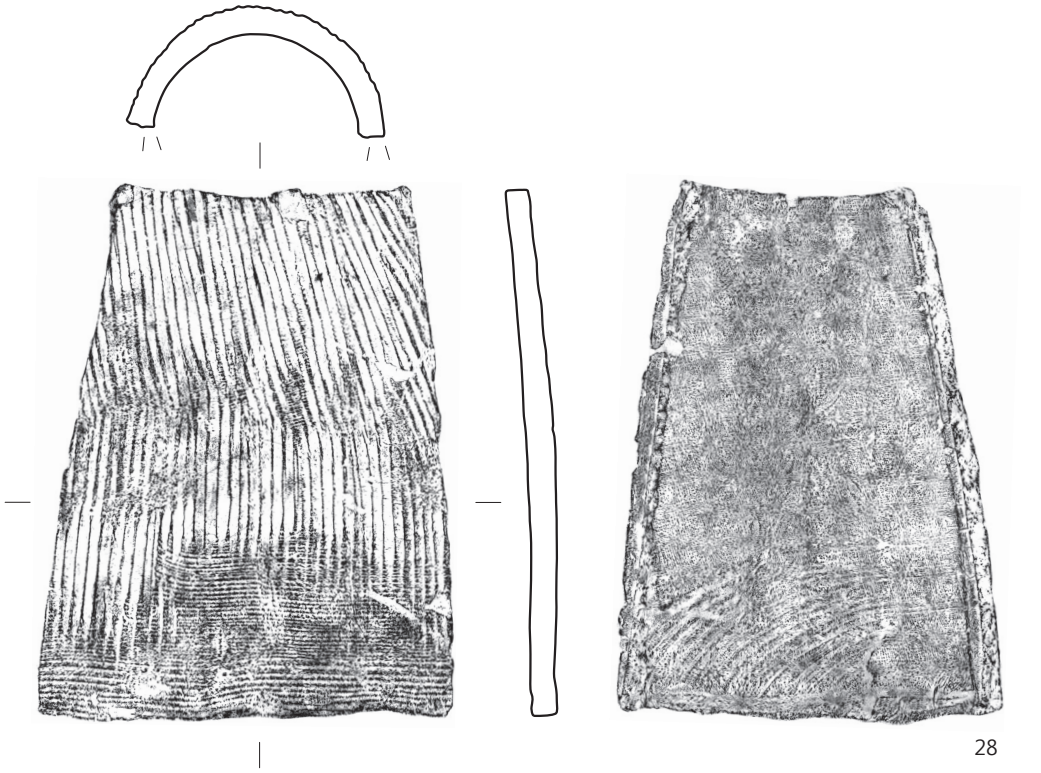
31. 수키와(도면 17-31, 도판 15-31)

우측과 하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갈회색(7.5YR 5/1), 속심은 명황갈색(10YR 7/6)이고, 내외면 일부는 탁한 황등색(10YR 7/4)을 띤다. 내면에는 마모되어 정면흔이 확인되지 않으며,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하였는데 마모 및 물손질 정면으로 인하여 타날흔이 대부분 지워졌다. 와도흔은 외→내로 1/2~2/3 정도 분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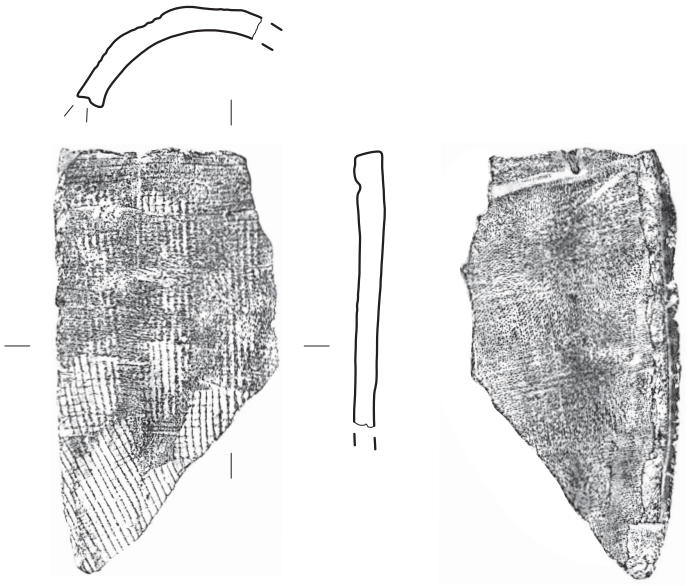
잔존길이 21.7㎝, 잔존너비 8.6㎝, 두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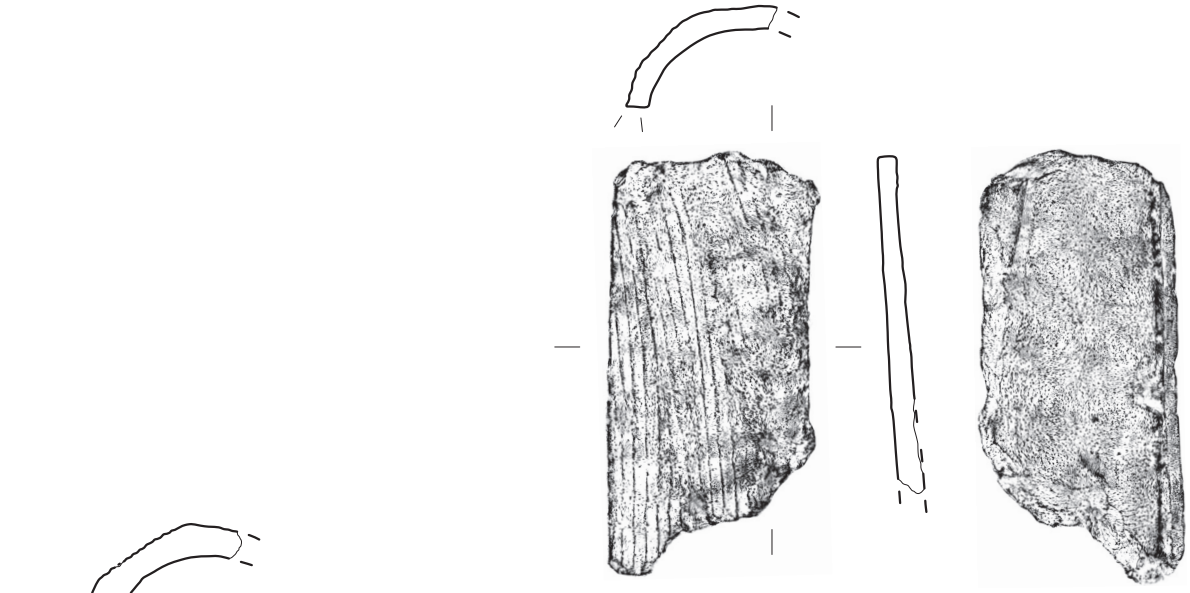
32. 수키와편(도면 17-32, 도판 1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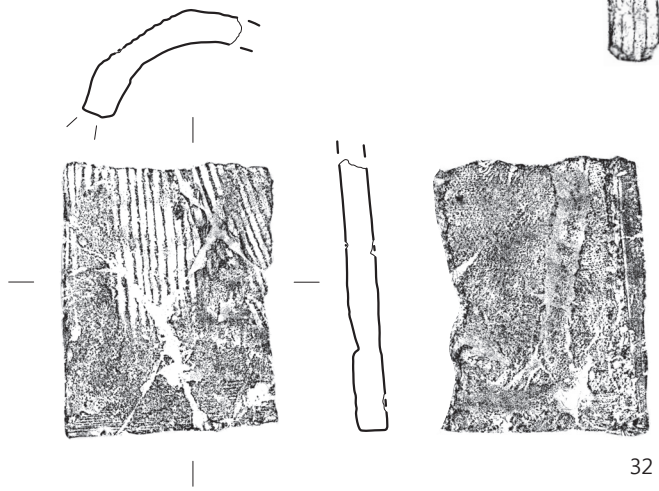
좌측 하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갈회색(10YR 5/1)이고, 속심의 색조는 회백색(10YR 7/1)이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점토보강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하였는데 하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여 타날흔이



도면 16.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4(28 · 29)









도면 17.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5(30~32)

모두 지워졌다. 와도흔은 외→내로 1/2~2/3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4.7㎝, 잔존너비 10.1㎝, 두께 1.6㎝

33. 암키와(도면 18-33, 도판 16-33)

좌측 상부가 잔존하는데 내외면 표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명황갈색(10YR 7/6)이고, 속심은 등색(7.5YR 6/8)을 띤다. 내면에는 물손질흔과 포목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무문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흔은 내→외로 1/3~2/3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3.0㎝, 잔존너비 18.9㎝, 두께 1.7㎝

34. 암키와(도면 18-34, 도판 16-34)

상부 일부만 잔존하는데 좌측이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은 갈회색(10YR 4/1), 속심은 탁한 황등색(10YR 7/2)이고, 내외면 일부는 탁한 황등색(10YR 6/3)을 띤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여 선문 타날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와도흔은 내→외로 1/2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4.2㎝, 잔존너비 23.5㎝, 두께 1.7㎝

35. 암키와(도면 19-35, 도판 16-35)

우측 상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은 갈회색(10YR 5/1)이고, 속심과 내외면 일부는 탁한 황등색(10YR 7/2)이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하였는데 물손질 정면하여 타날흔이 대부분 지워졌다. 와도흔은 내→외로 1/3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0.2㎝, 잔존너비 19.8㎝, 두께 1.5㎝

36. 암키와편(도면 19-36, 도판 1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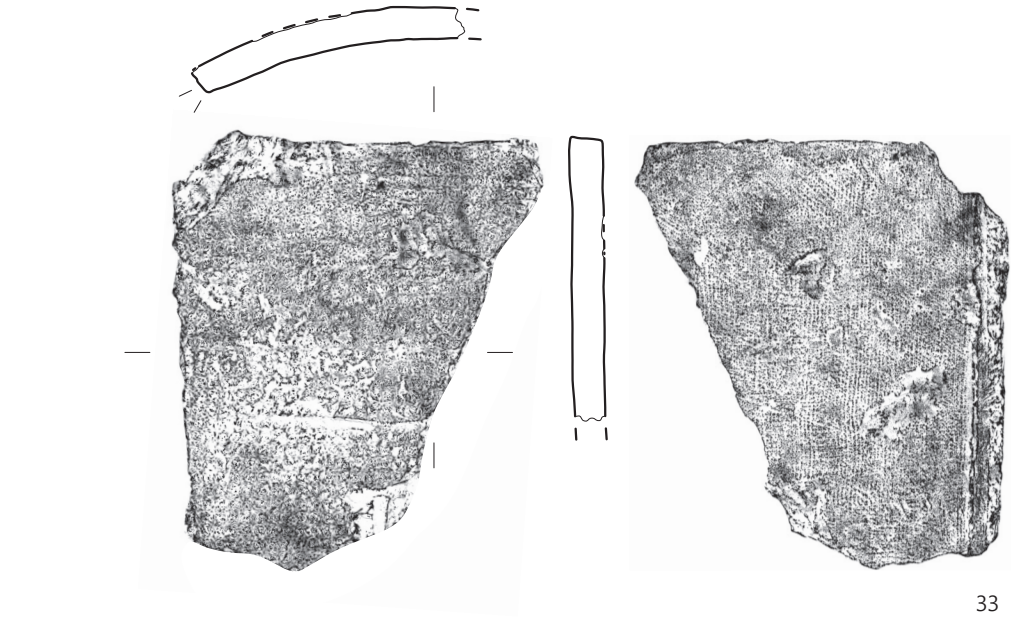
좌측 상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갈회색(10YR 5/1), 속심은 등색(7.5YR 7/6)이고, 내외면 일부는 명갈색(7.5YR 5/8)을 띤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하였는데 물손질 정면하여 타날흔 일부는 지워졌다. 와도흔은 내→외로 1/4~1/3 정도 분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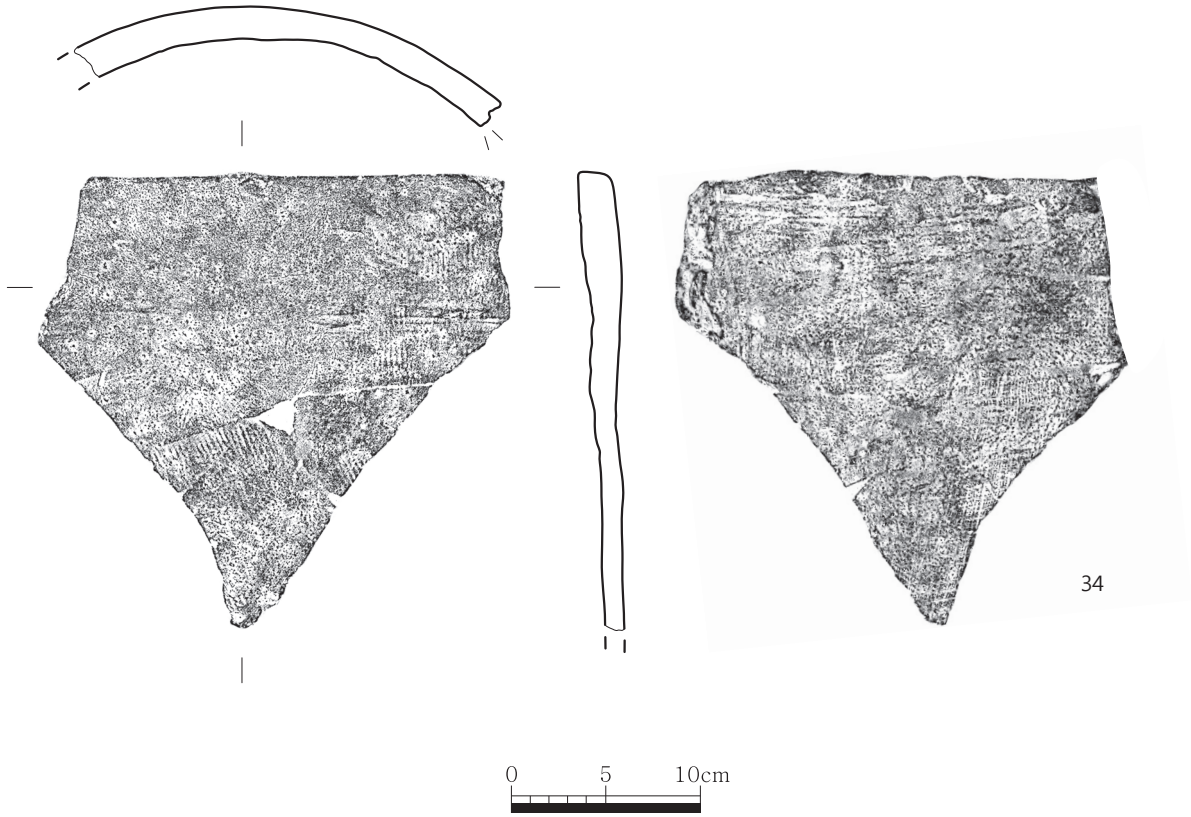
잔존길이 21.6㎝, 잔존너비 12.6㎝, 두께 1.3㎝

37. 암키와편(도면 19-37, 도판 1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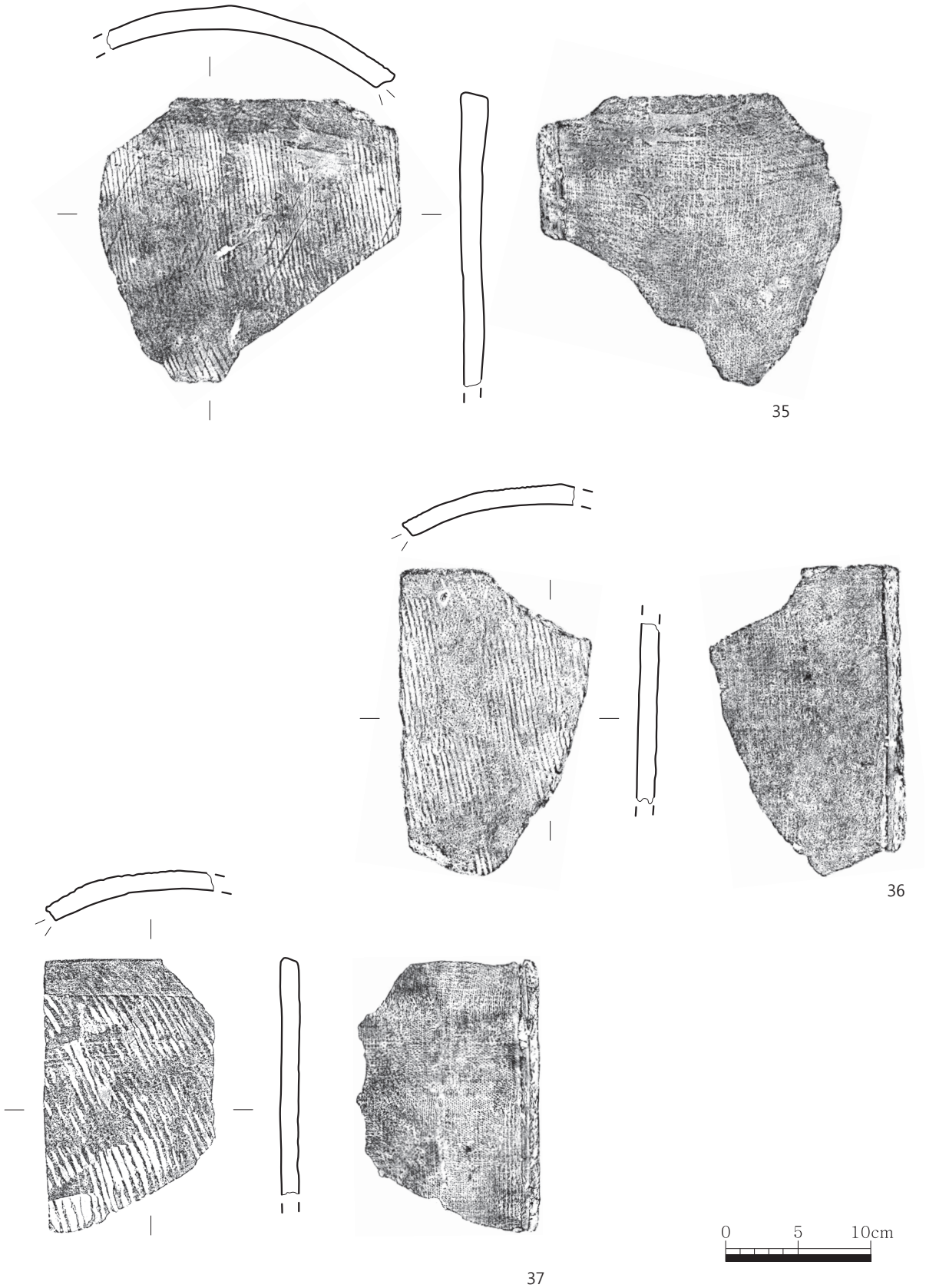
좌측 상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점토합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하였는데 상단부와 외면 일부는 물손질 정면하여 타날흔이 지워졌다. 와도흔은 좌측에서 확인되며, 내→외로 1/3~1/2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9.0㎝, 잔존너비 11.7㎝, 두께 1.3㎝





도면 18.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6(33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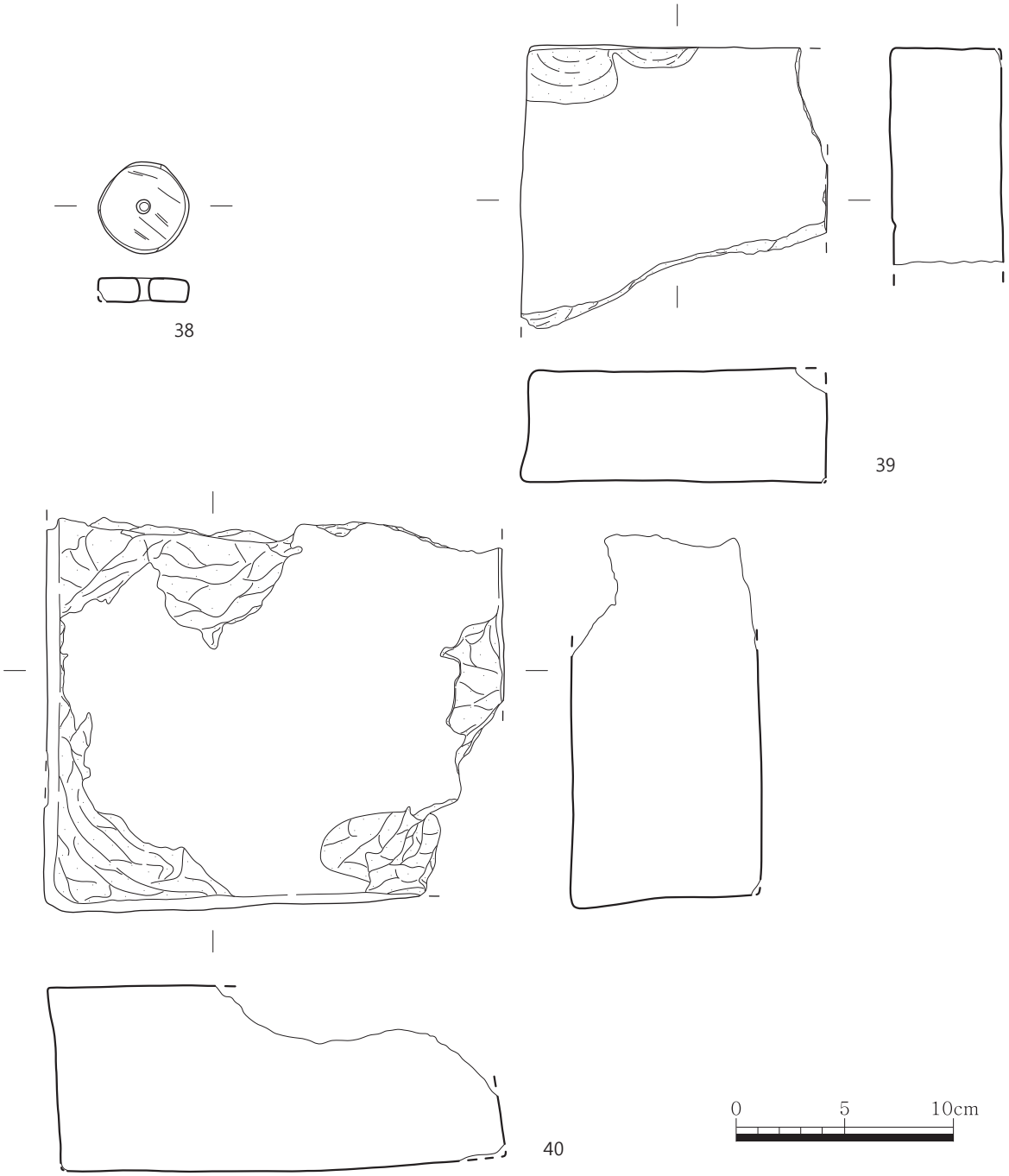


도면 19.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7(35~37)

38. 방추차(도면 20-38, 도판 17-38)

토제품으로 완형이다. 연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5YR 6/8)이며, 일부는 황등색(7.5YR 8/8)을 띤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중앙에는 직경 0.7㎝ 정도의 구멍을 양쪽에서 뚫었다.

직경 4.2㎝, 두께 1.1㎝



도면 20.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8(38~40)

39. 塼片(도면 20-39, 도판 17-39)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무문이며,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N 5/1)을 띠는데 일부는 회황갈색(10YR 6/2)을 띤다. 앞면 일부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었는데 대부분 산화 박리되었다. 전면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잔존길이 13.0㎝, 너비 14.1㎝, 두께 5.0㎝

40. 塼片(도면 20-40, 도판 17-40)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석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무문이며, 전반적인 색조는 황회색(2.5Y 6/1)을 띠는데 측면 일부는 회백색(2.5Y 7/1)을 띤다. 전면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잔존길이 18.1㎝, 잔존너비 20.9㎝, 두께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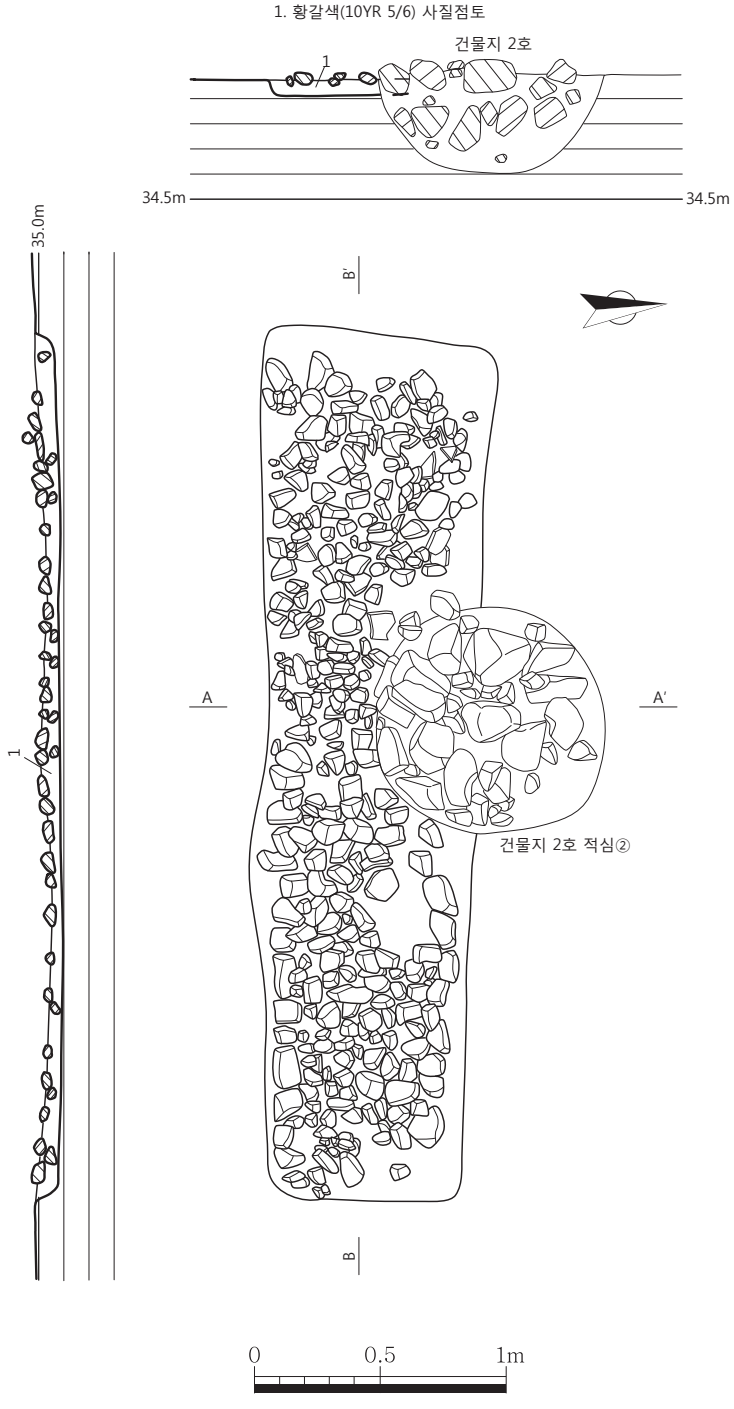
(2) 집석유구 2호

가. 유구(도면 21, 도판 17 · 18)

조사대상지 동쪽 중앙부에 위치하며, 건물지 2호 적심②와 초석 2호로 인해 일부 파괴되었다. 주변으로 북쪽에는 수혈유구 4호, 석조유구가 인접해 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80㎝, 너비 90㎝, 깊이 5㎝ 정도이다. 세장방형 수혈을 굴착한 후, 외곽에는 10~15㎝ 정도 크기의 천 · 할석으로 구획하고, 내부에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우고 상부에 5~10㎝ 내외의 소형 할석을 평평하게 깔아서 조성하였다.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21. 집석유구 2호

5) 매납유구

조사대상지 남서쪽 경계부에 총 2기가 확인되었으며, 서로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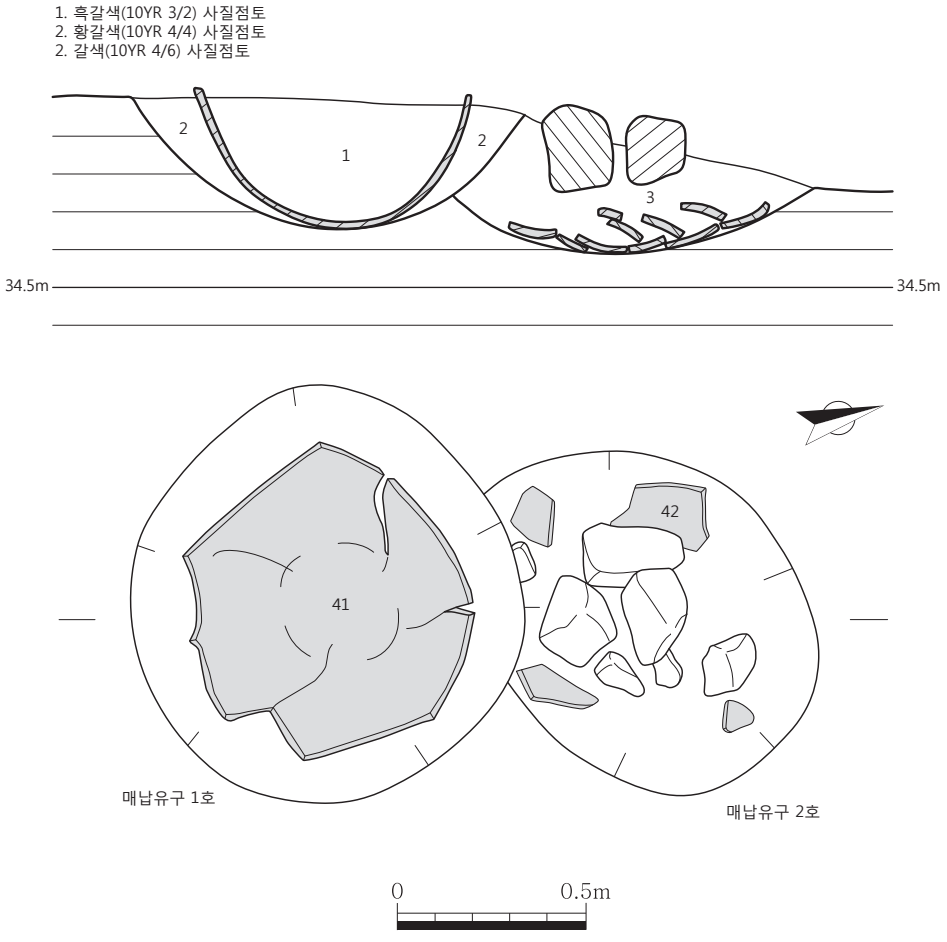
(1) 매납유구 1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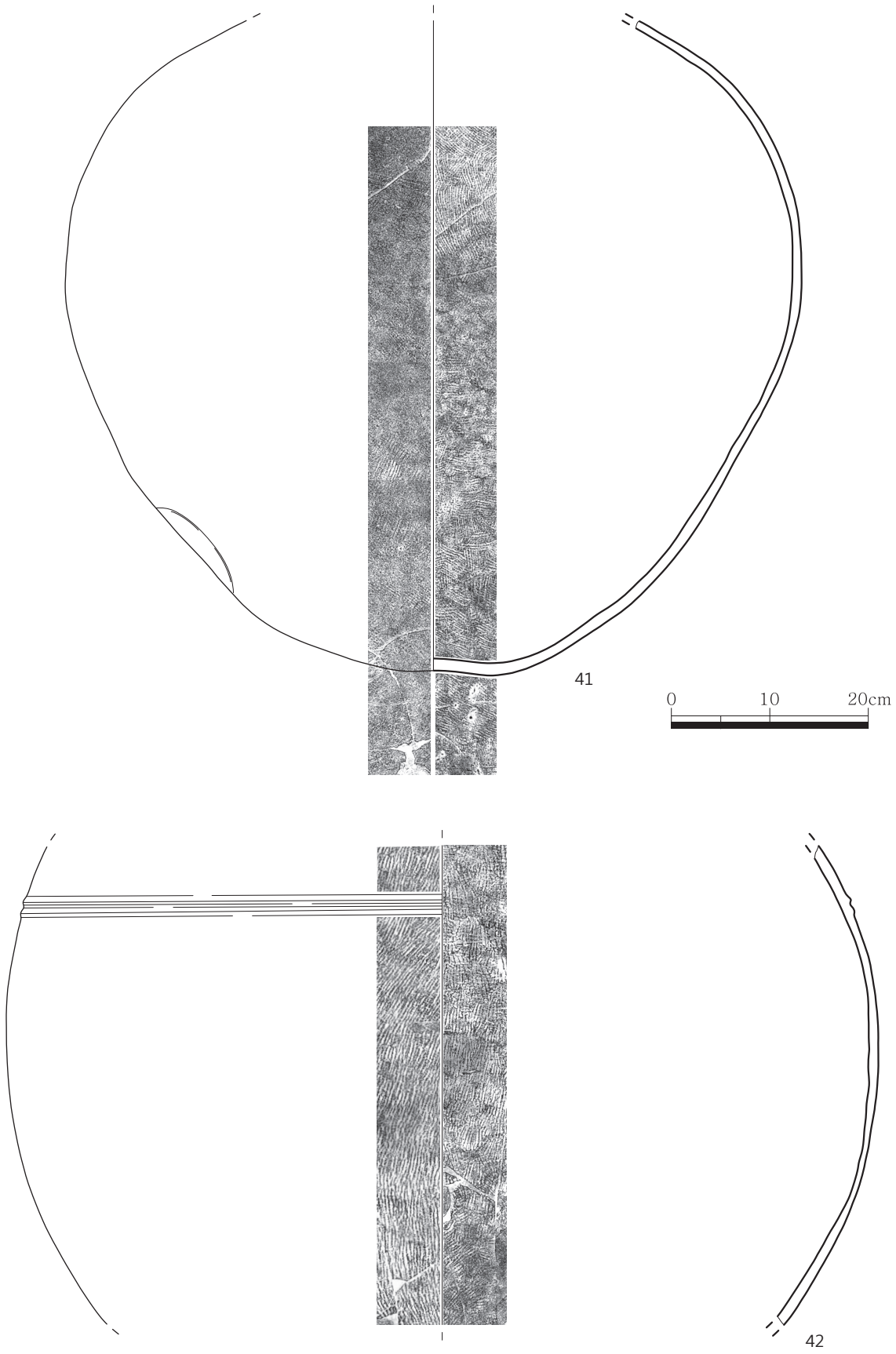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남서쪽 경계부에 위치하며, 매납유구 2호와 집석유구 1호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주변으로 동쪽에는 건물지 1호와 북쪽으로 담장지가 인접해 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00㎝, 깊이 32㎝ 정도이다. 수혈을 완만한 단면 'U'자상으로 굴착한 후, 내부에 대호 1점을 정치하였다. 또한, 대호과 굴착면 사이에는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충전하였다.

유물은 대호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22. 매납유구 1 · 2호



도면 23. 집석유구 1호(41) 및 2호(42) 출토유물

나. 유물

41. 대호(도면 23-41, 도판 18-41)

구경부 전체와 동체부 상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이고, 속심은 회적색(2.5YR 4/2)이다. 동체부 상부에는 자연유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동체부 내면에는 내박자 조정하였으며, 외면은 선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저부 외면에는 회적색(2.5YR 5/2)을 띠는 타원형의 소성흔 3개가 확인된다.

잔존기고 65.7㎝, 동최대경 73.7㎝

(2) 매납유구 2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19)

조사대상지 남서쪽 경계부에 위치하며, 매납유구 1호에 의해 벽면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집석유구 1호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주변으로 동쪽에 건물지 1호와 북쪽에는 담장지가 인접해 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80㎝, 깊이 15㎝ 정도이다. 수혈을 완만한 단면 'U'자상으로 굴착한 후, 내부에 대호 1점을 정치하였다. 또한, 대호과 굴착면 사이에는 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충전하였다.

유물은 대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42. 대호편(도면 23-42, 도판 19-42)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갈회색(10YR)이다. 내외면에는 올리브갈색(2.5Y 4/6) 자연유가 흡착되었는데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되었다. 잔존하는 동체부는 내면에 내박자 조정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선문 타날하였다. 잔존하는 동체부 상위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렸다.

잔존기고 47.9㎝, 동최대경 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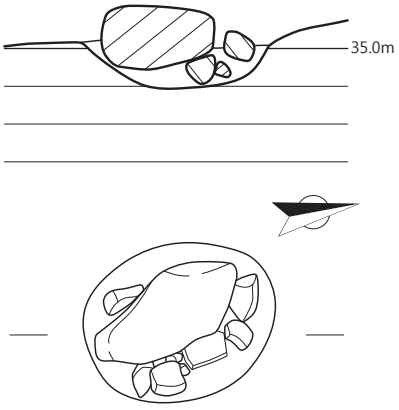
6) 초석 및 적심

가. 유구(도면 24, 도판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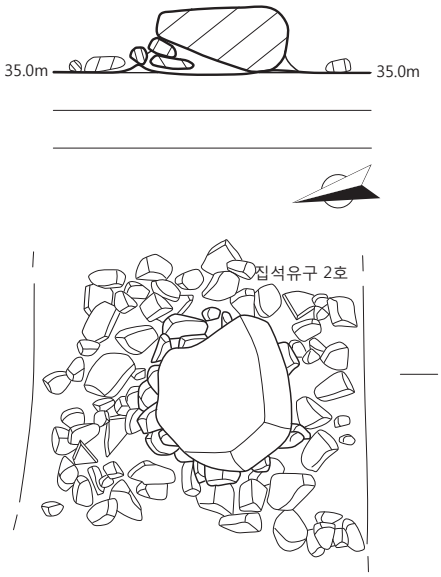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중앙에서 초석 2기, 북동쪽에서 적심 1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50~100㎝, 깊이 20~35㎝ 정도이다. 초석은 덤벙주초로 40~50㎝ 정도 크기의 천석을 사용하였으며, 적심은 10~40㎝ 정도 크기의 천 ·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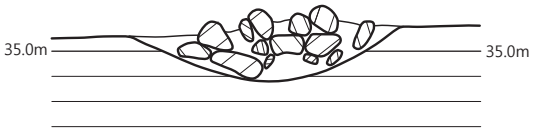
초석 및 적심의 개별 속성은 【표 6】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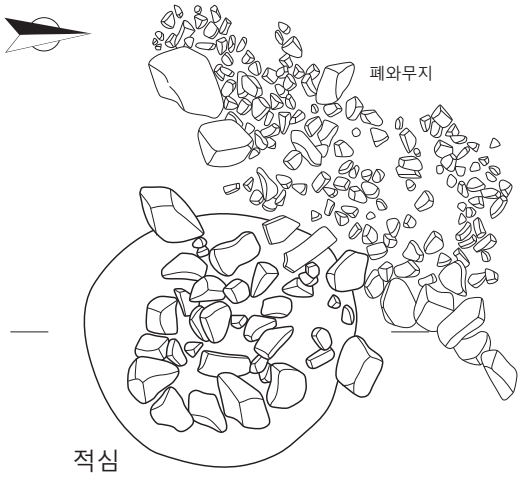


초석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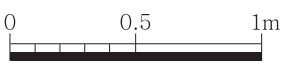


초석 2호





적심



도면 24. 초석 1 · 2호 및 적심

【표 6】 초석 및 적심 속성표

호수	평면 형태	규모(㎝)		초석 및 적심석	비고
		직경	깊이		
초석 1호	원형	50	15	40㎝ 정도 크기의 덤벙주초 10㎝ 정도 크기의 천석과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 채움 적심석 1~2단 잔존	–
초석 2호	원형	60	20	50㎝ 정도 크기의 덤벙주초 10㎝ 정도 크기의 천석과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 채움 적심석 1~2단 잔존	집석유구 2호 일부 파괴
적심	원형	100	25	20~40㎝ 정도 크기의 할석과 회황갈색(10YR 4/2) 사질점토 채움 적심석 2~3단 잔존	–

7)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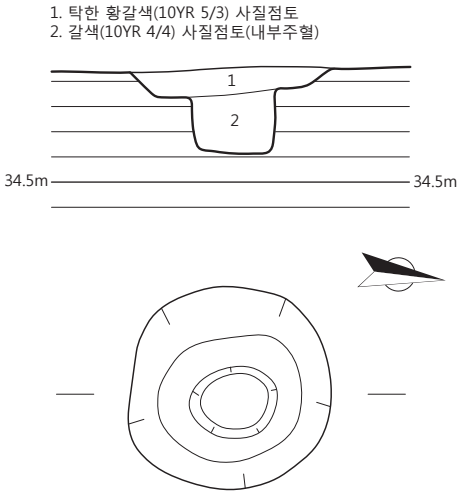
가. 유구

총 6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일부 부정형(4호)이 확인되었다. 벽면을 비스듬히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평평한 편이다. 내부시설은 주혈(1 · 4호)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수혈유구 4호 내부조사 과정에서 대각편과 완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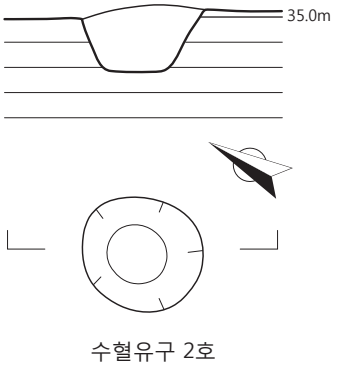
자세한 속성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수혈유구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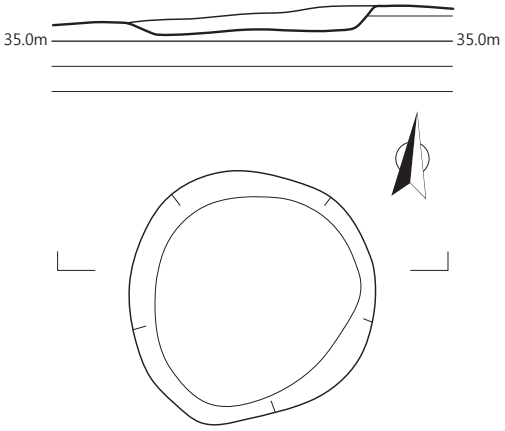
호수	도면	도판	평면 형태	규모(㎝)			내부토	비 고
				길이 (직경)	너비	깊이		
1호	25	21	원형	80		12	탁한 황갈색(10YR 5/3) 사질점토	내부 주혈 1개 확인됨
2호	25	21	원형	55		20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 내부 석립 다량 포함	–
3호	25	21	원형	100		9	회황갈색(10YR 4/2) 사질점토 – 목탄 소량 포함	집석유구 1호를 파괴함
4호	26	22	부정형	166	158	42	1.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 내부 석립 소량 포함 2. 탁한 황갈색(10YR 4/3) 사질점토 – 점성 있음	내부에서 대각편, 완편 확인 내부 주혈 2개 확인
5호	25	23	부정형	70	52	15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 소토 알갱이 소량 포함	–
6호	25	23	원형	53		8	회황갈색(10YR 4/2) 사질점토 – 내부 석립 다량 포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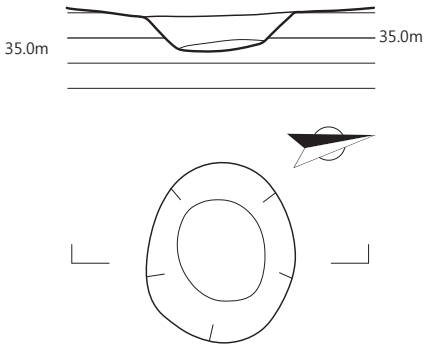
수혈유구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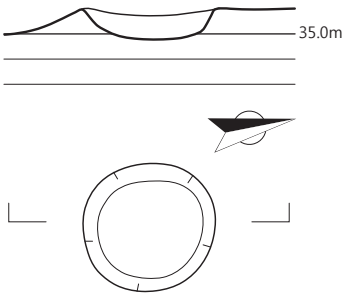
수혈유구 2호



수혈유구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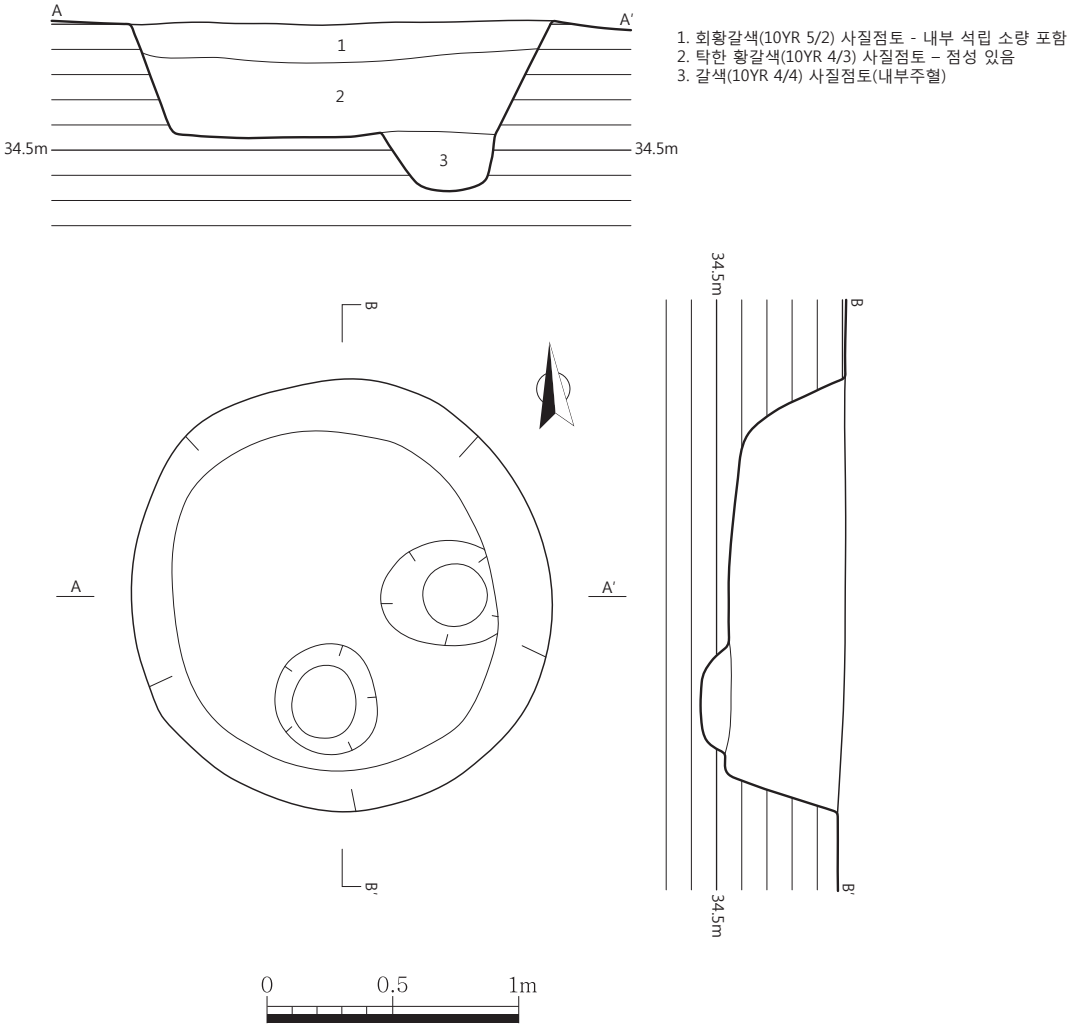
수혈유구 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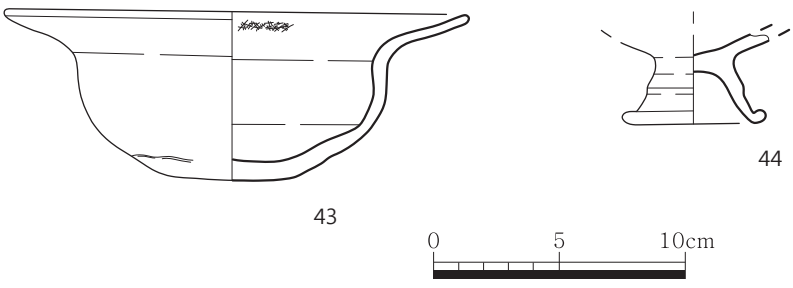


수혈유구 6호



도면 25. 수혈유구 1~3 · 5 · 6호





도면 26. 수혈유구 4호 및 출토유물(43 · 44)

나. 유물

〈수혈유구 4호〉

43. 완(도면 26-43, 도판 22-43)

구연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백색(2.5Y 7/1), 속심은 회갈색(5YR 7/2)이고, 내외면 일부는 갈회색(10YR 5/1)을 띤다. 내외면 일부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었는데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되었다. 구연부 내외면의 일부에는 짚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6.7㎝, 구경 18.2㎝, 저경 5.0㎝

44. 대각(도면 26-44, 도판 22-44)

신부 하위의 일부와 대각만 잔존하는데 대각단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5/1)이고, 속심은 회적색(10R 5/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 중위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렸다.

잔존기고 3.6㎝, 저경 4.7㎝

8) 주혈

가. 유구(도면 27, 도판 23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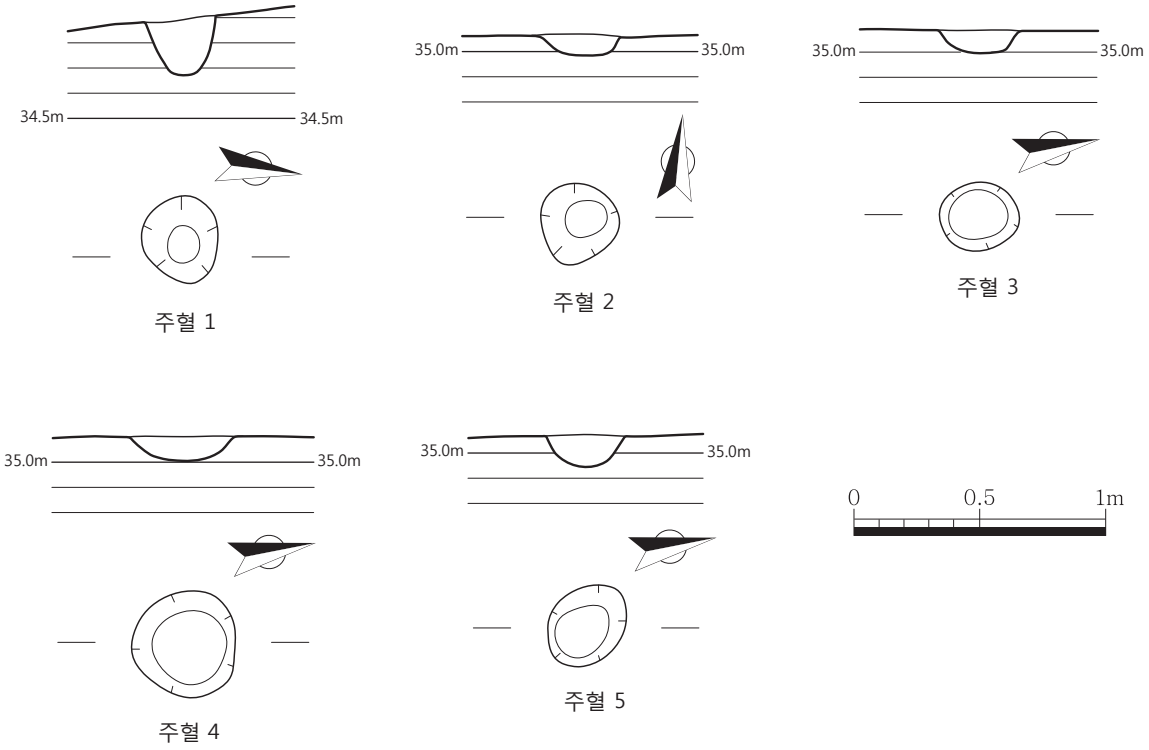
총 5기가 확인되었다. 주혈 간의 방향성 등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회황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내부에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세한 속성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주혈 속성표

주혈 번호	평면형태	규모(㎝)		단면 형태	내부퇴적토
		직경 (길이×너비)	깊이		
1	원형	30	20	'U' 자형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내부 석립 다량 포함
2	원형	32	8	'U' 자형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목탄 및 소토알갱이 소량 포함
3	원형	20	6	'U' 자형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내부 석립 다량 포함
4	원형	40	10	'U' 자형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목탄 및 소토알갱이 소량 포함
5	원형	48	15	'U' 자형	회황갈색(10YR 5/2) 사질점토 -내부 석립 다량 포함



도면 27. 주혈 1~5

〈상부수습유물〉

표토제거 및 유구확인 작업시 대부완 1점, 보상화문수막새 1점, 연화문수막새 1점 등 총 3점을 수습하였다.

45. 대부완(도면 28-45, 도판 28-45)

전체 기형의 1/2 정도만 잔존하여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갈회색(10YR 6/1), 내면과 속심은 회백색(10YR 7/1)이고, 대각단 내면의 일부는 갈회색(10YR 4/1)을 띤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상위에는 1조의 돌대를 돌린 후, 돌대 하위에는 점열문을 'B'시문수법으로 인화하였다.

기고 4.9㎝, 복원구경 12.2㎝, 복원저경 6.7㎝

46. 보상화문수막새편(도면 28-46, 도판 2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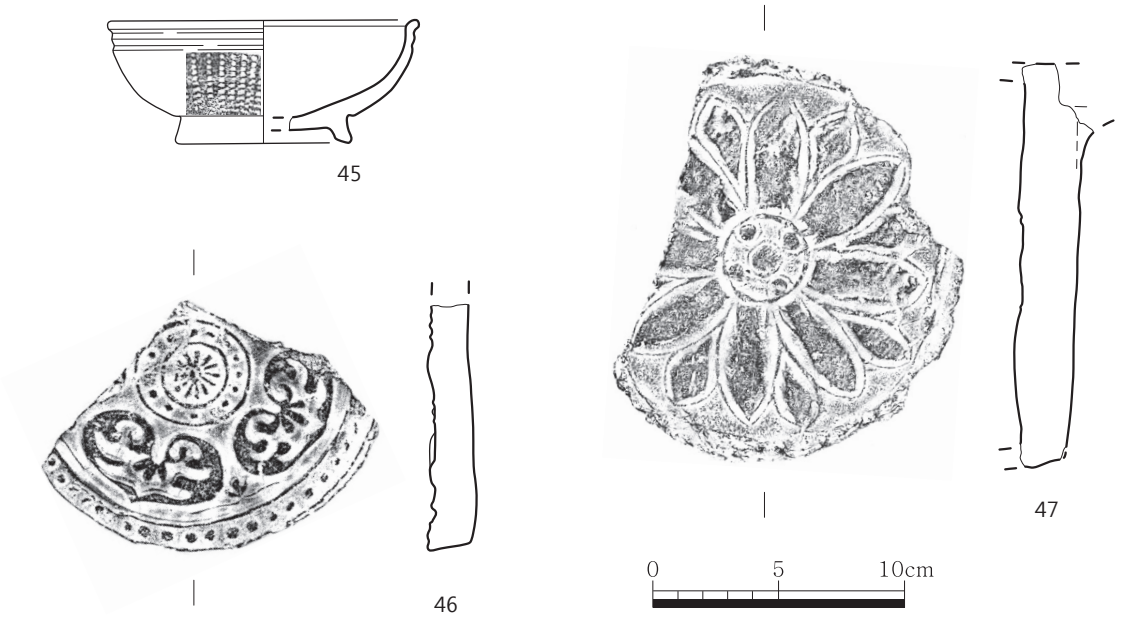
드림부 1/3 정도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갈회색(10YR 6/1)이다. 주연부는 돌출되었으며,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에는 보상화문 2엽이 잔존하며, 자방은 평면형으로 1과를 중앙에 두고 주위에 꽃술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2조의 원권을 돌린 후, 원권 내부에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드림부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직경 9.8㎝, 두께 1.7㎝

47. 연화문수막새(도면 28-47, 도판 28-47)

드림부 일부가 잔존하는데 주연부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 갈회색(10YR 6/1)이고, 내면은 탁한 황등색(10YR 6/3)이다. 문양부는 단판연화문으로 8엽의 꽃잎을 배치하였으며, 간엽은 물방울형을 배치하였다. 자방은 원권을 돌린 반구형으로 1+4과의 연자를 배치하였는데 자방과 연자 주변으로 원권을 돌렸다. 드림부 내면에는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직경 16.0㎝, 두께 2.3㎝



도면 28. 상부 수습유물(45~47)

Ⅳ. 조사성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53-4번지 외 1필지 발굴조사는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동, 석조유구 1기, 담장지 1기, 집석유구 2기, 매납유구 2기, 초 · 적심 3기, 수혈유구 6기, 주혈 5개 등 총 22기의 유구와 인화문토기, 연화문수막새, 보상화문수막새, 당초화문암막새, 중판타날 평기와편 등 총 47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구는 전체적으로 중복 및 교란으로 인해 잔존양상이 불량하여 정확한 성격이나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먼저 유구 간의 중복양상 및 단면조사 등으로 확인한 결과, 본 유적에서 가장 선행된 유구는 집석유구 1호이며, 이후 건물지 1호, 매납유구 1 · 2호와 담장지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석조유구는 신라왕경 내 건물지 유적인 경주 인왕동 696-1번지 유적[11]에서 확인된 석조유구와 형태와 벽면에 입수구 등의 시설 등이 확인되어 물과 관련된 집수장으로 판단된다. 집석유구 1호는 단면조사 및 기와 수습과정에서 굴광선이 확인되지 않고, 원지형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급격히 낮아지는 경사에 따라 다량의 기와편과 잔자갈을 깐 양상으로 보아 건물지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평탄화시키기 위한 기초시설인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유물은 인화문토기 중 시문된 문양이 종장연속 점열문, 상형문 등이 확인되었고, 복판의 연화문수막새, 연화보상화문수막새, 연화당초문암막새, 무문의 대부완 등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8세기대인 것으로 판단된다.[12]

본 발굴조사는 조사면적이 협소하고 잔존양상이 불량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밝히기엔 한계가 있었지만, 차후 주변으로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져 본 유적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11) 한국문화재재단, 2019, 「48. 경주 인왕동 696-1번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Ⅶ /44-49/』. 4기의 석조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석조유구 1 · 2호는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벽면에 입수구 및 출수구가 설치되었다, 이는 물과 관련된 집수시설로 추정하였다.

12) 李東憲, 2008, 『印花文 有蓋盌 硏究-慶州地域 出土土器를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李東憲, 2008, 「인화문토기연구」, 『古墳硏究11』, 古墳硏究會.
魯秀敏, 2012, 『新羅 蓮化文수막새 製作技術의 確立과 展開-慶州地域을 中心으로-』,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 學位論文.

도판



도판 1. 조사대상지 원경(①W→E) 및 조사전 전경(②NE→SW)



도판 2. 조사대상지 시굴조사(①조사후(항공사진), ②트렌치 1(E→W), ③트렌치 1 서벽 토층, ④트렌치 2(E→W), ⑤트렌치 2 북장벽 토층)



도판 3. 조사대상지 전경(①조사전(항공사진), ②조사중(항공사진)) 및 토층(③남쪽, ④북쪽)



도판 4. 건물지 1호 조사후(①) 및 적심 세부(②③적심 1, ④⑤적심 2)



도판 5. 건물지 2호 조사후(①) 및 적심 세부(②③적심 1, ④⑤적심 2, ⑥⑦적심 3)



도판 6. 건물지 2호 적심 세부(①②적심 4, ③④적심 5) 및 석조유구 조사전(⑤항공촬영)



도판 7.석조유구(①조사중, ②③유물 출토상태, ④⑤입수구세부, ⑥단면 및 토층)



도판 8. 석조유구 출토유물1(1~5)







도판 9. 석조유구 출토유물2(6 · 7) 및 담장지 조사후(①②)









도판 10. 담장지(①토층, ②입면, 8: 출토유물) 및 집석유구 1호 전경(③)



도판 11. 집석유구 1호(①단면, ②~⑥북서쪽 폐와 노출상태, ⑦북서쪽 토층)



도판 12. 집석유구 1호(①~⑤남동쪽 폐와 노출상태 및 단면, ⑥⑦북동쪽 집석 내 유물 출토상태)



도판 13.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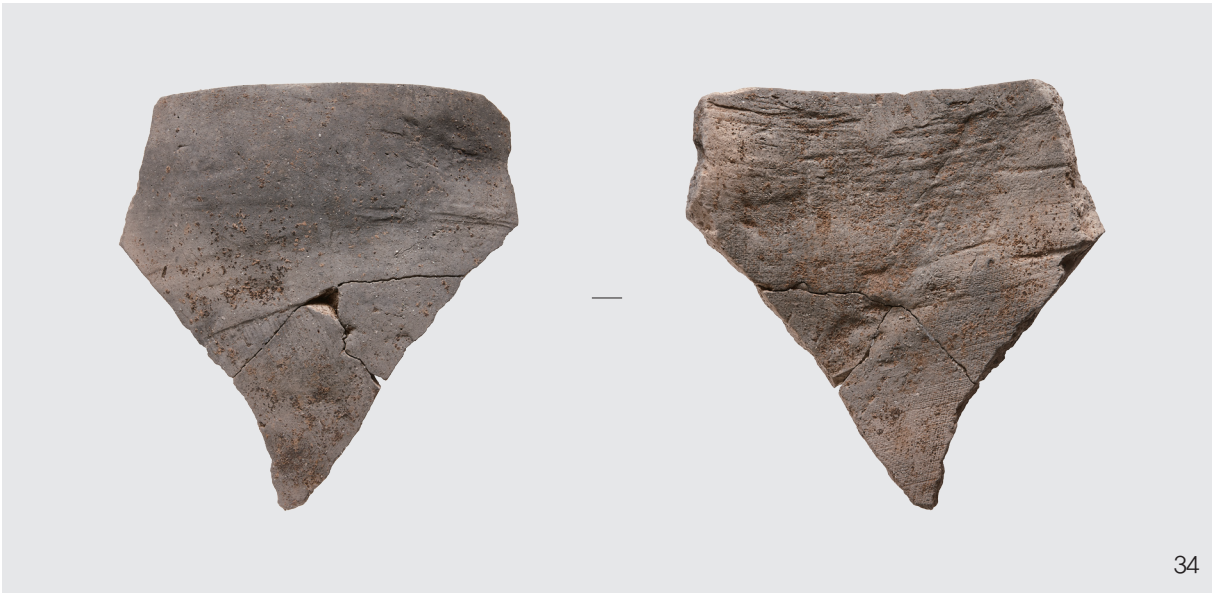


도판 14.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2(2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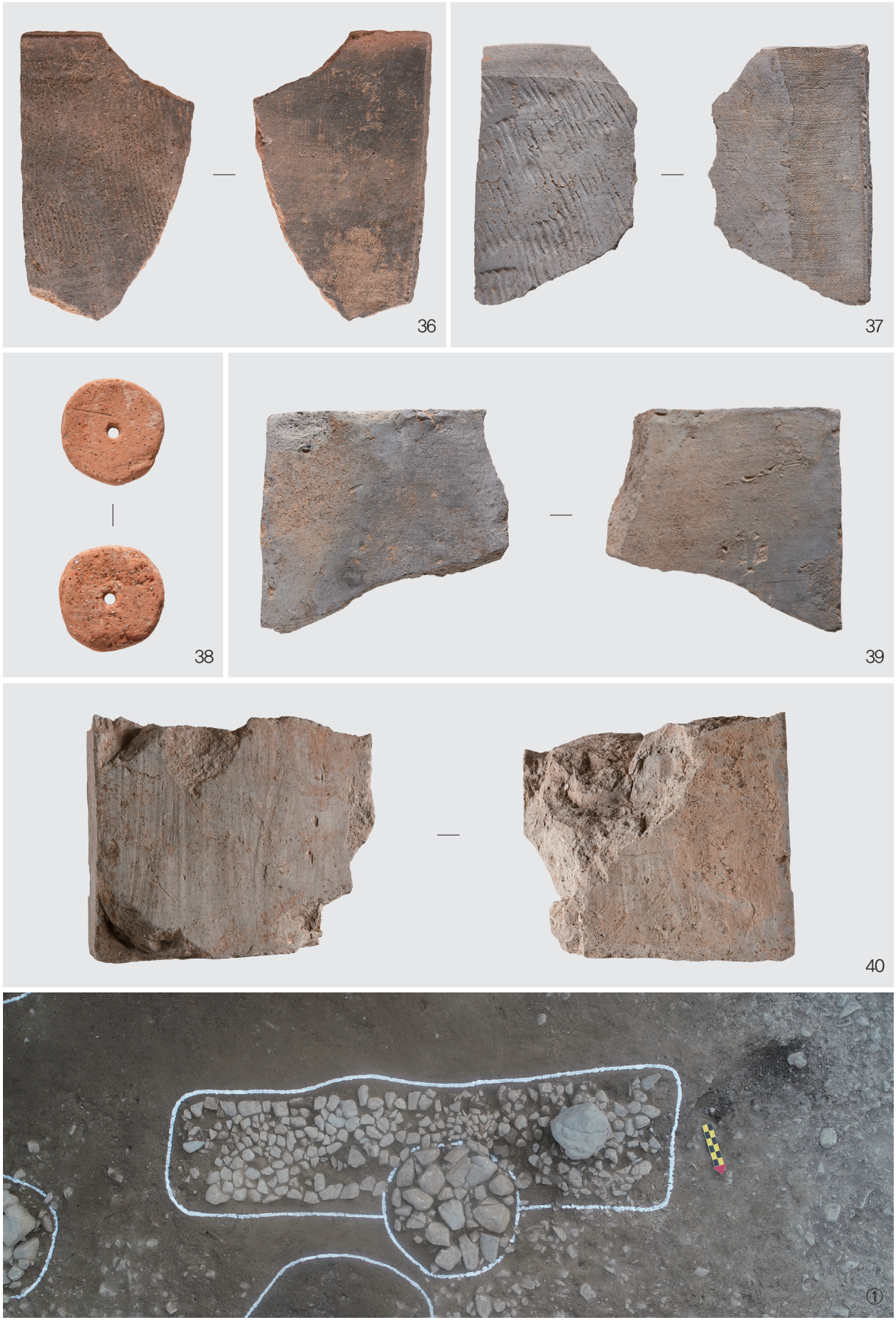
도판 15.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3(2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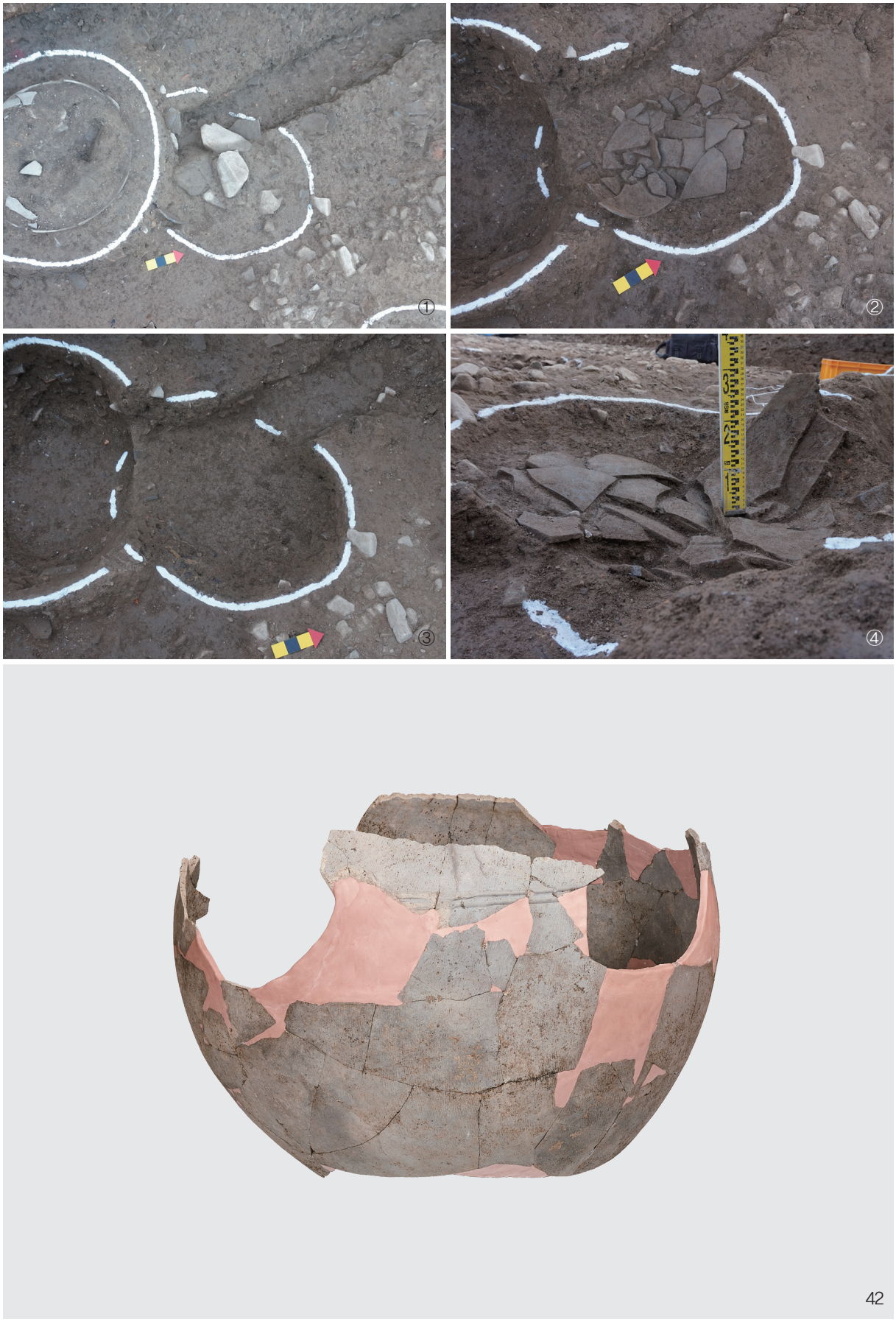
도판 16.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4(3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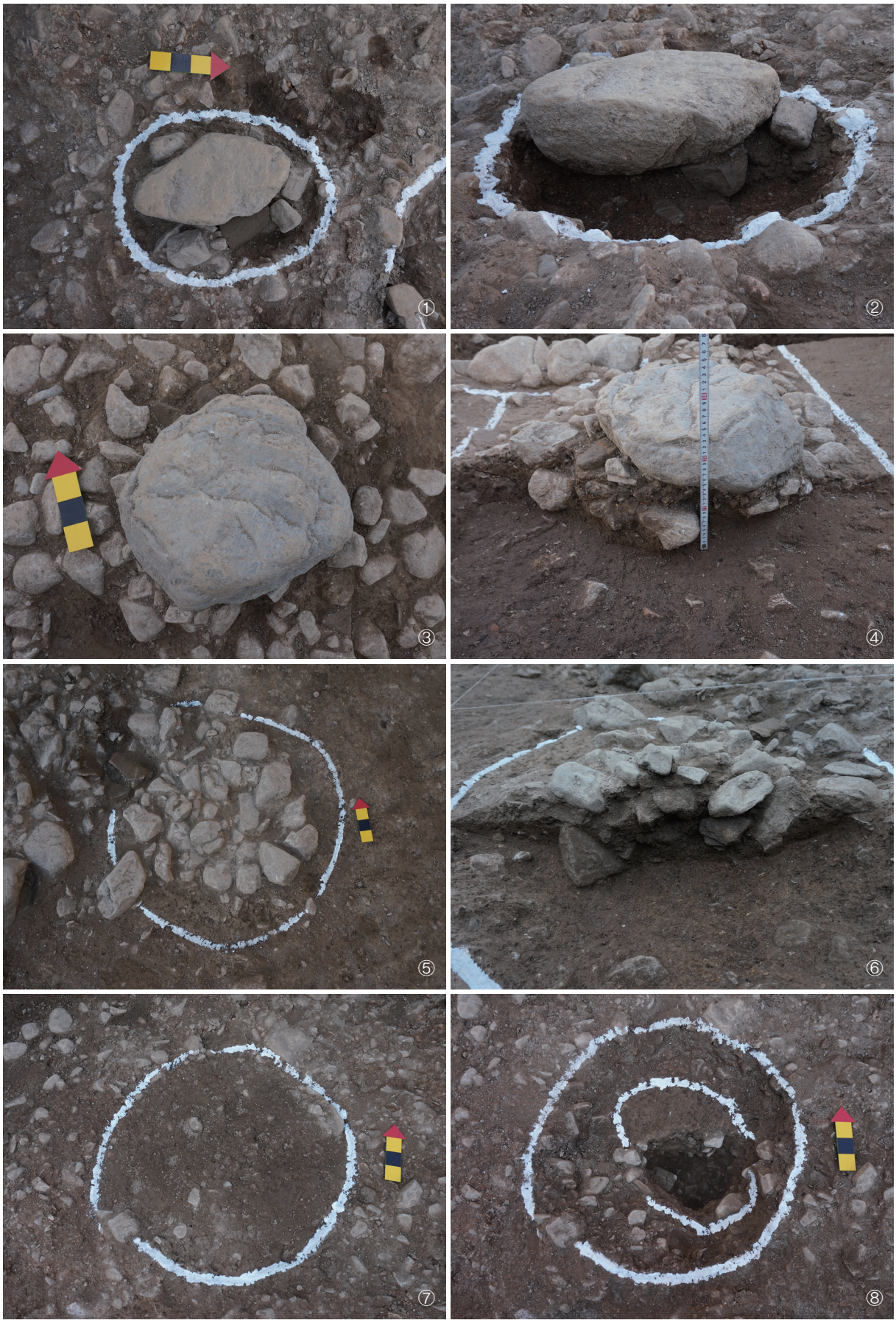
도판 17. 집석유구 1호 출토유물5(36~40) 및 집석유구 2호(①)



도판 18. 집석유구 2호 단면(①), 매납유구 1 · 2호(②), 매납유구 1호(③조사전, ④조사중, ⑤조사후, ⑥토층, 41: 출토유물)



도판 19. 매납유구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단면, 42: 출토유물)



도판 20. 초석 1호(①노출후, ②단면), 초석 2호(③노출후, ④단면), 적심(⑤노출후, ⑥단면), 수혈유구 1호(⑦조사전, ⑧조사중)



도판 21. 수혈유구 1호(①조사후, ②토층), 수혈유구 2호(③조사전, ④조사후, ⑤토층), 수혈유구 3호(⑥조사전, ⑦조사후, ⑧토층)



도판 22. 수혈유구 4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내부주혈1 토층, ④내부주혈2 토층, ⑤수혈 토층, 43 · 44: 출토유물)



도판 23. 수혈유구 5호(①조사전, ②조사후, ③토층), 수혈유구 6호(④조사전, ⑤조사중, ⑥토층), 주혈 1(⑦조사후, ⑧토층)



도판 24. 주혈 2(①조사후, ②토층), 주혈 3(③조사후, ④토층), 주혈 5(⑤조사후, ⑥토층), 주혈 6(⑦조사후, ⑧토층)





도판 25. 상부 수습유물(45~47: 출토유물) 및 자문위원회의 모습(①②)

경주 사정동 53-4번지 외 1필지 유적 유물 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			보고서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결과
				재질	시대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2018-1071-0001	병편	1	석조유구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10.2	복원 10.5	0.0	9-1, 8-1	Y
2018-1071-0002	연화문수막새편	1	석조유구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6.4	0.0	1.4	9-2, 8-2	Y
2018-1071-0003	연화문수막새편	1	석조유구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9.0	0.0	1.4	9-3, 8-3	Y
2018-1071-0004	연화문수막새	1	석조유구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14.9	0.0	2.3	9-4, 8-4	Y
2018-1071-0005	수키와편	1	석조유구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22.4	너비 12.8	1.0	9-5, 8-5	Y
2018-1071-0006	수키와편	1	석조유구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22.9	잔존 12.5	1.4	10-6, 9-6	Y
2018-1071-0007	암키와편	1	석조유구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19.2	잔존 18.5	두께 1.1	10-7, 9-7	Y
2018-1071-0008	塼片	1	담장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17.1	너비 15.2	5.2	11-8, 10-8	Y
2018-1071-0009	개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2.1	0.0	0.0	13-9, 13-9	Y
2018-1071-0010	개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4.7	복원 19.1	0.0	13-10, 13-10	Y
2018-1071-0011	호 대각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4.1	0.0	8.9	13-11, 13-11	Y
2018-1071-0012	대부완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2.6	11.0	복원 7.4	13-12, 13-12	Y
2018-1071-0013	병 경부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11.4	0.0	0.0	13-13, 13-13	Y
2018-1071-0014	동이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8.6	0.0	0.0	13-14, 13-14	Y
2018-1071-0015	벼루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5.9	0.0	0.0	13-15, 13-15	Y
2018-1071-0016	벼루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4.9	0.0	0.0	13-16, 13-16	Y
2018-1071-0017	연화문수막새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12.5	0.0	2.6	13-17, 13-17	Y
2018-1071-0018	연화문수막새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8.0	0.0	1.5	13-18, 13-18	Y
2018-1071-0019	연화문수막새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9.4	0.0	1.9	14-19, 13-19	Y
2018-1071-0020	연화문수막새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9.8	0.0	1.9	14-20, 13-20	Y
2018-1071-0021	연화문수막새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6.7	0.0	2.0	14-21, 13-21	Y
2018-1071-0022	연화문수막새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14.2	0.0	2.2	14-22, 14-22	Y

2018-1071-0023	연화문수막새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9.3	0.0	1.6	14-23, 14-23	Y
2018-1071-0024	연화보상화문수막새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5.5	0.0	1.8	14-24, 14-24	Y
2018-1071-0025	보상화문수막새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7.7	0.0	1.5	14-25, 14-25	Y
2018-1071-0026	당초화문암막새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5.4	잔존 19.4	2.4	15-26, 14-26	Y
2018-1071-0027	수키와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13.6	잔존 9.5	1.9	15-27, 15-27	Y
2018-1071-0028	수키와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28.2	14.6	1.5	16-28, 15-28	Y
2018-1071-0029	수키와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27.0	잔존 11.5	1.5	16-29, 15-29	Y
2018-1071-0030	수키와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22.4	잔존 9.8	1.7	17-30, 15-30	Y
2018-1071-0031	수키와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21.7	잔존 8.6	1.2	17-31, 15-31	Y
2018-1071-0032	수키와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14.7	잔존 10.1	1.6	17-32, 15-32	Y
2018-1071-0033	암키와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23.0	잔존 18.9	1.7	18-33, 16-33	Y
2018-1071-0034	암키와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24.2	잔존 23.5	1.7	18-34, 16-34	Y
2018-1071-0035	암키와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20.2	잔존 19.8	1.5	19-35, 16-35	Y
2018-1071-0036	암키와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21.6	잔존 12.6	1.3	19-36, 17-36	Y
2018-1071-0037	암키와편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19.0	잔존 11.7	1.3	19-37, 17-37	Y
2018-1071-0038	방추차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4.2	0.0	1.1	20-38, 17-38	Y
2018-1071-0039	塼片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13.0	14.1	5.0	20-39, 17-39	Y
2018-1071-0040	塼片	1	집석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18.1	잔존 20.9	8.5	20-40, 17-40	Y
2018-1071-0041	대호	1	매납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65.7	0.0	0.0	23-41, 18-41	Y
2018-1071-0042	대호편	1	매납유구 2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47.9	0.0	0.0	23-42, 19-42	Y
2018-1071-0043	완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6.7	18.2	5.0	26-43, 22-43	Y
2018-1071-0044	대각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3.6	0.0	4.7	26-44, 22-44	Y
2018-1071-0045	대부완	1	상부수습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4.9	복원 12.2	복원 6.7	28-45, 28-45	Y
2018-1071-0046	보상화문수막새편	1	상부수습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잔존 9.8	0.0	1.7	28-46, 28-46	Y
2018-1071-0047	연화문수막새	1	상부수습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16.0	0.0	2.3	28-47, 28-47	Y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경주 사정동 53-4번지 외 1필지 유적			發行日	2020年 11月 25日
發刊機關	名稱	한국문화재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 3011-2173	FAX	(02) 566-5954	
執筆 · 偏執者	박강민, 남효정, 이현호, 강성귀, 윤민비				
調査緣由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박강민, 남효정, 이현호, 오현민				
遺蹟所在地番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53-4, 57-6번지				
調査面積	332㎡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건물지	통일신라시대	2	-	
석조유구		1	연화문수막새, 병편 등	
담장지		1	전편	
집석유구		2	개편, 연화문수막새, 수키와편, 전편 등	
매납유구		2	대호 등	
초석 및 적심		3	-	
수혈유구		6	완, 대각 등	
주혈		5	-	

116. 부여 왕포리 79-1번지 유적

동방문화재연구원

〈일 러 두 기〉

1. 본 보고서는 ‘부여 왕포리(79-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시굴: 허가 제 2018-1157호 · 정밀발굴: 허가 제2018-1411호)’ 의 발굴(시굴 · 정밀발굴)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이다.
2. 시굴조사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실시하였고, 정밀발굴조사는 한국문화재재단의 대행조사의뢰를 받아 (재)동방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3. 유적의 명칭은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리명(里名)과 지번(地番)으로 기재하였다.
4. 보고서의 본문에 삽입된 일부 도면과 위성사진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였다.
5. 수치지형도면은 〈1:25,000 부여(366124) · 석성(366162)/세계측지계/TM좌표계/GRS80/중부원점〉과 〈1:5,000 청양(36612097) · 청양(36612098)/세계측지계/TM좌표계/GRS80/중부원점〉을 수정 ·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6. 도면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였다.
7. 유구는 시대와 종류별로 나누어 조사내용에 기술하였다.
8. 유구의 입면 · 단면 · 층위도에 표기된 수치는 해발(海拔)을 의미한다.
9. 유구도면의 축척은 1/80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크기 · 성격에 따라 축척을 달리하여 표시하였다.
10. 유물 실측도의 축소비율은 토기 1/3 · 1/6, 석기 1/3, 기와 1/4, 철기 1/6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도면 하단에 축척을 표시하였다.
11. (재)동방문화재연구원은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목 차

Ⅰ. 조사개요 …… 116 - 7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16 - 9

Ⅲ. 조사내용 …… 116-18
1. 시굴조사 …… 116-18
2. 정밀발굴조사 …… 116-19
〈백제시대 Ⅰ문화층〉 …… 116-22
1) 건물지 …… 116-22
2) 도로 …… 116-26
3) 수혈 …… 116-31
4) 지표수습 …… 116-33
〈백제시대 Ⅱ문화층〉 …… 116-33
1) 건물지 …… 116-33
2) 도로 …… 116-40
3) 수혈 …… 116-44

Ⅳ. 조사내용 …… 116-45

※ 출토유물목록 …… 116-69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S=1/50,000)…… 116-11
도면 2.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 문화재 현황도(S=1/10,000) …… 116-12
도면 3. 조사지역 지적도(S=1/1,000) …… 116-17
도면 4. 조사지역 트렌치 배치도(S=1/1,000) …… 116-19
도면 5. 백제시대 Ⅰ문화층 유구배치도(S=1/300) …… 116-21
도면 6.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건물지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80) …… 116-22
도면 7.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건물지 출토유물(1 · 2) …… 116-23
도면 8.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건물지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80) …… 116-24
도면 9.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건물지 출토유물(3) …… 116-24
도면 10.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도로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120) …… 116-25
도면 11. 백제시대 Ⅰ문화층 1 · 2호 도로 연결부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80) …… 116-26
도면 12.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도로 출토유물(4~7) …… 116-27
도면 13.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80) …… 116-28
도면 14.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 출토유물(8~13) …… 116-29
도면 15.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수혈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40) …… 116-31
도면 16.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수혈 출토유물(14~16) …… 116-32
도면 17.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지표수습 출토유물(14~16) …… 116-33
도면 18. 백제시대 Ⅱ문화층 유구배치도(S=1/300) …… 116-34
도면 19. 백제시대 Ⅱ문화층 1호 건물지 평면도 및 단면도 …… 116-36
도면 20. 백제시대 Ⅱ문화층 2호 건물지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60) …… 116-37
도면 21. 백제시대 Ⅱ문화층 2호 건물지 출토유물(18~21) …… 116-38
도면 22. 백제시대 Ⅱ문화층 3호 건물지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60) …… 116-39
도면 23. 백제시대 Ⅱ문화층 3호 건물지 출토유물(22 · 23)…… 116-39
도면 24. 백제시대 Ⅱ문화층 1호 도로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60) …… 116-41
도면 25. 백제시대 Ⅱ문화층 1호 도로 출토유물(24~30) …… 116-42
도면 26. 백제시대 Ⅱ문화층 1호 도로 출토유물(31 · 32)…… 116-43
도면 27. 백제시대 Ⅱ문화층 1호 수혈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40) …… 116-44

도 판 목 차

도판 1. 시굴조사(①조사 전, ②조사 후) …… 116-49
도판 2. 시굴조사(①트렌치 전경, 토층 전경②동벽, ③서벽, ④남벽, ⑤북벽)…… 116-50
도판 3. 백제시대 Ⅰ문화층(①조사 후), 1호 건물지(②조사 후)…… 116-51
도판 4.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건물지(①~④벽구 세부, ⑤~⑧벽구 토층) …… 116-52
도판 5.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건물지(①~④벽주공 토층, ⑤~⑧내주공 토층, 출토유물 1·2) …… 116-53
도판 6.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건물지(①조사 중, ②출입구, ③내주공, ④·⑤벽구 세부) … 116-54
도판 7.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건물지(① · ②벽구 토층, ③조사 후, ④~⑦벽주공 토층, ⑧~⑪내주공 토층, ⑫~⑮외주공 토층 및 조사 후, 출토유물 3)…… 116-55
도판 8.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도로(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토층, ④ · ⑤측구 토층, ⑥·⑦ 도로면 전경, ⑧~⑪출토유물 세부)…… 116-56
도판 9.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도로(①조사 후, 출토유물 4~7), 1 · 2호 도로 연결부(②조사 후, ③토층, ④~⑦(추정)교각시설 주공)…… 116-57
도판 10.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①조사 중, ②토층, ③ · ④측구 토층, ⑤조사 후) … 116-58
도판 11.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출토유물 9~13), 1호 수혈(①조사 전, ②출토유물 세부, ③토층) …… 116-59
도판 12.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수혈(①조사 후, 출토유물 14~16), 지표수습유물 17 …… 116-60
도판 13. 백제시대 Ⅱ문화층(①조사 후), 1호 건물지(②조사 후)…… 116-61
도판 14. 백제시대 Ⅱ문화층 1호 건물지(①~③지정1, ④~⑥지정2, ⑦~⑨지정3, ⑩~⑫ 지정4, ⑬~⑮지정8, 원번호16~원번호18, 지정10) …… 116-62
도판 15. 백제시대 Ⅱ문화층 2호 건물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토층, ④~⑨내부 주공, ⑩·⑪ 출토유물 세부, ⑫조사 후) …… 116-63
도판 16. 백제시대 Ⅱ문화층 2호 건물지(출토유물18~21), 3호 건물지(①조사 중, ② · ③토층, ④조사 후) …… 116-64
도판 17. 백제시대 Ⅱ문화층 2호 건물지(①~④내부 주공, 출토유물 22 · 23), 1호 도로(⑤조사 전, ⑥조사 중, ⑦토층, ⑧ · ⑨측구 토층 …… 116-65
도판 18. 백제시대 Ⅱ문화층 1호 도로(①조사 후, 출토유물 24~32) …… 116-66
도판 19. 백제시대 Ⅱ문화층 1호 수혈(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토층, ④조사 후), ⑤학술자문 회의…… 116-67

Ⅰ. 조사개요

본 보고서는 '부여 왕포리(79-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의 매장문화재 발굴(시굴·정밀발굴)조사에 대한 최종결과보고서이다.

강병구氏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79-1번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계획으로 부여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부여군 문화재사업소에서는 '해당지역은 주변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아울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판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문화재협업포털을 통해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이라는 협의문서를 회신하였다(2018.3.28.).

이에 강병구氏는 사업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사업진행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독주택 부지에 대하여 2018년 7월 4일 문화재협업포털을 통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접수하였다(접수번호 2018-0704-05호).

해당 사업대상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접수한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부여 왕포리(79-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허가 제2018-1157호)]를 득한 후, 사업면적 575㎡에 대한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2018.9.19.)[1].

시굴조사 결과, 트렌치 내에서 추정 주거지 1동과 적심토 건물지 1동(적심 2개)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9월 19일 학술자문회의 진행되었으며, 회의결과 '백제시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나, 설계도상 건물 기초 터파기 깊이가 3m이상 유구에서 이격됨으로 발굴조사 유예 기준에 해당하여 확인된 유구는 발굴을 유예하고, 상부 건축은 예정대로 가능하나 관련 절차는 문화재청과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유적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4일 문화재청의 전문가검토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결과,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 부지 내 유적[2]에서 확인되는 적심토건물지와 동일유구가 확인되므로 건물지의 성격과 규모 확인을 위해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치사항이 통보되었다(2018.10.8.).

이를 종합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조사결과, 트렌치 내에서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 부지 내 유적에서 조사된 백제시대 Ⅱ문화층과 동일한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추정 주거지 및 적심토 건물지의 적심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유적은 전문가검토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본 유적의 접수일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대행조사를 검토하고자 하며, 유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서쪽에 연접한 왕포리 79-4번지 발굴조사기관(동방문화재연구원)에 대행조사를 의뢰하고자 한다.'는 조사기관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

1) 한국문화재재단, 2018, 『소규모 국비지원 시굴조사 약보고서(부여 왕포리 79-1번지)』.

2) 동방문화재연구원, 2018, 『부여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시굴·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이후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10월 26일 우리 연구원에 대행조사를 의뢰하였다(한국문화재재단 조사연구1팀-2641호). 이에 동방문화재연구원에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부여 왕포리(79-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허가 제2018-1411호)]를 득한 후 조사면적인 575㎡에 대해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실조사일수 21일) 진행하였다.

정밀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 2개 문화층에서 건물지 · 도로 · 수혈 등 총 10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번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굴조사

조 사 단 장 : 이 경 식(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조사연구2팀장)
책임조사원 : 정 훈 진(문화재조사연구단 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 이 건 충(문화재조사연구단 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조 은 이(문화재조사연구단 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 김 방 효(문화재조사연구단 조사연구2팀 연구원)

정밀발굴조사

조 사 단 장 : 이 호 형(동방문화재연구원 원장)
책임조사원 : 최 상 철(동방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장)
조　사　원 : 강 모 영(동방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2과장)
　　박 성 규(동방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3과장)
준 조 사 원 : 윤 성 식(동방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박 종 진(동방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김 병 완(동방문화재연구원 연구원)
　　한 예 지(동방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상기 소속과 직명은 조사 당시 기준임.

발굴조사의 진행과 보고서 작성에는 많은 연구원들의 노고가 있었다.

현장조사는 최상철의 총괄 아래 강모영 · 박성규가 담당하였으며, 윤성식 · 박종진 · 김병완 · 한예지가 각기 업무를 분담하여 조사 진행 및 실측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보고서 작성 시 전반적인 유적의 조사 진행과정과 조사내용 · 조사성과 등은 조사기록을 토대로 최상철 · 강모영이 작성하였다. 유구 도면의 정리는 최상철이 담당하였으며, 편집 · 전자화 작업은 이은숙(前 동방문화재연구원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유물의 실측 · 제도 · 탁본 · 전자화 작업은 박현경(동방문화재연구원 유물관리과장) · 이은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물사진의 촬영은 강모영 · 윤성식이 진행하였다. 사진편집은 강모영이 담당하였다. 보고서의 전체조정과 편집은 강모영이 담당하였고, 이상복 · 최상철의 수정 · 보완을 거쳐 이호형이 최종적으로 교열 및 감수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문화재재단 및 문화재청 · 부여군청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부여군은 발달한 저구릉성 산지가 분포하고 있고 산지들 사이로 금강과 그 지류들이 지나면서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일찍부터 인간의 생활터전을 형성하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에 부여군에는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발굴조사 되었고(표 1), 지표상에서도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여지역에서 확인된 주요 유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부여 나복리 통실유적에서 5개의 고토양층이 확인되었으며, 첫 번째 토양쐐기층에서 석영으로 만든 몸돌, 격지, 잔손질된 석기(긁개, 뚜르개, 톱니날, 홈날) 등 총 68점의 뗀석기가 출토되었다[3]. 또한 부여지역 여러 곳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채집된 바 있는데 외산면 반교리에서 몸돌로 추정되는 석기와 직경 10cm 내외의 석영암편이 수습되었고[4], 홍산면 좌홍리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날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지만 석영암제의 양날찍개 1점이 수습되었다. 또한 정림사지 연못터 · 쌍북리요지 · 남령공원 등지에서 찍개 및 여러면석기 등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기 몇 점이 발견된 바 있다[5]. 이와 같은 유물출토양상은 부여지역에서 구석기시대인 들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신석기시대는 부여지역에서 정식으로 발굴된 사례는 없으나, 은산면 은산리 일대 구릉 정상부의 평탄면에서 빗살무늬 토기편이 확인되었고[6], 규암면 나복리에서 역시 빗살무늬토기편과 마제석검편[7], 홍산면 상천2리에서 빗살무늬토기[8]가 수습된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에도 부여지역에 인류의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여지역은 청동기시대 사회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다. 곳곳에 대규모의 정주취락이 형성되고, 거석기념물이 축조되기 시작하는 등 이전 시대와는 달리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취락인 송국리 유적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은 국립중앙박물관(1975-1978), 국립공주박물관(1991-1993), 국립부여박물관(1996-1997), 한국전통문화대학교(2008-2011)에 의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송국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타원형 구덩이가 설치된 원형 주거지(송국리형 주거지)형태와 외반구연호(송국리형 토기), 삼각형석도, 홍도, 유구석부 등을 표지 유물로 하는 소위 '송국리 문화', '송국리 유형' 이라는 청동기시대의 문화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송국리형 주거지는 부여 증산리 유적[9], 공주 안영리 유적[10], 논산 원북리 유적[11], 대전 구성동 유적[12], 보령 진죽리 유

3) 충청문화재연구원, 2008, 『扶餘 羅福里 통실 · 石隅里 · 元門里遺蹟』
4) 충청남도 · 충남대학교박물관, 2002, 『부여의 문화유산』.
5) 부여군지편찬위원회, 1987, 『부여군지』
6) 충청남도 · 충남대학교박물관, 2002, 『부여의 문화유산』
7) 김원용, 1961, 「부여 라복리의 즐문토기」『고고미술』2
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3, 『백제고분지표조사보고서Ⅳ』
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4, 『부여 증산리유적』
10)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3, 『공주 안영리 새터 · 신매 유적』.
11) 지건길, 1978, 「논산 원북리 지석묘와 출토유물」『고고미술』 136 · 137, 국립중앙박물관.
12) 忠南大學校博物館, 1997, 『大田 九城洞遺蹟』.

적[13]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충청권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송국리 유적 외에 청동기시대 생활유적으로는 부여 나복리 유적[14] · 합정리 유적[15] · 가중리 유적[16]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나복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22기, 분묘 11기 등이 조사되었는데 송국리형 주거지 내 타원형 구덩이의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며, 주거지와 분묘간의 공간분리 등의 특징이 확인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의 분묘는 석관묘와 지석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석관묘의 경우 송국리를 비롯하여 연화리[17] · 부여읍 중정리 당산과 가탑리 · 정동리[18] · 석우리 절골[19] 등에서 조사되었으며 내부에서 비파형 동검, 동착, 마제석검, 석촉, 관옥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의 청동기 및 석기 제작기술과 매장풍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석묘는 부여 산직리[20] · 가곡리[21] · 석성리 · 나복리 · 태양리[22] · 온혜리 · 지석리 · 현미리 등에서 확인되는데[23], 비교적 넓은 범위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논농사 중심의 송국리문화가 정착되고 인구 및 사회복합도가 증가하면서 초기철기시대에는 청동검과 거울, 방울 등 위세품을 부장한 무덤이 연화리 · 구봉리 · 합곡리 · 합송리 · 내곡리 등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원삼국시대에 부여지역은 마한의 영역에 속하였으며, 마한의 54국 중에서 고포국(古蒲國)에 비정하는 견해[24]가 있다. 확인된 원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취락과 제사 · 분묘 유적 등이 있다. 취락은 송국리 유적 목책시설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 3기가 확인되었으며, 가중리 유적[25]에서 평면 말각방형의 주거지 7기가 화제 폐기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죽교리 · 시음리 · 오량리 · 족교리 · 원문리 · 구룡면 · 양화면 · 장암면, 궁남지[26] 등에서 타날문토기 · 장란형토기 등이 출토되어 취락이 입지해 있을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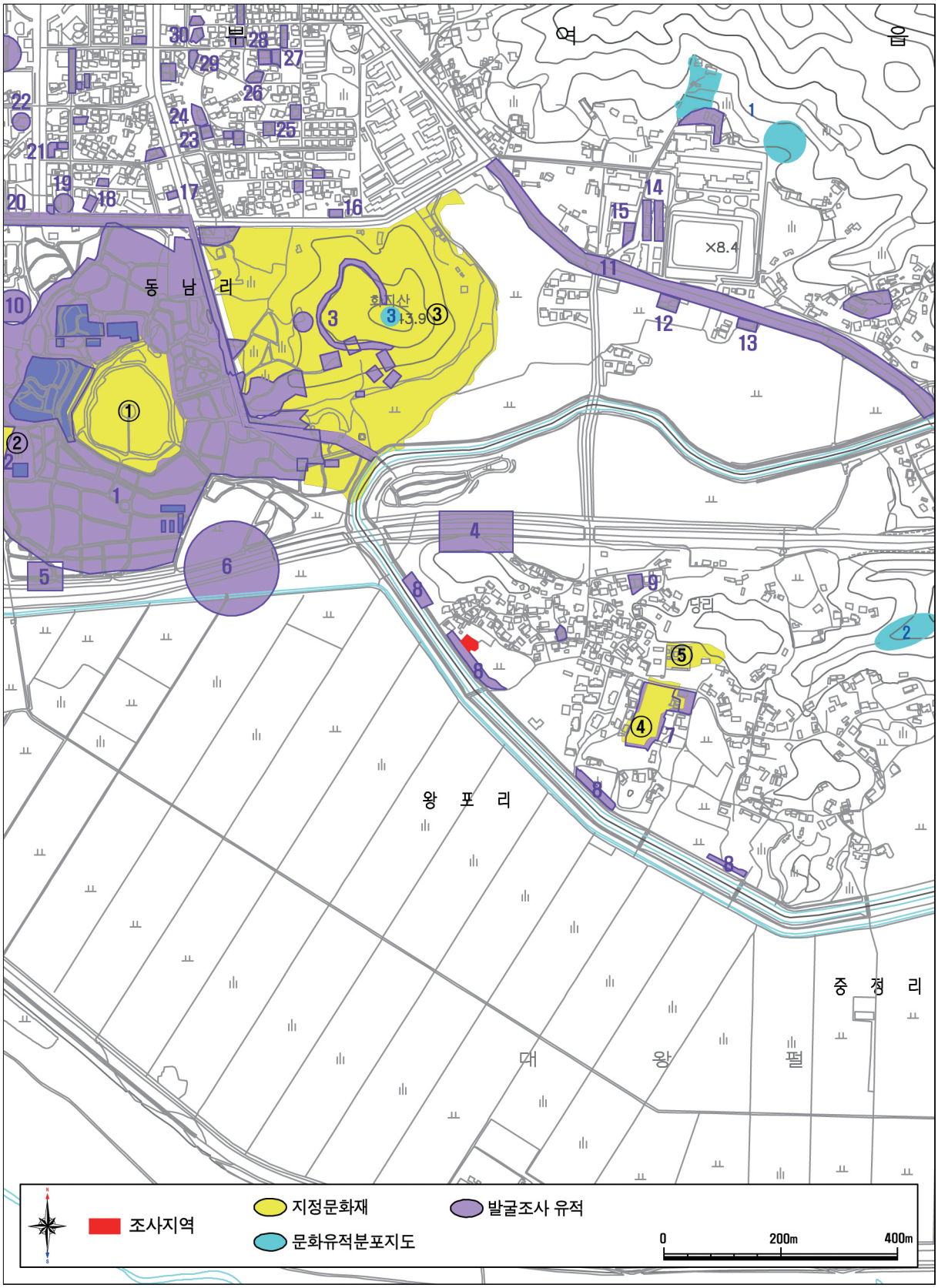
제사유적은 논치리에서 확인되었는데, 대형 저장옹,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등 토기류와 철정 · 철겸 · 철부 · 철제모형농공구 등이 출토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증산리 유적[27]이 있으며, 원삼국시대 마한의 주요 묘제로 알려진 주구묘가 14기 확인되었다. 또한 쌍북리 두시럭골 유적[28]에서는 토광목관묘와 원형 수혈유구들이 조사되었고, 가탑리 유적[29]에서는 토광묘와 옹관묘가 조사되었다.

---

13) 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保寧 眞竹里遺蹟』현장설명회자료.
14)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4, 『부여 나복리 유적』
1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충남발전연구원 · 충청남도백제문화권발전사업소, 2003, 『부여 합정리』
16)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부여 가중리 가좌 · 산직리 및 은산리 상월리 유적』
17) 金載元, 1964, 「扶餘 · 慶州 · 燕岐 出土 銅製遺物」『震檀學報』25, 震壇學會.
18) 충청문화재연구원, 2005, 『扶餘 井洞里 遺蹟』.
19)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1, 『부여 석우리 절골 · 나복리 건지말 유적』.
20) 金武龍, 1962, 「扶餘郡 草村面의 支石墓」『考古美術』3-9, 國立博物館.
21) 李殷昌, 1968, 「扶餘 恩山 佳谷里 兄弟支石墓 調査」『考古美術』9-2, 考古美術同人會.
22)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0, 『부여 구룡면 태양리 263-6 개인주택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보고서』
23) 백제문화발전연구원, 1989,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3권.
24) 千寬宇, 1979, 「馬韓諸國의 位置試論」『東洋學』9.
25) 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2006, 『扶餘 佳中里 가좌 · 산직리 및 恩山里 상월리 遺蹟』
2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7, 『宮南池 Ⅲ』
2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4, 『부여 증산리 유적』
28) 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雙北里 두시럭골 유적』
2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부여 가탑리 유적』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S=1/50,000)



도면 2.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 문화재 현황도(S=1/10,000)

【표 1】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 문화재 현황(도면 2와 연번 동일)

지정문화재					
①	부여 궁남지	②	부여 군수리 사지	③	부여 화지산 일원 유적
	사적 제135호		사적 제44호		사적 제425호
④	부여 중정리 백제건물지	⑤	부여 민칠식 가옥		
	시도기념물 제54호		중요민속문화재 제192호		

문화유적 분포지도					
1	부여 가탑리사지	2	부여 중정리 당산 석관묘	3	부여 화지산 망해정

발굴조사 유적			
1	궁남지	2	군수리사지
3	부여 화지산 유적	4	부여 가탑리 · 왕포리 · 군수리 유적(왕포리 유적)
5	부여 가탑리 · 왕포리 · 군수리 유적 (군수리 유적)	6	부여-논산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수전 등 시굴)
7	부여 중정리 백제건물지	8	부여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 부지 내 유적
9	부여 왕포리 26-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10	부여 동남리 서동공원 문화센터 조성부지 내 유적 · 부여 서동요상징물부지 내 유적
11	부여 우회국도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12	부여 부여읍 가탑리 358-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13	부여 가탑리 358-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14	부여 가탑리 393-19번지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15	부여 가탑리(413-9) 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16	부여 동남리(307-13)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17	부여 동남리(269-7) 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18	부여 동남리 183-1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19	부여 동남리(202-1)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	부여 하수처리 차집관로 매설구간 내 유적
21	부여 동남리 198-4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22	부여 동남리(202-1)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3	부여 동남리 272-4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24	부여 동남리(274-16)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25	부여 동남리 317-3번지내 유적	26	부여 동남리(321-3)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7	부여 동남리 326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8	부여 동남리 325번지 주택 부지 내 유적
29	부여 동남리 285-2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30	부여 동남리 288-2번지 단독주택 부지 내 유적

부여는 과거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로서, 123년간 백제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사비도성이 위치했던 부여읍 내를 중심으로 왕궁, 왕릉, 나성 등의 관방시설, 불교건축물 등 백제의 주요 물질문화가 결집되어 있다.

부여 일원은 백제 때 사비군(泗沘郡)이라 불리었다. 백제 때 부여의 부여읍 일대와 임천 일원은 가림군(加林郡)이었으며, 홍산 일원은 대산군(大山郡), 석성 일원은 진악산현(珍惡山縣)이었다.

『삼국사기』에 '백제의 성왕 16년 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했다. 그 지명은 소부리이다. 사비는 지금의 고성진이다. 소부리는 부여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부여는 여주(餘州)라고도 불리었는데, 군의 서쪽 자복사 고좌에 수놓은 장막에 '통화 15년(997년) 5월에 여주 공덕대사의 수장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비기 이전의 부여지역 문화양상은 분명치 않지만, 웅진기의 동성왕 때 수렵 · 축성등과 관련된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사비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성왕 16년(538)에 사비로 천도한 후, 부여지역은 성왕을 비롯하여 위덕왕 · 혜왕 · 법왕 · 무왕 · 의자왕 등 6명의 왕을 거치면서 백제의 중심지로서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였다(표 2)[30]. 부여지역은 백제의 수도였던 만큼 다양한 유적이 남아있고, 조사 예도 집중되어 있다. 먼저 지금의 부여읍 시가지는 당시에 도성지역으로, 수도의 중심지였다. 사비도성은 철저한 계획에 따른 도시건설을 통해 천도의 목적과 의미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왕궁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왕궁지의 위치는 일찍부터 부소산의 남사면 일대로 추정되어 왔다. 1982년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연지 · 도로 · 건물지 · 목곽고 등의 시설과 금동제이식 · 목간 · 벼루 · 기와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유구 및 유물의 양상으로 미루어 왕궁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扶蘇山城은 추정 왕궁지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사비의 거점 산성으로, 일제 강점기 부터 대표적인 백제유적으로 알려졌고, 1981년에서 2002년까지 총 22년간 조사가 이루어졌다[31]. 부소산성은 판축으로 조성한 포곡식산성이며 생토면을 기저부로 이용하여 130㎝ 가량의 목주를 두 줄로 세우고 그 내부에 정선된 점토와 마사토를 교대로 쌓아 성벽을 완성하였다. 내부에서 백제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 굴립주 건물지 · 와적기단 건물지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羅城[32]은 수도 사비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둘레 8.4㎞에 달하는 성이다. 부소산성을 기점으로 하여

---

3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4, 『왕흥사지』Ⅴ. - 보고서에 편집된 사료를 재인용하였다.

31) 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5, 『부소산성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②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 『부소산성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③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7, 『부소산성 Ⅱ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④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a, 『부소산성 Ⅲ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b, 『부소산성 긴급발굴조사 보고서』.
⑥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3, 『부소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v』.

32) ①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2000a, 『百濟泗沘羅城』.
②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2000b, 『百濟泗沘羅城 Ⅱ』.
③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2002, 『百濟泗沘羅城 Ⅲ』.
④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2003, 『泗沘都城』.
⑤ 忠淸文化財硏究院, 2009, 『扶餘 石木里 羅城遺蹟』.

그 동쪽으로 뻗어내려 청산성을 경유해 석목리에 이르는 북나성, 능산리 서쪽 산을 타고 필서봉을 경유해 백마강에 이르는 동나성, 부소산 서록에서 뻗어내려 백마강의 자연제방을 따라 구아리, 구교리, 동남리를 거쳐 군수리에 이르는 서나성과 궁남지 동쪽에서 중정리에 이르는 남나성으로 구분해 부르나 현재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북나성과 동나성이다. 이는 사비의 남쪽과 서쪽은 백마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북동방면은 외부와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성 외에 주요 외곽 방어 시설로 평가되는 靑馬山城[33]은 월명산 능선을 따라 돌로 쌓은 포곡식 산성이다. 백제 산성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성으로 石城山城 · 聖興山城 · 甑山城 등과 함께 부여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관방 유적으로 꼽힌다.

부여지역에서 백제의 고분군은 도성의 범주 외곽에 해당되는 전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이들 고분군은 대부분 사비천도 후 석실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요 고분으로는 능산리 고분군[34] · 능산리 동 고분군 · 上錦里 · 松谷里 증산골 · 원적골 · 염창리 · 두곡리 · 태양리 · 지산리 · 가중리 · 왕흥산성 고분군 등의 유적이 조사되어 백제 묘제의 다양성과 변화양상이 확인되었다. 이 중 동나성 밖에 위치해 있는 능산리 고분군이 대표적이다. 능산리 고분은 왕릉으로, 3기씩 앞뒤로 2열이 배치되고 뒤쪽으로 50m 거리를 두고 1기의 고분이 정비되어 있다. 왕릉은 횡혈식 석실분으로 조성하였고, 모두 지하식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동하총 · 중상총 · 서하총이 있으며, 이 중 동하총에서는 벽화가 발견되었다.

천정의 형태는 고분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출토된 유물은 이미 도굴되어 금제장식의 일부 편과 관재, 철정 등으로 소략한 편이다.

백제는 사비로 천도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교 사원을 조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에 들어서 불교가 크게 융성하여 도성 뿐 아니라 지방에도 사원이 세워졌다. 현재 부여지역에는 定林寺址[35] · 陵山里寺址[36] · 王興寺址[37]

---

33) ① 洪再善, 1981, 『百濟泗沘城硏究-遺物 · 遺蹟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② 백종오, 2006, 「백제 청마산성과 사비도성」『史學志』 제38집, 단국사학회.
34) ①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② 有光敎一, 1979, 「扶餘陵山里傳百濟王陵 · 益山雙陵」『橿原考古學硏究所論集』4.
③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부여군, 1998, 『陵山里-扶餘 公設運動場新築豫定敷地 百濟古墳 1 · 2次 緊急發掘調査報告書』.
35) ① 尹武炳, 1981, 『定林寺』, 忠南大學校博物館.
② 尹武炳, 1987, 『扶餘 定林寺址 蓮池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忠南大學校博物館.
③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11, 『扶餘 定林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36) ① 國立扶餘博物館, 1996, 『벡제금동대향로와 창왕명석조사리함』.
② 國立扶餘博物館 · 扶餘郡, 2000, 『陵寺』.
③ 國立扶餘博物館, 2007, 『陵寺』.
④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8, 『陵寺』.
37) ①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2, 『王興寺 發掘調査報告書 Ⅰ』.
②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7, 『王興寺址 Ⅱ』.
③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9, 『王興寺址 Ⅲ』.
④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12, 『王興寺址 Ⅳ』.
⑤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14, 『王興寺址 Ⅴ』.

· 軍守里寺址[38] · 東南里寺址 · 佳塔里寺址 · 龍井里寺址[39] 등 사비기 사찰로 추정되는 25곳이 존재하고 있다. 정림사지는 도성 내 중심사찰 역할을 하였으며, 군수리 사지에서는 일본에 있는 칠지도가 출토되어 양국 간 문화교류의 일면을 살필 수 있게 해주었다. 왕흥사지는 '王興' 銘 기와가 발견되어 삼국유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왕흥사임을 알게 되었으며, 최근 왕흥사지 발굴을 통해 사리장엄구가 확인되어 수준 높은 백제의 금동공예기술, 위덕왕대의 불교 사상과 정치, 남북조와의 교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되었다. 능산리사지는 동나성과 능산리 고분군 사이의 계곡에 자리하고 있고, 567년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한 절이다. 백제금동대향로가 출토되어 큰 주목을 받았고, 내부에서 길이 37m에 달하는 강당터와 이중기단으로 조성한 금당터, 목탑터와 공방시설 등이 조사되었다.

도성에서 소비되는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생산시설도 조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암리 와요지[40]가 있으며, 이외에 쌍북리 북와요지, 쌍북리 와요지, 동남리 와요지, 소룡골 와요지, 현북리 와요지, 신리 와요지 등이 보고되어 있다. 이 중 정암리 유적에서는 와요지 11기가 조사되었고, 지하식으로 조성한 가마가 천장을 제외하고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내부에서 연꽃무늬 수막새, 전돌, 토기, 각종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이중 연꽃무늬 와당은 군수리와 동남리에서 출토된 와당이 유사하여, 정암리 와요지 소성품이 부여의 주요 건물에 공급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밖에 도성 주변으로 능산리와 구룡면 구봉리, 군수리 등지에서는 경작유구가 조사되어 식량자원 생산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부여는 백제의 계획에 따라 건설된 도시였으며, 도시 자체에 그 운영체계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본 다양한 유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일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660년 백제의 멸망 이후 백제의 영토는 당의 직할영역이 되었고 5개의 도독부로 분할할 때 공주에는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여 총괄하다가 이를 다시 고쳐 1도독부와 7주로 구분하여 도독부는 부여에 두고 13현을 직할 통치하였다. 이후 부여지역이 신라의 영역이 되자 문무왕 12년(672)에 웅천주를 공주에 두고 총관을 파견하여 백제의 중심부를 통치하였는데 이때 부여는 웅천주에 부속되었다. 경덕왕 7년(748)에 웅천주를 웅진도독부로 고치고 부여가 그 속군이 될 때 석산현(석성)과 열성현(정산)도 속현이 되었다. 통일신라 말기 헌덕왕 14년(822)에 김헌창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웅진도독이었던 김헌창은 무진주, 청주, 사대주 등과 國原, 西京, 金官을 비롯한 소경의 사신 및 여러 성현의 수령들을 위협하여 長安國을 세웠다. 그리고 선덕왕대에 이르러서 지배귀족의 부패와 골품제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귀족세력이 발호하게 되었으며, 진성여왕 이후에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후삼국시대에 들어선다. 후삼국시대의 견훤은 웅주 · 전주 · 무주 등 옛 백제의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으나 북쪽의 궁예가 남하하면서 충북과 경북 일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다. 이후 904년 공주를 지키

---

38) ① 朝鮮古蹟研究會, 1937, 「扶餘 軍守里廢寺址 發掘調査」『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②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10, 『扶餘 軍守里寺址 Ⅰ-木塔址 · 金堂址 發掘調査 報告書』.

39)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 扶餘郡, 1993, 『龍井里 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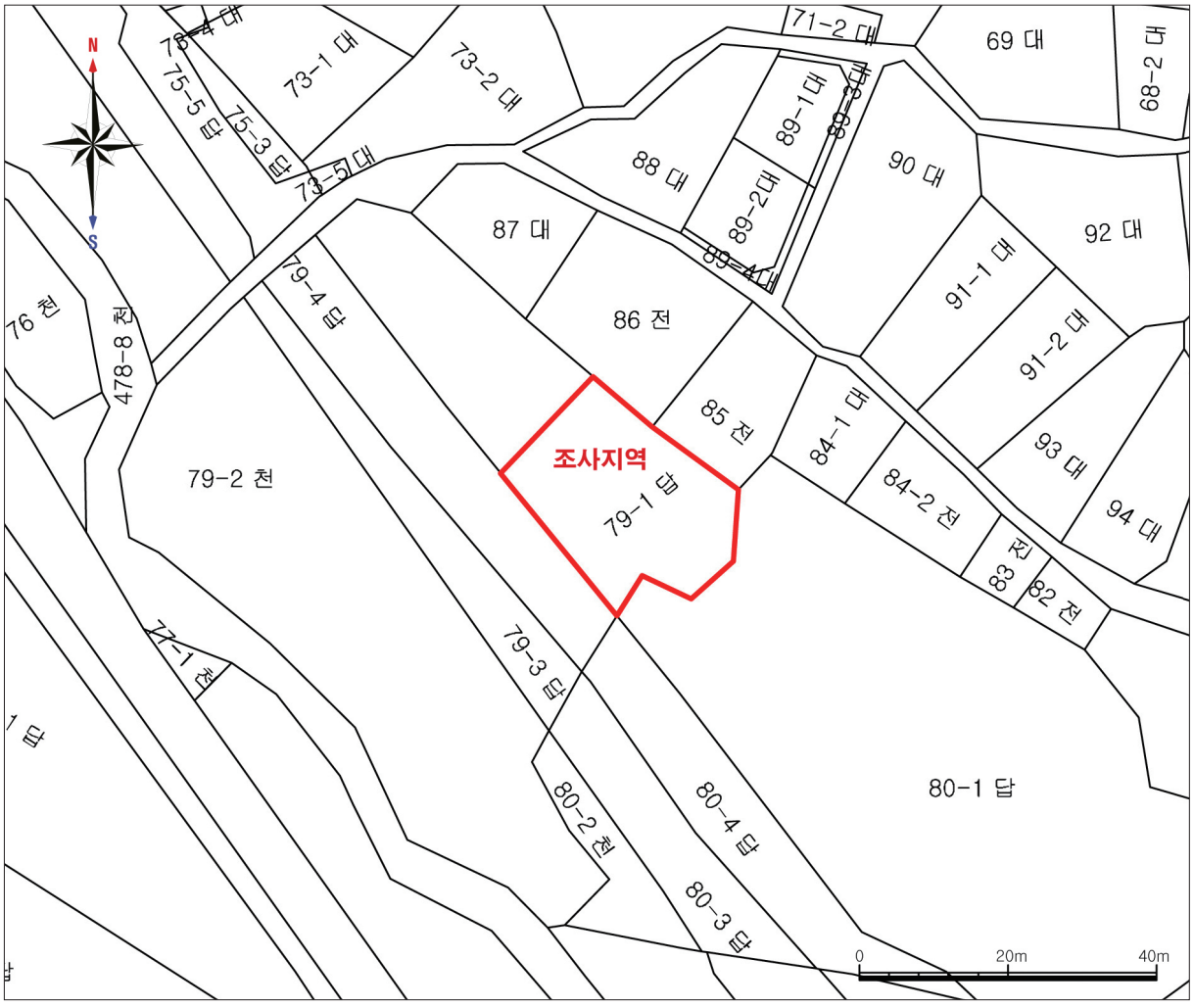
40) ① 國立扶餘博物館 · 扶餘郡, 1988, 『부여 정암리 가마터(Ⅰ)』.
② 國立扶餘博物館 · 扶餘郡, 1992a, 『부여 정암리 가마터(Ⅱ)』.
③ 國立扶餘博物館 · 扶餘郡, 1992b, 『부여 정암리 가마터(Ⅲ)』.

던 후백제의 장군 弘奇가 궁예에게 투항하면서 부여지역은 후고구려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후 왕건의 세력 확장에 의해 부여지역에서 궁예와 견훤의 세력은 소멸되었다.

신라 이래 부여지역은 부여, 임천, 홍산, 석성의 4개 군현 체제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 중 백제 이래의 전통을 가진 부여와 임천이 이 지역의 중심이 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현종 9년(1018)에 부여현은 공주의 속군이 되었다. 속군의 경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기에 독립적인 군현으로 운영되지는 않았기에 부여군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세기 후 명종 2년(1172)에 가장 낮은 직급의 지방관인 감무관이 파견되었다.

조선 총독부의 군현제 개편으로 태종 13년(1413)에 부여현으로 독립한 이후 조선시대 기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며 조선 고종 32년(1895)에 이르러 지방제도 개정으로 공주부 부여군이 되었다가 13도 설치를 계기로 충청남도 부여군이 설치됨에 따라 임천과 홍산, 석성현 중에서 우곤면(현 논산 성동)을 제외하고 모두 부여군의 영역이 되었다. 부여군은 1914년에 부군 통폐합에 따라 부여현 · 홍산현 · 임천군 전역과 석성현 일부가 통합되었고, 1960년 1월 1일에 부여면이 읍으로 승격된 이후 현재까지 1개 읍과 규암, 은산, 외산, 내산, 구룡, 홍산, 옥산, 충화, 양화, 임천, 장암, 세도, 석면 초촌, 남면 등의 15개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면 3. 조사지역 지적도(S=1/1,000)

Ⅲ. 조사내용

부여 왕포리 79-1번지 유적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79-1번지에 해당하며, 조사면적은 575㎡이다.

유적은 동쪽에는 필서봉(115m)에서 남쪽과 서쪽으로 이어진 낮은 구릉이 형성되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부여군을 관통하는 금강(백마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북쪽에는 금성산(124m)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금강이 흐르며 형성된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세부지형을 살펴보면 조사지역은 왕포천의 범람으로 인해 형성된 충적지와 부여군 동쪽에 형성되어 있는 필서봉에서 서쪽으로 분지한 구릉의 말단부에 형성된 완만한 계곡부를 포함한다.

1. 시굴조사[41)]

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부여 왕포리(79-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허가 제2018-1157호)]를 받아 2018년 9월 19일에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의 평면 형태는 동쪽 부분이 돌출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형에 가까운 대지 내 중앙부 동쪽에 치우쳐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시굴조사 트렌치는 조사대상지 평면 형태와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서쪽 경계에서 동쪽으로 약 1.5m 이격하여 북서-남동 방향으로 1개소를 설정하였다.

트렌치 내 퇴적양상은 현재 경작층-경지정리 이전 경작층-자연퇴적층-문화층 등 4개 층이 확인되었다. 1층은 경지정리 이후, 2층은 경지정리 이전에 논으로 경작되었던 층이고, 3층은 자연퇴적층이다. 4층은 삼국(백제)시대 유구가 확인된 문화층이다.

유구는 트렌치의 북서쪽에 치우쳐 (추정)주거지 1동과 적심토 건물지 적심 2개가 확인되었다.

(추정)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으로 보이며, 규모는 북서-남동 474㎝ · 북동-남서 잔존 118㎝이다. 적심토 건물지 적심은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 부지 내 유적[42)]의 백제 건물지 8호의 일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적심의 평면 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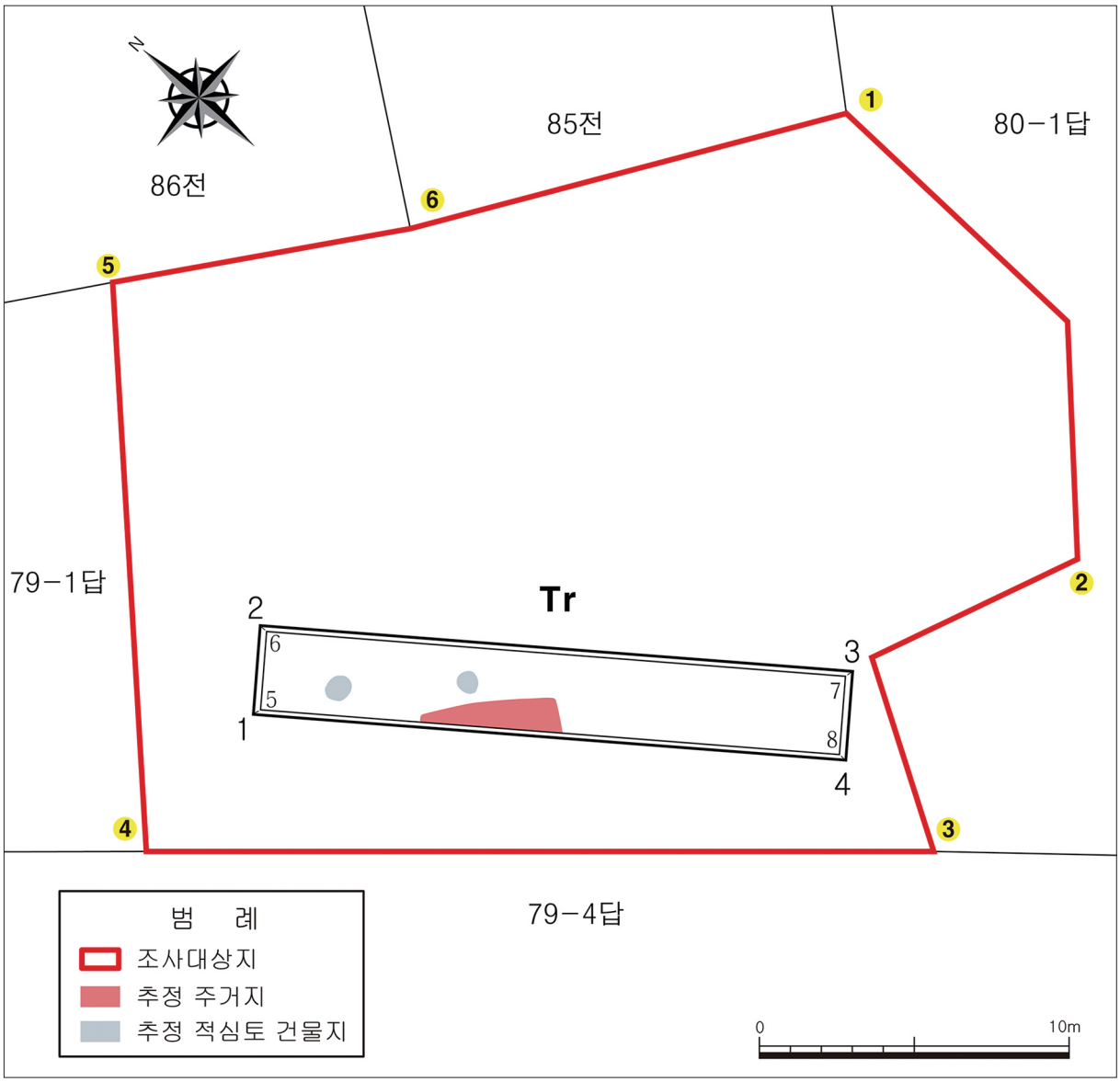
이번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남서쪽에 접해 있는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 부지 내 유적의 백제시대 Ⅱ문화층에서 확인된 유구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구들 역시 같은 시기로 보인다. 더불어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 부지 내 유적을 통해 볼 경우 이번에 확인된 문화층 하부에 이전 시기의 문화층이 1층 더 유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대상지에 건축될 단독주택은 서쪽의 제방이 완공되면 제방 높이만큼(약 300㎝) 복토한 후 35㎝ 정도만 터파기할 예정으로 터파기 기초의 하부와 문화층과는 300㎝ 정도 이격되므로 「발굴조사의 방

41) 시굴조사 내용은 다음의 약식보고서를 인용 ·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한국문화재재단, 2018, 『소규모 국비지원 시굴조사 약보고서(부여 왕포리 79-1번지)』.

42) 동방문화재연구원, 2018, 『부여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 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정밀발굴) 조사 약식보고서』.

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1의 발굴조사 유예의 조건에 해당되어 전문가검토회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검토회의 결과, '서쪽에 연접한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 부지 내 유적에서 조사된 적심토 건물지와 동일한 유구가 확인되므로 정밀발굴조사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도면 4. 조사지역 트렌치 배치도(S=1/1,000)-주41의 약식보고서 도면6 인용

2. 정밀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의 진행하였다. 조사는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역의 퇴적양상을 살펴본 후 개별 문화층의 유구확인면까지 전면 제토 후 유구 윤곽선을 확인하고, 각 유구의 내부조사를 진행하여 개별유구의 시기와 성격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백제시대 2개 문화층 중 하층(下層)에 해당하는 백제시대 Ⅰ문화층에서 건물지 2기 · 도로 2기 · 수혈 1기 등 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상층(上層)의 백제시대 Ⅱ문화층에서는 적심토 건물지 1기와 건물지 2기 · (추정)도로 1기 · 수혈 1기 등 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표 2】 조사지역 남동단벽 층위(북서에서)



현재 경작층	6.30 m
경지정리 이전 경작층	6.00 m
회흑색실트질사 (홍수범람)	5.70 m
조선시대 이후 경작층	5.40 m
백제시대Ⅱ문화층	5.30 m
회갈색사질점토(퇴적층)	5.20 m
백제시대Ⅰ문화층	5.10 m
황갈색모래, 회갈색점토	4.80 m
황갈색모래	4.50 m
암회색모래	4.20 m
청회색니질토 (습지퇴적)	4.00 m

조사지역은 현재 경지정리 한 후 논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체적인 지형과 문화층의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지역의 남동벽에 탐색 트렌치를 설치하여 퇴적양상을 추정하였다.

조사지역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가장 아래에 해당하는 해발 약 4.0m에 습지퇴적에 의해 형성된 청회색니질토가 기반토로 확인된다. 그 위로 암회색모래층과 황갈색모래층이 퇴적되어 있다. 이 층의 위로는 점성이 강한 회갈색점토와 일부 황갈색모래층이 퇴적되었다. 모래층의 상부에는 암갈색실트질점토가 퇴적되었으며, 이 층위에서 백제시대 Ⅰ문화층이 확인된다. 백제시대 Ⅰ문화층의 상부에는 회갈색사질점토가 10㎝ 두께로 퇴적되어 있으며, 그 위로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된 백제시대 Ⅱ문화층이 확인된다. 백제시대 Ⅱ문화층의 상부에는 조선시대 이후로 추정되는 경작층인 회갈색실트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그 위로는 범람층과 근 · 현대 경작층이 순차적으로 확인된다.

백제시대Ⅰ문화층의 상면은 해발 5.1m 내외에 분포하며, 백제시대Ⅱ문화층의 상면은 해발 5.3m 내외에서 확인되었다.



도면 5. 백제시대 Ⅰ문화층 유구배치도(S=1/300)

〈백제시대 Ⅰ문화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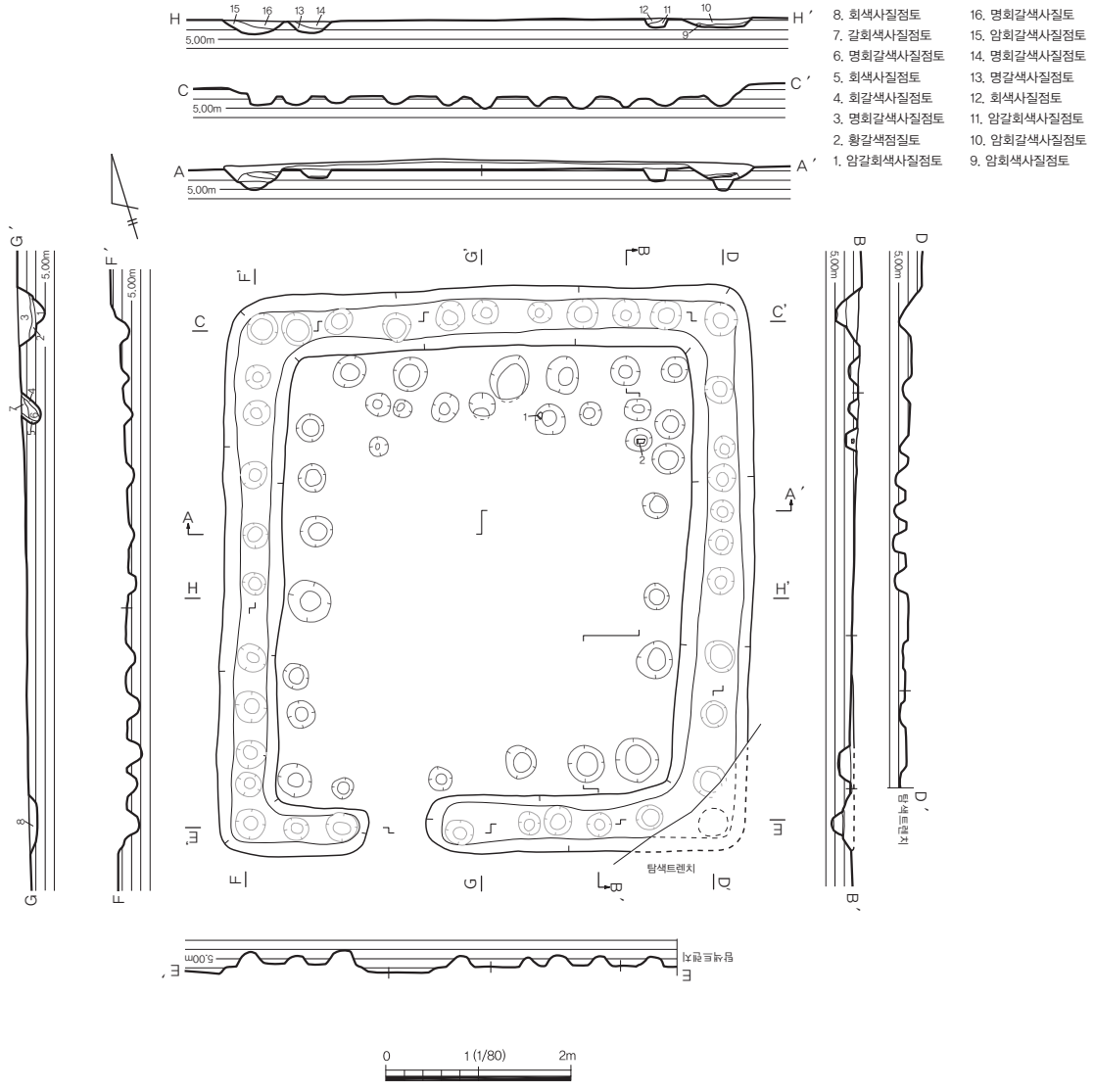
1) 건물지

(1) 1호 건물지

가. 유구(도면 6, 도판 3-②~5)

1호 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동쪽 경계에 인접한 해발 5.2m에 조성되었다.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9.8m 떨어져 2호 건물지가 위치한다. 건물지는 백제시대 Ⅰ문화층에 해당하는 암갈색실트질점토의 상면을 노출하자 방형의 구와 내부의 주공이 노출되었다.

건물지의 내부조사는 노출된 윤곽을 중심으로 '十'자 형태의 토층둑을 구획한 뒤,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내부구조 및 토층양상을 확인한 후 평면하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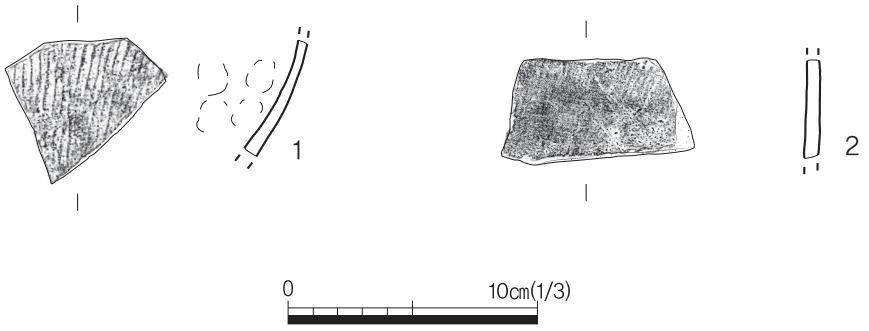
도면 6. 백제시대 문화층 1호 건물지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80)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620㎝, 너비 590㎝이며, 장단비는 1.05:1로 방형에 가깝고, 방향은 정남향이다. 건물지는 남쪽 중앙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곳이 열린 형태로 너비 60~80㎝의 구를 굴토하고 벽주를 시설하였다. 구 내부의 벽주공은 총 37기가 확인되었으며, 주공의 규모는 직경 20cm 내외, 깊이 20~40cm 내외이다. 건물지 구의 내측에는 구를 따라 일정한 간격의 주공렬이 1열 확인되었으며, 주공의 개수는 총 32기이다. 건물지의 평면형태 및 내부시설 등으로 보아 벽주건물지로 판단되며, 건물지 내부공간의 규모는 길이 480㎝, 너비 440㎝ 가량이다. 유물은 벽주공 내부에서 토기동체편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도면 7, 도판 5)

1. 토기 동체부. 경질의 토기 동체부편이다. 소편 상태이다. 색조는 내면은 명회색, 외면은 회청색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서 손누름자국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4.5㎝, 두께 0.5㎝



도면 7.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건물지 출토유물(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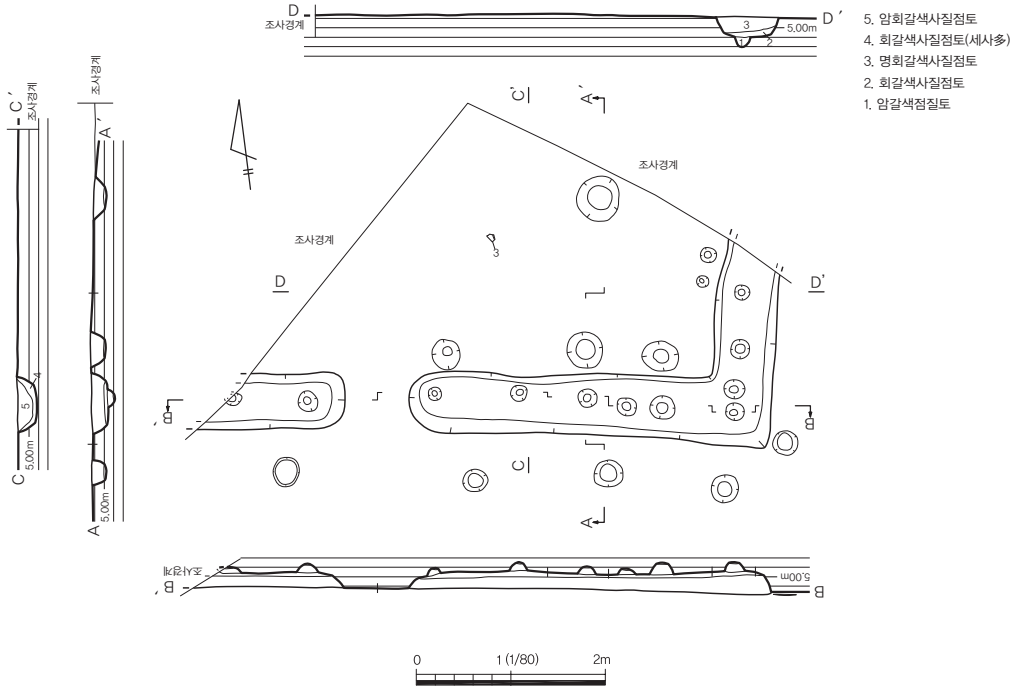
2. 토기 동체부. 연질의 토기 동체부편이다. 소편 상태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백황색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집선문이 타날되었다. 내외면의 표면박리가 심해 정면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태토는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3.8㎝, 두께 0.5㎝

(2) 2호 건물지

가. 유구(도면 8, 도판 6 · 7)

2호 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북서쪽 경계에 인접한 해발 5.1m에 조성되었다.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9.8m 떨어져 1호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약 3.2m 떨어져 백제시대 1호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주거지는 백제시대 Ⅰ문화층에 해당하는 암갈색실트질점토의 상면을 노출하자 조사지역 북서쪽 경계 외곽으로 연결되는 구와 주공이 확인되었다.



도면 8.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건물지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80)

건물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며, 정남향에 가깝다.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건물지의 규모는 잔존길이 411㎝, 잔존너비 63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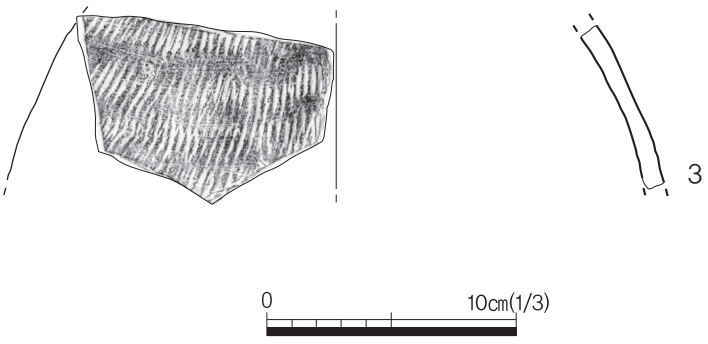
건물지는 남쪽 중앙 일부가 열린 형태의 구를 굴토하고 벽주를 시설하였다. 확인된 구의 규모는 너비 약 60~70㎝, 깊이 30㎝ 내외이다. 구 내부의 벽주공은 총 11개가 확인되었으며, 주공의 규모는 직경 20cm 내외, 깊이 20~30cm 내외이다, 건물지 내측과 외측에는 구를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간격의 주공렬이 확인된다. 건물지의 평면형태 및 내부시설로 보아 1호 건물지와 유사한 벽주건물지로 판단되는데 1호 건물지와는 달리 구의 외부에도 주공렬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건물지 내부공간의 바닥면에서 호 동체부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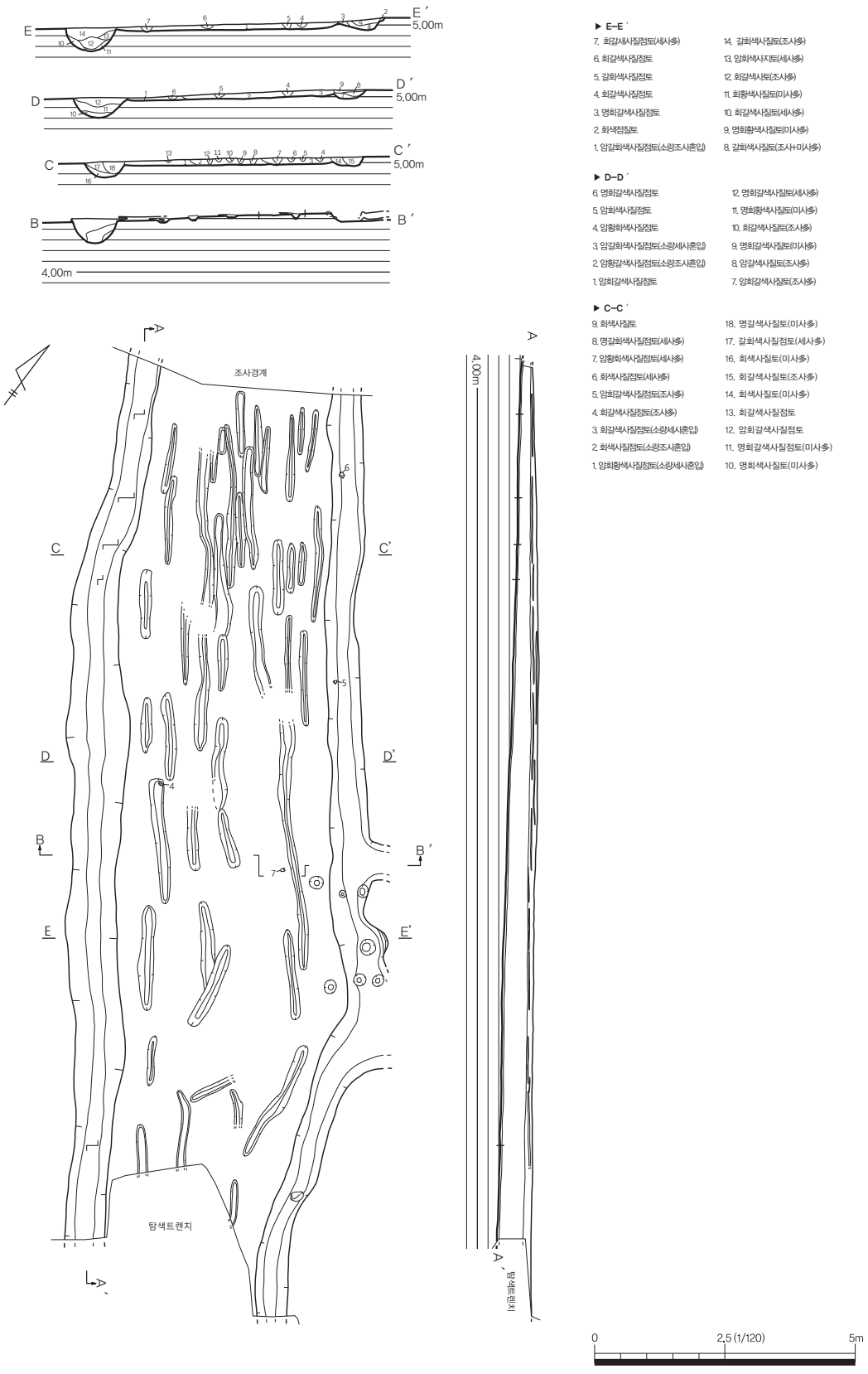
나. 유물(도면 9, 도판 7)

3. 호 동체부. 경질의 호 동체부편이다. 소편 상태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이며, 속심은 자색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집선문이 타날되었다. 태토는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6.2㎝, 두께 0.7㎝



도면 9.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건물지 출토유물(3)



▶ E–E′

7. 회갈/세사질점토(세사多)
6. 회갈색사질점토
5. 갈회색사질점토
4. 회갈색사질점토
3. 명회갈색사질점토
2. 회색점질토
1. 암갈회색사질점토(소량조사혼입)
14. 갈회색사질토(조사多)
13. 암회색사지토(세사多)
12. 회갈색사토(조사多)
11. 회황색사질토(미사多)
10. 회갈색사질토(세사多)
9. 명회황색사질토(미사多)
8. 갈회색사질토(조사+미사多)

▶ D–D′

6. 명회갈색사질점토
5. 암회색사질점토
4. 암황회색사질점토
3. 암갈회색사질점토(소량세사혼입)
2. 암황갈색사질점토(소량조사혼입)
1. 암회갈색사질점토
12. 명회갈색사질토(세사多)
11. 명회황색사질토(미사多)
10. 회갈색사질토(조사多)
9. 명회갈색사질토(미사多)
8. 암갈색사질토(조사多)
7. 암회갈색사질토(조사多)

▶ C–C′

9. 회색사질토
8. 명갈회색사질점토(세사多)
7. 암황회색사질점토(세사多)
6. 회색사질점토(세사多)
5. 암회갈색사질점토(조사多)
4. 회갈색사질점토(조사多)
3. 회갈색사질점토(소량세사혼입)
2. 회색사질점토(소량조사혼입)
1. 암회황색사질점토(소량세사혼입)
18. 명갈색사질토(미사多)
17. 갈회색사질점토(세사多)
16. 회색사질토(미사多)
15. 회갈색사질토(조사多)
14. 회색사질토(미사多)
13. 회갈색사질점토
12. 암회갈색사질점토
11. 명회갈색사질점토(미사多)
10. 명회색사질토(미사多)

도면 10.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도로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120)

2)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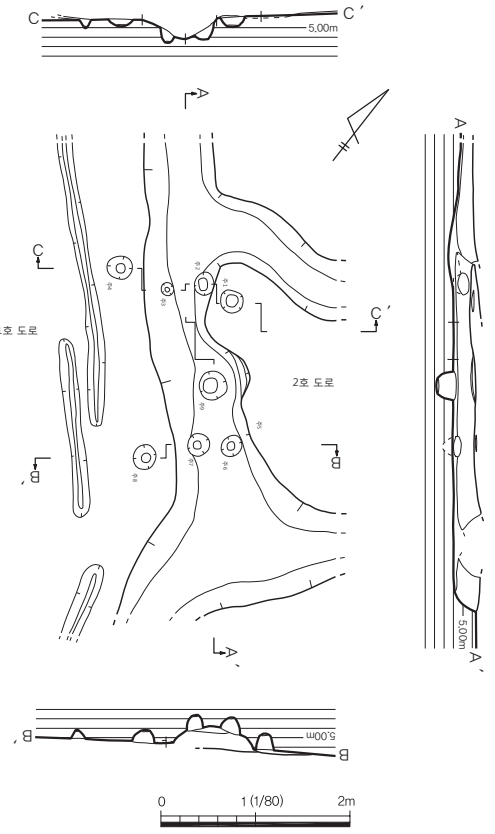
(1) 1호 도로

가. 유구(도면 10 · 11, 도판 8 · 9)

1호 도로는 조사지역의 남서쪽 경계에 인접하여 해발 5.0m에 북서-남동방향으로 조성되었으며, 조사지역 북서쪽과 남동쪽 경계 외곽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1호 도로는 조사지역 북쪽에 북동-남서방향으로 조성된 2호 도로와 연결된다.

도로는 백제시대 Ⅰ문화층에 해당하는 암갈색실트질점토의 상면을 노출하자 암갈회색사질점토가 퇴적된 도로면과 도로면의 상면에서 수레바퀴흔으로 추정되는 세장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도로면의 양측으로 도로의 측구로 판단되는 구가 노출되었다.

도로의 내부조사는 노출된 윤곽을 중심으로 '—' 자 형태의 토층둑을 구획한 뒤,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내부구조 및 퇴적양상을 확인한 후 평면하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1 · 2호 도로유구의 교차지점에도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유구 간 중복관계 및 관련시설의 존재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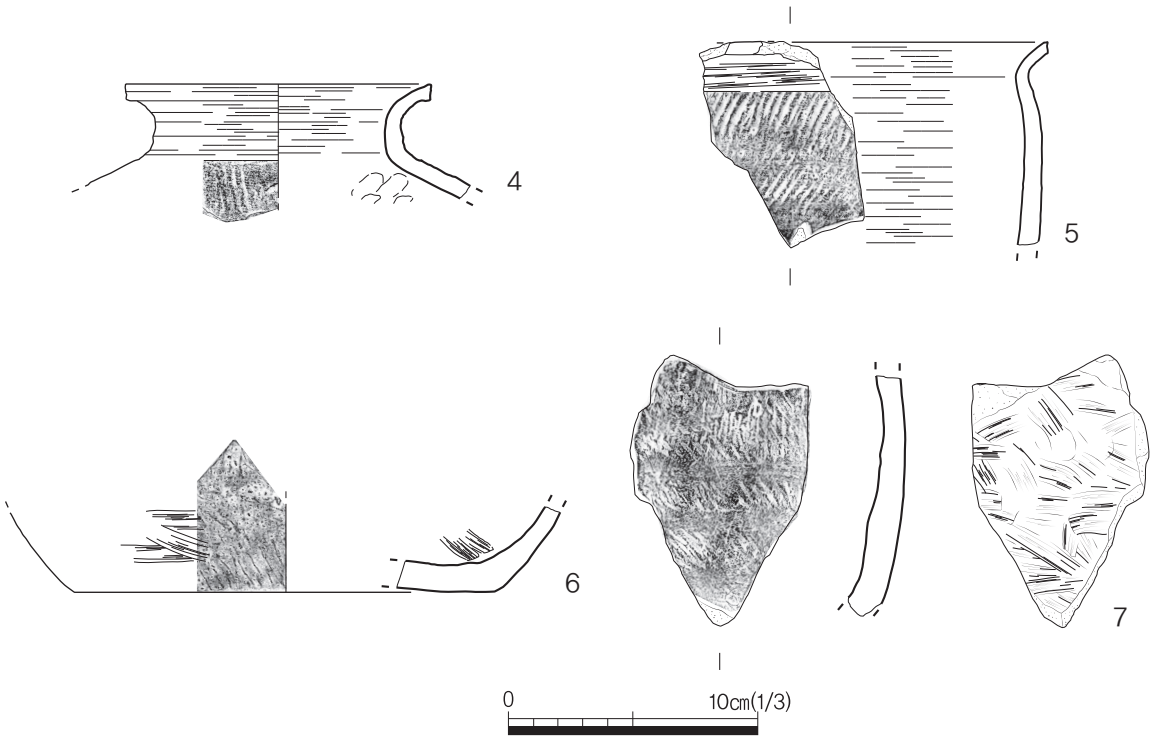


도면 11. 백제시대 Ⅰ문화층 1 · 2호 도로 연결부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80)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1호 도로의 길이는 약 1,746㎝이며, 측구를 포함한 전체 너비는 약 435~565㎝이다. 도로면의 너비는 약 285㎝~420㎝이다. 도로면에서는 너비 12~18㎝ 정도의 세장한 바퀴흔적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바퀴흔적은 대체로 도로의 장축방향과 일치한다.

측구는 도로의 양쪽에 북동쪽과 남서쪽에서 도로와 동일한 진행방향으로 확인되었다. 북동쪽 측구는 내부에 황갈색사질점토와 회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고 깊이가 얕은 반면, 남서쪽 측구는 대부분 모래가 퇴적되었고 깊이가 깊어 차이를 보인다. 측구의 규모는 너비 73㎝~140㎝ 내외이며, 깊이는 북동측구 24㎝~42㎝, 남서측구 30~60㎝이다. 유물은 측구 및 도로면에서 토기구연 및 동체편이 출토되었다.

1 · 2호 도로는 조사지역 중앙에서 1호 도로의 북동측구와 2호 도로의 동 · 서측구가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며, 연결부에서는 지름 12~34㎝, 깊이 4~16㎝ 정도의 주공이 2열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각시설 등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도면 12.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도로 출토유물(4~7)

나. 유물(도면 12, 도판 9)

4. 호 구연부. 경질의 호 구연부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회색이다. 짧게 직립된 경부에서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순부는 중앙이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서 손누름자국이 확인된다.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복원입지름 12.0㎝, 현재높이 4.4㎝, 두께 0.7㎝

5. 동이 구연부. 경질의 동이 구연부이다. 소편 상태이다. 색조는 내면은 회색, 외면은 흑회색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중앙부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외면에서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8.0㎝, 두께 0.7㎝

6. 토기 저부. 경질의 토기 저부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회색이다. 저부는 평저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집선문을 타날한 후 목판구를 이용해 지운 상태이다. 내면에서 여러 방향의 목판구조정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복원바닥지름 16.6㎝, 현재높이 3.3㎝, 두께 0.6㎝

7. 토기 동체부. 경질의 토기 동체부이다. 소편 상태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회색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집선문을 타날하였다. 내면에서 여러방향의 목판구조정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9.5㎝, 두께 0.8㎝

(2) 2호 도로

가. 유구(도면 13, 도판 10)

2호 도로는 조사지역의 북동쪽 경계에 인접하여 해발 5.0m~5.2m 상에서 북동-남서방향으로 조성되었으며, 조사지역 북동쪽 경계 외곽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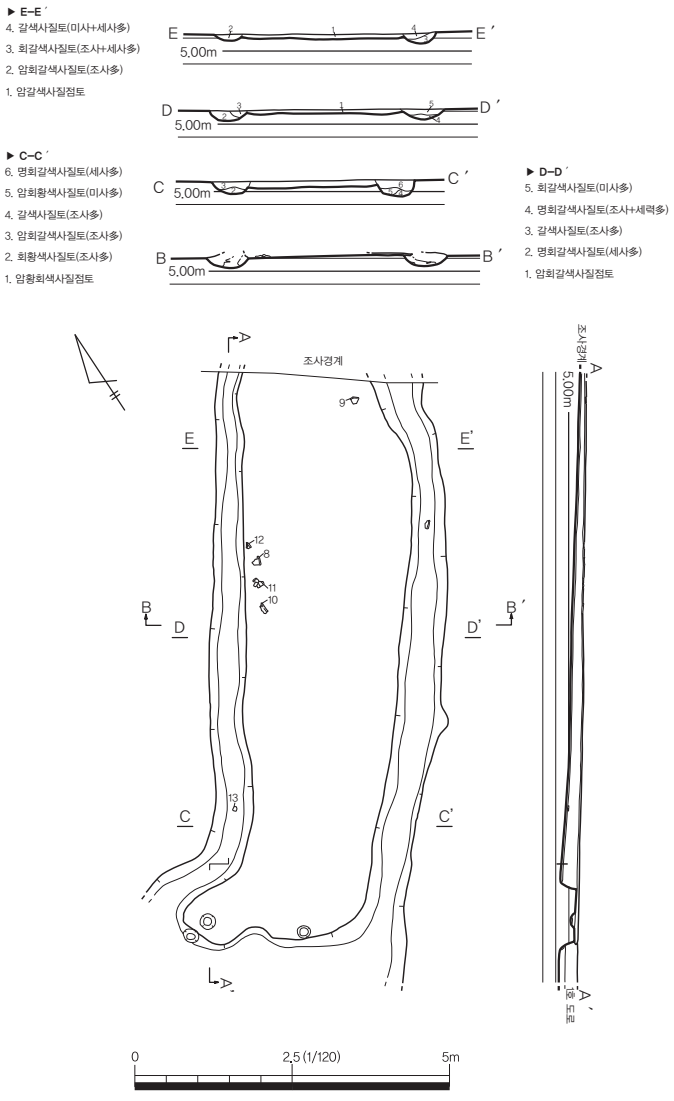
도로는 백제시대 Ⅰ문화층에 해당하는 암갈색실트질점토의 상면을 노출하자 암갈회색사질점토가 퇴적된 도로면과 도로면의 양측으로 도로의 측구로 판단되는 구가 노출되었다.

도로의 내부조사는 노출된 윤곽을 중심으로 '—' 자 형태의 토층둑을 구획한 뒤,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내부구조 및 퇴적양상을 확인한 후 평면하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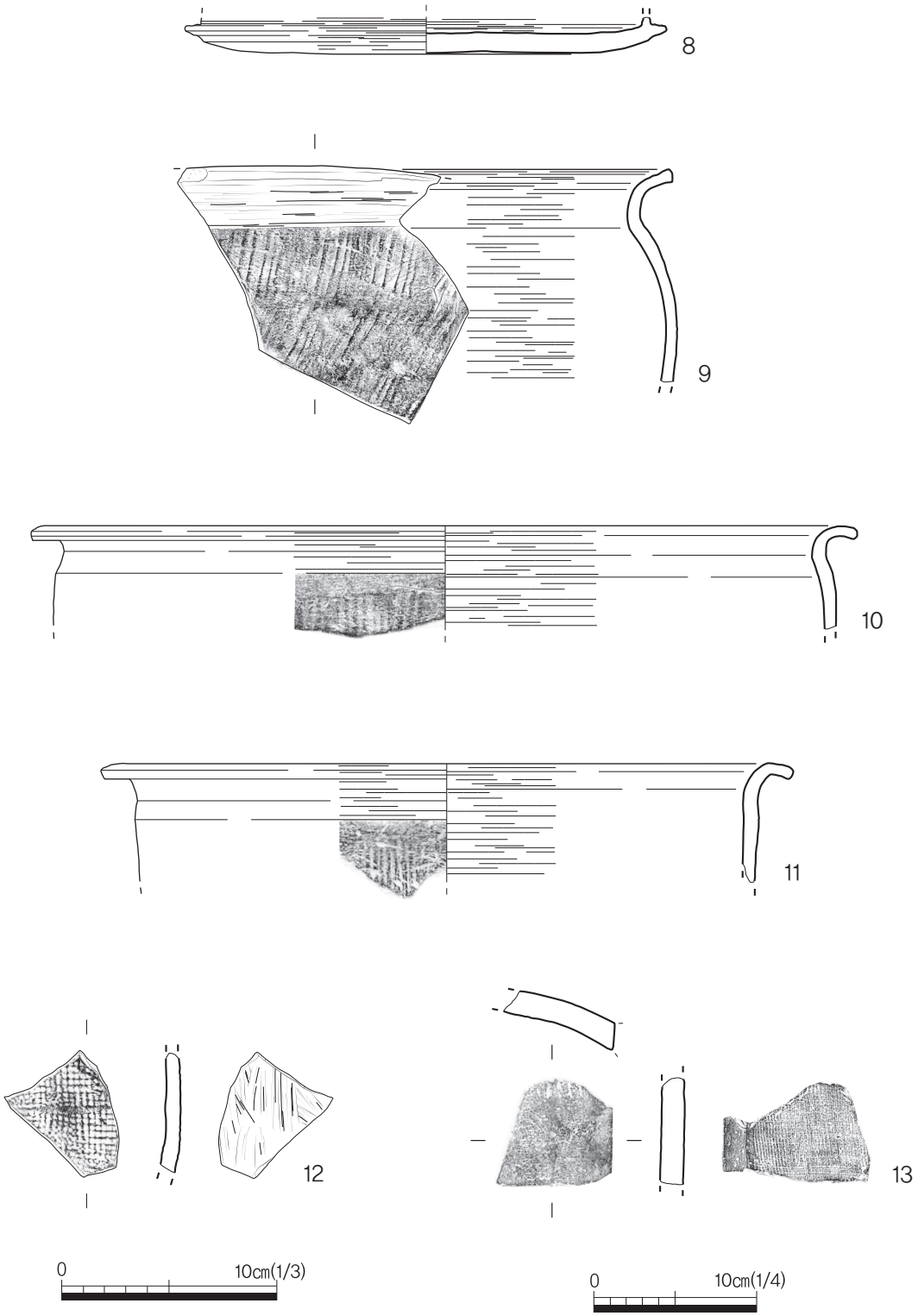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2호 도로의 길이는 약 895㎝이며, 측구를 포함한 전체 너비는 330~380㎝ 내외이다. 도로면의 너비는 약 190㎝~245㎝이다.

측구는 도로의 양쪽인 북서쪽과 남동쪽에서 확인되었다. 측구의 규모는 너비 50㎝~60㎝이며, 깊이는 10~25㎝로 남서쪽의 1호 도로를 향하면서 점차 낮아진다.

유물은 도로면과 측구에서 배, 토기 구연부, 암키와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13.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80)



도면 14.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 출토유물(8~13)

나. 유물(도면 14, 도판 11)

8. 배. 경질의 배이다. 배신부 일부만 잔존한다. 색조는 명회색이다. 배신은 납작한 형태이며, 드림턱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드림부는 대부분 결실되어 명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1.7㎝, 두께 0.3㎝

9. 호 구연부. 연질의 호 구연부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회색이다. 동체부는 구형이며, 경부는 짧게 직립한다. 구연부는 외만하는 형태이며, 구순부는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집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서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9.8㎝, 두께 0.5㎝

10. 동이 구연부. 연질의 동이 구연부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이다. 구연부는 수평으로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순부는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운모가 혼입된 점질토이다.

-복원입지름 38.0㎝, 현재높이 4.6㎝, 두께 0.5㎝

11. 동이 구연부. 연질의 동이 구연부이다. 색조는 내외면은 회색, 속심은 흑색이다. 구연부는 수평으로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순부는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복원입지름 32.0㎝, 현재높이 5.4㎝, 두께 0.6㎝

12. 토기 동체부. 경질의 토기 동체부이다. 색조는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색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서 여러방향의 목판구조정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5.4㎝, 두께 0.6㎝

13. 암키와. 연질의 암키와이다. 색조는 명회색이다. 등면에는 집선문을 타날한 후 지운 상태이며, 내면에서 포목흔이 확인된다. 와도는 全面에 그어 분할하였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운모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길이 6.2㎝, 현재너비 7㎝, 두께 1.4㎝

3) 수혈

(1) 1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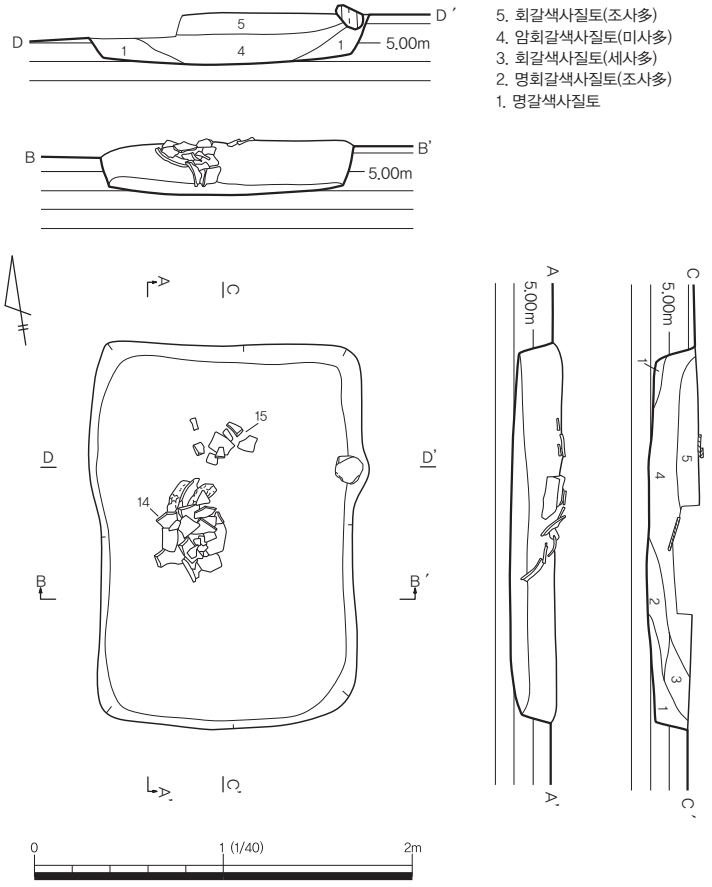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5, 도판 11 · 12)

1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남동쪽 경계에 인접한 해발 5.1m에 조성되었다.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1.2m 떨어져 백제시대 1호 건물지가 위치한다. 수혈은 백제시대 Ⅰ문화층에 해당하는 암갈색실트질점토의 상면을 노출하자 회갈색사질토로 구분되어 장방형의 윤곽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내부조사는 노출된 윤곽을 중심으로 '十'자 형태의 토층둑을 구획한 뒤,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내부구조 및 토층양상을 확인한 후 평면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수혈 내부의 토층양상은 바닥면부터 명갈색사질토-명회갈색사질토-회갈색사질토-암회갈색사질토-회갈색사질토가 중앙으로 함몰되어 퇴적된 양상이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규모는 길이 134㎝, 너비 204㎝, 깊이 40㎝이다.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의 내부 퇴적토에서 호와 철제 솥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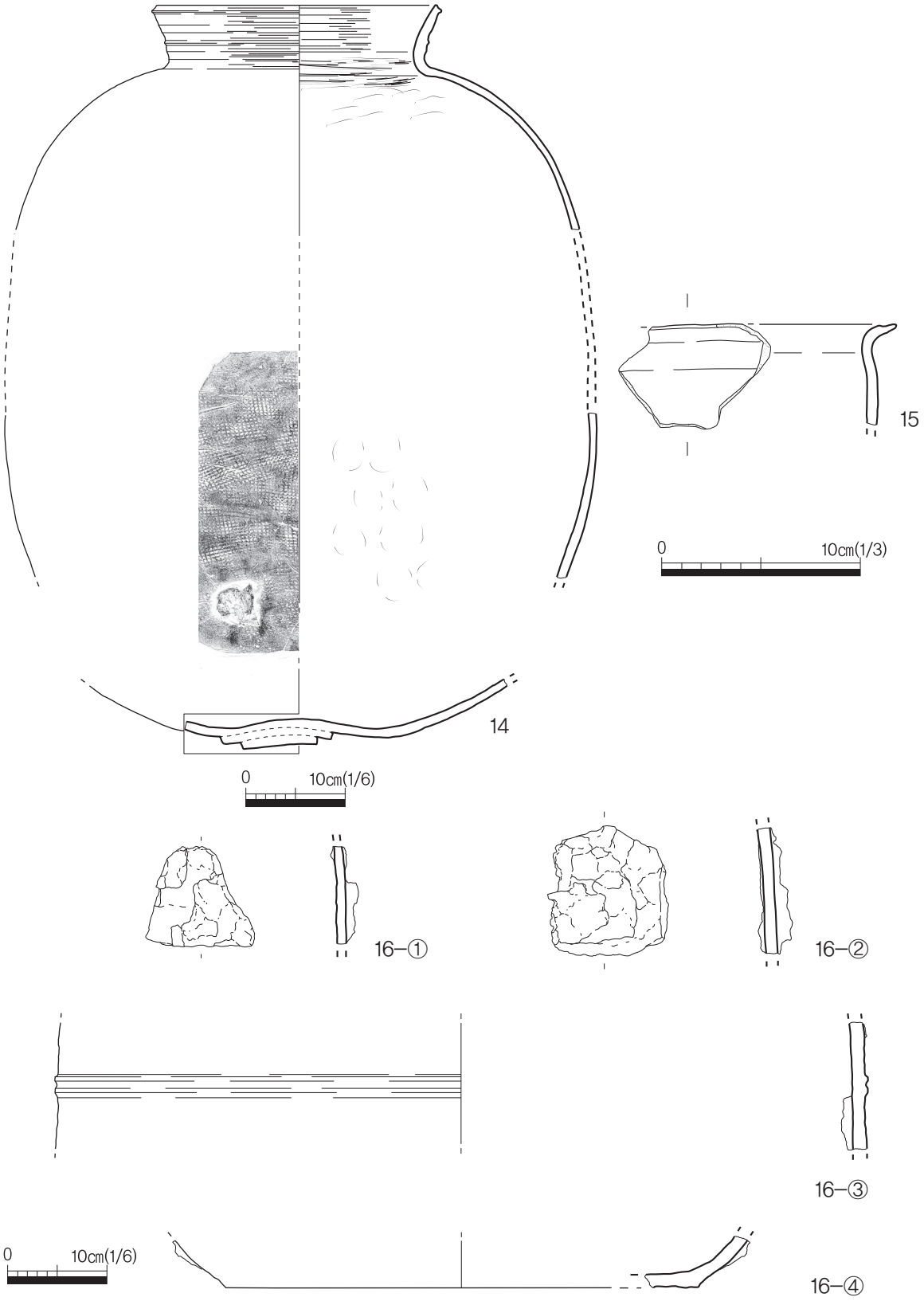


도면 15.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수혈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40)

나. 유물(도면 16, 도판 12)

14. 호. 경질의 토기 호로 구연부와 동체부, 저부가 접합되지 않아 도상복원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이다. 기형은 구형의 동체부가 동상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경부에서 구연부까지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순부는 중앙부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서는 1조의 돌대가 확인된다. 구연부와 경부의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서 손누름자국이 확인된다. 저부 바닥면에는 1개 내지 2개의 이상재가 부착되어 있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입지름 24.6㎝, 추정높이 71.8㎝, 두께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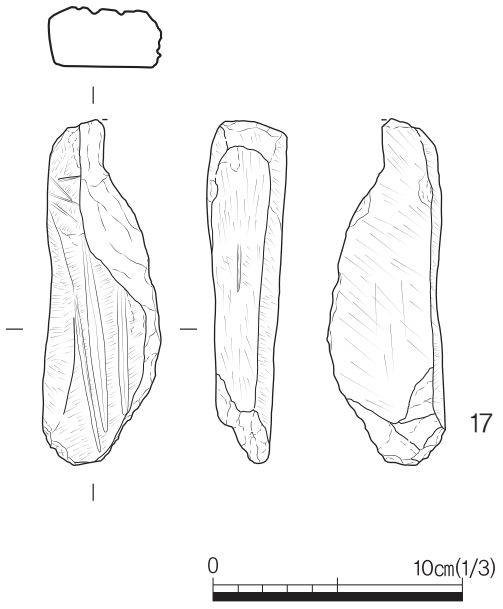
도면 16.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수혈 출토유물(14~16)

15. 동이 구연부. 연질의 동이 구연부이다. 색조는 내외면은 백회색, 속심은 회흑색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순부는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의 표면박리가 심해 정면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5.0㎝, 두께 0.5㎝

16. 철제 솥. 철제 솥으로 추정되며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저부는 평저이다. 저부에서 넓게 벌어져 동체로 연결되며, 동체는 수직에 가깝게 올라간다. 내외면에는 다량의 녹혹이 부착되어 있다.

-복원바닥지름 18.9㎝, 두께 0.9㎝



도면 17.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지표수습 출토유물(17)

4) 지표수습유물(도면 17, 도판 12)

17. 지석. 일부가 삭 결실된 지석이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횡단면은 말각방형에 가깝다. 前面에서 단면 V자형의 폭이 좁고 긴 홈이 다수 확인된다. 全面에서 여러방향의 마연흔적이 확인된다.

-길이 13.5㎝, 너비 4.4㎝, 두께 2.3㎝

〈백제시대 Ⅱ문화층〉

1) 건물지

(1) 1호 건물지

가. 유구(도면 19, 도판 13-② · 14)

1호 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남서쪽 경계에 인접한 해발 5.5m에서 확인되었다.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2.8m 떨어져 백제시대 1호 도로가 위치하며, 북쪽으로 약 4.1m 떨어진 곳에 2호 건물지가 조성되어 있다. 건물지는 총 24기의 원형 지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부여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 부지 내 유적'의 범위에서 지정 14기가 확인되었으며, 이번 조사지역에서는 지정 10기가 조사되었다.

건물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정은 원형의 수혈을 굴광한 후 바닥면에 모래를 깔고 상부에 점질토를 채워 정지하였다.



도면 18. 백제시대 II 문화층 유구배치도(S=1/300)

건물지의 장축방향은 정남향에 가깝고, 두 유적에서 확인된 건물지의 전체규모는 길이 750㎝, 너비 1,250㎝ 가량이며, 정면 5칸, 측면 3칸의 구조로 판단된다. 원형 지정간의 거리는 250㎝ 내외이며, 건물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건물지를 구성하고 있는 원형 지정은 총 24기가 확인되었으며, 지정의 규모는 직경 72㎝~108㎝, 깊이 18㎝~38㎝ 가량으로 확인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2호 건물지

가. 유구(도면 20, 도판 15)

2호 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동쪽 경계에 인접한 해발 5.5m에서 확인되었다.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2.8m 떨어져 백제시대 1호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건물지는 백제시대 Ⅱ문화층에 해당하는 암회갈색사질점토의 상면을 노출하자 회갈색사질점토로 구분되어 장방형의 윤곽선이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내부조사는 노출된 윤곽을 중심으로 '十'자 형태의 토층둑을 구획한 뒤,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내부구조 및 토층양상을 확인한 후 평면하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건물지 내부의 토층양상은 벽체에 인접하여 암갈색사질점토와 암회색사질점토가 함몰된 양상이며, 상부에 암갈색사질점토와 회갈색사질점토가 수평퇴적된 양상이다.

건물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정남향이다.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257㎝, 너비 556㎝, 깊이 25~36㎝이다. 내부에는 주거지의 벽면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총 40개의 주공이 장방형으로 열을 지어 있는 형태이다. 주공의 규모는 지름 18~32㎝, 깊이 10~22㎝ 정도이다. 건물지 내부의 주공 배치 양상으로 보아 건물지의 구조는 지상식 건물지로 판단된다.

유물은 주거지 바닥면에서 토기뚜껑과 토기 동체편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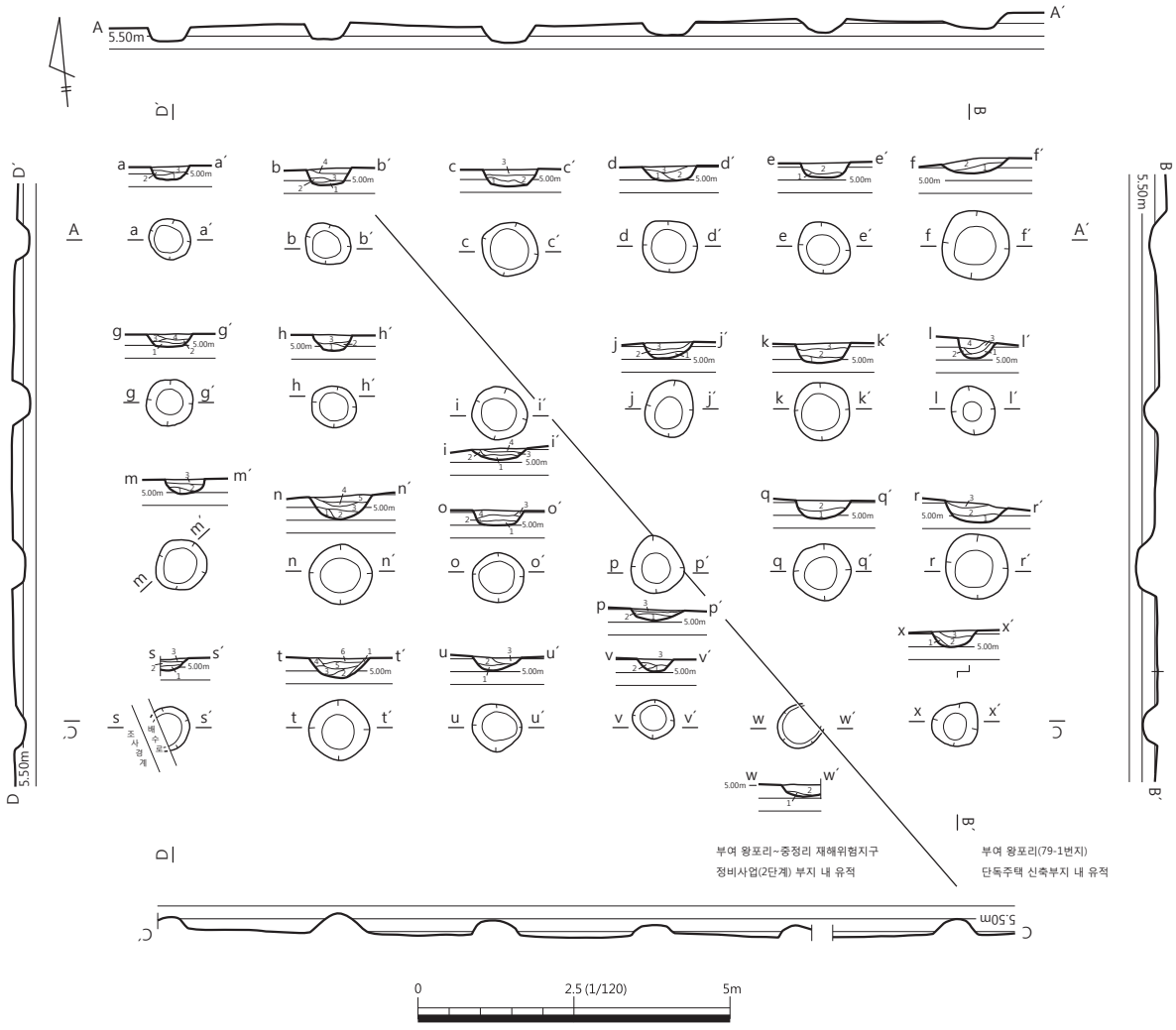
나. 유물(도면 21, 도판 16)

18. 개. 경질의 뚜껑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회색이다. 개신부는 완만하게 내려와 짧은 드림턱을 이룬다. 드림부는 직립하는 형태이며, 드림부의 끝부분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운모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복원입지름 11.2㎝, 현재높이 3.8㎝, 두께 0.3㎝

19. 개. 경질의 뚜껑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이다. 소성 시 불완전연소로 기형이 약간 뒤틀어진 형태이다. 개신부는 완만하게 내려오다 드림턱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짧은 드림턱을 이룬다. 드림부는 결실되었다.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에서 녹유의 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2.3㎝, 두께 0.4㎝



▶ a-a´
3. 회갈색점질토
2. 명황갈색사질점토
1. 암황색사질토

▶ b-b´
4. 암회갈색점질토
3. 명황갈색사질점토
2. 암갈황색사질토
1. 황갈색사질토

▶ c-c´
3. 암회색점질토
2. 황갈색사질점토
1. 암황갈색사질토

▶ d-d´
3. 암회색사질점토
2. 암갈색사질점토
1. 회갈색사질점토

▶ e-e´
2. 암회색사질점토
1. 회갈색사질점토

▶ f-f´
2. 암회색사질점토
1. 회갈색사질점토

▶ g-g´
4. 명회갈색점질토
3. 회갈색사질점토
2. 암회갈색사질점토
1. 갈황색사질토

▶ h-h´
3. 암황갈색점질토
2. 황갈색사질점토
1. 회황색사질토

▶ i-i´
4. 암갈색사질점토
3. 황갈색사질점토
2. 회갈색사질점토
1. 흑갈색사질점토

▶ j-j´
3. 암회색사질점토
2. 회갈색사질점토
1. 암갈색사질점토

▶ k-k´
3. 암회색사질점토
2. 회갈색사질점토
1. 암갈색사질점토

▶ l-l´
4. 암회색사질점토
3. 암갈색사질점토
2. 암적색사질점토
1. 흑갈색사질점토

▶ m-m´
3. 암회황색점질토
2. 황색사질점토
1. 명황갈색사질토

▶ n-n´
5. 암갈색사질점토
4. 황갈색사질점토
3. 흑갈색사질점토
2. 회갈색사질점토
1. 흑갈색사질점토

▶ o-o´
4. 암갈색사질점토
3. 황갈색사질점토
2. 회갈색사질점토
1. 흑갈색사질점토

▶ p-p´
3. 암갈색사질점토
2. 황갈색사질점토
1. 흑갈색사질점토

▶ q-q´
2. 암회색사질점토
1. 암갈색사질점토

▶ r-r´
3. 암회색사질점토
2. 암갈색사질점토
1. 회갈색사질점토

▶ s-s´
3. 황갈색사질점토
2. 회갈색사질점토
1. 흑갈색사질점토

▶ t-t´
6. 암갈색사질점토
5. 황갈색사질점토
4. 회갈색사질점토
3. 황갈색사질점토
2. 회갈색사질점토
1. 흑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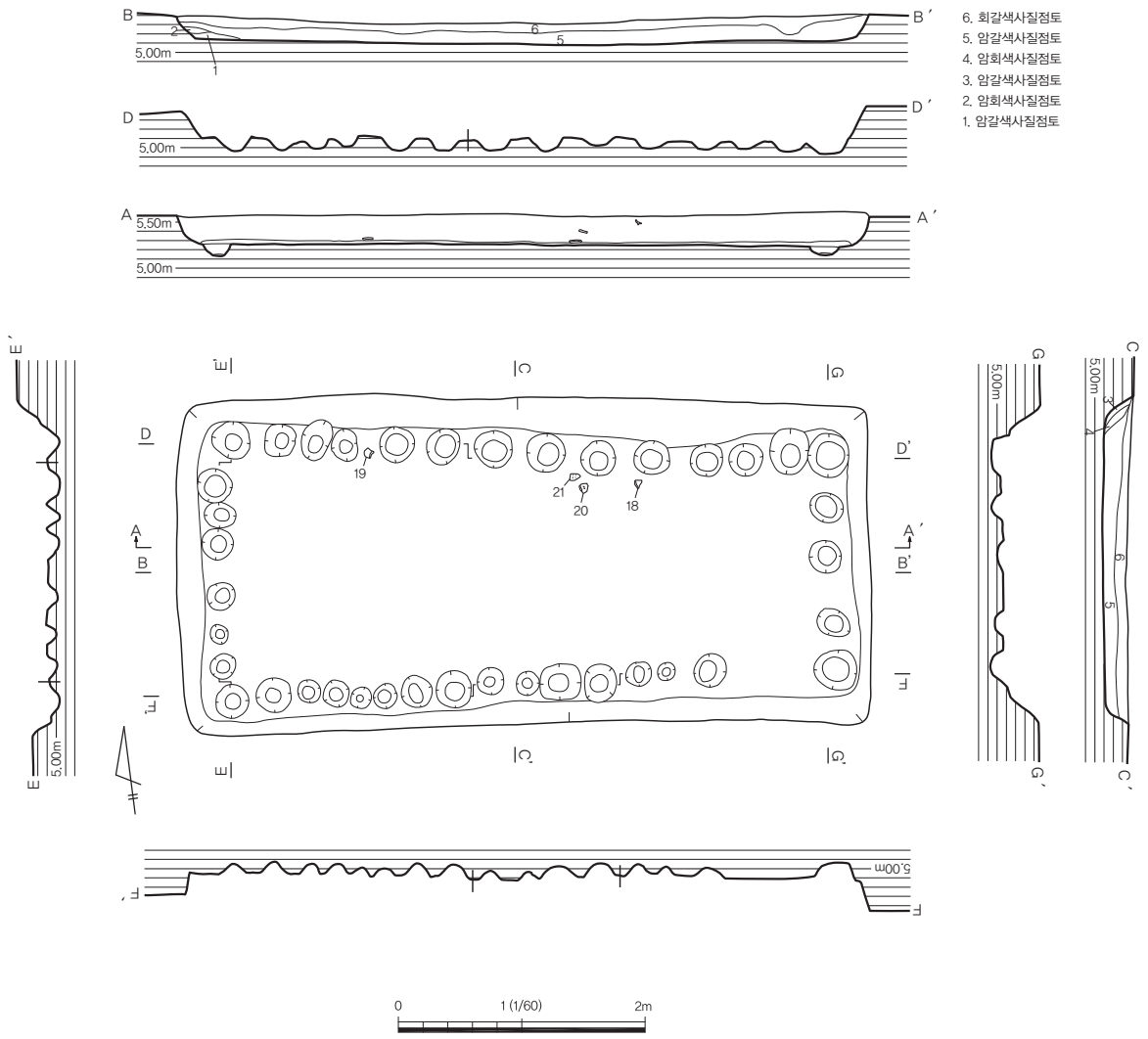
▶ u-u´
3. 암갈색사질점토
2. 회갈색사질점토
1. 황갈색사질점토

▶ v-v´
3. 암갈색사질점토
2. 회갈색사질점토
1. 황갈색사질점토

▶ w-w´
2. 회갈색사질점토
1. 황갈색사질점토

▶ x-x´
3. 회갈색
2. 암갈색
1. 암회색

도면 19. 백제시대 II문화층 1호 건물지 평면도 및 단면도(S=1/120–부여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 부지 내 유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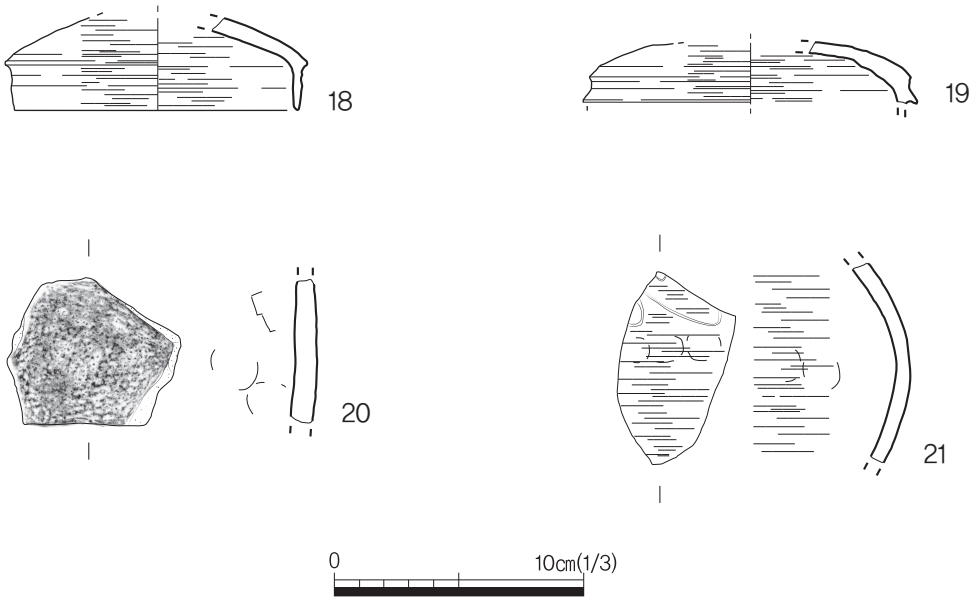
도면 20. 백제시대 Ⅱ문화층 2호 건물지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60)

20. 토기 동체부. 연질의 토기 동체부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서 손누름자국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5.6㎝, 두께 0.7㎝

21. 토기 동체부. 경질의 토기 동체부이다. 소편 상태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이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8.0㎝, 두께 0.5㎝



도면 21. 백제시대 Ⅱ문화층 2호 건물지 출토유물(18~21)

(3) 3호 건물지

가. 유구(도면 22, 도판 16 · 17-①~④)

3호 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동쪽 경계에 인접한 해발 5.5m에서 확인되었다.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2.8m 떨어져 백제시대 1호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건물지는 백제시대 Ⅱ문화층에 해당하는 암회갈색사질점토의 상면을 노출하자 회갈색사질점토로 구분되어 장방형의 윤곽선이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내부조사는 노출된 윤곽을 중심으로 '十'자 형태의 토층둑을 구획한 뒤,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내부구조 및 토층양상을 확인한 후 평면하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건물지 내부의 토층양상은 벽체에 인접하여 암회색사질점토가 함몰된 양상이며, 상부에 회갈색사질점토와 갈색사질점토가 수평퇴적된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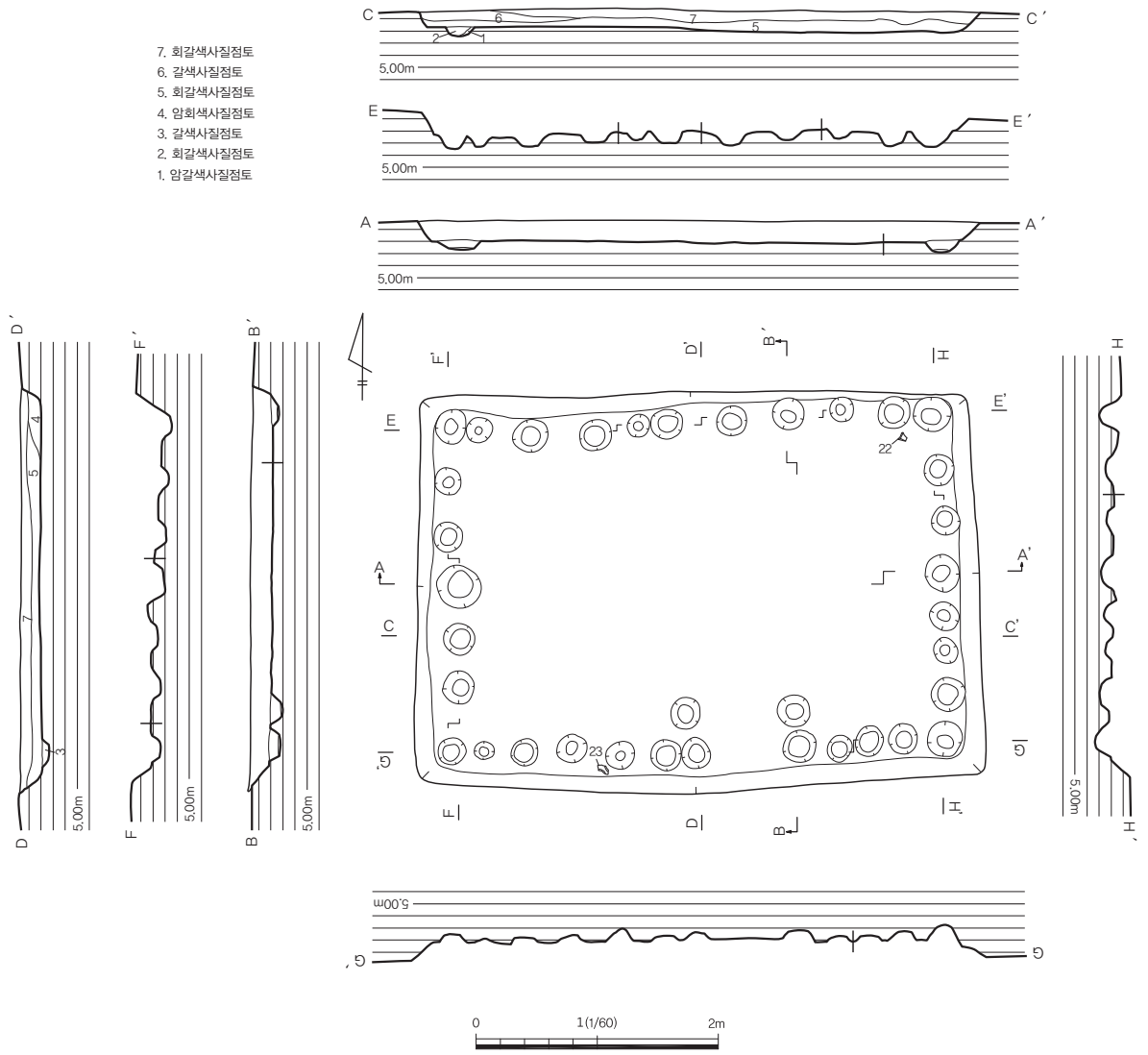
건물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정남향이다.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335㎝, 너비 470㎝, 깊이 18~25㎝이다. 내부에는 2호 건물지와 마찬가지로 건물지의 벽면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총 34개의 주공이 열을 지어 있으며, 남쪽 중앙에 건물지 내부를 향해 2기의 주공이 배치되었는데 출입구 시설로 추정된다.

유물은 주거지 바닥면에서 토기 구연부와 토기 동체부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도면 23, 도판 17)

22. 토기 구연부. 경질의 토기 구연부이다. 색조는 내외면은 회색, 속심은 자색이다. 구순은 편평한 형태이며, 끝부분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 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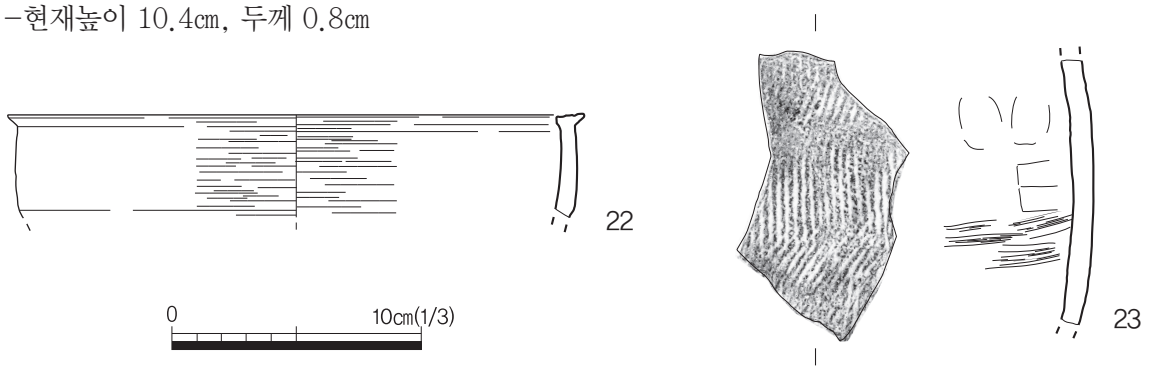
-복원입자름 22.6㎝, 현재높이 4.1㎝, 두께 0.7㎝



도면 22. 백제시대 Ⅱ문화층 3호 건물지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60)

23. 토기 동체부. 경질의 토기 동체부이다. 색조는 내면은 명회색, 외면은 회청색이며, 속심은 자색이다. 외면에는 집선문과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서 손누름자국과 목판구조정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10.4㎝, 두께 0.8㎝



도면 23. 백제시대 Ⅱ문화층 3호 건물지 출토유물(22 · 23)

2) 도로

(1) 1호 도로

가. 유구(도면 24, 도판 17-⑤~⑨ · 18)

1호 도로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해발 5.2m~5.4m 상에서 북동-남서방향으로 조성되었으며, 조사지역 북동쪽 경계 외곽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도로는 백제시대 Ⅱ문화층에 해당하는 암회갈색사질점토의 상면을 노출하자 암갈색사질점토와 회갈색사질토가 퇴적된 도로면과 도로면의 양측으로 도로의 측구로 추정되는 구가 노출되었다.

도로의 내부조사는 노출된 윤곽을 중심으로 '一' 자 형태의 토층둑을 3m 간격으로 구획한 뒤,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내부구조 및 토층양상을 확인한 후 평면하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도로의 길이는 약 1,737㎝이며, 측구를 제외한 추정 도로면의 너비는 약 390㎝~474㎝ 내외이다. 측구는 도로의 양쪽인 북서쪽과 남동쪽에서 확인되었다. 북서쪽 측구는 내부에 암갈색사질점토와 회갈색사질토가 퇴적된 양상이며, 남동쪽 측구는 대부분 모래가 퇴적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측구의 규모는 너비 77㎝~115㎝ 내외이며, 깊이는 24㎝~42㎝ 가량이다.

유물은 도로면과 측구에서 배, 호 구연편, 기대 대각부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도면 25 · 26, 도판 18)

24. 배. 경질의 배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회색이다. 배신부는 얕은 형태이다. 드림턱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드림부는 내만하는 형태이며, 드림부 끝부분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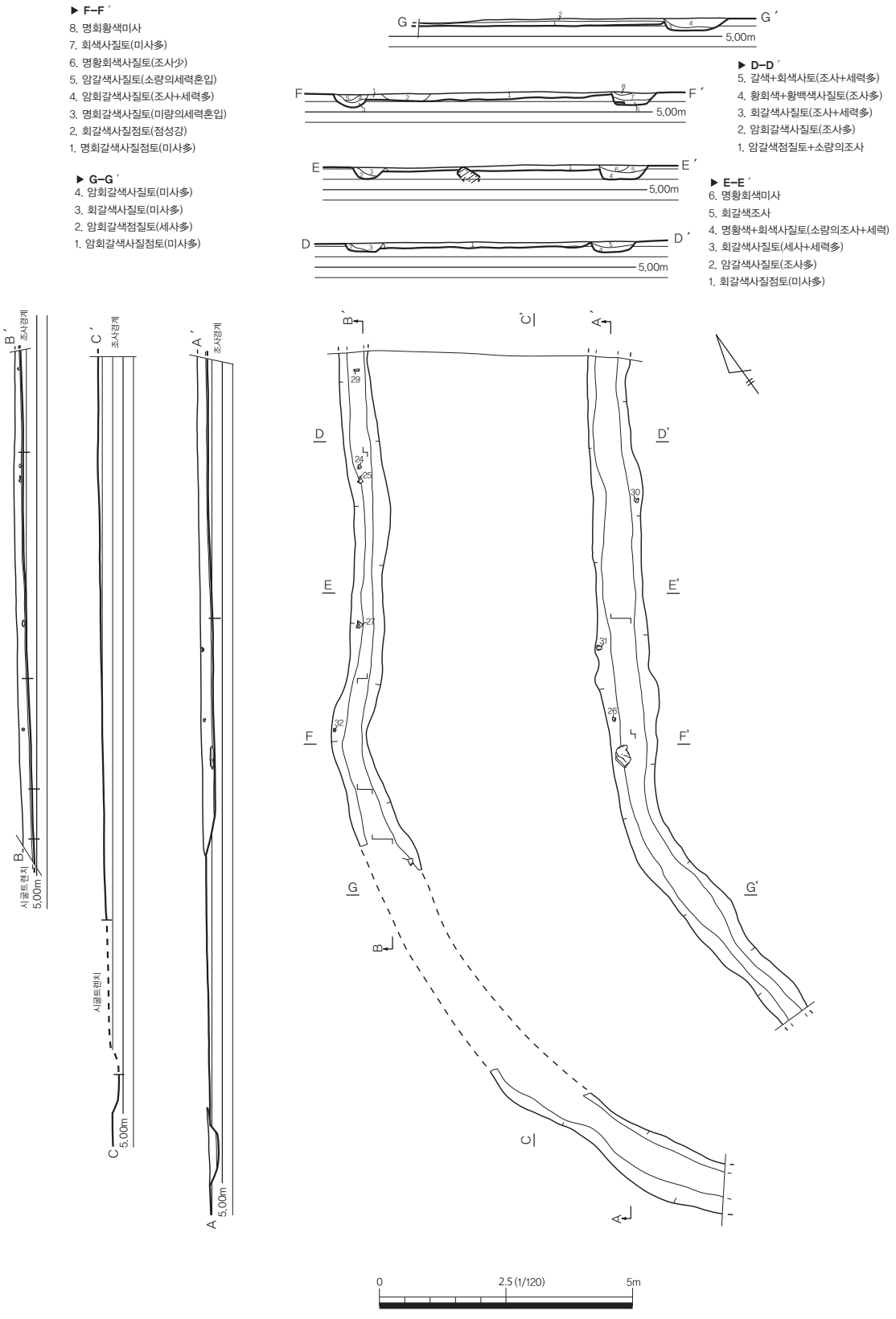
-복원입지름 10.6㎝, 현재높이 1.9㎝, 두께 0.2㎝

25. 호 구연부. 연질의 호 구연부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회색이다. 구연부는 짧은 경부에서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순부는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집선문이 타날되었다.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세한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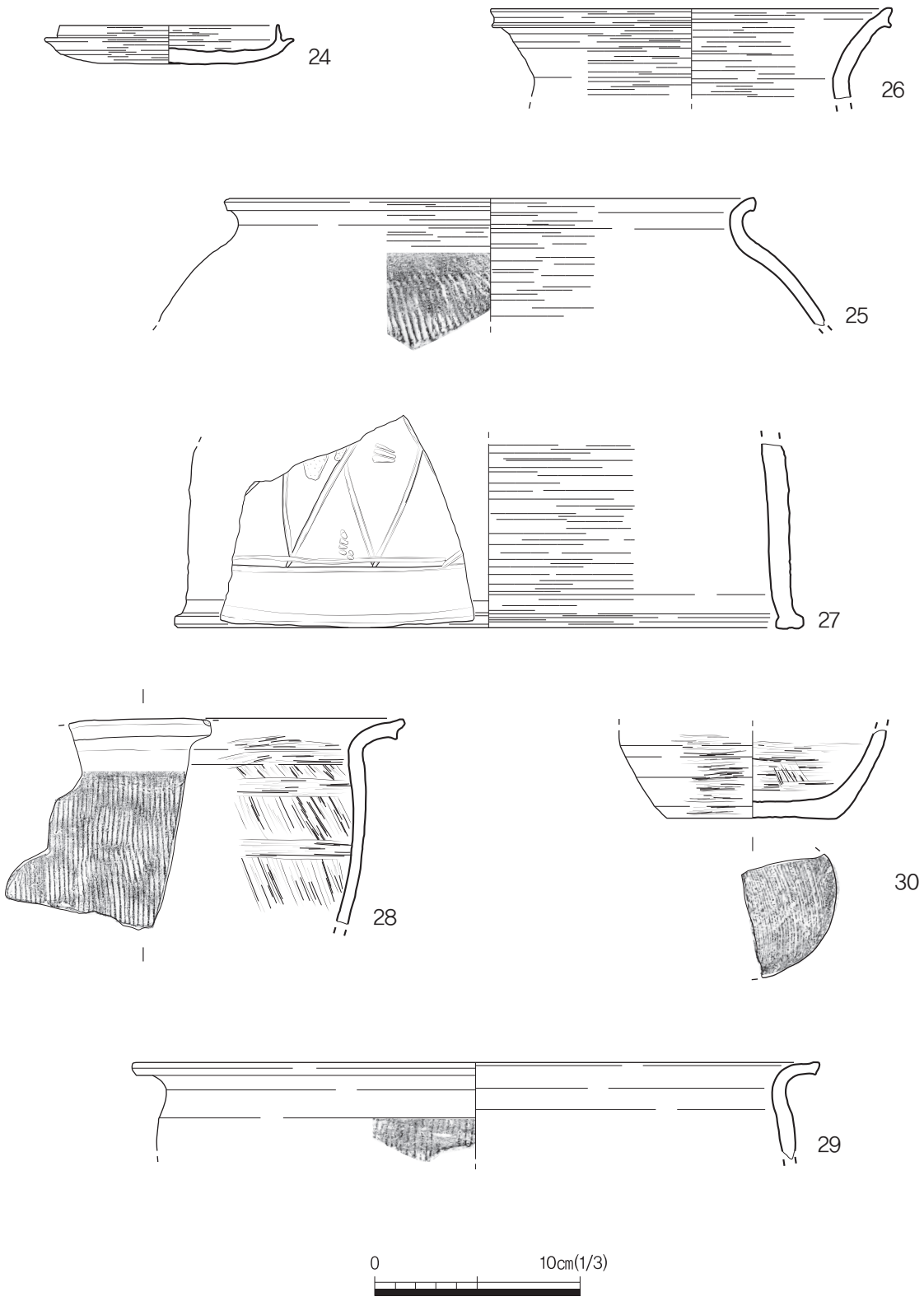
-복원입지름 25.0㎝, 현재높이 6.0㎝, 두께 0.5㎝

26. 호 구연부. 경질의 호 구연부이다. 소편 상태이다. 색조는 내외면은 암회색, 속심은 자색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순부는 Σ형태이다. 경부 외면에는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복원입지름 19.2㎝, 현재높이 4.4㎝, 두께 0.7㎝



도면 24. 백제시대 Ⅱ문화층 1호 도로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60)



도면 25. 백제시대 II 문화층 1호 도로 출토유물(24~30)

27. 기대 대각부. 경질의 기대 대각부이다. 소편 상태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회색이다. 접지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으며, 중앙에 1조의 홈이 확인된다. 기대의 외면에는 삼각 선문과 점렬문이 확인되며, 2조의 횡방향의 선문이 확인된다. 내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복원바닥지름 30.2㎝, 현재높이 8.9㎝, 두께 1.0㎝

28. 동이 구연부. 경질의 동이 구연부이다. 소편 상태이다. 색조는 명회색이다. 구연부는 수평으로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순부는 Σ 자형이다. 동체부 외면에서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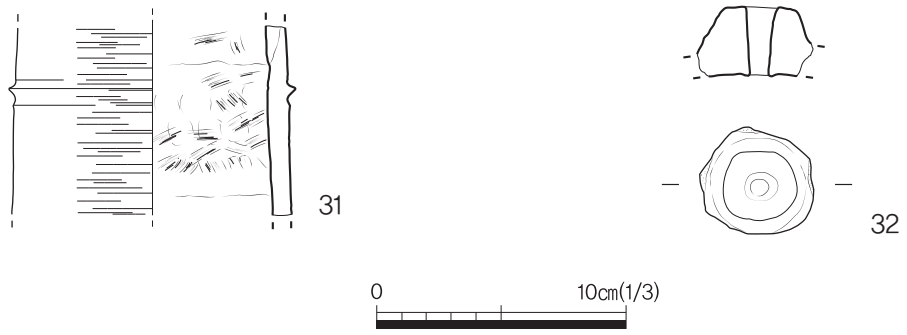
-현재높이 9.8㎝, 두께 0.6㎝

29. 동이 구연부. 연질의 동이 구연부이다. 색조는 내면은 명황색, 외면은 흑황색이다. 구연부는 수평으로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순부는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집선문이 타날되었다. 경부의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과 장석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복원입지름 23.0㎝, 현재높이 4.7㎝, 두께 0.7㎝

30. 토기 저부. 경질의 저부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회색이다. 저부는 평저의 형태이다,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저부 바닥면에서 사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과 운모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복원바닥지름 8.1㎝, 현재높이 4.3㎝, 두께 0.8㎝



도면 26. 백제시대 Ⅱ문화층 1호 도로 출토유물(31 · 32)

31. 기대 동체부. 경질의 기대 동체부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회색이다. 기형은 직립하는 형태이며, 1조의 돌대가 확인된다. 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에서 여러방향의 목판구조정흔적과 손누름자국이 확인되며, 점토접합흔적도 확인된다. 태토는 석립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높이 7.5㎝, 두께 0.7㎝

32. 파수. 연질의 파수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백황색이다. 파수의 형태는 짧은 원통형에 가깝다. 파수의 중앙에는 직경 1.4㎝의 원형 투공이 확인된다. 투공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이루어졌다. 태토는 석립 등이 혼입된 점질토이다.

-현재길이 4.0㎝, 두께 2.6㎝

3) 수혈

(1) 1호 수혈

가. 유구(도면 27, 도판 19-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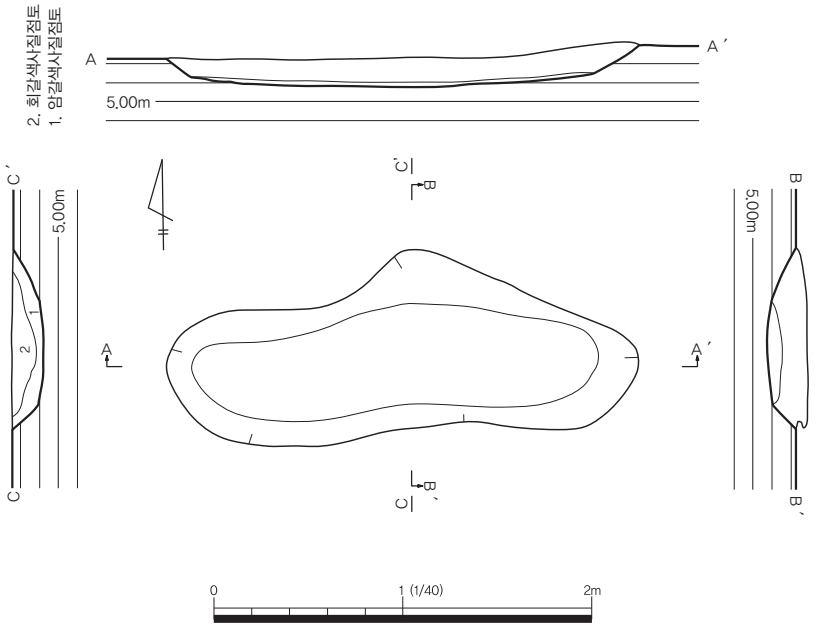
1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서쪽 경계에 인접한 해발 5.2m에 조성되었다. 주변으로는 남쪽으로 인접하여 백제시대 1호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다. 수혈은 백제시대 Ⅱ문화층에 해당하는 암회갈색사질점토의 상면을 노출하자 회갈색사질점토로 구분되어 타원형의 윤곽선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내부조사는 노출된 윤곽을 중심으로 '—' 자 형태의 토층둑을 구획한 뒤,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내부구조 및 토층양상을 확인한 후 평면하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수혈 내부의 토층양상은 바닥면부터 암갈색사질점토-회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02㎝, 너비 262㎝, 깊이 22㎝이다.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백제시대 1호 건물지와 관련하여 '부여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 부지 내 유적'의 적심토 건물지의 남동쪽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혈이 대칭을 이루며 확인된 것으로 보아 적심토 건물지와 관련한 시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27. 백제시대 Ⅱ문화층 1호 수혈 평면도 및 입 · 단면도(S=1/40)

Ⅳ. 조사성과

발굴조사대상지는 강병구씨의 단독주택 신축부지인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79-1번지에 해당하며, 조사대상면적은 575㎡이다.

시굴조사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2018년 9월 19일에 진행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트렌치 내에서 (추정) 주거지 1동과 적심토 건물지 1동(적심 2개)이 확인되었고, 학술자문회의 및 전문가검토회의를 통해 조사지역 전체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치사항이 통보되었다.

정밀발굴조사는 동방문화재연구원에서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해발 5.0m 상의 백제시대 Ⅰ문화층에서 건물지 2기 · 도로 2기 · 수혈 1기가 조사되었고, 해발 5.3m 내외의 백제시대 Ⅱ문화층에서 건물지 3기 · 도로 1기 · 수혈 1기가 확인되어 백제시대 2개 문화층에서 총 10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백제시대 Ⅰ문화층(하층)에서 조사된 건물지는 벽체 조성을 위한 방형의 구를 굴토하고 내부에 기둥을 세운 형태인 벽주건물지로 판단된다. 이러한 벽주건물지는 공주 정지산 유적[43]의 대벽건물지 이후로 백제 웅진 · 사비기에 충청 · 전라권에서 주로 확인되었으나 최근 평택 세교동[44]과 몽촌토성에서도 벽주건물지가 확인됨에 따라 건물지의 조성시기가 백제 한성기~사비기까 확대되고 있다.

부여지역에서는 쌍북리 현내들 · 북포유적, 동남리 202-1번지 유적 등 다수의 조사사례가 확인되며, 이번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건물지와 입지조건 및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건물지 주변에서 확인된 도로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조사지역 외곽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해당시기 조사지역 일대에 존재하였을 백제시대 사비기 취락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시대Ⅱ문화층(상층)에서 조사된 1호 건물지(적심토 건물지)의 경우 조사지역 남서쪽에 인접한 '부여 왕포리~중정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단계) 부지 내 유적'에서 조사된 적심토 건물지인 백제시대 8호 건물지와 동일한 유구의 일부분으로 판단되며, 조사를 통해 건물지의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지는 규모 및 축조방법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위계를 갖춘 건물지로 판단된다. 또한 2 · 3호 건물지는 지상식 건물지로 추정되며, 출토유물 등을 고려할 때 백제시대 사비기 후반에 해당하는 7세기 전엽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43) 국립공주박물관, 1999,『艇止山』.

44) 가경고고학연구소, 2019,『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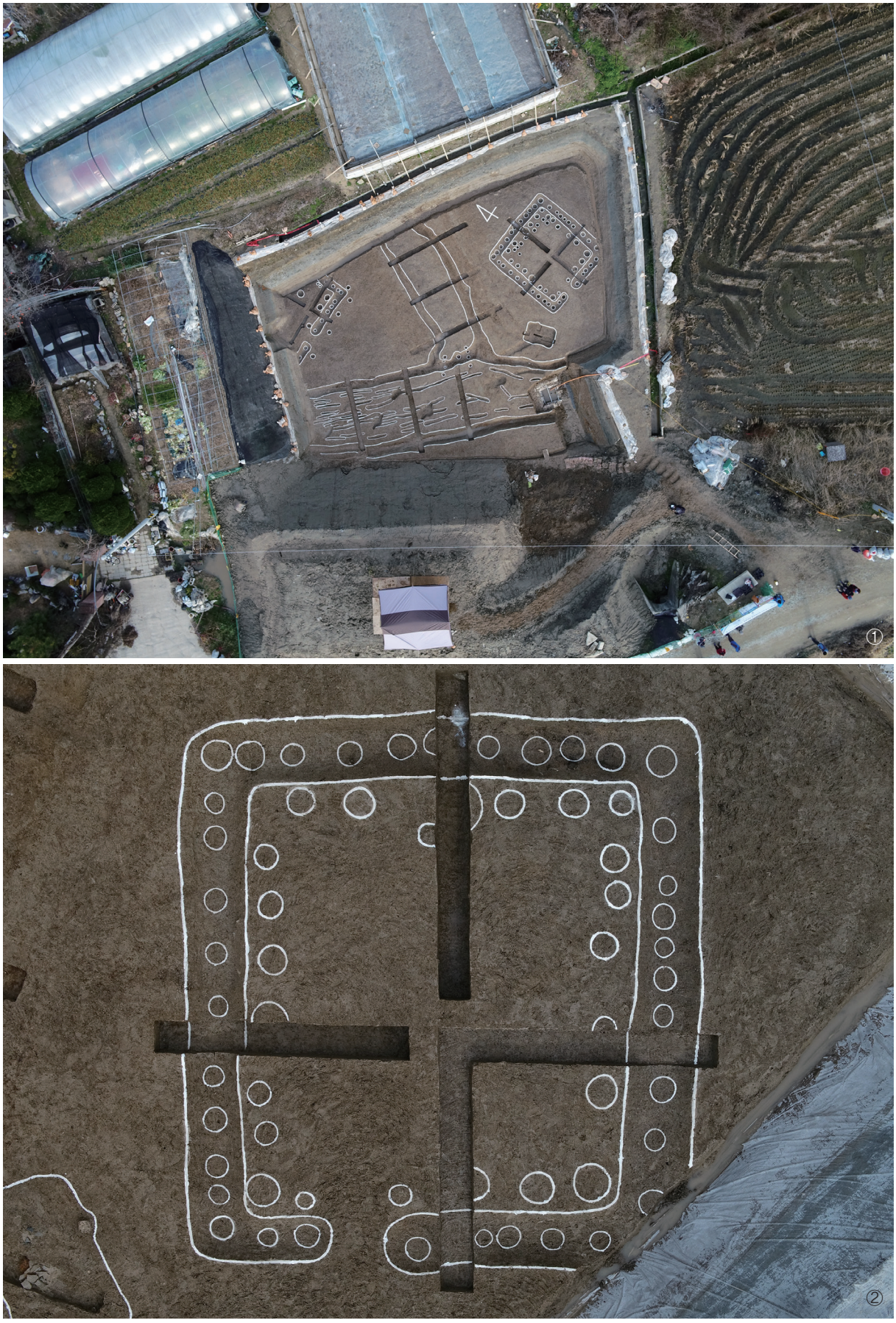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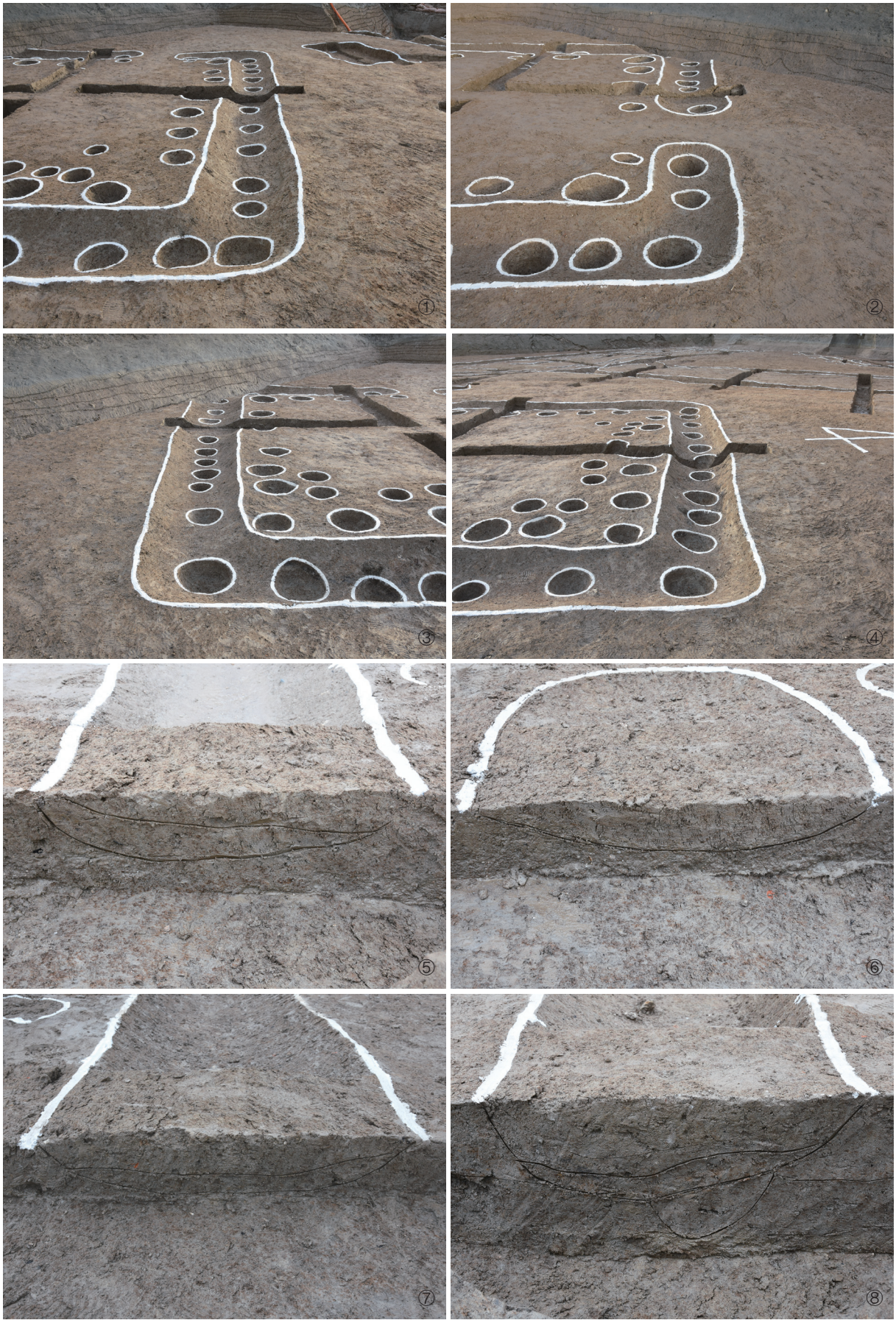
도판 1. 시굴조사(①조사 전, ②조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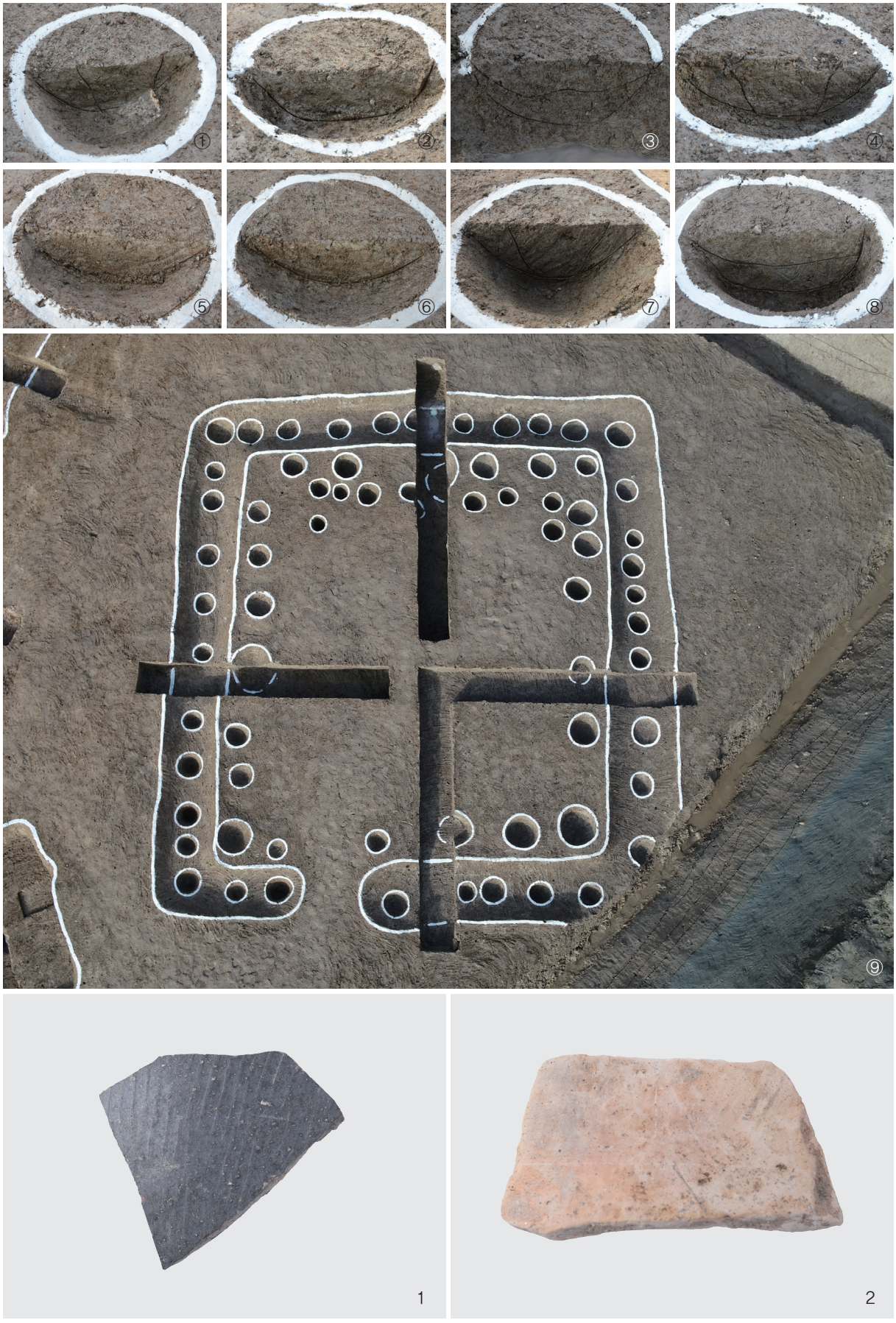
도판 2. 시굴조사(①트렌치 전경, 토층 전경②동벽, ③서벽, ④남벽, ⑤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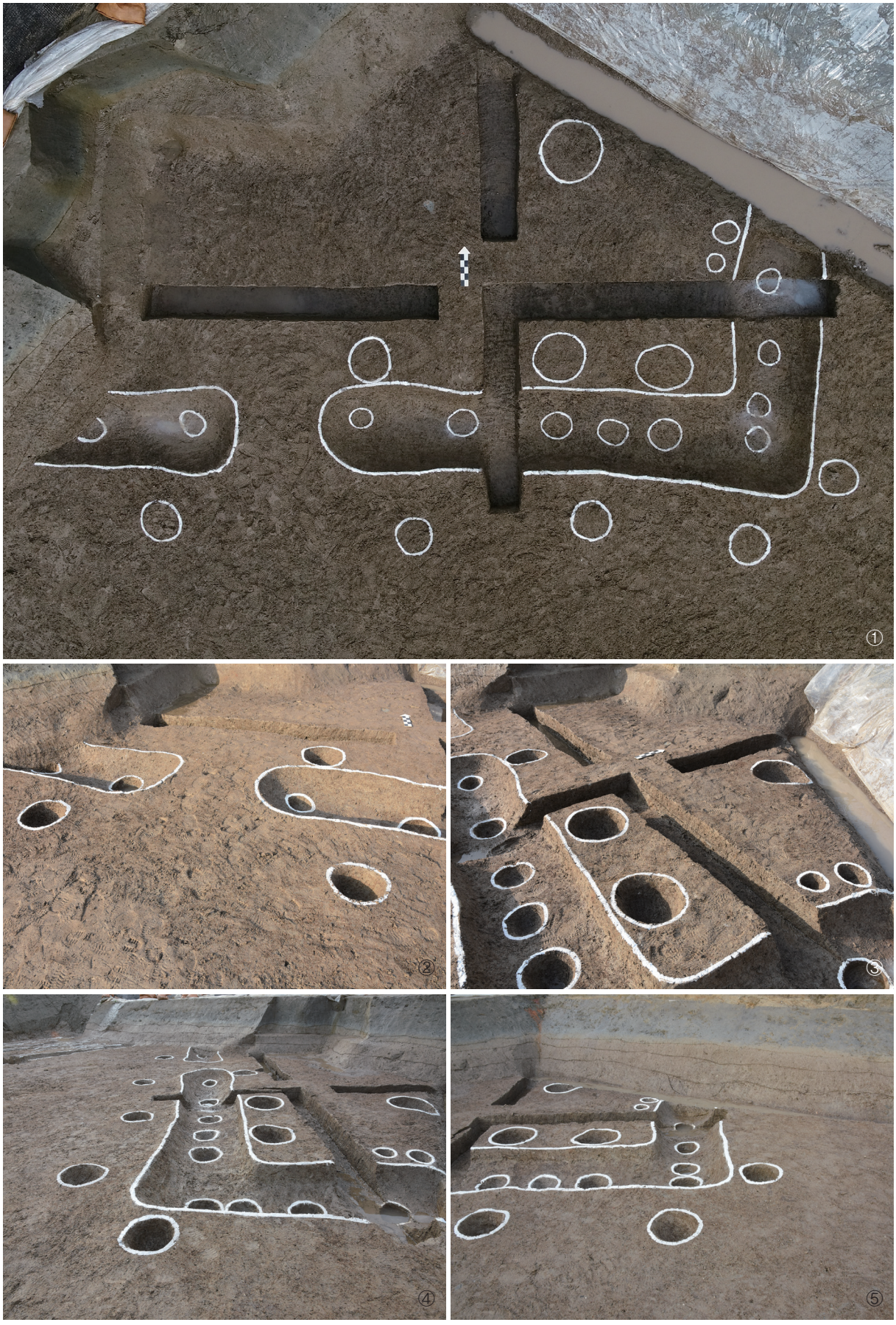
도판 3. 백제시대 Ⅰ 문화층(①조사 후), 1호 건물지(②조사 후)



도판 4.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건물지(①~④벽구 세부, ⑤~⑧벽구 토층)



도판 5.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건물지(①~④벽주공 토층, ⑤~⑧내주공 토층, 출토유물 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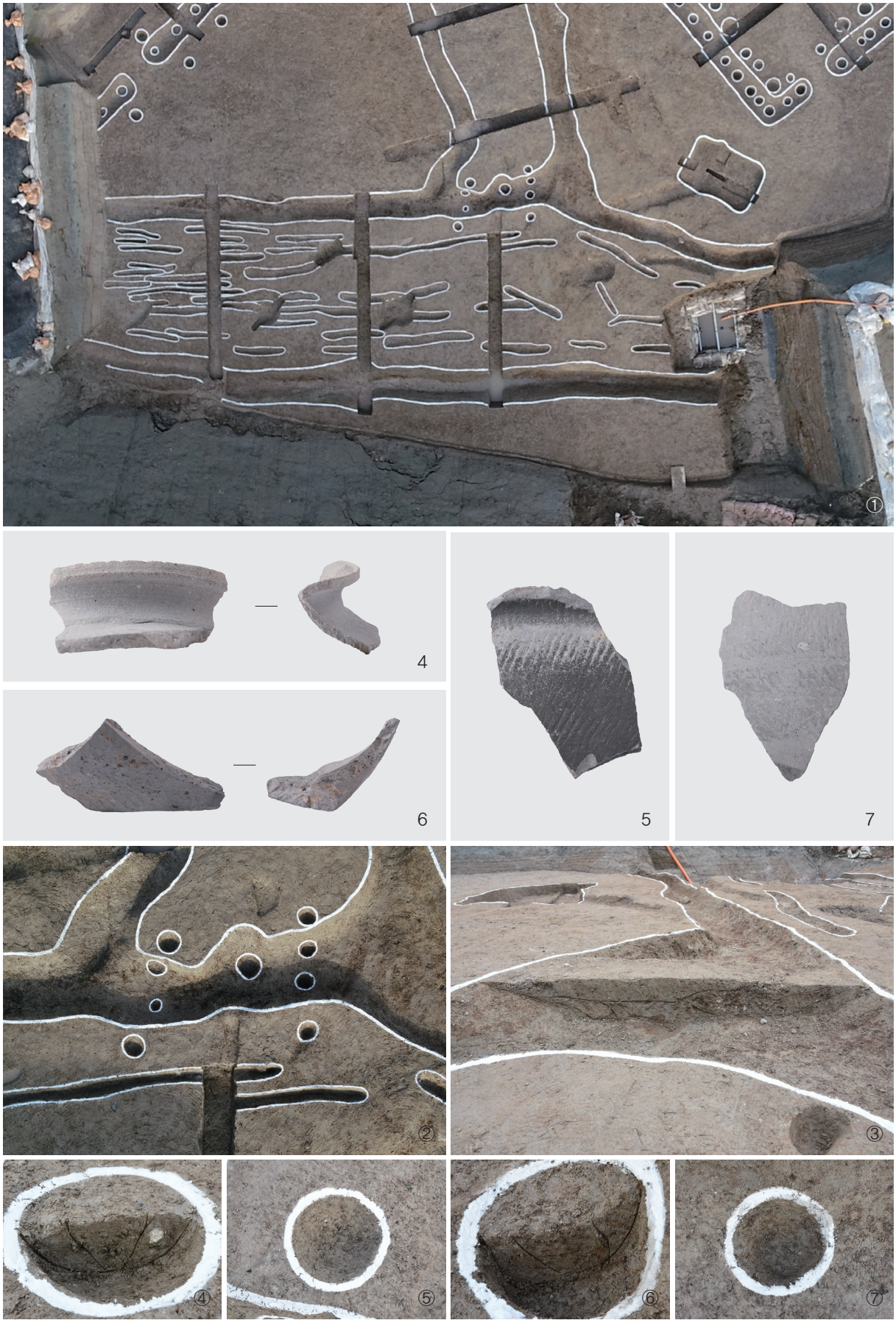
도판 6.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건물지(①조사 중, ②출입구, ③내주공, ④ · ⑤벽구 세부)



도판 7.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건물지(① · ②벽구 토층, ③조사 후, ④~⑦벽주공 토층, ⑧~⑪내주공 토층, ⑫~⑮외주공 토층 및 조사 후, 출토유물 3)



도판 8.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도로(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④·⑤측구토층, ⑥·⑦도로면 전경, ⑧~⑪출토유물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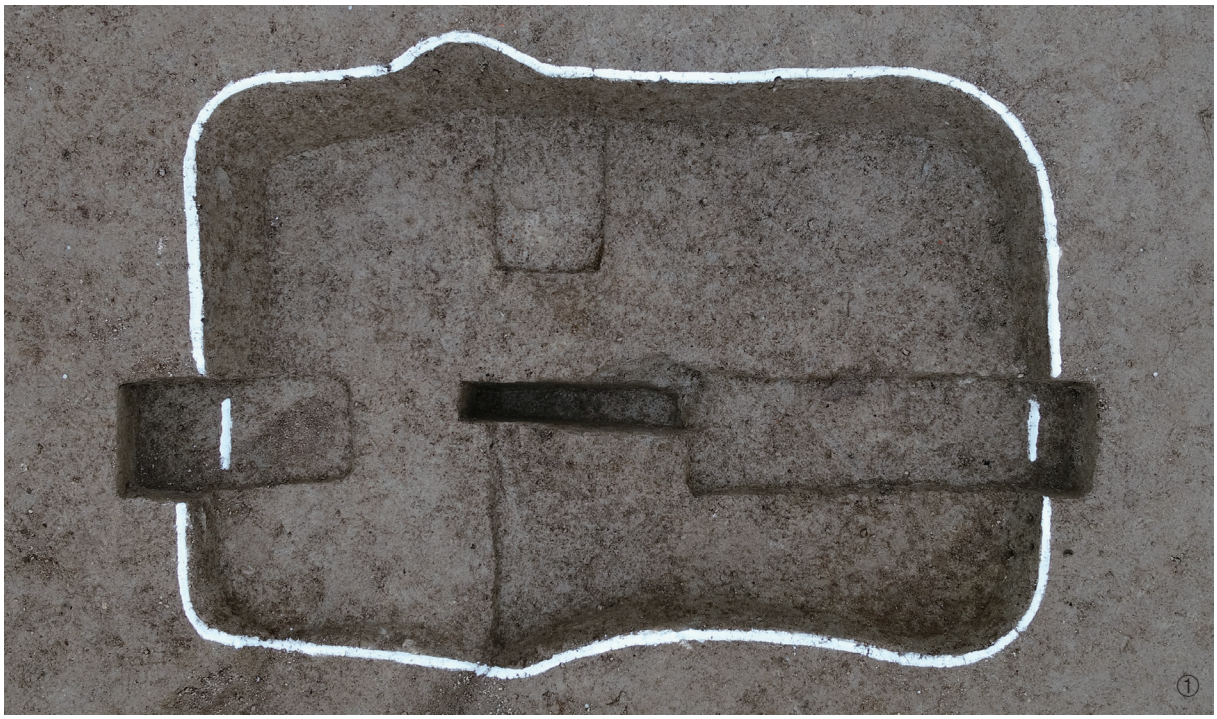
도판 9.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도로(①조사 후, 출토유물 4~7), 1 · 2호 도로 연결부(②조사 후, ③토층, ④~⑦(추정)교각 시설 주공)



도판 10.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①조사 중, ②토층, ③ · ④측구 토층, ⑤조사 후)



도판 11.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출토유물 9~13), 1호 수혈(①조사 전, ②출토유물 세부, ③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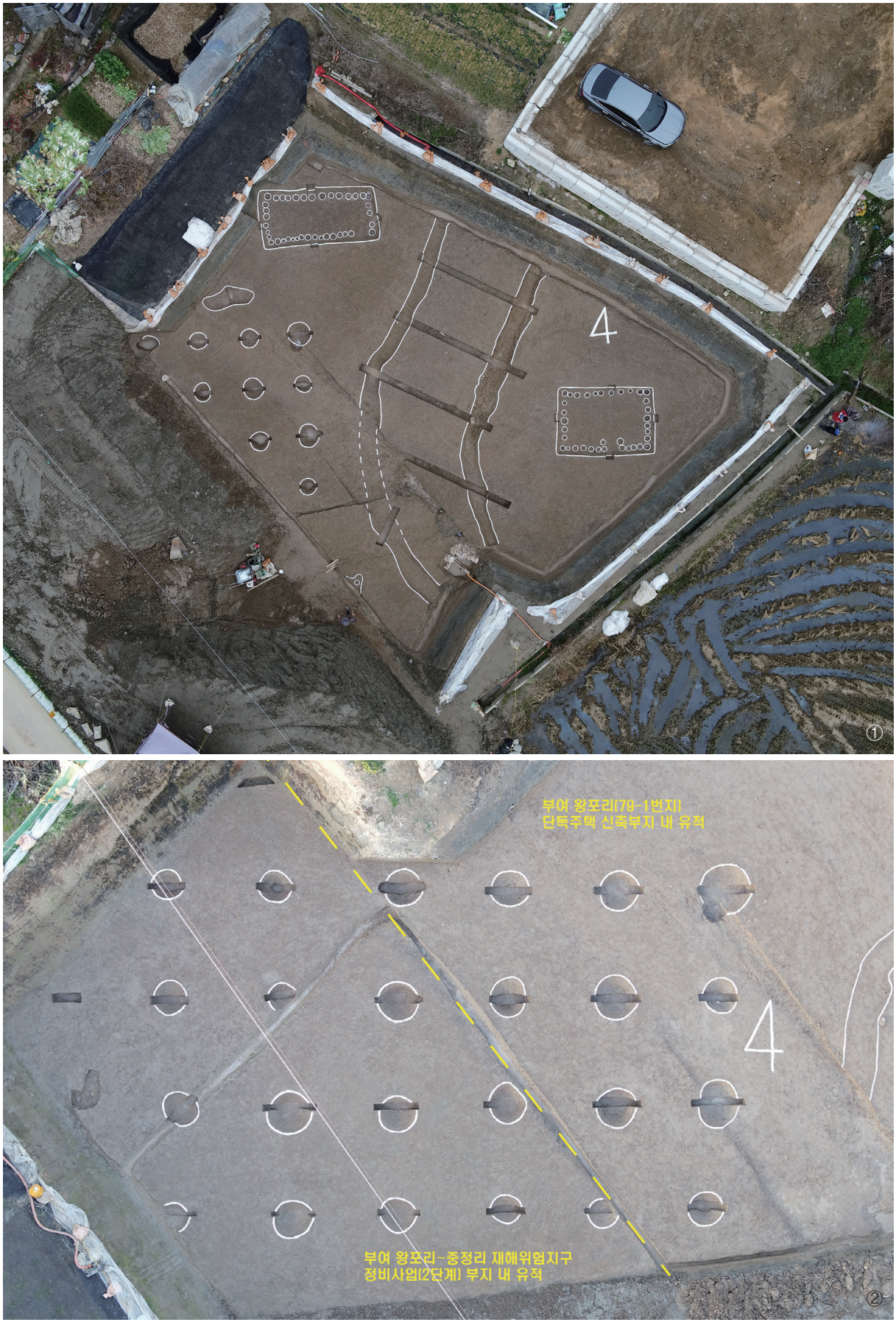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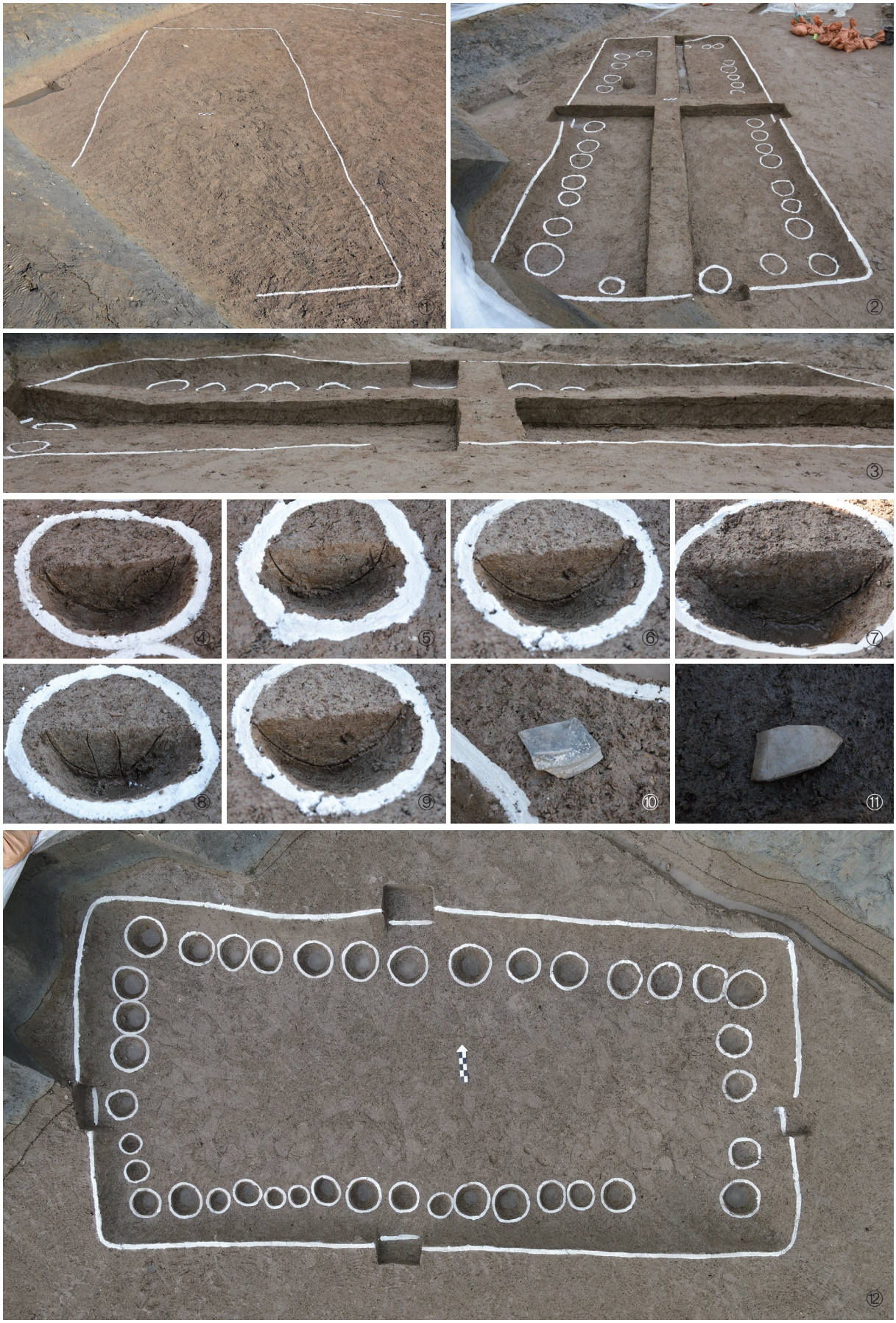
도판 12. 백제시대 Ⅰ 문화층 1호 수혈(①조사 후, 출토유물 14~16), 지표수습유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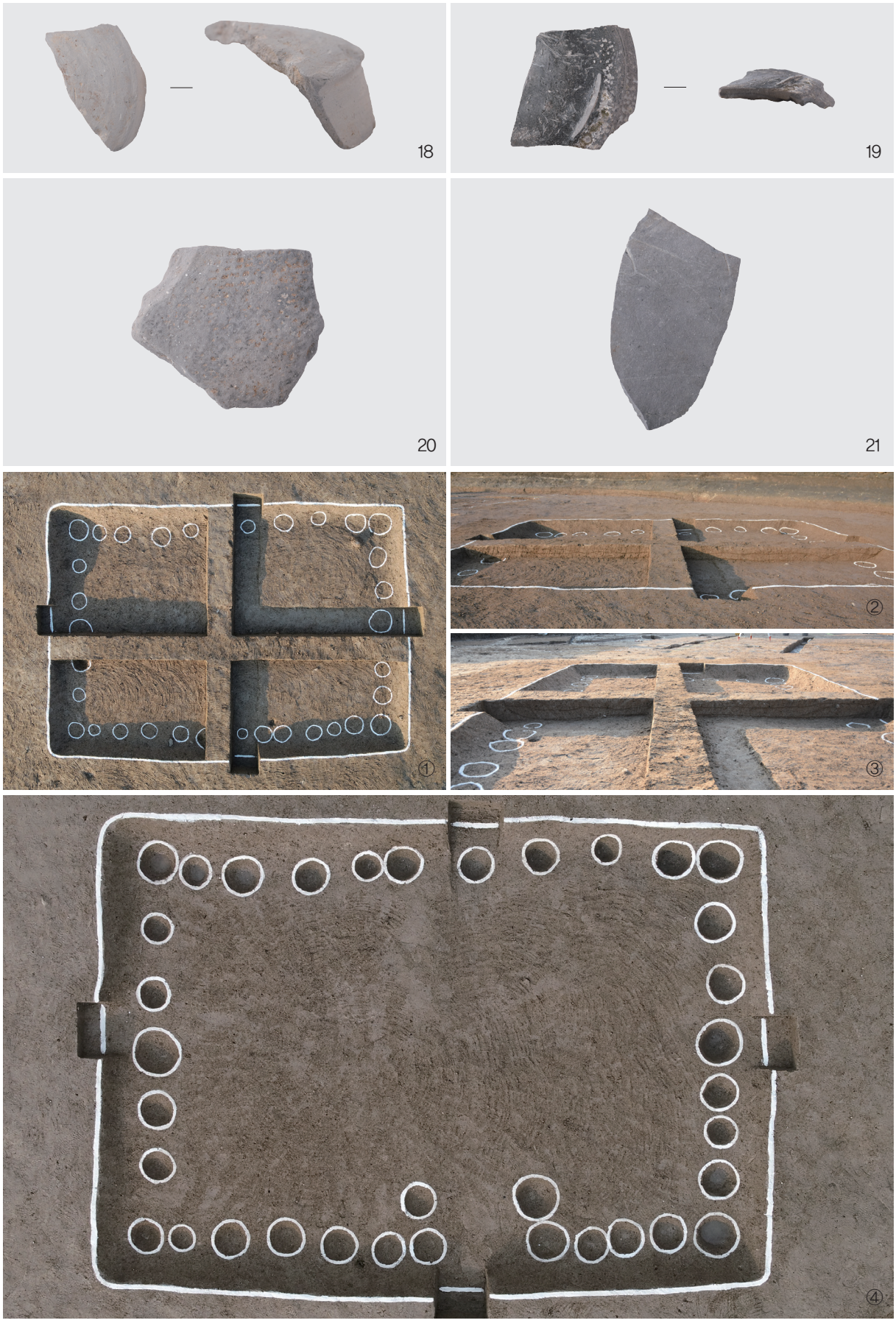
도판 13. 백제시대 II문화층(①조사 후), 1호 건물지(②조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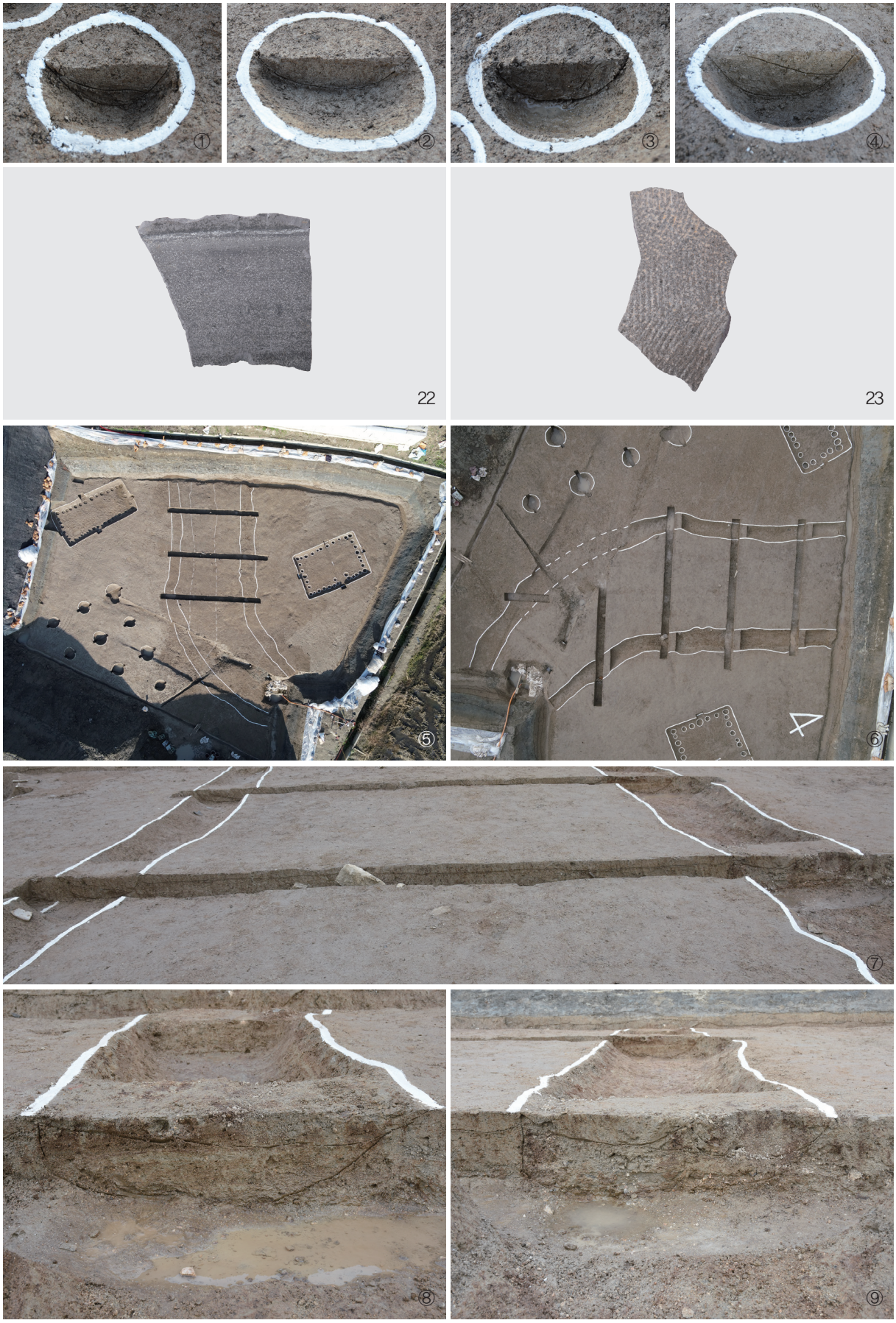
도판 14. 백제시대 II 문화층 1호 건물지(①~③지정1, ④~⑥지정2, ⑦~⑨지정3, ⑩~⑫지정4, ⑬~⑮지정8, ⑯~⑱지정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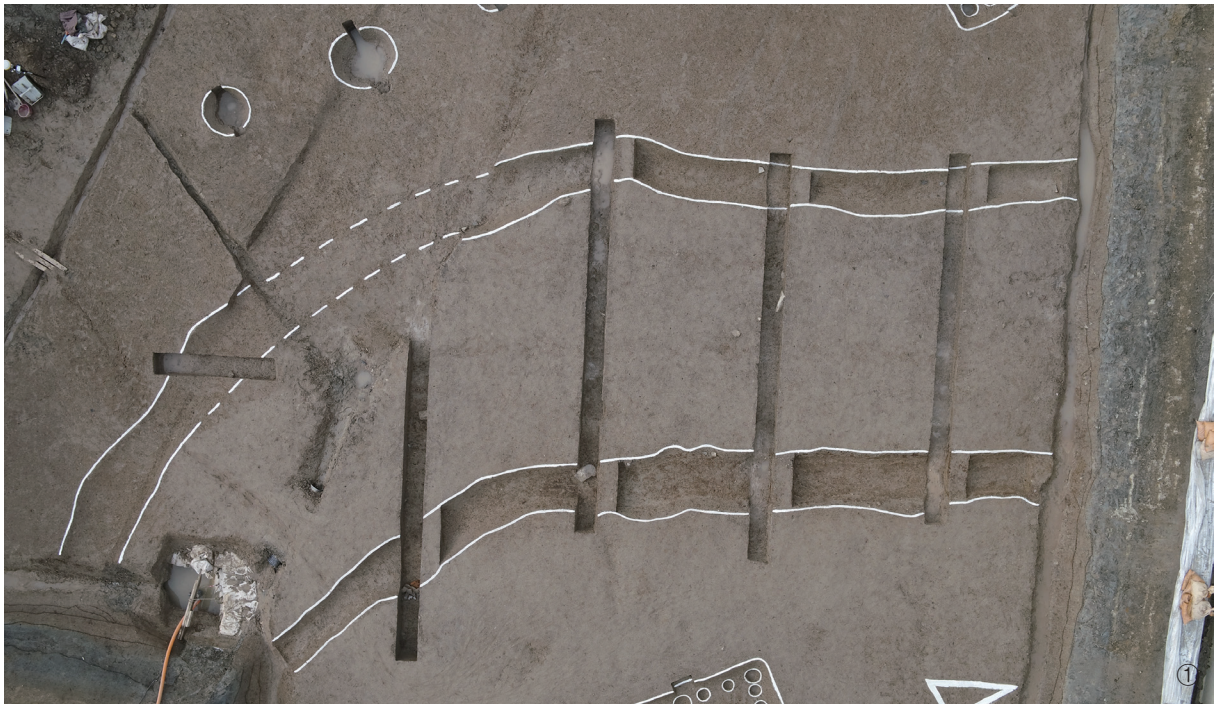
도판 15. 백제시대 Ⅱ문화층 2호 건물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토층, ④~⑨내부 주공, ⑩ · ⑪출토유물 세부, ⑫조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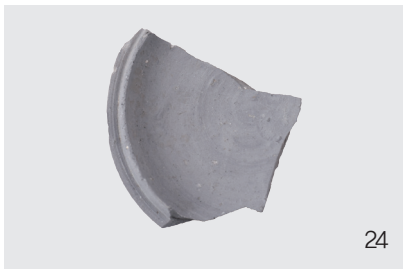


도판 16. 백제시대 Ⅱ문화층 2호 건물지(출토유물 18~21), 3호 건물지(①조사 중, ② · ③토층, ④조사 후)



도판 17. 백제시대 Ⅱ문화층 2호 건물지(①~④내부 주공, 출토유물 22 · 23), 1호 도로(⑤조사 전, ⑥조사 중, ⑦토층, ⑧ · ⑨측구 토층





















도판 18. 백제시대 II 문화층 1호 도로(①조사 후, 출토유물 24~32)



도판 19. 백제시대 Ⅱ문화층 1호 수혈(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토층, ④조사 후), ⑤학술자문회의

부여 왕포리 79-1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허가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회의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8-1411-0001	토기 동체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건물지	토도	백제시대	4.5		(0.5)	도면 7-1 도판 5-1	Y
2018-1411-0002	토기 동체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건물지	토도	백제시대	3.8		(0.5)	도면 7-1 도판 5-2	Y
2018-1411-0003	호 동체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건물지	토도	백제시대	6.2		(0.7)	도면 9-3 도판 7-3	Y
2018-1411-0004	호 구연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4.4	12.0	(0.7)	도면 12-4 도판 9-4	Y
2018-1411-0005	동이 구연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8.0		(0.7)	도면 12-5 도판 9-5	Y
2018-1411-0006	토기 저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3.3		16.6 (0.6)	도면 12-6 도판 9-6	Y
2018-1411-0007	토기 동체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3.5		(0.8)	도면 12-7 도판 9-7	Y
2018-1411-0008	배	1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1.7		(0.3)	도면 14-8 도판 11-8	Y
2018-1411-0009	호 구연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9.8		(0.5)	도면 14-9 도판 11-9	Y
2018-1411-0010	동이 구연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4.6	38.0	(0.5)	도면 14-10 도판 11-10	Y
2018-1411-0011	동이 구연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5.4	32.0	(0.6)	도면 14-11 도판 11-11	Y
2018-1411-0012	토기 동체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5.4		(0.6)	도면 14-12 도판 11-12	Y
2018-1411-0013	암키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2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6.2)	(7.0)	(1.4)	도면 14-13 도판 11-13	Y
2018-1411-0014	호	3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수혈	토도	백제시대	71.8	24.6	(0.5)	도면 16-14 도판 12-14	Y
2018-1411-0015	동이 구연부	1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수혈	토도	백제시대	5.0		(0.5)	도면 16-15 도판 12-15	Y
2018-1411-0016	철제 솥	4	백제시대 Ⅰ문화층 1호 수혈	금속	백제시대			18.9 (0.9)	도면 16-16 도판 12-16	Y
2018-1411-0017	지석	1	백제시대 Ⅰ문화층 지표수습	옥석 유리	백제시대	(13.5)	(4.4)	(2.3)	도면 17-17 도판 12-17	Y
2018-1411-0018	개	1	백제시대 Ⅱ문화층 2호 건물지	토도	백제시대	3.8	11.2	(0.3)	도면 21-18 도판 16-18	Y

유물번호 (허가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회의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8-1411-0019	개	1	백제시대 II 문화층 2호 건물지	토도	백제시대	2.3		(0.4)	도면 21-19 도판 16-19	Y
2018-1411-0020	토기 동체부	1	백제시대 II 문화층 2호 건물지	토도	백제시대	5.6		(0.7)	도면 21-20 도판 16-20	Y
2018-1411-0021	토기 동체부	1	백제시대 II 문화층 2호 건물지	토도	백제시대	8.0		(0.5)	도면 21-21 도판 16-21	Y
2018-1411-0022	토기 구연부	1	백제시대 II 문화층 3호 건물지	토도	백제시대	4.1	22.6	(0.7)	도면 23-22 도판 17-22	Y
2018-1411-0023	토기 동체부	1	백제시대 II 문화층 3호 건물지	토도	백제시대	10.4		(0.8)	도면 23-23 도판 17-23	Y
2018-1411-0024	배	1	백제시대 II 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1.9	10.6	(0.2)	도면 25-24 도판 18-24	Y
2018-1411-0025	호 구연부	1	백제시대 II 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6.0	25.0	(0.5)	도면 25-25 도판 18-25	Y
2018-1411-0026	호 구연부	1	백제시대 II 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4.4	19.2	(0.7)	도면 25-26 도판 18-26	Y
2018-1411-0027	기대 대각부	1	백제시대 II 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8.9		30.2 (1.0)	도면 25-27 도판 18-27	Y
2018-1411-0028	동이 구연부	1	백제시대 II 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9.8		(0.6)	도면 25-28 도판 18-28	Y
2018-1411-0029	동이 구연부	1	백제시대 II 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4.7	23.0	(0.7)	도면 25-29 도판 18-29	Y
2018-1411-0030	토기 저부	1	백제시대 II 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4.3		8.1 (0.8)	도면 26-30 도판 18-30	Y
2018-1411-0031	기대 동체부	1	백제시대 II 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7.5		(0.7)	도면 26-31 도판 18-31	Y
2018-1411-0032	파수	1	백제시대 II 문화층 1호 도로	토도	백제시대	4.0		(2.6)	도면 26-32 도판 18-32	Y

發掘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부여 왕포리 79-1번지 유적		發行日	2020年 11月 25日
發刊機關	명칭	재단법인 동방문화재연구원		
	주소	(32263)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24-1		
	TEL	(041) 635-0887	FAX	(041) 635-0884
執筆·編輯者	이호형, 이상복, 최상철, 강모영, 윤성식, 박현경			
調査緣由	개인주택신축부지에 대해 국비지원으로 진행된 소규모 발굴조사			
發掘調査者	이호형, 최상철, 강모영, 박성규, 윤성식, 박종진, 김병완, 한예지			
遺蹟所在地番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79-1번지			
調査面積	시 굴 조 사 - 575㎡ 정밀발굴조사 - 575㎡			

遺構種別	時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건 물 지	백제시대 Ⅰ문화층	2	호 동체부	
도 로		2	호 구연부, 배	
수 혈		1	호, 철제 촉	
건 물 지	백제시대 Ⅱ문화층	3	개, 토기 동체부	
도 로		1	배, 기대 대각부	
수 혈		1		

2018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권별 유적 목록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Ⅰ	1	고령 월산리 164번지 유적	Ⅵ	34	공주 반죽동 197-4번지 유적
	2	서울 권농동 185-10번지 유적	Ⅶ	35	상주 성동동 76-4번지 유적
	3	경주 서악동 613번지 유적		36	순천 덕암동 75-21번지 외 1필지 유적
	4	경주 하구리 990-2번지 유적		37	경주 황남동 302-1번지 유적
	5	창녕 교리 523-3번지 유적		38	부산 봉림동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6	공주 반죽동 121-7번지 외 2필지 유적	Ⅷ	39	부여 동남리 259-11번지 유적
	7	익산 모현동2가 435-1번지 유적		40	경주 황남동 480-2번지 유적
	8	양평 하자포리 245번지 유적		41	춘천 근화동 799-5번지 유적
	9	경주 황남동 221-18번지 유적		42	평창 중리 137-1번지 유적
Ⅱ	10	순천 덕암동 75-18번지 외 1필지 유적		43	제주시 용담2동 2779-1번지 유적
	11	서울 신창동 77-112번지 유적		44	김천 덕전리 1118번지 유적
	12	김해 동상동 317-1번지 유적	Ⅸ	45	상주 복룡동 342-37번지 유적
	13	대구 진천동 661번지 유적		46	경주 근계리 1050번지 유적
	14	제주 삼양일동 1662-22번지 유적		47	서울 주교동 168-3번지 유적
	15	울주 구미리 374-3번지 유적		48	하남 미사동 411-1번지 유적
Ⅲ	16	울진 봉평리 51-2번지 유적		49	광주 장지동 271번지 유적
	17	부여 동남리 519-8번지 유적		50	양산 화제리 산170-1번지 유적
	18	춘천 천전리 100-28번지 유적		51	경주 구황동 857-42번지 유적
	19	영월 방절리 558-19번지 유적		52	경주 황남동 317-13번지 유적
	20	영월 방절리 558-21번지 유적		53	제주 용담2동 2704-3번지 유적
	21	창원 신방리 414-5, 415-3번지 유적		54	서울 권농동 176번지 유적
	22	영월 방절리 558-3번지 유적	Ⅹ	55	양평 운심리 86-5번지 유적
Ⅳ	23	가평 대곡리 387-4번지 유적		56	경주 율동 산3-19번지 유적
	24	제주시 용담2동 2696-1번지 유적		57	경주 입실리 742-2번지 유적
	25	경주 노곡리 908-6번지 유적		58	강릉 임당동 103-12번지 유적
	26	경주 황남동 276-1번지 유적		59	제주 용담2동 2606번지 유적
	27	군산 장상리 614번지 유적		60	경주 덕천리 165-1번지 유적
Ⅴ	28	광주 요기동 298-56번지 유적		61	제주 고산리 1679-4, 1679-22번지 유적
	29	제주 애월읍 상귀리 353-2번지 유적		62	김해 봉황동 217-4번지 유적
	30	경주 양월리 461-1번지 유적	Ⅺ	63	창녕 교리 386-1번지 유적
	31	경주 방내리 185번지 유적		64	춘천 소양로1가 100-12번지 외 1필지 유적
	32	순천 덕암동 75-7번지 외 3필지 유적		65	울산 문죽리 820-1번지 유적
	33	춘천 우두동 81번지 유적		66	경산 갈지리 산16-1번지 외 2필지 유적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XI	67	공주 봉황동 326번지 유적	XIX	103	고령 지산리 142번지 유적
	68	상주 분황리 868번지 유적		104	춘천 근화동 798-23번지 외 1필지 유적
	69	부여 구교리 387-8번지 유적		105	용인 마평동 574-1번지 유적
	70	제주 용담이동 2779-15번지 유적		106	김해 동상동 797-3번지 유적
	71	제주 고산리 3686-1번지 유적		107	함안 묘사리 산134-6번지 유적
XII	72	부여 쌍북리 344번지 유적		108	함안 말산리 498번지 유적
	73	경주 인왕동 696-2번지 유적		109	강화 옥림리 강화중성
	74	세종 월하리 682-16번지	XX	110	사천 늑도동 23번지 유적
	75	강화 덕성리 295-33번지 외 1필지 유적		111	장흥 봉림리 121-1번지 유적
	76	아산 오목리 44-3번지 유적		112	서울 저동2가 46-27번지 외 1필지 유적
	77	남해 북변리 215-1번지 유적		113	공주 교동 52-2번지 외 3필지 유적
	78	아산 상성리 35-8번지 외 1필지 유적		114	포항 만석리 82번지 유적
	79	경주 구황동 880-9번지 유적		115	경주 사정동 53-4번지 외 1필지 유적
	80	고령 본관리 87-1번지 유적		116	부여 왕포리 79-1번지 유적
XIII	81	경주 탑동 6-1번지 유적	XXI	117	아산 호산리 114-21번지 유적
XIV, XV	82	경주 탑동 6-6번지 유적		118	제주 용담2동 2725-29번지 외 1필지 유적
XVI	83	아산 오목리 44-8번지 유적		119	금산 중도리 73-1번지 유적
	84 85	부여 쌍북리 325번지 유적 부여 쌍북리 325-3번지 유적		120	부여 쌍북리 419번지 유적
	86	세종 월하리 682-22번지 유적		121	광주 장지동 174-1번지 유적
	87	강화 덕성리 295-35번지 유적		122	경주 율동 산3-23번지 유적
	88	김해 서상동 221-23번지 외 3필지 유적		123	경주 율동 산3-22번지 유적
XVII	89	양평 하자포리 244-18번지 외 1필지 유적			
	90	부산 서부리 85번지 외 2필지 유적			
	91	영동 신항리 182번지 유적			
	92	부여 쌍북리 382번지 유적			
	93	의성 대리리 220-8번지 유적			
XVIII	94	경주 죽동리 639번지 유적			
	95	아산 오목리 44-11번지 유적			
	96	춘천 우두동 119-2번지 유적			
	97	경주 방어리 702-1번지 유적			
	98	고령 연조리 237번지 유적			
	99	창원 신방리 창고신축부지 내(국비) 유적			
	100	원주 반계리 1589-2번지 유적			
	101	공주 반죽동 144-2번지 유적			
	102	함안 도항리 462-1번지 유적			

학술조사보고 제416책

2018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

| 110 ~ 116 |

2020년 12월 11일 印刷
2020년 12월 14일 發行

編 輯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http://www.cprc.or.kr)

發 行 : 한국문화재재단(http://www.chf.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02)3011-2173 Fax.02)566-5954
ISBN 978-89-6433-310-5
978-89-6433-018-0 (세트)

印 刷 : 네오시스템
Tel.053)591-1010 Fax.053)591-1075